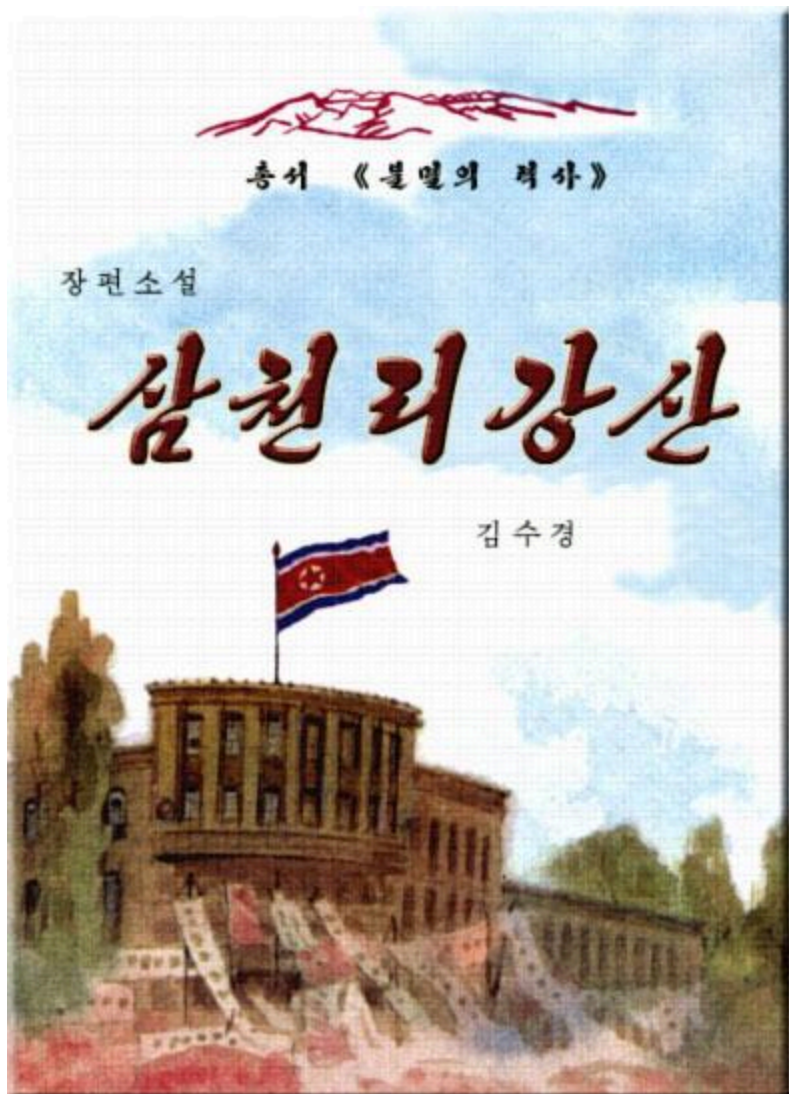


[전체도서목록으로 →](#)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삼천리 강산

김수경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8-09-07]



제 1 장

1

땅을 두드려대는 비발소리는 한결 더 소란해졌다. 고려왕조를 안아키운 송악산도 비에 젖은 어둠속에 잦아들었다. 개성사람들이 흔히 《망월성지》라고 일컫는 송악산 서남쪽골짜기의 기와집들도 비발과 저녁연기속에 가라앉았다.

이 《성지》안의 한 기와집 건넌방에서 갈람한 몸집에 얼굴도 기름한편이지만 관골이 두둑하고 턱뼈가 든든해서 의지가 굳세보이는 40대의 장년이 줄담배를 피우며 앉아있었다. 서울의 실업계와 정계, 지어는 군부에도 정향명이란 아호로 널리 알려져있는 성시백이었다. 그는 새 담배가치에 또 불을 달려다 마당을 건너오는 발자욱소리를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다. 길잡이역인 동행자 마동삼의 발자욱소리라는것을 안 그는 성냥을 그었다.

마동삼은 간데라불을 켜들고 방에 들어왔다. 당시 남조선의 지방은 물론 서울까지도 미군이 북조선에 전기값을 물지 않아 송전이 중단된 후 대부분의 평백성집들에서는 석유 아니면 카바이드를 조명에 리용하고있었다. 마동삼은 30전후의 얼굴이 기름한 건장한 청년이었다. 그는 간데라불통을 벽에 걸며 성시백에게 말했다.

《오늘밤엔 38°선을 넘기 힘들것 같습니다.》

성시백은 말없이 동행자를 쳐다보는데 안경속의 눈은 왜 38°선을 넘지 못하겠다고 하느냐고 묻고있었다.

《이번 충돌은 송악산은 물론 연백일대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38°선을 자주 넘어다니는 장사군들도 길을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모험을 해서라도 38°선을 넘자면 산발을 타야겠는데 비가 사나와서 산을 넘어가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38°선에서 무장충돌이 터졌다는것을 모르고 개성에 온 그들이였다.

《아무리 비가 사나워도 방향은 바로잡을수 있겠지?》

《방향이야 북으로 가면 되는거니까 바로잡구 어찌구 할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먹물속을 뚫고 가는것 같겠는데 오솔길같은것도 찾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위투성이 산비탈을 기여올라가야 하구 거기다 비까지 쏟아져서 미끄럽기까지 하겠는데...》

《그쯤한 난관은 결심하고 떠난 길이 아니요? 내 걱정은 말구 떠나자구.》

성시백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타이르듯 이야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말을 할수 없게 하는 결연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는 어제 오후 마침내 평양방문을 결심하고 출발준비를 서둘렀다. 미중국전구사령관이며 장개석의 수석군사고문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웨드마이어가 대통령특사라는 요란스러운 명색으로 서울에 날아든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며칠동안 언론계, 정계, 군부의 중진들과 빈번한 접촉을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어온 그였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웨드마이어의 서울방문에 깊은 우려를 품고있었다. 우선 남조선에는 대통령특사를 맞이할 정부관것도 없었고 그와 마주앉아 그 무슨 방략을 논의할 상대도 없었다. 정치, 경제, 군사, 립법권, 사법권 이 모든것을 틀어쥔 남조선강점 미군이 있을뿐이었다. 이런 정치의 불모지, 인민의 의사가 가차없이 짓밟히고있는 군정만능지대에 대통령특사라는 요란스러운 명분을 안겨주어 웨드마이어를 서울에 파견하기로 한데는 그 어떤 중대한 목적이 있을것이였다. 트루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아시아며 유럽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확립할양으로 별의별 롱간을 다 피우며 돌아치던 육군참모총장 마샬이 일약 국무장관자리에 올라앉은 후 더욱 악독해지는 미국의 대조선정책, 반공미치광이 웨드마이어의 서울방문은 바로 이 우경화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정책, 민족분렬책동이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군사적도발이 목적이겠는가?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미국의 이 민족분렬책동과 침략행위에 맞서싸워야 할 남조선혁명력량이 올해초부터 급격히 와해되고있는것이였다. 광복의 흥분을 안고 온 남조선땅에 뿌리를 박았던 혁명조직들이 미제침략자들과 그들의 비호와 지지를 받는 친일역적, 지주나부랭이, 월남도주해온 인민의 원수들... 아무튼 인간쓰레기라고 할수밖에 없는 놈들한테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아 무리로 파괴되고있었다.

이런 때 려운형이 사람들의 래왕이 번잡한 대낮에 괴한의 습격을 받고 목숨을 잃는 비극적사태가 발생하였다. 려운형은 선지피가 쏟아지는 가슴을 그러안고 겨우 《조선...》이란 말을 한마디 남기고 절명했다고 한다. 려운형은 민족의 장래를 근심하며 숨을 거두었을것이다.

성시백은 끝맺지 못한 려운형의 유언을 짐작할수 있었으며 그가 절명하면서 필경 느꼈을 민족적재난을 느낄수 있을것만 같았다. 우리 조국의 머리우에 밀려드는 재난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다. 그러자면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는데 어떤 방략을 써야 이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수 있겠는지 성시백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들어야 앞날을 내다볼수 있을것 같았다. 그이를 만나뵈을 결심을 하고 그는 서울을 떠났다.

비에 젖은 무거운 어둠을 헤치며 성시백과 마동삼은 바위투성이 산비탈을 툫아올랐다. 그들은 송악산에서 천마산으로 치달아오른 험한 산릉선을 넘고있었다. 비물이 탕수처럼 쏟아져내리는 가파로운 산비탈을 기여올라가다가는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한발을 올려짚었다가는 두발자욱씩 미끄러져내리기도 했다.

그들은 비발에 젖은 미명의 어둠이 아직도 아아한 산발을 감싸고있을무렵 두어개의 산등성이를 넘는데 성공했다. 량손이며 얼굴이 온통 찌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들은 마침내 새벽빛이 깔린 골바닥에 내려섰다. 지난날에는 분명 논자리였을 바닥인데 버들과 가둑같은 잡관목이며 가막사리, 창포같은 잡초들이 허벅다리를 치게 자라올랐다. 38°선이란것이 생겨난지 불과 두해밖에 안되는데 농민들이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농토가 이렇게도 어수선하게 황폐해진것을 목격한 성시백은 금시에 가슴이 죄여드는것 같았다. 문득 멀리 서쪽에서 새벽정적을 깨뜨리며 자지러질듯한 총성이 울려왔다. 송악산쪽에서 비발에 젖은 회색장막을 뒤흔들며 올려오는 총성이었다. 이날도 치렬한 무장충돌이 계속될 모양이었다.

성시백은 다잡기 어려운 통분함을 느끼며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강요하고있는 38°선이란것이 이 나라의 허리를 어떤 모양으로 동강내고있는지 온몸으로 절감했다. 비발이 얼굴을 때리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잡초속에 아래도리를 파묻고 지난밤 넘어온 거뭇한 산발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넘어온 저 산에는 38°선이 어디쯤을 지나갔소?》

그는 마동삼에게 물었다.

《경비막이 서있으면 거기가 38°선인가부다 하지 똑똑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송악산에서는 싸움이 붙었으니 거기선 이젠 똑똑히 알게 됐겠지요.》

《그래도 경계선을 표시한 표말같은것은 있을게 아니요?》

《나무말뚝을 박아놨다고 하는데 나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38°선을 많이 넘어다니는 장사군들도 그런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도에나 그어져있겠지요.》

성시백의 가슴속에 억이 막힌 분격이, 비애가 파고들었다. 타드는 목안을 담배연기로 달래려는데 속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으나 비에 젖어 범벅이 되어버렸다. 마동삼에게서 담배 한대를 얻어물고 연기를 내뿜으면서 성시백은 저쪽에 바라보이는 폐가인듯싶은 칙칙한 색깔의 검은 그림자를 향해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소 한짝쯤 매고 산골농사를 지었을 너새를 엮은 집이었다. 너새들이 미끄러 떨어진 지붕에도, 깨진 질그릇이 여기저기 널린 뜨락과 토방에도 잡초들이 뒤덮였다. 성시백은 잠시 비를 그으며 다리힘을 할 생각으로 토방우에 올라섰다. 기울어진 폐가의 문지방에 걸터앉아 술가이주했을 너새집농민을 생각하느라니 38°선을 가운데 두고 이런 불행을 강요당했을 수천수만의 겨레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광복의 감격을 안고

끊어번지던 거래의 머리우에 분렬의 비운을 들썩운 외세의 무자비한 침략을 우리 민족이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잠시 휴식을 한 그들은 잡초가 우거지긴 했어도 달구지바퀴자리가 우뚝우뚝 패인 촌길을 따라 북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에 와서는 인적이 끊어졌지만 어쨌든 이 길을 따라 북을 향해 가느라 면 북조선측 경비초소에 맞닥들 것이며 마침내 평양에 이를것이였다.

그러나 무장총들이 빈번한 요즘 38연선에 나와있는 경비대원들은 성시백이 생각한것처럼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맞이해주지 않았다. 30분도 걸지 않아 날카롭게 번뜩이는 총창과 거친 웨침이 그들을 멈춰세웠다. 애젊은 병사들은 마동삼이 나서서 무슨 말을 하건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말보다 성시백과 마동삼이 밀수군 행색을 내느라고 등에 진 미국제약이며 천쫓박들을 더 중시했다. 그런데다 이들의 차림새는 또 어떠한가? 마동삼은 미국병사들이 입다버린것 같은 병사용바지에 역시 병사용반소매샤쯔였으며 성시백은 온통 찌지고 구멍이 나긴 했어도 마카로나 홍콩에서 밀수입한게 분명한 고급미색양복을 입었다. 38°선남쪽에서 미군경비병들에게 걸려들었을 경우를 생각해 행색도 이 모양으로 꾸몄는데 이것이 이제는 우환거리로 된것이다.

이들이 호송병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군보안서에까지 끌려간것은 이날 저녁이였다. 어느덧 늦게로 변한 가느다란 비발이 어둠속에 젖어들고있었다. 성시백의 고향이 자리잡은 평산읍거리에 들어섰다. 방학이면 향수에 젖은 가슴을 울렁거리며 길가운데 서서 주위의 산천을 둘러보군 한, 그 산세에 그 하천이 분명한 고향땅을

죄수처럼 호송을 받으며 걷자니 가슴이 저며지는듯 아팠다. 자신을 달래기도 할겸 이런 취급에 격분한 마동삼이 무슨 일을 칠것만 같아 성시백은 엄격한 목소리로 그에게 주의를 주곤 했다.

《일시 오해를 받은것이니 참아야 하오.》

군보안서에서도 역시 그들을 불법월경한 밀수군취급을 했다. 마동삼이 본격해서 서장을 대면시키라고 웨쳤지만 그의 이런 웨침은 일제의 패주병들한테서 빼앗은듯싶은 붉은 장화에 긴 칼을 찬 그 무슨 과장이란 사람의 자존심만 상하게 했을뿐이었다. 천연초소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다이아징같은 미국약이며 마카오에서 밀수한 천쪼박, 미국경비병들에게 걸려들었을 때 찢러주려던 돈뭉치, 이런것들이 그들을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밀수군취급을 받게 했다. 그들은 랭습한 소방대창고에 처박혔다.

123

2

거대한 도끼로 내리찍은듯한 절벽을 감돌기도 하고 하늘에 닿을듯한 높은 령을 오르내리기도 하면서 압록강을 한옆에 끼고 허연 띠와 같은 신작로가 연연히 뻗어나갔다. 엇그제까지 쏟아져내린 장마로 해서 돌머리가 드러나고 땅이 패이기는 했지만 간진 아낙네가 행주질을 한것처럼 신작로는 거울처럼 여름해빛을 눈부시게 반사하고있었다.

씻고 닦아낸것 같은 이 신작로를 두대의 자동차가 고르로운 속도로 달리고있었다. 앞차는 곤색승용차였으며 뒤따르는 자동차는 풍차였다. 앞차에는 내륙의 북변지방을 현지도중인 **김일성**동지께서 앉아계시였으며 뒤따르는 풍차에는 김일이 타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에 밴 심산속의 청신하고 상쾌한 정취에 취한듯 강건너 대안을 바라보기도 하고 여름의 강렬한 빛발을 걸탐스럽게 빨아들이며 우적우적 키돋음을 하는 산비탈의 무성한 초목에 마음을 두고계신듯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이께서 주의를 집중해 귀를 기울이고계시는것은 압록강연안 중국의 동북땅에서 올려오는 포성이었다. 2천리장강의 강폭이 좁아지고 내륙의 산악지대에 들어설수록 대안에서 올려오는 포성은 더 자주 가까이에서 들려오군 했다. 만주땅에서는 중국혁명의 운명을 건 처절한 대격전이 전개되고있었다. 현재 름방의 혁명가들은 일대 시련을 겪고있었다.

쏘련은 제2차대전시기 파괴된 경제를 복구할 시간을 얻을 생각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피해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시켰다. 름방의 혁명군은 발전된 중공업에 비옥하고 광활한 땅이 펼쳐진 동북3성을 전 중국해방을 위한 근거지로 만들 전략적목적을 세우고 재빨리 만주에 진출했다. 바로 이러한 때 웨드마이어는 본국의 지령을 받고 현대적인 전쟁잉여무기로 무장시킨 30만의 장개석군대를 비행기와 함선으로 동북지방에 투입하여 중국혁명군에게 말할수 없이 참혹한 타격을 가했다. 지난 겨울에만도 동사자가 10만에 이르렀다고 하니 얼마나 엄중한 타격을 받았는지 가히 짐작할만 했다. 혁명군은 남만과 북만의 산악지대로 철수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 2만 5천리장정을 단행하여 북중국에 건설했던 혁명근거지도 광란적인 장개석군의 공격을 받아 모택동, 주은래, 류소기와 같은 지도자들의 생사도 알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웃나라 혁명가들이 겪고있는 시련을 방임할수 없으셨다. 단동교외의 어느 한 별장에서 중국의 혁명가들과 마주앉아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전환을 이룩할데 대해 의견을 나누신것은 중국혁명이 벌써 시련기에 들어섰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도 건국도상의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회의에서 결정된대로 민주련군(혁명군)이 하루빨리 반격으로 이행할수 있게 막대한 지원을 주고계시였다. 무려 10만정의 총기류와 포, 방대한 군수물자를 민주련군에 보냈으며 작전상 필요할 때는 우리 나라의 교통망을 리용해 민주련군이 이동할수 있게 하셨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을 중국혁명에 참전케 하여 무려 25만이나 되는 청년들이 총을 들고 용약 전투에 떨쳐나섰다. 그러나 압록강이 유유히 흐르는 대안의 평야지대와 료동, 심양, 장춘, 길림... 대도시를 비롯한 광대한 지역은 의연히 장개석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전투는 주로 사평가와 남만의 산악지대에서 치렬하게 전개되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땅을 파헤치고 뒤번져놓으며 대안에서 올려오는 폭음을 들으면서 민주련군이 빨리 시련을 이겨내기를 바라고계시였다.

발전소에 이른 장군님께서서는 일제놈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대형변압기를 대보수하고있는 로동자들을 고무해주고나서 김일과 함께 언제에 오르시였다. 장개석군대가 두번이나 래습한 언제를 돌아보면서 침범의 규모를 현장에서 료해하셨다.

김일에게서 래습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료해한 그이께서는 물으시였다.

《파괴에 목적이 있는것 같소? 위협에 목적이 있는것 같소?》

《규모로 보아 위협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침해하면 한놈도 돌려보내지 않고 호수의 고기밥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오. 파괴도 못하고 위협도 못한다, 우리에게 감히 달려드는자들은 저 짙은 호수의 고기밥이 되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알게 해야 하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군님의 단호한 말씀에 김일은 차렷자세를 취하면서 말씀드렸다.

발전소의 경비를 철석같이 다질 방도를 세워주신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을 급히 돌려보내셨다. 압록강하구의 황초평(황금평)을 장개석군이 점령했다는 긴급전화연락이 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압록강에서 얼마쯤 내륙쪽으로 굽어들어간, 유난히도 계곡의 물결소리가 드높은 한적한 산간의 농촌마을에서 하루밤을 쉬시였다.

계절이나 사업의 경중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하루의 첫 일과가 시작되였다. 들추어대는 자동차에 앉아 수백리 먼길을 현지도해오신 그이께서 미명무렵에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을 하려고 마루에 나서신것이다. 부잇한 미명무렵의 안개가 장막처럼 드리워있었다. 그 새벽장막속에서 두세명의 호위원들에게 둘러싸인 꺾두룩한 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무슨 말인가 하고있었다. 뜨락 한귀의 거밧한 토담밑에 보이지 않던 오토바이가 내던진듯 놓여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순간 긴장감을 느끼시였다. 그이께서 이 한적한 농촌에 계신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김책밖에 없었다. 김책은 웬만한 중대사가 아니고는 현지도중인 장군님께 연락군관을 파견할 사람이 아니다.

마루에 나서신 장군님을 본 연락군관은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정자로 그이앞에 와서 보고를 드렸다. 김책동지의 명령을 받고 도착했다는 보고였다. 온밤 산길을 달려오느라고 얼굴에 땀이 번질거리는 군관은 야전가방에서 한통의 문건을 꺼내 장군님께 드렸다. 그이께서는 문건을 들고 조그마한 방에 도로 들어가셨다. 놀랍고도 긴장하지 않을수 없는 보고를 두세번 읽은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마루에나서시였다. 호위성원들에게 에워싸여 평양소식을 이야기하던 연락군관은 토방에 내려서시는 장군님앞에 다가와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회답을 주려고 방에서 나오신줄 안것이다.

《수고했소. 푹 쉬시오.》

옆에 서있는 책임부관에게 회답을 줄 때까지 연락군관을 휴식시키라고 지시한 그이께서는 몽몽한 물안개가 늪실거리며 피여오르는 골안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였다. 비통한 심회가 쇠덩어리처럼 무겁게 명치끝에 매달린듯싶고 분격이 뇌리를 지지는듯한 심정이였지만 그이께서는 애써 마음을 녹잡히며 소란스러운 물결소리가 울려오는 골짜기를 오르시였다. 물안개에 축축히 젖은 바위들사이를 걸으시는 장군님의 눈앞에 짙은 우수와 풀길없는 의문으로 해서 이그러진 려운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려운형의 놀라운 모습에 문뜩 걸음을 멈추시였다.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평양에 찾아들어오군 한 려운형에게서 한번도 느낀적이 없고 본 일도 없는 모습이였다. 그는 침통한 얼굴로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엄혹한 난국을 어떤

방략으로 타개하시려는가 묻고있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축축히 젖은 바위앞에 서서 소용돌이치는 물안개속을 들여다보며 귀가에 들려오는것 같던 려운형의 물음을 생각해보시였다. 안타까운것은 그의 물음에 혼연하게 대답할 방략이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그이의 눈앞에 웨드마이어의 어렴풋한 모상이 건뚝 스쳐지났다. 신문 한귀통이에 난 사진을 건뚝 스쳐본적이 있을뿐이여서 뚜렷한 표상을 눈앞에 그릴수는 없으시였다. 김책은 련락군관을 통해 려운형이 암살당했다는 뜻밖의 사변과 함께 근간에 대통령특사의 명목으로 서울에 날아들게 될 웨드마이어가 고아대고있는 망발을 장군님께 통보해드렸던것이다. 맥아더와 함께 웨드마이어가 떠들어대고있는 망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혁명을 지원하는 북조선을 가차없이 징벌하겠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겨 성급히 뒤설레며 바위머리를 씻고 때리면서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급류기슭을 따라 걸으시였다.

김책이 보고한 두개의 사태가 하나의 고리로 련결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연한 일치인가? 우연한 일치라고 해도 사태는 결코 가볍게 대할수 없는,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있다는것을 뜻하는 징조였다.

그것은 려운형이 민족의 량심을 대변한 정치인으로 인정되어왔으며 미군도 남조선인민들의 민심을 고려하여 그를 감히 다칠 생각을 못한 사정과 관련된다. 반대로 미군은 자기네의 무지막지한 군정을 마치 민주주의가 시행되고있는듯 가장해보려고 좌우 수평관계를 유지한다고 떠들면서 려운형을 남조선좌익의 대표자로 대우했다. 미국놈들은 려운형을 미군사령부에 불러들여 그 무슨 부탁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경찰을 붙여 경호를 책임지겠다는 제의를 하기까지 했다. 물론 려운형은 미군의 이런 유혹들을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거절해왔다. 이런 그가 백주에 참혹한 암살을 당한것이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민심도, 남조선정계에서 려운형이 차지하고있는 위치도 고려함이 없이 가차없는 폭압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했다. 웨드마이어가 고아대고있는 망발도 군사행동전야에서만 볼수 있는 사태였다.

그런데 웨드마이어가 군사적목적으로 서울에 날아든다면 무엇때문에 대통령특사라는 명분을 붙였는가? 리치로 따지면 맥아더사령부나 육군성의 군인이 찾아오는것이 자연스러울것인데 미중국전구사령관에 장개석의 수석군사고문에 지나지 않는 그 반공광신자를 대통령특사라는 요란스러운 명색을 붙여 서울행각을 시키는가?...

두개의 사변이 하나의 고리로 련결되어있다고 해도 어쩐지 사개가 잘 물리지 않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렇다면 군사행동을 훨씬 벗어난 모종의 은밀한 사명을 지니고 서울에 날아든다는것인데 그것이 뭇이겠는가?...

새벽안개가 눈부신 아침해발에 황금빛으로 물들무렵 숙소에 돌아온 그이께서는 한장의 백지에 김책에게 보내는 회답을 쓰셨다.

《사태를 더욱 심도있게 밝히시오.》

장군님께서서는 현지도도를 끝내고 귀로에 오르셨다. 궁벽한 산간벽지인 대령군내에 들어서면서 마음도 어깨도 한결 가벼워지는듯싶으시였다. 검푸른 전야에 새벽이슬을 차며 논밭에 나온 희끗희끗한 농민들의 모습도 수많이 볼수 있었지만 다른 고장에 비해 새로 지은 기와집이 류달리 많이 보였다. 하긴 토지개혁후 한해농사를 지었을뿐이지만

북반부의 농촌들에서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축하거나 추녀를 하늘높이 추켜든 덩실한 기와집을 도처에서 일떠세우고있었다. 그러나 땅이 척박한 이 산골군처럼 기와지붕에 회가루칠까지 산뜻하게 한 기와집을 저렇듯 많이 세운 고장은 보기 어려우시였다. 대령군에 곤궁한 생활속에 파묻혀살던 산간농민들을 민주건국의 밝은 세상에 이끌어내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 일군이 있는 모양이었다.

승용차가 또 한굽이 산모퉁이를 돌아섰다. 저만치 앞의 산기슭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북적거리며 일을 하고있었다. 옷도리를 벗어던지고 곡괭이를 휘두르는 젊은이, 팽이로 찍어낸 흙을 가래질을 해서 산기슭에 올려던지는 중년, 옹구에 뿔인가를 무겁게 담아실은 소의 걸음을 재촉하는 농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고장이여서 밭에 쏟아져내린 사태를 쳐올리면서 사방공사를 하는가 했는데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신작로옆에 세운 게시판에 전망도같은것이 붙어있는것이 눈에 띄여 자동차를 멈추게 하셨다. 군의 경내에 들어서면서 느낀 새로운 정취의 일단을 아실수 있을것 같았기때문이었다.

게시판에는 수리화공사의 전모를 그린 전망도가 붙어있었다. 전망도라고 해야 대령군경내에서 벌써 몇번이나 본 《쌀이 없이는 건국도 없다!》라는 힘찬 글밭이 씩여있는 그밑에 서툰 솜씨로 강과 산을 그리고 논으로 풀 예정인 평지에 푸른 색칠을 한 극히 단순한 그림이었다. 대령강으로부터 산기슭을 따라 오불꼬불한 곤색선을 그려놓고 그옆에 수로라고 먹글씨를 쓰기는 했지만 그림을 보아서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고 논으로 풀 땅은 몇정보나 되는지 바이 알수 없었다. 밭농사에 습관된 산간농민들이 논농사를 지으려고 수리화공사를 시작한것도 새로운 기상이 낳은 현실일것이다.

그이께서 공사의 규모와 진행정형을 설명해줄수 있는 상대를 찾아 공사장을 바라보시는데 아이를 업고 가래줄을 당기던 녀인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녀인은 달려오며 머리를 비듬기도 하고 저고리의 앞섶을 여미기도 한다. 치마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아이를 등에 업고있어 마음만 조급할뿐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군님 가까이 다가오는 녀인의 해별에 그을은 얼굴은 이 산골에서 그이를 뜻밖에 뵈게 된 감격으로 해서 벌써 별정계 상기되어있었다. 녀인은 장군님앞에 와서 정중하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모라니가 문안을 드립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크고 거칠거칠한 부위원장의 손을 힘있게 부여잡으시였다. 땀발이 굴러내리는 검실검실한 얼굴이며 검은 고무신을 신은 흙투성이 맨발, 발이 굵은 반베저고리는 땀에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아이를 업고 가래줄을 당기느라고 그 모양이 된것 같다. 열성도 능력도 있다고 해서 간부로 등용하면 자신의 지난 처지를 잊어버리고 일제시기의 관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한둘만 보아오지 않은 그이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북조선인민들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 근절케 하려고 간부란 말대신 지난날 품을 파는 머슴이나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낱말인 일군이란 말을 쓰게 하는 조치까지 취하셨지만 간부들의 전횡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대령강가의 크지 않은 수리화공사장에서 농민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있는 허술한 차림새의 여성간부를 만나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상대가 여인이 아니라면 어깨를 와락 그리안고싶은 심정이지였다.

그이께서는 전망도를 가리키며 여성부위원장에게 물으시였다.

《이 전망도는 누가 그렸습니까?》

녀인은 자신의 서툰 솜씨를 장군님께 보인것이 부끄러운듯 얼굴을 붉히며 나직한 음성으로 답변을 드렸다.

《농민들에게 신심을 주자면 이런것이 필요할것 같아 몇사람이 모여앉아 그리기는 했는데 손에 선 일이여서 잘 되지 않았습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부위원장을 칭찬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자기네 고장이 어떻게 변천되어가고있는지 알수도 있고 신심도 가질수 있습니다. 특히 알곡증산은 곧 건국이라는 당의 구호를 전망도에 써넣은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 전망도에 푸르게 색칠한 곳이 앞으로 개답할 땅입니까?》

그이께서는 농민들의 희망을 상징하듯 푸른빛으로 색칠한 곳을 가리키며 물으시였다.

《개답할 밭도 있고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논도 있습니다. 작년에 열두정보를 개답했는데 수로를 짜면 스물세정보를 논으로 만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산골에서 서른다섯정보면 대단합니다. 아주 큰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길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부위원장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쭈뼛거리기만 했다. 대령강에서 논을 풀 평지까지 물길을 쟀다, 이런 식으로 대체적인 계획을 세웠을뿐 수로의 총연장길이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다.

《알겠습니다. 산굽이를 한두개 돌면 논고장으로 만들수 있는 평지가 보이니까 물길의 총연장길이를 재지 않고 공사를 생각했을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왜 물길의 총길이를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손가락을 꼽으며 말씀하셨다. 우선 로력과 자재, 공사기일을 예정할수 있고 물길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질조건을 알아내서 반복시공을 없앨수 있다...

《그렇다고 이미 시작한 공사를 계획을 세운다, 물길의 길이를 쟀다 하면서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밭농사, 부대기농사에 매달려살던 농민들을 논농사를 지을 결심을 하게 한것만도 큰 일이였겠는데 이제와서 공사를 중지하면 영향이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 가서 기술자를 보내줄테니 그 동무들의 방조를 받으면 됩니다.》

녀인은 자기가 겪은 고충까지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자심한 말씀에 눈굽이 뜨거워진듯 잠시 머리를 떨구고 서있었다. 그이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부위원장은 눈굽을 훔치며 기쁨에 넘친 얼굴을 들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응당 도나 농림국에서 도와주어야 할 일인데 고마와할것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신작로 한옆에 누운 논배미들가운데서 농민들이 일하고있는 유난히도 검푸른 논을 가리키며 물으시였다.

《저 논은 종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농법이 달라서 저렇게 벼가 잘 됐습니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논입니다. 이 고장에 <봉건>이란 말을 듣는 최씨성을 가진 늙은이가 한분 계시는데 언젠가 나들이를 갔다가 알아가지고 온 방법을 이 고장의 실정에 맞게 해본 영농법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해토무렵에 논에 모판을 짓고 종자를 뿌린 다음에 싹이 열지 않게 거적이나 검불을 덮어주면 됩니다. 생육기일을 한 보름 단축할수 있습니다.》

보름을 단축하면 이 고장과 같이 여름이 짧은 산골에서도 벼농사를 지을수 있을것이다. 이런 영농법을 알아가지고 온 로인을 어째서 《봉건》이라고 하는가? 씨족마을을 꾸러놓고 좌상행세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들을 하는가?...

《그 최씨성을 가진 로인을 어째서 <봉건>이라고 합니까?》

《최뫼라고 하는 대마도에 끌려가서 왜놈의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죽은 량반과 같은 본이라면서 어떻게나 <봉건>을 내세우는지, 로인님도 아직 상투를 틀고있구 자식들도 머리태를 자르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태를 자르지 못해서 아이들이 동네밖에 나올 생각도 못한다고 했다. 그래 마을에 꾸러놓은 서당에서 주로 공부를 한다는것이다.

《저 논에서 지금 일을 하고있는 동무도 그 <봉건>이란 말을 듣는 로인의 집안입니까?》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게시판옆의 논배미에서 일하고있는 농민들가운데 머리태를 등뒤에 길게 늘인 청년이 한명 보였다. 논에서 일하던 농민들은 방금 승용차에서 내린분이 자기네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시는것을 허리를 펴고 바라보고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로인의 아들입니다.》

《저 청년의 나이가 올해 몇살입니까?》

《용근 나이로 해서 올해 열여덟살입니다.》

《저 청년도 주로 서당공부를 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직한 음성으로 답변을 드렸다. 끝끝한 한 청년이 고루한 구습의 장벽에 부딪쳐 한창나이의 청춘시절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낸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양이었다.

부위원장이 장군님께 문득 말씀드렸다.

《장군님, 민전에 <공자동맹>을 내올수 없습니까?》

민전에 유교동맹같은것을 내오면 최로인을 개조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뜻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위원장의 심정을 리해할수 있었지만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실수는 없었다. 광복전에 유교교리를 신봉하던 북조선의 유학자들은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 이미 사상적전환을 했는데 산간의 몇명 안되는 늙은이들을 위해 새삼스럽게 유교동맹같은것을 내올수는 없었다.

《남조선민전에는 유교도련맹이 있지만 우리 북조선에는 유교교리에 깊은 학식을 가지고있는분이 몇명 없기도 하지만 유교를 숭상하던 사람들은 대체로 학식이 깊어서

유물보존이나 역사학계통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북조선민전에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은 저으기 실망한 빛을 지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유교교리의 피해를 입어 일생을 망칠수도 있는 군내의 한 청년을 걱정하는 부위원장의 세심한 마음에 못내 감동되시였다. 어떻게 해서든 부위원장을 도와주고싶으셨다. 그이께서는 책임부관을 돌아보며 나직이 이르시였다.

《저 논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부르시오. 머리태를 늘인 젊은 동무를 꼭 데려오오.》

농민들은 황급히 어지러운 종다리를 도랑물에 씻기도 하고 옷매무시를 바로잡기도 하며 얼마간 시간을 보냈다.

그사이에 그이께서는 부위원장에게 물으셨다.

《공부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녀인은 불깃해진 얼굴을 숙이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을 드렸다.

《8. 15전에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광복후에 성인학교에서 배우고 군녀맹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부위원장사업을 하면서 성인학교 교원노릇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 광복전에는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한 녀인이 광복후 속성교육을 받고 지금은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사업을 하고있는것이였다. 아이를 등에 업고있는것으로 보아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인것이 분명한 30대의 녀인이 부위원장사업에 성인학교 교원까지 하자면 여간만 드바쁘지 않을것이다.

《아이는 몇이나 됩니까?》

《좀 많습니다. 제 등에 업힌게 넷짹니다.》

《넛?...》

장군님께서서는 사뭇 놀라며 강냉이알같은 든든한 웃이가 드러나군 하는 녀인의 두리두리한 얼굴을 다시한번 여겨보시였다. 시부모와 남편이 아무리 뒤를 잘 받쳐준다고 해도 아이 넛을 슬하에 둔 녀인이 성인학교 교원까지 한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건국을 위해 한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있는 녀성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세명의 농민이 승용차 가까이에 오기는 했으나 더 다가설념을 못하고 그저 웅기중기 서서 주뭇거리고있었다. 부위원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왜 그러구 섰어요? 장군님께서 부르셨는데 어서 와서 인사를 드리라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뒤를 돌아보셨다. 농민들은 장군님을 뵈게 된것이 그저 꿈만 같고 오늘의 이 행운을 도무지 믿을수 없는듯 환희에 넘친 눈으로 그이를 우러렸다. 그들은 부위원장의 말을 듣고서야 황송한 몸가짐으로 그이앞에 와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러나 큰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한것처럼 주눅이 든 중키의 최성근이란 청년은 나이지속한 농민들처럼 웃음을 깊이 숙이지 못했다. 등뒤의 머리태를 장군님께서 보실것 같아 웃음을 깊이 숙이지 못한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최성근앞에 다가가 너그러운 웃음을 웃으며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농민들과 올해의 작황을 묻기도 하고 가정형편을 알아보기도 한 장군님께서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서있는 최성근만을 뒤에 줌 남으라고 하고는 다른 농민들은 돌려보내시였다.

《부위원장동무의 말을 들으니 서당공부를 했다는데 어디까지 공부를 했소?》

최성근은 부끄러운 자기의 생활을 장군님께 말씀드리게 된것이 못내 죄송스러운듯 머리를 수긋한채 알아듣기 어려운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맹자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사서를 뿔다는 말인데 그만하면 서당공부를 많이 했구만. 신식공부는 어떤 공부를 했소?》

《부위원장아주머니가 성인학교교재를 갖다주어서 2학년과제를 공부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위원장이 이 청년을 고루한 《봉건집안》에서 끌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으시였다.

《2학년과제를 공부하고있으면 중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말인데 조무래기들하고 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결심이 되어있소? 성인학교는 아무래도 정규교육이라고 할수 없으니 이제 이 군에도 중학교가 서면 중학공부를 할 결심이 되어있는가 하는것이요.》

최성근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머리를 무겁게 떨구고 서있기만 했다. 그 모양을 안타까운 눈길로 지켜보던 부위원장이 불쑥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최성근동무는 군대에 입대하고싶어합니다.》

《군대에?》

부위원장의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장군님께서서는 자못 놀라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시였다. 봉건의 마지막피해자가 혁명군대에 입대한다는것은 당치 않은 일같지만

한편 또 생각해보면 그것이 선진대렬에 들어서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일수도 있었다. 항일유격대에도 봉건적가정에서 뛰쳐나온 청년들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군대에 입대하자면 머리태를 잘라야겠는데 아버지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경비대나 보안간부훈련소에는 본인은 물론 부모가 찬성했을 경우에만 입대할수 있습니다. 부위원장동무는 최령감님의 동의를 얻어낼 자신이 있습니까?》

녀성부위원장은 난감한 빛을 지으며 머리를 숙였다.

《군대에 입대하자면 아버지를 납득시킬 용감성짚은 있어야 하겠는데 최성근동무 어떨소?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낼 자신이 있소?》

수긋하고 서있던 최성근의 머리는 더욱 무겁게 밑으로 처져내리고 어깨는 한결 더 우그러들었다.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낼 자신이 없는 모양이었다.

《만일 최령감님이 아들의 입대를 찬성하면 부위원장동무가 최성근동무를 가까운 부대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 동무의 입대를 찬성했다고 말하시오. 지금은 더 많은 알곡을 내서 건국에 이바지할 생각을 하면서 성인학교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정중히 드리는 최성근의 손을 다시한번 힘있게 잡아주며 말씀하시였다.

《자기의 장래는 자신이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오.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낼 방도를 생각해보시오.》

저만쯤에서 맥고모를 머리우에 올려놓은 사나이와 또 한명의 민머리의 중년이 달려왔다. 장군님께서 신작로에 자동차를 멈추고 군사업을 지도하고계신다는것을 뒤늦게 전달받고 달려오는 군간부들이였다. 그들은 장군님앞에 달려와 인사를 드리며

자기 소개를 했다. 맥고모를 벗어친 사나이는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그옆의 사나이는 부위원장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인사를 받고나서 지금 진행하고있는 수리화공사에 매일 몇명의 로력이 동원되고있는가? 군기관들에서는 어떤 방조를 주고있는가? 이런저런 문제를 알아보시였다. 그런데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곧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어 김모라니라는 별스러운 이름을 가진 녀성부위원장의 얼굴을 돌아보군 했다.

《이 군에 들어서면서 보니까 새로 기와집을 많이 지었는데 토지개혁후 개축하거나 새로 지은 기와집은 몇채나 됩니까?》

그이의 이 물음에도 아이를 업고있는 녀성부위원장이 답변을 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군의 경내에 들어서면서 느끼게 된 농촌의 새로운 면모며 농민들의 양양된 건국기상은 아이를 넷이나 두었다는 부위원장의 노력에 의한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승용차에 오르기전에 군일군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셨다. 현시기 농업부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알곡증산이다, 알곡을 증산하자면 수리화를 해야 하고 선진적인 영농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 군에서는 이 모든 일을 다하고있으니 다른 산간군보다 앞섰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일군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시작한 일을 끝까지 내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기껏 시작한 좋은 일도 훌륭한 결실을 얻을수 없다. 무엇을 놓고 한덩어리가 되어야 하는가? 대령군에서 발휘되고있는 건국기상이 활짝 꽃피고 열매를 맺을수 있게 하는 사업을 놓고 단결해야 한다...

《지금은 건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수고를 해주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일군들의 손을 또 한번 굳게 잡으시고 자동차에 오르시였다. 남으로 달리는 승용차의 앞창을 향해 푸른 하늘이 달려왔다. 그이의 눈앞에 또다시 려운형의 그 무엇을 묻는듯한 우수에 잠긴 눈길도 귀전에 웨드마이어의 망발이 들려왔다. 그러나 려운형의 눈길도 웨드마이어의 망발도 어느새 사라지고 강냉이알같은 앞이가 드러나군 하는 입을 북두갈구리같은 큰 손으로 가리우며 산골군의 장래를 확신에 넘쳐 이야기하던 녀성부위원장의 얼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북조선 도처에서 앞을 다투며 태어나는 수천수만의 새 인간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의 머리우에 드리운 엄혹한 정세를 타개해나갈 방략을 모색하시였다.

3

해방산을 동남방향에서 두팔로 그리안듯 한 북조선인민위원회청사의 1층에 자리잡은 김책부위원장실은 아침부터 삼복허리의 뜨거운 해별이 마루바닥을 따잡게 지저뎠다. 방안은 마치 한증탕에 들어앉은것처럼 무더웠다. 그러나 부위원장은 달긴양복저고리의 목단추조차 벗기지 않은 엄정한 모습이였으며 그와 앞상을 사이에 두고앉은 기획국장 정준택도 눈부시게 흰 와이샤쯔에 넥타이까지 맨 단정한 차림새였다. 그들이 이렇게 엄정하고 단정한 차림새로 마주앉은것은 장군님께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계시며 지금 총화하게 되는 채굴공업부문을 얼마나 중시하시는지 알고있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 경제계획작성그룹의 한 성원이

되다싶이 하여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세우시면서 제일 중요시한 부문이 채취공업이었다.

일제강점하에서 기형화된 경제를 바로잡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더 많이 캐내야 했고 광석을 많이 채굴해서 제철소와 제강소에 보내주어야 철을 생산해서 건설도 하고 일본놈들이 자기 나라에서만 완제품을 만들던 기계도 자체로 생산할수 있었다.

김책은 간간하게 검토하던 문건에 연필로 표시를 하고나서 얼굴을 들었다. 계산척을 놀리기에 여념이 없는 정준택을 지켜보던 그는 기획국장이 계산을 끝내고 문건에 수자를 기입해넣었을 때에야 입을 열었다.

《유선은 계획을 못한 탄광인데 어째서 고려해줘야 할 대상에 넣었소?》

《채산상으로는 계획을 못했지만 탄은 계획량을 초과했습니다. 보고에 써넣지 못한 사정이 있는것 같아 고려대상에 넣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총화를 독립채산제의 원칙에서 진행한다고 지배인들에게 통고했는데 인민위원회명의로 내려보낸 문건을 우리가 먼저 위반해서야 되겠소? 비판할것은 비판하고 알아볼것은 알아보는게 좋겠소.》

《알겠습니다.》

정준택은 수건을 꺼내들고 이마에 맺힌 땀발을 씻었다. 그들은 지금 채굴공업부문 지배인회의를 준비하고있었다.

문득 김책의 사무탁우에 놓인 전화기에서 나직한 신호가 울렸다. 김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송수화기를 들었다. 언제나 직방치기인 내무국장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튀어나왔다.

《38°선에서 밀수군을 두놈 체포해서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마흔두살이라고 하는놈은 앓는 흉내를 내면서 일체 말이 없구 젊은놈이 갈개면서 부위원장동무를 만나게 해달라고 고아댁니다. 앓는 흉내를 내는놈은 정향명이라고 하구 그자를 따라다니는 놈은 마동삼이라고 한답니다.》

김책은 잠시 송수화기를 든채 기억의 갈피를 더듬었다. 면회를 요청하는 두사람의 이름이 언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불쑥 망각의 껍질이 터지면서 근 두해전의 일이 불현듯 눈앞에 떠올랐다. 조국이 광복된 그해도 저물어가던 12월 그믐께 장군님을 찾아왔던 중년사나이의 별호가 분명 정향명이였다. 본명은 성시백이라고 했다. 김책은 우선 내무국장의 말투를 힐책했다.

《동무, 그 말버릇을 고치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왜 고치지 못하오? 나를 찾아왔으면 만나게 하는것이 도리인데 놈이 뭐요? 놈이! 부관을 보낼테니 그 두사람을 나한테 보내시오.》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김책은 곧 부관실에 나가 지시를 했다.

《내 자동차를 가지고 내무국에 가서 국장이 내주는 두사람을 려관에 들게 하시오. 남조선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군 하는 고려호텔이 좋겠소. 내가 호텔에 갈 때까지 동무는 거기에 있으시오.》

김책이 성시백을 처음 만나본 그날은 유난히도랭혹한 추위가 창밖의 대기를 굳게 얼어붙인 밤이었다. 당중앙청사의 집무실에서 장군님께서 김책이와 함께 정권건설문제를 가지고 심중한 의논을 하고있는데 부관이 먼저 동북행영 화교판사처 부처장 겸 정치주임이라는 직명을 밝힌 명함을 들고 들어오고 뒤어어 책임부관의 안내를 받으며 중키에 얼굴이 갱끗한 중년사나이가 방안에 들어섰다. 그는 장군님께 오늘에 이른 자기의 과거를 놀랄만큼 간명하면서도 설득력있게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리진룡의 의병대에서 참모장까지 지낸바있는 애국자로서 자신의 무력을 한탄하며 광복전까지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양으로 고향인 황해도 평산군 주상리에서 땅을 두지며 여생을 보냈다. 성시백은 22살에 조국광복의 큰뜻을 안고 중국에 망명, 상해에서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 중공계신문의 편집원, 장개석의 배신에 격분한 상해로동계급의 폭동이 참혹하게 실패한 후 주은래의 지도를 받으며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대렬을 정비하는 지하투쟁에 참가, 장개석도당에게 체포되어 9년간의 감옥생활, 등이 얼마간 구부정한것은 이 고역에 찬 옥중생활이 가져다준 후유증이라고 했다. 서울중동중학교에서 배우고 옥중에서 더 깊이 익힌 영어와 프랑스어, 일본말에 능한것이 빌미가 되어 중국에서는 그래도 개명했다고 하는 군벌 염석산의 눈에 띄여 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정교사가 됐다. 성시백의 높은 지성과 그가 즐겨 화제에 올리는 《안로분배주의》(로동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가 염석산이 마음을 의탁한 그리스도교리와 비슷한데가 있다고 하여 그의 말동무로, 숨은 책사로 되었다. 일본놈들에게 징집되어 중국전선에 끌려왔던 10여명의 《학도병》 출신 조선청년들이 염석산이 차지한 제2전구에 탈출해왔다. 성시백은 그들을 데리고 장개석정부의

림시수도인 중경으로 갔다. 거기에 상해에서 안면을 익힌 립정의 민족주의자들을 비롯해 조선의 망명객들이 집결해있었다. 압록강을 끼고 간고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계시는 **김일성**장군부대를 찾아가고싶었지만 왜놈들의 점령지역을 만수천리나 뚫고나간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에 망명한 독립운동자들의 집결처라고 하지만 그것은 뿔뿔이 헤어진 류랑객들이 랭습한 안개의 도시 중경에 모인것 같은 모양이었다. 백명안팎의 독립운동자란 사람들이 그 무슨 당, 그 무슨 동맹이란것을 대여섯개나 조직해가지고 어느 당, 어느 파 하면서 반목질시하고있는 모양이 하도 어이가 없어 웃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성시백은 일제와의 결전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이런 반목질시는 민족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립정을 반대하는 당, 반대파지도자들을 납득시켜 김구를 수위로 하는 구국전선을 형성케 했다. 이것은 파벌싸움에 시달리고 궁지에 몰린 김구를 《기사회생》(죽음에서 벗어나 삶을 찾는다는 뜻)시킨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는것을 의미했다. 김구는 **김일성**장군님의 항일무장력량과 연합하여 조국광복의 성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정향명의 제기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여 립정의 《국무회의》에서 조종의 산 백두산에 사령부를 두고계시는 **김일성**장군님께 편지를 보내는데까지 이르렀다.··· 성시백은 태평양전쟁이 끝나자 곧 중경을 출발하여 동북으로 옮겨왔으며 행정권을 장악한 《동북행영》 밑에 붙었다. 그는 국민당정부시종실과 염석산의 유력한 소개신을 주머니에 넣어두고있어 그닥 명색있는 부서도 아닌 화교판사처라는것을 곧 조직할수 있었으며 처장엔 중국사람들한테 얼마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올려앉히고 자신은 부처장 겸 정치부장이란 명목으로 사실에 있어 판사처의 실권을 틀어쥐였다.

성시백은 조국에 개선하신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고싶어 찾아왔다면서 심양의 실태도 말씀드렸다. 현재 심양에는 3만이나 되는 교포가 모여들었는데 그중에는 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셨기에 북조선으로 나올수 없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도 끼여있다고 했다. 이자들은 미군이 강점한 남조선에 가야 산다면서 반동세력과 련계를 맺고 남으로 도주하고있다. 미국놈들도 《동북행영》과 련계를 맺고 지난날 일제놈에게 붙어먹던 패덕한들가운데서 군대, 경찰, 첩보사업에 경험있는자들은 서울에 데려가고있다...

《앞으로 미국놈들은 이자들을 발판으로 삼아 반동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조선혁명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할것입니다. 이자들과 투쟁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조국은 앞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을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이 정세를 예리하게 판단할줄 아는 사람이라는것을 간파하시였다. 조국앞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복의 열파에 들떠 공연히 주먹을 내두르고 웨치며 뛰어다니고있을 때 미제의 침략이 앞으로 어떤 양상, 어떤 형태로 감행될것인지를 벌써 감측한 사람이 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에게 언제 조국에 돌아올 예정인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귀국하면 중요한 직책을 맡길 생각이신것 같았다. 그런데 성시백은 북조선이 아니라 남조선으로 갈 결심을 했다는것이였다.

《평양에 와서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을 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조선정세가 앞으로 우리 나라 혁명에 난관을 조성할것은 뻔한데

사업하기 유리하다고 북조선에 올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남조선에 가서 혁명을 계속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이 참으로 어려운것을 결심한, 민족을 위해 한몸을 헌헌히 바칠줄 아는 투사라는것을 아시고 그의 손을 굳게 잡으시였다. 김책도 성시백의 결심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 성시백이 근 두해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 김책은 그의 별호를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는데 난데없이 불법입북자로 취급을 받으며 돌연히 평양에 나타났다.

김책은 총화사업을 정준택에게 맡기고 곧 사무실을 나섰다.

김책은 부관이 출입문밖에 서서 기다리는 호텔 3층의 너렁청한 특실에 들어섰다. 헌털뱅이를 걸친 건장한 청년은 벽면에 붙인 가족쏘파에 앉아있었으며 성시백은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런데 김책을 놀라게 한것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성시백이 모상을 알아볼수 없게 찌지고 멍이 들었으며 악수를 나누자고 해도 잡기 어려울만큼 손에 험한 상처를 입고있는것이였다.

《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책은 굳이 침대에서 일어난 성시백을 쏘파에 눌러앉히며 물었다. 내무국에서 성시백을 이렇게 험상스럽게 만든것 같아 금시에 분격을 폭발시킬것 같은 표정이였다.

《비오는 밤에 38°선을 넘다나니 그만...》

성시백이 김책의 분격을 누그러뜨리려는듯 상처입은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옆에 섰던 마동삼이 불쑥 끼여들었다.

《부위원장님에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지 았구 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와 같이 북조선에 꼭 와야 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몸을 단련할 기회도 있었고 젊기도 해서 별일이 없었습니다만 성선생이 당한 고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하오. 우리가 오해를 받아 그렇게 된건데 뭘 그러오.》

《마동무, 계속하시오.》

김책의 독촉을 받은 마동삼은 그동안에 겪은 고초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38°선에서의 무장충돌로 해서 장사군들의 밀로를 리용할수 없어 천마산의 산릉선을 비오는 밤에 넘었다. 경비대원들이 밀수군취급을 하며 평산보안서에 호송했다. 랭습한 소방대창고에 웅근 이틀동안 갇혀있어 성시백은 하마트면 폐염에 걸릴번 했다...

《마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장군님을 뵈려고 38°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성선생이 당한것 같은 그런 취급을 계속 당하면 큰일이 아닙니까. 곧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김책이 성시백일행을 위안하느라고 한 말이 아니였다. 광복후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38°선을 넘어왔는데 분렬이 심화되고있는 이즈음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 았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알수 없었다.

《내 보기엔 우선 치료부터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장군님께 시급히 전해드릴 말이 없으면 병원에 입원하든가 이 려관에서 치료를 받든가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평양에 온것은 우리 조국에 엄중한 정세가 도래하고있다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는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김책은 대번에 긴장해서 간절한 념원을 안고 자기를 쳐다보는 성시백의 지성이 내뻐 가름한 얼굴을 잠시 마주봤다. 성시백의 말은 사태를 더욱 심도있게 밝히려는 장군님께서 지시하신 려운형의 암살과 웨드마이어의 서울방문을 념두에 둔것이 아닐가? 김책은 장군님의 지시를 받고 통신사 책임일꾼이며 선전부장 허정숙을 통해 사태를 깊이있게 추구해들어갈수 있는 자료를 손에 넣어보려고 애썼지만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조선에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구명할수 있는 기관도 사람도 준비되어있지 못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평양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려운형선생이 암살을 당하게 된 전후관계와 웨드마이어가 서울에 날아오는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심도있게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계십니다. 그동안 서울에 있었으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있는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줬으면 합니다.》

성시백은 잠시 얼굴을 수긋하고 머리속의 생각을 정리했다.

김책이 요구하는것이 주로 사실자료에 기초한 판단일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런 방향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려운형이 피살되기 이틀전부터 이른바 《경호》라는 명색으로 경찰이 집요하게 미행했다. 려운형은 원래 미군헌병이나 경찰의 경호를 완강하게 거부해왔다. 자신이 미군측의 비호를 받고있는듯 한 인상을 민중들에게 줄수 있기때문이였다. 이때도 만말을 시켜 경찰의 《경호》에 강력히 항의하게 했다. 《경호》는 피살되는 당일까지 계속됐다.

려운형을 살해할양으로 선생의 전용차를 가로막을 화물차가 혜화동경찰과출소앞에서 대기하고있었다. 이것은 경찰의 《경호》가 무엇때문에 필요했는지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선생이 입원한 대학병원에 경기도경찰국장 장택상이 문병이란 구실을 붙여 찾아왔다. 이것은 선생의 《절명》을 확인하기 위해서일것이다. 선생의 맏딸도 이것을 특감으로 느꼈던지 장택상이 입원실에 들어서자 그에게 달려들며 아버지를 죽인자가 무엇때문에 나타났는가,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장택상이란 어떤자인가? 흉악범죄를 방지할 임무를 지닌 경기도경찰국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미군정과 리승만계에서 요구하는 조직적인 살인을 수많이 감행해온 인간백정이다. 이자는 살인을 해제끼고는 리승만은 말할것 없고 미국인들한테서까지 맏딸라이상의 돈을 반드시 받아냈다. 그런데 려운형의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보상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려운형과 같은 거물을 미국놈들한테 제물로 섬겨바친 대가로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차례지겠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장택상이기때문이다.

그러면 김규식과 손을 잡게 하여 남조선의 주도적정치세력을 만든다고 떠들던 미국이 어째서 려운형선생을 없애치웠는가? 그것은 려운형선생이 더는 필요없는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되었기때문이다. 어째서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닥으로 견해가 갈라져 현재로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

한가닥은 웨드마이어가 워싱턴을 출발하기전부터 언론이 떠들어대는 《북조선징벌설》이며 다른 하나는 웨드마이어가 서울에 와서 더욱 파썸화된 강경한 대조선정책을

발표할것이라는 견해이다. 전자는 군부중진의 주장이고 후자는 언론계와 정계의 반영이다....

담배를 태우며 성시백의 말을 주의깊이 듣고있던 김책이 물었다.

《군부는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징벌설>을 내세웁니까?》

성시백은 의연히 담담한 목소리로 사리정연한 답변을 했다. 군정청에 국방사령부설치, 《국방경비대》의 확장, 여덟개련대의 편성을 이미 끝낸데 이어 미군사령부에서 직접 나서서 일제침략군과 위만군, 왕정위괴퇴군에서 장교를 해먹던자들로 지휘관들을 갱신하기 시작, 인천-서울사이, 김포비행장-서울사이, 부산-서울사이의 도로확장공사, 인천항과 부산항 확장 등 이 모든 현상은 분명히 전쟁준비이다....

《민족의 편에 선 애국적군인들이 미군사령부의 지시를 어떻게 해서든 집행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지만 실권은 고문자리에 앉은 미국놈들한테 있기때문에 자연공작이 크게 은을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족의 편에 선 애국적군인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견해의 신빙성을 확증하기 위해 김책은 묻지 않을수 없었다.

《류동렬선생, 송호성씨와 같은 민족적량심을 지닌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중경에 있을 때부터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시는 장군님을 존경해왔고 저의 도움도 얼마간 받았습시다.》

김책은 저르기 놀랐다. 류동렬은 통위부(괴뢰국방부의 전신) 부장이였으며 송호성은 남조선경비대 사령관이였다. 류동렬, 송호성이 중국에 있을 때부터 김일성동지를

존경해왔다면 성시백의 감화가 반드시 있었을것이다. 미군이 통수권을 쥐고있지 않다면 그들은 남조선민족무장력의 최고지휘관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있다면 성시백은 참으로 통이 큰 투쟁을 전개하고있다고 해야 할것이였다.

《류동렬, 송호성선생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시백은 이번에도 간단명료한 대답을 했다. 북조선에 주둔한 소련군의 존재, 전쟁전야의 행차치고는 지나치게 웨드마이어의 목소리가 요란하다. 군사행동을 개시하는 군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특사의 명목...

《북조선을 침범하든 정책전환을 하든 우리 나라에 엄혹한 정세가 도래한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싶어 평양에 왔습니다. 마동삼군을 다시 서울에 내보냈으면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김책은 등골이 뻗뻗해지고 입안이 메말라드는데 한 긴장감을 느끼며 성시백의 말을 들었다. 언론계와 정계의 견해는 확실히 론거가 박약하다. 웨드마이어의 요란한 허장성세만 해도 미국의 군력을 절대적인것으로 간주하는 반공광신자에게는 오히려 어울리는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대통령특사라는 어울리지 않는 병거지를 뒤집어쓴것이 어딘지 모르게 모순을 느끼게 하지만 현재와 같이 엄혹한 정세가 찾아든 때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문제에 매달리는것은 위험하다...

김책은 지나치게 긴장한듯싶은 스스로의 표정을 애써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마동무를 서울에 내보내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능한것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마동무도 손에 상처가 있는것 같은데 일없겠습니까?》

《이따위 상처때문에 할 일을 못해서야 성선생을 따라다닐 자격이 없지요. 내 걱정은 마십시오.》

김책은 치료를 잘해야겠다는 말을 성시백에게 남기고 특실을 나섰다.

인민위원회에 돌아온 김책은 정준택이 마무리지은 총화문건을 앞에 놓고 고뇌의 바다속에서 그 누구와 사생결단을 하듯 푸른 불길이 타번지는 눈길로 사무실벽을 쏘아보며 앉아있었다.

그는 잠시후 안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수첩을 꺼내서 앞에 놓고 정세를 다시한번 분석평가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대책을 촘촘히 적어나갔다.

4

총무부일군에게서 회의에 올라온 채굴공업부문 지배인들의 숙식보장문제를 알아보는중인데 전화종소리가 울려 김책은 무심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뜻밖에도 수화기에서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울려왔다. 모레쯤 되여야 돌아오실것으로 예견했던 장군님께서 이미 집무실에 와계셨던것이다. 정세가 악화되여 현지도도를 서둘러 끝내신것 같았다.

김책은 총무부일군에게 과업을 주고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곧 사무실을 나섰다.

장군님의 집무실에는 은테안경에 여름철의 훌가분한 양장차림의 허정숙이 얼마간 그늘진 표정으로 수첩과 만년필을 들고 서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운 안색으로 그의

앞을 오고가며 려운형선생을 추모하는 추도식과 민전결성 한뫼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할데 대한 말씀을 하고계시였다.

《회의참가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게 조국의 머리우에 어떤 엄혹한 정세가 드리웠는지 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북조선민전도 강화할수 있고 똑똑하게 처신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추도사도 만들고 회의도 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허정숙이 짐부실을 나서자 그이께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장군님을 빈듯 반가운 표정을 짓고 서있는 김책의 손을 잡아 쏘파에 앉히고는 자신께서도 그옆에 자리를 잡으시였다.

《출장을 좀 단축했습니다. 오래동안 지방에 나가있을 형편이 아닌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사이에 제기된 문제중에서 내가 급하게 알아야 할것부터 말해주시오.》

인민위원회사업에서 제기된 두어가지 문제를 우선 말씀드린 김책은 현지도중에 주신 과업이야기에 말머리를 돌렸다.

《언젠가 심양에서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장군님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양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왔습니까? 요즘 38°선이 소란한데 별일이 없이 들어왔다고 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마동삼이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마동삼이라는 청년은 그동안에 몇번 북에 들어왔다 간것 같습니다. 남에서 천이나 약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생산하는 비누나 카바이드 같은것을 남으로 가져간것 같습니다. 그 청년을 길잡이로 삼아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생활이 곤난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까?》

《생산이란 거의 없는 남조선에 우리의 제품을 실어내다 북의 발전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생활에 보태기도 하고 활동자금으로 쓰기도 한것 같습니다.》

김책은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에 비졌던 기쁜 기색은 어느새 잦아들고 눈에는 긴장한 빛이 어려있었다. 그는 성시백이 제공해준 자료에 자기의 판단을 붙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두팔을 엇걸어 가슴우에 올려놓고 창가에 서서 연곤색 저녁어스름이 내려덮이는 거리를 내다보며 김책의 말을 들으시였다.

《마동삼이를 다시 서울에 내보냈습니다.》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집무탁에 놓인 자개함에서 담배를 한대 꺼내들고 불을 붙이시였다. 두어번 연기를 내뿜기는 했으나 타드는 담배를 손에 든채 무거운 생각에 잠겨 방안을 오가실뿐이다. 담배불을 비벼끈 그이께서는 김책에게 다가와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히시였다.

《우리앞에 엄혹한 정세가 닥쳐왔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온 성선생이나 김책동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찌산을 할 때는 지금보다 더 엄혹한 역경도 수많이 헤쳐온 우리들이 아닙니까. 문제는 타개책을 찾아내는것입니다. 마동삼동무의 도착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세우는 대책은 뚫린 구멍을 메꾸는 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략적대책이여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김책동무는 벌써 많은 생각을 했을겁니다. 나도 그사이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 토의를 합시다.》

방금전까지 그리도 무거운 안색이던 그의 얼굴에 벌써 느긋한 빛이 퍼져나가고있었다.

《오늘은 성선생을 만납시다. 우리를 만나자고 38°선을 넘어온 손님인데 우리 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눕시다.》

김책은 장군님께 뭐라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을지 알수 없어 머뭇거리다 며칠후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왜 그러니까? 내게 뭘 감추고있는것이 아닙니까?》

《얼굴과 손에 상처들이 있어서 지금은 밖에 나다니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38°선을 별일없이 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책은 성시백이 상처를 입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나서 집중치료대책을 세웠다고 보고드렸다. 근심어린 안색으로 김책의 말을 듣고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문병을 할겸 우리가 찾아갑시다. 좀 늦은저녁에 10시쯤해서 가봅시다.》

손에는 붕대를 감고 얼굴에는 고약을 바른 가제천을 붙여서 성시백은 돌격선에 나섰다가 중상을 당한 병사 비슷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신문을 읽다가 방에 들어서시는 김일성동지를 보고 자리에서 뛰쳐 일어났다.

장군님께서서는 의사에게 성시백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감기로 해서 기관지염 초기증상이 있고 손과 얼굴의 상처는 가벼운 외상이여서 곧 완쾌되리라고 했다.

《신문을 보니 어떻습니까? 서울의 신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침대우며 앞상, 안락의자에 널린 신문과 잡지들을 돌아보며 물으시었다.

《저는 서울의 신문을 전부 준다고 해도 평양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가지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성시백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떨쳐난 농민들이 애국미를 헌납해서 학교를 세우고 로동자들은 자체로 탄을 캐서 철도운행을 하며 지어 문화인들까지 로동대중속에 들어가 글을 쓰겠다고 결의해나서고있는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방송을 통해 <토지는 밭같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듣고 세기적질곡이 깨져나가는 소리를 듣는것 같았는데 이번에 평양에 와서는 <공장은 로동자들에게!>라는 구호를 봤습니다.》

성시백은 열정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건국에 나선 인민의 정신상태를 인민도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흔이 넘은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에 도착한지 며칠 안되는 사이에 건국을 위해 떨쳐나선 북조선인민들의 기상을 대뜸 느낀 성시백의 예민한 감수성에 감탄했으며 이러한 사람이 남조선에서 활동을 개시한것이 못내 기쁘셨다.

《남조선에서 싸우고있는 동무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입니다. 북조선과는 혁명의 성격이 다른것만큼 인민도덕이란 말을 붙일수 없겠지만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도덕의 소유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그런 고상한 도덕의 소유자들이 적잖게 헛된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성시백의 얼굴에서는 어느덧 열정의 빛이 사라졌다. 그는 머리를 수긋하고 긴숨을 내쉬듯 말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의 아픈 마음을 리해하실수가 있었다.

《요즘 남조선형편은 어떠합니까?》

《광복직후에는 인민의 손에 장악되어있던 농촌과 지방의 소도시들이 지금은 반동들과 지주의 손에 넘어가고있습니다. 큰 도시의 공장이나 학교들, 철도와 가두 같은것은 농촌이나 소도시처럼 빠드름하지 않아서 아직은 조직들이 뿌리뽑히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공개적인 투쟁을 계속해나가면 이런 조직도 머지 않아 파괴되어버릴것 같습니다.》

장군님의 눈앞에 좌경모험주의적투쟁으로 해서 피바다속에 잠겼던 10여년전의 간도의 농촌과 도시의 참혹한 전경이 펼쳐졌다.

《혁명조직이 로출되면 투쟁하던 동무들은 어디에 몸을 붙입니까?》

《산속에 들어가거나 큰 도시에 피신해서 유령인구 생활을 합니다. 그중 많은 동무들이 혁명조직과 련계를 맺지 못하고 체포돼서 처형당하고있습니다.》

성시백은 될수록 자신의 침통하고도 암담한 내심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가 이야기하는 많은것은 이미 알고계시는 사태였지만

살을 저미는것 같은 괴로움을 안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시백의 고민이 가슴에 마쳐와서인지, 실감있게 말을 해서인지 장군님께서서는 어깨를 짓누르는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시였다.

《그런 사람들을 군대에 입대시키는것이 좋겠다고 남로당동무들에게 권고를 했는데 아직도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조직선을 잊지 못해선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좀 하고있는데 우리는 아직 조직의 범위가 넓지 못해서 적들의 마수가 닿기전에 우리 동무들을 빼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몇십명정도 군적에 옮겨놓았습니다.》

《몇십명이면 대단합니다. 그 동무들을 잘 교양해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만들면 조선혁명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겁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동무들을 군대에 입대시켜야 합니다. 혁명동지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조선정세가 어째서 급속히 악화되는것 같습니까?》

성시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변을 드렸다.

《우선 미군과 극우익분자들의 폭압이 가혹한데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남조선의 중요좌익당인 남로당이 합법적당처럼 조직되어있고 활동도 로출되기 쉽게 진행하고있는데 원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얼굴을 수긋하고 이야기하던 성시백은 눈길을 들어 그이를 마주봤다. 그는 장군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고있는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성시백의 눈길을 느끼지 못한듯 묵묵히 그의 뒤말을 기다리고계셨다. 성시백은 조리있게 말을 계속해나갔다.

《합법적당처럼 조직되어있으면서 모험적인 대중투쟁을 무모하게 전개하니 조직이 파괴될수밖에 없습니다. 모험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리유는 원썩놈들의 폭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전략전술이 없는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령도권쟁탈에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미제의 침략책동을 막아내기는 고사하고 자체의 령량을 보존하기도 어렵게 될것이라고 성시백은 침통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심중한 안색으로 성시백의 말을 듣고계시던 장군님께서는 물으시였다.

《성시백선생, 그러니까 선생은.》

장군님께서서는 서두를 떼던 말씀을 문득 멈추시였다.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장군님의 새삼스러운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섭섭해서 짙은 실망의 빛을 짓는 성시백의 표정을 감촉하신것이다.

《같은 조선혁명을 진행하고있으니 동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성선생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성시백은 **김일성**동지를 마주보며 간청하듯 말했다.

《저는 혁명을 하기 위해 조국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장군님께 이미 말씀드린것처럼 남조선이 우리 나라 혁명에서 제일 큰 장애로 될것 같아 북이 아니라 남으로 갔을뿐이지 저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실분은 오직 **김일성**동지 한분밖에 없다는것을 광복전부터 알고있었습니다. 저를 동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우리와 뜻을 같이 할 동지라고 생각하고 북조선에서처럼 동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시백동무.》

이렇게 호칭한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의 얼굴기색을 주의깊이 살피셨다. 성시백의 단아하고 지성적인 얼굴에 감격의 잔물결이 일더니 안경속의 눈에 맑은 눈물이 번져나갔다.

《그러니까 성시백동무가 보기엔 남조선좌익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킬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는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안색은 더욱 침중해지였다. 방안의 분위기는 숨을 쉬기도 어려울만큼 무거웠다.

《미국놈들도 좌익이 약화되었다는것을 알고 행동을 개시한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약화된 혁명력량을 어떻게 해서든 추켜세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어떤 수난을 또 당할지 알수 없는것이 현정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명력량을 추켜세우자면 정책이 정확해야 할것은 말할것 없고 민족이 운명을 의탁할수 있는 령도자의 지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성시백은 간절한 소원이 담긴 타는듯한 눈길로 장군님의 존안을 우러러보며 말씀드렸다. 그는 지금의 이 자리가 곧 장군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되기를 열망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도 성시백의 심정을 알수 있었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 38°선을 넘어온 그의 절박한 마음도 리해할수 있으시였다. 그러나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것만큼 생각을 더 깊이 하셔야 했다.

장군님께서 문병을 할 생각을 한것은 성시백이 귀중한 자료를 들고오기도 했지만 민족적재난을 어떻게 해서든 타결해보려는 그의 열의가 고마우셨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였다.

《성시백동무가 부위원장동무에게 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적들이 려운형선생을 어떤 방법으로 암살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각계 인사들의 견해도 우리가 정세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밤 성시백동무를 찾아온것은 병문안을 하기 위해섭니다. 나라사정이 걱정되어 평양에 들어오다 상처를 입고 병에 걸린 동무인데 문병도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웬간해서는 놀라거나 당황한 빛을 보이는 일이 없는 성시백의 눈이 순간에 휘둥그래져서 밝은 웃음이 어린 장군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시간을 다투는 엄혹한 정세가 닥쳐온 때에 자기같은 사람의 병세가 걱정되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문병을 하시다니?... 불몽치같은것이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고 눈굽에 뜨거운것이 맺혔다.

눈물짓는 성시백을 여겨보던 장군님께서 밝은 안색으로 문뜩 물으시였다.

《광복된 그해에 우리한테 왔을 때 황해도 평산에 아버님과 처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홀몸으로 객지생활을 하고있습니까?》

《작년 여름에 처하구 누이를 데려내갔습니다.》

《스무해만에 다시 가정을 이뤘으면 자손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성시백은 어쭙은 웃음을 빙긋 웃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두 아들을 고향에 두고 떠났다고 했으니 이번이 세번째가 아닙니까?》

《아직 세상에 나온것은 아니구 어머니 배속에 있는데 배가 바가지짜을 얹어놓은것 같은걸 봐서는 계집애같은데...》

《이제보니 성시백동무의 욕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에 아들 둘을 뒀으면 이번엔 계집애 낳아야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지...》

너스레란 통 모를것 같은 김책이 문득 웃음지은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이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할번했습니다. 그래 언제쯤 몸을 풀것 같습니까?》

《9월말이 아니면 10월초쯤 될것 같다구 하는데.》

《그럼 이제는 몸이 무겁겠는데 매사에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들여다 해산하게 하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가운데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보내지 않겠다는것인데, 하긴 남편곁에서 해산을 하는것이 더 좋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머니를 우리한테 보내는것이 좋을것 같으면 언제든지 들여보내시오. 유능한 의사를 붙여주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하며 치료를 잘 받아서 빨리 몸을 회복시키라고 거듭 말씀하고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김책과 함께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해방산 동쪽비탈의 사택마을 한가운데를 헤가르며 잠시 달리다 두어m높이의 세멘트담장에 둘러싸인 단층집앞에서 멎었다. 장군님택이였다. 지난해 이 세상에 없는줄로만 알았던 김책의 두 아들이 장발한 청년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마흔세살 장년에 홀아비살림을 계속할수 없어 엇비슷한 나이인 《로친네》(강정숙)를 안해로 맞아들인 후에 김책이 새 생활을 시작한 사택은 장군님택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 있었다. 김책은 김일성동지와 함께 한자동차에 앉아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언제나 승용차가 지금 벗어선 이곳에서 내리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김책이 몸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동차는 정원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책이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할 생각이라는것을 느끼고 정원에 들어서서는 자동차에 그대로 몸을 맡기시였다. 차에서 먼저 내린 김일성동지께서는 뒤따라 내리는 김책에게 말씀하시였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집안에 들어갈것 없이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무슨 일입니까?》

운전수가 자동차를 차고안에 놓으려고 차머리를 돌리는것을 본 김일성동지께서 김책을 돌아보며 물으시였다.

《내 지금 2호집에 가볼가 합니다.》

《지금 말입니까?》

김책이 그 무슨 중대한 말을 하리라는것을 짐작하셨지만 이밤중에 북에 들어와있는 남로당부위원장을 찾아가겠다고 말할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였다.

그 부위원장은 사실상 남로당의 실권자로 인정받고있었다.

《그래 무슨 일때문에 이 밤중에 거기에 가겠다는겁니까?》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기때문에 우리 나라에 엄혹한 정세가 닥쳐왔다고 짝어서 말해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범하고있는 전술상과오에 대해서도 비판하겠습니다.》

김책은 격분한 나머지 심야의 이슬에 젖은 밤장막을 회초리로 내리치듯한 말투로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김책의 날카로와진 얼굴을 돌아보셨다. 우리 나라에 엄중한 정세가 도래한것은 미제와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남로당의 과오에 있다는것을 고려호텔에서 새삼스럽게 절감한 김책은 비판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잠들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정원길에 깔린 어둠을 밟으며 조그마한 런몯을 에돌다가 말씀하시였다.

《오늘밤에는 가지 말구 래일 가는것이 좋겠습니다. 비판보다도 려운형선생의 장례식을 남로당에서 많이 도와주어야겠다는 말을 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말을 나누게 되면 혁명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중적기반을 잃어버리지 않는것이라는것을 강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민전을 중심으로 남조선민주력량을 단결시켜 강점자들과 효과적인 투쟁을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말해주시오.》

《래일은 아침부터 산업국에서 채굴공업부문 지배인들과 상반년총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국장이 병으로 누워있으니 김책이 걱정하는것도 무리가 아니였다.

《계획총화회의면 정준택동무가 사회할수 있지 않습니까? 김책동무가 정 마음을 놓지 못하겠으면 내가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지배인회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산주의자들이 려운형선생을 암살했다고 적들이 악선전을 하는 조건에서 남로당에서 조의대표도 보내고 근로인민당과 합심해서 장례식도 크게 하는것이 더 급합니다. 래일 2호집에 가는것이 좋겠습니다.》

담장을 따라 발자욱소리를 조심하며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는 희끗한 그림자가 보였다. 김정숙녀사이시였다. 특히 가로를 끼고있는 동쪽과 남쪽담장이 걱정되시여 그 밑을 걷고 또 걸으신다.

《이젠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있으면 김정숙동무가 또 밤을 새울것 같습니다.》

《산에 있을 때는 몇백m밖에 적을 두고 며칠씩 숙영한 때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김정숙동무가 있기때문에 장군님댁의 호위는 마음을 놓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빨찌산투쟁시기 그러했던것처럼 조국에 개선해서도 자신을 장군님의 친위전사로여기고 지금과 같은 심야에 그이께서 정원에 나와계실 때는 적들이 준동을 할수 있음직한 어스크레한 프락구석을 떠나지 않으시였다. 밤중에도 한두번은 반드시 저택주변을 주의깊이 살피고 다시 잠자리에 들곤 하시였다.

김책은 일부러 기침소리를 크게 내며 정문을 나섰다. 장군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니 녀사께서 마음을 놓으시고 들어가라는 신호였다.

푸르청청한 가지들을 실실이 늘어뜨린 버들냄새가 강바람에 실려 산업국마당에까지 날려왔다. 자동차에서 내린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뚝버들을 바라보며 폐부 가득히 싱그러운 강바람을 들이키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선통을 할셈인듯 자동차에서 내려서는 참으로 현관쪽으로 달려가는 책임부관의 뒤를 따라서시었다.

《회의실에 올라가면 되오. 회의실에서 지금 상반년총화가 진행되고있소.》

현관에 들어선 그이께서는 큰 걸음으로 회의장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셨다.

그이를 맞이한 너렁청한 회의장은 갑자기 환희로 뒤설렸다. 두손을 높이 쳐들고 목청껏 만세를 웨치는 중년, 깊은 절을 드리다말고 만세의 함성에 합세하는 늙은 지배인, 장군님께서서는 환히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답례를 하고 정준택이 내드리는 의자에 앉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아직도 복받치는 환희를 참지 못해 만세를 웨치는 회의참가자들을 손세로 진정시키셨다. 지배인들과 기획국과 산업국 일군들은 허리를 꼴꼴이 편 긴장한 자세로 의자에 앉았다.

그이께서는 앞탁에 량손을 올려놓고 장내를 둘러보시었다. 삼복더위에 넥타이를 깎듯이 매고 손에는 부채를 든 로년지배인, 턱수염에 코수염까지 길러붙인 중년, 옥양목반소매샤쯔바람인 머리가 더부룩한 청년, 장군님께서 회의장에 들어서실 때 연단우에 섰던 물날은 보위색양복차림이던 젊은이는 어느새 연단에서 내려가 어디엔지 숨어버렸다. 나이도 경험도 각각이고 성미도 각이한 탄광, 광산지배인들이었지만 어쨌든 이들이 관리하는 술한 기업소들을 인민정권의 한개국에서 거머쥐고

지도하고있었다. 우리의 정권기관이 얼마나 큰 살림살이를 안고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회의에 늦게 나와 안됐습니다. 그래 어디까지가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지배인들입니까?》

그이께서 물으시자 지배인들은 옆에 앉은 사람을 돌아보기도 하고 정준택의 얼굴표정을 살피기도 하면서 어쩔줄 몰라했다. 김책이 회의를 집행할 때는 계획을 완수한 지배인들을 앞에 앉히고 계획을 못한 지배인들은 그뒤로 앉히는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오늘은 미처 그런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준택이 사죄하듯 말씀드리는데 그의 옆에 앉아있는 껌두룩한 산업국 부국장의 몸이 꼳꼳하게 굳어졌다. 최가 성에 일부 《얼마우제들이》 니꼬라이라고 부르는 부국장이었다. 국장이 없는 기회에 회의장에 올라와 김책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시하고 지배인들이며 국의 간부들을 되는대로 앉힌 모양이었다. 그러고보니 부국장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국안의 간부들과 지배인들이 앞자리에 떡 버티고 앉았다.

《토론을 시작하기전에 재정총화는 지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방법으로 몇개 기업소를 총화했습니다.》

정준택의 답변이었다. 재정총화도 제대로 지은것 같지 않았다. 김책은 회의전에 재정총화를 짓는 방법으로 지배인들이 언제나 공장, 기업소의 실태를 손금보듯 정확히 장악하고 사업을 하게 하였는데 이런 회의운영방법을 락후하고 촌스럽게 여긴다는

부국장이 처음부터 회의를 좌지우지하여 정준택은 재정총화도 제대로 짓지 못한 모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련의 가맹공화국에서 기업소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는 부국장때문에 산업국에서 애를 먹고있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전횡을 부리고있는줄은 미처 알지 못하셨다. 그렇다고 집행부에 앉아있는 사람을 내놓고 비판할수도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장에 들어설 때 연단에 섰던 청년을 눈길로 찾으시였다.

《토론을 하던 젊은 지배인동무는 왜 내려갔습니까? 올라와서 토론을 계속하십시오.》

옆의 사람이 팔굽으로 옆구리를 건드리기도 하고 몇몇 지배인들의 눈길이 쏠리기도 하는데 사람들속에 머리를 틀어박은 청년은 일어설념을 못했다.

《동무, 장군님께서 나오셨는데 그게 무슨놈의 버르장머리요. 일어서시오!》

부국장의 왜가리청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낡은 일본군복차림의 청년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본패잔병한테서 로획하지 않았으면 장마당에서 사입은 옷 같았다. 평양에서 열리는 회의에 이런 옷을 입고 참가한것으로 보아 생활에 여유가 없는 지배인이 분명했다. 청년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참석하신 회의에서 토론을 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연단으로 올라올념을 못하고 쭈뼛거리기만 했다.

《혁명규률이 어떤건지 알지도 못하고 고아대더니 왜 그러구 섰소. 빨리 나와서 프로레타리아행세를 해보오. 인민정권이 독재기능을 가졌다는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장군님께서서는 부국장의 이 말도 귀에 거슬리시였다. 산업국장이 없는 기회에 한번 본때를 보이려고싶은 모양이었지만 채굴공업부문 책임일꾼들이 참가한 회의에서 무엇때문에 독재란 말을 하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들어 부국장의 말을 막으셨다. 그이께서는 너무나 젊은 지배인이여서 나이부터 물으시였다.

《올해 몇살입니까?》

《스물일곱살입니다.》

《스물일곱살? 어디 지배인입니까? 유선탄광? 그럼 철도에 석탄을 대는 탄광이 아닙니까? 그런 탄광을 스물일곱살난 청년지배인이 관리운영한다? 우리 산업이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올라와서 토론을 계속하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로동계급출신이면 규률에서도 모범이고 용감성에서도 모범이여야 한다고 젊은 지배인을 고무해주시였다.

유선탄광의 갈탄이 철길옆에 떨어져있으면 기관사들이 기차를 멈추고 탄덩어리들을 탄통에 올려던지고서야 다시 출발한다는 말이 있을만큼 철도에서는 유선탄을 귀하게 여겼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탄광을 스물일곱살의 청년지배인이 관리운영하고있다는것이 못내 만족하셨다.

《유선탄광은 계획을 못한 탄광입니다. 그래서 자기비판을 시켰는데 자기 탄광에서는 계획을 했다고 마구다지로 우겨대는겁니다.》

부국장은 정준택을 아예 제쳐놓고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들은 청년지배인이 온 장내에 울려퍼지는 우람찬 목소리로 웨쳤다.

《아닙니다! 우리 탄광은 계획을 했습니다. 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년지배인은 분연히 연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왔다. 부국장의 말대로 배짱이 센 지배인같았다. 청년은 연단우에 올라서서 **김일성**동지를 향해 자세를 바로잡고 구령을 치듯이 웨치기 시작했다.

《장군님, 우리 탄광에서는 정주기관구 종업원들처럼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해서 동발목도 자체로 끌어오고 권양기도 자체의 힘으로 살려서 계획량의 탄을 다 켜습니다.

》

부리부리한 눈에 든든한 턱, 두툼한 입술이 유난히도 인상적인 거뭇거뭇한 얼굴은 흥분으로 해서 떨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 웃음이 어린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이름까지 알고지냅시다.》

《전호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토론을 집행부를 향해서 합니까?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는것은 상반년계획수행정형을 총화하면서 서로 경험을 배우고 교훈을 찾아서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서는 마음속에 품고있던 생각들을 다 털어놓는게 좋습니다. 독재라는건 아무한테나 막 적용하는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회의에서는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양될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배심이 든든해서 마구 고아대던 부국장의 번지르르한 얼굴이 갑자기 거뭇게 질렸다.

《전호준동무는 언제부터 지배인사업을 합니까?》

《광복직후부됩니다. 징용에 끌려갔다가 돌아와보니까 왜놈의 기술자 하나를 붙들어놓구 탄을 캐서 식량을 바꾸어먹고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로동조합장이 돼서 왜놈기술자를 쫓아버렸습니다. 그후에 공장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지금은 지배인을 합니다.》

그러니 광복직후의 자치단체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지배인으로 임명한 오늘까지 근 두해동안 탄광을 관리운영해왔다는것이였다. 배짱도 있고 일숨씨도 있는 손탁이 센 청년지배인같았다. 말을 나누실수록 마음에 끌리는 청년이였다.

《광복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궤도공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조수질을 하다가 궤도공이 됐습니다.》

《궤도공을 했으면 힘든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생도 많았겠구...》

《제 왜놈의 새끼들한테 끌려가서 그놈들의 탄을 캐준 그 힘으로 왜놈들과 싸우지 못한게 한입니다.》

《그렇지만 전호준동무는 지금 건국을 위해 애로를 극복하면서 석탄을 캐고있지 않습니까. 무장을 손에 들고 싸우는것만이 혁명이 아닙니다. 석탄을 캐는것도 혁명입니다. 그것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혁명투쟁입니다. 유선에서 작년에 5만t을 캐지?》

정준택이 5만 8백t의 석탄을 캐다고 말씀드렸다.

《그 5만t으로 수많은 기차가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철도에서 요구하는 석탄을 다 보장했는가? 물론 유선에서 나오는 석탄만 가지고 우리가 철도를 운영하는것은 아니지만 유선에서 큰몫을 맡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에 작년보다

거의 2배, 공업생산만 해도 92% 장성시키자고 합니다. 땅을 분여받은 농민들은 <쌀이 없이는 건국도 없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증산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의 2.8배, 거의 3배나 되는 유연탄을 생산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이께서는 정준택을 돌아보며 물으시였다.

《유선의 계획은 몇만t이요?》

《15만t입니다.》

《그것보시오. 작년의 거의 3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자면 반드시 그만큼 석탄을 유선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수자만큼 탄을 쬐습니다.》

한결 낮아진 목소리긴 했지만 전호준은 의연히 고집스레 같은 말을 되뇌였다. 부국장이 또 끼여들려는것을 장군님께서서는 엄한 안색으로 제지하시였다.

《그럼 지배인동무들앞에서 계획을 완수했다는것을 증명해보시오.》

전호준은 장군님께서 재정총화를 지으라는 말씀도 없으셨는데 지난 상반기기간에 왜놈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설비를 복구하여 생산이 얼마나 불어났으며 생산에 투자한 연료, 자재비가 얼마, 로임에 든 돈은 얼마, 지배인이 써야 할 돈은 얼마인데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썼으며... 이런 식으로 근 30분이나 엮어내렸다. 탄광을 깐지게 운영한다는것이 알렸다. 그런데 석탄은 분명히 계획을 초과해서 생산했는데 금액상으로 계산하면 계획을 미달한것으로 되였다.

《어째서 석탄을 초과생산했는데 생산액은 미달입니까?》

장군님의 물으심에 청년지배인의 입에서 전혀 뜻밖의 웨침이 튀어나왔다.

《철도에서 간선미화운동을 하기때문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청년지배인의 말을 리해하기 어려워 국장을 돌아보셨다. 정준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석탄은 계획대로 생산했지만 철도측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지 못해 채산상으로는 계획을 못한 기업소로 평가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탄광과 철도사이에 그 어떤 마찰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이께서는 청년지배인에게 물으시였다.

《철도에서 하는 미화운동이라는게 동무네 탄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간선에서는 10만km무사고주행을 한다, 정시운행을 한다 하면서 기차가 달리니까 철도가 일을 잘하는것 같지만 우리같은 지선탄광에서는 화차가 제때에 들어와본 일이 없습니다. 들어올 때도 일여덟개, 어떤 땐 열개이상이나 망탕 들여미니까 화차에 탄을 제 시간에 채울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탄광의 저탄장은 피꼬리등지만 해서 많이 실어야 겨우 세개 화차를 채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여덟개나 열개이상의 화차에 탄을 채우자면 사무원, 부양가족까지 총동원해서 며칠씩 역사질을 해야 합니다.》

청년지배인은 거침없이 엮어내렸다. 화차에 탄을 다 채웠다는 통지를 해도 기관차가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 기일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연체료를 받아낸다고 한다.

《저는 철도에서 간선미화운동을 하기때문에 우리같은 지선탄광에선 계획을 미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인들이 통쾌한 나머지 요란한 웃음을 터뜨렸다. 김일성동지께서도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전호준의 말이 그럴듯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비판할것은 비판하고 말할것은 말하는 그의 담찬 성미와 솔직성이 마음에 드시었다.

《유선에 지금도 석탄이 얼마나 쌓여있소?》

《연체료를 적게 물려구 여기저기 로적해놔다가 지난 보리장마에 수백t이나 류실됐습니다. 또 철도에서 실어갈것은 다 실어가구 벌금까지 받아냈기때문에 탄광에 쌓여있는 탄은 제가 떠날 때 천t정도밖에 안됐습니다.》

탄광, 광산 지배인들이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는것으로 보아 인민위원회 부서들과 은행같은데서 쓸데없는 규정을 만들어 생산에 지장을 주는것 같았다.

《다른 탄광, 광산에서는 어떻습니까? 탄광, 광산들은 주로 지선을 리용해서 석탄과 광석을 실어내는데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몇명의 지배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호준의 말을 지지했으며 어떤 지배인은 철도에도 벌금을 먹이는 규정을 내오자고 했다.

《그럼 이번에는 산업국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부국장동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부국장은 장군님의 불의의 질문에 잠시 당황해하는 빛이더니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몇마디의 말을 했다.

《철도는 군대와 같은 질서와 규률이 없이는 한시도 유지할수 없습니다. 철도는 질서와 규률을 세우기 위해 자기네 규정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동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준택은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 규정을 작성하는 회의에 저도 참가했습니다. 그때는 기차가 지선안으로 들어가주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여서 철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연체료규정을 만들 때 좀더 심중하게 논의해야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준택의 답변에 저으기 만족한 안색이었다.

《그 규정을 만들 때 참가한 기획국장동무도 연체료규정에 결함이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지배인동무들도 그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기를 하니 그 결정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당면해서는 저탄장을 고려하지 않고 화차를 막 들이밀고서도 연체료를 받아낸 철도에서는 연체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탄차를 제때에 끌어가지 않았으면 철도에서 벌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그럼 유선탄광에서는 잘못된게 없는가?》

이때 김책이 빠른 걸음으로 집행부에 들어서서 장군님곁으로 다가왔다. 정준택이 다음 자리로 옮겨앉으며 김책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은 계속하시였다.

《전호준동무한테는 잘못이 없는가? 지배인동무도 유선탄광의 저탄장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마저 피꼬리둥지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 저탄장에 맞추느라고 두개나 세개의 화차를 끌고 기관차가 오고가는것은 확실히 량비입니다. 단꺼번에 12개의 화차에 석탄을 쏟아넣을 저탄장을 만들수 없겠지만 계획을 받았을 때 저탄장이 걸릴수 있다는것을 생각하고 화차를 여섯개쯤 받을수 있는 저탄장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반년계획을 못했다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김책이 날카로워진 얼굴로 연단에 서있는 전호준을 돌아봤다.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것 같은데 옆에 장군님께서 계시여 입을 열지 않는듯 싶었다.

《부위원장동무는 유선탄광 지배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동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우린 전호준동무의 말을 통해 산업운수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화차를 더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지 않은 실무적문제입니다. 지배인동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자면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책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애써 녹жат힌 목소리로 청년지배인에게 물었다.

《전호준동무, 동문 지금 도장을 어디에 두고있소? 장군님께 도장을 보여드리오.》

청년지배인은 김책의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한 빛이더니 허리춤을 더듬어 새까맣게 탄때가 낀 끈에 매달려있는 사무도장을 꺼내들었다. 도장도 갈탄쪼각처럼 반들반들한것이 새까맣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도장을 허리에 차고 다니라고 했소?》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어야 할데만 찍기 위해 허리에 차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을데다 찍었소?》

《연체료지불증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기차를 들여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군님께서 어느쪽이 잘못했는가를 알아보시구 평가를 다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책의 여윈 상반신이 후두둑 떨렸다.

《동무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튀어나올수 있소? 산업국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있으니 내놓고 말합시다. 동무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경험도 어린 젊은 동무라고 해서 지배인으로 임명하는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걸 내가 동무를 보증했소. 내가 동무에게 임명장을 줄 때 뭐라고 했소. 첫째로 당원의 량심을 가지고 우리 당의 건국사상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소. 두번째는 도장을 허리에 꼭 차고다니면서 지배인이 책임을 질수 있는데만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했소. 그런데 지금의 동무사업을 놓고 어떻게 당원의 량심을 가지고 건국에 이바지하는 지배인사업을 했다고 말할수 있소?》

김책은 자기가 신임해온 청년지배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것이 못내 가슴이 아픈듯 이윽히 전호준을 마주봤다. 전호준은 부위원장의 힐책하는 눈길을 마주볼수 없는듯 더부룩한 머리를 숙였다. 전호준의 제기를 자못 통쾌해하던 지배인들도 웃음을 거두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무거운 정적이 내리덮인 장내에 김책의 무게있는 음성이 또 울려퍼졌다.

《물론 장군님께서 지도해주시는 회의에 참가했으니 해결받을것은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다가 해결할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호준동무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했는가? 장군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탄장을 한두개 더 만들면

계획을 못한 지배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수 있었습니다. 그래 저탄장을 한두개 더 만드는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어떤 난문제를 안고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저탄장이니 연체료니 하면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니 김책은 참을수가 없었다.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가 국가를 자체로 관리운영할수 있다는것을 내외에 증명해보일뿐아니라 민족의 앞날을 확신할수 있게 하는 계획이라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회의에 참가한 지배인들이 부강한 자주독립국가의 지배인이 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계획이라는것입니다.》

《지배인동무들은 부위원장동무의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회의장끝에까지 울려퍼지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미국놈들이 우리가 세운 금년도계획을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절대로 수행할수 없는 허황한 계획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어째서 수행할수 없는 계획이라고 하는가? 국가관리능력이 없는 조선민족이 경제를 92%나 장성시킬 예정인 올해계획을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이것입니다. 부위원장동무가 올해계획을 국가관리능력을 시험하는 계획이라고 한것은 이것을 넘두에 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올해계획을 수행할수 없는가? 지배인동무들은 상반기계획을 완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조선민족을 모욕하는 미제침략자들의 망발에 격분한 지배인들이 일제히 완수했다고 소리높이 웨쳤다.

《완수했습니다. 지금 연단에 나와있는 전호준지배인도 규정이 잘못되어서 채산상으로는 계획을 못했지만 석탄은 계획을 초과해서 했습니다.

문제의 잘못은 저탄장을 확장하지 않은것이고 이 회의에 와서야 철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것입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계획인가 하는것을 알지 못했기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전호준은 송구하고 부끄러워 머리를 무겁게 떨구고 서있었다. 그이의 말씀이 계시여 연단에서 내려선 그는 눈굽에 맺힌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며 자기의 자리에 가앉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왜 올해를 경제건설의 해로 선포했는가를 지배인동무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건 조선민족은 능히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섭니다. 두해전까지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살던 우리가 이런것을 증명해보이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할수 없겠습니까?》

은 장내의 여기저기에서 장군님의 말씀에 호응하는 드높은 웨침이 터져올랐다.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초과완수하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차넘친 장내를 둘러보시던 그이께서 회의장 한가운데 앉은 전호준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셨다.

《유선탄광 지배인동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호준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웨쳤다.

《할수 있습니다. 전 탄을 생산하는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것을 사실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피꼬리둥지같은 저탄장을 활 밀어던지고 열두개 화차를 받을수 있는 저탄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맹세문을 쓴 다음에 이 도장을 누르겠습니다.》

전호준은 허리춤에서 갈탄처럼 반들거리는 도장을 꺼내들기까지 했다. 온 장내에 청년지배인의 결심을 지지하는 웃음, 요란한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장군님께서도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김책, 정준택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여올랐다.

《바로 저런 기상이 있어야 합니다. 수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기상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을 받드는 저런 결심을 우리는 건국기상이라고 합니다. 상반기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지배인들은 모두 유선탄광 지배인처럼 비상한 결심을 품고 올해 계획을 받드시 초과완수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오전회의를 끝내자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국장실로 향하던 그이께서 부국장에게 전호준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시였다.

6

국장실에 들어간 장군님께서서는 정준택에게 가까이와 앉으라고 이르시였다.

《오늘 회의는 사실 기획국에서 주관해야 할 회의라고 할수 있소. 그래서 정준택동무에게 회의를 집행하게 했던것이요. 그런데 김책동무가 세워놓은 질서를 부국장이 제멋대로 위반하는것을 왜 내버려두오. 김책동무가 그런 질서를 세운것은

계획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지배인동무들의 책임성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소. 그런데 부국장이 제멋대로 행동하는것을 왜 내버려두오?》

정준택은 얼굴을 수긱하고 목안의 소리로 나직이 말씀드렸다.

《남의 국에 와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것 같아 가만있었습니다.》

《산업국사업이 어째서 남의 일이요? 더구나 산업국은 정준택동무가 얼마전까지 국장으로 사업하던 곳이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북조선인민위원회산하 한개 국에서 개별적일군이 전횡을 부리면서 이미 세워놓은 질서를 마구 헝클어뜨리면 투쟁을 해야 옳지 않소. 그런데 왜 내버려두는가 하는것이요. 이것은 본질에 있어 인민위원회사업은 어떻게 되든 나에게는 상관없다는 혁명성이 부족한 태도라고 할수 있소. 낡은 인테리근성에서 나왔다는것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정준택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며 목덜미에 내뚫은 땀발을 훔쳤다.

북도에서 발자욱소리가 들리는듯싶더니 꺾두룩한 부국장의 뒤를 따라 전호준이 떡 버그러진 어깨를 우그러뜨리고 주춤거리며 방에 들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아직 자책감에 시달리는 전호준을 옆에 앉히고 담배도 권하며 자애에 넘친 음성으로 가정형편을 물으시였다.

《광복전에 징용까지 갔다왔다니까 공부는 못했겠구만?》

《회령에 예수쟁이들이 세운 소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리를 아침 저녁 걸어다녔다는거겠소? 회령지방엔 눈이 많이 쌓이는데 겨울에도 매일 수십리를 걸었소?》

전호준은 놀란 눈으로 장군님을 쳐다봤다. 회의장에서 하지 못한 꾸지람을 하시려는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자애에 넘친 음성으로 자기의 어린 시절 고생을 가슴아파해주시다니... 무릎도리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하루에 왕복 60리를 걷던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을...

《학교에서 돌아 올 때는 배가 고파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겠소.》

《기체료리를 먹으면 배고픈것을 좀 참을수 있었습니다.》

청년지배인은 장군님께서 더 괴로와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허세를 부려보려고 했는데 목에서는 뜻밖에도 물기에 젖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기체료리란 뭐요?》

《길옆에 주막집들이 있는데 배가 고플 때는 부엌밖에 앉아서 냄새를 들이키곤 했습니다.》

《결작이요. 그러구보니 우리 동무들도 전호준동무가 말하는 그 기체료리신세를 진 동무들이 있었던것 같소. 그렇게 고생스럽게 소학교라도 졸업했으니 용소.》

《전호준동무는 북경성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서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강의록으로 중학공부를 했습니다.》

김책이 은근한 음성으로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전호준은 저도 모르게 숙였던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렇게도 엄엄하게 비판하던 김책이 자기의 학력을 보태주는 말을 해주다니?...

《강의록으로 공부를 했다? 대단하오. 험한 로동을 하면서 강의록으로 공부를 한다는것은 보통의지로는 할수 없는 일이요. 그래 강의록으로 공부할 때 뭇이 제일 어려웠소?》

《화학하구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수자와 부호를 가지구 뭇때문에 장난같은 공부를 하는지 알수 없었는데 한두해쯤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게 대단한 학문이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2년이나 들여다보구서야 화학과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다? 독학으로 방정식과 수학공식을 알게 됐으면 멋을 부리면서 중학교에 다닌 사람들보다 낫겠소. 독학한 지식은 가르쳐주는것을 따로된 지식보다 공고하니까. 그래 독학을 한 그 지식으로 탄광을 관리운영해나갈수 있소?》

마음속에 품은 말을 씨원씨원하게 털어놓던 전호준이 장군님의 이 물으심에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그이께서 쥐여주신 담배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몇번이나 옮겨잡으며 끽끔 갑자르기만 했다. 등에 얹혀있는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홀내뜨리지 못해 안간힘을 쓰는것 같은 모습이였다. 석탄가루가 뺨것같이 검실한 이마에 굵은 땀방울까지 맺혔다.

《할 말이 있으면 하오. 배짱군인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한 모양이구만.》

전호준은 자리를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 가슴속에 콧 맺혔던것을 쏟아놓듯이 웨쳤다.

《장군님! 기술자 한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 기술자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하반기계획을 초과수행할수 있습니다. 사실 권양기를 살린건 서종현기삽니다. 작년에 5만t을 한것도 서종현기사가 발전기를 살렸기때문입니다. 발전기를 살렸기때문에

권양기를 돌렸습니다. 발전기가 살기전에는 등짐으로 탄을 저냈습니다. 전기는 보이랴든 막히는데가 없는 기술잡니다.»

《그 기술자가 어떻게 됐소?》

전호준은 혁명적원칙엔 칼날같은 김책을 힐끗 스쳐보고나서 그다음자리에 앉은 최니꼬라이의 얼굴을 타진하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목안에서 한마디한마디 말을 꼬집어내듯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예수쟁이아들입니다.》

《신자의 아들이면 어쨌다는거요? 북조선민전에는 애국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의 조직이 망라되어있지 않소. 우리는 얼마전에 목사의 아들을 국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임명했소. 지휘자면 문화계의 중요일군이요.》

《그런게 아니라 예수쟁이아들이구 인조석유화학공장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쏘련사람들이 화학공장기계를 뜯어가는것을 보구 참지를 못해서 로동자들하구 같이... 그런걸 제가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탄광에 데려왔는데...》

최부국장이 불시에 전호준의 어정쩡한 말을 잘라던졌다.

《그러니까 동무는 반쏘분자를 감춰두고 써먹었다는거겠소?》

방안의 분위기는 누가 손짓을 한번 해도 폭발해버릴것 같이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강판을 내려치는듯한 김책의 맵짠 목소리가 방안에 울려퍼졌다.

《부국장동무!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워가지고 왔소? 내 사무실에서 버릇없이 굴다가 쫓겨난게 생각나지 않소? 더구나 이 자리엔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소! 동무네는 쏘련에 있을 때 수령을 지금과 같이 버르장머리없이 대했소?》

김책은 서리발같은 차거운 빛이 빗발치는 날카로운 눈으로 부국장을 쏘아보며 웨쳤다.

《자세를 바로 잡소! 장군님께 말씀드릴 문제가 있으면 정중한 자세를 취하고 말씀드리란 말이요. 장군님하구 10여년간이나 항일전쟁을 한 전우들도 동무처럼 행동하지 않는데 동무는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를 배웠소?》

《김책동무, 그만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는 의연히 부드러운 안색으로 김책에게 물으시었다.

《부위원장동무, 그 서종현이란 기사를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잠시 생각을 굴리던 김책이 말씀드렸다.

《만나본 일은 없지만 기획국장동무가 서울고공을 졸업한 기사가 유선탄광에 문혀있다고 해서 산업국 과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한 일은 있습니다. 정준택동무가 산업국장사업을 할 뻔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장군님께서 전호준을 돌아보며 물으셨다.

《그 기사동무를 살려달라는건 무슨 소리요? 그 기사동무한테 무슨 일이 생겼소?》

마침내 전호준은 입을 열었다.

《우리 유선에는 여섯개의 보이자가 있는데 서종현기사동무가 다 살리지를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직 살리지 못한 보이자를 우리 힘으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기술이 모자라서 아직 가동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올라온 기회에 기사동무의 도움을 받으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아주머니는 정신이 없구 집은 상가집처럼 어수선했습니다. 기사동무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 근 열흘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말은 반쏘반혁명분자의 감투를 또 썼다는겁니다. 서종현기사는 반혁명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두운 안색으로 전호준의 말을 듣고계시던 장군님께서 정준택에게 물으시었다.

《기사동무가 왜 체포됐는지 모르겠소?》

《전 처음 듣는 일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호준을 돌아보며 물으셨다.

《지배인동무가 서종현기사를 믿는 근거는 뭐요?》

전호준은 담배가치를 권 손을 내젓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툭 터놓았다.

《기사동무 탄을 더 많이 켈수만 있다면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사동무를 유선에 데려왔을 때는 석유화학공장사건이 아직 가라앉기전이어서 체포되기만 하면 감옥신세를 면할수 없는데 회령, 청진에까지 나가서 부속품을 구해오군 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부속품을 구해오는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니깐 그렇게 몸을 사려가지고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웃어넘기군 했습니다.》

서종현같은 사람에게 반혁명분자의 모자를 씌우는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는듯 전호준은 청높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정준택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서종현기사를 산업국에 데려왔으면 일정한 파악이 있어서 한 일이겠는데 그 기사동무를 어떻게 생각하오?》

전호준의 말을 긴장해서 듣고있던 정준택이 자세를 바로잡고나서 말씀드렸다.

《유선에 서울고공을 졸업한 유능한 기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찾아갔을 때 서종현동무는 유선의 생산능력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있었습니다. 산업국에 데려오면 도움을 받을것 같아 국에 올라올 생각이 없는가고 하니까 펜대를 놀리는것은 교원출신의 기술자들도 할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은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만이 할수 있다고 하면서 저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걸 제가 억지로 끌어올리다싶이 해서 전기동력과장자리에 앉혔습니다. 처장사업도 할수 있는 동무였지만 본인이 강경하게 반대해서 과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서종현동무가 석유화학공장소요사건에 관계했다는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장동무가 아는것은 그것이 전부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물으시였다.

《가정래력에 대해서도 대체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였습니다. 생활이 청렴하고 그리스도교리에 밝은 사람이여서 서울의 지식인들속에서 신망이 있었습니다. 태평양전쟁시기 감옥살이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종현은 아버지하구는 달리 절제가 좀 부족한 학생이었지만 정의감은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에 들어서면 얼마나 꼼꼼한지 전호준동무의 말처럼 동력계통에는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산업국에 와서 과장사업을 할 때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돼서 석유화학에 오게 됐소?》

《그건 아마 학교를 졸업할 때 임명을 거기에 받은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것이 아닙니다. 왜놈의 새끼들이 일본의 군수공장에 가라니까 그걸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구 석유화학에서 몇달간 일을 하다가 산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국장동무는 서종현기사가 덜렁거리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동자들하구 허물없이 지내구 아무거나 먹구 아무데서나 자는 텅텅한 사람입니다. 식량이 곤난해서 작년에 우리 탄광에 침 왔을 때 그 동무한테만 쌀을 주니까 로동자들하구 똑같이 만주에서 내온 콩을 달라고 해서 우리하고 같이 닦은 콩을 찹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지의 한 기술자를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아버지도 아들도 어떻게 반일감정이 강한 사람들이다. 군수공장에서도 일하기 싫고 징용, 징병에도 끌려가고싶지 않아 3~4년간 숨어다닌다는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다. 왜 북부산악지대에 들어왔는가? 서울에서 머지 않은 태백산줄기에도 수천명의 청년들이 징용, 징병을 기피해 숨어살지 않았는가? 그중에는 항일유격대와 련계를 취해보려고 련락원을 파견한 조직된 《부대》도 있었다. 서종현도 혹시 항일유격대를 찾아 북부산악지대에 들어온 수많은 지식인청년들중의 한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숨막히는 일제의 압박을 피해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그 어떤 희망의 세계를 향해 북으로 들어왔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광복이 되자 서울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고 북단의 화학공장에 다시 들어가 일제가 파괴하고 간 공장을 복구하는데 달라붙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정준택동무도 전호준동무도 그 서종현기술자가 좋은 사람이라는것이겠소?》

《예, 좋은 동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국장은 반쏘란동분자를 서슴없이 좋은 동무라고 비호하는 정준택과 전호준의 말에 랭소를 품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전호준동무는 아무것도 문제될것이 없는 기술자에게 반동의 감투를 씌워서 고생을 시킬것이 아니라 유선에 보내달라는거겠소?》

《그렇습니다. 장군님!》

그이께서 거둬 권해서야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던 전호준은 자리에서 뛰여일어나며 웨쳤다.

《기사동무를 보내주면 15만이 아니라 20만t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회의장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서종현동무는 건국기상을 지닌 기술자입니다. 장군님께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배인들이 건국기상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전 서종현기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기사동무의 성의를 봐서도 전, 전 그대로 내려갈수가 없습니다.》

전호준은 목이 꺾 메여 물기에 젖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장군님께서서는 서종현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셨다.

도섭스러운데라고는 없이 속생각을 탁 터놓는 전호준과 같은 로동계급출신의 청년지배인이 눈물지으며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반동일수 없으며 석유화학에서 있는 그 소동의 주모자일수도 없다!

석유화학에서의 소요란 지난해 초부터 여름까지 주로 북부조선일대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두고 일컫는 말이었다. 소련군은 미국과 체결한 비밀협정에 따라 **김일성**동지와는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조선인민이 피땀으로 건설한 《적산》 설비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파괴된 소련경제를 복구할 생각만을 앞세운 나머지 조쏘간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라는것을 고려하지 못했던것이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인민정권에 적의를 품은 반동분자들이 흥분한 로동자들과 인민들을 충동질하여 끝내는 소란스러운 란동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김일성**동지의 결단성있는 조치와 노력에 의해 기계의 반출도 중지되고 란동도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 란동에 기여든 사람들을 취급하는 문제에 이르러 당과 정권의 요직에 들어박힌 이른바 소련출신들과 항일무장투쟁출신 간부들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벌어졌다. 그들은 제2차대전시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세계사회주의의 보루인 소련을 지원하는것은 각국 혁명가들의 의무이다, 란동참가자들을 무조건 반쏘반혁명분자로 몰아 무자비하게 처형해야 한다는것이였고 항일투사들은 진짜 반동과 애국심의 발로로 떨쳐나선 사람들을 갈라보아야 한다, 인민정권의 승인도 없이 기계를 뜯어가는것을 반대해나선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렇게 되여 《주의》자가 붙은 《국제주의자》와 그들이 일컫는 《민족주의자》간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때에도 **김일성**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조쏘간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사리정연하고 공명정대한 논리에 의해 당내의 이 날카로운 대립은 주동적인 행동을 한 몇명의 반동분자들을 처벌하는것으로 끝을 보게 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서종현도 조선의 재부를 마구 뜯어내는데 격분한 정의감에 불타는 지식인청년으로

보시였다. 반일사상이 강한 서종현이 자기가 복구한 기계설비들을 뜯어가는것을 보고 가만있었다면 정준택이나 전호준의 말이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것으로 될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서종현을 살려낼 결심을 한 전호준에게서 참으로 귀중한 일군의 품성을 발견하시였다. 자기에게 재난이 닥쳐올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서슴없이 유능한 기술자를 구원해달라는 이러한 일군이야말로 큰일을 담당할수 있는 품성의 소유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서종현기사에 대해서는 곧 평양시인민보안서에 지시해서 알아보게 하겠소. 전호준동무나 국장이 믿는 사람이니 보안서에서도 좋게 처리할거요. 그건 그렇구 전호준동무는 지배인회의가 끝난 후에도 내려가지 말구 좀 기다리요. 그럼 전호준동무는 나가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김모라니와 같은 녀성일군에 이어 로동계급출신의 한 일군을 또 찾아낸것 같아 여간만 만족하지 않으셨다. 전호준이 국장실에 들어올 때의 주눅이 든 모습을 말끔히 털어버린 배짱군답게 절도있는 걸음으로 방에서 나가자 그이께서는 김책과 정준택을 마주보며 물으시였다.

《북부석탄관리국을 내와야겠는데 국장감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소? 난 전호준동무를 국장자리에 앉혔으면 좋겠소.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소?》

김책도 정준택도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여서 환하게 웃음이 피여난 장군님의 얼굴을 덤덤히 마주 볼뿐이였다. 최부국장은 모든것을 방심해버린 표정이였다.

《왜 해내지 못할것 같소?》

《나이도 아직 어리구 경험도 많지 못해서 국장을 시킬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경험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택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저도 지지합니다. 다만 금년계획을 끝낼 때까지 탄광에서 사업경험을 쌓게 하고 임명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이나 지배인사업을 했으니 경험이 정 어리다고는 볼수 없지 않소. 우리가 중시하는 유연탄광이 집중되어있는 북부탄전을 전호준동무와 같이 기백이 있는 로동계급출신에게 맡기면 기어이 임무를 수행할것이요. 금년 상반기계획을 못한것은 전호준동무의 잘못이라기보다 규정을 잘못 만들었기때문이요. 전호준동무를 북부석탄관리국 국장으로 임명하는것이 좋겠소. 부위원장동무가 책임지고 문건수속을 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참으로 큰것을 해결한 만족한 안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7

김책은 장군님께 제출할 문건을 검토하고있었다. 전호준을 북부석탄관리국장으로 임명하는 문건과 서종현을 산업국 과장으로 계속 사업시키겠다는 제의서도 그속에 들어있었다. 장군님의 말씀이 계시여 서종현문제를 그동안 김책이 료해를 했는데 전호준의 말대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로 될것이 없었다. 평양시인민보안서장 오진우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 보안서에 끌려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석유화학공장소요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정권기관에서 과장사업을 하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자가 모해를 한것 같다면서 그를 구속한 서원을 처벌하겠다고 오진우는 성이 나서 말했다. 문득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김책은 문건을 들여다보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마동삼이 돌아왔다는것을 알리는 성시백의 말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마동무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해주세요.》

김책은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곧 부관을 불러 고려호텔에 다녀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부관이 호텔에 갔다오는 그 짧은 사이가 너무나도 오랜듯이 느껴졌다. 마침내 돌아온 부관이 걸봉에 장군님의존함을 정중히 모신 한통의 봉함편지를 김책에게 넘겨주었다. 김책은 그닥 부피가 두텁지 않은 편지를 들고 곧 장군님의 집무실로 올라갔다.

장군님께서서는 만주에서 싸우는 민주련군에 공급되는 군수물자수송정형을 철도국장한테서 보고받고계셨다. 강건이 위수사령관의 직책에 있던 두만강대안의 간도지방은 장개석군대가 감히 침범을 하지 못해 민주련군의 공고한 후방기지로 되고있었는데 지금 그곳으로 조선의 철도망을 통해 방대한 병력과 군수물자가 수송되고있었다. 철도국장한테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고나서 장군님께서서는 강조하시였다.

《작전에 지장이 없게 병력이동과 군수물자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병력과 군수물자를 제때에 보급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는것만큼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장동무가 직접 틀어쥐고 사업하시오.》

철도국장이 집무실에서 나가자 김책은 장군님께 성시백이 보낸 편지를 드리며 마동삼이 도착했다고 알려드렸다.

《빨리 왔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어린 안색으로 편지를 개봉하시였다. 두장의 미봉지와 한장의 백지를 곁들인 편지였다. 먼저 백지의 글을 읽고 이어 미봉지의 글을 읽으시는 장군님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에 장군님께서 그리도 심각한 안색을 지으시는가? 김책도 목덜미가 뻗뻗하게 강직되는것 같은 긴장을 느꼈다. 편지를 두번이나 되짚어읽은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무거운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편지를 김책에게 주시였다.

《김책동무도 읽어보시오.》

장군님께서서는 편지를 넘겨주고는 깊은 생각에 잠겨 집무실안을 거니시였다. 김책은 그이께서 넘겨주신 편지를 서둘러 읽기 시작했다. 동봉한 한장의 백지에 자기가 뒤일을 부탁하고 떠난 부책임자가 보낸것이라는 성시백의 글이 씌여있었다. 두장의 미봉지를 골뻑하게 채운 글이 원본이였다.

...웨드마이어는 남조선의 군력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발작적인 격분을 폭발시켰음. 군편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그의 서울방문목적은 남조선괴뢰정부를 빠른 시일내에 조작해내는데 있음. 웨드마이어는 미군의 영구강점을 합법화할수 있는 괴뢰정부를 시급히 만들어낼데 대한 트루먼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리승만에 의거해서 단독정부를 조작하라는 마샬국무장관의 지령을 가져왔음. 그는 리승만을 자기의 숙소인 조선호텔 귀빈실에 불러들여 극력 고무. 공개적인 석상에 그를 끼고 출현...

통보의 정확성을 입증하느라고 자료를 제공해준 여러명의 이름이 기입되어있었다.

김책은 한순간 매지구름과 같은 시커먼 장막이 자기를 콧감싸버리는것 같은 느낌속에 말려들었다. 괴뢰정부가 수립되면 민족분렬은 더욱 심화될것이며 군사적대결은 격화될것이다. 그런 정황속에서 장군님께서 총로선으로 제시하신 건국위업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건국》호라는 배는 광란하는 파도에 휩쓸려 향방을 가려보기 어려운 난항을 계속할지도 모른다.

준절한 안색으로 집무실안을 오가던 장군님께서 굳게 주먹을 틀어쥐며 말씀하셨다.

《미국놈들이 가면을 벗었습니다.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놈들이 드디어 자기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을 청한 일도 없고 그들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국놈들은 38°선을 조작해낼 때부터 조선민족의 장기분렬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웨드마이어에게 대통령특사의 모자를 씌워 서울에 보낸것은 미제놈들이 인천에 상륙한 그때부터 목적해온 남조선의 식민지화,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제와의 정면대결입니다!》

장군님의 눈에서는 푸른 섬광이 번개쳤다. 틀어쥔 주먹을 들어올리며 말씀하시는 음성은 집무실벽에 부딪쳐 메아리를 일으키며 온 방안에 울려 퍼졌다.

《남조선강점의 합법화는 우리의 민주기지가 미제놈들한테 군사적위협을 받게 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민족의 장기분렬이 눈앞에 닥쳐온 이 엄혹한 사태를 수수방관해야겠는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결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짐무실안을 거닐다가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셨다.

《우리는 해결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나도 찾겠지만 김책동무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김책은 자기 사무실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장군님의 준절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그이의 음성이 귀전에서 떠나지 않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모지름을 썼지만 막혔던 숨이 탁 트일 방략은 좀체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방안에 어스레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에야 김책은 여름의 늦은 저녁이 벌써 찾아들었다는것을 알았다. 불을 켜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문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하루일을 끝낸 그는 몸을 돌려 창밖을 내다봤다. 장군님의 짐무실에서 내리비치는 밝은 불빛이 누워있군 하던 그 자리에 희미한 가로등의 불빛이 깔려있었다. 김책은 녹녹하고 차거운것이 가슴에 스며드는듯 한 느낌을 받고 몸을 흠칫했다. 인민위원회사무실의 불빛이 다 꺼져 해방산을 감싸안은듯 한 청사가 고즈넉한 어둠속에 잠겨버린 야밤중에도 그이의 짐무실에서만은 언제나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군 했다. 김책은 급히 송수화기를 들고 장군님의 부관실을 찾았다. 퇴근시간이 지나 댁에 들어가셨다고 부관은 말했다. 여느때는 김책에게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독촉하던 장군님이시였다. 김책은 서둘러 집에 들어갈 차비를 했다.

사택에 들어가 온종일 땀에 젖었던 얼굴을 씻은 김책은 저녁상을 차리는 안해를 불렀다.

《여보, 며칠전에 집에 갔다가 가져온것 있지 않소? 제일 잘 곤거라고 하면서 아버님이 보낸 약주말이요. 그것하구 뭘 좀 꾸러가지고 곧 장군님댁에 가져오오.》

옷매무시를 거울에 비쳐보고난 김책은 좁은 길을 하나 사이에 둔 장군님택으로 향했다. 정원에 들어선 그는 저도 모르게 못박힌듯 한자리에 굳어졌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삼복허리에 창문을 푹푹 닫았을뿐만아니라 창가림까지 드리운 응접실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헤아릴수 없는 거대한 중량이 어깨에 실린듯 걸음은 느리고 무거워보였다. 형편이 어렵게 된 조선혁명, 민족의 장기분렬, 장군님께서 거쉰 음성으로 말씀하신 낱말들이 김책의 머리속을 껴지르고 지나갔다. 엄혹한 현사태를 수수방관할수 없다시던 말씀이 귀청을 때린다. 김책이 모지름을 쓰며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애쓰던 민족의 운명을 건 사색을 그이께서는 계속하고계시는것이다. 김책이 선뜻 현관앞으로 다가가기가 저어되어 어둠이 깔린 정원길을 잠시 거닐고있는데 김정숙녀사께서 소리없이 그의 옆으로 다가오셨다.

《부위원장동지가 오셨군요.》

녀사께서는 한시름 던듯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아직 식사도 드시지 않고 응접실에 계십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식사는 드셔야 할것이 아닙니까.》

김책은 근심이 낀 김정숙동지의 그늘진 안색을 언뜻 스쳐봤다. 김정숙동지께서 얼마나 깊은 근심에 잠겨계시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겠는가.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오시는 김정숙동지가 아닌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을 때만 해도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바쁜 시간을 틈내서 대중강연에도 출연하시고 남조선에서 찾아오는 이름난 정객들을 맞이하여 장군님의 구상을 알려주시군 하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런데 이제 조국의

장기분렬이 눈앞의 엄혹한 현실로 닥쳐왔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괴로와 하시겠는가. 김책은 낮에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김정숙동지께 말해줄수 없었다.

《내 들어가서 식사를 드시라고 권해보겠소. 정숙동무, 너무 걱정하지 마오.》

김책은 응접실쪽을 바라보며 나직한 음성으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현관앞으로 다가가 일부러 소리를 내며 유리미닫이문을 열고 발자국소리를 크게 내며 마루우에 올라섰다. 응접실 한가운데 놓인 원탁을 틀어쥔 주먹으로 지그시 내리누르고 서서 깊은 사색을 이어가던 장군님께서 방안에 들어서시는 인기척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시였다.

《김책동무니까? 거기 앉으시오.》

쉬여버린것 같은 석심한 음성이였다. 불과 한나절사이에 모색도 한결 축간것 같은 모습이였다. 얼마나 심각한 사색을 계속하셨으면 음성이 석심해지기까지 했겠는가. 김책이 자리를 잡자 그에게 바람이 쏠리게 선풍기를 돌려놓으신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응접실안을 무거운 걸음으로 오가기 시작하시였다. 김책이 와있다는것을 잊은듯 하셨다. 어찌나 근엄한 안색인지 김책은 식사를 드셔야 한다는 말을 입밖에 낼수가 없었다. 그렇게 종이 30분은 지난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 조심스럽게 응접실문을 열고 들어오시였다.

《밤도 깊어서 좀 서늘해졌습니다. 창문을 여는게 좋지 않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씀하시며 김책을 돌아보셨다. 김책은 녀사의 눈길을 감축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할수 없었다.

《그렇게 하오.》

김정숙동지께서는 창가림을 열어젖히고 창문을 활짝 여시였다. 이렇게 한것만으로도 한결 근심을 던듯한 기색으로 김정숙동지께서는 응접실을 나서며 뒤일을 부탁한다는 뜻이 담긴 눈길을 김책에게 보내시였다.

창가림이 가볍게 날리는 창문가에 한동안 서계시던 장군님께서 김책앞에 와서 앉으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긴 안색에 석심한 음성으로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미제와의 정면대결은 보통 심각한 투쟁이 아닙니다. 역량대비로 보나 포악성이나 교활성으로 보나 미제와의 투쟁은 우리가 진행한 반일투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쉽지 않습니다.》

김책은 온몸이 굳어지는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웃음을 곧추 세웠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이 왜 간고했는가? 폭압이 강화될대로 강화된 식민지조선을 광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했기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세대사람들이 의병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이한 투쟁을 전개했고 수많은 조선동포들이 피를 흘린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한것은 말할것도 없고 왜 일제의 폭압을 반대하는 효과적인 투쟁을 못했는가? 전민족을 하나로 단결시켜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김책은 가슴이 미여지는듯한 심정으로 가슴아픈 지난날을 회억하시는 장군님의 추연한 얼굴을 마주봤다.

《선렬들의 이 쓰라린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수난의 력사가 시작된 현정세하에서 우리들은 선렬들의 오류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전민족의 단합된 역량으로 미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것입니다. 미제놈들이 조국의 분렬을

장기화할수 있는 괴뢰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해서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남북조선 전체 민족의 대단합을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김책은 눈앞이 탁 트이는듯 싶었다. 떡장구름과 같은 짙은 회색장막에 휩싸였던 자신이 해빛 눈부신 밝은 세상에 솟아오른것 같았다. 장군님께서 역경에 처한 혁명정세를 유리하게 전환시킬 대경륜을 찾으셨구나! 그의 눈앞에는 민족통일정부란 항구를 향해 경쾌하게 내닫는 《건국》호가 보이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안을 오가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러면 현재의 정세가 전민족을 단결시키고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는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많은 난관이 우리앞을 가로막고있습니다.》

38°선으로 해서 래왕도 자유롭지 못한 동강난 조국, 미제의 음흉한 민족리간책동으로 사분오열되어 권력을 다투는 남조선의 혼란된 정국... 이런 형편에 처해있는 민족을 하나의 력량으로 묶어세운다는것은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것은 명백했다.

《수많은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있다고 해도 우리는 뒤로 물러설수 없습니다. 한치라도 뒤로 물러서면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통일정권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미제의 침략에 맞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미제의 침략적야망이 남조선은 물론 전조선에 미치게 하는것과 같은 전세대 선렬들의 오유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틀어쥔 주먹을 대각으로 내려후리시였다.

《우리는 만난을 무릅쓰고 민족대단합을 달성해야 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쏘련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책은 흠칫 놀라며 가느다란 실눈을 한껏 치뜨고 장군님을 마주봤다. 해빛에 물든 대양을 내닫던 《건국》 호도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졌다.

《지금 당장 말입니까?》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쏘련군의 철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책동무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김책은 입을 열수 없었다. 북변의 장강을 도하하여 조선땅을 빈번히 침범하는 장개석군, 38°연선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적들의 무장도발, 전시상태와 다름없는 조국의 현실을 그는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쏘련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알수 없었다. 김책의 얼굴은 풀길 없는 고뇌로 해서 킁킁한 빛으로 물들었다. 김책이 답변할수 있을만큼 준비되지 못했다는것을 안 장군님께서서는 응접실안을 무거운 걸음으로 오가며 말씀하셨다.

《왜 쏘련군을 철수시켜야 하는가? 그것은 미제놈들의 악선전으로 해서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쏘련군의 존재를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과 같이 보고있기때문입니다. 민족대단합을 달성하자면 외세를 반대하고 애국심에 기초하여 연합을 이룩해야겠는데 북조선에 쏘련군을 두고 남조선사람들에게 미군을 반대해 싸우라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외세를 둔다는것은 우리가 항일을 할 때부터 견지해온 민족자주리념에도 어긋나는것입니다.》

김책의 머리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 때의 생각이 번개쳤다. 일제의 폭압이 가장 삼엄한 압록강, 두만강류역에서 항전을 계속하시는 장군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의 감복과 충격이었다. 자신은 적의 탄압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북만을 투쟁무대로 삼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조선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두만강류역에서 무장투쟁을 개시하셨으며 15성상 조종의 성산 백두산주변을 떠나지 않고 줄기찬 항일전을 전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족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 결심을 하셨던것이다.

장군님의 민족중시의 리념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조국광복의 큰뜻을 이룩할수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도 민족중시사상에 의거해 민족자체력량으로 미제의 대조선전략을 짓부셔버릴 결심을 하셨다. 얼마나 심원하고 결단성있게 원칙적으로 사색하시는 장군님이신가!

김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전의 위협에 구애된 나머지 장군님의 뜻을 곧 깨닫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그는 한마디한마디의 말에 힘을 주어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참으로 결심하기 어려운 문제를 결심하셨습니다. 나는 절대찬성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책앞에 오시여 북만의 사나운 바람과 강추위에 거칠어진 비장한 빛이 어린 그의 얼굴을 이윽히 마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은근하면서도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쏘련군이 철수한 후에 있을수 있는 사태를 생각해봤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미국놈들이 북침을 감행할수 있다는것도 생각해봤습니까?》

《생각해봤습니다. 장군님의 결심은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 많은 결심입니다. 장군님께서 언제 외세의 힘을 빌어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한 일이 있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깊은 뜻을 김책이 이해했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발자욱 앞으로 나서며 김책의 어깨를 와락 그러안으시였다. 김책도 장군님의 어깨를 힘있게 그러안았다.

《나는 이 결심을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목멘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조선을 광복할 전민항쟁준비가 다 되어 항공육전대투하작전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왜놈들이 서둘러 항복을 하는바람에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왜놈을 대신해서 이번에는 미국놈들이 들어와서 남조선을 강점하구... 백년래 조선의 역사를 돌이켜봐도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곡절에 찬 길을 걸어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조선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장군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민족은 이것을 압니다. 조선민족을 믿고 우리를 믿고 쏘련군을 철수시키십시오.》

김책은 눈물이 번져가는 불그레한 눈으로 장군님을 마주보며 힘주어 말씀드렸다.

《고맙습니다. 김책동무의 말을 전우들의 부탁으로 알고, 아니 조선인민, 우리 민족의 념원으로 받아들이고 미제침략자들과 투쟁하겠습니다. 조선민족과 외세와의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뭘입니까?》

《나는 성시백동무나 만나보고 곧 모스크바에 가서 쓰딸린을 만나겠습니다. 모스크바에 갔다와서 구체적인 문제를 토의합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책은 목메인 음성으로 진심에 넘친 뜨거운 말을 주고받았다. 방문밖에서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시던 김정숙녀사께서 눈물이 어린 눈굽을 저고리고름으로 짙으며 응접실에 들어오시었다. 아직도 어깨를 힘있게 그러안고있는 장군님과 김책을 미소를 지은 안색으로 잠시 지켜보던 녀사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부위원장동지택에서 별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이 식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책의 얼굴을 여겨보시었다. 그의 다심한 마음을 고맙게 여기시는 안색이였다. 잠시후 그이와 김책은 녀사의 뒤를 따라 식당으로 향하셨다.

8

몇그루의 정원수며 꽃나무들이 진곤색 어둠속에 잠겨들며 안식을 찾을무렵이였다. 성시백이 도착할 시간이 되자 장군님께서서는 김책과 함께 현관밖에 나가시었다.

정문에 들어선 풍차에서 빠져나오던 성시백은 어스크레한 현관앞에 김책과 함께 서계시는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아보고 서둘러 모자를 벗었다. 소풍을 하려고 변화한 서울거리에 나섰던 부유한 실업계의 중진이 생각밖의 고위인사를 만나 레절을 차릴 때처럼 조금도 서둘지 않으면서 깎이고 다듬어진 세련된 동작으로

장군님께 인사를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성시백의 손을 잡으며 웃음어린 안색으로 물으시었다.

《이제는 몸이 괜찮습니까?》

《네. 의사선생들이 어떻게나 성의를 바치는지 송구할 정도였습니다. 몸은 곧 회복됐는데 얼굴에 상처자욱이 남을수 있다고 해서 미안한대로 며칠간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안할게 있습니까? 38°선을 넘다가 그렇게 됐는데... 성시백동무가 20여년이나 우리 민족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는걸 알았더라면 의사선생들이 더 성의있게 치료해줬을겁니다.》

《제 평양에 와서 받은 인상중에서 가장 강한 인상이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사람들속에 들지도 못하는데 의사선생들도 려관사람들도 저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주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며 성시백은 중절모를 걸개에 걸었다. 무더운 여름에 두루마기까지 입은것으로 보아 레절을 갖추느라고 땀 애를 썼다는것이 알렸다. 그는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남조선의 려관에서는 이런 풍조가 차츰 사라지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성시백과 마주앉으며 리해를 표시하시었다.

《광복의 감격이 사라진데다 남조선에서는 돈을 위해 려관업을 하고있으니 돈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겁니다.》

《저도 남조선의 시세에 맞추어 부자행세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여간만 큰 고통이 아닙니다. 북조선에 들어와서 돈이나 허식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건국에 헌신하고싶을 때가 있군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국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을 제일 고상한 사상의 소유자로, 인민도덕의 체현자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은 불행을 생각해서라도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자, 이것이 우리가 현재 전개하고있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기본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밝은 웃음을 얼굴에 띠우며 마음을 탁 터놓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는 문득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부위원장동무의 말을 들으니 성시백동무는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적지 않게 교역해가고있다는데 여기에서 나온 돈을 어디에 씁니까? 생활을 유지하는데 씁니까?》

《북조선과의 교역은 일종의 선전을 목적해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저는 정치활동의 거점으로 리용할 생각으로 남조선에 여러개의 무역회사들을 내왔습니다. 서울에만도 서너개의 회사를 내왔구 인천, 부산과 같은 항구도시에도 무역회사를 두고 홍콩, 마카오, 중국관내의 여러 도시들과 무역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뜻을 같이하기로 한 사람들의 생활도 보장하고 정치활동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합니다.》

성시백은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응접실안의 소박한 가구에 가끔 눈길을 던지군 했다.

《오늘밤은 성시백동무를 위해서 시간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에 구애되지 말고 속을 푼 터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성시백동무의 말을 듣고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려관에 찾아갔을 때 무슨 이야긴가 낱히 하고싶어하는것 같았는데 그건 어떤것입니까?》

이런 좌석이 찾아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성시백은 자세를 고쳐잡으며 곧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남로당의 실패는 이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문제는 남조선좌익이 단결되지 못해서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남로당의 실권을 쥐고있는 사람들의 독선적인 태도에 원인이 있습니다. 좌익력량의 이러한 형편은 민족적재난을 가져올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동안에 새로운 전위당을 내올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새로운 당을 발족시킬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옳은지 장군님의 고견을 듣고싶었습니다.》

성시백의 말을 주의깊이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은근하면서도 부드러운 눈길로 상대를 마주보며 무게있는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성시백동무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시백동무는 남조선에 새로운 전위당을 내오면 미국의 침략을 짓부실수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 승리할수 있다고 확신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성시백은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장군님을 우러러봤다. 이윽고 그의 머리는 무겁게 밑으로 처져내렸다.

《저는 민족이 위험에 처한 이때 최선을 다하는것이 혁명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시백동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결심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성시백동무가 말한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다 실패를 해도 할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엔 반대입니다. 조선혁명가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 이것이 조선혁명가의 태도여야 합니다.》

치밀한 사고를 하는데 습관된 성시백의 얼굴에는 한순간 사색의 균형을 잃어버린듯 혼란된 표정이 떠올랐다.

《물론 우리는 성시백동무가 새로운 당을 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리유도 이해할수 있고 그 심정도 알수 있습니다. 또 남조선좌익이 성시백동무가 말한 그러한 결함을 시급히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시백동무의 견해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러운 웃음이 비낀 안색으로 범상한 이야기를 하시듯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성시백은 몸둘바를 몰라하는 당황한 경황속에서도 장군님의 얼굴표정에서 그 어떤 의미를 찾으려듯 시선을 집중했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에 새로운 전위당을 내오는것은 그렇지 않아도 집안싸움으로 어수선한 좌익진영을 더 복잡하게 만들수 있다고 하시였다. 또 정당활동을 하면 어차피 조직이 로출되어 적들의 탄압을 받을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시였다.

《성시백동무가 투쟁을 하자는것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해 싸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놈들이 만들어놓은 울가미속에 무엇때문에 발을 들여놓겠습니까. 성시백동무는 몇개의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류동열선생, 송호성선생과 같은 애국적군인들을 납득시켜서 괴뢰군편성을 지연시켜온것이 간단한 일입니까.》

좁을사한 미간이며 곧은 코날로 해서 치밀한 사색을 하는 성격이라는것이 알리는 성시백의 단아한 얼굴에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당혹한 빛이 어리는것을 보신 장군님께서서는 자개박이함을 밀어놓으며 담배를 피우라고 권하시였다.

성시백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것을 본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안을 잠시 거니시였다.

《조선민족을 예측시키자고 하는 적은 세계초대국인 미국입니다. 미제와 같이 강력한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어느 한 당이나 계급, 계층의 힘만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전민이 떨쳐나 거족적인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을 모두 망라한 통일전선을 형성해가지고 전민이 떨쳐나 침략자와 투쟁을 해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성시백은 황급히 담배불을 비벼끄고 경이와 존경의 빛이 어린 눈으로 장군님의 존안을 우러러봤다.

《무엇을 목표로 삼아 전민을 반미투쟁에 떨쳐나서게 하겠는가? 그것은 나라의 완전독립입니다. 다시말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조선민족을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주권을 소유한 민족으로 되게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미제를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민족의 총의를 모은 합법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해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전세계를 향해 선포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조선은 합법적인 민족통일정부를

가진 자주적인 국가이다, 우리는 38°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을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나라도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규탄을 받는 침략자로 간주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힘차게 손세를 쓰며 청높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성시백은 너무나도 벽찬 충격으로 해서 숨이 꺾 막히는것 같았다.

그는 환희의 빛으로 불타는 눈길을 장군님의 존안에서 떼지 못했다. 눈길만이 아니라 심장도, 아니 온몸이 감탄과 환희로 뒤설레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찌면 전민족의 심장을 불타게 할 이렇게도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웅심깊은 방략을 제시하실수 있는가! 위인의 사색이란 바로 이러한것이구나! 성시백은 환희의 불길에 스스로를 던져버린 행복에 취해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달았다. 몇번 연기를 삼키느라니 천성으로 되다싶이한 랭철성과 함께 리성적인 사고가 되살아났으며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방략을 실현하자면 불피코 앞을 가로막을 수많은 난관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환희와 행복의 세계에서 탈피한 그는 흥분을 다잡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전 장군님의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또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략이 조선문제해결의 최선의 방안이라는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시백은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참을길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는듯한 눈길로 장군님을 마주봤다. 위인의 사색에 흥분한 자신의 머리에 거칫거린 검은 그림자가 말을 계속할수 없게 한것이다.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가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 그는 말을 계속했다.

《조선은 미쏘랑군의 리익이 얽혀있는 대결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량국이 장군님의 구상을 반대하지 않겠는지 걱정됩니다. 미국이 결정적인 방해를 놓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책이 손에 들고있던 부채를 원탁에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참으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셨을 때엔 그 가능성을 확고히 내다보셨기때문입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실현시킬수 없는 전략을 제시하신적이 없습니다.》

《성시백동무의 근심을 알만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다.

《통일전선을 결성한다고 해도 자주적인 민족통일정부를 창건할수 있겠는가 이것인데 수많은 난관이 우리를 방해할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쏘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남조선인데 거기서도 목전의 리익을 놓고 다투고있으니 그렇지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리승만일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선생, 김규식선생, 조소앙, 안재홍선생... 거기에다 반미애국의 립장을 이미 명백하게 표명한 홍명희, 리극로선생같은분들을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족자체력량에 망라될수 있는 모든 정치력량을 단결시켜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해서 민족단일정권을 세우는것이 조선민족의 당면과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성시백의 우려는 놀램으로 바뀌였다. 김구, 김규식같은 사람들과도 통일전선을 형성할 생각이신가? 한사람은 정치적지반이 상당한 정도로 든든한 보통 완고하지 않은

반공보수주의자이다. 다른 한사람은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난해한 쉐스피어문학에 도통한 영문학자인 동시에 30여년간이나 미국과 소련, 중국, 프랑스... 세계각국을 편답하며 강대국의 힘을 빌어 조선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한 외교의 능수로 알려진 사람이다.

성시백은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김구가 한때 장군님과 연합할것을 제기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색한 처지에 빠져있던 중경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현재 서울 <경교장>에 들어앉아 소위 민족적량심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제왕행세를 하고있습니다. 반공에 대해서도 제일 요란스럽게 떠들고 중국에 있을 때 한두번 성공한 테로를 리용해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정치공작대>라는것을 조직해서 북조선에까지 침투시키고있는 형편입니다.》

성시백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장군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이께서는 성시백의 말을 주의깊이 듣고계실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였다.

《김규식은 김구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한때 소련의 힘을 빌어 조선독립을 달성해보려고 했다는것은 장군님께서 잘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련의 도움도 별로 받지 못한데다 <흑하사변>을 목격한 후에는 다시 미국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친미사상을 가졌지만 리승만처럼 야심가형은 아니기때문에 우익진영은 물론 중간과인물들한테서까지 상당한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놈들은 김규식이 일정한 신망을 얻고있다는것을 알기때문에 미군사령관의 정치고문들과 미국무성에 끈을 달고있는

미국놈들이 달라붙어 그를 통해 남조선의 이름이 알려진 정객들을 장기쪽 옮겨놓듯 하고있습니다. 김규식도 미국놈들이 자기를 중시한다는것을 알고있어서 그는 그대로 미국놈들을 리용합니다.》

김책이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성시백에게 몇마디 말을 했다. 그러나 어조에는 분명 불만이 어려있었다.

《나는 성시백동무가 어째서 장군님께서 김구, 김규식같은 적대진영에 속해있는 사람들까지 민족자체력량에 망라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때를 놓치면 자주적인 통일정권도 세워보지 못하고 예속될수 있다고 간주하고계십니다. 조국광복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우리가 자주적인 정권건설을 위해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성시백의 얼굴에 경련의 파도가 스쳐지나고 안경알속의 얇은 눈시울은 파르르 떨렸다. 김책부위원장의 어조로 보아 장군님께서는 자기가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어떤 면밀한 구상을 하고계신다.

《나는 성시백동무가 김구선생이나 김규식선생을 비교적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책감에 사로잡혀 깊은 생각에 잠긴 성시백의 귀에 장군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흘러들었다.

《정확하게 봤는데 현재는 그것이 결함으로 되고있지만 앞으로는 긍정점으로 될수 있는 점을 아직 생각하지 못한것이 결함이라면 결함입니다. 김구선생을 레로 들어봅시다. 언젠가 미군사령관이 김구선생에게 무슨 의논할 문제가 있으니

미군사령부에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김구 선생은 대노해서 제놈이 뭔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가?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의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라! 이렇게 욕을 퍼부어서 연락은 부관인가 하는놈을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하나의 웃음거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리승만이 미군정에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을 때도 이 나라에는 립정이란 정부가 있을뿐이라고 하면서 협력을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시백동무가 말하는 완고한 민족주의자라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사상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민족주의란 애국사상을 바탕으로 두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이 장기간 분열될 수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교두보로 리용하여 앞으로 반드시 전조선을 강점하려고 할 것이다, 정세라는 것은 강물과 같아서 대하를 이루기 전에 막아버리면 유익하게 리용할 수도 있지만 큰 강을 이루면 벌써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 침략의 흐름을 막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김구에게 이 정도의 사상도 납득시키지 못하겠는가? 김규식 선생의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 그를 민족의 편에 돌려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뒤를 이어 나가지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후 민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책이라는 것을 대체로 김규식 선생을 조종해서 시행해왔습니다. <민주의원>이니 <과도립법의원>이니 좌익중간파와의 관계를 맺는 것들을 그 실례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미군은 김규식 선생의 권위를 리용하지 않고서는 남조선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김규식 선생이 리승만처럼 미국에 조선을

팔아먹자고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것은 성시백동무도 잘 알고있을겁니다. 선생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조선독립을 달성하자고 하는데 종당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선생과 미국놈들사이에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미묘한 암투가 계속되고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빌리자는것은 선생의 약점이지만 독립을 달성해보자는것은 선생에게 애국의 뜻이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시백동무의 언변과 두뇌를 가지고 선생에게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조선의 독립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납득시킬수 없겠습니까? 이 사업에서 성시백동무가 성과를 거두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선생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국의 편에 돌아설것은 말할것 없고 미국놈은 한팔을 잃어버리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민족자체력량은 강화되고 침략세력은 약화된다는것입니다. 이것이 자주적인 통일정부를 창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습니까.》

명백한것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것이 김규식의 성격적특질이라고 할수 있었다. 김구와는 달리 일단 결심한 문제를 쉽게 버리는것이 김규식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의 일생이라고 말할수 있는 지난 기간의 정치생활이 여실히 증명해주고있었다. 성시백이 중경에 갔을 때 그는 비록 다섯명안팎의 당원이 있을뿐인 보잘나위없는 정당이었지만 좌익사상을 념원으로 삼고있는 조선혁명당의 주석이었다.

광복이 되어 서울에 돌아오자 이 주석자리를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고 내던지고는 미군정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자문기관인 《민주의원》의 산파역을 수행했으며 지금은 미국의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과도립법의원》의 의장자리에 앉아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김규식선생이 유약하고 타협적인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김규식선생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외국에서 30여년간이나 떠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망명생활을 계속할수 있었겠습니까? 김구선생도 그렇지만 특히 김규식선생의 경우에는 마음을 의지할수 있는 사상을 발견하지 못한 탓에 정치적견해를 자주 바꾸고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제일 부족한것이 사상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상이 범람하고있는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 그것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민족적량심을 가진 사람들을 한푼에 다 받아안을만한 사상이 없기때문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사색의 오솔길을 걷느라고 머리를 숙이고있는 성시백의 마음속을 벌써 헤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시백은 얼굴을 들고 자신의 결심을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전 부위원장동무가 저에게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대업을 앞에 두고 가능, 불가능을 생각하는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방략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것이 명백한 이상 저는 그것을 위해 한몸을 바치겠습니다.》

장군님의 안면에 순간 어두운 그늘이 비졌다.

《우리는 성시백동무한테 반성하는 말이나 결심을 듣자고 시간을 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을 구원할 방안을 찾자고 마주앉았습니다. 김구, 김규식선생, 아니 민족적량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있는 모든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을 한데 묶어세울 사상이 정말 없을것 같습니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남조선이란 온갖 사상이 별의별 형태로 둔갑을 해서 판을 치는 사상의 범람지대라고 할수 있었다. 공산주의, 사회개량주의, 허무주의, 민족주의, 세계주의, 봉건주의, 친미사대주의, 개인주의... 그것이 또 분과를 이루고 새끼를 쳐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잡사상을 정견으로 내걸고 악마구리 꿩듯 하는 정계에서 남조선민중을 반미구국투쟁에 불리일으킬수 있는 견인력과 감화력을 가진 사상이란 어떤것이겠는가? 성시백이 혼신의 힘을 다 바쳐 조선민족의 진두에 세울 기발의 명구를 생각하고있는데 가벼운 손기척소리가 들리는가싶더니 응접실문이 열렸다. 김정숙동지께서 웃음지은 밝은 모습으로 방에 들어오셨다. 장군님께 가까이 다가가시여 나직한 음성으로 몇마디 말씀을 하시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리 식사를 한 후에 이야기를 계속하는것이 어떻습니까?...》

몇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수 있는 검소한 안방에 안내되였다. 두칸 남짓한 방이였다.

김정숙녀사께서 친히 음식그릇을 들고오군 하시였다. 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전우이며 백두의 녀장군이신 녀사께서 접대원이 해야 할 일을 손수 맡아하시다니? 부엌을 향해 말씀을 할 때도 동무라는 친근한 호칭을 달아 상대를 불렀으며 음성은 무척 부드럽고 다정하시였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부엌에서 녀사를 특별히 존대하여 부르는 말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지어 사모님이라는 존칭사마저 쓰는것같지 않았다. 직무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어도 인간으로서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리념이 장군님덕에서는 벌써 구현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사상과 리념을 생활에 구현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성시백은 마음이

정화되는듯한 뜨거운 감회에 휩싸였다. 장군님택에 이런 숭고한 가풍이 형성된것은 녀사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셨기때문일것이다.

깊은 상념에 빠져있는 성시백에게 기울여주는 녀사의 정성은 또 얼마나 각별하신가. 적구에서 사업하시자니 고생이 얼마나 막심하겠는가? 긴장한 생활을 계속하느라고 음식맛을 즐기며 때식을 들기도 어려울것이라고 하며 그의 식성에 맞는 낙지, 명태같은 마른 음식을 성시백앞에 놓아주시는것이였다. 항일대전시기 녀사께서 적구투쟁을 많이 하셨다는것을 알고있는 성시백은 그 경험을 듣고싶은것이 소원이였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닥지 않은 사업과 고충을 이렇듯 크게 사주시니 몸둘바를 알수 없었다.

《성시백동무는 자기전에 밤참을 먹는 버릇이 있다는데 혹시 지나치게 무리를 해서 벌써 수면장애를 받고있는게 아닙니까?》

녀사께서 마른 음식을 좋아하는 자기의 별스런 식성을 알고계시여 저으기 놀랐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늦은 저녁을 먹군 하는 습관까지 알고계신다. 혹시 호텔의 요리사들이며 의사들이 자기의 남다른 습관을 말씀드린것이 아닐까?

《그런것이 아니라 광복전에 밤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밤참을 먹군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것처럼 혁명투쟁에서도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식탁을 차려놓고 방에서 나가시려는 김정숙동지를 불러세우시였다.

《거 내게 말하던것이 준비됐으면 지금 들여오오. 정숙동무의 성의인데 식사를 하기전에 봅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곧 별로 크지 않은 함통을 들고 들어오시었다. 정성을 들여서 짠 함인데 부드러운 인견으로 짠 그릇같은것이 들어있는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영문을 몰라하는 성시백앞에 찬합을 놓으며 소박한 선물을 송구해하는듯한 빛으로 말씀하시었다.

《민순임동무(성시백의 안해)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그릇을 고르롭게 갖추지 못했어요. 남쪽에서 사업하시니까 태여날 아이가 백날이 돼도 가보지 못할것 같구 돌잔치에는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는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백날이며 돌을 위해 선물을 마련하시다니... 내가 무엇을 했기에! 존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이런 선물까지 준비하셨는가. 김책의 말이 아직도 머리속에서 어른거리 부끄러움을 금하기 어려운데 선물까지 준비하시다니...

김정숙동지께서 그릇을 덮었던 부드러운 천을 들어 한옆으로 제쳐놓으시었다. 어린애의 밝은 웃음처럼 눈부신 빛을 뿌리는 은으로 만든 중발이며 종발, 애기은수저... 동그랗게 꽃모양을 세공한 그 가운데에 역시 섬세한 솜씨로 새겨넣은 글씨가 보였다.

《자립》

순간 성시백은 전기에 감전된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환한 웃음을 짓고계신 장군님을 마주보고 김정숙녀사를 마주보는 안경속의 두눈이 환희로 불탔다. 걱정을 억제하는데 습관되고 세련된 동작이며 말투가 몸에 밴 성시백이 거치장스러운 이른바 레절이라는것을 순간에 날려버리고 흥분한 목소리로 웨쳤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어떤 사상을 단결의 기동으로 삼아야 하겠는지 알았습니다.》

《정숙동무가 생각해낸 이름인데 사내가 태어나면 별루 이상할것 같지 않은데 처녀애가 태어나면 좀 유별나게 들릴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의 장래가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신문에서 보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 듣기도 했는데 어째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성시백동무가 마음에 든다니 나도 기쁩니다. 남조선인민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사상을 발견했으니 성공의 첫 대문을 열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내 성시백동무에게 한가지 의견을 말할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시백동무가 정치가로 활동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선전, 통일전선사업이 첫째이고 이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경험을 말씀해주셨다. 어느 한 지역을 혁명화하기 위해 투사들이 파견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했는가, 김정숙녀사, 권영벽의 사업경험을 특히 자상하게 말씀하시였다.

성시백의 간곡한 소청을 받은 김정숙녀사께서도 식당에서 들어와 항일대전시기의 투쟁경험을 직접 말씀해주시였다.

녀사께서 경험담을 끝내시자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조국의 절반땅이니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할수는 없을겁니다. 그러나 신갈과나 연사, 장백이나 신흥지역을 혁명화한 경험은 오늘도 참고로 할수 있을겁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한 지역을 혁명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조직을 꾸리고 지도핵심과 대중과의 연계는 어떤 방법으로 취했으며 선전은 어떻게 하고 자체보위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었다.

《우리의 생각을 간단히 말하면 성시백동무는 민족자체력량을 편성하기 위해 사상사업, 통일전선사업을 하는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신문도 내고 조직도 더 잘 꾸리고 자체보위를 할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끝낸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의 사업을 위해 촉배를 들자고 하시었다.

제 2 장

1

뿌연 비구름은 아호비령 산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며 회오리쳤다. 강파로운 산비탈을 후려치기도 하고 오불꼬불한 신작로를 활기도 한다. 낡아빠진 목탄빠스는 이 심술이 뻥친 비구름속을 한시라도 빨리 뚫고나가려는듯 양양 악을 쓰며 울통불통한 비탈길을 한치한치 툭아올라갔다. 신작로쪽으로 팔을 내뻗친 소나무가지끝에서

하염없는 눈물인양 비방울이 투덕투덕 떨어졌다. 차창에서도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무거운 눈물처럼 비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서종현의 가슴속에도 차창에서 흘러내리는 비물과 같은 눈물이 고이는것 같았다.

누가 보나 이사짐이 분명한 고리짝에 트렁크, 네댓살짜리 사내애와 젊은 녀인에게 안긴 젓먹이어린애, 평양을 출발할 때는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던 사내애도 부모들에게 들이닥친 불행을 이제 알아챘는지 말을 잊어버린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서종현도 일체 번거로운 잡념에서 벗어나 모든것을 체념하려고 했지만 이런 론리적사고로는 도저히 밀어내버릴수 없는 감정이라는것이 있었다.

짓밟힌 자존심, 보안서에 끌려갔을 때 그는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사치한 감정을 짓밟아버리려고 퍼그나 애를 썼다. 구류장에서 10여일을 보내는 사이에 자존심이라는것을 췌버린것 같기도 했다. 이런 그에게 생각도 할수 없었던 해밭이 비쳐들었다. 그를 보안서에서 내보내기전에 서장인 오진우가 만나주었다. 오진우서장은 서종현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애매한 사람을 못살게 군 서원을 대신해 사과까지 했다.

서종현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리상과 함께 자존심을 되찾은듯 싶었다. 그런데 한달도 되기전에 이번에는 검열국에서 그를 불렀다. 서종현은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대동교를 건너갔다. 호출을 받고 부국장이란 사람을 찾아들어가니 주걱턱이 진 비대한 사나이와 마구 쥐여붙인것 같은 얼굴의 중년사나이가 로씨야말로 떠들며 웃어대고있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선 서종현따위는 숫제 안중에도 두지 않는 태도였다. 그도 산에서 숨어살 때 로어공부를 얼마간 했지만 전혀 말귀를 알아들을수 없을만큼 류창하게 로씨야말을 지껄여대는것으로 보아 항간에서 흔히 《얼마우제》라고 하는

족속들인것 같았다. 서종현은 후에야 그들이 쏘련군이 진주할 때 통역명색으로
 끼문어나온 사람들이라는것을 알았다. 한참동안 웃고 떠들던 그들은 서종현이
 기침소리를 내서야 입들을 다물고 제법 위엄을 돋군 얼굴을 돌렸다. 그 다음에는 참기
 어려운 욕설이 쏟아졌다. 종교는 아편이다, 목사라는것은 아편을 밀천으로 삼아
 침략자들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아편장사군과 같은것이다. 당신은 아편장사군의
 자식이다. 쏘련에 잠입하기 편리한 두만강류역에 들어온데는 은밀한 목적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인민정권은 당신이 불명확하고 위험한 존재인줄 알면서도 기술을
 소유하고있는 특수한 점을 고려하여 석유화학공장에서 기사로 일을 하게 했다. 당신은
 이 관대정책을 역이용하는 범행을 감행했다. 반쏘란 무엇인가? 반혁명이다.
 반혁명분자를 동창생이라고 해서 산업국에 끌어올려 과장이란 직책까지 안겨준 그
 사람도 기술자가 양성되는 차제로 계급의 신성한 보루인 인민정권기관에서
 제거될것이다. 혁명적원칙을 위반하면서 당신을 보증한 전호준도 도에서 제재를
 받는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고전가들의 명제를 그도 알고있었으며 종교를 침략에 리용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혐오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편장사군의 오명을 씌운 그들의
 말을 그는 시인할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교에 반일적인 경향이 있고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이 종교에 마음을 의탁했을뿐이었다.

더구나 밀정질을 목적으로 삼아 자기가 조선의 북단 두만강가에 들어왔다는 그들의
 말은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고려할 여지도 없는것이였다. 일제의 폭압을 어떻게
 해서든 멀리하려고 북부산악지대로 흘러들어온 그였다.

만에 하나라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은인을 만났으면 하는것이 꿈이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본 일이 없었으며 혁명에 몸을 던질 투지를 지닌 사람이라고 여긴적은 더구나 없었다. 다만 청신한 대기가 그리워 창문을 열듯이 마음의 창문을 열곳을 찾아 북단의 산간지역으로 발길을 돌렸을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비렬한 밀정질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을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서종현은 시까슬고 모욕하는 두 《얼마우제》의 말을 입술을 짓씹으며 피눈물이 가슴에 고이는 심정으로 묵묵히 듣고 서있었다. 일제에게 그대로 굴종할수 없어 스스로 선택한 길이 자기를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길이였다는 기막힌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는 망두석처럼 서있기만 했다. 산업국에 가서 다음 지시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부국장실에서 나왔다.

그는 늦은 여름의 땀별도 느끼지 못하면서 대동교를 건넜다. 자기가 어떻게 다리를 건넜으며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지도 못했다. 그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국장을 대리하는 최부국장을 찾아들어갔다. 부국장은 멸시와 조소의 빛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며 지금 가고있는 아호비령너머의 덕산광산의 이름을 찍어주었으며 과오를 씻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출발하는것이 좋다고 했다. 기사로 일할수 있게 된것이 다행이라면 다행한 일이라고 할수 있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직급이나 직종따위에 개념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사짐을 량손에 들고 지고 아이들까지 이끌고 사무실에 들어서서 서종현일행을 맞이한 덕산광산기사장은 그저 어안이 병병한 표정이였다. 뒤미처 달려든 지배인과 당위원장도 먼길을 오기에 수고했다느니 애들이 귀엽다느니 하면서 당혹한 마음을

감추느라고 수선을 떨었다. 서종현이 과장으로 사업할 때 이 광산에 내려온적도 있고 또 산업국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기술자여서 지배인과 기사장은 평양에 올라올 때마다 그를 찾곤하여 잘 아는 사이였다.

서종현네가 광산에 온것을 놀라와 하는것으로 보아 최부국장은 전화쯤 걸어주는 하찮은 수고를 하는것조차 시끄러워한 모양이었다.

해발 수백m높이의 고산지대여서 벌써 가을선기 같은것이 몸에 스며든데다 버스에서 내려 광산까지 들어오는 사이에 비에 흠뻑 젖어 입술들이 시퍼래져서 덜덜 떨고있는 안해며 아이들을 아무데건 우선 들여앉혀야 했다.

《당신은 빈방같은걸 하나 얻어서 자리를 잡소.》

광산에 내려오게 된 구구한 사연을 늘어놓고싶지도 않았고 경난을 겪는 후줄근한 모습들인 안해며 애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오가고싶지도 않아 서종현은 안해에게 일렀다.

《난 현장에 나가 봐야겠소.》

기사장에게 광석생산에 지장을 주고있다는 전동기를 보러가자고 했다. 광산일꾼들은 이삼일 쉬라면서 앞을 막았지만 서종현은 부득부득 트렁크속에서 작업복저고리를 꺼내서 옷몸에 걸쳤다. 자존심이란것을 췌버리기로 결심한터에 무엇때문에 체면을 생각하는지 스스로도 알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안해에게 불성사나운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싶지는 않았다.

그는 기사장과 함께 동력직장으로 향했다. 기사장의 직무에 있긴 했지만 기사의 자격증이 없는것은 말할것 없고 동력설비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는 기능공출신의 덕산광산기사장은 가벼운 걸음으로 서종현을 안내했다.

그는 늦은 저녁 가족이 립시거처로 삼은 합숙에 들어왔다. 안해가 어린것에게 젖을 물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서종현은 평양에서 밤늦게 서말재밀의 자기 집에 돌아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처럼 어스레한 전등불에 손에 든 책을 비쳐보며 통강냉이알이 박힌 저녁밥을 입안에 퍼넣었다. 나는 벌써 이렇게 마음이 안착됐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공연히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라. ...무언중에 안해에게 이런 말을 번지는 일종의 방어자세였다. 그러나 안해는 밥상을 합숙방 한귀에 옮겨놓더니 그 무슨 간청을 하듯이 조용히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준택선생님도 만나지 않고 떠난것이 잘한 일 같지 않아요. 일단 이사는 끝냈으니 평양에 올라가 정준택선생님도 만나뵙고 가능하면 김책부위원장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시보안서장님이 당신에겐 문제될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열국에서 다시 취급한다는것이 내겐 이상하게 생각되여요.》

서종현은 안해의 말을 듣지 못한것처럼 책장만 번졌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편지를 쓰시든지...》

안해는 서종현이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계속 애원을 했다. 그는 북조선의 정치구조를 지금에 이르러서야 어렴풋이 들여다볼수 있게 된것 같았다. 왜놈의 세상에서도 특출한 능력을 가진 기술인재로 인정받았으며 남달리

청렴결백하고 성실한 정준택도 자기가 당한것과 같은 모욕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데 그에게 매달린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오진우서장이 각별한 친절을 베풀면서 한 말은 법적제재를 받을 근거가 없다는것이지 북조선에서 기술자로서 몇몇하게 생활할수 있다는 뜻은 아닐것이다. 종교인의 자식에 크든 작든 《반쏘소요》에 말려든 지식인인 자기는 조만간에 기사의 직책에서 일하기도 어렵게 될것이다...

안해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또다시 애원했다.

《평양에 있을 때는 정준택선생님이랑 가까이 계시고 직장에도 기술을 리해하는분이 있었지만 이 산골에서야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구 자리나 펴오. 일은 무슨 일을 당한단 말이요?》

서종현은 안해에게 짜증을 냈다. 자리에 누우며 그는 생각했다. 차례진 숙명에 항거하기엔 자기는 너무나 무력하다. 주어진 운명의 범위안에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것,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할수 있게 하는것 이것이 전부로 되어야 한다...

2

김책과 외무국일군들, 몇명의 경위원들이 새벽이슬에 축축히 젖은 풀밭을 밟고 서서 평양상공을 선회하는 한대의 비행기를 쳐다보고있었다. 설핏한 명주필모양의 안개를 녹이며 미림벌 저끝에서 불덩어리같은 시빨건 태양이 솟아오를 때였다.

비행기의 날개며 동체에 부딪친 해빛이 눈부시게 빛났다. 비행기는 요란한 동음으로 미림의 새벽대기를 뒤흔들며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김일성**동지께서 밝고 청신한 웃음을 만면에 가득히 담고 승강계단을 내려오시었다.

《도착시간을 알리지 말라구 했는데 어떻게 알구 이렇게 나왔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에 넘친 웃음으로 얼굴을 환하게 빛내며 마중나온 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시었다. 활주로에 선채 잠시 이야기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아직 조반전이겠는데 먼저들 들어가보시오. 나는 시내를 좀 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동차에 올라앉으시었다. 회담을 계속하면서도 건국도상의 조국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으신 그이이시었다. 그이의 눈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모습의 하나가 건설중인 종합대학이었으며 혁명가유자녀학원이었다. 종합대학건설장을 돌아보려고 룡남산쪽으로 가시는데 김책의 자동차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왔다. 비행장에서 인사를 받을 때 그이께서는 그 무슨 풀길 없는 근심을 안은듯한 김책의 표정을 건듯 느끼시었다. 혹시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문제여서 저렇게 뒤따라오는것이 아닐가? 룡남산아래에 이른 그이께서는 자동차에서 내려 뒤따라오는 김책을 기다리시었다.

《어째서 집에 가지 않구 따라왔습니까? 김책동무는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반을 먹구 나왔습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대학자리를 시내쪽으로 얼마간 옮겼습니다.》

종합대학건설장을 돌아보시는것이 이젠 굳어져버린 그이의 아침일과의 하나였다. 그이께서는 기초공사를 시작한 건설장을 돌아보며 룡남산의 둔덕우에서 위용을 자랑할 대학건물을 눈앞에 그렸으며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당과 정권기관, 경제문화분야에서 한몫을 할 그날을 흥분된 심정으로 생각해보기도 하시였다. 쥐꼬리만한 지식과 경험을 내두르며 머리칼이 쉼 지경으로 말쑥을 부리는 어느 패, 어느 출신하는것들이 그때에 가서는 감히 방중한 행동을 못할것이다. 하루는 그이께서 미명의 정적이 깃든 건설장을 돌아보고계시는데 퇴락하기는 했어도 성벽이 분명한 유적이 눈에 띄시였다. 새벽이슬에 젖은 성벽을 만져보기도 하고 쌓임새를 살피기도 했으며 위치를 가늠도 해보시니 고구려의 옛성벽이 분명했다.

그이께서는 건설을 책임진 일군들을 부르시여 강성대국이었던 고구려의 유적을 허물고 그우에 대학을 건설하는것은 우리가 대학을 내오는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아니라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도 좋지 않다고 하며 이미 기초공사를 시작한 터전을 다른곳으로 옮기게 하시였다.

《그럼 씨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보나 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이 로력지원을 나온 모양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설장쪽이 아니라 밋밋이 흘러내린 산등성이를 향해 걸음을 옮기시였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대외사업을 하는 쏘련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내에도 쓸라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구... 그렇지만 쓰딸린을 만나서 우리가 의도했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쓰딸린과의 단독회담과 다름이 없는 회담을 진행하신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였다. 지난해 여름에도 올해와 비슷한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있었다. 이번 회담도 지난해처럼 쓰딸린의 집무실에서 진행되였다. 아름답고 사치한 계단, 크고작은 객실들, 금색, 록색으로 조화롭게 장식되어있는 흰 대리석기둥, 황홀하고 광대한 궁전에서 그중 검소하고 일하기 편리하게 꾸려진 방이 쓰딸린의 집무실이였다. 방가운데에 크지 않은 집무용책상이 놓여있고 거기에 전화기들이며 필통, 몇건의 문건이 무져있는것으로 보아 쓰딸린이 혼자 있을 때는 그 책상에서 일을 보는것 같았다. 그앞에 집무용책상보다 좀 더 큰 앞상이 있고 그 주위에 몇개의 의자가 놓여있었다. 측근자들과의 작은 규모의 회의는 주로 이 방에서 진행되는듯싶었다.

쏘련공산당 정치위원들인 미꼬얀과 베리야가 쓰딸린과 함께 집무실에서 김일성동지를 기다리고있었다. 베리야는 정치정보사업을 책임지고있으니 조선의 실태를 제일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 이 회담에 참석했을것이다. 그러나 대외경제사업을 주로 책임진 미꼬얀이 어째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 리해하기 어려우시였다. 조선의 광석을 쏘련에서 많이 수입해가니 조선과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여 이 자리에 참가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베리야도 미꼬얀도 유럽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모두 동방인에 속한 그루지야, 아르메니아출신이여서 동방조선에서 온 김일성동지와 회담에 참가시키는것이 호상 리해를 도모하는데 좋을것 같아 이들이 선발됐는가?

쓰딸린의 얼굴에서는 세계의 운명이 자기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의식하고있는 정치적수령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깊은 사색과 강철같은 의지가

였보였다. 회담상대자의 말을 몇마디 듣지 않고서도 대번에 그의 의사를 포착하는 예리한 통찰력에 긴 시간 회담이 진행되어도 먼저 이야기한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 자신이 긴 말을 하지 않는것과 같이 상대 역시 함축된 말을 하기를 바라는 쓰팔린이었다.

쓰팔린은 오랜 혁명선배였지만 좀해서는 얼굴에 내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김일성동지께 베리야, 미꼬얀과 탁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기를 권하였다. 자기는 베리야, 미꼬얀옆의 첫자리에 앉으며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들을 차비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그마한 수첩을 앞에 놓고 앉으시였다. 그 수첩에 이 회담을 위해 준비한 몇개 조항의 글발이 썩여있기는 했지만 쓰팔린에게 이야기하실 내용은 모두 그이의 뇌리속에 들어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나직하나 무게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던 쓰팔린은 장군님께 량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리야, 미꼬얀의 등뒤를 소리없이 오고갔다. 혁명이 승리하기전인 제정로씨야시기에 류형지에서 얻은 허리병의 후유증으로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수 없는 쓰팔린이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우리는 조선문제가 가까운 시일안에 동서대립의 가장 첨예한 문제로 되리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엔총회가 시작되는 9월중순이후 이 국제기구의 무대에서 한두달내에 로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꼬얀도 베리야도 김일성동지의 뜻밖의 말씀에 대번에 얼굴들이 긴장했다. 쓰팔린까지 포함하여 세사람은 김일성동지의 다음말씀을 기다렸다.

《동북아시아정세가 악화되기 시작한것을 흔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만주를 강점한 1930년대초로 보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이미 20세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정당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그때로부터 10년후에 있었던 로일전쟁은 일제가 아시아, 나가서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는것을 쏘련측에서 능히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설명을 피하시였다.

《그때부터 약 반세기가 지난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그때와 비슷한 정세가 또다시 조성되고있습니다. 다른것이 있다면 반세기전에는 국력이 약한 탓으로 일본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도와주던 미국이 오늘은 정면에 등장하여 쏘련과의 대결을 준비하고있다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 우리는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동방, 특히 중국에서 큰 양보를 했습니다. 만일 **김일성**동지의 말이 정확하다면 쏘련은 동방에서 무익한 양보를 한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말할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베리야가 정보일군에게 특유한 랭철성을 보이며 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무익한 양보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양보가 오히려 쏘련측이 희망하는 평화를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내놓고 말하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상대를 자극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로혁명가인 쓰딸린은 **김일성**동지의 유연한 말씀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알고도 남을것이였다.

《전후 세계정세의 특징은 쏘미간의 량극화에 있다고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그 량극화의 한쪽을 차지하는 미국은 소련이 전쟁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전에 세계에서 결정적우세를 차지하는것을 총전략으로 삼고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미국과 직접 대치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론리나 추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통해 감수하고있습니다. 만주에서의 치절한 전투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감했으며 조선의 남쪽 절반땅에 눌러앉아있기 위해서 무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교활하고 잔인한 술책을 다 동원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미국이 38°선이라는것을 만들어 내서 조선을 두동강을 낸것은 3년전까지만 해도 전조선을 강점해버릴 힘이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제가 이제는 남조선에 발을 붙일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본것 같습니다. 남조선괴뢰정부를 조작해내는데 달라붙은 이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줍니다. 괴뢰정부를 조작한후에는 북조선까지 병탐하기 위한 내전을 도발할것입니다.》

《나는 김일성동지가 력사보다 너무 빨리 앞서나가는것같이 생각됩니다. 웨드마이어나 맥아더의 폭언이 흥분제의 역할을 한것이 아닙니까?》

웃입술에 오려붙인듯한 새까만 수염, 눈 역시 그렇게 새까만 미꼬얀이 김일성동지를 마주보며 우스개소리를 하듯이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룡담비슷하면서도 날카로운 부리로 쫓는듯한 미꼬얀의 말뒤에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알고도 남으시였다. 웨드마이어가 서울에 날아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수세에 빠진 만주지방의 중국인민해방군을 적극 지원하고있기때문이지 그 이상의것은 아니다. 미국무성에서

남조선에 괴뢰정부를 세울 계획을 갖고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빨리 실천에 옮겨지겠는가, 미꼬얀은 이렇게 생각하는것 같았다.

《우리가 중국혁명을 지원하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주지방의 중국동지들을 지원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현재 동북3성에서 싸우고있는 많은 중국동지들은 일제시기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어깨를 견고 같이 싸운 전우들입니다. 또한 만주지방에는 백수십만의 조선동포가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들중에서 25만의 조선청년들이 만주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은 만주를 점령한후에 남조선의 미군과 협동해서 공격의 화살을 우리에게 집중하리라는것은 뻔합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넘두에 두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전우들을 도와주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는 의연히 부드러운 웃음이 피여있고 음성은 비록 나직했지만 **김일성**동지의 말씀에는 상대방의 가슴을 두드리는 강렬한 힘이 담겨있었다.

《워드마이어의 서울행각으로 말하면.》

그이께서는 하찮은 문제를 이야기하듯 건듯 스쳐버리는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조선의 실정도 모르면서 공연한 걸음을 한 허재비행각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린방의 혁명을 지원하는 우리를 막아보려는 그의 의도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물론 장군님의 이 말씀은 미꼬얀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응수였다. 미꼬얀과 베리야 뒤에서 침착한 걸음을 천천히 옮기고있던 쓰딸린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호주머니에서 곰방대를 꺼내들고 집무용책상가까이 걸어가 담배를

채워넣었다. 무슨 말이 있을줄 알았는데 또다시 침착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그는 무게있는 음성으로 물었다.

《중국에 대한 지원을 막을 생각으로 웨드마이어가 서울에 갔다면 허재비행각을 했다고 김일성동지는 말했는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쓰딸린은 역시 요진통을 찌를줄 아는 정치적령수였다.

《남조선괴뢰군이 편성되고있지만 그 내부를 보면 미국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친미반동분자만으로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남조선에서 투쟁하고있는 조선의 혁명가들은 남조선괴뢰군의 증강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곰방대를 입으로 가져가던 쓰딸린이 물었다.

《군편성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있다는것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미군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지연공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2차대전후에 극도로 오만해진 미국에 현재의 우리의 힘으로 압력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남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맥아더와 남조선주둔군 사령관은 군사제일주의를 제창하는 군벌과 같은 사람들이여서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집불통들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괴뢰군내부에 공작원도 파견하고 상층인물들에게 민족을 배반하지 말것을 호소도 해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남조선군대의 일부 통수자들은 혁명진영의 영향하에 있는 량심적인 군인들입니다.》

쓰팔린의 얼굴에 느닷없이 빙긋 웃음이 피어났다. 가슴에 대통령특사란 패쪽을 드리운 반공미치광이가 동원시킬 병력이란 별로 없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서서 광기를 부리는 모양이 문뜩 눈앞에 떠올랐는지도 몰랐다.

《김일성동지는 중국혁명이 승리하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는것 같은데 그 확신을 무엇에 기초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베리야의 물음이었다.

《가능성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것이 혁명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베리야의 얼굴에 비낀 의혹을 날려버리려는듯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심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웨드마이어가 중국의 동북3성에 투입한 30만은 미국의 현대적무기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이 무력을 포위섬멸하면 민주련군은 마샬(국무장관)이 보내준 현대적무기로 30만군대를 무장시킬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좋지 않은 120만의 중국혁명군가운데서 4분의 1을 현대적무기로 무장시킬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중국당의 지도자들과도 자주 접촉하고 민주련군의 지휘간부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사평가에서 시작한 반공격이 반드시 성공할것이라고 말하고있었습니다.》

베리야도 미꼬얀도 30대 청년장군의 확신에 넘친 말씀에 압도되어버린듯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이께서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민주련군에게 지원을 계속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이 반공격을 준비하는데 큰 기여를 하시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이란 광대한 령토우에서의 혁명정세의 대전환이라고는 쏘련측은 아직 믿지 않고있었다.

《그럼 **김일성**동지께서는 웨드마이어가 무엇때문에 서울에 왔다갔다고 생각합니까?》

미꼬얀이 자기의 견해를 고집해보려는듯 이런 질문을 했다.

《남조선괴뢰정부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서울에 날아온 웨드마이어의 책동을 쏘련측에 통보하시였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이 민간인정부를 세우는 목적은 남조선을 대쏘전략의 전초기지로 전환시키자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의 이런 목적을 구태여 숨길 생각도 하지 않을만큼 교만해졌습니다. 그것은 군복을 입은 군인을 대통령특사란 명분으로 서울에 파견한것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뢰정부를 세우는 과정은 미국무성에서 해야 할 일이니 군인들처럼 그렇게 침략적목적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지는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문제를 <유엔>으로 끌고가서 북조선까지 포함한 조선의 전령토에서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부당한 결정을 거수기들을 동원해서 채택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이 결정을 절대로 수락할수 없습니다.》

불이 꺼진 곰방대를 든채 깊은 생각에 잠겨 방안을 오고가던 쓰딸린이 강조하고싶은 말을 할 때마다 몸을 좌우로 조금씩 흔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조선이 곧 대립의 초점으로 될것이라고 한 **김일성**동지의 예견도, 그것이 9월이후 한두달내에 표면화될것이라고 한 **김일성**동지의 예상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동지는 조선에 조성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지 우리에게 말해줄수 없겠습니까?》

쓰딸린은 《대립의 초점》, 《9월》, 《**김일성**동지》 이런 말을 할 때 왼손을 조금씩 들곤 했다. 극히 자연스러운 미세한 이 동작에 흥분과 강조의 뜻이 담겨있다는것을 **김일성**동지께서는 느낄수 있으시였다.

《우리 조선민족은 수많은 전란을 겪는 과정에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은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소련이 전쟁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미국과의 대결을 피해야 한다는것도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리해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면서 미국의 침략을 분쇄하자면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팽팽하게 긴장된 장내의 분위기를 느끼며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그 하나의 방도란 무엇입니까?》

미꼬얀이 장내의 긴장한 분위기를 견디여낼수 없는듯 다급히 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미제침략자들과 대결하면서 조선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입니다.》

베리야나 미꼬얀은 물론 쓰딸린까지도 저으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건국도상에 있는 북조선이 미국과 대결해야 할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필경 원조를 요청할줄 알았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현재 직면한 난관을 타개해나가겠다는것이다. 모스크바에 수많은 외국수반들이 찾아오지만 원조를

요청하지 않는 수반은 극히 드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나직하나 확신에 넘친 힘있는 음성으로 조선의 지정학적위치, 조선민족의 단결력을 강조하는데 시간을 바치시었다. 역사적으로 조선은 소련과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리용되어왔으며 이런 사정으로 해서 수많은 전란을 겪어야 했다. 청일전쟁, 로일전쟁이 그러한 례로 될수 있으며 력사가들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도 중국에로 가는 길을 내라는 구실을 붙여 일본사무라이들이 7년간이나 조선을 유린한 전란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조선민족은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해서 결국 적을 몰아냈다...

《미국이 조선문제를 유엔으로 끌고가려는것은 선전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섭니다. 나는 소련측이 미국의 선전공세를 압도할 결정적이면서도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쓰딸린이 문뜩 걸음을 멈추고 늙은이의 느린 동작으로 몸을 돌렸다. 시력을 집중시키느라고 두눈을 쫓프리고 밝은 미소를 띠우고계신 **김일성**동지의 얼굴을 이윽히 마주보았다.

《능동적인 대책이란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것입니까?》

《소련군이 북조선에서 철수하는것입니다.》

표현력이 풍부한 사려깊은 쓰딸린의 눈에서 한순간 섬광과도 같은것이 번쩍했다. 베리야와 미꼬얀의 안색은 순간에 긴장했다. 무슨 말을 할듯싶던 쓰딸린이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겨 곱방대를 든채 집무실안을 걷기 시작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련군이 왜 철수해야 하는지, 철수와 관련해 소련측이 취해야 할 대책은 어떠한것인지 이런것은 구태여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였다. 그것은 소련의 내정에 속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침착한 걸음을 옮기고있는 쓰딸린이 그쯤한것은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기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반드시 이야기해두는것이 좋을것 같아 뒤를 이으시였다.

《쏘련군의 철수는 쏘련정부에서 주동적으로 공포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것은 38°선을 계선으로 해서 조선을 북과 남으로 량분할데 대한 8월 10일 미국측이 제기한 시행세칙을 쏘련측이 주동적으로 파기하는것으로 되기때문입니다. 조선인민은 북과 남에 두개 나라 군대를 두고있지만 우리 나라가 두개 나라로 분렬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군정에 붙어사는 민족반역자들도 조선이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하나로 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고있습니다. 쏘련군이 철수했다고 해도 미군이 곧 철수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사람의 마음속에 38°선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우리의 주장은 쏘련군의 철수로 해서 더 현실감있게 접수될것입니다. 우리는 미군에 의한 전조선의 강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반대로 쏘련군의 철수를 계기로 우리는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것입니다. 우리는 전조선의 통일적인 인민민주주의정부를 창건해서 조선민족은 통일된 하나의 민족이라는것을 세계를 향해 선포할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쏘련군이 철수한후에 김일성동지는 통일정부를 수립할 생각이라는것입니까?》

베리야가 장군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품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전민족을 단결시켜 미제침략자들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도 선거를 진행해서 민족통일정부를 반드시 수립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덧 웃음이 사라진 엄숙한 안색으로 말씀하고계시었다. 의연히 나직한 음성이었지만 그이의 목소리는 쓰딸린의 집무실안에 메아리를 일으키며 울려 퍼졌다.

쓰딸린은 곰방대에 불을 달아 담배연기를 폐부깊숙이 빨아들이며 천천히 방안을 오갔다.

김일성동지의 무게있는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려고 담배연기를 깊이 빨아들이는것 같았다. 쯔전의 자기자리에 와서 앉는데 심중한 빛이던 안색이 입언저리에서 피어나는 부드러운 웃음으로 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 온 얼굴에 밝은 웃음이 넘쳐나면서 몇개의 오목오목한 마마자육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은근하면서도 무게있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동양에 영웅호걸들과 지략가들의 기담을 수록한 책들이 많다는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말을 듣고있느라니 그 기담을 수록한 책에서 청년장군이 한사람 빠져나와 크레믈리에 찾아온것같습니다.》

《저는 조선의 건국을 이제 겨우 시작한 젊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선에도 그런 책들이 있는데 저는 작가들이 그려낸 인물들에 감동을 받고있을 따름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쓰딸린과 같은 로혁명가한테서 지나친 말을 듣는것 같아서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쓰딸린은 김일성동지의 겸손한 품성에 더욱더 호감을 느낀듯 손을 가볍게 내저으며 뒤말을 이었다.

《이 늙은 사람의 말을 들어두는것이 좋습니다. 겸손은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미덕이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혁명가에게는 그 말이 적합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혁명가에게는 자기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김일성동지도 혁명가는 가능성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창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는 신념의 산물입니다. 신념은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나는 김일성동지가 전개한 15년간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좀 들었습니다. 적중에서 15년간의 무장투쟁, 이런 기적적인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수 있었는지 오늘에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베리야동무, 동무가 갖고있는 그 편지를 김일성동지에게 넘겨주는것이 좋겠소.》

베리야의 얼굴에 한순간 당황한 빛이 스쳐지났다. 쓰딸린의 엄격한 독촉을 또 한번 받은 그는 앞에 놓인 서류가방에서 한통의 두툼한 편지를 꺼내 김일성동지앞으로 밀어놓았다.

《김일성동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조선에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구 김일성동지하고 의견을 나누어볼가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한테 보내는 편지도 아닌데 제가 이런것을 갖고가서 뭘하겠습니까?》

조금도 불쾌해하는 빛이 없이 웃음을 지은 안색으로 이렇게 말씀하며 김일성동지께서는 편지를 베리야앞으로 밀어놓으시였다. 표정이 풍부한 쓰딸린의 눈에 또 한번 밝은 섬광이 번쩍했다. 경탄해 마지 않는 무르녹은 웃음이 온 얼굴에 다시 번져갔다.

《우리에게 요구할것은 그 한가지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조선에서 끌어낸 공장설비들을 반환해주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대체로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쓰딸린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불어내친듯이 사라졌다. 눈은 준절한 빛으로 해서 랭혹해보이기까지 했다.

《미꼬얀동무, 어째서 반환하지 않았소?》

《우리 사람들의 행동이 굹떠서, 곧 조선에 도착할겁니다.》

《동무도 방금 듣지 않았소. 미국과 대치해있구 어려운 형편에서도 중국혁명을 지원하고있는 김일성동지를 도와주어야 할것이 아니요.》

끓어오르는 격분을 자제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쓰딸린은 다시 의자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쏘련과 중국이 한덩어리로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중국혁명을 상형문자와 같이 난해한 혁명으로 생각하면서 정세판단을 잘못된것 같습니다. 우리 동무들의 이 잘못을 김일성동지가 어느정도 메꾸어주고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회담을 통해 조선에 대한 인식을 더 새롭게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쓰딸린은 손을 가볍게 들었다 내려놓았다.

《서기가 두번씩이나 문을 여는것을 보니 예정했던 시간을 많이 초과한것 같습니다. 며칠 모스크바에 묵으면서 실무일군들도 만나고 참관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만납시다. 그때는 **김일성**동지가 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이야기도 듣고 조선이 낳은 영웅호걸들과 재사들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학건설장을 향해 밋밋한 산언덕길을 경쾌한 걸음으로 걸어내려가시였다. 김책은 장군님께서 이번 소련방문에서 이룩하신 크나큰 성과에 기쁨을 참기 어려웠지만 한편 그 사이에 조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다.

《그 사이에 보안간부훈련소들을 돌아보았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보폭이 넓은 걸음으로 산비탈을 걸어내려가며 물으시였다.

《돌아보았습니다. 제복과 생활조건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기는 했지만 빨리 호전될 것 같지는 못합니다.》

보안간부훈련소 학생들은 아직 군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에서 맹훈련을 진행하고있으며 식량사정이 어려워 급식규정대로 먹이지 못하는 훈련소도 있었다.

《어느 훈련소가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강건동무가 책임지고있는 훈련소들인데 그중에서도 류경수동무가 맡아보고있는 4분소가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하구 이번에는 주로 제1소산하 훈련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책은 십여일만에 조국에 돌아오신 장군님께 이런 보고밖에 드리지 못하는 자신이 불만스러웠다. 서부지구의 곡창지대에 자리잡은 김일이 사업하는 제1소산하

훈련소들에서는 규정량대로 공급받지는 못해도 어쨌든 쌀밥을 먹고있지만 라남과 회령같은곳에 자리잡은 제2소산하에서는 콩으로 끼니를 굶때는 형편이었다.

《그동안에 밀린 일이나 처리하구 강건, 류경수동무들을 한번 찾아가봅시다.》

김책과 함께 산릉선을 걸어내려오시는 장군님을 본 학생들이 환호를 웨치며 달려왔다. 땅을 짚던 학생들은 팽이를 내던지고 삽질을 하던 학생들은 삽을 내뿌리고 질통을 지던 학생들은 질통을 진 그대로 환희에 넘쳐 장군님을 향해 달려오는것이였다. 아직도 해가 산너머에서 주춤거리는 아침인데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에 터질듯한 격정과 흥분을 담고 꾸벅 인사를 드리는 학생, 만세를 웨치는 학생, 넘쳐나는 웃음을 견잡지 못하고 그이를 그저 우러러보는 학생...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아침마다 로력동원을 하면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가? 기숙사생활은 어떤가? 배는 고프지 않는가? 남조선에서 들어온 학자선생님들한테서 요즘 무엇을 배우는가? 김제원농민이 마을사람들을 휘동해가지고 참외를 다섯달구지나 싣고 왔다? 일도 같이 하구...

《그게 다 동무들이 빨리 정교사에 들어서 나라의 역군이 되기를 바라기때문이요. 지금은 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인민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오.》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으로 학생들을 격려하며 어느 학생이 앞으로 당과 정권, 경제, 문화 기관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역군의 역할을 감당해나가겠는지 헤아려보려는듯 땀에 젖은 얼굴들을 주의깊이 살펴보시는것이였다.

귀국한 당일에도 장군님께서서는 쉬지 못하고 당중앙위원회에 나와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들을 료해하고 결론을 주시였다. 심각한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마음을 쓰실 때에도 불안의 그림자처럼 한가닥의 거뭇한 흑점이 얼씬얼씬 그이의 뇌리속을 스쳐지나군 했다. 아침에 헤여질 때 무슨 말을 할듯하다 그대로 목새겨버리던 김책의 얼굴, 말하기 어려운 그 어떤 고충을 안은듯한 그 표정을 장군님께서서는 머리속에서 지워버리기 어려우시였다.

아침에 비행장에서 뒤따라온것도 그 무엇인가 말하기 어려운 그것을 이야기하자는것이 아니였을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잠간 틈이 생긴 기회에 김책에게 전화를 거시였다.

《오늘은 저녁늦게까지 여기서 일을 봐야 할것 같은데 내게 할 말이 없습니까?》

아침에 헤여질 때 오늘은 당에서 일을 보겠으니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당중앙위원회로 전화를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을 들은 김책은 무슨 말을 할듯한 기색이였으나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때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김책의 울적한 모습이 그이의 눈앞을 스쳐지났다.

《꼭 오늘 말씀드려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보고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였다.

《무슨 문제입니까?》

《허헌선생문제하구 산업국에서 있는 크지 않은 문제입니다.》

《허헌선생이 어떻게 됐다는겁니까? 가만 내 오후 첫시간에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었다. 김책이 쉽게 말을 시작하지 못한 까닭을 알것 같으시었다. 뇌리속을 얼씬거리던 설핏한 검은 그림자가 순간에 매지구름과 같이 확대되어 그이의 머리속을 짝 채웠다.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이 남조선 좌익의 단합을 위해 한몫을 크게 맡아주어야 할 인물이라고 굳게 믿고계시었다. 그러나 그는 보호해주지 않으면 시련의 구렁텅이에 빠질수도 있는 운명의 소유자라고 해야 할 사람이다.

허헌이 민족적량심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결곡한 성격의 소유자인것은 사실이지만 언제 음모군들에게 걸려들지 알수 없는 약점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광복전에 그는 《조선국민회》사건관련자들을 비롯해 3.1운동관련자, 조선공산당사건 등 특대형사건들에 나서서 조선민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견결하면서도 량심적인 변호를 하여 세인을 경탄시켰다. 한때 신간회회장으로 추대된 때도 있었고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변호사회회의에 참가하여 일제의 강도적침략과 만행을 세계에 고발하기도 했다. 수년간 감옥살이도 했으며 일제말기에는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국내공작원의 고무를 받으며 조국광복을 맞이하는 마지막날까지 항거를 계속했다.

허헌에게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불과 같은 항거자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약점이었다. 맞다든 불의에 격한 나머지 먼 앞날을 계략하지 못하는 성급함, 보다 효과적인 투쟁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던것이다. 이런 약점으로 해서 광복직후 일생을 두고 지워버릴수 없는 일대 오점을 남겼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기전에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조급증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권욕에 환장한 일부 사람들이 배후조종한 《인민공화국》의 내각총리로 취임하는데 동의했던것이다. 그후에도 구태여 기여들 필요가 없는 일에 공연히 뛰어들어 세인의 주목을 끈적이

한두번 있었다. 이를테면 허헌은 어느때 무슨 일을 칠지 알수 없는 별거벗은 량심적인 변호사, 정치인, 순결한 인간이었다.

김일성동지께서 허헌을 아끼고 존중하시는것은 우선 그가 민족적량심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극도로 혼란된 남조선과 같은 사회는 음모가들에겐 활무대였으며 량심적인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늪과 같은곳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김책한테서 허헌의 신상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한듯한 말을 듣고 당중앙위원회에서의 사업을 중단하시고 오후 첫시간에 인민위원회로 나가기로 하신것은 이런 사정때문이었다.

재글재글한 첫가을 오후의 따거운 햇빛이 실내 한귀에 비쳐드는 집무실에 들어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곧 김책을 찾으시였다. 김책은 장군님을 인민위원회로 오시게 한것이 마치 자기탓이기라도 한듯이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인 괴로움을 품은듯한 모습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책과 마주앉으시였다.

《허헌선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장군님을 만나뵙겠다고 평양에 왔다가 사흘전에 도루 나갔습니다.》

그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비졌다. 혹시 려운형선생에게 들이닥친것 같은 돌이킬수 없는 불행이 허헌선생에게 덮쳐우지 않았는가 하는 불안도 느끼셨고 김책이 보고를 미루는것으로 보아 테로를 당해 부상을 입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평양에 왔다가 자신께서 출장중이여서 되돌아나갔다니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것이다.

《꼭 돌아가야 할 일이 있어서 떠났습니까?》

그이께서는 분렬되어있는 남조선의 좌익력량을 허헌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시켜볼 뜻을 품고계시였다. 그런데 한자리에 마주앉아보지도 못하고 떠났다니 서운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런것은 아니구 우리는 장군님의 행선지를 말해줄수 없구 선생님은 그대로 기다리고있을 처지에 있지 못했습니다.》

《선생이 무엇때문에 어려운 걸음을 했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장군님을 꼭 만나뵈야겠다고 할뿐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내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환갑고개의 선생이 무엇때문에 38°선을 넘을 결심을 했는가? 성시백이 그러했던것처럼 그도 민족의 전도가 근심되어 평양에 들어올 생각을 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20여년전부터 안면을 익히고 도움을 주기도 한 김책에게 무슨 말이든 남기고 평양을 떠나는것이 정상인데 어째서 아무 말도 없이 서울에 나갔는가?... 필시 함부로 입밖에 낼수 없는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를 가슴속에 품고 38°선을 넘은게 틀림없었다. 그의 생각을 알자면 무릎을 맞대고 마주앉는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허헌선생은 꼭 할말이 있어 우리를 찾아왔을겁니다. 곧 사람을 내보내서 선생을 다시 모셔와야겠습니다. 산업국문제라는것은 어떤것입니까?》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크지 않은 문제라고 하던 김책이 자세를 바로잡은 후에도 곧 입을 열지 못했다. 말하기 어려운 심상치 않은 문제인게 틀림없었다. 한참만에야 김책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다.

…산업국사업을 료해하려고 대동교를 건너갔다. 여러 부문에서 상반기총화를 진행한 후에 모두들 양양된 분위기속에서 일을 하고있어 인민위원회로 돌아오려는데 30전의 청년이 불쑥 김책앞에 나타났다. 너무 흥분해 말을 더듬기까지 했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무심히 들어넘길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서종현과장이 강직되어 덕산광산에 내려간다고 해서 전기동력처안의 과장들이 소박한 송별회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입을 딱 다물고 말이 없던 서종현이 동료들의 강권에 못이겨 술을 몇잔 들이키더니 혀꼬부라진 소리로 몇마디의 말을 했다. 자기따위는 어떤 취급을 해도 할말이 없는데 전호준은 아깝다, 투지에 넘친 청년일군인데다 사업능력이 있지 인정은 또 얼마나 후더운가? 거기에다 알짜배기 로동계급출신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것은 조선의 불행이다. 이렇게 말한 서종현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슬이 번지르르하게 번져가는 눈언저리를 닦았다. 씨원씨원한 성미에 장군님앞에서도 속에 품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던 전호준을 상반기총화회의에서 보게 된 30전후의 청년과장은 그를 좋게 생각한듯싶었다. 젊은 과장은 서종현과 함께 전호준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이 사실속에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것이 있는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격분해서 부르짖었다.

《한사람은 유능한 기술자이구 다른 한사람은 확고하게 계급적립장에 선 로동계급출신 간부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는다는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과장의 말이였다...

김책은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나도 뭣인가 이상한 감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북도에 나가있는 지도검열그루빠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호준이 지금 어떤 취급을 당하고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호준이 관리국장으로 임명된것을 도의 책임일군들이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영이외에는 아는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책의 말을 주의깊이 듣던 장군님께서서는 물으시였다.

《왜 전호준동무를 관리국장으로 임명한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답니까?》

《나도 그것을 물었는데 지도검열그루빠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돌리지 않은것 같습니다. 함북도에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함북도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란 어떤것인지 대체로 짐작할수 있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무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출장기간에 제기된 문제나 처리하고 함북도에 내려가봅시다. 내 생각에는 전호준동무에게 가해지고있는 이런 현상은 현시기 특히 경계해야 할 유해로운 경향입니다. 김책동무는 서종현동무가 왜 강직됐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준택, 허정숙을 비롯한 정권기관의 요직에서 사업하는 일군들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함북도사업을 현지지도하기 위해 떠나시는 길이였다. 예측한대로 그동안 함북도에 파견되어있던 지도검열조의 서면보고에는 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제멋대로 대하는 일부 함북도일군들의 사업이 여러군데 지적되어있었다. 전호준을 반쏘반혁명분자라고 하며 박해를 가하고있는 현상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렇다고 해서 장군님께서 이번에 함북도에 가시는것이 전호준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것은 아니였다. 정례적인 현지지도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도들이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현지에 나가 지방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도 하고 가르침도 주시였다. 이번 현지지도는 기간공업이 집중되어있는 함북도에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방침을 어떻게 집행하고있는지 현지에서 료해하고 지도해주시는것이 목적이였다. 이번 현지지도의 중요한 목적의 또 하나는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훈련을 다그치고있는 함북도내 보안간부훈련소들의 형편을 개선하는데도 있었다.

청진에 도착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일군들은 모두 담당한 사업장소로 보내면서도 정준택만은 자신의 전용차에 부르시였다.

《나하고 같이 회령에 있는 보안간부훈련소에 가보지요. 공장이나 광산들은 잘 알겠지만 보안간부훈련소에는 처음 가볼테니 생각되는게 있을게요.》

회령읍거리에 들어서기전 오산덕이 저 멀리 바라보이는 야산앞에 벽돌로 쌓아올린 담장이며 단층과 2층으로 된 병영의 모습들이 드러났다. 함북도의 훈련소들이 모두 그런것처럼 회령의 보안간부훈련소도 일본놈들의 병영을 리용해서 창설한 훈련소였다.

《함북도의 훈련소들을 제2훈련소라고 하는데 강건동무가 지휘하고있소. 그런데 훈련소의 형편이 여간 곤난하지 않소. 작년에 라남에 있는 훈련소에 들러봤는데 굉장했소. 소장이란 동무가 모자가 없어서 사민모자를 쓰고있었소. 강건동무가 평양에 왔을 때도 건강하지 못한 동무가 외투를 입지 못하고있었소. 후에 알아보니 밤에 병영을 나오다가 람투한 옷을 입고 우들우들 떨고있는 보초에게 제 외투를 벗어줘서 외투없이 지낸다는것을 알았소. 저기 저 훈련소는 류경수동무가 소장이요.》

장군님께서는 눈길로 앞에 보이는 불깃한 벽돌건물을 가리키며 말씀은 이으시였다.

《정준택동무도 만나본 일이 있겠지만 류경수동무는 불과 몇달사이에 땅크운전법을 배워가지고 땅크지휘관이 된 동무요. 유격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는 기관총을 뺏소.》

자동차는 벌써 정문앞에 이르렀다. 정문보초가 뭐라고 소리를 치는듯싶더니 위병소에서 체소한 지휘관과 군복이 훌렁훌렁해보이는 훌쭉한 키의 지휘관이 뛰어나왔다.

강건과 류경수였다.

《우리가 온다는것을 김책동무가 알려준것 같소.》

김책은 장군님께서 떠나신 후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려고 평양에 남아있었다. 류경수가 정문앞에 멎어선 자동차에 앉아계시는 장군님께 거수경례를 올려붙이고는 차문을 열었다. 영접보고를 드린 강건이 그이의 넓은 품에 뛰어들기라도 할것처럼 장군님의 손을 부여잡았다. 류경수도 그이의 손을 부여잡고 흔드는데 몇삼년만에 처음 만나기라도 할것처럼 기뻐했다.

《청진에서 쉬구 래일이나 오실줄 알았는데.》

강건이 밝게 웃으며 웨쳤다.

《래일까지 오시지 않으면 청진으로 마중나갈 생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위병소에 나와서 기다렸겠구만?》

《김책동무한테서 9시경에 평양을 출발하셨다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급히 여기에 오니까 류경수동무 청진에 나갈 준비를 하고있는게 아닙니까.》

《작년에 왔을 때 라남에만 들리구 여기엔 오지 못했으니까 날 데려올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 않소?》

《제가 어떻게 모셔오기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를 써볼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자랑거리가 많은 모양인데 들어가보자구.》

《장군님, 사열을 먼저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류경수가 장군님의 안색을 살피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 제기를 했다.

《사열이라? 그러니까 열병행진을 준비했다는거겠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개 대대력량으로 사열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군대도 이젠 정규무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영접절차를 지켜야 할게 아닙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잠간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건 훈련소를 돌아본 후에 보자구. 류경수동무도 우리가 인사를 받자구 부대를 찾아다니지 않는다는걸 알지 않소. 우선 무기고부터 보자구.》

류경수는 얼마간 실망한 기색이었으나 **김일성**동지를 곧 무기고로 안내했다. 앞으로 신입대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예정으로 보충이며 수류탄, 몇개정량의 탄알, 박격포중대를 편성해보려고 박격포탄까지 질서정연하게 무저놓았다. 다음엔 식량창고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어째서인지 류경수는 무기고로 그이를 모실 때처럼 활기에 넘친 모습이 아니였다. 식량창고에 들린 그이께서는 반쯤 비여있는 어둡시그레한 창고안을 둘러보시였다. 쌓여있는 식량가마니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쿡쿡 눌러보기도 하신다.

《창고원을 부르시오.》

어느새 류경수뒤에 붙어섰던 훈련소부직간부가 창고원을 찾았다. 그이의 모습을 뵈고싶어 그 어디 가까운 곳에 있음직한 창고원이 도무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기 콩가마니뒤에 있을게요. 아직 군복을 입지 못해서 나서기 부끄러워하는것 같은데 괜찮으니 오라고 하시오.》

장군님께서는 어느새 콩가마니뒤로 숨어버리는 한 병사의 모습을 보아두셨던것이다. 무명바지저고리에 무명으로 지은 모자, 흰 지하족을 신은 중키의 병사가 부직간부에게 이끌리다싶이하며 장군님가까이로 거춤거춤 다가왔다. 군대의 외모를 갖추지 못한 차림새인 병사를 보시는 순간 그의 온 얼굴에 느긋한 웃음이 퍼져나갔다. 뜻밖에도 함북도의 북쪽 한끝 회령에서 평북도의 대령군에서 만나본 청년을 대하게 되셨던것이다. 비상한 기억력으로 잠간 만났던 사람이며 이름을 오래동안 잊지 않으시는 그이께서는 주눅이 든 모습으로 앞에 선 병사가 서툰 솜씨로 그린 관개공사전망도앞에서 잠간 이야기를 나눈 긴머리태를 잔등에 늘이고있던 바로 그 청년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시였다. 입대하게 된 동기며 고향에 계신 부모의 안부도 묻고싶으셨지만 지금은 장군과 병사간의 균형을 지켜야 할 자리였다. 그이께서는 명령을 하달하는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창고원동무, 이 주간의 주식물출고량을 말해보시오.》

장군님의 말씀을 들은 병사는 그이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한것 같았다. 하루에도 수십명을 대하실 장군님께서 지나는 길에 잠간 만난 자기따위 촌놈을 어떻게 다 기억해두실수 있겠는가. 최성근은 회령훈련소에 오점을 찍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듯 얼굴을 곧추 들었다. 때가 낀 바지옆에 두손을 딱 붙인 자세로 보고를 드렸다. 쌀 얼마, 콩 얼마, 수수를 몇% 섞어서 출고를 했으며... 소대나 중대쯤은 능히 지휘할것 같은 절도있는 목소리였다. 석달전에는 봉건구습을 등에 걸머진 시대의 락오자란

생각으로 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던 그, 김모라니부위원장의 독촉을 받고서야 인사를 차리던 어리숙해보이던 산골청년이 신식수확용어를 써가며 보고를 하는 말을 들으니 그이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금치 못하시며 3개월이란 기간이 결코 짧은 시일이 아니란 느낌이 드시었다. 이것이 민주기지의 성장속도이며 우리 인민의 발전속도일것이다.

《현재 훈련소 급식인원은 몇명이요?》

류경수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었다. 류경수는 훈련생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것이 제 잘못이거나 한듯이 긴장한 표정에 무거운 음성으로 보고를 드렸다.

《창고원동무, 이달에 접수한 량곡의 종류와 수량을 보고할수 있겠소?》

《전사 최성근, 보고할수 있습니다. 쌀 1t, 콩 26t 500kg, 수수 15t 700kg, 현재 재고량은 15일분...》

그이께서 잠간 암산을 해보니 훈련생들은 규정량의 70%, 그것도 대부분의 량식은 콩과 수수를 공급받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그늘진 안색으로 어둡시그레한 창고 한구석을 잠간 바라보시었다. 최성근의 발전속도로 보아 류경수는 하달된 요강에 기초해서 훈련을 다그치고있는게 분명한데 량식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못내 마음이 괴로우시었다.

《소장동무, 식량을 더 끌어들일수 있는 방도가 없겠소?》

《앞으로 100%로 급식시키겠습니다.》

류경수는 장군님의 괴로움을 덜어드리고싶어 급히 말씀드렸다.

《우리는 배고픈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훈련생들은 아직 전투속에서 단련되지 못한 동무들이구 민주기지를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나서 총을 든 동무들인데 어떻게 해서든 배불리 먹이고싶구만...》

그이의 음성은 처연하기까지 했다. 언제 창고안에 들어왔는지 장군님뒤에 서있던 황순희가 불쑥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에서 싸울 때는 콩죽이면 상음식이 아니었습니까. 제 매일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어떤 고생을 이겨냈는지 말을 해줍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황순희의 자그마한 손을 잡고 더욱 작아진듯싶은 그의 동글납작한 얼굴을 굽어보시었다. 조국에 개선하자 곧 유격대군복을 보안간부훈련생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병실에서 남편 류경수를 도와 전하사들과 함께 생활하고있는 녀투사, 훈련소식당에서 전하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니 식당에서 해주는 그 보잘것 없는 식사마저 배고파하는 훈련생들에게 주어버릴 때가 많을것이다.

《고맙소, 황순희동무. 병사들과 같이 훈련소식당에서 죽을 먹는다는 말을 들었소. 그렇지만 앞으로 소대를 찾아다니면서 콩죽이면 상음식이였다는 말은 하지 마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군대의 혁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말해줄 때 필요한것이요. 우리야 일제놈들의 포위속에 있었으니까 할수 없이 그런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주권이 있고 우리의 령토가 있는 민주기지에서 무엇때문에 우리 병사들을 고생시키겠소. 풀뿌리를 캐먹다나니 김책동무도 강건동무도 위병을 앓지 않소. 안길동무도 그렇구.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면 우리 경제가 2배로 발전한다,

식량도 30만t이 더 생산된다, 그때에는 쌀밥을 규정량대로 공급받을수 있고 고기도 먹을수 있다, 이렇게 사실자료를 가지고 말해줘야 하오. 말을 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울수는 없소. 배고픈것하고는 타협할수 없는것이 사람이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배고픈것을 몰랐는가? 어떻게 해서든 훈련생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금년을 이겨내게 해야 하오.》

창고원은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 콩가마니뒤로 사라지려고 했다.

《최성근동무, 어딜 가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여기에 있소.》

창고원은 부드러운 미소가 어린 장군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언제 입대했소? 아버님은 입대를 찬성했소?》

병사는 장군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알고계셨구나! 장군님께서 모르실수 없다는것을 어제 생각하지 못했는가. 《봉건》이란 말을 듣는 아버지를 둔 대령군 학봉리의 머리태를 드린 청년으로 되돌아간듯 최성근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버님 모르게 입대했구만.》

지금은 군률을 지켜야 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는것을 말해주려는듯 그이께서는 호방한 웃음을 터뜨리시였다.

《아닙니다. 부위원장동무가 찬성해주었습니다. 제가 머리태부터 잘라버리겠다고 하니까 결심을 잘했다고 하면서 입대도 승인해주었습니다.》

김모라니부위원장이 최성근아버님의 승인도 없이 서당공부를 하던 이 청년을 입대시킨것 같았다.

《입대한 후에 아버님께 편지를 올렸소?》

최성근의 얼굴에는 장군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리해해주시기를 바라는 애원이 어렸다.

《편지를 하지 않으면 아버님이 걱정하시지 않겠소. 래일이라도 편지를 하오.》

《들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줄 알았던 병사가 입을 꼭 다물고 서있기만 했다.

류경수가 급한 성미 그대로 한마디했다.

《편지 한장 쓰는게 무에 힘들어 그러오? 병사는 <들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대답할줄 알아야 하오.》

《가만있소. 서당공부를 적지 않게 한 동무인데 그걸 모르겠소. 편지를 할수 없는 사정이 있는것 같은데 그걸 우리에게 말해줄수 없겠소?》

자애에 넘친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최성근의 입이 열렸다.

《편지를 하면 아버님은 몰라도 어머니랑 누이동생은 찾아올겁니다. 그런데...》

창고원은 혀끝에 매달렸던 말을 도로 삼켜버렸다. 도무지 뒤를 이을 생각이 없는듯 입을 꼭 다물고 서있다. 류경수가 안타까운 나머지 뭐라고 또 말하려는것을 장군님께서 손세로 막으시였다.

《알겠소. 어머니나 누이동생이 찾아와서 집에서 입고 온 바지저고리바람으로 콩가마니를 메는걸 볼것 같아 편지를 못하겠다는거구만...》

《면회를 오면 저희들이 군복을 입은 동무들하구 옷을 바꿔입혀서 면회를 시킵니다.

》

이런 말을 하는 부직간부를 돌아보는 장군님의 눈길에는 순간 노여움이, 남의 군복을 입고 어머니나 동생들을 만나는 병사의 부끄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군에 대한 힐책이 번쩍이었다.

정준택은 장군님의 시선에 한순간 비긴 그 노여움과 힐책이 자신의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것 같았다. 보안간부훈련생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훈련을 하고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째서 그것을 자기가 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가? 콩을 닭아먹고 초신에 바지저고리를 입은 외모로 민주기지를 지키기 위한 전투훈련을 다그치고있는 병사들이 있다는것을 왜 알지 못했던가.

창고를 나선 장군님께서서는 강건과 류경수를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이 준비한 사열을 받을수 없소. 사열을 받는다는건 인사를 받는다는걸 의미하는데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인사를 받겠소. 규정된 급식량을 제대로 공급하고 군복을 다 입혔을 때 다시 와서 사열을 받겠소.》

청진으로 돌아가는 차중에서 무거운 생각에 잠기시여 창밖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 문득 정준택에게 물으시였다.

《국장동무, 회령분소를 돌아보니 생각되는게 없소?》

《선차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부문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훈련소들을 도와주어야겠소. 건국로선은 무력의 안받침이 없이는 관철될수 없소. 이것을 알아야 하오. 나는 군복을 입지 못해 집에 편지를 쓰지 못하는 동무가 있다는걸 알았을 때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소.》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반기중에 증산된 물자를 보안간부훈련소들에 돌려서 빠른 시일내에 훈련소의 생활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시창 저멀리 공장굴뚝들이 가을의 푸른 하늘을 꿰지를듯 솟아있는 청진의 거뭇한 모습이 바라보였다.

4

정준택은 도내 공장기업소들의 계획수행정형을 료해하는것이 기본임무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그를 따로 불러 북부석탄관리국사업부터 료해하라고 하시였다. 그동안에 국사업이 얼마나 개선됐으며 전호준이 일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씀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여느때와는 달리 엄한 안색으로 강조하시였다.

《정확한 료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태지도 덜지도 않은 정확한 보고를 해온 국장동무이기때문에 이런 과업을 맡기는겁니다.》

정준택은 북부석탄관리국을 찾아갔다. 전호준은 관리국에 없었다. 관리국당위원장은 전호준이 그동안 관리국산하의 탄광들에서 더 많은 석탄을 캐수 있게 어떤 사업을 했으며 국과 탄광들사이의 련계를 밀접히 가질수 있게 하려고 직통전화가설까지 내밀고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나라를 떠메고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한다. 탄을 더 많이 캐야 건국을 할수 있다. 이것이 국장동무가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입니다. 국장동무자신이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도인민위원장의 호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위원장은 담배를 피워물며 긴숨을 내쉬었다. 그 뒤말은 전호준이 겪은 기막힌 시련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호준은 위원장의 호출을 받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위원장은 정신을 차릴수 없는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었다.

서종현이 이미 들은바있는 반쏘반혁명분자라느니, 간부의 자격도 없는 무식쟁이가 국장이 됐다느니 하는 억이 막힌 모욕을 참느라고 얼마나 모지름을 썼던지 전호준의 종다리에 경련이 일고 틀어진 주먹은 그대로 굳어져버려 사무실밖에 나와서도 손을 펼수 없었다. 복도의 벽을 들이쳐서 통통 부어오른 손을 당위원장도 보았다고 했다.

도무지 정신을 가다듬을수 없는 야비한 욕설을 들으면서도 출당철직을 웨쳐대는 일군의 말에 전호준은 견결한 항의를 했다고 한다.

《어떻게 도인민위원장이 도당의 직권에 속하는 한 간부당원의 출당문제를 취급할수 있소? 출당은 우선 해당 당위원회에서 가결해야 하지 않소? 어떻게 개별적일군이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임명한 간부를 철직시킬수 있소? 나를 관리국장으로 임명해주신분은 **김일성**장군님이시오. 동무에게 장군님께서 임명하신 간부를 철직시킬 권한을 누가 줬소? 장군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국장자리에서 뺄수 없소!》

이런 말을 남기고 위원장실에서 뛰쳐나온 전호준은 관리국에 돌아오자바람에 계획수행을 위해 떨쳐나선 현장으로 떠날 준비를 하더라고 했다.

도인민위원장은 분명히 도당책임일군의 지시를 받고 그런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었을것이니 어차피 자기의 출당은 결정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 같다. 전호준은 자기의 출당이 결정되는 회의에 참가하고싶지 않았다. 사실 관리국당위원장은 도당일군한테서 그의 출당을 당장 결정하라는 불호령을 방금전에 받은 뒤였다. 그러나 도내 탄광들에서 로동을 하다 군당을 거쳐 관리국에 올라온 당위원장은 한두일군의 전횡을 받아들여 억척스럽게 일하는 성실한 간부를 출당시키는것과 같은 비당적인 행동을 도저히 할수가 없었다. 그는 출장을 떠나려는 전호준을 자기의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떠나더라도 회의에 참가하고 떠나야 합니다. 도당에서 국장동무의 출당문제를 취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장동무가 없는 조건에서도 회의는 구성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장동무는 위원들을 모두 주대없는 허재비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왜 자기가 옳다는것을 주장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문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고수하는가 고수하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또 두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두명이 반대하는 경우에 국장동무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것도 알아야 합니다.》

전호준은 당위원장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준엄한 혁명투쟁을 스스로 기피하려고 한 자신의 나약성을 당위원장앞에서 비판했다. 그날로 긴급당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그는 채굴공업부문 지배인회의 뒤끝에 장군님께서 몸가까이 불러주신 그 영광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국장으로 임명받을 때까지 그이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목이 메여 이야기했다. 서종현기사사건은 당적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장군님께 제기한 문제라는 말도 했다.

도인민위원장의 강박은 부당한 월권행위이며 전횡이라고 주먹을 내두르며 부르짖었다. 심각한 얼굴로 전호준의 말을 들은 위원들은 한명을 제외한 전원이 그의 처벌을 반대했다. 뜨내기로어를 씨부렁거리기 좋아하는 과장 하나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 기권을 했다.

눈물이 번지르르하게 내뺨 두리두리한 눈으로 위원들을 돌아보던 전호준은 목멘 소리로 장군님께서 창건해주신 우리 당이 어떠한 당인가를 오늘에야 비로소 똑똑히 알았다고, 그 누구의 전횡이 통할수 없는 강유력한 당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중얼거리고는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당위원장실에서 나오는 그 길로 두만강류역으로 떠나갔다....

당위원장의 말을 들은 정준택은 한동안 눈길을 떨구고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침통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서종현을 보증하고 비호한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것을 그는 이 자리에 와서야 알았다. 그렇다면 당자인 서종현은 어떻게 됐을것인가?... 북부석탄관리국사업부터 료해하라고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엄한 모습이 떠올랐다.

(장군님께서는 이미 알고계셨구나.)

좀해서는 아래사람들에게 내심의 고충을 내비치는 일이 없는 그이께서 그렇게도 엄한 안색이었으니 장군님의 괴로움은 얼마나 크셨을것인가.

정준택은 전호준이가 있음직하다고 당위원장이 알려주던 두만강류역의 탄광을 향해 떠났다. 그 탄광에는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찍어내서 떼목을 무어 운반해온

동발용원목이 강기슭과 갯앞에 쌓여있을뿐 전호준은 없었다. 정준택은 두만강상류의 심술사나운 물결을 헤치며 내리는 떼목우에 앉아 고통스러운 번민에 시달렸을 전호준의 모습을 눈앞에 그렸다. 두만강류역의 마지막탄광에 알아보니 전공들을 데리고 그곳에서도 떠났다고 한다. 관리국당위원장이 말하던 전화선가설을 벌써 시작한 모양이었다. 대일전쟁시기 전란의 피해를 받아 산야에 널린 전선을 모아 관리국과 탄광사이의 직통전화를 가설하려는것이다. 그는 지금 산중의 어느 산비탈에서 전화선을 어깨에 메고 끌고있을것이였다. 그의 행처도 똑똑히 알수 없거니와 그만하면 북부석탄관리국의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했다고 할수 있어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정준택은 차머리를 돌렸다.

그는 장군님께서 현지도도를 하시는 청진방직공장으로 갔다. 이 공장은 최근에 조업하여 생산을 시작한 공장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인견사를 보시며 경공업의 토대가 빈약한 북조선에서 인견사를 생산하게 된것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에 비추어봐도 그렇고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매우 의의깊은 일을 했다고 공장조업에 기여한 노동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고계시였다.

정준택은 현지도도의 수행원으로 공장을 돌아보고는 귀로에 오르신 그이와 동행을 했다.

정준택은 장군님께서 계시는 립시집무실을 찾아갔다. 장군님께서는 한결 초췌해진 정준택을 마주보며 인사를 받으시였다.

《그래 알아봐야 할것을 다 알아봤소?》

《알아봤습니다. 전호준동무는 진짜배깁니다.》

웬만해서는 격하는 일도 없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도 드문 정준택이 흥분해서 말씀드렸다.

《진짜배기란것은 무엇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장군님께서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정준택은 자기가 확신하고 흥분한 그 모든것을 상세히 말씀드렸다.

《북부석탄관리국산하 탄광들은 올해 계획을 초과완수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책임일군들은 전호준동무를 반쏘반혁명분자라고 하면서 계속 박해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전호준동무를 출당철회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전호준동무는 그런 전횡을 부릴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숨어다니다싶이 하면서 자기 사업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장군님의 눈에 한순간 번개와도 같은 푸른 섬광이 번쩍 타버졌다. 언제나 밝은 웃음이 넘쳐나던 그이의 안면에 괴로움을 참기 어려워하시는 무거운 빛이 어렸다. 그이께서는 책임부관을 불러 북부석탄관리국장이 국에 돌아왔는지 알아봤는가고 물으시었다.

《오늘 아침에 국에 도착해서 지금 밀린 사업을 처리하고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왔으니 옷이라도 갈아입을 시간을 줍시다. 기획국장동무도 여기에 있다가 늦은 오후에 우리와 함께 관리국에 가봅시다. 나에게 또 할 말이 있소?》

정준택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것을 보고 장군님께서 물으시었다.

《서종현동무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을것 같습니다.》

《알고있소. 덕산광산 기사로 내려보냈소. 지금 김책동무가 전후관계를 알아보는중이요. 정준택동무보기엔 어땠소? 서종현기사는 전기동력밖에 모르는 동무요? 좀더 범위가 넓은 기업소에 내보내도 일을 감당할 동무요?》

《석유화학공장은 공정이 보통 복잡하지 않은데 서종현동무 혼자서 거의 복구를 끝냈었습니다. 전호준동무가 서종현기사를 욕심내는것은 전기동력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에 맞다들면 책을 뒤져서라도 기어이 풀군 하기때문입니다.》

《황철에 보내면 기술문제를 감당해나갈것 같소? 지금 제철이 문제인데 그 큰 기업소에 한명의 기술자도 없지 않소.》

정준택은 곧 답변을 드릴수 없었다. 해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철, 제강, 압연제품에 부산물까지 생산하는 동양굴지의 그 대기업소의 기술문제를 서종현이 풀어나갈수 있겠는가?

《제철, 제강부문을 어느 정도 알고있는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방면적인 기술을 소유하고있고 책임성이 강한 동무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서종현기사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것이 좋겠는지 생각해보는것이 좋겠소. 기사동무를 위해서도 큼직한 일을 맡기는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하오.》

《알겠습니다.》

서종현도 장군님께서 계시여 재생의 길을 걷게 되었구나... 정준택은 벅찬 흥분을 안고 그이의 립시집무실을 나섰다.

전호준은 관리국에 돌아와서야 장군님께서 함북도에 와계신다는것을 알았다. 근 20일간의 긴장이 일시에 풀리며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굳어졌던 격분이 몇방울의 눈물에 녹아버려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한방울의 눈물도 스배어나오지 않았다. 과연 자기의 행동이 옳았는가? 김책 부위원장은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만을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함북도내 정권기관 일군들속에 소문이 짜하게 퍼진 자기의 항의도 필경은 장군님께 근심을 끼칠 일이었다. 이런 자기가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을 바랄 자격이 있는가? 너무나 련치없는 생각인듯 싶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이께서 찾으실수도 있다는 생각에 땀에 젖어 색이 바래고 몇군데 찢어지기까지 한 옷이라도 갈아입고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에 밀린 일을 눈이 휘둥그래진 국원들의 눈길을 느끼며 몇건 처리하고난 그는 점심도 먹을겸 잠간 집에 들렀다 나오려고 국장실을 나서려는데 머리칼을 길게 귀밑에까지 길러붙인 전호준의 나이또래 청년이 방안에 불쑥 들어섰다. 그래도 명색이 북부탄광들을 관리하는 국장인데 별로 인사를 차릴 생각도 하지 않고 이죽거리는 건방진 말투로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했다.

직무는 도일보 기자, 기사는 전호준을 그렇게도 무지막지하게 욕질한 도인민위원장동지가 자료를 제공해주어 이미 탈고했다. 전호준이 종적을 감추어버려 기사에 받쳐야 할 만화를 아직 그리지 못했다. ...이제 보니 기자의 가슴에 매달려있는 나무판대기같은것은 화가들이 옆구리에 달고 다니는것을 본적이 있는 화판이었다.

말을 듣는 순간 번민에 시달리던 전호준의 두리두리한 눈에 격분의 불길이 타번졌다. ... 만화를 그리겠다구? 기차를 움직이고 공장을 돌리고 세멘트를 구워낼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끼니를 건느며 밤길을 걷고 갯마구리에서 쪽잠을 자기도 한 나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고? 전호준은 우황이 박힌 소처럼 머리를 내저으며 온 세상을 향해 목터지게 웨치고싶었다. 온 나라가 건국운동에 떨쳐나 와글와글 끓어번지고있는 때에 어떻게 되어 이런 방해군들이 생겨나 정수리를 후려치고 발뒤꿈치를 물어뜯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기자는 황황히 타번지는 전호준의 두리두리한 눈이며 경련을 일으킨듯 떨리는 든든한 턱, 해별에 타고 상처입은 붉은 팔뚝시를 보고 그만 혼맹이가 날아나버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용서를 빌었다.

《전 주필동무가 지시해서 집행할뿐입니다.》

《그런데 왜 삶의 웃음을 웃었소? 동무의 얼굴에 남이 잘못되는것을 좋아하는 삶의 웃음이 떠도는것을 내가 보지 못한줄 아오? 노래기 회쳐먹을 동무같은 사람이 건국의 방해군들이라는것을 내가 모르는줄 아는가? 주필이 뭐라구 하던 동무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봐야 할게 아니요. 왜 우리 관리국당위원회에서 나의 출당을 부결했다는걸 알아보지 않았소? 나를 철직시킬수 있는 권한은 장군님 한분밖에 없다는것을 왜 알아보지 않았는가 말이요?》

잔뜩 외곡된 풍자기사에 잘 생기지도 못한 얼굴을 제멋대로 가장해 그런 만화를 받친 기사가 신문에 발표되면 장군님께서 보실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전호준의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짹 흘러내렸다. 전호준은 출입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절걱 채웠다. 이 모양을 본 기자의 해말썩한 얼굴은 시든 보리감자모양 새까매졌다.

《왜 그러니까? 전 편집마감시간까지 신문사에 가야 합니다.》

전호준은 귀머거리가 되어버린듯 말없이 자기의 자리에 가앉았다. 빼람에서 문건을 몇건 꺼내놓았으나 물론 한글자도 눈에 비쳐들지 않았다. 어금이를 짹 사려물어서 턱의 근육이 솟아오른 그의 얼굴은 비장하고도 확고한 결심이 비긴 모습이였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살을 지저대는듯한 짧은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도에 오셨으면 우선 그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자기가 어떻게 되어 이 지경이 됐는가? 그이께서 떠나실 때까지 풍자기사나 만화가 신문에 나가지 말아야 할것은 말할것 없고 전호준이란 이 말썽군이 관리국에 돌아왔다는것도 장군님께서 아셔서는 안된다. ...연등어리처럼 무거운 눈물이 문건에 툄렁 떨어져 번져갔다. 또다시 신문사에 가야 한다고 칭얼거리는 화가에게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주었다.

《동무는 나하구 여기 있어야 하오. 그 리유는 후에 알게 될거요.》

일본 북해도의 그 사지판에서도 지금처럼 온몸이 저려드는 눈물을 흘려본적이 없었다. 문을 열고 뛰쳐나가면 곧 뵈수 있을것 같은 지척에 계시는 장군님이 도저히 넘기 어려운 벼랑건너에 계시는것처럼 느껴보기도 처음이였다. 앞에서 잔뜩 주눅이 든 모습으로 의자에 걸터앉아 담배연기를 내뿜고있는 기자가 없다면 책상을 그러안고 황소울음을 터뜨리고싶은 전호준이였다. 이렇게 참기 어려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갑자기 북도에서 다급한 발자욱소리가 들리는듯싶더니 누군가가 사무실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비틀었다. 안에서 아무 기척도 없자 사무실이 비였다고 생각했는지 다급히 되돌아섰다. 지금까지 소금에 절군 시래기모양 잔뜩 주눅이 들어 앉아있던 기자가 의자를 걷어차며 뛰여일어났다.

《있습니다. 국장동무는 있습니다.》

되돌아선 당위원장이 문을 두드리며 웨쳤다.

《빨리 문을 여오. 장군님께서 오셨소!》

전호준은 자기가 언제 의자에서 뛰쳐일어났으며 어떻게 문으로 달려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문을 열고 복도에 뛰어나갔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한 안색으로 정준택, 허정숙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전호준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오고계셨다. 전호준은 다급히 손가락빗질을 하고 저고리단추를 채우면서 장군님앞으로 달려갔다. 그이께 옷몸을 깊이 숙여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순간 갑자기 눈앞이 뿌애지면서 온몸이 그이의 무릎앞에 무너져 내리는듯 하였다. 그는 가까스로 바위처럼 무거운 옷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얼굴을 보면 참고 참았던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 일시에 터지고말것 같아 머리를 수긏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일욕심이 있는 동무니까 관리국을 번듯하게 꾸려놨구만. 이 방이 국장동무사무실이요?》

일제시기 백화점의 한개 층을 타고앉아 짧은 사이에 보란듯이 관리국을 시내복판에 꾸려놨지만 국장실은 크지 않은 앞탁 하나도 들여놓기 어려운 비좁은 방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량수책상과 앞탁우에 놓인 재털이에 담배꽂초들이 차넘치다 못해 주위에까지 어지럽게 널린 방안의 어수선한 모양에 놀란듯 걸음을 멈칫하셨다.

장군님께서서는 문밖 수행원들속에 낫선 청년이 끼여있는것을 발견하고 기자에게 물으시였다.

《동무는 누구요?》

《도일보사 기잡니다.》

《그런데 화판은 왜 가슴에 달고있소?》

《만화를 그리려구...》

《만화? 누구 만화?》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뭇 놀라시며 해말썩한 얼굴에 가슴이며 허리, 엉덩이까지도 실버들가지처럼 호리호리한 기사를 잠시 여겨보다가 머리를 떨구고 서있는 전호준에게 시선을 옮기시였다. 해별에 탄 거뭇거뭇한 전호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었다. 그이께서는 방안이 어수선한 까닭을 대변에 짐작하신듯 안색이 어두워지시였다. 허정숙의 맵짠 질책이 방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국장동무를 만화로 그리자고 찾아왔다는거예요? 그래 만화를 그려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저 주필동무가...》

《주필이 뭐예요? 주필이... 동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압니다.》

《알면 똑똑히 말해요! 만화를 그려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풍자 기사를 썼는데 만화를 받쳐야 한다구 해서...》

시루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기자의 말을 들은 장군님께서서는 사뭇 놀라시며 해말썩한 기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였다. 얼굴을 돌려 창밖 저 멀리 푸른 동해바다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면엔 좀해 가서내기 어려울것 같은 괴로움이 짙어갔다. 그이께서는 당위원장님이 방금 가져다놓은 의자에 걸터앉으며 큰숨을 내쉬듯 혼자말씀을 하시였다.

《만화라… 풍자기사라…》

그이께서는 예리한 그 무엇이 찌르는듯 가슴이 아프시였다. 전호준과 같이 건국에 일신을 바치고있는 일군을 모해하고 박해하는것은 당파심리일수도 있고 아침과 오해때문일수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이쯤한것은 건국도상의 난관으로 간주하고 투쟁도 하고 교양도 하여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합쳐 통일정부수립으로 이끌고나갈 결심을 하고계셨다. 그러나 적이 아닌, 분명히 건국사업에 투신하고있는 일군을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야비한 심리엔 동감을 할수도 없었고 용서할수도 없으시였다. 사람을 비웃어대는데서 남다른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군중을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칠수 있겠는가. 혁명을 시작한후 수천수만의 각이한 류형의 인간들을 대해온 장군님께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위대한 존재라는것을 굳게 믿고계셨다. 위대한 존재인 인간을 루추하고 동물적인 존재로 만드는것은 탐욕과 불신, 권세욕… 통털어 혁명이란 어떤것인지 알지도 못하는자들의 개인주의, 리기주의탓이라고 그이께서는 확신하고계셨다. 장군님께서 혁명을 개시하신후 20여년간은 비록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교양과 개조를 통해 인간의 위대성을 자각케 하는 과정이라고 할수도 있었다. 더구나 현정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미제와 같은 강대한 침략자도 능히 몰아낼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인민매개인을 불굴의 거인으로 성장시켜야 할 때였다.

그런데 어째서 동지를 비웃고 야유하며 조롱하는가, 이것은 인민을 대하는 태도, 특히 동지를 대하는 성실한 태도가 아니다. 인간의 위대성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희롱하고 조소하며 성실하게 살지 않는 인간들만이 할수 있는 비속한짓이다.

기자를 맵싸게 다그어대던 허정숙이 창너머 멀리 넘실거리는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무거운 사색에 잠기신 장군님께 량해를 구했다.

《제 도일보 주필을 여기에 좀 오라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허정숙은 너무도 격분하여 불의 근육도 입술도 경련을 일으킨듯 떨고있었다.

《그만두오. 그 사람도 시켜서 한 일이겠는데 여기에 와서 뭘하겠소. 와야 할 사람은 책임일군들이요.》

허정숙은 기사를 쫓아보내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도의 책임일군들을 찾아 석탄관리국장실에 빨리 와야겠다고 했다. 이 말은 장군님의 뜻이라고 했다.

장군님께서 전호준의 책상우에 놓여있는 문건을 끌어당겨 앞에 놓으시였다.

그이의 안색이 순간에 굳어졌다. 눈물에 흠뻑 젖은 문건, 물기에 번져진 글자들... 그이께서는 문건에 떨어진 무거운 눈물방울이 처마끝에서 쏟아지는 락수처럼 가슴을 치는듯한 느낌을 받으시였다. 삼시에 자신의 가슴속에 전호준의 눈물이 그득히 고이는것 같으셨다. 어렸을 때부터 그 무서운 고생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른 의지가 굳센 국장이, 석탄생산을 위해서는 그 누구의 압력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할 말은 다하고 억척같이 일하던 그가 하나의 문건이 흥건하게 젖을만큼 눈물을 흘렸으니 그의 가슴속이 어찌 터갈라지지 않을수 있겠는가?

《전호준동무, 여기로 오오.》

목안이 메말라 이 짧은 말씀을 하기도 어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다가온 전호준의 손을 잡고 상처투성이 손등이며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어루어듬으시였다. 땀에 바래고 기름에 얼룩졌으며 군데군데 찢어지기까지 한 옷을 마치 자식의 아픈 상처를 어루쓸듯 더듬기도 하시였다.

《때목을 탔다지? 갱목은 얼마나 해결했소?》

상처가 얼마나 아프냐고 묻는듯한 음성이였다.

《5개월분은 해결했습니다. 이제 몇탕을 더해서 토장의 나무를 다 끌어내리면 래년봄까지 탄을 캘수 있습니다.》

상처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그저 일을 하다 조금 굶혔을뿐이라고 목멘 목소리로 답변을 드리는듯한 나직한 음성…

《탄광들에 직통전화선을 가설했다면서?》

《아직 두개 탄광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소. 짧은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는데 왜 쫓겨다니오? 이렇게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왜 찾아오지 않았소? 내가 도에 내려와있다는걸 알았겠는데 왜 찾아오지 않았는가 말이요? 우리에게 동무하나 보호해줄 힘이 없을것 같소?》

정녕 노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있었다. 밑으로 처져내린 커다란 머리를 가까스로 지탱하고있던 전호준의 넓은 어깨가 세차게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제 성미가 사나워서 번마다 근심을 끼치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탄부의 자식에게 국장의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제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전호준의 흐느끼는듯한 목소리였다. 미처 터뜨리지 못한 오열로 해서 어깨가 세차게 드놀았다.

《동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거요?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하오. 우리 나라 갈탄을 책임진 13개 탄광을 관리하는 국장이 월권행위를 하면서 전횡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겠는가? 동무에게 국장자리를 준건 우리가 아니라 인민이요. 인민이 선거한 인민위원회가 주었다단말이요. 인민이 준 국장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땐 투쟁을 해야 하오.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울 땐 우리를 찾아와야 하구. 이 김일성이가 뭐요? 동무처럼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할수 있지... 그런데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있소? 출당철직을 강요할 때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소? 동무가 당하는 모욕이 동무 한사람이 당하는 일 같소? 도내 인민들을 왜 생각하지 못했는가 말이요? 동무와 같이 설움을 겪고 구박을 받을 인민들을 왜 생각하지 못했소?》

장군님의 격한 음성이 울려퍼지는 방안에 도의 책임일꾼들이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인사를 드리는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으시였다. 앞에 놓여있는 전호준의 눈물에 젖은 문건을 그들에게 주시였다.

《이걸 보시오!》

도인민위원장은 글자를 알아볼수 없게 물기에 젖은 문건을 손에 들기는 했지만 영문을 알수 없어 두리번거렸다.

《선전부장동무, 문건이 왜 그 모양이 됐는지 말해주세요.》

허정숙은 방금전에 이 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격분을 참을수 없어 턱을 떨며 랭랭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신문지면을 통해 야비하게 비판하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도에서는 모범일군들이 만화의 대상이 돼서 기자가 찾아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비로소 얼굴을 돌려 도의 일군들을 엄한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노여움을 애써 녹잡히며 물으시였다.

《동무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북부탄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지 모르오? 북부석탄관리국장이 올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지 알았소? 몰랐소?》

격두룩한 키의 도인민위원장이 어죽떠죽한 말투로 변명을 했다.

《반쏘를 하는 반혁명분자라고 해서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요? 동무의 생각이요? 다른 사람의 말이요?》

도인민위원장은 영문을 알수 없는듯 양바툼한 키에 목이 받은 도당책임일군을 돌아봤다.

《동무는 무얼하는 사람이요? 한개 관리국당위원장도 제정신을 가지고 당적원칙을 지키는데 동무는 누구의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우의 지시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왜 철직시키려고 했소? 동무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군이라면 전호준동무가 어떤 동무인지 알아볼 생각이라도

해야 할것이 아니요? 기획국장동무, 전호준동무가 국장으로 임명된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 동무들에게 말해주세요!》

정준택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놀랍게도 침착하고 고르로운 목소리로 전호준이 그동안에 해놓은 일들을 차근차근 읽어내렸다.

떼목을 몇번 타고 어느 탄광에 동발용나무를 몇립방 떨궜으며 그것으로 갈탄을 얼마나 생산할수 있다. ... 11개 탄광과 관리국사이를 연결시킨 직통전화선은 몇십t, 길이는 얼마, 직통전화가 가설되어 관리국은 1947년도인민경제계획을 산하의 11개 탄광과 수시로 연계를 가지며 지휘할수 있게 됐다. 나머지 2개 탄광을 연결시킬 전화선도 이미 수집되어있다. 어느 탄광지배인, 기사장, 굴진공, 채탄공은 전호준국장이야말로 진짜배기 우리 시대의 간부라고 하면서 그의 선봉적역할로 해서 올해 계획은 문제없다고 했다. ...국장이 말하는대로 탄광을 복구하고 재건하면 래년도에도 탄을 2배이상 더 캘수 있다고 장담했다...

《내가 보기에도 북부탄전에서 올해 계획을 초과완수할수 있는 전망은 확고합니다. 래년도 생산을 2배이상 장성시킬수 있다는것도 정확한 타산이라고 봅니다.》

《기획국장동무의 말에 의견이 있으면 말하오.》

《그렇지만 반쑈분자는...》

말머리를 떼려던 도인민위원장은 자기의 미간을 지지는듯한 장군님의 날카로운 안광에 텐겁을 해서 입을 다물었다.

《동무는 석유화학공장사건과 관련한 통보서도 읽지 못했소? 통보서에는 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지적되어있지 않소?》

장군님께서서는 괴롭고 안타까운 눈길로 머리를 떨군 후줄근한 모습으로 서있는 일군들을 잠시 마주보시었다. 한때 그 무슨 주의를 내들고 사상가행세를 하다 감옥밥을 먹기도 한 사람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의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일신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다지기도 한 이들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인민들의 혐오를 사고 규탄을 받을 행동을 했는가? 어째서 머리에 녹이 쓸었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이것이 통분하시었다.

《동무들은 한때 우리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기도 했고 공산주의리념에 공감해서 사상가행세도 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째서 변질됐소? 조국의 자주독립이나 공산주의리념보다 권력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됐소? 내앞에서 똑똑히 말하오. 직권이 조국의 자주독립보다 중요했는가? 동무네가 차지한 그 자리가 공산주의리념보다 중요했는가?》

장군님의 준절한 추궁을 받은 일군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듯 머리를 더 깊이 떨구었다. 껍두룩한 도인민위원장은 밑으로 처져내린 머리를 지탱하기도 어려운듯한 자세로 서있었으며 양바탕한 도당책임일군은 창백해진 얼굴을 숙이고 돌기둥처럼 굳어져있었다. 이윽고 도당책임일군이 얼굴을 드는데 뜻밖에도 좀전까지 예리한 빛이 타번지던 모밀눈에 번지르르하게 물기가 어려있었다.

《저는 준엄한 혁명투쟁이 계속되고있다는 장군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진심으로 접수하지 못한 일군이였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제가 사상적으로 변질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도인민위원장에게 개별적인 상급당일군의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접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도인민위원장도 자기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혀가 얼어붙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해 검열된 사람만 믿소.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상적으로 변질된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것이요. 진정으로 과오를 시정할 결심이 되어있으면 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납득시키시오.》

그이께서는 국장실을 나서기전에 당의 조직원칙을 사소한 동요도 없이 꺾듯이 지켜낸 국당위원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어려운 부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말씀들을 계속하시였다.

《전호준동무에게 한주일간의 표창휴가를 주겠습니다. 한달쯤 휴식을 시키고싶지만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자면 북부석탄관리국사업이 중요하기때문에 한주일간의 휴가밖에 주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동무는 국장동무가 표창휴가기간에 충분히 휴식을 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어야겠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맺힌 걱정이 터져나오는듯한 흐느낌소리가 들렸다. 전호준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가슴에서 솟구쳐오르는 울음을 짓씹고 섰다가 입밖에 내쫓는 소리였다. 국당위원장도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을 생각도 않고 목멘 소리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꼭 집행하겠습니다. 관리국에서 공개당회의를 열고 장군님의 배려를 전달하겠습니다. 관리국산하 탄광들에게도 알려주겠습니다. 전체 로동자들, 기술자, 사무원들이 다 기뻐할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이께서는 통분한 심정이 한결 가라앉은듯싶으시였다. 문안에 서있는 책임부관을 가까이 부르셨다.

《동무는 제일 좋은 천으로 국장동무의 옷을 한벌 지어야겠소. 우리가 함북도를 떠날 때는 새옷을 입은 관리국장동무를 보게 해야 하오.》

전호준에게 어서 집에 들어가 폭 쉬라는 말씀을 남긴 그이께서는 국장실을 나서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땅에 닿을듯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리는 전호준의 상처입은 커다란 손을 한동안 굳게 쥐고계시다가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그의 말씀이 계시여 같은 차에 올라 앉은 정준택이 뒤창을 거쳐 전호준을 돌아보았다.

《아직 그 자리에 서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예, 아직 서있습니다.》

《전호준동무는 앞으로 더 큰 사업을 할수 있는 동무요. 많이 도와주오.》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동무입니다.》

《그렇소. 국장동무는 전호준동무한테서 많은것을 배워야 하오.》

《예, 이번에 많은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소?》

《당적원칙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됐소.》

장군님께서 함북도에서 떠나신후 도일군들은 자기들이 다시는 소생할수 없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며 운명의 그날을 기다렸다. 그런데 얼마후 도무지 믿을수 없는 소식이 그들에게 날아들었다. 자기들이 마구 짓밟고 안중에 두지도 않은 일군들과 노동자들에게 기울이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개조의 길을 열어주셨던것이다. 평양으로 올라가 장군님가까이에서그이의 사상과 사업방법, 작풍을 배울 뜻밖의 행운이 차례졌다.

전호준도 평양에 소환되였다. 그는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 3 장

1

성시백은 북악산의 첫 가을정취를 즐기러나온 사람모양 중절모에 부드러운 연회색 양피구두, 앞섶에는 번쩍거리는 금시계줄... 여불없는 큰 무역회사 사장이 아니면 만석군의 차림새로 단장을 내짚으며 옛빛이 그윽한 경복궁의 드높은 담장을 옆에 끼고 삼청동을 향해 천천히 걸어올라갔다. 구한국시절의 왕족이라고 해서,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는데 한몫했다고 해서, 량반거족이란 명분에 세파를 헤쳐나가는 능란한 수완으로 해서, 나라가 망한후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해온 서울의 이른바 명문거부들이 주로 모여사는 곳이 북악산기슭의 삼청동이였다. 김규식이 들어있는 삼청장도 리조를 멸망에로 이끌어가는데 한몫을 한 민비족속의 한사람인 민규식이 제공해준 집이였다.

삼청장의 정문앞에서 총을 어깨에 걸치고 흔들거리며 오고가던 경찰이 다가오는 성시백을 보더니 굵직한 허리를 꺾었다. 김규식을 경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삼청장앞에 설치한 특별파출소 순경이였다. 성시백은 지전장들을 받쳐 명함을 내주며 《점심들이나 들게.》 하고 하대하는 말을 던졌다.

《지금 손님들이 계신데요.》

순경은 흘깃 명함의 글밭들을 내리훑으며 말했다. 명함에는 흥국상회, 금강무역주식회사, 홍콩양행... 그밑에 사장이란 글밭이 새겨져있었다.

《우사(김규식의 호)는 계시겠지? 내가 왔다고 알리게.》

《미국어른이 와계시구 또 앵간히 높은분이 오셔서. 비서님께 알리면 안되겠습니까? 어이, 비서님께 흥국상회 사장님이 왕립하셨다고 알리게. 성함은 정향명씨야.》

서도사투리를 쓰는것으로 보아 북에서 도망쳐온 일제때 경찰이 분명했다. 경호란 명색뿐이지 사실에 있어서는 김규식을 감시하는것을 중요목적으로 삼고있는 파출소니 인민의 징벌이 무서워 북에서 도망쳐온 이른바 경찰의 《핵심》들로 이 특별파출소를 꾸렸을것이다. 성시백은 파출소앞에 서서 담배연기를 날리며 소풍을 하러나온 산책객의 얼굴로 배기가스, 매연이 안개모양 뒤덮인 서울시가를 한가로이 굽어보았다. 서울은 2차대전후 미군강점하에 있는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대체로 그런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없으면 하루도 생존할수 없는 기생의 도시였다. 시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 대부분의것이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산이었으며 미국병사들이 내버린 람투한 군복떨거지를 입은 소년이 옛장사모양 가슴에 안은 모판에 놓인 담배며 사탕, 자질구레한 일용잡화도 모두 미군창고에서 새나온것이였다. 대낮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과는 녀인의 머리도 검은빛을 날려버린 노랑머리로 변색했다. 이런 도시에서 수천의 정객들이 제나름의 정견을 내걸고 무슨 당, 무슨 회 하면서 필사적인 권력다툼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생각하니 성시백은 절로 한숨이 새나오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정문안의 밋밋한 차도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문득 뒤를 돌아봤다. 한대의 군용차가 바람처럼 바쁜 속도로 그의 앞을 스쳐지났다. 그뒤로 휘장을 내린 미국제 대형승용차 리무진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달려왔다. 정문앞에 섰던 경찰은 어느새 막대기처럼 꼳꼳한 자세로 한옆에 비켜서있다. 승용차는 분명히 리승만의 전용차였으며 앞서 달려나온 군용차에 얹은 금발머리에 오동통한 몸매인 미국놈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한테 연설기안자명색으로 물어다니는 버치였다. 버치는 하지의 요청에 의해 미육군성 정보부에서 선발해보낸 수재형의 하바드대학출신 법학박사였으며 서울에 와서는 주로 김규식을 비롯한 우익계인물을 상대로 이른바 정치공작을 하고있었다.

(무엇때문에 이자들이 선생을 찾아왔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파출소안에서 술과 성병으로 해서 거칠어진 거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사장님, 안에서 전화를 바꾸랍십시다!》

성시백은 파출소안에 들어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중국국민당의 정치간부들을 양성하는것이 주목적인 사천대학에서 김규식이 영문학교수로 있을 때 절친해진 수제자이며 비서격인 윤명현의 목소리가 송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그는 《과도립법의원》의 위원으로 남조선에 이름이 알려진 정객이였지만 지난해부터 성시백의 리념에 공감을 표시한후에는 그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있었다.

《선생님은 심기가 좋지 않으시구 몹시 피곤해하시는데 지금 꼭 만나야겠습니까?》

윤명현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는것으로 보아 김규식이 일체 방문자를 받지 말라고 한 모양이였다.

《나야 한가한 사람이니 돌아가도 좋은데 선생한테 문전축객을 당한 꼴이 되고싶지는 않소구려. 혹시 선생의 무거운 심기가 나를 만나면 가벼워지겠는지 알겠소?》

《문전축객이라니, 정향명선생을 어떻게 문전축객할수 있습니까?》

윤명현은 문전축객이란 말이며 정향명이란 이름에 힘을 주어 거의 웨치다싶이 했다. 아무리 김규식의 심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성시백을 문전에서 돌려보낼수는 없었다.

《만나시겠답니다. 파출소사람들에게 전화를 바꾸어주십시오.》

현관밖에 나와 성시백을 맞이한 윤명현이 그를 객실로 안내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알려주었다.

《버치하구 리승만이 왔다갔습니다. 나도 비서들도 내쫓구 수군거렸는데 리승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그 사람들이 방에서 나오더군요.》

방안에 들어서는데 성시백을 보고 김규식이 안락의자에서 힘겹게 일어서려는데 지금까지 그를 에워싸고 무슨 말을 나누던 모양인 10여명의 사나이들이 황급히 선생을

부축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김규식이 일을 벌릴 때면 틀림없이 그를 에워싸는 비서명색의 정객들이었다. 우로는 친미정당인 한민당계로부터 시작해서 중간파, 온건한 좌파에 이르기까지의 각양각색의 인물들이다. 김규식은 좌우 어느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한 입장을 견지한다는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이런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비서명색으로 주위에 두고있었다.

김규식은 병석에 누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우울한 표정탓인지 정말로 건강이 좋지 않아보였다. 중경에 있을 때와는 달리 바지저고리를 입고 발에는 마카로나 홍콩을 거쳐 들어왔을 고급양말에 미국제 모직실내화, 응접실도 양식과 조선식가구들이 뒤섞여있었다. 옷차림도 응접실도 어딘지 모르게 그의 비서진처럼 착잡하게 뒤섞여있는듯 한 느낌을 주었다.

김규식은 성시백과 인사를 나누고나자 굵은 허리통에 비해 지나치게 작아보이는 몸을 의자등받이에 거느시 기대고는 두자남짓한 긴 장죽이 놓여있는 옆상에 손을 가져갔다. 아직도 자기 주위에 서있는 비서들에게

《자네들은 나가보게.》 한다.

리승만계에서 박아넣은 첩자로 알려져있는 비서장이 쭈뼛거리며 방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한마디했다.

《우남(리승만의 호)의 말씀이 옳쎬다. 극인(허현의 호) 그 사람은 몽양보다 더 빨간 놈입니다. 손을 잡았다고해도 오래 가지 못할겁니다.》

량반행세를 하는 시골로인모양 긴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던 김규식이 입에 가득히 물었던 회색연기를 비서장의 얼굴에 끼었으며 짜증을 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내가 할 말은 끝이 났으니 자네들은 나가보라고 하지 않나!》

성시백은 비서장의 말을 듣고 여간 놀라지 않았으나 오가는 이야기에 별로 흥미가 없는듯 쏘파의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서울에 돌아온 그는 김규식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이 다시 시도되고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도 민전계의 일부 인사들까지 망라된 《좌우합작》이 준비되고있다는것이다. 이것은 필경 미국놈들이 남조선의 광범한 정치력량을 망라한 제3정치세력을 조작해낼 잡도리를 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좌익계까지 끌어들일 생각을 한것을 보면 적지 않은 중간과도 이른바 합작의 대상으로 되었을것이다. 미국놈들이 어째서 갑자기 《합작》놀음을 또 시작했는가? 그것은 남조선의 광범한 민중의 의사를 대변한듯한 정치세력이 필요하기때문일것이다.

성시백은 그러한 정치세력이 남조선민중의 총의에 의해 남조선괴뢰정부가 수립된듯한 인상을 조성하는데 리용되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래 그는 민전계의 누가 미국놈들의 룡간질에 말려들었는지 알아보는중인데 뜻밖에도 삼청장에 와서 그가 허헌이라는것을 알았다. 민전의장단성원들가운데서도 첫자리에 놓이는 허헌이 우경화되는 《좌우합작》의 그물에 걸려들다니... 장군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전민족적인 민족자체력량을 결성하는 사업에 결정적인 난관이 조성된셈이었다.

《선생님의 건강이 이렇게 나쁜줄 알았으면 찾아오지 않는건데 제가 무리한 방문을 한것 같습니다.》

자못 걱정스러운 안색을 지으며 성시백은 나직이 말했다.

…문득 찾아든 나그네

그대는 내 번뇌를 날려줄 님이리…

김규식이 뜻밖에도 엘리자베스녀왕조시기의 부드러운 영어로 두어행의 시를 읊고나서 물었다.

《어떤가? 운이 부드러운 시행이 아닌가?》

영어에 능한 성시백이였지만 그것이 선생이 전공한 썬스피어의 작품에 담겨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중국에 있을 때 간혹 펜을 들곤 한 영문으로 된 어느 시작품의 한대목인지 알수가 없었다.

《제가 선생님의 번뇌를 날려버릴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나는 망명생활을 할 때가 가장 불행한 때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네. 정향명군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으니 청중이나 정객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한담을 하던 그 음침한 안개의 도시가 그리워지기까지 했네. 그때는 꿈이 있었고 내 머리속의 공상이 생활의 전부였거든…》

김규식은 분명히 정치생활에 지쳐버린 사람이였다. 하긴 오랜만에 말의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총명하고 박식한 정향명과 정말로 한담을 할 생각을 했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지쳐버린 그의 내심을 엿볼수 있는 말이였다. 어쩌서 김규식이 이렇게 지쳐버렸는가? 리승만의 강박, 버치의 룡락탓인가? 《좌우합작

》의 주동인물이 되었으면 응당 활기에 넘쳐있어야 할 그가 이렇게도 우울해하는것을 보면 필시 그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았다.

《선생님의 량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때에 이렇게 기운을 잃고계시면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은 힘을 내셔야 할 때입니다.》

김규식은 수북한 눈섭을 미간에 모으고 잠시 성시백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항명군은 지금도 중경에 있을 때 그대로겠지?》

《나야 정계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할 사람이 아니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긴 나도 분렬된 조국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긴 합니다만…》

《나는 요즘 힘의 상실은 불행의 전부란 말을 자주 생각하게 되네.》

성시백이 중경에 갔을 때 김규식은 다년간 국민당에서 운영하는 사천대학에서의 영문학강의를 집어치우고 그 안개의 도시에 이미 와있었다. 그때 김규식은 좌경적인 강령을 내건 조선민족혁명당의 주석 겸 립정부주석이였다. 당이라 해야 보잘것 없는 자그마한 집합체에 지나지 않았지만 김규식의 오랜 정치생활과 그의 명성으로 해서 중경에 쫓겨온후에도 권력을 다투는 몇개의 당들가운데 조선민족혁명당도 끼여있었다.

김규식을 만나 담소를 나누느라면 압록강, 두만강을 넘나들며 싸우시는 **김일성**장군에 대한 말을 의례히 하게 되었고 공산주의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좌익사상이 현실로 된 조국을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군 했다. 김규식도 썬스피어의 원작에서 인용한 시행들을 섞어가며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경제제도말살이니, 토지의 국유화와

토지분배니, 독점기업체의 국유화니 하는 말들을 깊은 생각에 잠겨 이야기하곤 했다. 그때의 김규식이 사상적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서울에 와서도 견결한 공산주의자는 못된다고 해도 중도좌파에 속하는 정당지도자쯤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조국에 돌아오자 점차 우경화되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주류를 이룬 리승만, 김성수계 친미매국세력, 완고한 민족주의적보수세력인 김구계와 함께 미군정을 등에 업은 친미세력의 대표자 우익 3령수의 한사람이 돼버렸다.

윤명현은 선생이 사상적변화를 가져온것은 단순히 언더우드2세의 룡간질에 걸려든탓이라고 했다. 학창시절부터 중경을 거쳐 서울에 와있는 지금까지 김규식과 한집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함께 생활해오는 윤명현의 말이니 그의 말을 믿어야 할것이다. 또 그의 말을 믿지 않을수 없는 충분한 근거도 있었다.

김규식은 미국이 조선에 파견한 첫 척후병의 한사람인 언더우드목사의 양자로 입적하여 그의 도움으로 미국의 로녹대학을 졸업할수 있었다. 언더우드가 리조말업 조선에 건너와 왕실의 신임을 얻을양으로 별의별 룡간질을 다 피울 때 앞으로 대학과 신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며 설립한 고아원이 있었다. 김규식은 바로 그 고아원에서 자라나 언더우드에게 총명성이 인정되어 미국류학까지 가게 되었다. 김규식은 원래 경상남도 동래군수를 지낸바 있는 김지성이란 량반관료의 아들이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치적분쟁에 말려들어 이 세상을 떠나는통에 고아로 되어버렸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에 돌아와 언더우드1세의 비서, 그리스도교청년학교 교원, 서울의 이름있는 교회의 하나인 세안문교회의 목사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뗐다. 이런 그가 조선이 일제에게 병합된지 3년만인 1913년에 인삼장사를 하러 만주로

간다는 소문을 내고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에 망명했다. 아마 그는 일제에게 강점당한 불행한 조국을 목격하면서 교회의 좁은 울타리가 아니라 더 넓은 판도에서 조선을 위해 일신을 바칠 결심을 한것 같았다. 그는 이것으로 언더우드와의 관계는 끝장난것으로 생각했을수 있다.

그러나 광복이 되어 그가 조국에 돌아왔을 때 이미 땅속에 들어간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리스도교의 리념을 조선에서 실현해나간다고 하면서 언더우드2세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설립하며 포교사업을 계속하고있었다. 비록 언더우드1세는 죽었으나 종교를 리용해 미국의 영향력을 조선에 부식하고있는 미국의 선교부는 의연히 살아있으면서 김규식을 거머쥐려 하고있었던것이다.

물론 김규식은 언더우드2세와의 상봉으로 해서 미국의 손탁안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언더우드2세가 백여명이나 되는 고문을 총찰하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사령관의 수석고문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한 일요일에 김규식은 레베를 보려고 정동레베당에 갔다가 한담도중에 비록 군정이 실시되고있는 남조선이지만 조선사람들이 자주권을 다문 얼마간이라도 행사할수 있게 남조선국민대표들로 구성된 일종의 자문기관같은것을 내왔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언더우드2세에게 비친적이 있었다. 며칠후 공식적인 미군사령관 정치고문이 그를 찾아와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고있는 남조선과 같은 곳에서도 국민들이 민주주의적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특수한 형태인 《국회》를 둘 생각이라고 하면서 《민주의원》을 내올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기와 미군정당국이

같은 견해를 갖게 된것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국시로 삼고있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남조선단독괴뢰정부를 조작해내기 위한 첫시작이자 미국의 침략성을 가리워주는 보자기의 역할을 수행한 《민주의원》이란것이 세상에 태어났다.

《과도립법의원》이란것을 조작해내는 과정도 이와 비슷했다. 김규식은 조선사람들이 립법권을 소유하게 되면 미군정하에서 예속된 생활을 하는 현상태를 많이 탈피한 자주적국민으로 될수 있을것 같았다. 이런 견해를 여기저기에서 몇번 이야기한적이 있었는데 《과도립법의원》을 만들어내는 산파역도 결국 김규식에게 위임되었다. 《과도립법의원》을 갖게 됐으니 행정권을 소유해야 할것은 당연한 일이여서 《민정장관》을 선출해내고 《민정이양》놀이까지 벌렸지만 사실은 미군정청의 지시를 받는 꼭두각시를 만들어낸데 지나지 않았다. 김규식은 이때에야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조선민족의 자주권이란 공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 무엇을 만들어낼수록 그것은 미국의 조선침략을 미화분식할뿐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그는 조선의 정치인은 어쩔수 없이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환경속에서 활동할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체념에 사로잡혔다. 그가 유약한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는 예민한 사고와 높은 지성을 지닌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행동하기에 앞서 사색하는 습벽에 사로잡히군 하는데도 있었지만 이러한 체념이 그로 하여금 행동을 조심하게 한데도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

성시백이 서울에 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김규식은 이미 친미의 길을 걷고있었다. 김규식이 어찌해 좌익과 손을 잡지 않고 우익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성시백은 한때

의아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규식이 걸어온 긴 사상행로를 더듬어보면 그가 친미의 길에 들어선것이 응당한 귀결인듯싶기도 했다. 월슨이 제창한 《민족자결론》에 기대를 걸고 빠리에로의 구걸행각, 그러나 미국이 내놓은 그 《민족자결론》은 약소민족해방이란 그럴듯한 말로 추동질해서 식민지나라들을 미국에 예속시키기 위한 룡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김규식은 강화회의를 통해 깨달았다.

미국에 대한 김규식의 환멸이 어떻게나 강렬했는지 그를 180°방향전환을 하여 민족평등을 주장하는 쏘련에 접근시켰다. 이렇게 되어 모스크바의 크레믈린대회당에서 개최된 동방피압박민족대회에 참가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려운형과 함께 김규식은 의장단성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원동에 수립된 망명정부인 《조선공화국》수반의 자격으로 올라지보스토크에 갔다가 일제의 항의를 우려한 원동정부에 의해 추방을 당하는 창피를 당했다. 그는 쏘련이 추켜든 만민평등, 민족평등의 기치도 리념에 지나지 않을뿐 자기 나라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문제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실리를 추구할뿐이라는 회의심에 사로잡혔다. 이때부터 그는 자기를 공산주의자로 자처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쏘련을 경원한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로 자처하기를 그만두었다고 하여 그가 좌파에 속한 조선민족혁명당을 창건하는데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가 숭상하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창조한 공산주의사상에는 참으로 귀중한것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김규식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을 경원하면서 공산주의리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치가, 이것은 김규식과 같은 복잡한 사상의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서울에 돌아온 성시백이 김구, 김규식에게 민족자립사상을 심어줄 방도를 모색하고있는데 뜻밖에 김규식이 민전계까지 망라한 《좌우합작》의 선두에 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 김규식의 사상상태를 알아보려고 삼청장에 왔다. 한데 허헌을 《좌우합작》에 끌어넣으려 한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김규식은 무엇때문인지 번뇌에 시달리고있지 않는가. 《좌우합작》을 정치적부담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워 하는것일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요구가 리승만이나 버치한테 거절당한탓인가? 김규식이 어떤 리유로 해서 지치고 울적한 심경에 사로잡혔건 미국놈들이 남조선에 괴뢰정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기반을 꾸리기 시작한것만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성시백이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어지간히 긴장해서 담배를 태우며 앉아있는데 그 가까이에 서있던 윤명현이 문득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구 그렇게도 권고하는데 무엇때문에 만나가지구 건강에 해를 봅니까?》

정녕 김규식의 건강이 넘려되여선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울적한 심기를 풀어주고싶어선지 윤명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김규식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자제력을 잃어버린 돌발적인 분격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손에 들고있던 긴 담배대를 내동댕이치며 격분해서 웨쳤다.

《이건 김규식과 그 사람들사이의 대결이 아니란 말이요! 강대한 무력을 가진 미국과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불행한 조선사이의 대결이란 말이요. 자네 내결에 10년이나 있으면서 이쯤한것도 모르나?》

김규식은 깊은 주름이 패인 량볼의 두둑한 근육이며 비단바지저고리속의 짧은 체구를 푸들푸들 떨며 부르짖었다. 안해가 달려들어와 주단우에 내던진 장죽을 주어 옆상에 놓고는 남편을 어린애 다루듯 어루만지며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대결한다고 해도 선생이 양보를 해야 할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런 대결은 처음부터 그만두거나 선생이 그 사람들을 눌러버릴 방략을 세운 후에 만나야지 무턱대고 만나니까 이래라 저래라 버릇없이 굴지 않습니까?…》

《윤선생은 좀 가만히 계세요. 오늘은 왜들 이러십니까?》

안해 김순애가 울상이 되어 은테안경을 낀 윤명현을 쳐다보며 애원을 했다. 리승만과 버치를 만나기전에 얼마간의 론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성시백은 김규식과 버치, 리승만사이에 분명 의견상이가 있었다는것을 알았다. 마음을 무겁게 하던 시름이 얼마간 덜리는것 같았다. 그는 가벼운 룡담조의 말을 했다.

《난 정문에서 하지사령관의 스피취라이터(연설문초안작성자)가 몰아대는 자동차에 하마트면 치여 죽을번했습니다.》

《스피취라이터가 뭐니까? 지금은 사령관의 당당한 정치고문입니다. 지성이 빈곤한 조선정계에서 대상할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검질기게 감겨돌아가더니 오늘은 리박사까지 달구와서 선생님에게 무슨 일을 또 떠맡기고 간것 같습니다.》

윤명현의 말에 격분할줄 알았던 김규식이 뜻밖에도 수제자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버리며 온후한 로학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또다시 장죽을 물고 짙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안해 김순애는 얼마간 마음을 놓은양 방에서 나갔다.

《항명군은 중국에서 있었던 국공합작을 어떻게 생각하나?》

만주지방을 비롯해 전중국을 전란속에 휘말아넣은 지난해에 파탄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합작을 녀두에 둔 질문이었다. 이런것을 묻는것으로 보아 김규식에게 《좌우합작》이 큰 고충과 함께 의혹을 던져준게 분명했다.

《신문을 보니까 대체로 두가지 견해로 갈라졌더군요.》

성시백은 별로 깊은 관심을 두고있는 문제가 아니라는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장총통은 중국공산당을 없애버리는것을 최대의 정치적과제로 삼고있었으니 중일전쟁이 종식된 지금 내란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와 미국의 배후책동에 의해 근 5억의 인구가 전란속에 말려들었다고 보는 견해인데 나는 두가지 요인이 다 작용해서 중국내란이 터졌다고 봅니다. 장총통이 아무리 중국공산당을 없애고싶어도 미국의 현대적무기로 국민당군을 무장시키지 못했다면 중일전쟁시기에 크게 장성한 중국혁명군을 감히 공격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미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놀라운 도박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막대한 그 투자란것이 이제는 쓸모가 없는 제2차대전시기 잉여군수물자이긴 합니다만...》

《조선에서의 <좌우합작>은 어떻게 될것 같나? 성사될것 같나?》

성시백은 신경이 날카로와질대로 날카로와졌지만 얼굴에는 짐짓 말뜻을 알아듣기 어려워하는듯한 어리병한 표정으로 김규식의 얼굴을 잠시 마주보았다. 높직한 코마루, 기름한 인중밑에 담배대를 가로 문 큼직한 입, 고집스러워보이는 두툼한 입술, 넓은

미간에 패인 깊은 주름, 수북한 검은 눈썹… 대가 굵고 무게있는 사색을 할듯싶은 그의 온 얼굴이 어지간히 긴장되어 성시백의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남경(후에 중경)과 연안간의 합작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서울과 평양간의 합작을 도모할 뜻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선생님은 이런 중임을 미국사람들한테 위임받은바가 계십니까?》

성시백이 일부러 이죽거리는듯한 이런 말을 한것은 조선을 북과 남 둘로 갈라보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하나의 민족이 사는 하나의 강토란 견지에서 사색해야 한다는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였다.

《광복전에 코리아(조선)라고 말하는데 습관돼서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네. 코리아가 아니라 싸우스 코리아(남조선)라고 말해야 했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군정은 이미 남로당을 해산시키고 그외의 좌익정당사회단체들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지 않습니까. 민전이 아직 해산령을 받지 않고있지만 그것은 서울뿐이지 지방에서는 사실상 존재를 끝마쳤습니다. <좌우합작>을 하자면 좌익이 있어야겠는데 좌익이란 없지 않습니까?》

성시백은 집요할 정도로 김규식을 궁지에로 몰고 들어갔다.

《내 힘으로 량심적인 좌익계인사들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수 있게 할수도 있지 않나. 물론 나는 불행한 조선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있는 남로당사람들을 넘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네. 례를 들어 아깝게 쓰러졌네만 몽양같은분, 극인(허헌)같은분, 김창준목사같은분, 이런 량심적인 인사들이 앞에 나서서 좌익을 대표하고 우익에서도 역시 독재를 반대하는 량심적인 정치인들이 앞에 나서서 좌익과 손을 잡으면 하나의 큰

중간과정치세력이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극좌극우로 분열돼서 갈가리 찢어져나가고있는 우리 나라의 정국도 어느 정도 수습될것이구 강력한 중간과정치세력이 형성되면 민의를 대표해서 남조선에 정권을 세울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조선의 분열을 끝장낼 돌파구도 열릴수 있구...》

김규식으로서의 흥분하지 않을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의 안색은 의연히 무거웠다. 혹시 그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강요당한 견해를 내비쳐보는것이 아닐가?

《이젠 버치와 다툼 까닭을 알겠습니다. 사령부의 요구와는 달리 선생님은 허헌선생이나 김창준목사같은분들과 손을 잡고 <좌우합작>을 계속하겠다는데 버치나 리박사가 선생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것이겠습니까?》

김규식의 수북한 눈섭이며 장죽을 쥔 손이 한순간 푸드득 떨렸다. 성시백을 마주보는 검은색이 짙은 그의 눈도 노여움으로 번쩍거렸다.

《정군, 자네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버릇없이 대하게 됐나? 자넨 중경에서부터 날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언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정치활동을 하는것을 봤나? 우리가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해있는 조건에서 정치활동을 하고있는것은 사실이네만 나는 량심적인 정치인들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시작했네. 이제 보게. 내 극인이나 김창준목사같은분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주고야말테니.》

김규식은 정향명에게 이런 말을 한 자신을 곧 뉘우쳤다. 허헌과 접촉을 가진것도 사실이였으며 하지사령관에게 허헌과 김창준목사같은 온건한 좌익인사들이 정치활동을 할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줄것을 요구한것도 사실이였지만 몽양 려운형이 피살된후 《

좌우합작》을 다시 시도해나선것은 그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미군사령부의 요구에 의한것이였다.

미국측은 민중의 배척을 받는 리승만을 가지고서는 남조선에 괴뢰정부를 세우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면 그에 상응한 고려가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온건한 우익, 중간파, 필요하다면 좌익냄새가 얼마간 풍기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제3세력을 빠른 시일내에 형성해줄것을 김규식에게 부탁했다. 만일 김규식이 이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아나설수도 있다는 시사도 있었다. 감성이 예민하고 정치적판단이 빠른 김규식은 미국측에서 어쩌서 이렇게도 급급하게 제3세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이내 간파할수 있었다. 남조선정부란것을 만들어낼 밑거름으로 삼자는데 목적이 있을것이다. 버치는 남조선의 복잡한 정계를 이끌 사람은 김규식밖에 없다면서 이번 일을 성사시키면 그의 정치적수완이 입증되어 커다란 영예가 차례질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는 이 말도 믿지 않았다. 자기가 또다시 국내민중은 말할것도 없고 국제사회까지 기만하는 통락물로 리용될수 있다는것을 그도 알고있었다. 그런데도 이 일에 발을 들여놓은것은 정권욕에 환장한 리승만과 같은 독재자형 야심가에게 남조선의 운명을 내맡길수 없다고 생각한탓이였다. 김규식은 미국측이 요구하는 그 제3세력을 리승만이 독재자로 군림하는것을 저지하는 자기의 정치세력으로 만들 결심이였다. 만일 김규식이 조국에 돌아와 남들처럼 정당을 만들고 자신의 기반을 구축했다라면 이런 구차한 놀음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귀국한 그는 쏘미량군을 철거시켜 조선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자면 정권욕을 버리고 민족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정당을 만들지 않았다. 남조선의 중산층과 지식인들가운데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온건한 우익과 중간과계렬에 그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상당한 정도로 강했지만 김규식과 조직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사람이란 오늘도 삼청장에 모여든 10여명의 비서진가운데 두세명과 그의 힘을 빌어 《과도립법의원》이 된 이삼십명의 정객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가 의도하는 정치세력에 허헌을 비롯한 온건한 좌익인사들을 끌어넣으려는것은 그와 같은 권위있는 사람들을 인입해야 리승만과 대결할 조선의 민의를 모은 세력이라고 말할수 있겠기때문이었다. 리승만은 그의 내심을 간파했는지 허헌과 손을 잡는것을 극력 반대했다. 김규식이 울적하고 지친 빛인것은 전에 없이 리승만이 자주 삼청장에 나들면서 온건한 좌익과의 관계를 반대하는데도 있었으며 민족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정강을 내두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있는 스스로에 대한 불만탓이기도 했다.

성시백은 김규식의 이러한 속심을 알수는 없었지만 그의 기도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의도하고계시는 전국적인 민족자체력량을 준비하는데 방해로 된다는것은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설사 버치나 리박사가 선생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민전의 활동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도 사태는 미국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겁니다. 미국사람들이 <좌우합작>을 지지하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전략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인정하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리박사가 미국에 가서 워싱턴의 유력자들과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약속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얼마전에 서울을 방문한 웨드마이어도 군정선상의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촉구하고 돌아갔다는

향간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선생은 미국이 자기 나라의 국익을 희생하면서 다른 나라에 자선사업을 하는것을 봤습니까? 더구나 대소전략의 중요한 지탱점으로 되고있는 조선과 같은 지역을 두고서말입니다. 미국이 <좌우합작>을 지지하는것은 우익세력과 함께 온건한 좌익까지도 남조선<단독정부>를 수립하는데 리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을겁니다.》

《향명군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좌우정치세력의 단합이 조선을 점유한 량군에 대한 저항이라고 간주하네. 민족을 구원할 방도로 생각하구.》

《합작은 구원이 아니라 우룡을 당하면서 과멸에로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이 자기의 뜻을 달성하자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선생님자신도 미군이 남조선을 점령한 현실태를 어쩔수 없는 운명으로 간주하시니 그 사람들에게 리용당하게 될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도 선생님 혼자만 리용을 당하면 모르겠는데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선생의 말을 듣고 선생의 뒤를 따르다가 미국에 리용당했다는것을 알게 되면 이것은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명군도 나를 친미분자로 간주한다는것인가?》

《지금까지는 미국사람들이 선생님을 교묘하게 리용해왔을뿐이지 선생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해동안 미국사람들한테 속아오면서도 중간과 지어 좌익진영 사람들까지 끌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올가미속으로 들어간다면 선생님에 대한 견해를 달리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선사람은 미국의 리익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리용할 가치가 있는 조선사람들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명군은 중경에 있을 때보다 더 강경해졌군.》

《남조선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선생님을 찾아온것은 경교장(김구의 저택)에 가니까 선생님이 나의 행방을 물으면서 선생님을 잊어버린것 같다고 말씀하더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짧은 시간이나마 선생님의 상담역이 됐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백은 김구와의 친분관계만이 아니라 무역을 해서 번 적지 않은 돈을 한국독립당(당수 김구)의 정치자금으로 밀어넣고있어 경교장출입이 많았다.

《선생님이 일생을 바쳐서 지켜낸 민족적량심을 존중하신다면 민족자체력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힘을 빌리자고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힘에 의거해서 분렬의 비운속에 있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여생을 바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쏘미량군의 영향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남북조선을 점령한 2대강국을 당해낼 힘이 있나? 나도 젊었을 때 세계를 메주밟듯 했네만 조선을 저희들의 국익을 위해 희생시키려고 하는 대국을 보았을뿐이구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극형에 처하면서 민족평등을 부르짖는 정치인들을 봤을뿐이네. 조선이란 새는 날개가 든든하지 못해서 이 초대국들이 불러일으키는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네. 그 어느 한쪽의 바람을 탈수밖에 없는것이 조선민족의 숙명이란 말이네.》

김규식은 미국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그 어떤 유연한 저항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힘을 빌어 정치세력을 꾸릴 생각인것 같았다.

《력사는 현재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런지 모르지만 현재 그것은 아닙니다. 또 과거의 체험을 선생님이 정확하게 평가하고있다고 말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성시백은 스탈린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소련의 일부 대외정책작성자들이 정세판단을 잘못해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곤경에 처하고 조선을 두동강내려는 미국의 통간질에 걸려든것은 사실이지만 북조선에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자주적인 인민적시책이 실시되고있다, 김규식이 중경에서 주장한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가 북조선에서 이미 단행되었다는것을 선생도 알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고싶었다. 그러나 김규식은 소련이라면 아예 머리를 흔들었으며 북조선도 남조선과 마찬가지로 외세의 지배를 받고있는것으로 생각하고있어 성시백은 자기의 견해를 내놓고 주장할수가 없었다.

《나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 민족에게 리익이 될 일을 하시겠다는 선생님의 견해에 찬성할수 없습니다. 또한 쏘미량국을 그렇게도 크게 평가하면서 민족자체력량을 과소평가하는 선생의 견해도 나는 찬성할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힘을 우선시해야 할것인데 이 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 선생님의 견해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력량을 단결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서울정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시야를 조금만 넓혀도 민족자체력량으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북과 남의 수백만 민중을 볼수 있는데 건강탓으로 활동이 제한받고있기때문인지 선생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계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한경이나 버치같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큰 영향을 주고있는탓이 아니겠는가 나에겐 생각됩니다. 썬스피어도 얼굴에 웃음을 짓고 가까이 접근하는자, 귀속에 달콤한 말을 붙여넣는자를 경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긴장한 표정으로 성시백의 말을 듣던 김규식의 얼굴에 지친빛이 더욱 짙어갔다. 문득 그는 엘리자베스녀왕조시기의 한수의 시를 영어로 읊기 시작했다.

막연한 추측은 애매한 희망을 말할뿐

희망은 환영의 힘을 빌어 파멸에도 유혹하거니...

성시백은 참을길 없는 혐오감이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김규식은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현실기피자, 자기의 생각에 자신이 우롱당하고있는 사상의 희롱자로 돼버린것 같았다. 과연 이런 사람을 단결된 민족자체력량의 앞장에 세워 장군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그 웅대한 위업에 이바지하게 할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할것만 같았다.

《나는 성의를 다해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다만 선생을 존경하는 수천만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민중이 선생님과 함께 세계제패를 꿈꾸는 횡포한 외래침략자들에게 우롱을 당했다는 역사적평가를 받지 말기를 바랄뿐입니다.》

성시백은 김규식에게 몸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삼청장을 떠났다.

허헌은 평양을 떠난지 한주일만에 낡아빠진 화물차에 처실은 푸대자루속에 누워 서울에 돌아왔다. 미아리고개밑에서 내린 그는 왕궁의 위엄을 둔구느라고 드높이 쌓아올린 창경원의 높은 담장밧을 걷고있었다. 문득 뒤에서 뚜거덕거리는 말발굽소리가 들렸다. 마차형버스, 아니 버스형마차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광복의 산물이 여윈 말에 이끌려오고있었다. 미군정청 적산관리처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서 뜯어낸 합판으로 소형버스모양의 궤짝을 만들어 마차우에 올려놓은 서울의 기괴한 교통수단이다.

허헌은 손을 들었다. 버스형마차는 그를 서울중심가에서 얼마쯤 벗어난 룡산역부근의 청과동으로 신고갔다. 여기에 그의 집이 있었다. 그는 운전수이자 차장이기도 한 마차군의 손에 돈 백원을 놓아주면서 집앞의 번잡한 소로길에 들어서게 했다. 혹시 평양에 가있는 사이에 집에서 그 어떤 변고라도 있지 않나 해서 합판에 뚫어놓은 차창을 대신하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자기집 2층쪽을 바라보았다. 여름에도 문을 꼭꼭 닫고 지내는것이 이제는 버릇으로 된 집인데 2층의 문들이 활짝 열려있었다. 허헌은 안경을 벗어두고 로안증이 찾아든 눈을 비비고나서 자기 집을 다시한번 바라보았다. 분명히 황포한 폭력이 마구 뜯어메치고 걷어차서 문들이 온통 떨어져나가고 부서져나간 2층이었다.

(테로를 당했구나! 내가 평양에 갔다는것을 냄새맡았는가?)

허헌은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털썩 떨어져 내리는것 같은 감을 느꼈다. 그는 마차를 돌려세웠다. 대로에 나서는 길모퉁이에 헌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리운 중키의 청년이 궤짝을 받친 모판에 양담배며 자질구레한 일용잡화를 몇가지 널어놓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틀림없이 호위를 겸한 서기의 모습이였다. 허헌은 허수한 중국료리점앞에

마차를 멈추고 궤짝속에서 빠져나왔다. 서기도 마차에서 내려서는 허헌을 알아보고 료리점에 들어가있으라고 눈짓을 했다.

허헌은 료리점의 으스스한 구석에서 그동안에 집에 들이닥친 재난을 서기한테서 자세히 들었다. 사흘전에 경찰이 달려들어 안해인 류덕희로부터 시작해서 갓난애기인 막내까지 여섯식구모두를 료산경찰서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우리 집만 당했나? 다른분들도 당했나?》

《김창준목사하구 녀맹위원장 류영준아주머니를 찾아가 봤는데 그 집들은 그때까진 무사했습니다. 김창준목사는 군정청에 항의하겠다고 그리스도교련맹사람들을 찾아떠나는걸 봤는데 그후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엇때문에 가족들을 끌어들였는지 알아보지 못했나?》

서기는 무슨 말을 할듯 허헌을 쳐다보았으나 곧 눈길을 떨구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히 불만이 어려있었다. 어째서 서기의 눈빛이 저런가? 가족들이 경찰에게 련행된것을 자기의 탓으로 여기는것 같은데 어째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김규식과 련계를 가지는것을 뜨아해하던 서기였으니 혹시 이번 일을 그와 접촉한탓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김규식이 자기와의 비밀접촉을 누구에게 고해바쳤다고 봐야 할것인데 그를 이런 루추한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었다.

《자네 밖에 나가서 마차를 붙들어주게. 내 아무래도 인사동에 가봐야겠네.》

남대문통에 민전의 간판을 내건 건물이 한채 있었지만 거기에는 책상이나 의자들을 몇개 들여놓았을뿐 의장단성원들이나 상무위원들의 중요모임은 빠고다공원뒤의

납아빠진 인사동의 목조건물에서 주로 진행해왔다. 거기에 가면 민전의 현재 형편을 알 수 있을 듯싶었다. 허헌은 다시 뺨스형마차에 올라앉았다.

종로네거리에서 동대문을 향해 달리던 뺨스형마차가 문득 빠고다공원앞에서 멎었다. 합판벽밖에서 올려오는 격노한 부르짖음, 악을 쓰는 웨침, 대오를 지휘하는 듯한 고함... 승객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데모요?》

《꽤싸움을 하는것 같소.》

《꽤싸움이 뭐요? 어제밤부터 좌하구 우가 붙어 돌아가는데...》

허헌은 지르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어제밤부터 싸우고있다니? 그렇다면 다른 민전간부들도 습격을 받았다는 말이 아닌가? 그는 밖을 내다보는 승객들의 다리사이를 비집고나가 어스크레한 궤짝에서 무작정 뛰어내렸다. 일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투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성적인 사고는 벌써 그의 머리에 없었다. 민전을 인정하면 《좌우합작》에 동의하겠다고 김규식에게 전제조건을 내댔는데 가족을 체포하고 민전을 습격하다니? 정녕 그런 전제조건을 내댔것이 사달을 가져온것이 아닐가? 어떻게 민전간부들이 습격을 당하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대로 스쳐지날수는 없었다.

민전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의장단성원들중에서도 제일 첫머리에 이름이 놓이군 하는 자기가 아닌가. 전차, 자동차, 뺨스형마차, 인력거, 자전거들이 혼잡을 이룬 그 사이사이에서 처절한 피투성이싸움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녀인, 무거운 시름에 잠겨 바라보는 중년사나이, 통쾌한 구경거리를 만난듯 꺾을 질근질근 씹으며 뭐라고 괴상한 소리를 내지르군 하는 미국놈들... 그사이를 헤치며 허헌은 인사동회관에 접근할 수 있는

골목길에 들어섰다. 검정경찰바지에 보위색와이샤쯔소매를 걷어붙인자들이 피칠갑을 한놈, 머리가 터진 놈, 정갱이가 부러진자, 갈비뼈라도 부러진 모양 비명을 내지르는 놈들을 빠고다공원입구에 꿈무늬를 들여댄 군용화물차에 올려던지고있었다. 터지고 부러지고 깨진자들을 끌어올리는 놈들은 그 외모를 보아 분명히 경찰들중에서 훈련된자들이였다. 그러니 민전을 짓몽개는데 아직은 군대나 경찰이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의미했다. 테로단을 동원하여 민전간부들의 모임장소를 습격한 모양이였다.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몽둥이를 든 폭력배들이 인사동회관에 육박해들어간다.

《이 거랑말코같은 빨갱이들아!》

《죽여라! 죽여라!》

온통 유리창이 깨져나간 회관안에서 똑똑히 알아들을수 없는 힘찬 웨침이 울려나왔다. 뒤이어 악악, 와와 고아대는 폭력배의 고향을 짓누르며 울려퍼지는 《적기가》...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박살난 유리창을 열어젖히고 돌맹이, 기와조각, 잉크단지... 손에 질수 있는 모든것을 폭력배들의 머리우에 내려던진다. 청사에 몰려들어가던 폭력배들이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죽어가는 소리를 내지르며 길우에서 덩군다. 푸른 잉크, 붉은

잉크벼락을 맞은자들이 해괴한 적청색귀신의 모상이 되어 입안에 튀여든 잉크를 뱉아내느라고 구역질을 한다. 이 순간 청사안에서 몽둥이를 든 작업복, 교복차림의 청년학생들이 사태처럼 쏟아져나와 테로단을 짓조긴다. 수백의 폭력배와 민주청년, 민주학생들이 어울려 싸우는 처절한 격투...

《아- 저애들이, 아까운 저애들이...》

허헌은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원썩놈들을 저주하고싶었다. 교실과 공장, 가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부모처자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할 학생들과 청년들이 목숨을 내건 이런 싸움을 해야 하다니... 허헌은 자기와 같은 나이든 정치인들이 제구실을 못해 이런 싸움이 터진것만 같았다. 그는 허둥지둥 민전일군들이 원썩놈들의 습격을 받는 경우 피신을 할수 있게 준비해놓은 뒤문으로 달려갔다. 한무리의 아낙네들이 함지머 바구니, 광주리며 바께뜨를 들고 뒤문으로 빠져나오고있었다. 누구인지 허헌의 팔을 우악스럽게 거머쥐었다. 온통 땀투성이얼굴인 류영준이었다. 지난날 왕궁에 박혔던 경력탓인지 50이 넘는 나이에든 언제나 머리를 곱게 빗어넘기고 옷매가 헝클어진것을 볼수 없었던 녀맹위원장이 얼굴도 적삼도 온통 땀에 화락하니 젖고 치마자락을 허리춤에 걸어붙이고있었다. 그는 허헌을 끌고 무작정 실골목을 쫓어나갔다.

《위원장, 이걸 놓으시오. 저안에 상한 우리 애들이 있지 않겠소?》

허헌이 왼팔을 확살스럽게 거머쥔 류영준의 손을 오른손으로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놈들이 누구를 제일 노리는지 알겠는데 여기에는 왜 오셨수?》

《저 청년들은 누가 불렀소? 체포된분들은 없소?》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할테니 빨리 가지자요.》

허헌은 누구네집 뒤문인듯한 외딴문앞에 떠밀려들어갔다. 뒤마당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싸맨 아낙네들, 치마자락을 허리에 걸어붙인 젊은 녀인들, 속샤쓰바람의 녀학생들 이삼십명이 주먹밥을 빗어 광주리에 담기도 하고 목욕탕안에서 밥이 무뎉하게 담긴 함지를 안아내오기도 한다. 인사동사무실을 지켜 혈투를 계속하고있는 수백명의 청년들에게 밥을 지어 나르는 집인것 같았다. 허헌은 류영준에게 떠밀려 대청마루에 올라섰다. 외딴 방에 들어앉아 인사동회관을 고수하기 위한 류혈전이 시작된 경위를 듣고있는데 흰 위생복차림의 중키의 중년사나이가 방안에 들어왔다. 리병남박사였다. 허헌은 그제서야 자신이 리병남소아과병원에 와있다는것을 알았다. 리병남은 민전상임위원이기도 했지만 남조선의학협회, 과학자동맹, 인권련맹, 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술한 협회,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직책에 있어 회의장에서 자주 만나기도 했으며 서울에서 유명한 소아과의사여서 아이들이 앓을 때 몇번 신세를 지기도 해서 잘 알고있었다. 원래 말이 적은 리병남은 폐를 끼쳐 안됐다는 허헌의 인사를 겸한 말에

《뭐유.》

충청도 사투리로 한마디 대꾸를 할뿐 이렇다할 인사의 말도 없이 허헌과 마주앉았다.

《그러니까 부상당한 애들은 이 병원에 입원하고있겠습니까?》

《오늘 새벽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전사무실이 가까와서 지금은 의사회원들이 많은 큰 병원에 보내고있습니다. 민전회관에도 회원들이 몇명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 중상자들은 민전산하단체인 의사회 회원들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있는 큰 병원들에 보내고 경상자들은 이 병원이나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있다는 말이였다.

류영준의 말에 의하면 민전간부들에 대한 체포는 허헌만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들모두에게 덮씌워졌다고 한다.

《우리 집 서기는 위원장은 무사하다구 하던데 그후에라도 경찰이 찾아가지 않았습디까?》

《나라구 왜 가만두겠어요? 내놓고 옥을 하고 다니는게 나니까 나를 제일 미워하는데. 애를 받느라고 밖에 나가 있어서 화를 면했어요.》

《그렇다면 남조선녀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위원장은 여기서 떠나야겠소.》

《선생님은 아까 왜 회관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였어요? 뒤에서 밥이나 해다주구 상한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이나 하는데 내 걱정은 마세요.》

《나야 나 하나 체포되면 그만이지만 위원장에겐 남조선녀맹이란 큰 조직이 달려있지 않소?》

《허헌선생에겐 민전전체가 달려있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인사동회관에 폭력배들이 달려든것은 민전에 들이닥친 위험을 놓고 민전상무위원들이 열기편 의논을 하고있던 어제의 늦은 저녁때라고 한다. 놈들의 동향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회관주변의 학교와 가두에서 수십명의 청년학생들을 불러 경비를 세우고 회의를 하고있어서 민전상무위원들은 테로를 당하지 않을수 있었다고 했다. 그 대신에 사무실주변에서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다. 반동들은 회관을 점거하는것쯤 우습게 알고 달려들다가 불의에 반격을 받아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고

일단 물러났다. 적들이 력량을 재편성하는 사이에 회관에서 통성을 하고있던 청년학생들이 전화로 공장과 학교에 연락을 하여 통행금지시간이 되기도전에 수백명의 청년들이 달려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섯차례나 피의 격전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청년학생들이 목숨을 내대고 싸운다고 해도 경찰과 무력을 쥐고있는 미국놈들한테 사무실이 점령당할것은 뻔한 일이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허헌은 문득 김규식을 생각했다. 민전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좌우합작》을 고려해보겠다는 자기의 요구조건을 놓고봐도 그렇고 자기와의 비밀접촉이 문제로 되어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렇고 그에게 무슨 말이든 해야 할것이었다. 허헌이 리병남소아과병원의 한방에 갇혀 두세시간 속을 태우다 이런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라 전화기가 있는 바깥방으로 나가려는데 류영준이 앞을 막으며 방에 들어가자고 했다.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란 허헌이 이미 여러번 만난적이 있는 정향명의 방조자 마동삼이었다. 성시백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고있는 서울의 인사들속에 허헌도 들어있었다. 마동삼은 허헌에게 한통의 봉합편지를 전했다. 글체로 보아 딸이 보낸게 분명한 편지에는 아버지의 소원이 성취될수 있으니 아무쪼록 어려운 걸음을 다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쓰여있었다. 편지를 권 허헌의 손은 알릴듯말듯 떨렸다.

《아침부터 선생님의 행처를 찾았습니다. 택도 경찰의 습격을 받고 여기도 이런 형편이니 선생님과 연계를 가질수 없었습니다. 큰길에 자동차를 대기시켜놓았으니 곧 출발하십시오.》

장군님을 만나뵙지 못하고 38°선을 넘어온 그에게 딸의 편지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가 평양을 떠날 결심을 한것은 일부 사람들의 압력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장군님을 뵈 생각한것이 지나친 욕망이라고 단정한 뜻이었다. 김책도 허정숙도 장군님께서 평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상봉날자를 하루하루 미루기만 했다. 그런데다 허정숙은 부르조아공화국의 총리직을 일시 차지했던 광복직후의 허물까지 들추면서 아버지의 사상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까박을 붙였다. 장군님과의 상봉이 까닭없이 연기되는것은 허물이 있는 정치인인데다 견결한 공산주의자라고 할수 없는 자기의 사상탓인것 같았다. 일부 사람들이 민전이 해산당할수 있다면서 출발을 재촉하자 그는 장군님을 뵈기를 단념하고 다시 38°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장군님을 만나뵈려고 한 자신을 뉘우치기도 하고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아귀를 지으려고 한 흥중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어 허헌은 개성교외의 아지트에서 사흘이나 번민에 휩싸여 몸져눕다싶이 했다.

그런데 자기의 허물을 들추며 까박을 붙이던 만딸이 다시 평양에 들어오라고 한다. 혹시 김책과 딸을 섭섭하게 여긴것은 자기의 옹졸한 오해가 아니였을까? 소원이 성취될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듯싶은 딸의 그 말은 장군님을 만나뵈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고 주제넘은 생각인줄 알면서도 허헌의 마음은 벌써부터 흥분으로 뒤설레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장군님을 만나뵈수 없다면 김책을 거쳐서라도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는 북의 방문을 결심했다.

그러나 떠나기전에 김규식에게 반드시 전화를 해야 했다. 미처 큰 병원에 보내지 못한 부상자들이 차고넘친 리박사의 치료실에 나간 허헌은 전화로 김규식을 찾았다.

《여일민선생, 선생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오?》

여일민이란 김규식의 몇개의 별호중의 하나였다. 자신은 백성의 한사람일뿐이라는 뜻이었다. 허헌이 세상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이 별호를 쓴것은 김규식의 배신을 야유라도 하지 않고서는 참을수 없었기때문이었다.

《극인이 아니시오? 약속을 이렇게 지킨다는건 무슨 말씀이시오. 내 그사이 극인을 다시한번 만나고싶어 사방에 전화도 걸고 사람도 보내봤는데 극인의 행처를 알수 없었소. 지금 어디서 전화를 거시오?》

《나는 여일민선생에게 민전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합법칙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우사가 제기한 <좌우합작>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소.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민전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소동이 벌어지고 인사동회관을 습격해서 어제 저녁부터 회관주변에서는 혈투가 벌어지고있소. 사망자, 부상자수가 수백명이나 났소. 나에 대해서는 내 행처를 알수 없으니까 갓난애까지 온 가족을 모두 룡산경찰서에 끌어갔소. 나의 전제조건을 거부하는 방법치고는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김규식은 허헌의 말에 분명히 당황한듯 갑자기 이말저말 조리없는 말을 주어섬기기 시작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오? 신문에는 전혀 그런 소식이 나지 않았던데. 그래 허헌선생의 일가족전부를 련행했단 말씀이시오? 체포된 민전간부는 어느분들이시오?》

《내 지금 긴말을 할 시간이 없소. 그러니 여일민선생이 인사동회관앞에 한번 와보는것이 좋겠소. 미군정청에서 민전을 어떻게 대하는지 본후에 나는 선생과 약속한 <합작>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겠소. 만일 나하고 만나 <합작>에 대한 말을 나누고싶으면 우선 체포된 민전간부들전원을 무조건 석방하고 민전회관을 습격하고있는 경찰과 테로단을 즉시 철수시키시오. 현재는 <합작>에 불응이요.》

허헌은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3

김규식은 의자등받이에 웃몸을 기대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문득 몸을 일으키며 윤명현을 찾았다.

《내 자동차를 타구 빨리 인사동민전회관에 가보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것 같네. 만일 허헌씨가 인사동회관에 갇혀있으면 선생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게. 회관이 습격을 받고있으면 습격을 하는자들이 어느 계통인지 내 이름을 대고 알아가지고 오게.》

《민전회관이 습격을 받았습니까?》

《여러말 말구 어서 가보게.》

눈을 지르감고 의자등받이에 몸을 눕히는것으로 보아 김규식에게서 다른 말을 더 듣기는 어려울것이다. 윤명현은 방에서 뛰어나갔다.

삼청장에서 인사동민전회관까지는 5분안팎에 가닿을수 있는 내림반이 외통길이었다. 그런데 한시간이 지나도 윤명현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규식이 오만가지 생각에 시달리며 장죽을 여러문번이나 갈아문 두시간쯤 지나서야 현관앞에서 자동차뺏는 소리가 들렸다. 뒤미처 비명에 가까운 안해의 놀란 목소리, 복도를 달려가는 발자욱소리, 운전수, 하인들이 떠드는 소리... 운전수와 안해의 부축을 받으며 온통 옷이 찢어지고 전신에 피칠갑을 한 윤명현이 비칠거리며 방안에 들어와 의자에 쓰러졌다. 김규식은 너무나 놀라 미국제 고급실내화를 미처 끌지도 못하며 윤명현앞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된 일인가?》

《선생님은 또 속았어요. 경찰이에요. 사복을 입은 경찰이에요. 서북청년단두 끼여있구...》

윤명현은 김규식의 이름을 대며 회관습격이 시작된 전말이며 습격에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인가고 묻는 자기를 그 무슨 지휘처인듯한 야전용승용차가까이에 끌고가 못매를 안기는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몸을 피하려는 그를 뒤따라와 승용차의 유리창까지 박산내던 놈들의 만행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 껍껍 느껴올며 설분을 토했다.

《윤군은 그 사람들이 경찰이라는것을 어떻게 알았나?》

《차안에서 무선전화를 하는 말을 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보냈다는 말을 했겠지?》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가만 있었겠어요. 지금의 이 사태를 하지사령관과 토의를 하기 위해 선생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립법의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함까지 보였는데 이놈이 아직 어느 세상에서 사는지도 모르는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안경을 잡아채서 뺏다치는거예요.》

그러구보니 윤명현의 손에 유리알이 박산난 안경이 쥐여있었다. 증거물로 삼으려고 들고온것 같았다. 김규식의 얼마간 처진 량볼이며 시커먼 수미가 경련을 일으킨듯이 푸들푸들 떨었다. 그는 전화기앞으로 다가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송수화기를 벗겨들고 303이란 수자를 돌렸다. 미군사령관과 직결되어있는 번호였다. 부관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사령관을 찾소. 존 하지와 바꾸시오.》

《사령관각하는 지금 사무실에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사령관을 찾소. 사령관에게 련결시키라고 하지 않소.》

《사령관각하는 사무실에 안계십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닙니까.》

부관은 시끄러운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날은 분명 일요일이었다. 그렇지만 부관이 하지의 행처를 모를수 없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다니?...

송수화기를 놓은 그는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운전수에게 호령했다.

《사령부로 갈 준비를 하게. 자동차는 움직일수 있겠지? 차안에 유리쪼각이 널려있겠는데 하나도 주어내지 말구 그대로 두게.》

불안에 싸여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안해에게 사령관이란 사람을 찾아가야겠으니 두루마기를 가져오라, 장죽을 자동차에 내다실으라고 소리를 쳤다. 두자남짓한 긴 장죽의 한끝을 괴팍한 하지의 주걱턱밑에 들이대고 담판을 할 생각인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군사령관이 들어있는 반도호텔의 현관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현관앞에 랑다리를 벌리고 거만하게 뻗치고 서있는 헌병들이 앞을 막아 자기를 안내할자가 나타날 때까지 자동차에 앉아있을수밖에 없었다. 버치가 달려나왔다. 김규식은 결국 사령관에게 들이대려던 항의를 버치에게 퍼부어대며 민전회관을 습격한 경찰이 어떤 만행을 감행했는가 하는것을 박산난 차창유리며 차안에 널린 유리조각을 가리키며 항의를 들이대는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무모하오? 왜 이렇게 오만하오? 민전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나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정면에서 거절을 할것이지 왜 민전회관을 습격하고 민전간부들을 체포하오? 당신들은 조선이란 이 땅덩어리를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장난감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김규식의 눈앞에 정향명의 리지적인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 그가 방금 버치의 얼굴에 뱉어버린 말은 분명히 정향명이 이야기한 말과 비슷했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국익을 희생하면서 다른 나라를 결코 도와준적이 없는 리지적인 국가이다. 그렇지 않아도 큰 땅덩어리와 방대한 자원을 소유한것으로 해서 버르장머리없는 부자집자식같이 오만해진 미국은 제2차대전을 통해 국세가 더욱 팽창되어 약소국가 한두개를 짓밟개는것쯤은 부자집자식이 장난감을 밟아내던지는것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5억의 인구에 광대한 령토를 소유한 중국을 두고 미국이 어떠한 도박을

하고있는가, 미국사람이 남조선을 중국보다 더 신중하게 다룰것 같은가? 미국의 손아귀에 쥐여사는것을 숙명처럼 생각할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민족자체력량을 꾸릴 방도를 찾아야 한다....

버치는 김규식의 말을 듣고 펄쩍 뛰며 자기들은 아직 민전의 비법화를 생각해본적이 없다느니, 남조선경찰이란 원래 패덕한, 불한당의 집단이여서 군정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있다느니, 남조선경찰의 야만적인 행동을 사죄하는 의미에서 김규식이 제기하는 민전의 합법화문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느니 하면서 버치는 이미 발동을 건 자동차의 차창을 쥐고 연방 떠들어댔다. 그러나 장죽을 내뺏치고 앉아 담배연기를 내뿜는 김규식에게는 그의 말이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버치가 숨을 쉬느라고 잠시 말을 끊었을 때 역시 정향명의 이야기였던 좌익이 없는 《좌우합작》이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는 체포된 민전간부들을 즉시 석방하며 인사동회관습격을 당장 중지시키라고 거듭 요구하고나서 호텔앞에서 떠났다. 그는 운전수에게 정동으로 가자고 했다. 리왕조의 유적인 덕수궁뒤 정동에는 언더우드가 가끔 교인들앞에 나서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교하는 교회가 있었다. 김규식의 귀국을 환영하는 크지 않은 모임도 바로 그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언더우드는 교회에 없었다. 혹시 감리교신자인 하지가 레배를 보러오지 않았겠는가 생각했는데 그의 모습도 찾을길이 없었다. 지금과 같은 시각에 하지가 레배를 보려고 왔으리라고 생각한것부터가 어리석은 생각이였다.

《동생은 어디에 갔나?》

김규식은 하인에게 물었다.

《그건 알수 없는덱쇼. 오전에 레베를 끝내구 오후에도 여기에 계셨는데 혹시 사령부에 가지지 않았는지...》

김규식도 언더우드가 미군정청의 유력한 방조자라는것을 이제는 대체로 짐작하고있었다. 그러나 윤명현이 말하듯 미국의 대조선전략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미국무성의 현지요원이나 정보부요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일생을 조선에서 살다싶이 했으니 그의 조언이 필요해서 미군사령관이나 군정장관이 그를 자주 불러들일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원한경이 윤명현이 말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해도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그를 멀리할수는 없었다. 어쨌든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남조선이니 그를 리용할 생각을 해야 할것이다. 만일 그가 종교인, 자선가의 명망을 턱에 걸고 미국의 대조선전략을 집행하고있다면 형님, 동생하면서 때로는 속심을 터놓기도 하던 지난날의 우정을 깨끗이 췌버리고 정치계의 뺨철한 타산과 론리, 때로는 권모술수까지 써가며 그를 리용할 생각을 해야 할것이다.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사이에는 그렇게 변해가고있었다. 그런줄 알면서 김규식이 꺾하면 언더우드를 찾아오는것은 영문학이나 종교상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지성을 만족시킬 이야기상대자를 그의 주변에서는 찾기 어렵고 그가 아무리 미국무부나 정보부에 리용당하고있다고 해도 자기의 등에 칼을 박을만큼 사악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있기때문이었다.

그는 차머리를 돌리게 했다.

바로 이때 조선사람의 피땀을 짜내서 대기업을 일떠세우는데 성공한 일본의 신흥재벌 노구찌가 남대문앞에 보란듯이 세운 반도호텔을 통채로 차지한 미군사령부의 한 방에서는 미군사령관 존 하지가 군정장관 러취, 사령관정치정보고문들인 베닝호프, 버치, 원한경, 사령부정보책임자 로빈슨대령... 비공식행각을 한 동아시아담당 미국무성 고위관리를 앞에 앉혀놓고 모의를 하고있었다. 국무성관리는 본국의 지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짜증을 냈다. 마샬의 구상이 유럽에서는 성공하고있는데 어째서 조선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가? 그것은 사령관을 보좌하고있는 고문들이 무능한탓이라고 그는 비꼬아댔다.

《우리는 북조선의 김일성장군이 수일간이나 모스크바에 체류했으며 쓰딸린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회담했으며 어떤 합의에 도달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북조선측이 지난 2년간에 달성한 성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를 논의했을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정치경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것을 목격한 소련이 중국에서와 같이 미국에 조선을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북조선에 소련군을 장기주둔시킬 그 어떤 협약을 준비했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이 북조선까지 병탄할것을 목적인 우리의 대조선전략에 어떤 장애를 조성하겠는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논의했을수 있는 문제는 북조선을 조선의 민주기지로 선포한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량해합의가

이루어졌을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미국의 대조선전략이 난관에 직면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고위관리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사령관이나 군정장관이 아니라 명상에 잠긴듯한 눈길로 맞은편 벽의 비단벽지의 무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있는 고문들에게 시선을 던졌다. 군정장관이나 사령관보다도 고문의 직능을 맡고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있다는것을 고위관리의 눈길은 말해주고있었다.

할것이 남조선의 실권은 사실에 있어 사령관 하지나 군정장관이 아니라 고문명색의 세사람-베닝호프, 로빈슨, 언더우드에게 장악되어있었다.

베닝호프는 태평양전쟁이 터지기전에는 일본의 도쿄, 요코하마, 만주의 봉천, 할빈의 령사를 력임한 이른바 동양에 정통한 인물로 인정받고있는놈이었으며 서울에 오기전에는 미국무성 극동부 차장, 중앙사무국 차관보자리에 앉아있던 국무성과견원이었다. 로빈슨은 남조선에 거미줄처럼 늘어놓은 정보망을 통해 정계의 동향, 민심의 움직임, 미군을 포함한 그 많은 폭압기구의 리용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에 들어박힌 미중앙정보국 요원들과 협력해서 하지사령관에게 행동을 결정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장교였다.

언더우드란자는 서울연희대학 학장, 정동레배당 목사로 세상에 알려져있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일제놈들이 조선사람의 피땀을 짜내서 남조선에 이루어놓은 방대한 《적산》을 손아귀에 거머쥔 적산관리처장일뿐아니라 국무성, 군부, 정보부에서 파견된 미국인들은 말할것 없고 미국에 붙어살 결심을 하고 고문자리에 올라붙은 리승만, 김성수계 친미친일본자들을 한손에 거머쥔 사령관수석고문의 책임을

지니고있는놈이었다. 이자는 미국의 대조선전략이 조선에 구현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모색하고 감독하고있었다.

《당신들은 국무성의 각서를 받곤 했으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웨드마이어장령이 워싱턴에 와서 남조선에는 용단이 부족한 무능한자들이 틀고앉아있다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샬국무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지 케난(미국의 정책기획본부 부장)은 쏘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조선까지 병탄할수 있는 강력한 남조선<정부>를 시급히 수립하라고 웨드마이어에게 대통령특사의 직권을 주어 파견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해놓은것이 뭇입니까?》

베닝호프와 언더우드가 고관의 추궁에 별로 송구해하는 빛도 없이 엇바꾸어가며 남조선의 실태를 이야기했다.

워싱턴에서는 조선문제가 전패국인 일본이나 도이첼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것을 잘 모르고있다. 북조선병탄도 남조선<정부>수립도 공산주의세력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조선의 공산주의세력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광범한 민중의 지지를 받고있는지 본국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는것 같다. 《관동》군과 대적한 북조선의 항일군이 공산군이라는것을 국무성에서도 알고있지 않는가... 북조선에서는 **김일성**장군을 전설적영웅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조금도 과장된 점이 없다. 일본에 남아있던 얼마안되는 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도 조선인이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숭배자이다. 그러니 조선반도에 박혀있던 공산주의자들 대부분이 **김일성**숭배자들이라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지난 두해동안 공산주의자들을

청산하기 위해 그들이 단합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체를 로출시킨자들을 가차없이 처형해왔다. 국무성에서는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제부터 남으로 세력을 확장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해전부터 북조선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공산란동분자》들의 청산도, 분렬리간에도 전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돌과구가 열렸다. 우리는 중간과로부터 좌익까지 북조선의 편에 서서 단합시킬수 있었던 지도적인물인 려운형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그의 동료이며 단합의 중심으로 될수 있는 두번째 인물인 허현이 《좌우합작》에 호응해나섰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지금에도 남조선공산주의진영 상층부는 령도권문제를 놓고 암투를 계속하고있다...

《이제야 우리가 의거할수 있는 기둥을 세울수 있는 터를 닦았다는 말인데 유엔총회가 시작되는 9월 세번째 화요일은 20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겠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기로 한것은 현지에 파견된 미국관리들이나 여기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조선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때문입니다. 그래 20일어간에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지지할 확신성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낼수 있습니까? 리승만은 미국에 충실한 미국국적을 가진 조선인이기때문에 그의 지지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에서도 국제사회계에서도 공인을 받을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합니다. 마샬장관이 지시한대로 리승만에게 의거하되 민중의 환심을 살수 있는 제3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의 고위관리는 오금을 박듯이 따지고들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버치가 통통한 몸을 곧추 세우며 얼른 말가운데 끼여들었다.

《김규식을 제외하고는 남조선에 그런 역할을 할 인물이 없습니다. 중간과정치세력을 하나 만들어낼 생각으로 그에게 중국에서의 국공합작 비슷한 <좌우합작>을 시작하게 했는데 시간이 급하다는 리유로 서둘러 행동해서 그의 노여움을 사고있습니다.》

참을성이란 꼬물만치도 없는 하지가 마치 병졸을 닮아세우듯이 버치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 고문이요. 웨드마이어장군이 대통령각하의 특사로 래방했을 때 남조선에 아직도 공산주의단체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는것을 얼마나 놀라와했소? 당신은 <좌우합작>을 권고해놓고 민전을 비법화하는것은 미국정책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하는데 나는 김규식을 만난 자리에서도 좌익정당단체의 합법성을 인정하겠다고 말한 일은 없소. 어느 정도 좌익의 냄새가 나는 개별적인 인사들을 <좌우합작>에 망라시킬수 있다고 했을뿐이요.》

《김규식선생은 민전간부들의 석방과 인사동회관에 대한 습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나를 포함한 그 누구와도 상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한경이 짐작은 목소리로 버치를 타일렀다.

《조선속담에 생일에 잘 먹으려고 이레를 굶겠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헌을 비롯해 두세사람을 낚자고 좌익계의 총련합체인 민전을 그대로 둘수는 없습니다. 민전을 <좌우합작>에 망라시키면 북조선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공산주의세력이 반드시 개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제3세력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민전을 없애고 우리와 손을 잡을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김규식과 손을 잡게 해야 합니다.》

버치는 민전을 습격하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이 돌발적인 사태가 사실에 있어서는 하지사령관과 원한경의 머리에서 고안되었다는것을 알았다. 원한경은 고위관리에게 《좌우합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들이 취한 긴급조치를 간단히 설명했다. 연극의 첫째목적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민전이란 좌익의 연합체를 없애는데 있으며 동시에 김규식과 좌익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허헌을 《좌우합작》이란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사흘전에 허헌의 가족들을 체포하고 어제밤부터 경찰과 테로단을 동원하여 민전회관을 습격하게 했는데 김규식이 《좌우합작》의 대상인 민전을 건드렸다고 항의를 하고있다. 김규식을 리용하기 위해 그의 요구를 얼마간 받아주겠다....

《허헌의 가족을 석방하고 민전회관습격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식도 허헌도 <좌우합작>의 덕을 입어 가족들을 구원하고 회관에 대한 테로도 중지시켰다고 생각할것입니다. 말하자면 <좌우합작>의 중심인물인 김규식과 허헌은 우리가 둘러친 그물안에서 <좌우합작>을 성사시키기 위해 성의있게 노력할것이라는겁니다.》

미국의 고위관리는 추리소설의 한 대목을 읽는듯한 원한경의 말에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유엔총회가 시작되기전에 믿을만한 제3세력을 만들어낼수만 있다면 수단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유럽정치도 대체로 그러하지만 아시아정치는 음모의 대명사라고 한하는데 가능한 노력을 다하시요.》

국무성고위관리가 이러한 말로 결론을 대신했다. 베닝호프가 그 말을 받아 버치에게 김규식을 찾아가 그의 항의가 대체로 다 접수되었다는것을 알려주라고 했다. 그자신은

의자에서 일어나 사령관의 탁상우에 놓여있는 전화기에서 서슴없이 송수화기를 들고 수도경찰청장을 찾았다.

《하지사령관각하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하지는 손을 내밀어 베닝호프한테서 송수화기를 뺏아들었다. 그는 불쾌한 목소리로 수도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인사동민전화관습격을 중지하고 허헌의 가족을 석방하십시오. 민전은 앞으로 군정장관이 비법화를 공포한후에 무장한 경찰을 동원해서 없애버리시오.》

베닝호프가 송수화기를 되받아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허헌의 가족을 자동차로 집에까지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아래사람들이 허헌선생을 몰라보고 손을 댔다고 룡산경찰서장이 사과를 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그날 밤으로 허헌일가는 룡산경찰서에서 집으로 실려갔다. 서장이 허헌을 찾았으나 그는 집에 없었다. 허헌은 이때 북으로 향한 승용차안에 앉아있었다.

4

장군님께서서는 마루바닥에 누운 아침빛을 밟으며 심각한 사색에 잠겨 집무실안을 오가고계셨다. 그이께서 이날 아침에 예견하였던 일정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도 심각한 생각에 잠기신것은 지금 집무탁에 놓여있는 한통의 문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의 해당 부서에서는 허헌이 금천에 도착했다는 보고와 함께 한통의 문건을 그이께 올렸다.

그 문건을 보신 장군님의 안색은 점차 심중해지셨다. 문건은 미국놈들의 교활한 책동인 《좌우합작》에 허헌이 말려들었다는것을 기본골자로 삼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서로 반목질시하고있는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킬수 있는 인물로 허헌을 지목하고계셨는데 《좌우합작》에 말려들다니...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 허헌의 부족점으로 인정하신것은 우선 정치적시야가 좁고 남조선과 같은 복잡한 정치정세를 타개할 혁명적전개력을 소유하지 못한것과 같은 문제들이였다. 우점으로 인정하신것은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신망을 얻고있으며 굴복을 모르는 결곡한 반제정신, 그 어떤 파벌도 배격하고 조선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의 손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렴결백한 자주정신이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미제침략자들이 조작해내려는 제3세력에 발을 들여놓으려는것을 보면 혹시 정치적시야가 넓지 못한 허헌의 약점을 너무 가볍게 여긴것이 아닐가?

장군님께서서는 마침내 결심을 내리시고 전화로 김책과 허정숙을 찾으시였다. 그들이 집무실에 들어서기전에 그이께서는 문건을 다시한번 보셨지만 번거로운 생각으로 해서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허정숙이 가벼운 걸음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아버님이 들어오셨소. 이번에도 선생님을 동무네 집에 류숙하게 할 생각이요. 그런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문제가 있소. 우리는 선생님과 의 이번 상봉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소. 우리는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는 사업에서 아버님이 주동적역할을 해줄것을 부탁할 생각이요.》

허정숙은 번민이 비낀 낮빛으로 눈길을 떨구고 앉아있다가 머리를 들었다.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자면 정치적수완이 있어야겠는데 아버님은 사실상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도 허헌이 이번에 《좌우합작》에 말려든것도 똑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아버님은 남로당의 전략전술을 가지고는 남조선문제를 수습할수 없다고 생각하고계십니다. 아버님은 당의 전략전술을 권모술수로 알고계십니다. 먼저번에 평양에 들어오셨을 때 저와 좋지 않은 말이 오고간것도 주로 이때분이였습니다.》

《선생이 말하는 전략전술이란 남로당내의 실권파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애국적인 공산주의자도 함부로 배척하고 자기네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희생을 내면서 대중투쟁을 함부로 조직하는 독선적인 지도를 넘두에 둔 말일거요.》

장군님께서는 앞타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으며 미소를 띠운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허정숙은 장군님께서 자기의 의견을 참작해주셨으면 해서 간절히 말씀드렸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전략전술이라는것이 그런 뜻의 말인것은 사실이지만 아버님은 정말 남조선좌익을 단합시킬수 있는분이 아닙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뒤말을 계속하시려는데 김책이 여느때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장군님께서는 집무탁에 놓여있던 문건을 김책에게 주시였다.

《오늘 아침에 받은 문건입니다. 나는 그 문건을 본후에도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는 사업을 허헌선생에게 부탁할 생각입니다. 김책동무의 의견을 말해주시요.》

김책은 심중한 표정을 지였다.

아버지가 또다시 장군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다는것을 비로소 느낀 허정숙은 불안에 잠긴 눈으로 김책의 얼굴이며 장군님의 안색을 살폈다.

긴말을 하지 않는 성미그대로 김책은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정치적시야가 좁다는것은 장군님께서 첫째로 꼽으신 선생의 부족점이 아닙니까. 남조선좌익력량의 단결이 현시기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알게 되면 선생은 그 임무를 능히 수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군님의 결심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제 곧 평산에 나가서 허헌선생을 모셔오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늦게 와서 선생이 헛걸음을 하게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모셔와야 합니다. 김책동무하고 선전부장은 선생을 납득시킬수 있게 설복할 준비를 잘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허정숙은 아직도 파벌관계가 복잡하게 뒤엉켜있고 미제의 탄압이 가혹한 남조선좌익계를 아버지가 단합시킬수 있으리라는것을 도무지 믿을수 없는 모양이었다. 허정숙이 무슨 말을 할듯한 다급한 심정이라는것을 알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책임부관을 불러 곧 떠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허정숙동무는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야기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허정숙을 눌러놓고 집무실을 나서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레성장기슭의 울퉁불퉁한 달구지길을 허헌과 함께 걷고계시였다. 짹짹한 가을빛이 골안에 가득차서 눈이 부신데 허헌이 입고있는 바지저고리만이 38°선을 넘나드는 사이에 어지러워져 한점의 그늘처럼 거뭇해보였다. 김책이 평양을

떠나는 선생에게 새옷을 한벌 만들어드렸다고 했는데 어째선지 이번에도 철늦은 옷을 그대로 입고 북에 들어왔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난을 당하는 이 나라의 불행이 통털어 선생에게 덮썩은것 같아 가슴이 저리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자글자글 소리를 내며 벼이삭이며 조이삭, 풀이삭들이 여무는듯싶은 가을빛에 물든 밋밋한 둔덕을 둘러보시다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먼저번 선생님을 서울에 그대로 나가게 한것은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날자에 평양에 돌아오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쓰딸린동지와 회담을 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가있었습니다. 내 방문이 비공식적이였고 목적하고 간 문제도 비밀에 붙여야 할 문제여서 김책동무는 내 행처를 말할수 없었습니다.》

허헌은 너무나도 예상밖의 말씀이여서 멈칫하며 장군님을 돌아보았다. 가을빛이 어린 그의 얼굴에 어줍은 자책이 스쳐지났다.

《이제 머지 않은 앞날에 북조선주둔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성명을 쏘련측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만주지방에서 아직도 전투가 계속되고있고 남조선에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쏘련군이 철수한다는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면 한번은 반드시 결심해야 할 일이여서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서두르고있는 이때 쏘련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허헌은 가슴팍을 옥질린듯한 충격을 받은듯 흥분해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미군철수도 요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명에는 그러한 조항이 담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쏘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대뼈가 두둑하고 입술이 두툼한 고집스러워보이는 허헌의 얼굴에서 흥분의 빛이 점차 사라졌다. 그 무슨 주장을 하듯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것은 쏘미간의 전시협정에 의한것인데 쏘련이 북조선에서 주둔군을 철수시키겠다는것은 그 협정을 파기한다는것을 선언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었다면 이건 협정위반으로 되지 않습니까?》

허헌은 법을 신성시하는 법조계인사의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밝게 웃는 안색으로 일깨워주듯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국제협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 나라의 리익에 저촉될 때 그 협정을 리행하는 제국주의국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장군님께서는 38°선이 생겨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시였다. 그것은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미국의 모략의 산물이다. 미군이 조선에 상륙하기전에 혁명적인민들의 전민항쟁이 폭발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수 있다고 본 미국은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 조선을 동강내기로 했다. 쏘미가 조선을 양분하여 일본군국주의군대를 무장해제시키자는 제안을 내놓기로 한것이다. 미육군성전략정책부에서 권모술수를 꾸며으며 북위 38°선에 척자를 대고 금을 그은자는 일개 대좌에 지나지 않는 찰스 엡취 분스필이라는 정책과장이라고 한다. 이 모략은 곧 트루먼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미육군의 시행세칙으로 련합국에 통고되었으며 쏘련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음모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군은 지난 두해사이에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남조선의 군사기지화를 다그쳐왔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괴뢰정부를 조작해내려고 서두르는것은 제놈들의 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니까 미국놈들은 남조선에 <정부>라는것을 세워서 주둔협정을 체결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것은 쏘미량국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허헌은 최근 쏘미량국의 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있는지 별로 관심을 둔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쏘련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려고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고있다고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어 장군님께서는 민족자체력량을 강화해야 한다는것을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시였다.

《물론 쏘련의 권위와 리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의 반제력량, 특히 좌익력량을 단결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허헌은 장군님께서 좌익력량의 단결을 무엇보다 중시하고계신다는것을 알았다. 그도 남조선좌익의 분렬을 가슴아파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했지만 도무지 이가 들지 않는 너무나 착잡한 문제여서 이제는 단념해버린터였다. 그러나 남조선좌익이 왜 단합하지 못하는지 그 속내를 장군님께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 평양에 들어왔었다. 물론 그가 38°선을 넘을 결심을 한것은 이 한가지 문제에 국한된것은 아니였다. 《좌우합작》과 관련해서도 그이의 가르치심을 꼭 받고싶었다.

《남조선에서 좌익을 단합시킨다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남조선좌익을 단합시키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거뭇하게 손때가 앓은 저고리앞섶을 만지작거리며 달구지길을 걷던 허헌이 입을 열었다. 괴로운 생각을 할 때 저고리앞섶을 만지는것이 그의 습관인 모양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저고리앞섶의 거뭇한 자욱이 착잡하고 고뇌에 찬 선생의 번뇌의 흔적인듯 하여 마음이 사뭇 아프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물으시였다.

《여러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민전에서 부위원장을 하는 류영준이란 녀자가 있습니다. 남조선녀맹위원장입니다. 이 녀자가 리왕조시기에 내인으로 뽑혀서 몇년간 궁중에서 생활한 일이 있습니다. 1920년대를 전후해서는 일시 안창호의 영향을 받은것도 사실입니다. 신간회시절에는 부녀단체를 조직해가지고 나와 같이 사회운동도 했습니다. 그때 류영준은 부자집아이를 받아주고는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쌀을 사들고 다니면서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받아주군 했는데 나를 찾아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의 가난한 녀자들이 해산후에 사흘만이라도 미역국을 먹으면서 자리에 누워있게 하고싶은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하군 했습니다. 류영준은 의술도 능하지만 이런 실질적문제를 들고 녀성운동을 시작해서 서울장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란 사람은 8. 15후에 별의별 어중이떠중이들을 다 당에 끌어들이면서 류영준을 당에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 공산당에 왕실에서 살던 사람까지 끌어들이일수 없다는겁니다. 지금 남조선녀맹위원장으로, 민전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데 지금도 왕정파니, 민족개량주의자니, 개인병원을 가진 부르쵸아지니 하고 시비질을 합니다. 그는 한때 좌익에 등을 돌려댈 생각까지 했습니다. 류영준이 이런 배척을 받고있으니 다른 좌익당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허헌은 말에 열중한 나머지 울통불통한 달구지길에 발이 걸려 넘어질듯이 비칠거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얼른 허헌의 팔을 잡아주시었다. 허헌은 류영준, 아니 그자신도 포함한 까닭없이 배척받고 수모를 당하고있는 수십, 수백명의 고민하는 사람들의 원한이 응어리처럼 가슴속에 맺혀있는듯 절규하듯이 부르짖었다.

그는 이어서 백남운의 경우를 말씀드렸다. 백남운은 려운형이 암살당한후 근로인민당 위원장대리의 직책에 있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학자였다.

《광복직후에 저마다 공산당간판을 내걸고 권력싸움을 하는 파쟁군들을 보고 백남운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하나만이라도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으로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당분간 정계를 외면하고 지냈습니다. 백남운은 그후 몽양(려운형)의 권고를 받고서야 인민당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를 정치성이 없는 비혁명적인 인테리라느니, 동요분자, 기회주의자라느니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허헌은 분개해서 팔을 내저으며 웨치듯이 말했다.

장군님의 가슴에 쫓겨서는 가서버리기 어려울것 같은 짙은 그늘이 끼었다.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배척해가지고서야 어떻게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민적인 투쟁을 전개할수 있겠는가. 도대체 류영준의 경력이 어떻고 백남운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류영준이 궁중내인이 된것이 제가 하고싶어 한 일이겠는가? 얼굴이 고우니 끌려갔지...

또 평안도사람을 차별하던 리왕조이니 류영준은 내인이 됐어도 처음부터 종살이와 다름없는 허드레일이나 했을것이다. 궁중에 있었으면 대단한 신분이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천 한필에 팔려가는 노예와 같은것이다. 그가 왕정주의자가 아니라는것은 그후의 경력을 봐도 알수 있다. 어쨌든 그는 서울시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있으며 고학으로 의학공부를 한 녀의사이다. 인민들에 대한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녀성을 배척할수 있는가... 백남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자는 지식을 가지고 혁명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족의 장래를 걸머질 인재를 키워내려고 한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비록 얼마간의 정견상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제시기부터 식자들속에서 명망이 높은 백남운과 같은 학자를 배척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류영준녀성에 대해서는 더러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류영준과 같은 녀성을 진짜배기애국자이구 조선의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녀성은 가난한 조선녀성들을 도와주는 과정에 공산주의사상에 접근했구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공산주의의 진리성을 알게 되었기때문입니다.

백남운선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선생은 사회경제학을 연구하는 과정에 좌익사상에 접근했을겁니다. 선생의 이 사상적경향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시하는것은 선생의 애국심입니다. 백남운선생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제놈들이 날조해낸 <정체론>을 반대한 학자가 아닙니까. 일제강점하의 조선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것이 쉬운 일입니까. 학자는 학문을 가지고 혁명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쨌서 백남운선생이 남조선좌익의 한 성원이 될수 없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을 부축하여 레성강가의 자갈밭에 내려서시었다. 일제의 어용사가들이 제창한 《정체론》이란 조선민족은 자체의 힘으로 역사를 발전시켜나갈수 없는 타물성이 강한 민족이란 황당무계한 반동적인 리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제의 어용학자들이 이런 리론을 내놓은것은 저들의 조선강점으로 해서 정체되어있던 조선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침략리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였다. 백남운은 저술활동과 교단에서 일제사가들이 제창하는 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리론을 견결히 반대해나섰다.

장군님께서서는 허헌과 함께 강변을 걸으며 말씀을 이어나가시었다.

《공산주의자란 어떤 사람인가? 인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지닌 사람을 우리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맑스의 잉여가치학설이 공산주의운동의 출발점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잉여가치설이 계급사회의 모순을 과학적으로 해명한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구박받고 착취당하는 로동계급을 옹호하고 사랑한 맑스의 숭고한 인간애와 정신력이 없이 그 학설이 탄생할수 있었겠습니까?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적요구로부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예속시키는것을 존재방식으로 한다는 그 학설도 인류의 재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이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자들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그 사상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자는것은 민족해방도 계급해방도 인간을 중시하는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특히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유구한 세월 강물이 반반하게 씻어낸 너럭바위에 허헌을 부축해올려앉히고 자신께서도 그옆에 앉으시였다. 소리를 치며 흘러내리던 급류가 너럭바위밑에 밀려와 와류를 지으며 시퍼런 룡소를 이루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깊은 룡소와 같이 착잡한 생각에 시달려온 허헌의 마음을 깊은 사색의 세계에 이끌어가시였다.

《우리는 공산당을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킬 때 빈궁과 억압, 천대와 불평등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인민대중을 위해 싸울 결심을 한 사람은 누구나 당에 받아들였습니다. 민족적차별을 받아온 근로인테리를 당의 중요구성성분으로 삼을 결심을 하고 당마크에 붓을 그려넣게 한것도 이때문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준택의 성분과 경력을 말씀하시며 일부 협애한 일군들이 인민정권의 계급적성격을 코에 걸고 그를 광산에 내려보낸것을 다시 소환해서 지금은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의 하나인 기획국을 책임진 국장으로 사업하게 했다고 하시였다.

《북이나 남이나 할것없이 지도적위치에 있는 사람은 특히 큰 도량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할뿐아니라 온 민족을 단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단결이란 피가 흐르지 않는 유기체를 만들어내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열렬한 애국자만이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헌은 불타는 선망의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면서 소란스러운 강물소리를 짓누르며 울려 퍼지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말씀을 넋을 잃고 들었다. 공산주의자라면 우선 쏘련과 만국의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헤게모니쟁탈이니, 타도대상이니, 포섭대상이니, 동정자니 이런 말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던 허헌이었다. 그런데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애국과 단결, 사랑, 인간중심을 주장하신다. 허헌도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저서들을 주의깊이 읽어보았다. 그들의 저서들을 읽을수록 그가 만나본 남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리념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탐구와 열정의 바탕에 깔려있는 심원한 철리에서 벗어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곧 목적으로 삼고 티각태각하는듯이 생각되었다. 그것은 종교가 창시될 당시의 리념에서 벗어나 시정배들이 국가관리와 계급적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속화시킨것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감을 주었다. 그런데 **김일성** 동지의 말씀에서는 도무지 그런것을 느낄수 없었다. 그이한테서는 독자적인 사상을 창시한 창조자의 사색과 열정만이 느껴졌다. 공산주의자는 우선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만 해도 얼마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

만일 장군님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좌익운동을 전개했다라면 미제가 남조선에 발을 붙일 시간을 주지 않았을것이며 좌익분렬은 말할것 없고 중간과, 일부 량심적인 민족주의세력과도 손을 잡고 반미투쟁을 전개할수 있었을것이다.

《류영준녀성에 대해서는 김정숙동무에게 이야기해서 고무하는 편지를 보내게 하겠습니다.》

허헌은 그이께서 친근하게 부르신분이 백두산의 녀장군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것을 곧 알수 있었다. 류영준이 김정숙녀사께서 보내신 고무의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큰 힘을 얻을것인가!

《북조선녀성동맹을 대표해서 남조선녀성동맹에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하는것이 더 좋을것입니다. 백남운선생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우리의 뜻을 전해주시시오. 하긴 앞으로 선생님이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는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백남운선생이 겪고있는 그런 고통은 없어질것입니다.》

허헌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에 어리둥절해서 장군님의 정력에 넘친 얼굴을 마주봤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까? 내가 남조선좌익계를 결속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선생님이 남조선좌익을 반목질시가 없는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단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단결의 절박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고계시지 않습니까?》

허헌은 저고리앞섄으로 손을 가져가며 긴숨을 내쉬었다.

《절박성을 느끼고있는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는 그런 큰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민전의장단성원으로도 제구실을 못하고있는 나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잡하게 뒤엉킨 좌익계를 단합시킬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어째서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킬수 없단 말입니까? 선생님은 일제놈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애국자들을 변호해주었구 반일사상을 견결히 지켜내서

남조선인민들의 존경을 받고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는 사업이 어렵다고 해도 감옥살이를 하면서 반일을 할 때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끊고 허헌을 돌아보시였다. 허헌은 깊은 생각에 잠긴 괴로운 안색으로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었다.

《선생님이 남조선좌익을 단합시키는 사업을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것은 쏘련군이 북조선에서 철수하는 이 기회를 반드시 민족단합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쏘련군의 철수를 요구한것은 전민족이 단합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의사에 따라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조선은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이미 결속되어있으니 크게 문제될것이 없지만 남조선은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남조선애국력량을 단합시키자면 어느 계열이 먼저 단결해야 하겠습니까. 좌익력량이 먼저 단결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을 선생님이 주관했으면 좋겠다는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허헌은 미흡한 자기를 장군님께서 지나칠만큼 믿어주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그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목질시하면서 서로 배척하던 남조선좌익당들이 자기의 말을 듣겠는지 그것이 걱정되어 결심을 선뜻 내릴수 없었다. 그는 손으로 저고리앞섶을 또 만지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평양에 가서 아퀴짓기로 하시였다.

《이 문제는 평양에 가서 다시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내 선생님에게 한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김규식선생이 제창한 <좌우합작>에 응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 <좌우합작>이 어떤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지난번 평양에 들어오면서 장군님께 말씀드리고저 한 문제의 하나가 그 문제였습니다. 나도 김규식이 많은 경우 미군정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민전의 비법화가 눈앞에 닥쳐왔구 만일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전의 비법화를 앞당기는 사태가 발생할것 같아 일단 전제조건을 내걸고 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규식이 그렇게도 무력한 인간인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민전회관이 습격을 당하는것을 보고서야 김규식의 값을 알았습니다. 그래 떠나오기전에 김규식에게 당장 회관습격을 중지시키고 민전간부들을 석방하라고 항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 요구조건이 별로 접수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자갈을 밟는 발자욱소리가 들렸다. 책임부관이 뒤에 와서 언제쯤 들어오시겠는지 숙소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했다. 이를테면 빨리 들어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아마도 레성강의 명산인 자라탕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리는지도 모른다.

《선생님, 이젠 들어가보지 않겠습니까?》

그이께서 먼저 너럭바위에서 일어나시였다. 가을해빛을 눈부시게 반사하는 자갈을 밟으며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에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선생님의 요구가 얼마쯤 실현될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는것은 민전의 합법, 비합법이 지금에 와서는 큰 의의가 없을뿐아니라 <좌우합작>을 성사시킨다는것은 민전의 합법화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큰 정치적리익을 미국놈들에게 제공해준다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미국놈들이 《좌우합작》을 서두르는 까닭을 말씀하시였다.

《미국이 쏘련의 <남하>를 막는 군사요충지로 조선을 리용할 생각이라는것은 선생님도 알고있을겁니다. 미국은 아직 쏘련군철수에 대해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들로서는 남조선만이라도 장기적으로 강점할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두는것이 안전할겁니다. 그래 남조선괴뢰정부를 수립해서 선생님이 말씀한 주둔협정을 체결하자는것이 현재의 미국의 대조선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부>라는것을 세우자면 민의를 대변한 정치세력이 있어야겠는데 남조선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 김규식을 내세워 <좌우합작>을 해서 좌익, 중간, 우익의 제3세력이 단독정부수립을 찬성하는것처럼 내외에 선전하자는것이 미국의 음모입니다. 미국놈들은 허헌선생을 이 음모에 끌어넣은것입니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밝은 웃음이 어린 장군님의 얼굴을 돌아보는 허헌의 눈에서는 고통스러운 자책이 몸부림쳤다.

《김규식이 그것을 알고 <좌우합작>에 나섰을가요?》

《물론 알았습니다. 미국측의 암시도 받았고 리승만의 요구도 들었다고 합니다. 김규식선생을 조종하고있는 버치의 검질긴 설복을 받고있는 선생이 그걸 모를수 없지 않습니까?》

격분한 허헌이 왼팔을 내두르며 무슨 말을 웨치려는데 입가의 근육을 푸들푸들 떨었다.

《내 앞으로 다신 김규식을 대상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나가면 합작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좌우합작>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허헌은 말을 더듬으며 부르짖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중한 안색으로 아무 말씀없이 허헌을 부축해 울퉁불퉁한 달구지길에 올라서게 하시었다.

《선생님의 심정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규식선생도 미국의 의도를 알면서 합작을 주도해나선걸 보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아서인지 요즘 자주 발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앞길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선생을 낭떠러지에 떠밀어넣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김규식선생을 도와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도와주다니, 그럼 장군님께서도 김규식같은 사람도 우리 조선에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계십니까?》

《우리는 김규식선생만이 아니라 김구선생과도 손을 잡을 결심을 했습니다. 오래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한 김구, 김규식선생들이 말년을 값있게 살게 하는것은 한 민족성원인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김구, 김규식을 한 민족성원으로 생각하신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구, 김규식선생을 돌려세운다는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국을 잃은것으로 해서 장구한 기간 외국에서 고생을 한 선생들을 나라잃은 슬픔을 다같이 체험한 한 민족성원으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아—》

가벼운 탄성을 내지른 허헌은 얼굴을 돌리며 안경을 벗어들었다.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우선 사상적으로 적대되어서 서로 용납할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라고 허헌은 생각해왔다. 또 허헌자신도 일제의 탄압이 가혹한 광복전, 특히 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친교를 맺고 래왕을 한다고 하여 좌익으로부터 별의별 시비와 비방을 다 들었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견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족의 슬픔을 말씀하시며 동포애적감정을 지니고 김구, 김규식의 말년을 넘려하신다. 이것은 령도자의 관용이나 박애의 사상으로는 해석할수 없는 뜨거운 동포애의 발현이 아니겠는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조선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조금전에 정력적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 웅심깊고 뜨거운, 가장 열렬한 민족애의 체현자는 장군님자신이 아니시겠는가!

허헌은 축축하게 젖어드는 눈을 비볐다. 뿌잇하게 흐려진 안경알을 닦고는 다시 귀에 걸었다. 흐드러지게 하얀 꽃이 구름처럼 피어난 메밀밭이 문득 눈앞에 펼쳐졌다. 쏟아져내리는 가을해빛에 눈이 부시고 강렬한 향기가 코밑을 간지럽힌다. 김규식의 말년이 저 메밀밭처럼 눈부시고 향기로우며 순결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며칠전에 <합작>에 응했다가 불과 10여일후에 반대성명을 낸다는것은 선생님을 위해서도 좋을것 같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두분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무엇때문에 미국놈의 룡간에 걸려들어서 싸우겠습니까. 김규식선생이 말년을 값있게 살기 위해서는 미국놈들에게 의거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규식선생을 대미의존사상에서 벗어나게 하자면 이번 기회에 <좌우합작>을 시도할것이 아니라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련맹같은것을 조직하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김규식에게 민족자주를 위한 정치조직을 나오게 한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간과, 우익계의 량심적인 인사들을 망라한 민족자주련맹같은것을 조직해서 미제의 괴뢰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강력한 제3세력을 편성하면 조선민족을 위해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는것으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 김규식에게 얼마간 영향을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규식의 눈을 띄워주어 매국이 아니라 애국의 길을 걷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촉을 가졌으니 노력을 해보는것은 나쁠것 같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은 남조선좌익력량을 단결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남조선에 광범한 반제력량을 결속했다고 해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녕 나같은 사람이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킬수 있다고 믿고계십니까?》

허헌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안경속의 눈이며 관골이 두둑한 볼이며 튼튼해보이는 턱을 한껏 긴장시킨 모습으로 물었다.

《우리는 선생님보다 더 좋은 적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색을 지은 빛으로 대답하시였다. 허헌은 육체적고통이라도 당하는듯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무거운 숨을 내쉬였다.

《나를 그렇게 높이 쳐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만 나는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적합치 못한것 같습니다. 광복전에 신간회에 관여한것이나 광복직후에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것은 세상형편이 내게 정치인행세를 할수밖에 없게 한것입니다. 하나의

정치세력을 단결시키자면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견을 얼마쯤은 갖고있어야겠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8. 15전에도 그렇고 8. 15후에도 그렇고 나는 별로 정견이라는것이 없이 불의에 항거해왔을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쟁할 각오만 있으면 그 다음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선생님은 류영준녀성과 백남운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했습니까. 인민을 위한 태도와 애국심을 놓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분과적인 립장에서가 아니라 혁명과 인민에 대한 태도를 놓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서로 단결하면 아무리 간악한 적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평양에 가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우선 점심부터 먹구봅시다. 숙소사람들이 저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있지 않습니까.》

김일성동지와 허헌은 푸른 하늘에 들연을 내뺀친 산턱의 기와집대문앞에 이미 와있었다. 숙소에 근무하는 일군들이 새옷을 떨쳐입고 활짝 열어놓은 대문안에 들어서서 그이께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있었다. 허헌은 남조선좌익단결이라는 너무나도 예상밖의 중임을 앞에 놓고 어쨌으면 좋을지 아직은 결심이 되어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가 갑자기 거인으로 성장한것만 같아 얼굴에 희벗한 웃음을 띠우고 팔을 내저으며 장군님과 함께 박수로 맞이해주는 숙소사람들앞으로 걸어갔다.

5

허정숙은 옷도리를 벗어던지고 아버지가 거쳐할 방을 청소하고있었다. 김책이 이번에는 딸구실을 똑똑하게 해야 한다며 울렀다메서 급히 집에 들어온 허정숙이었다.

김책의 지난 생활이란 감옥이 아니면 처절한 무장투쟁을 전개한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그런것을 다 아는지 늙은이들은 거품을 시킨 푸근한 이불포대기를 좋아하며 일제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이가 좋지 못한 허헌선생과 같은 늙은이에겐 만문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데 그런것을 만들자면 고기는 탕치고 끓여야 하고 남새는 어떤것을 골라야 한다는등 그는 허정숙을 집에 들여보내며 그 무슨 국가대사를 이야기하듯이 이런 말을 한바탕 엮어내렸다. 허정숙은 딸이 아버지의 식성이며 생활습성을 모르고있을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느냐고 우스개소리로 그의 말을 어중간에서 꺾어버리려다 김책이 어떻게나 엄엄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대로 듣고있을수밖에 없었다.

아직 홀몸으로 살고있는 허정숙은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뒤시중을 들어주기도 하는 녀인과 함께 김책이 말한 그대로 고기며 남새를 장마당에서 사들여다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포대기는 물론 잘피오리로 겨른 돛자리까지 거품을 시켜 방에 들여다 깔았다. 그러나 빠르면 점심때쯤은 평양에 들어설수도 있으리라던 아버지는 이미 오후가 기울었는데도 도착하지 않았다. 허정숙은 할수없이 서재이기도 한 자기의 살림방에 들어앉아 신문, 통신사들에 나누어줘야 할 론설원고를 책상에 내놓고 마주앉았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원고에 몰두해있던 그는 집앞에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동음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장군님께서 전용하시는 승용차가 집앞에 멎어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함께 오셨는가 했는데 그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만이 마치 활개짓이라도 하듯이 불편한 오른팔까지 내두르며 마당에 들어섰다. 아버지는 저고리고름이 풀어져 앞섰이 춤추듯 너풀거리는것도, 먼저번 평양에 올 때 입고 온 바로

그 바지저고리바람이여서 옷주제가 말이 아니라는것도 느끼지 못하는듯 오금에 돌개바람이라도 인것처럼 활개짓을 하며 걷는것이였다. 먼저 평양에 왔을 때의 수심기란 전혀 찾아볼수 없는 들뜬 표정이였다.

《장군님하구 같이 오셨어요?》

아버지에게 수인사를 차린 허정숙이 물었다.

《동행했다. 그이께서는 인민위원회에 드시구 날 너의 집에 모셔가라구 운전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한 허헌은 흥중의 벽찬 감동을 누를길 없는듯 《아—》 한마디 짧은 탄성을 내뿜고는 현관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올라섰다.

허정숙은 응접실에 아버지를 모셔들이고 서울의 험악한 분위기며 일가족이 당하고있는 무지막지한 탄압을 괴로운 마음을 안고 들었다. 원썩놈들의 만행에 격분해 두툼한 입술은 떨리고 관골은 더욱 살아올랐지만 먼길을 온 아버지앞에서 미국놈들에 대한 욕설을 쏟아놓을수도 없었다. 가벼운 마른 음식과 청량음료로 군음식대접을 한 허정숙은 아버지를 건넌방에 들어가 쉬게 하고 자신은 서재에 들어가 또다시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론설을 읽기 시작했다. 그가 앞에 놓은 원고는 《좌우합작》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한 론설이였다. 장군님께서 말씀이 계시여 유능한 필진이 모다붙어 집필한 원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론설의 초고를 보고 우리 조국을 예속시키려는 미제에 대한 분노도 침략자들의 롱간질을 폭로하는 론리성도 빈약하다고 하며 몸소 본래의 글을 알아볼수 없을만큼 가필도 하고 수정방향도 제시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원고는 그야말로 번뜩이는 날창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좌우합작》을 조작해낸 미국의 음흉한 본심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론설로 완성됐다.

론설을 한자한자 읽어나가던 허정숙은 또다시 아버지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혔다. 장군님께서서는 서울주재 외국기자가 날린 통신기사속에 건듯 끼여든 한줄의 글발을 보고 미국놈들이 음모적방법으로 단독괴뢰정부수립을 위한 정치세력을 만들어내려 한다는것을 간파하셨는데 아버지는 《좌우합작》에 호응까지 했으니 정치적판단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한 일이었다. 이러한 아버지가 와해상태에 들어간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킬수 있겠는가? 그는 이런 근심에 싸여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는것도 알지 못했다.

《그 원고를 내가 보면 안되겠느냐?》

머리우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소리를 듣고 허정숙은 소스라쳐 놀랐다.

《왜 쉬지 않습니까?》

《그 원고를 내 줘 보자.》

허헌의 말에는 딸이 두말을 할수 없게 하는 강경한 어조가 비껴있었다. 허정숙이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론설의 제목을 본것 같다. 제목은 《미제의 음흉한 책동인 <좌우합작>의 본질을 폭로한다》였다. 허정숙은 아버지에게 원고를 주지 않을수 없었다. 허헌은 울방자를 틀고앉아 원고를 번지기 시작했다. 번개같이 글을 읽어던지는 그는 한장의 원고가 철덩어리처럼 무겁게 여겨지는듯 매장을 힘겹게 번지곤 했다. 얼굴엔 어느새 무거운 그늘이 비껴들었다. 세번이나 원고를 고쳐

읽은 허헌은 눈을 지르감고 오래동안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윽고 그는 눈을 뜨고 딸에게 물었다.

《이 원고에 가필한분은 누구냐? 혹시 장군님이 아니시냐?》

《네. 장군님께서 가필해주신 원고예요.》

《이 정치론설을 말기실 때 장군님께서 너에게 한 말씀은 없으시냐?》

허정숙은 잠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남의 나라를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온갖 교활한 책동과 음모를 다 꾸미고있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장군님의 분노와 단죄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될것이였다. 그렇다고 해서 장군님의 말씀을 달리 이야기할수도 없었다.

《장군님의 말씀은 대체로 론설에 다 담겨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허정숙은 아버지의 얼굴빛을 살피며 **김일성**동지께서 특히 강조하신 말씀을 이야기했다.

《좌우합작》은 어디까지나 매국적인 단독괴뢰정부를 세우기 위한 미국의 교활한 음모책동이다. 《좌우합작》이 이루어져 제3정치세력이 형성되면 일부 좌익정당단체들의 정치활동이 자유로와지고 토지개혁이 진행되며 친일파들을 숙청할수 있을것처럼 떠들지만 이것은 남조선정치구조를 넘두에 두지 않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과도립법의원》이 조직될 때도 이 비슷한 목적을 내세웠지만 아직 그 어느 하나도 성사된것이 없는것만 보아도 이것을 알수 있다. 친일파가 숙청되고 토지개혁이 진행되면 미군이 의거하고있는 우익세력이 무너지겠는데 어떻게 남조선에서 이런

정치개혁이 단행될수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의 위험성은 《좌우합작》의 반동성을 알지 못해서 미제침략자들의 룡간질에 걸려들고있는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합법적으로 전개되는 모든 정치활동이 미국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면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있는 대미의존사상으로 해서 발로되고있다.

민족자체의 힘을 믿지 못하고 미국에 기대를 거는것은 본의아니게 민족을 배반하고 매국으로 가는 길이다...

두팔을 가슴우에 엮고 눈을 지르감고 앉아 딸의 말을 듣던 허헌은 저고리고름을 바로 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다.》

한마디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섰다. 한참후에 건넌방의 미닫이가 열리더니 딸에게 론설원고를 다시 달라고 했다. 그후 다시는 방문이 열리지 않았다.

허헌은 론설의 매 문장을 간간하게 음미해갔다. 괴로운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평산에서 《좌우합작》의 뒤에 깔린 미국놈들의 교활한 음모를 장군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처럼은 마음이 괴롭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장군님께서 너그럽게 웃으시며 가볍게 말씀하셨기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기본은 자기가 그이의 말씀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감촉하지 못한데 있을것이다. 그런데 딸의 말을 듣고 원고를 다시 읽어보니 자기는 분명 미국놈의 룡간질에 넘어가 민족을 배반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였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킬수 있겠는가?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할수 없는 자신이 안타깝고 살점을 도려내는듯 가슴이 아팠지만 허헌은 결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미단을 열고 딸을 불렀다. 허정숙이 아버지앞에 와앉았다.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장군님께서는 나를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는데서 책임자라고 말씀하셨다. 남조선좌익의 단결이 어째서 절박한 문제로 나서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계시구. 장군님의 믿음이 고마워 나로서는 지금까지 성사시키지 못했던 이 난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볼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네 말을 듣고 이 론설을 재삼 음미하니 나는 좌익의 단결을 주도할 재목이 못된다. <좌우합작>에 호응했던 사람이 그런 중임을 맡을 체면이 없지 않겠느냐. 나는 결심했다.

이 애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있는 너는 나를 도와주어야겠다.》

허정숙은 아버지의 품에 매달려 어리광을 부리며 자랐지만 지금처럼 단호하고도 결연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부친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혁명을 위해서는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리념이 있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정화되는듯한 숭고한 감정에 사로잡혀있었지만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저는 당원이구 북조선인민위원회 선전부장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아버님의 결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다.》

이때 현관밖에서 자동차의 동음소리가 들리더니 일부러 인기척을 내느라고 그러는것 같은 김책의 청높은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허정숙이 현관에 뛰어나갔다. 김책과 같이 온 서기가 운전수와 함께 자동차에서 식료품이며 새옷이 마련될 때까지 허현이 갈아입을 옷가지들을 안아내려서 부엌과 현관의 마루에 쌓아놓고있었다. 김책은 허정숙에게 빨리 주안상을 차리라고 독촉하고나서 건넌방에 들어가 허현과 마주앉았다.

《우선 선생님에게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부터 하구 다른 말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평양에 오셨을 때 오해를 사게 한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선생님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이마가 벗어지기 시작한 북조선의 위엄있는 고위간부가 자세를 바로잡고나서 머리를 숙였다. 놀란 모습으로 김책의 말을 듣던 허현은 그의 숙인 머리를 들기라도 할것처럼 두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김선생, 어째 이러시오? 내 성미가 원래 조금하구 툴지 못해서 곡해한것이지 김홍계(김책의 본명)선생이 무엇을 잘못했소. 내 장군님한테서 말씀을 들었소. 그런 중대사를 발설해서 안될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요?...》

《리유야 어떻든 선생님을 서울에 나가시게 한것은 내 잘못입니다. 장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 김책은 허현의 무릎옆에 놓여있는 론설을 눈결에 보고 손에 들었다. 원고를 다 읽고난 김책은 날카로와진 눈길로 옆에 와앉은 허정숙을 돌아봤다.

《선전부장동무, 어떻게 돼서 이 원고가 이 방에 놓여있소?》

《아버님이 보자고 해서 드렸습니다.》

《선생님에게 이 원고를 드릴 때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했소? 하지 않았소?》

《하지 않았습니니다.》

《왜 하지 않았소? 장군님께서 평산에 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동무는 선생님이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는 사업을 맡는가 맡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인것 같소? 조선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란 말이요.》

허헌이 옆에서 듣다 못해 가운데 끼여들었다.

《이 정치론설은 내가 요구해서 이 방에 오게 된것이웨다.》

《선생님은 내가 지나치게 야박하게 따님을 추궁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인정에 끌려서 적당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장군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통일정부수립에 심신을 모두 내맡 결심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복잡한 조선혁명에 한몸을 바쳐나갈 결심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허헌은 김책의 말에서 지금까지 생각해본적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통일정부란 말을 듣고 얼굴을 번쩍 들었다. 장군님께서 자기에게 좌익을 단결시키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것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장군님께서 쏘련군철수까지 결심하셨다면 민족의 단합을 통해 달성하려는 웅대한 목적이 있으리라는것을 짐작했어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허헌은 장군님의 숭고한 정치리념에 취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김책은 칼날과 같이 서슬푸른 눈길로 허정숙을 마주보며 말을 계속했다.

《다른 사람이 동무처럼 행동했다면 또 모르겠소. 동무는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국면에 처해있는지 알고있는 동무가 아니요? 장군님께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며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애쓰시는데 선전부장을 하는 동무가 어떻게 이럴수 있소? 난 동무가 오히려 아버님을 고무하고 힘이 될 말을 해줄줄 알았소.》

허정숙은 머리를 무겁게 떨구었다. 김책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듯 담배를 허현에게 권하고나서 자기도 한대 피워물었다. 담배연기를 날리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김책은 무게있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장군님의 말씀이 계신후에도 주저를 하는 선생님이 섭섭합니다. 방금 선전부장동무에게도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자기의 모든것을 민족을 위해 바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결심이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것이 현재의 우리 나라 형편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저울질하고있을 때가 아니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능력에 걸고 뒤로 물러날 생각부터 한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산업건설까지 책임지고있지만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었습니다.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명제를 알고있는것이 내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기업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이 요구하고 장군님께서 바라시기때문에 산업을 담당해서 일을 시작하니 그것도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일제시기 신간회 회장도 했고 지금은 민전위원장단성원으로 남조선혁명에 참여하고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업에 대해 알지 못한 정도가 선생님이 혁명에 대해 알지 못하는것에 비기겠습니까?》

허헌은 궁색한 자기의 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말을 찾을수 없는듯 손목을 주물며 앉아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김선생의 말도 알수 있고 장군님의 믿음이 고맙기도 하오만 내가 결심을 못하는것은 나라는 사람이 장군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재목이 아니기때문이웨다. <좌우협작>의 정체도 간파하지 못해서 미국놈의 롱간질에 걸려든 내가 어떻게 남조선좌익의 단결을 주도하겠습네까.》

《장군님께서는 김규식선생의 제기에 선생님이 호응했다는것을 알면서도 남조선좌익의 단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체면을 먼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민족자립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한몸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할 때라는것입니다. 결심만 확고하다면 일개인의 사사로운 체면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거의 추궁에 가까운 이런 말을 듣고도 찬성을 표시할 안색을 보이지 않는 허헌의 얼굴을 지켜보던 김책이 이야기를 끝맺을 결심을 한듯 맵싸게 뒤말을 이었다.

《내가 선생님을 잘못 안것 같습니다. 섭섭합니다.》

바로 이때 서재에서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허정숙이 자기방에 건너가 전화를 받고와서 묵묵히 마주앉아 담배연기만 날리고있는 김책과 허헌에게 다급히 무슨 말을 하려는데 집앞에서 자동차의 동음소리가 들렸다.

《장군님께서 오셨습니다.》

허정숙이 황황히 일러주고는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그가 방금 받은 전화는 김일성동지께서 선전부장네 집을 향해 떠나셨다는것을 부관이 알려준것이였다. 김책도

허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허현은 밖으로 달려나가는 김책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방안에서 주춤거리며 옷매를 바로잡기도 하고 손때가 앓은 앞가슴노리를 손으로 더듬으면서 허둥거리기만 했다. 얼굴에는 그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 빛이 력력했다. 장군님께 김책을 실망시킨 그런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어수선했던 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관에 들어서시여 마루끝에 나와선 허현의 인사에 환한 안색으로 답례를 하시었다.

《선전부장동무가 선생님의 마음에 들게 방을 준비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마음을 써주셔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수선했던 마음을 대번에 탁 전환시키는 장군님의 소탈한 말씀에 이끌려 허현의 얼굴에도 어느새 느긋한 미소가 비꼈다.

《음식들은 왜 여기에 두고 식힙니까? 상이나 들여놓고 이야기를 할것이지...》

허정숙의 집일을 봐주는 녀인은 음식상을 문밖에까지 들고오기는 했으나 방안에서 울려나오는 김책의 맵짠 목소리에 텐겁을 해서 부엌에 숨어버리고말았던 것이다. 장군님께서 손수 음식상을 들려고 허리를 굽히시는걸 본 김책과 허정숙이 다급히 음식상을 맞들어 방안에 들여놓았다. 장군님께서 사양하는 허현을 굳이 상좌에 앉히시었다. 사람들의 얼굴표정이며 어성버성한 분위기로 보아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능히 짐작하셨겠는데 장군님께서 시종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였다.

김책은 노여움을 풀지 못한 모습으로 허정숙이 부어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부위원장동무의 주량이 보통이 아닙니다. 허헌선생은 술을 많이 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젊었을 때에도 술을 절제하셨습니까?》

《꼭 절제할 생각이 있었던것은 아닌데 폭음은 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선생님성미에 폭음이 없었다는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부위원장동무도 폭음을 하지는 않습니다. 북만에서 싸울 때 추위를 이겨내느라고 독주를 가끔 마셔서 술이 셀뿐입니다.》

이런 별치 않은 이야기로 좌석의 분위기를 흥그럽게 만드신 장군님께서 문득 말머리를 돌리시었다.

《머리가 맑을 때 평산에서 이야기하던 문제를 결속하지 않겠습니까?》

허헌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듯 손에 들고있던 술잔을 도로 상에 놓으며 장군님을 마주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갑자기 허헌의 모습을 보시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평산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민족의 단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좌익력량이 단결되어야 합니다. 집안싸움을 하면서 중간파, 나가서는 우익계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하자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 결심입니다. 그때 만일 남조선좌익의 어느 한 파가 전민족적인 정권을 반대해서 성명을 낸다, 보이코트를 한다, 이런 추태를 부린다면 북과 남의 인민들의 총의에 의해 정권을 세운다고 해도 적들이 악선전을 할게 아닙니까. 남조선좌익력량의 단결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파, 당파를 따지면서 사분오렬돼서 싸우고있는 남조선좌익력량을 단결시키자면 어떤 사람이 단결을 주도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좌익력량의 단결을 진심으로 바라고 고질적인

종파싸움에 물들지 않은 인물이 앞에 나서야 합니다. 허헌선생을 내놓고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까? 만일 선생이 그런 인물을 추천하면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허헌은 습성으로 굳어진 안경을 벗어둘 생각도 잇고 깊은 상념에 빠져들었다. 아무리 더듬어봐도 그런 인물을 찾아낼수 없는듯 허헌은 종시 입을 열지 못했다.

《선생님도 말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허헌선생은 우리가 말한 남조선좌익의 단결을 조국과 민족이 맡겨준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생님도 전민족적인 통일정권수립을 반대하시지는 않겠지요?》

장군님께서 간곡하게 설복하시는데도 허헌은 아직도 결심을 내리지 못한 주저하는 낫빛을 짓고있었다. 그 모양을 안타까운 눈길로 지켜보던 김책이 몇마디의 말을 했다.

《선생님은 <좌우합작>에 말려든 사람이 좌익의 단합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맡을수 없다고 생각하고계십니다.》

《그쯤한 문제를 가지고 중대한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은 금천에서 이미 <좌우합작>과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의 크지 않은 문제에 구애될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생각할것은 남조선인민들의 기대와 요구입니다.》

장군님께서 허헌이 얻고있는 인민들의 신망과 기대는 하루이틀사이에 얻어진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수도 받지 않으면서 많은 혁명가와 애국자들을 변호해주고 견결한 반일정신을 지니고 사회활동을 전개해왔기때문이라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김책동무만 해도 15년이란 장기간의 형기를 구형한 왜놈검사와 맞서 싸워서 형기를 3년으로 감형시켜주었구 출옥했을 때는 3원 50전의 러비를 마련하려고

사모님의 은가락지를 전당포에 들고가지 않았습니까. 만일 선생님의 변호가 없었다면 김책동무는 혁명을 계속하지도 못했을거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 형권삼촌도 15년의 형기를 언도받고 그 형기를 채우지 못하고 옥사를 했습니다.》

문득 장군님의 안면에 추연한 빛이 비졌다. 지난날의 그 결패가 차넘치던 모습이란 찾아볼수 없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병감에 누워있는 김형권삼촌의 참혹한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르셨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음성을 가다듬으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남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애국적인 활동을 알고있습니다. 좌익의 지도자들도 이것을 압니다. 이런분이 앞에 나서야 좌익을 단결시킬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남조선좌익의 단결은 이미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세욕에 환장한 사람들이 령도권쟁탈을 위한 싸움을 하느라고 오늘까지 남조선좌익은 단합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태를 수습하면서 단결을 이룩하자면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게 앞을 가로막으리라는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조국의 장기분렬을 막고 완전독립을 이룩하자면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는것이 선차적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과제를 선생님이 반드시 해결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선생님에게 이 사업을 권고하는것입니다.》

장군님의 절절한 설복을 듣고도 허헌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노리를 더듬을뿐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방안에 가슴을 옥죄는 초조한 긴장이 깃들었다. 장군님께서만이 이런 긴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듯한 느긋한 모습이였다. 마침내 허헌이 결연한 결심을 한듯

자기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자세를 바로잡으며 맹세를 다지듯 장군님께 아뢰었다.

《우리 겨레를 위해 이 늙은 몸을 바치라는 말씀이신데 고달프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위해 중임인줄 알지만 맡기로 하겠습니다. 내 장군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군님의 안면에 허헌의 결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빛나는 웃음이 피어났다.

《그럼 새 출발을 결심한 허헌선생을 축하해서 한잔씩 드는것이 어떻습니까?》

한결 긴장이 풀린 너그러운 모습이던 김책이 갑자기 엄해진 눈길로 허정숙을 마주보며 말했다.

《선전부장동무도 찬성인지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듣는것이 좋겠습니다.》

허정숙의 얼굴이 대번에 고집스럽게 굳어졌다. 사업에서는 물론 생활에서도 여간만 엄정하지 않은 김책이여서 인민위원회 일군들은 말할것 없고 장군님덕에도 허물없이 나드는 최현과 같은 항일투사들도 그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했다. 그런데 유독 허정숙만은 그를 그닥 어려워하지 않고 부위원장실에도 출입하고 사업상 문제를 제기도 했다. 한것은 스무해전에 김책이 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할 때 차입품을 안고 그를 자주 찾아가군 한 허정숙이었기때문이었다. 출옥후 며칠간 허헌의 집에 류숙한 김책은 서울의 그 무슨 《운동자》들과는 달리 대중적인 진출로 원썩놈들을 전률케 하고있는 만주지방의 양양된 혁명적기세를 이야기해주어 그렇지 않아도 랑만적인 투쟁을 갈망하고있는 허정숙의 가슴을 흥분으로 들끓게 했다. 김책은 서울을 떠날 때 허정숙과 동만에서 다시 만날것을 약속했다. 허정숙은 드세찬 혁명의 격류속에서 총을

들고 내닫는 자신의 황홀한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곧 김책의 뒤를 따라 서울을 떠났다. 그는 사랑의 불길에 순정을 불태우는 처녀모양 혁명을 갈망하며 상봉장소로 예정했던 룡정지방은 말할것 없고 혁명의 파도가 휩쓸고있는 동만일대를 편답했으나 김책을 찾을수는 없었다. 그와의 상봉이 이루어진것은 허정숙이 조국에 돌아왔을 때였다.

20년래의 이런 관계로 해서 허정숙은 김책을 그리 어려워하지 않았다. 사업의 전개력이나 관철력에서도 대체로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 김책에게 말을 들을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문제를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는 관계에 놓이게 된것이다.

《비판을 하십시오. 부위원장동무가 비판을 하면 나는 받아야 할 처지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딸만이 알고있는 아버님의 약점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것이 잘못입니까?》

《동무는 지금도 아버님이 장군님의 말씀을 접수한것을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하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 아버님에게 요구하시는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당에서 하라는대로 하지 않소? 만일 동무가 아래단위에 검열을 나갔을 때 이런 현상을 발견하면 동무는 어떤 결론을 내렸겠소?》

허정숙은 말문이 막혀 머리를 떨구었다. 두사람사이에 오고가는 말을 흘려들으며 허헌에게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자신께서도 식사를 드시던 김일성동지께서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김책동무, 그만하오. 그러다간 허정숙동무가 비당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아버님이 걱정돼서 권고를 못한것 같은데 나한테도 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허정숙동무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 의도를 잘 몰라 그랬을겁니다. 선전부장동무가 우리를 반대할 생각이야 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걱정돼서 말을 못했겠지.》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듣고 한결 머리칼이 성글어진 번듯한 이마며 예리한 빛이 번뜩이던 눈이 얼마쯤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김책은 의연히 비판조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을 드리였다.

《나도 선전부장동무가 장군님의 의도를 반대할 동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에서 하는 말은 그것이 비록 평범해도 깊은 뜻이 담겨있기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내 몇번이나 말했는데 아직도 제멋대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것 같습니다.》

《허정숙동무, 부위원장동무의 말을 명심해야 하오. 부위원장동무가 아니면 누가 동무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소. 그렇다고 해서 허정숙동무가 지금까지 독창성을 발휘해서 전개력있게 선전사업을 진행해오던 그 대담성이 꺾여서는 안되오. 그렇게 되면 조선의 녀결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리정숙이 아니면 박정숙이 되고마오. 하긴 허정숙동무가 이쯤한 비판에 우그러들 동무야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허헌선생!》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을 마주보며 웃음속에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나하구 같이 있을 때도 너자의 속대가 너무 드셔서 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속대가 세니까 녀성의 몸으로 그 험한 길을 헤쳐왔지 도중에서 꺾이고말았을겁니다. 혁명을 하자면 대가 좀 드셔야 합니다. 조선혁명의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허정숙동무, 부위원장동무의 비판을 접수하는 의미에서 돌아가면서 술이나 붓소. 아버님의 새 출발을 축하해서...》

허정숙은 자심하고도 너그러우신 장군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곱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씻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손에 들었다. 장군님의 잔에 먼저 술을 드리려고 했다.

《아버님의 새 출발을 위해서 드는 잔인데 선생님의 잔에 먼저 붓소.》

허헌이 문득 자리를 고쳐앉으며 딸에게 분부를 했다.

《애 정숙아! 그 술병을 내게 다오.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것이나 다름이 없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던 이 늙은이에게 분에 넘친 믿음을 주신 장군님께 내 마음을 담아 한잔 부어올려야겠다.》

허정숙이 아버지에게 술병을 넘겨주었다. 허헌은 자세를 바로잡고 두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쳐 장군님앞에 놓인 잔에 술을 부으려고 했다.

《나이 드신 선생님이 젊은 사람에게 이러시면 안됩니다. 나와 같은 젊은 사람이 선생님같이 년로하신분과 대작하는것은 사실 레의에 어긋나는 일인데 내 사업상 필요해서 할수 없이 이렇게 마주앉았습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뜻이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값은 경륜의 높이에 달린것인데 내가 어떻게 장군님앞에서 나이대접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 부녀가 이 다난한 나라에서 값있게 살게 된것은 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우리 부녀가 장군님앞에 꿇어앉아 큰절을 드려야 할것입니다. 우리 부녀의 지대한 사의를 바치는 심정으로 장군님께 술한잔을 붓겠소이다.》

《장군님, 잔을 받으십시오. 저도 같이 부어드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아버님옆에 앉아있겠습니다.》

허정숙이 목멘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다.

《김책동무, 어떻습니까? 내 선생님이 부어주시는 술을 받아야겠습니까?》

《나는 허헌선생님도, 정숙동무도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구 선생님이 부어주는 술을 받겠습니다.》

찰찰 넘치게 부어주는 술을 단숨에 들이키신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앞에 꿇어앉아 깊이 머리를 숙이고있는 허헌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헌의 량어깨를 받쳐들어 옷몸을 일으켜 세우시였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젊은 사람에게 왜 이러십니까?》

허헌은 안경을 벗어 뿌옇게 흐려진 알을 닦으며 나직이 목멘 소리로 말씀드렸다.

《내 일생을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살려는것이 인생의 첫걸음을 땀 때의 결심이었습니다. 내 환갑이 넘은 이 나이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긴 오늘이 처음입니다.

》

《선생님에게 좌익력량을 단결시켜줄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남조선인민들입니다. 선생님이 사의를 표시하시자면 피흘리며 싸우는 광범한 남조선민중들에게 해야 합니다.

》

《어, 이리도 겸허하시다니!》

허헌은 어깨를 떨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이 창창하다는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똑똑히 깨달았소이다!》

허헌은 또 한번 머리를 숙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이 혁명을 위해 여생을 깡그리 바치리라는것을 믿으실수 있었다.

제 4 장

심술사나운 하늬바람에 갈가리 찢어진 구름장이 동남방으로 날려가고있었다. 벌써 허옇게 색이 바랜 늦가을의 저녁해가 빈민촌의 마지막빛까지 걷어안고 숨죽인지 오랜 시커먼 굴뚝너머로 떨어져내리고있다. 처마를 맞대고 비비적거리는 빈민촌의 하모니카집이며 공동수도칸에 모여든 아낙네들의 얼굴들, 골목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희망의 빛이란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태머리처녀가 총총히 걸음을 옮기고있는 실골목도 절망의 빛이 짙게 배여있었으며 그의 신발에 묻어나는 구질구질한 흙발도 마냥 시커멓기만 했다. 처녀는 고삭은 함석지붕을 떠인 외작문안에 들어서서 안방과 건넌방사이의 간마루에 올라섰다. 건넌방의 미닫이앞에 서서 가난이 지지리도 내뻗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랑또랑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소.》

웅글은 목소리가 미닫이안에서 새나왔다. 허현의 음성이었다. 처녀는 안방에 들어가 야음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색깔이 짙은 저고리에 검은 통바지를 입고 간마루에 나와섰다. 쫓아박힌듯한 오목눈에 꼭 다문 조그마한 입, 오뚝한 코... 첫눈에 씨알이 박힌 다기찬 성미라는것이 알리는 처녀였다. 이름은 조순옥, 영등포방직공장 지하조직책임자였다.

허현이 이 집에 몸을 붙이게 된것은 이 빈민촌의 여성들과 련계가 깊은 류영준이 조순옥을 보증한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이 보증을 마동삼이 적극 찬성해나선탓이었다. 마동삼과 조순옥은 서로 사랑하는 한쌍의 청춘남녀였다.

허헌은 두루마기자락을 날리며 순옥의 뒤모습을 놓치지 않을만한 거리를 두고 실골목을 빠져나갔다. 버스형마차는 김치독이 그득히 들어찬 옹기점 뒤마당에 서있었다. 말이 코김을 붙지 않으면 마차가 마당안에 있다는것을 알수 없을만큼 벌써 밤장막이 내리덮였다. 조순옥은 버스형마차곁에 이르러 허헌을 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말씀대로 7시까지 <락원>(고급료정)에 대라고 했습니다.》

《고맙소.》

《몇시에 돌아와야 합니까?》

《통금(통행금지)전에는 돌아와야 할테니 9시에는 떠나게 될거요. <락원>에는 연무관(무술훈련장)의 젊은이들이 나와있기로 되어있으니 임자네는 그사이에 좀 쉬오.련일 나때문에 밤을 새워서 안됐소.》

허헌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걱정하는것도 무리가 아니였다. 서울에 돌아온 그는 매일과 같이 영등포방직공장 노동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때로는 버스형마차로 때로는 승용차, 지어는 화물자동차적재함에 올려쌓은 물건짝 틈새에 끼여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면서 남조선좌익정당지도자들과 협상을 진행해서 마침내 반미구국전선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허헌은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장군님께서 일깨워주신 조선혁명가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지금까지 반목질시하면서 권력을 다투던 좌익당 대표자들은 무당과 량심인으로 알려진 허헌의 그 말을 듣고 치졸하고 협애했던 지난날의 자기들의 행동이며 사고를 심심히 뉘우쳤다. 허헌은 령도자의 사상과 사색의 높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오늘부터 앞으로 전개할 반미구국전선의 투쟁을 놓고 논의하기로 되어있었다.

순옥이는 뺨스형마차의 마부까지 여라문명의 장정들을 허현의 주위에 모이게 했다.

《오늘 밤엔 달도 없어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거예요. 그래 수건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목에 감는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처녀는 노래하듯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뒤를 이었다.

《선생님은 우리 보고 쉬라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우리는 조직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할 책임을 졌어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한 선생님에게 불상사가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돼요. <락원>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임무를 수행해야 해요. 그럼 떠나자요.》

장정들은 허현을 옹위하듯 에워싸고 뺨스형마차에 올라탔다.

허현은 차들처럼 단단하게 여문 순옥의 성미에 다시한번 혀를 찼다. 광복직후 공장에 찾아온 대학생한테서 투쟁의 철리를 깨달은 처녀, 불과 두해사이에 영등포방직과 같은 수백명이 망라된 지하조직을 통솔하는 이런 처녀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어 남로당이 쇠퇴해가는지 모를 일이었다.

종로네거리에서 우측으로 꺾어돌아 승용차들이 겨우 엇갈릴수 있는 삼청동, 운현궁에 이르는 좁은 길에 뺨스형마차는 들어섰다. 《락원》과 같은 고급료정이 어찌서 실골목을 거쳐서야 들어갈수 있는, 화신백화점 한옆의 우중충한 그늘안에 서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어떻든 그 료정은 골목을 앞에 두고 현란한 자태를 자랑하고있었다. 이런 으스스한 구석에 들어박혀있는것으로 해서 한몫을 보고있는지도 모른다.

허헌은 빠스형마차에서 내려 영등포방직공장의 긴장한 노동자들의 용위를 받으며 실골목을 걸어 료정의 현관앞에까지 갔다. 허헌의 옆에서 건던 조순옥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방문으로 나오지 마시고 화신백화점쪽의 우측 창문을 리용하세요. 창턱은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창문밖에 있겠습니다. 마차는 화신백화점옆의 골목밖에 세워두기로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경우에는 마차를 향해 가세요. 마차에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순옥의 치밀한 대책에 그저 놀랄수밖에 없었다. 이날의 모임장소를 알려준것이 점심전이었는데 그사이에 회의장을 돌아본 모양이었다. 현관안에 들어선 허헌은 접대원의 역할을 하는 연무관청년이 안내하는대로 아래층의 구석방으로 갔다. 복도끝에서 꺾어들어간 유측방이여서 1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앉기엔 비좁지 않겠는가 근심했는데 접대원명색의 청년이 열어주는 문안에 들어서니 샷자리 스무나문장은 실히 깔려있을 넓은 방이 나졌다. 반미구국전선에 망라된 각당 대표들은 이미 회합장에 와있었다. 때마침 뒤늦은 대표들까지 도착하여 모임은 곧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몇차례의 회합에서 그렇게 한것처럼 이날의 모임도 허헌이 사회하게 되었다. 대표들이 굳이 권해서 상석이라고 해야 할 자리에 옮겨앉은 허헌은 개회를 선언하며 간단한 연설을 했다.

《우리가 이미 결성을 본 반미구국전선은 오래동안 남조선좌익력량의 단합을 념원해온 여러분들의 거대한 노력의 결과에 이루어진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조직을 무었다고 해도 그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헛일을 한것으로 될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구국전선의 위력을 보여주게 될 투쟁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미제침략자들의 간악한 책동과 남조선이 처한 정세를 심분 고려한데 기초해서 좋은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날 모임의 중요성을 알고있어 회의가 시작되기전부터 긴장한 표정이던 대표들이 정작 개회를 선언하자 입을 열지 못했다. 옆에 앉은 남로당의 2인자인 리현상은 자기네당이 독판을 치는것 같은 인상을 줄것 같아 자중하는 빛이었으며 다른 대표들은 남로당의 말을 들어본 후에 저희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는것 같았다.

남로당대표의 한사람인 갱끗한 몸에 얼굴이 해사한 중년사나이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일제시기 몇년간 감옥살이를 한것으로 허헌이 알고있는 리혁이란 사람이였다. 지금까지 하는 일없이 지내기는 했지만 통일전선부장이라고 해서 대표로 선출되어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리혁은 원썩놈들을 마주대하고있기라도 한듯이 격분에 찬 목소리로 주먹을 내두르며 열변을 토했다.

…남조선혁명의 주도적당인 남로당은 이번 투쟁에서도 응당 선봉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파렴치한 침략책동을 감행하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높고 조직력이 강한 대규모공장, 기업소의 노동계급을 선두로 하여 파업과 대중적인 가두시위, 폭력적인 적기관습격을 단행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사전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구국전선을 조직한 리유같은것은 전혀 녀두에 두지 않은듯싶은 리혁의 좌경적인 발언을 들은 허헌은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다른 대표들이 그의 발언을 남로당의

견해로 받아들일수도 있었던것이다. 만일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 오늘의 회합에서 그 무슨 합의를 달성할수 없는것은 말할것 없고 몇번이나 어려운 고비를 넘어 마침내 탄생을 보게 된 구국전선은 명칭만 남은 빈껍데기와 같은 조직이 될수 있었다. 리혁이 내놓은 방안인 규모가 큰 파업과 시위, 적기관습격과 같은 폭력투쟁은 남로당의 독점물과 같은 투쟁방식이였다. 좌익에 속한 다른 당들은 남로당의 이런 투쟁을 비판적으로 대해왔으며 그런 투쟁을 할래야 할수 없기도 했다. 리혁도 이것을 알고있어 남로당의 선봉적역할이니 대규모공장, 기업소 노동계급의 결사적인 투쟁이니 하는 말을 한것 같다. 그러나 리현상은 온 얼굴이 뿌잇한 회색안개속에 잠긴듯싶은 근심이 낀 모색이였다. 리혁은 당지도층과의 토의도 없이 자기가 속한 분과의 견해를 말한게 틀림없었다.

허헌은 가까이에 앉아있는 백남운의 얼굴을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도 실망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오늘의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따라 남조선좌익의 단합이 유지될수도 있고 사분오렬될수도 있다는것을 허헌은 순간에 감촉했다. 그는 자기의 입장을 대표들에게 알려주지 않을수 없었다.

《통일전선부장의 이야기가운데 남로당이 주도적당이라느니, 선봉적역할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오늘 회합의 성격을 잘못 리해한데서 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 모임에 참가한 여러분은 각당의 대표의 자격으로 이 회합에 참가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구국전선의 대표자로 모임에 참가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발언도 어느 특정된 당이나 조직의 견해를 내놓을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국전선이 어떤 투쟁을 전개해야 하겠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미구국전선의 활동목적은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단독괴뢰정부수립을 파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이미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발언을 하시는 대표들은 이 점에 특히 류의하면서 구체적인 방도를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두룩한 이마밑의 눈, 코, 입이 꼭꼭 들어박힌 백남운의 얼굴에서는 실망의 빛이 사라지고 그 무엇을 진지하게 사색하는 표정이 깃들었다. 허헌은 북조선에서 쏘련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쏘련측의 성명이 발표되는것과 때를 같이해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일대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가 평양을 떠나기 전에 그를 접견해주신 장군님께서는 미국이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킨 그때에 쏘련정부는 북조선주둔 쏘련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기회를 리용해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광범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의 반미투쟁을 전개해야 단합된 좌익력량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릴수 있겠는가? 그 방법과 형태는 어떤것이여야 하겠는가? 허헌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문제는 이것이였다.

리혁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해나섰다.

《미제놈들은 조선문제를 유엔으로 끌고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놈들은 저희들의 손탁에서 놓고있는 소위 유엔성원국들을 리용해 조선을 예속시킬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어떤 투쟁을 전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또다시 식민지노예살이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 마당에서 결사적인 투쟁을 단행해야 할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현정세는 동요와 주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피의 투쟁이 있을뿐입니다!》

전후를 가릴수 없을만큼 흥분한 그의 해사한 얼굴은 창백해지기까지 했다.

그의 말은 분명히 남로당의 좌경적인 투쟁에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품고있는 백남운을 비롯한 좌익당 대표들에 대한 비판이었다. 허헌은 또다시 백남운에게 시선을 보내기는 했지만 줌전과 같은 불안과 위구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백남운은 리혁의 말을 순제 무시해버린 따스한 인정미가 잔잔히 흐르는 표정을 짓고있었던것이다.

미국이 저희들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하여 급기야 조선문제를 유엔의 의제로 결정을 내린것은 며칠전의 일이다. 조선문제가 언제쯤 토의되겠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의제로 되었으니 가까운 앞날에 그 무슨 《토의》라는것이 진행될것이다. 그러니 쏘련군의 철수성명도 곧 있을수 있었다. 일이 여간만 다급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힘겹게 탄생시킨 반미구국전선을 위험에 빠뜨릴수는 없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도 못하면서 막대한 희생만 입게 될 좌경적인 투쟁을 전개할수도 없었다.

《미제침략자들과 투쟁해야 한다는것은 옳지만 어떤 투쟁을 전개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군을 철거시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미군은 부당하게 남조선을 강점했으며 우리 나라의 모든 민족적불행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근원을 두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국전선을 발족시키는 취지문에 미군의 강점을 반대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기한것으로 소인은 알고있습니다.

둘째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투쟁은 구국전선에 망라된 각 당이 자기 당의 성격에 맞게 각이한 투쟁을 진행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때문입니다.》

평시에는 말을 더듬는 늘변이지만 일단 법정에 나서면 일체의 검사, 판사들을 궁지에 몰아넣던 그때처럼 허헌은 가끔 왼손을 들곤 하면서 달변으로 론리정연하게 이야기해나갔다. 그는 백남운이 위원장을 대행하는 근로인민당 당원들이 교단과 가두, 집회장에서 미군철거투쟁을 전개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가를 레를 들어가며 말했다.

《일견 살 걱정, 먹을 걱정이 없어보이는 학자들과 회사원들이 투쟁에 나서면 지금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들도 미군철거가 더는 뒤로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깨닫게 될것입니다. 내 말은 남조선인민모두가 반미투쟁에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허헌은 저로서도 뜻밖인 긴 연설을 한것으로 해서 입안이 말라들었다. 앞상에 놓인 차잔을 들어 입안을 추겼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각 당의 성격에 맞는 투쟁을 한다고 해서 산발적인 규모가 적은 싸움을 하자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국전선을 조직한 의의도 없을뿐아니라 미제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줄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합된 좌익력량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자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대표 여러분의 기탄없는 발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남운, 최근에 와서 접촉이 빈번한 리현상까지 사뭇 놀란 눈길로 허헌을 쳐다봤다. 애국자들을 변호하는 법정이라면 몰라도 오늘의 모임과 같이 까다롭고 심중한 회합을 이렇게도 능숙하게 사회할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허헌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표들은 생각에 잠겨있을뿐 조리있는 대답을 하는 사람 없었다. 그런 뜻깊고 폭넓은 투쟁을 생각해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단편적인 의견을 말하는 대표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허헌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답변이 못되었다. 허헌은 오늘의 회합을 다시 가질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실망한 빛을 구태여 감출 생각도 하지 않고 대표들에게 말했다.

《반미구국전선이 태어난 이상 투쟁방법, 투쟁형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구국전선은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확한 투쟁목표, 투쟁방법과 형태를 사전에 예견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항쟁은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헌의 말은 평양을 떠나기 전에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의 반복이었다. 반미구국전선이 조직되면 큰당, 작은 당 할것없이 모두 미군철거를 요구해서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그이께서는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이 구현된 투쟁방법을 찾아보려고 허헌은 그사이에 얼마나 모색을 거듭했던가.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어떤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기껏 머리에 떠올랐던 생각을 또다시 부정했다. 리혁의 독선적이며 좌경적인 발언은 뜻밖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온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확신을 품게 했다.

대표들속에서도 신통한 방안이 제기되지 않았다. 회의를 다시 여는 한이 있어도 최선의 투쟁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허헌은 생각했다.

《우리가 시작을 때려는 반미투쟁은 전민적인 투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자신을 포함해서 대표 여러분도 이런 싸움을 깊이 생각한것 같지 않습니다. 최상의 투쟁방식을 찾기 위해 오늘의 이 회합을 사흘간 휴회하겠습니다. 그사이 우리모두 생각을 깊이 합시다.》

허헌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는것 같아 회합장에서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허헌은 다음날 최선의 투쟁방식을 찾으려고 리현상과 종일토록 논의했지만 만족할만한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오늘 아침 조반을 물린뒤에도 조급한 마음을 안고 생각을 이어가던 그는 뒤울안에 나가 잠시 거닐양으로 방을 나섰다. 울안이라고 해야 두어뼘기의 남새밭이 있는 조그마한 공지였다. 간마루에서 디딤돌을 짚고 울안에 내려선 허헌은 검푸른 잎이 마가을 해빛을 걸탐스럽게 빨아들이며 번들거리는 무우밭 한가운데서 조순옥과 남동생 순남이가 이마를 맞대다싶이 하고 마주앉아있는것을 보았다. 눈이며 입이 쪼아박힌듯해서인지 반듯한 이마며 오뚝한 코가 눈에 띄게 방정해서인지 여간만 다기차보이지 않는 조순옥의 얼굴이 해빛을 머금은 아지랑이에 감싸인듯 부드럽게 보였다. 동생을 마주보는 그의 얼굴은 사랑에 넘쳐있었으며 행복스러워보이기만 했다. 간지고 오돌차기만한 성미인줄 알았던 순옥에게서 이렇듯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표정을 발견하게 된 허헌의 마음은 여간만 유쾌하지 않았다.

《로동은 이 세상에서 에, 에, 지일, 지일, 에.》

순남이는 손에 쥔 책을 들여다보며 더듬거리면서 읽고있었다.

《애두, 참 지일이 뭐냐? 호호...》

조순옥은 뿔아놓은 무우옆에 앉아 푸른 잎을 따내서 광주리에 담다말고 대굴대굴 굴듯이 허리를 꼬부리고 웃었다.

《제일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하지 않던.》

웃음을 참기 어려워하며 이렇게 말한 순옥은 애써 정색을 지었다.

《내가 외울테니 따라 읽어봐.》

순옥이는 노래하는듯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동생의 손에 들려있는 책의 내용을 뜬금으로 외웠다.

《로동은 이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다.》

순남이는 책을 내려다보지는 않고 웃음뎀 누이의 얼굴을 행복한 눈길로 바라보며 되뇌었다.

《로동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아야 한다.》

누이가 외우는 말을 이번에도 반복하고난 순남이가 의연히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순옥에게 물었다.

《누이, 병삼이가 그러는데 로동자는 꼴치래. 내가 제일이라고 하니까 천치라는거야. 꼴치니까 학교두 못가구 배속에서 꼬르륵소리가 난다는거야. 제일이면 왜 거지라는 말을 듣겠느냐는거야.》

《그건 병삼이가 몰라서 그래.》

순옥이는 무우무지속에서 그중 단맛이 날듯싶은것을 하나 골라서 껍질을 벗겨 쥐여주면서 동생을 납득시킬수 있는 그럴듯한 말을 찾는듯 잠시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동생이 무우를 절반쯤 씹어삼켰을 때 순옥이는 그 노래하는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책을 다 공부하게 되면 너도 로동자가 제일이라는것을 알게 돼. 난 석달에 그 책을 다 따루외웠는데 넌 공부를 시작해서 한달이 넘는데 이제 겨우 몇장을 공부했니?》

순옥이는 동생의 손에서 수첩장 크기만한 그닥 두툼지 않은 책을 달래서 책장을 번졌다.

《겨우 다섯장을 공부했어. 아버지두 로동자였구 누이두 로동자구 병삼이의 만형님 병일아저씨두 로동자인데 로동자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것을 알고싶지 않니?》

분명히 동생을 나무라는 말을 하고있는데 목소리는 말할것 없고 얼굴에도 순남이를 귀해하는 상냥한 빛이 어려있었다.

《너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나니?》

실한 무우 한개를 계눈감추듯한 순남이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어리둥절한 기색이었다. 란숙한 과일을 련상케 하는 오누이의 자별한 관계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순옥의 다심하고 부드러우며 세심한 마음씨에 취해버린 허헌은 간마루턱에 걸터앉아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알지 았구. 사진 있잖아. 아버지가 징용갈 때 생각이 나. 어머니는 울었지. 난 어떻게 했더라.》

《넌 인사를 드렸어. 동네사람들은 어린게 용타구 칭찬을 하시구. 아버님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고 앓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아버님은 아직 돌아오시지 못하고있어.》

마가을 태양에 건듯 구름이 낀듯 순옥의 얼굴에 한순간 그늘이 졌다. 그러나 그는 곧 밝고 부드러운 웃음을 되살려가지고 뒤말을 계속했다. 순남이가 공부를 잘해서 방금 손에 쥐고있던 책을 리해하게 되면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못했으며 왜 지금 하루에 두끼도 변변히 먹지 못하게 됐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놈들도 왜놈들하고 같애. 로동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고 로동은 신성한데 미군도 로동자들을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천시하는 자본가군대거든.》

자기네 일가를 빈궁과 불행의 나락속에 떠밀어넣은 침략자들을 어떻게 웃음지은 살뜰한 표정을 짓고 이야기할수 있는지 허헌은 리해하기 어려웠다. 순옥이네의 령락과정을 허헌은 류영준과 마동삼한테 들어서 알고있었다.

부지런하고 눈썰미있는 목수인 아버지가 이악하게 노력을 해서 집안사람들에게 밥술이나 떨구지 않고 먹였다고 한다. 아버지의 목수일솜씨를 탐낸 일제놈들이 그를 징용으로, 향방도 알수 없는 먼곳으로 끌고가자 일가는 빈궁의 밑바닥으로 떨어져내리기 시작했다. 조순옥은 학교를 그만두고 방직공장의 살인적인 로동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광복은 이 일가에 더 큰 불행을 안아왔다. 일제놈들은 세식구가 목숨을 붙이고 살던 공장을 파괴하고 달아났다. 그래도 자치위원회가 공장을 관리운영할 때는 얼마간의 천을 생산하여 하루 세끼 밥을 먹을수는 있었다. 말로는 도저히 그 곤궁상을 표현할수

없는 지금의 기아생활이 시작된것은 공장자치위원회가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여 미제놈들이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였다. 그런데다 미군사령부는 《적산》이라고 해서 공장을 몰수해버렸다. 천수백명의 종업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대군속에 휘말려들었다. ...

조순옥이 동생의 손에 다시 쥐여주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타이르는 그 소책자에는 남조선의 로농대중이 기아의 나락속에 굴러떨어진 원인이 알기 쉽게 해설되어있는 모양이었다.

《로동자가 제일인 세상이 정말 오나? 그땐 나두 공부를 할수 있구?...》

《온다는데두.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있지 않니.》

동생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조로 순옥이는 말했다.

《나도 누이가 왜 싸우는지 알아. 그렇지만 미국놈들은 총을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하나? 누이랑, 병삼이 형님이랑 싸워두 이기지 못하문 난 공부를 못하지 않아.》

순옥의 말이 미덥지 못하거나 정녕 공부를 못하게 될가봐 근심이 되어 하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어리광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허헌은 간마루턱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의종은 오누이에게 다가갔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불행한 이 집에서 뜻밖에 알게 된 그들의 행복에 뭇인가 자기도 보탬을 주고싶었던것이다.

다가오는 허헌을 본 순옥은 무우잎을 따던 식칼을 광주리안에 넣고 오금을 펴며 일어섰다. 순남이도 몸을 일으키는데 얼굴에는 누이의 부드럽고 자심한 사랑을 즐기던 웃음이 아직도 얼마간 어려있었다. 허헌은 자기부터 오금을 꺾고앉으며 오누이를 두팔로 그러안듯 해가지고 량옆에 앉혔다. 순남의 손에 들려있는 손때묻은 소책자를

손에 들고 몇장 번져보았다.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성을 알기 쉽게 해설한 책이었다. 광복직후에 대학생이 공장에 나와 운영했다는 야학이나 독서회의 교재로 리용하던 책인 모양이었다.

《순남이는 로동하는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세상이 오지 않을가봐 걱정하는데 그런 세상은 반드시 온다. 북조선은 벌써 그런 세상으로 되었다.》

누이에게 응석을 떨던 란만한 웃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순남이의 얼굴에는 엄엄한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진지한 빛이 어려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겠는가. 할아버지가 건넌방에 들기 전부터 집에 어떤 사람이 들었는가 하는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되며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더욱 안된다는것을 누이한테 여러차례 다짐받은 순남이었다. 그런데다 엄엄해보이는 늙은 할아버지가 집에 몸을 붙인 후에는 빈민촌에서 날과람있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형님들이 자기네 집을 밤낮으로 지키는것을 순남이는 알고있었다. 얼마나 큰일을 하는 높은 선생님이면 빈민촌이 온통 떨쳐나 지켜주고 빠스형마차로 모시고 다니겠는가. 바로 그 범접하기 어려운 선생님인듯싶던 할아버지가 누이의 말이 옳다고 하는것이다.

《북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었다. 로동계급을 나라의 맏아들이라고 한다. 로동자들의 아들딸들이 대학생이 돼서 새로 선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있다. 통일이 되면 남조선도 북조선처럼 로동자의 아들딸들이 중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것이다. 평양에 가서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도 생기게 될것이다. 그래 순남이 생각엔 어떠냐? 평양에 가서 대학생이 되고싶은 생각이 없냐?》

선망으로 해서 불타는듯싶은 까만 눈동자며 흥분으로 해서 벌거우리하게 상기된 오돌찬 얼굴을 허헌은 부드러운 눈길로 이윽히 들여다봤다.

《그렇게 되자면 공부를 해야 한다. 누이는 힘든 일을 하면서 석달에 그 책을 다 암송했는데 순남이는 한달에 몇페이지? 그것도 제일이라는 제자를 몰라서 지일이 뭐냐? 제일을 지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평양에 가서 대학생이 될수야 없지 않나. 허, 허, 허...》

허헌은 순남이의 등을 다독이며 오랜만에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나두 석달에 따루올래요. 할아버지, 이제 보라요! 내 따루외지 않나.》

《나도 순남이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순남이에겐 그 책이 좀 어려울수 있지만 모르는것은 누나에게 물어보면 되지.》

허헌은 몸을 일으키며 무엇이라고 사례의 말을 하려는듯싶은 순옥이를 웃음이 비낀 눈길로 내려다봤다.

《나는 오늘 순옥이한테서 참으로 좋은 측면을 발견했소. 그것은 사랑할줄 안다는것이요. 사랑할줄 아는 처녀가 투쟁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다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나는 얼마전에 영명한 스승의 가르치심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고계셨소.》

허헌의 가슴속에서 초가을 해빛이 눈부시던 레성강가에서 체험한 희열과 흥분이 설렸다. 장군님의 존함을 들면서 이야기하면 순옥의 감동은 더없이 클것이며 그이의 심원한 사상을 더욱 깊이 리해하게 될것이지만 허헌은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자기의 신분을 지금은 로출시키지 말아야 했다.

조급하게 사색을 이어가던 머리가 한결 거뭇해진 흥그러운 심정으로 허헌은 자기의 방으로 돌아왔다. 점심후에 지난밤을 모대기며 새우다식이 한 잠을 봉창하려고 잠시 자리에 누워있었다. 미닫이밖의 안채쪽에서 순옥이 어머니의 지청구소리가 들려와 허헌은 눈을 떴다.

《열두살이면 이제 험이 들 나이인데 왜 이렇게 에미의 속을 썩이니? 값을 후하게 줄테니 청피무우를 갖다달라구 한다고 네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계집애는 늘 밖에 나가 살지, 넌 책을 들고 시간가는줄을 모르지. 너도 저녁거리가 떨어졌다는것을 알지 않니?…》

《이제 간다는데두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돼요.》

어머니의 독촉을 안타까와하는 순남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다.

《이제 간다는게 뭐냐? 이렇게 놔두면 무우가 말라서 근수가 떨어지지 않니. 얼른 갖다와서 공부를 해라. 책이야 근수가 떨어지는것도 아니잖니. 어머니의 속을 그만 태우구 이제 일어나거라.》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된다잖아요. 대학생이 되자면 난 공부를 해야 해요.》

《너 이제 뭐라고 했니? 대학생? 끼니도 에우지 못하는 집에서 소학도 아니구 대학을 다녀? 네 누이년이 또 바람을 불어넣었구나.》

곤궁한 살림에 치여서 악에 받치고 성미가 거칠어진 순옥이 어머니의 눈물에 젖은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이 에미의 속을 이렇게 썩이겠니?》

허헌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몇번 그렇게 한것처럼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순남이의 꿈을 지켜주고싶었다. 미닫이를 열고 순옥이 어머니를 불러 쌀 뒤말 살수 있는 돈을 내주었다.

《이것으로 낱알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나한테도 이 집에서 먹는것과 똑같은 음식을 주십시오. 점심도 따로 끓이느라고 하지 말고.》

빈민촌사람들은 요즘처럼 해가 짧아졌을 때는 대체로 아침저녁 두끼로 허기진 배를 달래곤 했다. 순옥이네도 두끼로 연명했다. 허헌에게만은 미리 들여놓은 식비가 있어 점심상을 차려주곤 했다.

순옥이 어머니는 자기 손에 쥐여준 돈을 내려다보다 기겁을 해서 검은테안경을 건 손님을 쳐다봤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한테서 돈을 받는다고 순옥이년이 양탈인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순옥이가 알면 야단을 또 하겠는데 무우를 팔면 낱알을 바꾸어올수 있으니 걱정마십시오.》

《무우 한짐으로 낱알을 바꾸면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방세로 치고 받으십시오. 순남이는 공부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을 생각해야 할 자라는 아이인데 공부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넌방할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고있었던 모양인 순남이가 미닫이를 열고 꾸벅 절을 했다. 소년의 얼굴에서는 기쁨과 고마움이 한껏 빛나고있었다.

석양빛이 사위여가는 이날 늦은 오후였다. 아직도 아귀짓지 못한 사색을 쫓으며 뒤울안을 거닐던 허헌이 방에 들어와 잠시 쉬고있는데 안방에서 두런거리는 사나이의

나직한 말소리가 들렸다. 허헌이 이 집에 몸을 붙인후 찾아오는 이웃도 없고 경비를 서는 로동자들도 토방밑에 와서 순옥의 지시를 받고 돌아서는것이 보통인데 누가 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간마루를 건너오는 발자욱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마동삼의 말소리가 미단이밖에서 들렸다.

《자넨가? 들어오게.》

마동삼은 미단을 열고 방안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 순옥이 어머니에게 주었던 지전장이 들려있었다. 그는 손에 든 돈을 방바닥에 놓으며 말했다.

《선생님에게 무슨 돈이 있겠다고 자꾸 내놓습니까? 있다면 비상시 써야 할것이겠는데 그걸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얼마간 내봤으니 이 집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마동삼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허헌에게 물었다.

《오늘 밤에 김규식선생을 만날수 있을것 같은데 시간을 낼수 있으십니까?》

허헌은 좌익력량의 행동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 김규식과 마주앉을 기회를 마련해보려고 애써왔다. 김규식이 감시를 받고있으며 전화가 도청당하고있을것은 뻔한 일이여서 원썩놈들의 눈에 띄지 않게 련계를 맺어야 할것인데 허헌은 그런 길을 갖고있지 못했다. 그래 할수 없이 마동삼을 통해 성시백에게 부탁했다. 그 부탁이 오늘에 와서야 실현될수 있게 된 모양이다.

《지금은 맞추어놓은 시간이 없네.》

《그럼 밤 8시에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동차를 갖고올테니 여기 사람들은 동원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김규식과의 상봉은 삼청장에서 멀지 않은 운현궁부근의 퇴락한 기와집에서 이루어졌다. 허헌은 김규식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우선 미군사령부에서 배후조종하는 《좌우합작》에 어째서 자기를 끌어들이는가고 점잖게 따지고들었다.

당황할줄 알았던 김규식은 조금도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란 원래 뒤가 더 깊은 법이니 일이 성사된 다음에 말하려고 했다고 했다.

김규식을 만나려고 한것이 그 무슨 화풀이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던것은 아닌것만큼 허헌은 미군사령부에서 배후조종하고 리승만이 강박을 들이대는 《좌우합작》과 같은 일에 앞으로는 일체 자기를 개입시킬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오금을 박고는 말머리를 돌렸다.

허헌은 김규식을 민족자주를 위한 보람찬 위업에 여생을 바치게 하고싶었다. 아직 입밖에 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쏘련군이 머지 않은 앞날에 북조선에서 철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평양의 노력에 의해 민족대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든 때 남조선의 량심적인 정치인들은 마땅히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김규식은 진정이 담긴 허헌의 말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것이였다. 아직 검은 빛이 날지 않은 눈이 무거운 생각으로 해서 더욱 검게 보이기는 했지만 얼굴에 비낀 기색은 허헌의 말을 숫제 무시해버린 온후한 학자의 표정을 유지하고있을뿐이였다. 마침내 김규식은 북조선에서 쏘련군이 철수한다는것은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미쏘랑국은 저희들의 국익으로부터 출발해서 조선을 분렬시켰는데 어떻게 소련이 조선을 통일국가로 만들 생각을 할수 있겠소?》

김규식은 장죽을 빨며 여담을 하듯이 수백년래의 소련(혁명전에는 제정로씨야)의 령토확장정책을 떠염떠염 이야기했다.

《내정에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있었지만 로씨야의 대외정책은 사실 오늘까지도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은 로씨야가 남쪽으로 령토를 팽창하는데서 관문과 같은 위치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에 발을 붙이는데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군대를 철수시키겠습니까?》

김규식은 허헌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기로 작정한게 틀림없었다. 30여년간 빠져린 실패와 좌절을 수없이 체험하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가장 가혹하게 작용하는 령역이 곧 정계라고 생각하게 된 김규식은 허헌의 말을 믿을수 없었던것이다.

허헌은 회의적인 인간으로 되어버린 김규식을 가련하게 여겼으며 그가 앞으로 민족을 위해 그 무슨 큰일을 할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다.

《난 우사의 의심이 섭섭하오. 이 허헌이란 사람이 그렇게 허망한 늙은이 같소?!》

허헌은 끝내 노여움을 보이려고야말았다.

《극인의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말씀하고계신다는거웨다. 현하 조선은 념원이나 희망이 용납될수 있는 고장이 아니웨다. 소련은 최근에도 러순이나 중장철도같은 크지 않은 리익을 얻는 대가로 세계의 최대의 동맹자로 될수 있는 중국당을 저버렸는데 이런 소련이 저희네 군대를 북조선에서 철수시킨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수 있겠소?》

《일어날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비범한 정치가가 있을수 있지 않소? 난 평양측의 노력에 의해 쏘련군이 철수한다는 말을 들으면 남조선에서도 미군을 철수시킬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할줄 알았소. 섭섭하오.》

《이런 문제는 확실한 근거를 쥔 다음에 일을 도모해야 할것이요. 믿을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얼굴을 붉힐것 없이 우리 좋은 낮으로 헤여집시다.》

허헌은 김규식에 대한 환멸을 안고 한강다리를 다시 건넜다.

허헌은 괴로운 생각에 짓눌려 빈민촌의 질적거리는 실골목을 쫓어나갔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걸었다.

《여기 잠간 계십시오. 제가 먼저 가보고 오겠습니다.》

마동삼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야 허헌은 얼굴을 들었다. 순옥의 집이 분명한 거뭇한 형체인 외딴문안에서 불빛이 얼른거리고 여러 사람들이 오고가는게 어렴풋이 보였다. 밤에는 말할것도 없고 낮에도 빈집처럼 사람들의 래왕이 적은 집에 무엇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들었는가. 되돌아온 마동삼이 허헌에게 짧은 말을 한마디 했다.

《순남이가 다리를 상했습니다.》

무우짐을 지고가다 다리목을 빠지 않았으면 길에서 넘어져 상처쯤 입었으리라고 허헌은 생각했다. 그런데 마동삼의 얼굴기색은 자못 심각하고 목소리도 심상치 않은 그 무엇을 느끼게 했다.

《많이 상했나?》

《미국놈의 자동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허헌은 앞으로 내짚으려던 걸음을 문뜩 멈추었다.

《다리가 부러지다니 왜? 무우짐을 지고가는것을 내눈으로 봤는데…》

무지막지하게 조선사람을 마구 깔아뭉개는 미국놈들이기는 하지만 무우짐을 지고가는 소년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분지를수는 없지 않은가.

《리병남선생도 와계시고 류영준위원장도 와있으니 이제 가면 자세한것을 알수 있을겁니다.》

마동삼은 더 말을 잊지 않고 앞에 서서 성큼성큼 걸었다.

정말 외딴문안에 들어서는 허헌을 리병남이 토방에서 내려서며 맞이했다. 허헌과 리병남이 인사의 말을 나누는 말소리를 듣고 류영준이 급한 걸음으로 안방에서 나왔다. 그는 너무나 억이 차고 기막혀 말을 더듬으며 순남이가 일생 불구의 신세를 면할수 없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무우를 판 돈을 주머니속에 넣고 순남이는 집에 돌아오고있었다. 너무나 허기져 눈앞이 어질거렸지만 저녁거리를 걱정하던 어머니를 생각해 전차도 타지 않고 한강다리를 향해 걸었다. 서울역전의 번잡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입안에 술을 쏟아놓으며 쫓차를 몰고오던 미국놈이 배를 그러안고 비칠거리며 걸어오는 소년의 모습이 우습강스럽게 여겨졌던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안주감으로 씹던 초콜레트를 던졌다. 순남이는 발앞에 떨어진 초콜레트를 주어서 자기를 모욕한자들을 뒤쫓아가며 온 힘을 다해 내던졌다. 뒤따라 자동차를 전속으로 몰고오던 미군장교놈이 저희들의 《호의》에 반항해나선 조선소년에게 차를 들이몰았다. 순남이는 날쌔게 몸을 피하기는 했지만 한다리를 미처 빼지 못했다. 자동차는 다리를 짓뭉개며 타고넘었다.…

방안에서 순옥의 애절한 울부짖음소리가 튀어나오고있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원쑤를 절규하는 목소리, 동생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통분하고 절통하여 원쑤를 저주할 말을 찾지 못해 몸부림을 치는듯한 날카로운 음성... 살뜰하고도 부드러우며 행복한 눈매로 동생을 마주보며 밝게 웃던 순옥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변했겠는지 허헌은 상상할수도 없었다. 문득 온후한 학자의 품위있는 모습으로 변하던 김규식의 얼굴이 눈앞에 비껴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을 절규할 말을 찾지 못해 몸부림치며 원쑤를 갚겠다는 조순옥이, 아직도 미국에 의거할 생각인 김규식, 누가 더 강점군의 본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있는가? 광복후에야 투쟁의 철리를 깨달은 나 어린 녀공 조순옥이 더 정확하게 깨닫고있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데도 김규식이 남조선정계의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정객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허헌은 김규식을 이 자리에 끌어다 앉혀놓고 조순옥의 웨침을 듣게 하고싶었다.

《다리를 상했으면 수술을 받게 해야지 여기에 눕혀두면 어떻게 하오?》

허헌이 리병남, 류영준을 마주보며 물었다.

《리박사선생도 그렇게 할것을 권하는데 순옥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다니 왜?》

《그 미군장교놈에게 기어이 사죄를 받아내겠다는겁니다.》

《서울에 미군장교가 얼마나 많다구 그놈을 찾아내겠소?》

《행인들이 격분해서 그 장교놈의 자동차를 멈춰세워가지구 몇글자 써놓고 가게 했습니다. 순남이는 동통으로 해서 정신을 잃으면서도 이 종이조각만은 쥐고있었구...》

류영준이 치마끈끝에 돌돌 말아넣었던것을 허비여내서 허헌에게 내주었다. 허헌은 그것을 받아들고 방안에 들어가 등불밑에서 조심스럽게 폈다. 검붉은 피와 새까만 땀에 아직도 눅눅하게 젖어있는 수첩에서 뜯어낸 손바닥만한 종이장...

허헌은 미국놈들의 모욕에 항거한 조선소년을 치여죽일 잡도리를 하고 자동차를 내몬 미군장교를 둘러싸고 격분해서 웨치며 주먹을 내두르는 소란스러운 노성이 들리는것 같았으며 증오로 해서 일그러진 얼굴들이 눈앞에 보이는것 같았다.

순남이는 어떻게 되어 전신에 퍼져가는 참을길 없는 아픔으로 의식을 잃으면서도 이 자그마한 수첩장을 움켜쥐고있었을까? 언제나 헌털뱅이를 걸치고 채전농사를 짓고 남새집을 지고 시내에 들어가곤 하던 소년이 사죄를 받아낸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요구하는 기상이 얼마나 존귀한것인지 알고있어 이 종이장을 쥐고있었을까? 도저히 그럴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순남이는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만은 잊지 않고있었을것이다. 미국놈들은 원쑤다. 아버지를 끌고간 왜놈들과 같은 원쑤다. 이런 놈들한테 업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복수해야 한다.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순옥이도 물론 민족의 존엄을 걸고 이런 결심을 한것은 아닐것이다. 자기네를 기아의 빈궁속에 밀어넣고 사랑하는 남동생의 그닥지 않은 자존심을 짓밟개버리려고 자동차를 몰고 달려든 미군장교를 용서할수 없을뿐일것이다. 그러나 허기진 배를 안고있으면서도 초콜레트를 주어서 되던진 순남의 그 기개는 얼마나 장한것인가. 남동생이 당한 모욕, 조선사람을 내버린 고양이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미군장교의 만행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순옥이의 결심은 얼마나 훌륭한것인가! 조선의 정치인이라면 바로 이런 기개와 결심을 지지하고 발양케 해야 할것이 아닌가.

눈을 아프게 찌르는 피와 땀에 젖은 종이조각을 등이 곳곳해지는 듯한 긴장을 느끼며 들여다보는 허헌의 눈앞에 미군장교의 비행을 절규하는 수백명 군중의 격노한 모습이 떠올랐다.

자동차번호, 군사칭호, 이름은 존 버턴, 미군장교놈은 흥분하고 격노한 군중에게서 한시바빠 벗어나려고 비웃음을 띠운 빈정거리는 얼굴로 수첩장을 뜯어 몇글자 휘갈겼을것이다. 조선사람의 분격을 하찮게 여기는 그 장교놈의 오만성을 내버려두어야 하는가?

허헌의 머리에서 지난 며칠간 모색에 다쫓겨오던 초조와 불안이 세찬 바람에 훑날리고 눈앞이 탁 트이는것 같았다. 바로 이것이다!

열두살짜리 순남이로부터 시작해서 순옥의 강경한 태도, 분격한 수백명의 군중... 미제침략군이 조선인민에게 어떤 불행을 들썩우고있는지 눈앞에 본 그때에는 민족적분격이 폭발한다. 조선인민은 민족적존엄에 손상을 입혔을 때 분연히 떨쳐난다. 돌이켜보면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민족의 대중투쟁도 모두 민족적분격의 폭발로부터 시작됐던것이다.

허헌은 래일 회합에서 내놓을 명백한 해답을 찾았다.

그는 피와 땀에 젖은 수첩장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조끼주머니에 밀어넣었다. 그는 리병남과 류영준에게 순남이를 어떻게 해서든 오늘밤중으로 남대문부근의 큰 병원에 입원시켜 수술을 받게 해야 하겠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이 순옥이에게 고집을 버리라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류영준의 부탁이었다. 리병남까지 이 빈민굴에 데려온것을 보면 조순옥의 고집이 여간만 완강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건 걱정마시오.》

허헌은 혼연히 승낙했다. 그는 두 의사를 뒤에 달고 순남이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누टे기이불을 들치고 아직도 검붉은 피가 군데군데 엉켜붙은 소년의 새까맣고 가냘픈 손을 꼭 쥐었다. 순남이는 무거운 눈시울을 가까스로 들고 허헌의 얼굴을 말끄러미 마주봤다. 심한 출혈로 해서 정기를 잃었을줄 알았던 소년의 눈은 티없이 맑기만 했다.

순남이의 눈이 그렇게도 맑은것은 자기의 일신에 어떤 재난이 덮쳐왔는지 알지 못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순남이를 위로해줄 생각으로 안방으로 건너갔던 허헌은 비감에 젖은 말을 할수가 없었다. 그는 아직도 검붉은 피가 엉켜붙은 순남이의 조그마한 손을 찾아쥐고 힘주어 말했다.

《용타! 네가 수첩장을 끝까지 쥐고있은것은 대단한 일이다. 너는 앞으로 대학생이 될수 있다. 네가 대학생이 될수 있게 우리는 반드시 제구실을 하겠다!》

허헌의 이 말은 단순히 순남이를 격려하려고 한 말은 아니였다. 비록 의식적인 행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열두살 어린 나이에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고 할수 있는 순남이와 같은 소년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가 공부를 하겠는가. 희망과 기쁨으로 까만 눈동자를 빛내던 순남이가 눈시울을 내려감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고마와요. 할아버지.》

소년의 눈귀에서 한줄기의 눈물이 먼지를 씻으며 굴러내렸다. 거지라는 말을 들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업수임을 받던 자기와 같은 노동자의 자식에게 그렇게도 희망찬 래일이 차례졌다고 생각하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는 모양이었다.

《넌 우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내가 하라는대로 너는 꼭 해야 한다.》

허헌은 순옥이를 이끌고 자기의 방으로 건너왔다. 그는 지도일군의 존엄을 갖고 순남이를 미군사령부에서 머지 않은 한 병원에 입원시킬것과 래일은 아침부터 하루종일 시내에 들어가 있어야겠으니 수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튿날 아침 허헌은 제일먼저 백남운을 찾아갔다. 광복전부터 가깝게 지내는데였지만 금천에서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전해준 후부터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수 있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허헌은 순남이가 의식을 잃으면서도 움켜쥐고있던 검붉은 피가 말라붙은 쪽지를 백남운에게 내보이면서 자기가 생각한 투쟁방안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검은때와 검붉은 피자욱으로 얼룩진 쪽지를 들여다보며 허헌의 말을 주의깊이 들은 백남운은 그가 생각해낸 투쟁방식, 구호... 모두에 열렬한 찬의를 표시했다.

《미군 나가라!》

이번 투쟁에서 추켜들어야 할 구호는 바로 이것이어야 하며 반미구국전선에 망라된 남조선좌익은 바로 이 구호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허헌은 힘주어 말했다.

미군사령부가 들어앉은 미색고층건물은 2~3층짜리 불품없는 서울의 신문사들을 굽어보며 위엄있게 솟아있었다.

현대미를 자랑하는 이 건물에 위압을 당하며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개의 신문사들이 늘어서있다고 하여 미군사령부가 자리잡은 이 거리를 신문가라고 했다. 신문사들에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 양으로 현관앞에 게시판을 세우고 거기에 신문과 사진들을 붙여놓군 했다.

이날따라 그 게시판앞에 붙어서서 신문과 사진을 들여다보는 청년학생들이 유난히도 많았다. 4~5명씩 몰려서있는 그들은 어째서인지 그 무엇을 기다리는 긴장한 표정들이었다. 사령부현관앞에서 카빙총을 어깨에 걸치고 껌을 씹으며 거들먹거리는 보초도 현관의 회전문 량옆에 두다리를 벌리고 버티고 선 헌병들도 아무래도 미심쩍어보이는 이들에게 가끔 의혹의 눈길을 던지군 했다. 고동소리가 서울상공에 울려퍼지는, 이날따라 행인들이 류달리 많은 정오때였다. 신문사들사이의 어둑한 골목안에서 갈색비옷을 입은 청년이 뛰어나와 주먹을 내두르며 웨쳤다.

《미군 나가라!》

게시판앞에 붙어섰던 청년학생들, 골목안에서 쏟아져나온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삽시에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3~4명, 4~5명씩 어깨를 견고 미군사령부에 짓쳐들어가기라도 할듯이 사령부를 향해 육박해들어갔다. 그래도 병사랍시고 껌을 씹으며 오가던 보초는 어깨에서 총을 벗겨들고 격발기를 당겼으며 회전문앞에 뒤짐을 지고 버티고 섰던 《헌병》들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얼굴을 마주봤다.

청년학생들은 어깨를 견고 미군사령부앞도로에서 구호를 웨치고 원을 그리면서 맴돌기 시작했다.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긴급출동한 기마경찰대가 말발굽소리를 요란스럽게 울리며 달려왔다. 경찰들과 청년학생들사이에 처절한 혈투가 벌어졌다. 청년학생들은 송곳과 못으로 말의 엉덩이를 찔러 그우에 탔던 《검정개》(검은 제복의 경찰)를 포장길우에 떨어뜨렸으며 경찰은 방망이를 휘둘러대며 청년학생들의 머리와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피투성이가 된 청년학생들이 말잔등에서 굴러떨어진 경찰들과 맞붙어 싸우며 놈들에게 피를 뿌렸다. 결사적인 격투장에서도 이보다 더 격렬한 혈투를 볼수 없을것이다. 사령부의 창문이 하나 둘 열리기 시작했다. 이 참담한 혈투에 미쳐버린듯 흥분한 미군이 상반신을 창밖에 내놓고 소리를 치며 휘파람을 불면서 《검정개》들을 부추겼다. 청년학생들이 미국놈들의 조롱을 받으며 결사적인 항쟁을 계속하는것을 본 행인들이 투쟁대오에 뛰어들었다. 달리던 전차, 버스형마차에서 뛰여내린 젊은이들, 중년들, 거리를 헤매던 소년들이 겨레를 모욕하는 미국놈들의 야비한 조롱에 격분하여 고향을 치고 발을 굴렀으며 끝내는 격투장에 뛰어들어 《검정개》들과 싸웠다.

신문사의 집필실, 편집실에서 일찌기 들은적도 읽은적도 없는 청년학생들의 용감한 투쟁을 지켜보던 기자들도 신문사에서 뛰어나와 발정한 짐승모양 고아대는 미군이며 경찰의 만행을 필립에 담았으며 끝내는 웃도리를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러대는 기자들도 있었다.

《싸움이 붙었다!》

《미국놈들이 우리 사람들을 죽인다!》

삽시에 소문은 신문가주변의 거리에 퍼져나갔으며 신문팔이소년들이 이 소식을 온 서울시내에 비상한 속도로 날라갔다. 전차를 몰고가던 운전수, 자그마한 공장에서 수동기계를 돌리던 노동자, 점원구실을 하던 청년, 수학공식에 매달려있던 학생, 펜대를 놀리던 사무원,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서울중심에 서있는 미군사령부앞으로 달려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구슬픈 수난의 노래를 부르며 수천명의 행진대오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일대 란투장으로 변해버린 신문거리를 향해 막을길 없는 강물처럼 흘러왔다. 그것은 강점자들한테서 남편과 오빠, 어머니와 누이, 자식들을 빼앗긴, 그 무엇으로도 가셔낼수 없는 원한이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웅박힌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녀인과 소년, 청년들은 자기들의 가슴속에 사무친 원한이며 피타는 호소를 머리에 감은 수건, 손에 든 나무판, 머리우에 추켜든 프랑카드에 쫓아박듯이 썼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남편을 왜 죽였느냐!》

《아버지, 이 아들의 복수를 보시라!》

번화한 상가인 명동거리입구, 남대문시장, 백화점들에 모여있던 겨드랑이에 짝지발을 낀 한쪽다리가 없는 청년, 팔없는 사나이, 어머니에게 의지해 걷는 처녀... 그중에는 한다리를 잃고 하반신을 흰봉대로 감은 동생을 손수레에 눕혀서 밀고나온 조순옥이도 끼여있었다. 이 수난자의 대렬도 미군사령부를 향해 흘러왔다. 미군병사들이 입다버린

헌털뱅이로부터 시작해 교복, 작업복, 치마저고리, 양복... 차림새도 나이도 각각이었지만 그들이 미국놈들때문에 불구의 불행을 지닌 시민들이라는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곧 조선의 불행을 말해주고도 남는다는것을 알고있는듯 나무판도 들지 않았고 머리띠도 두르지 않았다. 다만 순옥이가 밀고가는 손수레에 열두살짜리 소년에게 이런 참혹한 불행을 안긴 미군장교 존 버턴, 부대대호, 재난을 당한 장소, 불행한 소년의 이름이 씌여있는 나무판이 꽂혀있었다. 강점군의 만행을 소리높이 고발하는 이 시위대렬의 머리우에서는 그들의 념원, 고발, 절규를 담은 몇폭의 프랑카드가 펄럭이고있었다.

《강점자의 만행을 보라!》

《사죄하라! 보상하라!》

《미군 나가라!》

구정물이 흐르는 청계천주변에 모여있던 실업자들과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 수천명이 신문가에서 싸움이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에 대렬을 짓고 발구름소리를 울리며 투쟁의 노래를 부르면서 처절한 피의 투쟁이 전개되고있는 미군사령부앞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머리우에서 펄럭이는 프랑카드에서는

《배울 권리를 달라!》

《공장을 노동자들에게!》

《미군 나가라!》

이런 글발이 분격한듯 웨치고있었다.

미군의 강점으로 해서 남조선땅에 덮씌운 전대미문의 재난과 불행이 드세찬 거류를 이루고 미군사령부를 향해 밀려오는것 같았다. 미군강점으로 해서 남조선인민들이 어떤 고통과 불행을 당하고있으며 그들의 피의 요구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수 있는 흐름이었다. 폭력을 위주로 하던 종전의 투쟁과 모든것이 달랐다. 시위대렬 그 자체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것이 너무나도 응당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신문거리라고 해야 도무지 한키로안팎의 길지 않은 차도는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수천의 시위군중으로 꽉 찼다. 신문가의 다방과 식당, 료정에 들어앉았던 신사들과 녀인들, 사무소의 사무원들도 시위투쟁에 공감하고 흥분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냈으며 마침내는 투쟁에 합류했다.

흰 위생복을 입은 의사, 간호원들이 빠스형마차, 택시 혹은 도보로 왕진가방을 들고 달려와 시위군중들속을 누비고 다니며 부상자들을 현장에서 치료했다.

허헌은 홍명희가 내준 민주독립당위원장실(조선일보사 2층)에 들어앉아 흥분으로 해서 불의 근육이며 손을 떨며 자신이 설계한 이 투쟁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희망이 어느만큼 실현됐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다만 뒤설레는 거리를 내려다보느라니 흥분과 열정, 투쟁의 희열이 가슴에 가득차 자신도 시위군중속에 뛰어들고싶은 걱정이 북받칠뿐이었다.

주먹밥을 함지에 담아 인 아낙네, 콩국을 담은 바께뜨를 들고 똥기적거리며 돌아가는 료리사들, 부상자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려는듯 이부자리를 이고 진 녀대학생들과 아주머니들, 지계군들이 수천의 시위군중속에서 얼썩거리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허헌의 눈앞은 불시에 뿌잇하게 흐려졌다.

좌익력량이 단결되면 일찌기 볼수 없었던 비상한 투쟁을 전개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그도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 감동적인 정경을 수없이 목격했다. 외세를 결코 이 땅에 두지 않으려는 조선민족의 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그는 눈앞에 보았다. 그는 안경을 벗어서 흐려진 알을 닦고 또 닦았다. 그는 언젠가 한번 주걱턱 하지가 불러서 올라가본적이 있는 미군사령부의 7층을 바라보았다. 만나자 곧 책상을 내려치며 싸우느라고 방안을 둘러볼 여유도 없었지만 어쨌든 극도의 사치를 다했다고 해야 할 호화로운 방이었다. 교만하고 괴팍한 하지는 지금 어떤 심정일것인가? 갈수록 시위자들의 함성은 드높아지고 규모는 확대되기만 하여 반미의 격랑이며 투쟁의 바다라고 해야 할 사령부앞거리를 내려다보는 그의 심정은 어떠할것인가?

《오끼나와의 영웅》으로 자처하는 하지이니 사령관의 체모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겠지만 틀림없이 미국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의 드세찬 기세에 경악과 당황함을 금치 못하고있을것이였다. 그에게서 인간적인 량심이나 사고는 기대할수 없다고 해도 감수성이란것은 가지고있을것이니 자신이 감행한 죄악에 몸서리를 칠것이며 앞으로 단선단정을 강행하자면 조선민족의 이 불굴의 의지를 상대해 싸워야 한다는것을 깨달았을것이다.

하지는 마치 우리안에 갇힌 맹수처럼 잔뜩 화가 치밀어올라 궁전처럼 호화로운 사령관실을 오가고있었다.

그는 사령부앞에서 수백명의 청년학생들이 결사적인 투쟁을 단행한 그 시각부터 미군의 심장부를 감히 위협할 생각을 한듯싶은 무모해보이는 시위를 지켜봤으며 붉은

창가림짬으로 지금도 시위자들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처음 시위가 급격히 확대될 때는 경찰이 서툴게 진압작전을 벌려 군중에게 피를 보인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령부소속 군인들의 조소와 야료, 휘파람이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생각은 말할것 없고 이것이 새로 탄생될 반미구국전선의 출범투쟁이라는것을 알수도 없었다.

그러나 전차와 버스형마차에서 뛰어내린 젊은이들, 길가던 중년, 심지어 신문기자들까지 란투장에 뛰어들 때 상복의 대하, 미군에게 팔다리와 눈을 빼앗긴 수난자들의 흐름, 일터를 잃고 학교에서 쫓겨난 실업자들과 학생들이 노한 과도모양 뒤설레며 미군사령부를 향해 밀려드는것을 보았을 때 하지는 이 소란스러운 《란동》이 미군의 남조선 《주둔》이 부당하다는것을 방불히 눈앞에 그려볼수 있게 하려는 시위이며 결국에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것을 입증하는 전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도대체 미국의 조밀한 정보망도 감촉하지 못한 이런 시위를 누가 조직했는가? 투쟁이란 혁명의 속성이라면서 극단적인 폭력행위에 매달리던 종래의 남로당의 투쟁방식과는 전혀 양상이 다른 이런 시위를 누가 조직했는가. 하지는 새로운 좌익세력이 등장한것 같아 밀려드는 불안을 물리치기 어려웠지만 시위의 양상으로 보아 선전적목적을 달성하면 해빛에 강서리가 녹아버리듯 스스로 물러갈것 같았다.

그는 해저물녘에 보복을 맹세하며 수치스러운대로 뒤문을 빠져나가 안해가 기다리는 경무대(일제시기의 총독관저, 후에는 역대 대통령의 관저로 리용하던 청와대)로 향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도 신문거리는 여전히 시위군중들이 차넘쳤다. 하지사령관은 이날도 뒤문으로 해서 사령부에 들어서지 않을수 없었다. 윤기흐르는 비단벽지, 여섯폭짜리 금박병풍, 조선의 국보중에서 선택한 두폭의 명화, 치렁치렁하게 드리운 붉은 창가림이 마가을빛을 가리워 천정에서 수정무리등이 눈부신 빛을 뿌리는 호화찬란한 사령관실에 들어섰다. 삼시에 신문거리에서 울려퍼지는 구호, 우렁찬 노래소리, 목갈린 성도자의 웨침이 그의 귀를 멍멍하게 만들었다. 하지는 색깔이 바래기 시작한 금발머리가 곤두설만큼 성이 꼭뒤편까지 치밀어올랐다. 표독스러운 노성을 내질러 부관을 찾았다. 지난밤의 《란동자》들의 동향을 보고하게 했다. 시위자는 더욱 늘어났으며 부상자들과 로약자들에게 시민들이 자진해서 그 수를 알수 없는 무수한 이불포대기와 모포들을 들고왔다고 했다. 부관의 말을 믿을수 없어 창가림의 한귀를 들고 사령부앞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분명히 시위대렬은 더욱 확대되어 수만에 이른것 같았다. 군용백화점이 자리잡은 신문가입구의 네거리로부터 시청앞광장에 이르는 포장도로는 누웠거나 올방자를 튼 룡성자들이 립추의 여지도 없이 짝 차있다. 적게 잡아 천여장은 될것 같은 이불포대기와 모포들이 여기저기에 무뚝무뚝 쌓여있는것으로 보아 부상자들과 로약자들이 마가을추위속에서도 포대기를 깔고 이불이며 모포를 덮는 호사를 거절하고 맨 포장도로우에 눕거나 앉아서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바구니며 광주리, 흰김이 서러오르는 바게뜨를 안거나 든 수백명의 녀학생들과 아낙네들이 아침식사를 나누어주고있다. 인도에는 이른아침인데도 백발의 늙은이, 로파, 중년의 아낙네와 양복차림의 사나이, 소년소녀, 아직 소학교 문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했을 어린애들... 줄잡아 만여의 시민아이들이 늘어서서 자기네 살붙이를 소리쳐 부르기도

하고 웃음지은 얼굴로 격려의 웨침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다가는 그 누구인가의 선창에 따라 주먹을 내두르며 노래를 불렀다.

하지는 차거운 전률이 등골을 줄달음쳐흐르는것을 느꼈다. 지난날 미국의 지배를 받아야 할 약자의 숙명을 지닌, 지지리도 가난하고 거기에다 죽음을 별로 대수로와하지 않는 우둔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을 어떻게 해야 사령부앞에서 쫓아버릴수 있겠는가? 서울중심가에 땅크를 끌어들이 수만의 인명을 짓밟개버릴수 없지 않는가? 그러지 않아도 서울의 통신사들과 방송들, 어제와 오늘의 석간, 조간신문들은 미군사령부앞에서 단행된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러한 대규모의 항쟁이 폭발한것은 지난 2년간 미군의 무지막지한 군사통치의 후과라고 통렬하게 비난했다. 맥아더사령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들어있지 않다면 도교와 지어 오끼나와의 군용방송까지 서울의 통신사들에서 날린 이 소식과 론평을 온 세계를 향해 대대적으로 전했을것이다.

자기들에게 감히 항거해나선 시위자들의 웨침이며 노래소리를 주걱턱을 일그러뜨리고 들으며 어찌할바를 몰라 폭신평신했던 주단우를 오가고있는데 문득 손기척소리도 없이 씨, 아이, 씨,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의 정치과장 노불이 마치 제집에 들어오듯 버젓이 사령관실에 들어섰다. 그는 자리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겁게 드리운 붉은 창가림의 한쪽을 들치고 룡성자들을 내려다봤다. 하지는 이때에야 감히 사령부앞에서 수만의 시민이 소란스러운 룡성을 벌릴 잡도리를 하는것도 알아내지 못한 분풀이의 상대자가 제발로 찾아왔다는것을 깨달은듯 정보일군들에 대한 평소의 조심성을 잊고 한마디 던졌다.

《거기서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것을 알지 못했소?》

《무엇이 있으리라는것은 알았지만 놈들은 <란동>개시시간을 극비에 붙인것 같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란동>을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조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령관각하도 나도 허헌을 좌익의 주도자로 내세운것을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을 개선하기 위한 술책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그 령감태기가 주도자로 나선후 화해할수 없을것 같던 좌익진영의 여러 정당을 단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허헌을 잘못 알고있었던것 같습니다. 허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은 알수 없지만 그는 종래의 <남조선란동자>들과는 다른 특이한 능력을 갖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령부앞에서 벌어지고있는 <란동>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미처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하지는 드센 주먹으로 정수리를 얻어맞은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기와 상대해 싸우게 된 대상이 고작해서 변호사의 퇴물이며 정치엔 문외한이라고들 하던 바로 그 허헌이란 말인가?

《로씨야인들이 배후조종을 하고있을것ियो! 나는 그 허헌이란자를 이 방에서 한번 만난적이 있소. 내가 불렀다는것을 알면서도 웃도 갈아입지 않고 입에서는 마늘냄새인지 그 코린내가 나는 김치냄새인지 역스러운 냄새를 풍기며 이 사령관실에 들어왔댔소. 사령관도 몰라보는 고약한 놈이었던 말이요. 그래도 그자를 회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활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온 남조선을 폭압의 란무장으로, 기아지대로 만든 당신이 무엇때문에 적선을 베풀려고 하는가? 주겠으면

인민위원회를 다시 내올 권리를 달라, 시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이런 말을 하는것이 아니겠소. 그자는 그때에도 분수없는 반항아였소.》

하지는 허헌을 진작 없애버리지 못한것을 후회했다.

《조종을 받든 주동적으로 조직했던 그자가 미국을 반대해나선 이상 그대로 둘수는 없소.》

하지가 끝이 없을듯싶은 녀두리를 하며 사령관실을 오가는데 정보기관요원이 사진기를 두개나 목에 걸고 방에 들어섰다. 노불의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노불은 치렁치렁하게 드리운 창가림을 얼마간 들어올리고는 대여섯대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촬영을 하게 했다. 그중에는 순남이를 손수레에 눕혀가지고 밀고나온 조순옥이도 들어있었다.

노불은 쏘파에 영뎡이를 붙이고 앉아 담배연기를 날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령관각하의 마음은 알만하지만 시위를 조직한 솜씨로 봐서 종전과 같은 탄압을 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할것 같습니다. 철저하고도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큰 위험이 조성될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앞두고 미군철거를 주장하는 대시위를 미군사령부앞에서 단행한것을 보면 상대가 간단치 않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는 사령부앞에서 벌어지고있는 《란동》이 유엔에 상정될 조선문제토의에 영향을 주게 되리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그 불품없는 옷주제에 검은테안경을 걸었던 령감태기가 워싱턴까지 소란스럽게 만들수 있다는것이 아닌가? 국무장관 마샬, 이제 곧 국방장관으로 발탁되리라는 웨드마이어, 그들은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의 무리와 같은 조선인들에게 시달리고있는 이 《오끼나와의 영웅》 따위는 백명이라도 수치스러운 패자의 구렁텅이에 던져넣을수 있는 인간들이다.

하지는 겨드랑이에 식은땀이 축축하게 고이는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에 앉아있는 노불에게 해결방도를 묻고싶지는 않았다. 노불은 조선사람들만이 아니라 미국병사와 장교들, 지어 자기도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있을것이였다.

하지는 자기가 거느리고있는 두뇌진에 의거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3

삼청장에 돌아온 김규식은 쓰러지듯 쏘파에 누웠다. 회의장이 깨져나갈듯이 고향을 치며 앞타를 두드려대던 아비규환의 소음이 아직도 귀청을 때리고 내려감은 눈시울에는 극도로 흥분되어 아귀싸움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의장인 자신은 어떻게 처신했던지 도무지 생각나지도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보려고 마치를 두들겨댔다는것외에 머리에 떠오르는것이란 없다.

올해의 마지막회의를 끝내버리려고 《과도립법의원》이란것을 개최한지 사흘째되는 오늘 오후였다. 그러니 공교롭게도 미군사령부앞에서 서울시민들의 대시위가 터진 바로 그날 개원한셈이였다. 김규식도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 수많은 감동적인 정경이 시위장에서 벌어지고있다고 해서 이날은 좀 일찌기 삼청장을 나서서 자동차를 룡성투쟁이 전개되고있는 신문거리를 바라볼수 있게 에둘게 했다. 곳곳에서 저녁끼니를 이고가던 아낙네, 김이 피여오르는 국을 바께쓰에 담아들고 가던 녀학생, 무엇인지 등에

지고가던 지계군... 그들을 저지하려고 앞을 막은 경찰사이에 싱갱이가 벌어지고있는 광경을 도처에서 목격할수 있었다. 경찰에게 무엇을 빼앗긴 모양인 파파늬는 로파가 고무신짝을 벗어 들고 포도를 내리치며 울부짖고있는 모습도 보였다. 아무튼 수많은 시민이 운집했다니 그들에게 먹이고 마실것을 나르자고 해도 보통 인력이 들지 않을것이였다.

김규식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는 겨레의 마음이 이렇게도 격렬하고 긴박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굽이 뜨거워졌으며 운현궁부근의 퇴락한 기와집에서 허허와 마주앉았을 때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떨쳐나서야 한다던 그의 말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사령부가 《과도립법의원》을 통해 목숨을 걸고 반미시위를 단행한 이 나라 겨레들에게 보복을 하려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김규식이 미군정청홀에 가설된 《과도립법의원》 회의장에 들어서서 개회를 선포한 직후였다. 미국에 충실한 친리승만계의 정객이며 군정청경무부에 있으면서 남조선전역을 민중의 뜨거운 피로 검붉게 물들인 립병옥이 손을 들어 긴급동의를 요구했다. 김규식이 미처 말을 할 사이도 없이 연단에 뛰어나와 마이크를 움켜쥔 그는 유엔에 보낼 결의안이란것을 우선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김규식은 이때에야 도발에 걸려들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도발에 걸려들었는가를 깨달은것은 그다음이였다. 립병옥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문건비슷한것을 앞에 놓고 냅다 읽어던지는데 김규식의 귀에 들어온 몇마디 말들을 두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은 도저히 이 자리에서 토의할 성질의것이 아니였다. 그는 유엔을 통해서만 조선문제의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그 이유를 털거하였는데 그것은 도저히 그대로 듣고있을수 없는 망발들이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사령부의 거대한 노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토착되었지만 북조선은 그렇지 못하다, 남북조선의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고 조선에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총선거는 반드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는 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남조선민중에게 민주주의를 선물한 미군정선상의 통일정부가 서울에 수립될것이다...

아무리 현실을 외곡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전도된 허위날조를 할수는 없을것이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의 포악무도한 만행을 절규하며 수만의 서울시민들이 미군사령부앞에서 룡성투쟁을 전개하고있는데 남조선민중이 민주주의를 선물받았으며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서울에 군정선상의 통일정부가 수립될수 있다니 이것이 도대체 제정신이 있어가지고 췌치는 소리인가?

김규식은 하지가 수만의 서울시민들의 반미시위로 해서 야기된 분분한 세론을 《과도립법의원》의 결의안을 내둘러서 눌러버릴 생각을 했다는것을 알았다.

만일 이 결의안이 통과되어 유엔에 발송되는 경우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는 미국의 배후조종에 의한것이 아니라 남조선 《과도립법의원》의 요구에 의해 상정된듯한 감을 줄것이다. 김규식의 등골로는 차거운 전류가 줄달음쳤다. 《과도립법의원》을 만들어낸 자기가 력사에 더러운 이름을 남긴 을사오적과 동렬에 놓일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꺾지르며 내달렸다. 김규식은 어떤 수를 쓰든 이 황당한 결의안이 통과되는것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의장마치를 두드려대며 립병옥의 제기는 군정청의

자문기관에 속하는 《과도립법의원》의 권능에서 벗어난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회의장은 벌써 의장의 의사가 전달될수 없을만큼 난장판이 돼버린 뒤였다.

립가놈의 도발에 격분한 의원들이 자리를 차고 뛰여일어나 주먹을 내두르며 웨쳤다.

《군정선상의 통일정부란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가 토착됐다니 도대체 무슨 수작이냐? 그래서 이 <립법의원>이 군정청의 시녀노릇을 하느냐?》

《경찰권을 쥐었으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줄 아느냐? 누구한테 지령을 받고 긴급동의를 했느냐?》

격분한 의원들의 반박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였다. 그러나 깡패처럼 머리를 치깁은 중키의 립병옥은 받은 목우의 네모진 얼굴을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를 연탁에서 끌어내리려는 의원들을 랭랭한 눈길로 내려다보고 서있다가 불쑥 몇마디의 말을 토해버렸다.

《빨갱이들이 수만을 동원해서 미국을 반대해나선것을 보지 못해? 미국사람들이 곤경에 처해있는데 민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립법의원>에서 이썸한 결의를 채택해서 나뻘게 뭐가 말이야!》

립병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결의안》을 들고 나오게 된 까닭을 스스로 드러냈다.

김규식은 의장의 최종권한을 행사할 결심을 했다. 그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망치를 두드리며 웨쳤다.

…림의원의 제안은 제한된 권능을 갖고있는 《과도립법의원》에서 토의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수 없는 미군정에 대한 평가, 앞으로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정부의 성격 등이 언급되어있어 이 《과도립법의원》에서는 심의할수 없는것이다. 《과도립법의원》의 권능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상정되어 극도의 혼란이 조성된 결과 회의를 계속할수 없다. 휴회를 선포한다! 김규식은 망치를 내던지고 의장석에서 내려섰다. 그의 뒤를 따라 수많은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났다.

김규식의 영문비서구실을 하는 맏아들 김진동이 발자욱소리를 조심하며 방안에 들어왔다. 소파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나직한 음성으로 물었다.

《몸이 많이 언짢으십니까?》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서라기보다 꼭 알려줘야 할 긴박한 일이 있어 방에 들어온것 같았다. 의원 윤명현이 김규식과 함께 삼청장에 돌아왔으니 《과도립법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모양이었다.

《좀 급한 일이긴 합니다만 정 몸이 언짢으시면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말을 지금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였다.

《무슨 일이냐?》

《민주독립당 전체 정치위원들의 명의로 아버님께 긴급면회를 요청해왔습니다.》

민주독립당은 홍명희가 성시백한테서 장군님의 민족자립의 리념을 전해듣고 그것을 정당의 골자로 삼아 최근에 출범시킨 정당이였다. 이 정당에는 리극로가 이끄는 건민회,

안재홍이 당수직을 차지하고있는 신한국민당, 민중동맹, 반리승만계의 재미한국련합위원회 등 다섯개 정당, 단체들이 망라되어있는 통일전선체형식의 정당이였다. 정치위원회는 위원장 홍명희, 부위원장 리극로, 위원 안재홍, 최동오 등 다섯명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그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날...》

김규식은 눈을 뜨고 아들을 시답지 않게 쳐다보았다. 홍명희는 《과도립법의원》을 만들어낼 때 문필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고려하여 관선의원으로 되게 해주었는데 제일 선참으로 거부성명을 신문에 내서 김규식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였다. 그래 그는 홍명희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긴 그때만해도 김규식은 《과도립법의원》이 조직되면 우선 정치범석방, 경찰기구전면개혁, 부일자(친일파)숙청문제들을 법화하여 시행하게 될줄 알았다. 그러나 김규식의 의도는 하나도 리행된것이 없었다. 부일자숙청법안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법화해보려고 했지만 군정청의 압력을 받아 법화는커녕 의안으로 상정시키지도 못했다.

홍명희는 《과도립법의원》이 오늘과 같은 형편에 이르리라는것을 그때에 벌써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아버님은 등원을 하고계셔서 아직 모르는것 같은데 오늘 오후 5시에 쏘련측이 쏘미량군의 동시철군을 제의했습니다. 그네들은 이미 철수준비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안은 그 성명으로 해서 온통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엉?》

김규식은 마치 뒤등에 불이 달린것처럼 쏘파에서 튀어일어나 앉았다. 그의 얼굴에 질게 어려있던 지친 빛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건 네가 직접 듣고 본 일이나?》

《5시에 북조선에 주둔한 소련군사령관이 소련정부의 위임에 의해 평양방송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나도 7시에 반복방송을 듣고 알았습니다. 장안의 분위기는 비서들을 내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호의를 준비하고있는 신문사도 있답니다.》

응당 흥분해야 할 일인데 어째선지 김규식은 또다시 절망과 상실의 회색운무속에 온몸이 잦아드는듯한 감을 느꼈다. 벌써 그의 머리에서는 《과도립법의원》에서의 소란스러운 사진같은것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구속력도 없는 문서장을 만들어내는 그따위짓을 쏘미량군철수와 같은 중대사에 대비할수는 없었다. 그의 눈앞에 문뜩 운현궁부근에서 만났던 허헌의 얼굴이 다가들었다. 그것이 사실이였구나! 극인은 어떻게 극비에 속하는 이런 중대사를 알수 있었는가? 지금은 어떻게 알수 있었는가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그렇게도 뜨겁게 선통해준 허헌을 아랑없이 대한 자기의 태도를 생각해야 할 때였다. 어떻게 돼서 일단 수궁이라도 해놓는 여유있는 태도를 취하지 못했는가? 자기는 벌써 이런 중대사를 예감할 능력도 없고 선통해주는 말을 받아들일 아량도 없는 고집스러운 늙은이가 돼버렸는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세의 추이에 둔감해졌는가? 정치인에게 있어 이러한 둔감은 민중의 버림을 받게 마련이여서 정계에서 조락될 징조라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김규식이였다.

《9시보도시간에 반복방송이 또 있다고 하는데 들으시겠습니까?》

김진동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군정청의 회의장에서 아귀다툼을 하는 사이에 벌써 통행금지시간이 머지 않은 9시를 가까이하고있었던것이다.

울적한 기분에 휩싸여있던 김규식이 머리를 가볍게 끄덕였다.

《좋을대로 해라.》

김진동이 라디오의 조절기를 평양방송에 맞추어놓았다. 서울방송의 가냘프고 애상적인 노래와는 전혀 색깔이 다른 창조적기상이 약동하는 씩씩한 선율이 갑자기 온 방안에 울려 퍼졌다. 윤명현도 방에 들어와 라디오앞에 앉았다. 김규식은 장죽을 빨며 귀를 기울이었다. 녀성방송원이 드높고도 뚱뚱한 목소리로 보도를 시작했다. 첫 순서가 쏘련군이 남조선주둔 미군에게 동시철거를 제안했다는 보도였다. 내용은 김진동이 이미 이야기한것과 비슷했지만 심장을 들때리는 그 뚱뚱한 목소리탓인지 김규식의 마음을 대번에 휘저어놓았다.

쏘련군사령부는 위임에 의하여 이 성명을 온 세계를 향해 공포할 영광을 지녔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인민이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민족통일정부를 세울수 있게 할 목적으로 쏘련군은 조선의 38°선 이북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쏘미간의 합의에 따라 38°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도 이 정당한 조치에 응당한 호응이 있으리라는것을 기대한다... 이런 전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몇개의 조항을 찍어가며 론증한 다음 쏘련군은 이미 철수준비에 착수했다는것을 특히 강조했다. 이것은 철수란 녀두에도 없는 미군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쏘련군은 일방적인 철수를 단행할 결심이라는것을 명백히 하는 말일것이다.

김규식은 만아들이 언제 라지오를 켜는지 알지도 못했다. 그는 사뭇치며 내닫는 거류와도 같은 정세의 흐름에서 자기가 멀리 뒤떨어져있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쩐지 자기는 검은 구름이 머리우에서 날고 세찬 바람이 락엽을 날리는 아아한 벼랑끝에 외롭게 서있는듯한 감이 들었다. 30여년간 이국의 지경을 수많은 넘나들며 거래를 위한 그 무슨 일을 한다고 동분서주해왔지만 결국에 이른것이 이런 벼랑끝이었던가?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여해주는 주장해야 할 정견도 갖고있지 못한 자신은 분명히 파멸의 심연가에 서있는 버림받은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엔 이런 궁지에 몰려도 용케 다시 솟아오르곤 했다.

빠리강화회의에서 쫓겨나다싶이 했을 때도, 망명정부의 수반의 자격으로 원동에 갔다가 추방을 당하는 창피를 당했을 때도 그러했다. 이런 좌절과 실패를 다 세자면 열손가락을 꼽아도 모자랄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내려쳐오를 틈새를 전혀 찾아낼것 같지 못했다. 그는 차갑고 세찬 바람이 늙은 자기의 몸을 후려치는듯한 감을 느끼며 장죽을 석대째 입에 물었다.

전화종소리가 그의 초조한 사색을 중단시켰다. 종소리를 울리는 전화기에 다가가는 윤명현에게 김규식은 짜증이 어린 말을 던졌다.

《나를 찾거든 당분간 삼청장에 없을것 같다고 하게.》

민주독립당 정치위원들의 면회요청을 넘두에 두고 하는 말이였다. 그들을 만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으니 면회를 거절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것이다. 윤명현은 대꾸없이 송수화기를 들었다. 김규식이 예측한대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는 홍명희였다.

《30분후에 다시한번 수고해주십시오. 그때쯤이면 돌아오실것 같습니다.》

윤명현은 김규식의 말을 쫓지 않고 이런 대답을 하고는 송수화기를 내려놨다.

《어째서 내가 말하라는대로 하지 않나? 30분후에 전화를 다시 하면 어떻게 하자는건가?》

김규식은 윤명현에게 발작적인 노기를 폭발시켰다. 윤명현은 스승을 납득시키기 시작했다.

《나도 삼청장에 돌아와서야 쏘련측에서 량군철수를 제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뜻밖인것처럼 제게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대한 시기에 문을 닫아매고 들어앉아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겁니까? 저는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찾아오겠다는분들을 막을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민주독립당은 영향력있는 중간과정치인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분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에 밝지 못한 지식인들이데 들을 말이 뭣이 있겠다고 그러나?》

《허헌선생이 정계에 밝은 정치인이여서 오늘과 같은 중대한 사변을 선통해줬습니까? 민주독립당의 그분들이 문필가, 학자들이 대부분인것은 사실이지만 지성의 대표자들인데 어째서 도움받을 일이 없겠다고 단정하십니까? 출중한 정치가는 평백성의 하찮은 말에서 정책을 찾고 사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윤명현의 론박에 김규식은 할말이 없었다. 천박하고 소란스러운것을 멀리하며 영문학과 종교의 세계에 곧잘 취하군 한 자기의 생활방식이 외계와의 교류를 차단해버려서 우물안의 개구리같은 정치인이 돼버린것 같았다. 언젠가 찾아왔던 정향명도 한발자욱만 밖에 나서면 민족자립력량을 편성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목적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를 탓하며 삼청장을 떠나갔다. 실지 그런 투쟁을 오늘 《과도립법의원》에 갈 때 보기도 했다.

《민중은 나를 령수급정치인으로 대한다는것을 알아야 하네.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령수급의 준비를 해가지고 나서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에겐 아무 준비도 없네.》

《그렇다고 담을 쌓고 이 삼청장에 앉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필가, 학자들과는 의사를 소통하기도 쉬우니 그분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쏘련측의 성명이 있는 후에 면회를 요청하는것을 보면 량군철거와 관련해서 의논하고싶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신의를 가지고 찾아오는분들이야 만나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나누고있는데 전화종이 또다시 주인을 찾았다. 윤명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김규식은 잠시 망설이다 대꾸를 했다.

《만나되 접촉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고 하계. 비공식접촉이라면 만날 의사가 있다고 말하계.》

윤명현은 갑자기 소심해진 스승이 민망스럽게 여겨진듯 젊음이 넘쳐나는 팽팽한 얼굴에 그늘을 지었다. 홍명희는 룡담이 섞인 말을 전과에 태워보내며 김규식과의 면담을 재촉했다.

《우사형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울줄은 몰랐소. 통금시간이 림박했으니 이러다간 사옥(조선일보사)에 갇혀서 밤을 새워야 할것 같소.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돌아오셨습니다.》

윤명현은 저쪽의 톤담에 웃음이 섞인 말로 대답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민주독립당어른들과의 접촉을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벽초(홍명희의 호)선생은 언제쯤 만나기를 희망하십니까?》

《우린 빠를수록 좋소.》

《그럼 래일 아침 9시로 하시죠. 라디오에서도 래일은 꽤칭한 날씨라고 했으니 그때가 좋을것 같습니다. 정치위원 다섯분이 다 오시겠습니까?》

《그건 그쪽에서 좋을대로 하겠소. 나와 부위원장 고루(리극로의 호) 이렇게 두사람이 정치위원회를 대표해두 좋구...》

《그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래왕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두분이면 정치위원회를 대표했다고 할수 있겠습죠. 그런데 선생님은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씀을 조심하시구 또 선생님들도 자유롭지 못할것 같으니 이 면회를 비밀에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년의 신문사사장이 그쯤한것을 모를것 같소? 그럼 시간은 아침 9시, 나와 고루 두사람이 삼청장에 가겠소.》

《알겠습니다. 정문에 말을 해놓겠으니 명함을 놓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도 장죽을 빨며 수제자의 말을 주의깊이 듣고있던 김규식이 면회시간을 지나치게 바투 정했다며 까박을 붙였다.

《저쪽에서 서두는데 이쪽에서 시간을 늦추면 오히려 선생님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래일 면담에는 제가 옆에 붙어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김규식의 낯색은 얼마간 가벼워진듯싶었지만 깊은 주름이 패인 볼이며 수북한 눈섭밑에는 지친 빛과 무거운 근심이 여전히 짙게 어려있었다.

4

마가을의 따뜻하고 쾌청한 날씨여서 김규식은 눈부신 해빛이 깔린 정원길을 단장을 내짚으며 천천히 걸어올라갔다. 저만쯤 등나무밑에서 원탁을 가운데 두고 홍명희, 리극로들이 윤명현과 담소를 나누고있었다. 그러나 김규식은 구태여 걸음을 다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쾌청한 날씨탓인지, 손님들에게 그들이 낀 모습을 보이고싶지 않아서인지 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아침빛을 즐기러 나온 산책자의 느긋한 웃음이 어려있었다.

윤명현이 다가오는 스승을 보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홍명희와 리극로는 의자에 눌러앉은 그대로 김규식이 등나무밑에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홍명희의 기름한 얼굴에는 방금 담소를 나눌 때의 여운인지 가벼운 웃음이 비껴있었지만 네모진 모상에 목이 바툼한 고루의 얼굴에는 무뚝뚝해보이는 기색이 비껴있었다. 오늘의 방문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것을 내보이는셈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내세우는 김규식을 아니꼽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의 기색은 비교적 랭담한 편이었다.

김규식은 등나무밑에 들어서며 입가에 웃음을 지은 모습으로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런저런 명색의 회합들에서 여러번 만난적 있는 그들이여서 구태여 인사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었다. 김규식은 일여덟자의 장죽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를 뒤따라 둔덕길을 올라온 하인이 네사람앞에 차잔을 나누어놓는다. 윤명현이 간소한 이날의 모임을 사회했다.

《선생님들도 아다싶이 이 삼청장에는 각이한 사람들의 출입이 번다합니다. 두분께서 선생님에게 면회를 요청했을적엔 긴하게 하실 말씀들이 있는것 같아 비서들이 모이기전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른아침에 수고를 끼쳤으니 과히 나무림을 마시고 기탄없는 말씀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윤명현은 차를 권하며 개회사를 대신한 이런 말을 했다. 홍명희가 시작을 뻔줄 알았는데 언제나 직방치기인 리극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도 알고계시겠지만 쏘련군은 북조선에서 철수할 의향을 표시하면서 미군에게 동시철거를 제의했습니다. 성명에도 있는것처럼 쏘련군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것은 우리에게 자주적으로 민족적독립을 달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역시 량군철거와 관련해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할 방도를 의논하려고 찾아온게 분명했다. 리극로는 경상도사투리가 짙게 뻐 청높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이런 때 남조선의 량심인들이 가만 있을수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우선 민족자체력량을 련합하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도의 락동강기슭인 의령에서 태어나 고학으로 베를린종합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리극로는 곧은박이성미의 소유자들이 흔히 그런것처럼 비약이 심하다고 할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했다. 김규식은 장죽을 들고 만지작거리며 요즘 정세를 관망할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민족자체력량에 관심을 보이는데 저으기 놀랐다. 허헌도 이 비슷한 말을 했다. 이것이 민심이란것일까? 하긴 자신도 귀국한 초기에는 민족의 자주권문제에 제일 크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민주의원》, 《과도립법의원》, 《좌우합작》... 몇고패의 실패와 좌절을 겪고난후 이것이 얼마나 먼곳에 있는 난문제인가를 깨닫고 이런 말을 입에 담지 않게 됐다.

리극로의 말을 흘려듣는 김규식의 내심을 엿본듯 홍명희가 담배연기를 날리며 충청도억양이 밴 느린 말투로 고루의 이야기에 주해를 가했다.

《고루가 말씀한 민족자체력량을 꾸리자면 겨레의 장래문제에 관심을 두고있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중을 광범하게 망라한 범민족적인 정치조직을 내올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자면 각당, 각파, 각계각층 민중이 마음을 합칠 사상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웁까. 말하자면 정강이 있어야 할것이라는 말씀이웁니다. 우리는 그 정강을 민주독립당이 이미 공포한바 있고 많은 중간파인사들의 찬동을 받고있는 민족자립사상을 중심에 놓고 마음을 합치는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편소설가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있던 김규식은 자기도 모르게 등어리가 뻗뻗해지는 긴장을 느꼈으며 그의 말에 끌려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량균철거가 논의되는 현시점에서 민주독립당에서 내들었다고 하는 민족자립사상은 확실히 시기적절한 정강이었다. 이 정강을 추켜든 조직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겠는지 그것은 두고봐야겠지만 이 연합체는 확실히 강유력한것으로 될것이다.

《다음에는 조직방식인데 8. 15후 남조선정계에는 사이비정치인들이 수많이 창궐해서 아무리 정당한 사상을 추켜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것이웨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자립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당과 단체, 파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 정강밑에 모이는 련맹형식의 단결을 하여 행동통일을 기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범민족적인 조직의 명칭은 달리 정할것이 아니라 민족자주련맹이라고 하는것이 좋을것입네다. 이 련맹에는 우리 민족독립당의 다섯개 정당, 단체들이 가입할것이구 뒤이어 몇개 정당단체들이 더 가입할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말을 들으니 김구선생도 우익정당, 단체의 행동통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계신다는데 우사의 노력으로 김구선생의 한국독립당이 자주련맹에 가입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할수 없으면 련계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일치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얼마나 폭넓고 치밀한 생각을 한 사람들인가! 자기가 《좌우합작》의 방법으로 제3정치세력을 꾸릴 생각을 할 때 미국장단에 춤을 추는 일이라면서 헤살을 놓던 이들, 정치계에서는 사실 아류에 지나지 않는 문필가, 학자들이 이런 조리있는 사고를 하다니... 혹시 민주독립당에 가입했다는 안재홍의 배후조종을 받은것이 아닐가? 김규식은 마음속으로 도리머리를 저었다. 안재홍은 김규식이 손을 잡아 이끌어서 《민정장관》자리에 올라앉기는 했지만 이런 폭넓은 사고는 물론 정치적으로 예리한 문제를 이렇게 조리있게 감수할수 있는 인물이 못된다. 그렇다면 우익정계의 설계자라는 명성을 얻고있는 자기도 미처 생각할수 없었던 이런 원대하고

웅심깊으면서도 치밀한 사색을 이들이 어떻게 할수 있었는가?... 심장이 들먹거리는 흥분을 느끼기도 하고 의혹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김규식은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광범한 각당, 각파, 각계 민중의 관심을 모으자고 해도 그렇고 런맹형태의 큰 조직을 운영해나가자고 해도 그렇고 명망높은분이 위원장자리에 올라앉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우리 민주독립당에 안재홍선생이 계시지만 자주런맹이 내건 정강에 비추어볼 때 재목이 좀 모자란것 같아 우리는 선생에게 기대를 걸고 찾아왔습니다.》

김규식은 자기의 앞을 가로막았던 아아한 절벽이 무너져나가고 그 자리에 탄탄한 대로가 곧추 뻗어있는것을 감촉할수 있었으며 머리우에는 해빛에 물든 푸른 창공이 비껴있음을 느꼈다. 야음이 짙어가면 새벽이 가까이 다가올 징조란 속담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어제 저녁까지 무자비한 정치경기장에서 수치스러운 락오자로 굴러떨어진줄 알았는데 별로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이들이 아귀다툼을 하는 정치인들의 맨앞에 자기를 내세우려는것이다. 그것도 리왕조가 비틀거리기 시작한 백년래의, 아니 사대를 국시로 삼아온 통치배들에게 불만을 느낀 선각자들이 넘원해온 대경륜을 높이 추켜든 정치집단의 지도자로...

《알겠소이다. 그런데 민주독립당에서는 그런 런맹을 만들어 당면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김규식은 뿌잇한 담배연기 저쪽에 앉아있는 홍명희, 리극로를 마주보며 물었다.

《그것은 우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넨다. 민족자립을 위해 지금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할 문제가 없어 빈곤감을 느끼는 일은 없을것입네다.》

생각이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구나... 친미정치인으로 알려진 자기앞에서 미쏘량군철거와 같은 당면목표를 이야기하고싶지 않아 그러는것 같았다.

《알겠소이다. 소인에 지나지 않는 나에게 분에 넘친 기대를 걸고 이렇게 찾아와주어 고맙소이다. 한테 내 한가지만 더 물겠소이다. 내가 위원장의 소임을 받아들일 생각이면 그쪽에서 나에게 요구할 조건이 있을것인데 그것까지 말해줄수 없겠소이까?》

김규식은 사색에 습관된 평시의 침착한 모습으로 물었다.

리극로가 청높은 경상도사투리로 전제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건이라기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사에게 상기시키고싶소이다. <좌우합작>이나 <립법의원>의 성격과 민족자주련맹의 성격은 많은 점에서 상이한바이니 우리는 우사가 전환적인 결심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민족자주련맹과 <좌우합작>이 병립할수 없는것은 아니로되 <좌우합작>을 주도하면서 민족자주련맹위원장의 소임을 맡아할수 없지 않소이까. <립법의원>은 명색이 각당, 각파를 수용한 국회비슷한것이니 우사가 자주련맹위원장의 립장을 명백히 지켜주기만 하면 의장자리에 그대로 눌러있을수도 있을것이웨다.》

《그러니 <좌우합작>을 해산하고 민족자주련맹을 주도해달라는 말씀이구려?》

《우사의 영향을 받던 사람들을 자주련맹에 인입해주면 우사로서도 명분이 서는 일일것입니다.》

얼마나 빈틈없는 의논을 해가지고 찾아왔는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초청받은 위원장이란 뒤소리를 듣지 않을것이였다.

《민주독립당에서 좋은 생각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민족의 권리를 얻어보고자 노력을 해왔소만 지금 생각하면 허망한 일에 매달려서 시끄러운 일만 해온것 같소이다. 민주독립당에서 큰일을 맡기한것 같소이다.》

이 웅심깊고 원대한 사업이 평양에서 맡기되었다는것을 그는 알수가 없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해도 나로서는 생각해야 할 문제도 있으니 며칠간 말미를 주시오.》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할줄 압네다. 그러나 민주독립당에서는 될수록 가까운 시일안에 성대한 발기인대회를 가지기를 희망하고있습네다. 그 리유는 우사도 짐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희의 말이였다. 유엔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어 남조선정치인들이 태도를 명백히 해야 할 때쯤에는 발기인대회를 갖고싶다는 말일것이다.

《알겠소이다. 근간에 내 소신을 알리겠소이다.》

찾아온 손님들도 주인도 혼연하게 합의를 본 회합이였다. 홍명희, 리극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것이 자못 기쁜듯 몇분간 별치 않은 시국담을 나누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규식은 가벼운 마음으로 포도주까지 두어잔 받쳐 점심을 들었다. 간밤의 번거로운 생각을 깡그리 잊고 낮잠을 푹 잤다. 해묵은 병까지 털어버린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비를 몰아오는 구름발같은것이 문득 머리에 거뒀거렸다. 민주독립당에서 어떻게 정세의 추이를 그렇게도 예민하게 감수하고 대책을 세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던것이다. 쏘련측이 량군철거안을 천명한 시간은 오후 5시,

홍명희가 방문의사를 표명해온것은 7시 30분, 김규식이 평양방송을 들은것은 홍명희한테서 전화를 받은 1시간 30분후인 9시, 민주독립당에서 평양방송을 들은후 2시간 30분사이에 민족의 총의를 대변한것과 같은 그런 리념적인 대강만이 아니라 민족자주련맹의 조직방식까지 생각해냈다면 홍명희, 리극로는 남조선정계의 그 누구와도 대비할수 없는 정치적사색가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편협한 야심가인 리승만은 말할것 없고 김구, 조소앙, 안재홍... 남조선정계의 거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을 눈아래 굽어보는 김규식자신도 홍명희, 리극로와는 도저히 견줄수 없는 비범한 정치인들이라고 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평양방송을 통해 성명이 발표된후의 짧은 시간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비록 문필가, 언어학자로서는 명성이 높아도 어떻든 정계의 아류에 속하는 그들이 그런 심원하고도 치밀한 생각을 할수는 도저히 없을것 같았다.

그는 생각을 정리할양으로 안해가 내주는 단장을 들고 또다시 정원에 나섰다. 홍명희, 리극로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인물이 있다고 해도 그의 지향이 정당하다면 구태여 마음을 쓸 필요는 없을것이였다. 짙은 안개속을 헤매며 갈구하던 그것을 스스로 찾아와 안겨준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을뿐이였다.

김규식이 미국인들이며 리승만의 노여움을 과히 사지 않으면서 《좌우합작》을 포기해버릴 방도를 생각하면서 정원길을 천천히 걷고있는데 동작이 날렵한 윤명현의 빠르면서도 가벼운 발자욱소리가 들렸다. 윤명현이 김규식의 등뒤에서 불만과 비양이 뒤섞인 말을 던졌다.

《버치가 오겠다고 합니다.》

꽤청한 이날의 날씨처럼 가볍던 기분은 순간에 훔날리고 번거로운 검은 그림자가 김규식의 머리에 비껴들었다.

《일체면회를 사절하라고 하지 않았나?》

김규식이 뒤를 돌아보며 불만을 터뜨렸다.

《문전과출소에서 오전에 누가 왔다갔는지 알려줬는데 버치가 가만있겠습니까? 직통전화 303번이 울어대서 송수화기를 드니까 선생한테 지금 떠나는 길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15분쯤후에는 삼청장에 들어설겁니다.》

김규식은 불쾌감을 견잡을수 없어 두툼한 큰 입을 일그러뜨렸다.

《건방진놈!》

《버치가 건방지다는것을 이제야 알았습니까? 정문을 그대로 통과해들어오겠는데 준비를 해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기다리게 하게. 나는 산보를 계속해야겠네.》

《지금까지 상종해오면서 버치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선생님을 찾아서 여기에 올겁니다.》

김규식은 정원길에 단장을 박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문득 그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나왔다. 조선이 걸머진 숙명적인 불행이 일시에 어깨에 실리는것 같았다. 사실 그가 정세의 추이에 별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은것도, 쏘미간의 각축전이 종당에는 어디에 이르겠는가를 근래에는 별로 깊이 사색하지 않은것도 쏘련이 개입할수 있는 안보리사회가 아니라 미국의 의사가 그대로 통과될수 있는 유엔총회에 조선문제를 상정시키게 된다는 버치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데 있었다. 수십개 나라를 제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일단 결심을 한 이상 조선의 앞날이 달리 될수는 없다고 김규식은 생각했다. 남조선단독정부는 어차피 수립될것이다. 분렬이 장기화되지 않고 종당에는 국내전쟁으로 줄달음치게 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의 충실한 줄개이며 독재광인 리승만을 정권의 정상에 올려앉히지 않는것이였다. 물론 그는 자기와 같은 리성적인 정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유엔총회에 상정시키는것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자기 군대의 철수의사를 확고하게 표시한 량군철거와 같은 현실적인 안을 쏘련측에서 내놓았다.

정문쪽에서 자동차의 동음이 들리는가싶더니 삼청장현관앞에서 버치의 래방을 알리는 경쾌한 경적이 뒤번 울렸다. 자기의 주위에서 끈질기게 맴도는 버치를 시끄럽게 여기면서도 미군사령관의 고문직에 있으면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현지에서 조종하는 그를 무시할수는 없었다. 현재 김규식이 우익3령수의 한사람으로 중시되고있는것도 지성인을 존중하는 버치의 뒤받침에 크게 의거하고있다고 할수 있었다.

김규식은 윤명현을 돌아보며 우울한 낮빛으로 웅얼거리듯 말했다.

《버치씨에게 내가 지금 정원을 산책중이라고 말해주게. 내 오래 걸을수는 없을것이니 아침에 회합을 가진 그자리에 간단한 좌석을 마련해주게.》

윤명현이 버치한테 갈것도 없었다. 김규식이 갑자기 쇠작대기처럼 무거워진 단장을 내짚으며 몇걸음을 옮기지도 못했는데 윤명현과 인사를 나누는 쾌활하면서도 경박한 버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규식은 몸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삼청장의 원주인이 정취있게 꾸려놓은 정원길을 짙막한 키에 얼굴이 오동통한 버치가 마치

뒤발꿈치춤이라도 추듯이 들까불며 걸어오고있었다. 김규식은 사교적인 표정치고는 밝고 친절 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떠오르는것을 느꼈다.

한사람은 엘리자베스왕조시기의 무게있는 세련된 영어로, 다른 한사람은 양키식 청높은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악수를 나누었다. 엇비슷한 나직한 키의 두사람은 그이상 더 절친한 사이를 생각할수 없을듯싶은 모습으로 보조를 같이하며 잠시 정원길을 걸었다. 김규식의 건강상태며 오늘의 쾌청한 날씨에 대해 사뭇 유쾌한 목소리로 떠들어대던 버치가 문득 말머리를 돌렸다.

《민주독립당사람들이 평양방송에 지나친 기대를 걸고있지 않았습니까?》

김규식이 예견했던것 이상으로 급소를 찌른 질문이었다.

《조선사람치고 그 방송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독립당사람들의 요구는 뭘니까?》

《그분들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것이 아니요.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할 대책을 의논하려고 나를 찾아왔소.》

《그러니까 선생도 저 음험한 슬라브족의 선전에 관심을 두고있다는겁니까? 선생은 로씨야인들의 특질을 잘 모르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진한 량만가들입니다. 그래 어떤 대응책을 세우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합의를 보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는 언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하오. 내가 마음을 의탁하고있는 감리교도 그리스도의 말을 빌어 인류를 정화시키고있소. 쏘련측의 제안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두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 나라에 두 나라 외국군대를 두고있는 민족이라는것을 우선 념두에 두어야 하오. 조국의 허리가 잘리운 불행한 민족성원들인 우리가 이미 철군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 쏘련측의 성명에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지 않소. 만일 그네들의 제안이 선전이라고 해도 쏘련측이 발표한 제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책을 세우지 않을수 없단 말이요.》

김규식은 민족자주련맹발기인대회가 열리게 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내들기로 합의한 그 원대한 정치대강을 버치에게 알리고싶지 않았다.

《실례의 말을 하는것 같습니다만 내 선생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김규식선생이 쏘련측의 제안을 지지하는것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군의 철수를 진심으로 바라기때문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세의 추이에 따라 이렇게도 될수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는 일이요. 쏘련측이 정말 조선민족의 자유의사에 따라 통일정부를 수립할수 있게 철군한다면 미군의 철수도 요구하지 않을수 없을것이요. 쏘련측이 단지 선전적인 목적으로 량군철거를 제안했다면 민심의 버림을 받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량군철거를 주장하지 않을수 없을것이요.》

마치 유쾌한 담소를 나누듯 밝은 웃음이 어려있던 버치의 얼굴에 한순간 분개한 빛이 스쳐지났다.

《선생은 남조선에 미군이 진주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인 정치가들에게 어떤 행운이 차례졌는지 잊은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에 입성하기전의 남조선은 완전히 좌익세력에 장악되어있었습니다. 우리를 인천에까지 나와 맞이해준 정치인들도

려운형일파였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려운형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무슨 공화국정부를 조작한 허헌이 좌익정당들을 단결시키고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독립당의 지도성원을 이끌고 선생을 찾아온 홍명희는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서울역전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리고있던 사람입니다. 만일 미군이 진주하지 않았더라면 남조선도 적화되어 김규식선생도 조국에 귀환할수 없었을것이구 설사 귀국했다고 해도 또다시 외국으로 망명하지 않을수 없었을겁니다.》

새벽참에 황철나무에 다붙어 재잘거리는 참새처럼 버치는 지금 김규식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을 냅다 엮어내렸다. 허헌이 좌익세력을 단결시키고있다는 버치의 말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이 김규식의 머리를 내리쳤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도 없었다. 버치의 이 말이 사실인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헌이 어떻게 좌익계의 주도자로 될수 있었는가? 민전의 합법성유지를 조건으로 삼아 《좌우합작》에 응한 허헌이 아니었던가. 만일 좌익계의 단결을 주도하고있다는 버치의 말이 사실이라면 허헌은 쏘련군철수와 같은 극비에 속하는 중대사를 사전에 알수도 있을것이다.

《쏘련군이 설사 철군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후경제복구를 위한 일시적양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쏘련군의 철수선전은 분명히 변화된 쏘련의 대조선적화방략에 따른것입니다. 지금 로씨야인들은 <좌우합작>에 호응했던 허헌을 내세워 남조선좌익을 단결시키려는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적화방략이 어떤것인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를 직접 겨냥한 투쟁을 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세계의 십자군의 모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선에서 내쫓으려고 무식한 민중을 선동해서 우리 사령부앞에서는 벌써 나홀째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룡성을 벌리는데까지 이르렀다는것입니다. 홍명희가 민주독립당패를 끌고 선생을 찾아온것도 쏘련의 새로운 적화방략이 분명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까?》

김규식은 대답을 할수 없었다. 다만 사색의 심연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제는 몽롱한 운무속에 잠긴듯 뿌예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길뿐이었다. 홍명희, 리극로들이 쏘련의 새로운 적화방략의 사촉을 받아 민족자주련맹을 생각해냈다는것은 지나친 억측일것이다. 허헌이 주도자가 된후 남조선좌익이 단결을 이룩했다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그가 수많은 서울시민들을 동원한 반미시위를 조직했다는것은 믿을수 없는 일이다. 좌익측인물가운데서 그중 많이 상종해본 사람이 려운형, 허헌이지만 려운형은 말할것도 없고 허헌은 그 무슨 대중운동을 조직할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결국한 민족적량심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자신의 내심을 감출줄 모르는 급급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다. 30여년간 정계에서 부대껴온 체험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그 무슨 운동의 조직자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운현궁부근의 퇴락한 기와집에서 허헌을 만났던 일을 돌이켜보면 버치가 말하는 바로 그 쏘련의 새로운 적화방략에 자기를 끌어들이려고 한것 같기도 했다.

만일 허헌이 원하는대로 그와 손을 잡고 미군철거운동에 나섰더라면 현재 자기는 어떤 처지에 있을것인가? 미군사령부앞에 가서 수만의 룡성자들을 고무하는 연설을 했을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겨드랑이밑에 땀이 고이고 등골에 차거운 전물이

줄달음쳤다. 자기를 어쩔수 없이 리용하고있기는 해도 제거할 기회만 찾고있는 리승만에게 다시 일어설수 없는 타격을 가할 구실을 쫓을것이다. 리승만은 자기의 가장 위험한 적수가 김규식 자기라는것을 알고 심지어 비서진속까지 밀정을 박아넣고있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무려 반년동안이나 미국에 체류하면서 김규식의 영상을 어떻게 해서든 흐리게 하려고 《공산주의자》라느니, 머리에 암종이 있어 곧 죽어버릴것이라느니, 미국의 리익에 무관한 무백한 인간이라느니...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 다닌 리승만이였다. 이런 리승만이 본의아니게 좌익에 리용당한 김규식을 그대로 내버려둘리 없었다.

김규식은 윤명현이 이야기를 나눌수 있게 원탁이며 의자를 내다놓은 등나무밑으로 걸어갔다. 그는 의자에 무거운 몸을 털씩 던졌다. 그는 장죽끝을 버치의 턱밑에 들이대고 그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답변을 몇마디 응얼거렸다.

《나는 이미 버치박사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쏘련이 어떤 목적에서 량군철거를 제안했건 그 제안을 지지할수밖에 없다는것을 말했다고 생각하오. 우리 문필계의 대가인 홍명희선생이나 저 가혹한 일제하에서 조선말을 고수발전시키느라고 분투해온 리극로박사가 쏘련에 리용당하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소.》

버치는 얼굴에 날아드는 담배연기를 마주 내불려고 빨간 동그라미상표가 그려있는 《럭키스트라이크》(미국담배)를 꺼내 저도 한대 꼬나물었다.

《미군이 철수하면 남조선이 적화될수 있는데도 량군철수를 지지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내가 자살행위를 했다고 해서 미군이 정녕 남조선에서 나가겠소?》

《미군의 군부와 대통령은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리성은 자기와 함께 상대를 이해할줄도 아는 지성의 심도를 가리키는 말이요. 철학에서는 사물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리성이라고 하오. 버치씨는 정말로 미국이 조선문제를 리성으로 대하고있다고 생각하오?》

《쏘련이 철군선전을 하리라는것을 본국에서 몰랐을수 없습니다. 북조선의 청년장군 **김일성**이 갑자기 모스크바에 갔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준 정보부에서 협상내용을 모를수 없지 않습니까? 철군문제와 함께 남조선적화방법을 협상했을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짓말에 이끌어난 음모군도 말이 많으면 비밀의 항아리속에 감추어두어야 할 진실을 로출시키기마련이다. 김규식은 뜻밖의 소식에 긴장했다. 그는 담배를 빠는것마저 잊고 **김일성**장군의 모스크바방문, 틀림없이 진행되었을 고위급회담... 그후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쏘련측의 량군철수제안, 좌익계의 단결을 허헌이 주도... 이 모든것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진 여러개의 고리인듯 느껴졌다. 하긴 아무리 **김일성**장군이 강력한 무장력을 이끌고 조국에 개선하셨다고 해도 세계초대국의 하나인 쏘련군이 북조선에 진주한 조건에서 쏘련군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것과 같은 대외적발언권을 소유했을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조선의 절반땅에 수립된 정권기관의 수반이 쏘련의 수도에 가서 최고위급인물들과 당당하게 조선문제를 의논했다는것은 놀랍고도 부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리승만이 비록 반년동안이나 미국에 가있었지만 워싱턴의 고위급인물에 접근하지 못한것은 말할것도

없고 흔해빠진 국회의원들도 변변히 만나보지 못하고 엄청난 돈을 마구 뿌려던지면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내세워주면 조선을 미국의 한개 주로 만들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망발을 떠들어대다 귀국했다. 미국이 남조선 《민주진영》의 3명수중 한사람이라고 하는 김규식자신도 지금 미군사령관의 애젊은 고문을 상대하고 앉아 정치를 론하고있지 않는가.

《허헌씨가 좌익계를 단합시키고있다는것은 사실이요?》

김규식은 담배연기를 내불다 던지시 물었다.

《선생은 미국의 정보망이 어느정도 조밀한지 모르는것 같은데 내가 말한 모든것은 다 사실입니다. 허헌이 좌익당들의 싸움질을 중재했다는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쏘련의 남조선적화전술에서 변화가 있다는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것은 명목상 허헌을 앞에 내세워 좌익진영을 일시 단결시킨것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조선의 <민주진영>정치인들에 대한 일대 경고신호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심에 넘친 모습이였구나.)

김규식은 운현궁부근에서 만났을 때의 허헌의 모습을 눈앞에 다시 그려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버치가 말하는 이른바 새로운 《적화방략》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김규식은 생각해보았다. 경고신호로 될것까지는 없다고 해도 우익에 속한 자기는 다른 한쪽 기슭에 밀려나 더욱 고립된 처지에 이를것이였다. 그런데 버치의 말대로 홍명희, 리극로들이 새로운 《적화방략》에 따라 자기를 찾아와 범민족적인 조직인 민족자주련맹의 위원장자리에 올려앉히겠다 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겠는가? 그가 알고있는 공산주의리론에 의하면 자기는 도저히 통일전선의

일원이 될수 없으며 타도대상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였다. 버치의 말에서 그가 인정할수밖에 없었던것은 미군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남조선은 적화될수 있었다는것이며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자기는 오늘과 같이 삼청장에 있을수 없다는것이였다.

《버치씨가 오늘 나를 찾아온 목적은 뭐요? 몇달전에 나를 찾아왔던 미국무성의 관리가 말한것처럼 나는 김규식쿨리(병약자)요. 내 날씨가 너무 좋아 밖에 나오기는 했소만 이것은 나의 건강상태로 보아 지나친 부담이요.》

김규식은 빨리 버치를 쫓아버리고 오늘 하루사이에 찾아든 수많은 중대사들을 조용히 사색하고싶었다.

《조선은 전후 미쏘간의 가장 치렬한 대결장이며 미국의 존재를 녀두에 두지 않은 조선문제의 해결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선생에게 상기시키고싶었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말이구려.》

《우리 미국은 이 남조선땅에서 가장 능력있고 믿을수 있는 정치가는 김규식선생이라고 인정하기때문에 가혹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겁니다.》

...님의 말 믿고싶은 간절함을 안고

새날을 맞으니

허나 어둠과 함께 찾아드는 이 무거운

의혹을 날리고싶어 모대기며 지새운 밤

몇번이던가...

김규식은 유연하면서도 세련된 시어로 운률을 맞추어가며 이렇게 웅얼거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명현과 함께 안해가 달려와서 그의 량옆을 부축해주었다. 버치는 그를 뒤쫓아가서 더 수작을 붙이고싶었지만 안해 김순애와 윤명현의 차거운 눈길에 부딪쳐 짧은 두팔을 벌리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을뿐이다.

5

서울을 에워싼 북악산, 인왕산은 말할것 없고 시내 한복판에 오붓이 솟아있는 남산의 봉우리마다에서도 진곤색 밤하늘을 불살라버릴듯한 드세찬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봉화였다. 봉화라고 하지만 미군의 대형화물차에서 감쪽같이 떼낸 두세쌍의 다이야를 산봉우리의 장송우에 올려놓고 휘발유를 부어서 불태우는 봉화여서 소방차들이 싸이렌을 요란스럽게 울리며 현장으로 내달리고 경찰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봉화투쟁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군사령부앞에서 닷새나 앉아버티기를 하던 룡성자들이 슬금슬금 철수하기 시작했다. 허현도 영등포 빈민촌의 한끝에 자리잡은 고삭은 양철지붕을 떠인 조순옥의 집에 돌아왔다. 룡성자들이 철수하면 반드시 보복이 뒤따를것이며 특히 주동자색출에 혈안이 되어 날뿔것이라고 하며 각당, 각과 지도자들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그자신은 순남이옆에 단 하루밤이라도 앉아있고싶어 조순옥이네 집에 돌아왔다. 순남이는 룡성자들이 철수하기전에 누이와 함께 저녁어둠을 리용해 미군사령부앞을 떠나 빈민촌으로 돌아왔다. 리병남, 류영준이

계속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오누이가 외롭게 병원에 들어가있다가는 테로를 면할수 없을것이어서 집에서 의사회원들의 왕진을 받기로 했던것이다.

밤장막이 내리덮인 빈민촌의 질척거리는 골목길을 걸어가는 허헌은 전에는 감수할수 없었던 정취를 느꼈다. 삶의 보람을 느낀 통쾌한 웃음, 생기에 넘친 드높은 말소리를 들을수 있었으며 날렵하고 경쾌한 빈민촌사람들의 몸놀림이 눈앞에 보이는것 같았다. 시커먼 구멍이라고 할수밖에 없는 하모니카집의 외쪽문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앉아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왁자지껄 떠들고있었으며 공동수도앞에 늘어선 아낙네들도 생활을 귀찮아하는 수심에 잠긴 모습에 짜증을 내는것이 아니라 생기에 넘친 말을 웃음속에 주고받고있었다. 분명 삶의 보람이며 미래를 확신한 사람들의 웃음이였으며 말소리였다. 보호를 해주는 젊은이들한테 뒤지지 않을양으로 걸음을 다그치고있어 그들의 말을 듣고있을수는 없었지만 《미국놈들이랑게 움쩍을 못해.》, 《시위를 하니께로 로동자도 사람값에 들던게로.》, 《미국놈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 그렇게도 많다는걸 잉젠 알았당이.》, 《하하...》, 《호호...》 이런 말과 웃음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수 있었다. 허헌도 밤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통쾌한 웃음을 한바탕 터뜨리고싶었다. 말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보람찬 일을 한것 같았다.

조순옥의 어머니는 또 어떤 모양으로 허헌을 맞이했던가! 조순옥은 시위를 주도한 인물은 원썩놈들의 보복에 대처해서 이전의 거처와 아지트를 옮겨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터여서 대문안에 들어서는 허헌을 보고 당황도 하고 놀라와도 했지만 어머니는 방에서 달려나와 이마가 땅에 닿을만큼 머리를 깊이 숙였으며 눈물이 그러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면서 목멘 소리로 무슨 말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몰라했다.

《순남이가 글썽 이부자리를, 그것두 글썽 비단이부자리를, 글썽 우티만 해두 몇벌이나 되는지… 선생님, 고마워요.》

이런 말을 증언부언하는 어머니를 부엌에 떠밀어넣은 조순옥은 당황한 빛이 력력한 얼굴로 허헌을 마주봤다.

《상급당의 지시도 있었고 마동삼씨도 반드시 원썩놈들의 탄압이 있을거라고 하던데요.》

《순남이는 어땡소? 그새 상처가 나빠지지 않았소?》

근심스러워하는 조순옥의 말을 숫제 무시해버리며 허헌은 물었다.

《그 사이에 병원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순남이는 역전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의사회원선생님들이 두세분씩 붙어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리병남회장님도 매일 찾아오시구요.》

룡성장에서도 후더운 치료를 계속 받은 모양이었다.

《순남이는 지금 방에 있소?》

《네.》

《내 좀 들어가보겠소.》

조순옥은 허헌이 잠시 문병을 할양으로 찾아온줄 안것 같았다. 허헌은 신발을 벗고 방등불이 가물거리는 방에 들어갔다. 그를 본 순남이는 기쁨에 넘친 외마디 탄성을 내지르며 웃몸을 일으키다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순옥이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순남이가 깔고 누운 요자리는 이 집의 가장집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두툼한 보료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이불도 번쩍거리는 비단잇을 씌운 것이다. 아마 시위에 참가한 녀대생쯤되는 비교적 유족한 집의 녀성이 들고나온 이부자리인 것 같았다. 순남이는 기절할 뻔한 아픔을 벌써 잊어버린 명랑한 웃음이 차넘치는 얼굴로 머리맡에 쌓인 옷가지들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이게 다 내 우티예요.》

소년은 열두살 어린이의 동심을 되찾은 것 같았다.

《난 이번에 떡이랑 빵이랑 실컷 먹었어요. 어머니는 이게 다 할아버지 덕택이라고 했어요. 난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어요. 벌써 공부도 시작했어요.》

순남이는 머리맡에 놓인 손때가 뵈 소책자를 손더듬으로 찾았다. 순남이는 집에 돌아오자 곧 공부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난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딘지 모르게 서글픔이 낀 눈매로 동생을 지켜보고 앉았던 조순옥이 순남의 말을 가볍게 나무랐다. 허헌은 그 말을 귀결에 흘러들으며 이불을 젖히고 수술한 다리를 내려다봤다.

《할아버지, 보지 말아요. 난 이번에 대학생누나한테서 두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할래요.》

열두살짜리 어린것이 괴로와할 늙은이의 심정을 생각하다니? 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도 웃음과 희망이 어려있지 않는가. 이번 시위투쟁을 통해 자기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모양이었다.

허헌은 심저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걱정을 누르기 어려웠다. 순남에게 확신을 안겨준것만으로도 이번의 시위투쟁은 뜻있는것이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허헌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신심을 잃지 말거라. 나는 너의 확신이 헛된것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 결심이 얼마나 뜻깊은것인지 이야기를 해도 너는 알지 못할게다.》

허헌은 소년의 가냘픈 손을 찾아 힘있게 꼭 부여잡으며 소리내서 말했다.

《순남아, 넌 자기의 신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내 말을 명심하면 너는 절대로 불행한 일생을 보내지 않을게다!》

《나도 알아요, 할아버지! 잃지 않겠어요!》

소년은 그저 기쁨에 취한 얼굴이였다.

허헌은 이날 참으로 오랜만에 만시름을 잊고 깊은 잠에 들었다. 뒤울안으로 향한 유일한 창문인 쌍바라지를 찬란한 아침빛이 물들일무렵 문득 눈을 떴다. 피곤을 말끔히 털어버린 상쾌한 기분으로 기지개를 늘어지게 켜다. 심신이 날듯이 가벼운 행복한 순간이였다. 문득 다급한 발자욱소리가 뒤울안에서 들리는가싶더니 조순옥이 쌍바라지밑에서 숨가쁘게 속삭였다.

《선생님, 미국놈이 왔습니다. 순남이를 찾습니다.》

《몇놈이나 왔소?》

《지금은 미군장교하구 여자통역, 이렇게 둘입니다. 문병을 하려고 왔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침에 찾아온걸 보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선생님은 자리를 옮기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문병을 왔다니까 미국놈들이 달려들어도 그놈이 간 다음이겠지. 좀더 두고보자구.
》

아직 위급한 정황이 닥쳐온것도 아닌데 공연히 쑥스러운 행동을 하고싶지 않았다. 조순옥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조급한 심정인듯 싶었지만 미군장교를 내버려둘수도 없어 발자욱소리를 죽여가며 충충히 쌍바라지밑에서 멀어져갔다.

양키가 외쪽대문안에 들어서는데 구두발소리가 들렸다. 조순옥의 어머니가 뛰어나가기는 했으나 미군장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어 허둥대는 모양이었다.

《방안이 어지러워서...》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중얼거리는 말을 녀통역원이 군화를 벗지 않고 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로 번졌다. 군화를 신은채 아래방에 들어서는데 발자욱소리가 들렸다.

《여긴 우리가 등을 붙이고 자는 방바닥이에요! 신을 벗어요, 신을! 그래 이 집이 당신들에겐 마구간으로 보여요?》

갑자기 조순옥의 짜지는듯한 격분에 찬 부르짖음이 들렸다. 통역이 뭐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변명을 한다. 삿자리가 어지러워서 미군장교는 군화를 벗을수 없다는것 같다.

《삿자리가 어지럽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으리으리한 장관방에서 사는줄 알았어요?
》

순옥이가 또다시 녀통역원에게 쏘아붙였다. 통역이 앵돌아진 목소리로 장교님은 순남에게 줄 선물을 갖고 왔다는니,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죄와 보상을 할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카스테라를 사왔다는니, 아주머니가 구두를 신은채 방에 들어서도 좋다고 해서 군화를 벗지 않고 들어왔다는니 하고 빈정거리는 투로 종알거렸다.

《사죄하려고 왔으면 정말 잘못을 비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할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군화를 신고 방안에 들어와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군화를 신고 들어와도 좋다고 했어요. 방안이 어지럽다고 했지... 그리고 또 카스테라가 뭐예요? 카스테라가. 내 동생을 비루먹은 강아지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당신들의 행동이 참을수 없어 초콜렛조각을 내던진것이 뭣이 잘못이예요. 이것이 반항이예요? 설사 반항을 했다면 어쨌다는거요? 당신들에게 그런 모욕을 가했다면 권총을 빼들지 않았겠어요? 나가요! 우리는 이런 사죄를 받아들일수 없어요. 조선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죄를 받아들일수 없단 말이예요.》

이렇게 부르짖은 조순옥은 어머니한테 울음을 내쏟으며 웨쳤다.

《어머니는 무엇이 모자라서 순남이를 죽여버릴 생각을 한 저 사람들이 군화를 신고 들어오는걸 그대로 보고있는거예요. 아들이 모욕당한것이 분하지도 않아요? 왜 미국사람이라면 덮어놓고 머리를 숙이나 말이예요? 어머니는 자식의 다리를 뺏긴것이 분하지도 않는가 말이예요?》

오열을 터뜨리며 부르짖는 딸의 말에 어머니도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방안이 너무 어지러워서... 그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것이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말이예요? 왜놈들이 아버지를 빼앗아가구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이 모양이지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거예요? 게을러빠진 사람들이예요? 가난하게 사는것도 분한데 자식을 병신으로 만든놈에게 무엇때문에 머리를 숙이는데요? 예, 어머니!》

순옥이는 자기쪽에서 모욕을 받은듯 되돌아서는 미국놈을 토방밑에까지 따라내려서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통렬하게 절규했다.

《어린애의 다리를 짓밟개놓고서도 우릴 비루먹은 강아지만큼도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수모를 그대로 받고있을줄 알아요? 반드시 복수할 날이 있을테니 그런줄 알아요. 당신들이 군화바닥으로 짓밟은 샷자리에서 그대로 등을 붙이고 살 조선사람이 아니란것을 알란 말이에요!》

순옥의 부르짖음은 아침대기를 뒤흔들며 계속 울려 퍼졌다.

구태여 카스테라따위를 사들고 오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가 사죄를 하러 왔다면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와할줄 안 미군장교였던것 같다. 그놈은 순옥이의 맵짠 항의에 참을길 없는 모욕을 느낀듯 불따귀살을 실룩거리며 잔인한 눈길로 양바툼한 처녀를 훑어내렸다. 순남이란 거지꼴의 소년과 그를 손수레에 싣고 나온 녀공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와야 한다는 상관의 명령이 없었다면 벌써 권총을 꺼내들었을것이다. 그는 통역의 손에 들려있는 카스테라통을 뜨락에 내동댕이치고는 찌그러진 외딴문을 걸어차며 조순옥의 집을 나섰다. 미국놈의 오만한 행동을 통분해하면서도 조선민족의 강직한 기상을 순옥이를 통해 본것 같아 끌어오르는 걱정을 누르기 어려워하던 허헌도 간소한 조반을 끝내고는 곧 고삭은 양철지붕을 떠인 이 집을 떠났다.

언제나 빠스형마차에 올라타군 하던 옹기점 뒤울안에서 허헌은 마차에 올랐다. 한강다리를 향해 덜커덩거리며 달리는 마차에 몸을 맡기고 앉았던 그는 경호를 위해 킁킁한 빠스형마차에 함께 오른 청년들이 일시에 수군거리는 말소리를 듣고 내리감았던 눈을 떴다.

《무슨 일어요?》

《미국놈들이 우리 공장을 습격하러 오는것 같습니다.》

《영?...》

허헌은 청년들이 자리를 내주어 합판에 뚫린 구멍에 얼굴을 붙이고 앞을 보았다. 불도젤을 앞세우고 10여대의 군용차가 먼지를 휘말아올리며 달려오고있었다. 버스형마차를 다급히 길옆에 세우게 했다. 그는 가슴언저리를 매만지며 불도젤과 경찰을 가득히 처실은 군용차가 소란스런 소리를 내면서 옆을 스쳐지나 허헌이 방금 빠져나온 바로 그길로 굽어드는것을 보았다. 그는 이날 아침 조순옥의 집에 찾아든 미군장교란자가 사실에 있어 빈민촌을 초토화하고 미군사령부앞에서 통성투쟁을 한 로동자들을 철창속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온놈이었다는것을 알았다. 허헌은 마차안의 청년들에게 마을에 돌아가 가족을 구원하고 로동자들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더듬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입을 짝 다물고 움직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놈들이 탄압을 하자는데 빨리 행동하게! 어서!》

그러나 청년들은 여전히 눈길을 내리깔고 입술을 짓씹고있을뿐이다. 철덩어리같은 침묵만이 마차안에 가득찼다.

《이것은 나 개인의 지시가 아니라 조직의 요구라는것을 알아야 하네. 빨리 움직이게!
》

그래도 청년들은 망두석이 되어버린듯 침묵으로 대답할뿐이다. 그들도 미국놈들이 피비린내나는 탄압을 감행할양으로 한강다리를 넘어왔다는것을 직감했지만 허헌의 옆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임자네들이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줬나? 임자네들이 지시를 받아야 할 상급이기때문이 아닌가? 시간이 급하네. 빨리 움직이게. 임자네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을에 가서 희생을 최소한으로 막는거네. 마차에서 빨리 내리게.》

그제서야 청년들은 마차에서 뛰어내려 빈민촌으로 달려갔다. 허헌은 끝까지 자기옆에서 떠나지 않는 건장한 청년을 한명 데리고 길옆의 밋밋한 산둔덕을 향해 올라갔다. 아지트로 리용되고있는 산중턱의 외딴집에 들어가려던 그는 그앞의 검푸른 로송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쯤 무지막지한 탄압이 감행되고있을 빈민촌이며 이미 숨죽인지 오랜 굴뚝이 솟아있는 공장을 바라보았다. 공장은 경영을 중단한지 오랫동안 노동자들은 공장에 나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조금씩 만들어냈으며 회합도 가지군 했다. 시커먼 연기가 빈민촌에서 타래쳐올랐다. 울부짖으며 원쑤놈들과 싸우는 아녀자들이며 실그러지고 연기에 그을은 집들을 불도젤이 짓뭇개며 돌아가는 모양이 눈앞에 보이는것 같았다. 땅을 치며 원쑤를 절규하는 늙은이, 녀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듯싶다. 몇방의 총성이 한적한 교외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퍼졌다. 저놈들이 우리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실그러진 집이나마 깔아뭉개면 추위가 닥쳐오는 이때 빈민촌사람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겠는가. 그래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사람들을 적들은 가차없이 싸갈기는 모양이었다. 허헌은 우들우들 떨리는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쳤다.

그러나 허헌은 원쑤놈들이 어떤 잔혹한 만행을 감행하고있는지 다는 알지 못했다.

조순옥은 원쑤놈들의 탄압을 예견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킬양으로 투쟁지휘부로 리용되고있는 합숙의 한 방에 막 들어선 참이었다. 바로 이때 군용차들이 공장정문을 짓부시며 달려들었다. 적재함에서 훌떡훌떡 뛰어내린 검정개들은 눈에 띄는

녀공들을 무작정 붙잡아서 우선 옷을 발가벗겼다. 알몸뚱이가 된 녀공들은 두팔로 젓가슴을 가리우고 쪼그리고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한패의 경찰이 발가숭이 된 수십명의 녀공들의 엉덩이를 구두발로 걷어차서 한데 모아놓는 사이에 또 다른 한패는 공장구내며 사무청사에 짓쳐들어갔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습격이여서 조순옥이 그저 황급히 합숙방들을 뛰어다니며 원쑤놈들과 결사전을 벌릴 대오를 편성하고있는데 누구인지 그의 손을 무작정 움켜쥐고 합숙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웨치는것이였다.

《남자들은 녀공들이 피신할수 있게 경찰을 저지하시오! 공장뒤는 비였소! 녀공들은 뒤로 빠지시오. 뒤로!》

마동삼이였다. 원쑤놈들이 반드시 보복을 감행할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조순옥이 자기의 말을 알아들었을것 같지 않아 방직공장에 온 그였다. 그는 경찰대와 거의 동시에 공장에 들어섰다. 애인이 합숙의 지휘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조순옥을 끌고 공장뒤로 달려가며 분개해서 부르짖었다.

《조직적인 투쟁이외에는 무의미한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런 외딴곳에서 경찰과 싸워가지군 무의미한 희생을 낼수밖에 없다는것도 몰라! 미국놈들을 내쫓는 투쟁에 력량을 집중해야 한단 말이야!》

창고들이 늘어선 뒤마당에 이른 마동삼은 허겁쓰레기, 찢어진 포장지, 판대기쪽들이 쌓여있는 폐품적재장에 조순옥을 밀어넣으며 준절하게 일렀다.

《총창이 가슴에 박혀두 소리를 내선 안돼! 순옥이가 공장밖으로 나가선 안되는것은 조직을 책임졌기때문이야!》

마동삼은 공장뒤로 달려온 녀공들을 담장을 뛰어넘을수 있게 조를 편성해주고나서 바람처럼 담장을 날아넘으며 뒤를 돌아봤다. 로동자들을 공장에서 끌어낸 경찰은 아주 미처버린 야수모양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래도리를 우악스럽게 내리밧겨서는 녀공들의 무리속에 차넣군 했다.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 망나니들을 죽이고싶은 충격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는 준엄한 혁명투쟁속에서 이미 수년간이나 단련된 사람이였다. 자신의 임무는 성시백을 보호하고 련락을 취해주는데 있었다. 영등포방직은 애인인 조순옥이 이 공장에 있어 방조를 주고있을뿐이였다. 그는 공장밖에 나가 전차정류소에 서서 포악한 검정개들이 공장을 떠나기를 기다렸다. 경찰대는 백수십명의 로동자들을 군용차에 처신고는 불도젤을 앞세우고 살기편 모습으로 한강다리를 향해 되돌아갔다. 마동삼은 또다시 담장을 날아넘어 공장에 들어갔다. 조순옥을 밀어넣었던 허접쓰레기들을 해쳤다. 애인은 없었다. 그는 미칠것만 같았다. 지휘부로 리용하던 합숙방에 뛰어올라갔다. 온통 깨지고 부러진 의자와 책상이 나딩굴고 모포들이 어질더분하게 여기저기 널려있었으며 짚을 쭈셔넣었던 침대깔개들은 칼로 갈기갈기 찢겨있었다. 어디에도 순옥은 없었다. 순옥이도 체포됐는가? 마동삼이 뛰어다니며 순옥이를 찾고있는데 머리칼이 헝클어진 녀공이 구석의 합숙방에서 비칠거리며 일어나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오열을 터뜨렸다.

《책임자가 체포됐소?》

순옥의 행처를 알아보던 마동삼의 물음이였다.

《집에 갔어요.》

마동삼은 어깨를 들먹이며 목놓아우는 녀공의 호곡소리를 듣고 조순옥의 집에 어떤 참혹한 재난이 덮였는지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잠시후 건장한 체구에 좀해서는 랭철성을 잃지 않는 마동삼이 비칠거리는 걸음으로 허헌이 있을 아지트를 향해 밋밋한 산둔덕을 올라왔다. 옷도 얼굴도 온통 먼지투성이였으며 검실한 낮빛인 기름한 얼굴은 경련이 인듯이 푸드득푸드득 떨렸고 눈은 피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있었다. 허헌은 아직도 로송밑에 서있었다. 허헌앞에 다가선 마동삼은 침착성을 되찾은 무게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이 자리를 빨리 뜨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계실 곳을 준비해놨습니다. 이권 정향명씨가 선생님을 위해서 취한 긴급한 조칩니다.》

성시백은 허헌의 신상이 아무래도 근심스러워 당분간 그의 안전을 책임질 생각을 한것 같았다.

《자넨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가?》

허헌의 물음이었다.

《방직공장에서 오는 길입니다. 도중에 순옥이네 집에 들렀습니다.》

《그래 순옥이는 무사한가? 순남이도 별일이 없구?》

《순옥이는 무사합니다. 순남이는...》

불쑥 마동삼은 마가울의 풀숲에 무너지듯 주저앉더니 든든하고 실팍한 어깨를 드놓으며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짓씹어냈다.

《선생님, 원통합니다! 정말 원통합니다!》

마동삼은 틀어진 커다란 주먹으로 땅을 내리치며 부르짖었다.

《그럼 순남이가 잘못됐다는건가?》

《세상에 이렇게도 잔인한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불도젤로 아주머니두 순남이두 집두 깔아뭉갓습니다. 아-》

마동삼은 메마른 누런 풀을 쥐여뜯으며 우황이 박힌 황소처럼 절통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옥이 어머니두 순남이두 잘못됐단 말인가?》

《아주머니는 불도젤이 짓몽개구 순남이는 내려앉는 지붕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책을 한권 그러안고있었습니다.》

천진한 동심을 되찾았던 순남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 비록 불구의 몸이 됐지만 절망이란것을 모르고 앞날을 살아나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것이 죽다니... 세상에 이렇게도 무도하고 이렇게도 잔인하고 이렇게도 절통한 일이 하늘이 굽어보는 인간세상에서 어떻게 발생할수 있는가?... 로송의 터실터실한 보곳을 그러잡고있던 허헌은 소의 영각과도 같은 외마디소리를 내지르고는 산비탈을 비칠거리며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제 5 장

1

김모라니는 청사에 들어서기전에 신발의 흙을 나무꼬챙이로 긁고 뒤등에 발린 흙은 저고리를 벗어서 비벼털었다. 늦장마가 휩쓸어내린 모래를 질통으로 져나르다 위원장을 만나려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위원장은 어지러운 옷차림을 한 일군이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기전부터 얼굴에 미소를 그리며 위원장실에 들어서서 머리를 숙였다. 얼굴을 수긋하고 문건을 들여다보던 위원장은 눈을 치뜨고 김모라니를 바라보긴 했지만 표정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 앓으란 말도 없다. 찾아올 때마다 이런 랭담한 표정이다. 오늘도 또 《생각해봅시다.》 한마디의 말을 뒤에 달고 위원장실에서 나가야 할것 같다.

속을 터놓고 그 무슨 협의를 한다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여서 김모라니는 머리속에 굴리던 말을 직통배기로 털어놓았다.

《위원장동무도 알고있겠지만 지금 온 나라에서 애국미헌납운동이 벌어지고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김모라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왔는지 대뜸 짐작한듯 설핏한 눈섭을 미간에 모으며 얼굴을 찌프렸다. 귀찮은 용건을 또 들고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시작을 떼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땅을 분여받은 농민의 도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은 한참동안 책상위의 문건에 눈길을 떨구고 앉았다가 권연을 꺼내물고 담배연기를 날렸다. 탁상우에 가로누운 석양빛을 가운데손가락으로 어루쓸며 중얼거리듯 말한다.

《우리 대령에서 헌납운동이 가능할것 같소? 애국미로 바치자면 벼가 많아야겠는데 우리 대령군농민들이 주식으로 삼고있는건 조나 수수, 피 같은것뿐이요. 우리 군에서 벼를 여유있게 갖고있는 농가가 몇이나 될것 같소? 봉건을 설교하는 최로인네나 부위원장네 집엔 남아돌아가는 벼가 있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땀기논에서 몇줌의 벼를 거두어들이는게 전부가 아니요. 제사나 늙은이들의 생일상에 농을 쌀을 애국미로 내라고 할수는 없지 않소. 온 군에서 모아들였대야 별방지대의 한 농민이 내는것보다 못할게요. 그걸 끌고 평양까지 가겠소?...》

김모라니도 위원장을 찾아오기전에 그만한것은 생각해봤다. 황소가 끄는 달구지 하나도 채우기 어려울수 있었다. 그러나 북조선의 전체 농민들이 애국미헌납운동에 떨쳐나섰는데 땅이 척박한 산간이라고 해서 가만 있겠는가. 다문 한종지, 한되박씩이라도 헌납해야 농민의 도리를 지키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김모라니는 이런 말을 하며 자기의 주견을 세워보았다.

《또 고집이군. 관개공사를 시작할 때도 대령의 강물은 물살이 급하구 장마때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때문에 관개를 할수 없다고 말하는데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어떻게 됐소? 장군님앞에서 맹세한 35정보도 태반이 모래에 묻혀버리지 않았소. 동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잘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오. 내가 동무의 처지에 있다면 수해를 입은 관개공사장이나 빨리 정리하겠소.》

김모라니는 목덜미가 꺾인듯 머리를 떨구었다. 위원장을 설복해보려던 혀끝에 매달린 말도 어느새 목너머로 잦아들었다. 위원장의 말대로 관개수로와 래년에 논을 35정보로 늘이겠다고 장군님께 결의다진 땅이 절반이나 자갈과 모래에 묻힌것은 사실이였다. 갑자기 늦장마가 들면서 래년에 없이 많은 비가 내려 강물이 범람하면서 수로를 따라 시뻘건 벌물이 쏟아져내렸던것이다. 몇달간 수많은 노력을 들인 수로가 메워지고 대령의 유일한 논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평평한 땅도 적지 않게 자갈과 모래에 뒤덮였다. 산간군에서 선봉적역할을 한다고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그 모든것이 즐지에 사라져버렸다.

김모라니는 어찌할바를 몰라 며칠간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수로며 논고장을 돌아보다 결심을 품고 일떠섰다. 장군님께서 기술자들까지 보내주신 관개공사인데 손맥을 놓고 나앉아있을수 없었던것이다. 원래 경험이 없어 수로를 잘못 짚던것이니 공사를 새로 하는셈치고 물길을 다시 파자! 논에 뒤덮인 모래와 자갈은 질통으로 쳐내고 달구지로 실어내자!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일떠나 농민들에게 수해복구에 나설것을 호소했다. 우선 논에 덮인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역사에 달라붙었다.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모래와 자갈을 등짐으로 쳐내는데 애국미헌납운동에 떨쳐난 농민들의 미거가 매일과 같이 신문에 소개됐다. 올해도 김제원은 놀라운 수량의 애국미를 나라에 바쳤다. 농민들이 헌납한 애국미로 학교도 짓고 농기계임경소도 내온다고 한다. 그런데 대령에서는 아직 한명의 농민도 애국미를 헌납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김제원처럼 많은 낱알을 헌납하지 못한다고 해도

농민이 해야 할바를 해야 할게 아닌가. 생각던 끝에 김모라니는 자기가 이 운동의 선두에 설 결심을 했다. 위원장을 찾아들어온것은 이때문이었다.

《애들이 또 온것 같소.》

석양빛이 스러져가는 창밖을 내다보던 위원장이 말했다.

《부위원장동무는 어머니를 찾아다니는 저 애들이 불쌍하지 않소? 물론 정권기관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는 우선 애들을 돌봐야 할게 아니요. 난 부위원장동무가 갓난애에게 젖이라도 제때에 먹였으면 좋겠소. 부위원장에 대해서 농민들이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김모라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보이고는 위원장실을 나섰다. 정갱이를 몽둥이에 얻어맞은것처럼 다리가 휘청거리고 눈앞도 갑자기 회색장막이 드리운것처럼 뿌옇게 흐려왔지만 그는 이를 사려물고 청사밖에 나섰다.

인민위원회마당에서 내려다보이는 한적한 산간읍은 벌써 옅은 안개에 감싸인듯 저녁연기에 덮여있었다. 정문앞의 소소리높은 황철나무우듬지에 마지막잔광이 걸려 눈부신 빛을 뿌린다. 남순이가 아이를 업고왔다면 아마 그 황철나무밑에서 어머니를 기다릴것이다.

남순이는 황철나무밑이 아니라 군불을 때는 경비실아궁이앞에서 뛰어나오며 소리를 쳤다.

《어머니, 나 여기 있어!》

설핏한 어둠속에서 남순이의 동그스름한 얼굴이 해맑게 웃었다. 그의 등뒤에서 막내가 칭얼거린다.

《혼났지? 어머니를 찾아다니느라구… 갑자기 의논할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

김모라니는 위원장한테서 받은 타격을 잊어버린것처럼 웃음어린 얼굴로 말하며 남순의 여원 등에서 남철이를 안아올렸다. 아궁옆에 앉아 막내에게 젓을 물리고나서 종이에 싸 누룽지를 남순이의 손에 쥐여주었다.

《나 배고프지 않아. 철이에게 줘.》

《남철이는 젓을 먹지 않니…》

《어머니 먹어.》

일곱살잡힌 계집애가 벌써 어머니를 생각한다.

《난 사무실에서 먹었다. 너나 먹어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이려고 공연한 말을 한다는것을 아는듯 남순이는 누룽지쪼박을 떼내서 어머니의 입에 살그머니 넣어주었다.

《오늘은 우리하고 같이 집에 가나?》

《일이 있어서 오늘도 집에 빨리 들어갈것 같지 않구나.》

《할머니가 또 성을 내겠네.》

《괜히 그래. 나이를 자셔서…》

《그렇지만 자꾸 욱하는거 뭐. 난 어머니하고 같이 집에 갔으면 좋겠어.》

《래일은 빨리 들어갈게. 오늘은 일이 있어서 그래. 할머니에게 저녁을 지으라구 해라. 너도 도와주구.》

젓을 다 먹인 모라니는 남순의 여원 등에 막내를 또 업혀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가지 못하는것이 서운해 고개를 떨구고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어린것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서있는 모라니의 머리에 문득 위원장의 말이 떠올랐다. 집에 들어가 아이들 건사나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부질없는 생각인줄 알면서 거기에서 도무지 벗어날수가 없었다.

녀성간부들을 대담하게 등용해야 한다는 장군님의 말씀이 계시여 군녀맹위원장사업을 하던 김모라니가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직무에 옮겨앉은것은 이해 초봄이었다.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자기같은 촌아낙네에게는 군녀맹위원장도 분에 넘친 자리인데 정권기관에서 책임적인 사업을 하게 되다니?... 북조선에 수립된 민주제도가 참말로 로동자, 농민들을 위한 사회제도라는것을 그는 심장으로 느꼈다. 그는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우선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뭐니뭐니 해도 먹는 문제가 풀려야 산간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관개공사도 새 영농법도입도 이렇게 돼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령강은 다른 강과 달라서 관개를 못한다, 봉건쟁이령감태기가 무슨 새 영농법을 알고있겠는가, 설사 알고있다고 해도 인민정권기관에서 상투쟁이를 찾아가 머리를 숙이겠는가?

그가 하는 일을 시비하며 이런 말을 돌리는 사람들은 무식한 촌녀자가 치마바람을 일구며 돌아가는것을 아니꼽게 여기기때문이라는것을 김모라니도 알고있었다. 문맹퇴치를 할 때도 성인학교 교원을 할 때도 걸음마다 시비와 뒤소리를 들어왔다. 까막눈에서 벗어난지 며칠이나 된다고 야학선생을 한다는건가? 아낙네라는거야 시부모와 남편공대나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우면 그만이지 성인학교란 또 뭔가? 무던히도 치마바람을 일쿠기를 좋아한다... 김모라니는 누가 뭐라고 하든 야학과 성인학교운영을

중단하지 않았다. 북조선에서 제일먼저 문맹을 퇴치한 모범군의 영예를 쟁취한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였다. 평양에서 열리는 큰 회의에 참가하여 표창장과 함께 상품도 수여받았다. 지금도 그의 집에는 액틀에 넣은 표창장이 벽에 걸려있으며 칠이 벗겨진 낡은 농작안에는 그때 상으로 받은 한자루의 호미가 소중하게 보관되어있다. 회의가 끝난후 시상을 받은 10여명의 농민들은 만경대에 나가 장군님의 조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렸는데 김모라니는 바로 그 호미를 손에 쥐고 김보현할아버님과 리보익할머님과 함께 밭에서 일했다.

만경대조부모님께서는 광복후에야 글눈이 튼 아이에미가 성인학교 교원에 군녀맹위원장을 하며 맨 선참으로 문맹퇴치군의 영예를 쟁취했다고 얼마나 기뻐하시었던가...

그는 읍거리의 변두리에 산을 등지고 서있는 조그마한 목조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 건물에 여러 근로단체 군위원회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군녀맹사무실을 찾아들어갔다. 위원장을 둘러싸고 웃고 떠들며 무슨 문제인가를 의논하던 일군들이 앞을 다투어 의자를 내주며 앉기를 권했다. 명랑하고 의욕에 넘친 그들의 모습을 본 모라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여오르고 머리속의 무거운 번뇌도 바람에 날린듯 건듯 사라졌다.

《녀맹에서 주동이 돼서 애국미헌납운동을 전개하지 못할가요?》

그는 녀맹을 찾아온 까닭을 말하기 시작했다.

《대령군과 같이 땅이 척박한 고장에서는 낱알을 절약해서 헌납운동을 할수밖에 없을것이니 아주머니들과 런계가 많은 녀맹에서 이 운동을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نالال을 직접 다루는 사람은 밥을 짓는 아낙네들이다. 한집에서 주부가 한끼에 한손가락씩 절약하면 한주일에 한사발의 날알이 나온다. 올해 수해를 입은 농가를 제외하고 천수백여호의 농가에 이런 식으로 날알을 모으면 능히 한달구지이상의 애국미가 마련될수 있다. 대령군에서는 조나 수수가 주식이니 그것도 좋다. 애국심이 발동되면 많은 땅마지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한되박의 날알을 애국미로 바치는것과 같은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집에서 제일먼저 애국미를 내겠어요. 남순이 아버지의 이름을 애국미헌납자명단에 제일 처음 써주어요. 종자와 시부모님 생일날 대접할 쌀을 내놓고 모두 애국미로 내겠어요.》

녀맹일군들이 놀란 빛을 띠우고 모라니의 웃음어린 얼굴을 마주봤다.

《그렇게야 어떻게?...》

위원장이 주저하는 기색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다.

《왜요? 장군님께서 부여해주신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날알인데 무엇이 아깝겠어요. 8. 15전에는 지주놈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구박이 있어요, 옥과 매질이 있어요? 건국을 위해 한해농사를 지은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수수하고 조가 있으니 해춘이 될 때까지는 견딜수 있어요. 어때요? 녀맹에서 앞장에 서서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어요?》

꾸밈없는 김모라니의 말과 열의에 감동된 녀맹일군들은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섰다. 문맹퇴치군의 영예를 제일먼저 쟁취한 대령군이 애국미헌납운동에서도 본때를 보이자! 그들은 부르짖으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벌써 녀맹일군들이 면을 향해 떠났다. 각면에서 일제히 열성녀맹원회의가 진행됐다. 매 동네에서 녀성들의 모임이 열렸다. 김모라니는 낮에는 수해입은 현장에서 질통을 지고 밤이면 가까운 마을의 녀맹회의에 참가해서 열변을 토했다.

… 야학에서 글눈이 터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게 되고 편지를 읽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까막눈이던 녀성들도 사람구실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까막눈이 되면 또다시 남의 나라에 먹히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서는 종합대학을 세우고 부모들이 혁명가라고 해서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을 받았던 유자녀들이 공부할 학원을 세울 결심을 하신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는 학교를 세울만한 돈이 없습니다. 장군님의 이 근심을 재령나무리별농민들이 풀어드릴 결심을 한것입니다.… 우리 대령군에서도 올해에 두명의 학생이 종합대학에 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갈것입니다. 그 동무들은 지금 교사가 없어서 립시건물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앞으로 민족간부가 돼서 고향에 돌아와 어째서 대령에서는 대학건설을 위해 한되박의 애국미도 내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두가 애국적열의를 발휘해서 애국미를 헌납합시다!…

김모라니가 메고나간 중태에 쌀자루를 들고와서 낱알을 쏟아놓는 녀인들도 있었다. 다음날 조와 수수같은 낱알을 서너말, 지어 한가마니씩 남정의 지계에 얹어 군녀맹에 보내는 녀인들도 있었다. 최로인네는 벼를 두가마니나 헌납했다.

한달구지의 낱알도 거두지 못하리라던 당초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힘꼴이나 쓸만한 황소 다섯마리를 골라잡아 멩에를 메워야겠다는 계산이 나왔다. 다섯채의 달구지에 애국미를 무드기 싣고 출발하기 전날 김모라니는 위원장을 찾아들어갔다.

《이번 애국미헌납운동은 녀맹에서 주동이 돼서 한 일인데 평양에 몇번 가본 내가 가야 한다구 해서 래일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부위원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새파랗게 성이 난 얼굴로 이날도 탁상우에 가로누운 가을해빛을 손가락으로 쓸고앉았던 위원장이 짓씹어내는듯한 말로 대꾸를 했다.

《동무는 참 무서운 녀자요. 내 충고를 듣지 않고 그 길로 녀맹을 찾아가 충동을 했더군. 그건 아무래도 좋소. 명색상 애국미헌납운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수해를 입어서 올해도 넘기기 어려운 농가에서까지 헌납이요, 뭐요 하면서 량곡을 받아냈으니 동무는 래년도 농사를 어떻게 할 생각으로 그런짓을 했소?》

《수해를 입은 농가는 이번 헌납운동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가 뭐요? 이 위원장이 허재빈것 같소?》

탁상우의 해빛을 쓸던 손이 딱 멎었다. 김모라니의 얼굴을 쏘아보는 눈길이 랭혹할만큼 차거웠다.

《내 이런 편향이 생길가봐 우리 군에서는 재령나무리와 같이 헌납운동을 할수 없다고 했던것이요. 평양에 가는건 동무 마음대로 하오. 그러나 그전에 잘못 진행한 헌납운동은 바로잡아야 하오.》

모라니는 빨리 군녀맹에 가서 위원장의 말대로 헌납운동이 잘못 진행됐는지 알아보아야 했다.

《만일 그러한 편향이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래일 새벽에 출발할 예정이니 다시 인사를 할 기회가 없을것 같습니다.》

군녀맹에 가서 따져보니 수해를 입은 농민들가운데 헌납운동에 참가한 집이 더러 있기는 했다. 본인이 간청하다싶이 해서 얼마 안되는 낱알을 내기는 했지만 여유량곡이 아닌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섯개의 달구지에 신기 좋게 맞추어놓은 낱알가마니를 이제와서 풀어헤칠수도 없었다. 김모라니는 열댓집에 반환할 낱알을 자기 집에서 내기로 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군내인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애국미를 실은 다섯채의 달구지는 대령을 출발했다.

서평양창고에서 애국미를 접수하는 량정부일군들은 말할것도 없고 이 사업에 동원된 종합대학학생들은 산간농민들이 헌납한 애국미를 각별한 기쁨을 안고 받아들였다. 비록 량은 많지 않아도 그들이 얼마나 큰 애국적열의를 발휘했는가를 알고있었던것이다. 미리 준비해놓은 려관에도 안내하고 평양시민들이 정성을 들여 마련한 음식도 려관방에 넣어주었으며 애국미를 싣고 평양에 올라온 애국농민들에게 차례지는 특별참관도 조직했다. 그것은 웅장하게 일떠서는 종합대학이나 만경대혁명학원건설장을 견학시키는 일이었다. 달구지를 끌고온 농민들은 소를 돌봐야 해서 가까운 종합대학을 택했지만 김모라니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처럼 김보현, 리보익

조부모님과 함께 밭일을 하며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뜨거운 혈육의 정을 체험해보고싶었으며 고무적인 말씀도 듣고싶었다.

량정부일꾼들이 조직해주는대로 김모라니는 몇명의 농민들과 함께 혁명학원건설장에 도착했다. 평양에서 달려나온 지원자들속에 섞들려 땀을 흠뻑 흘리며 삽질을 하고난 그는 무명천에 싼 호미를 옆구리에 끼고 야산사이의 달구지길을 잠시 걸었다. 그 호미는 말할것도 없이 만경대조부모님과 밭일을 같이하는 행복을 지닐 때 쓰려고 농작속에서 꺼내가지고 온것이다.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수수한 초가집옆의 고구마밭에서 어쩐지 호젓해보이는 두 늙은이가 이랑을 타고 나가며 고구마를 캐고계셨다. 강마른 몸에 뿌옇게 먼지가 낀 감투를 머리에 올려놓으신분은 김보현할아버님이 분명했으며 그옆에서 부지런히 호미를 놀리시는분은 리보익할머님일것이다. 대령산골에서 자식을 슬하에 두지 못한 외로운 늙은이들이 밭에 나와 일하는 모습과 신통히도 비슷했다.

김모라니는 밭머리에서 서둘러 고무신을 벗고 보신을 밭에서 뽑아 그우에 놓았다. 한손에 호미를 들고 치마자락을 허리에 걸어붙이며 급히 조부모님곁으로 다가갔다.

《그동안 몸성히 지내셨습니까?》

김보현할아버님은 눈을 찌프리고 김모라니를 쳐다보셨다.

《임자구만. 작년에 재령의 제원이하구 같이 왔던 김뒤라드라 좀 별난 이름이었는데...》

할아버님께서서는 깊은 주름이 얼기설기 파고든 얼굴에 인정이 흐르는 웃음을 띠우고 잠시 기억을 더듬으시였다. 지난해 모범농민회의에서 표창을 받은 농민들을 만경대에 데리고 나온 사람이 김제원이였다.

《모라합니다. 김모라니라고 합니다.》

《옳아. 모라니야. 제일 선참으로 문맹을 퇴치했다고 해서 상을 받은 모라니야.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올라왔나?》

《애국미를 바치러왔습니다.》

《좋은 일을 하러 왔구만. 오다가 봤지? 성안에 들어가서도 보기 어려운 덩실한 학교가 일어서는걸... 유자녀들이 공부할 학원이지. 우리 집 장군이 생각이 있어 세우는 혁명학원이야. 우리 집에선 애국미를 낼 형편이 못돼서 저 사람이.》

호미를 낀 손으로 리보익녀사를 가리키시였다.

《무명을 낳아 나라에 바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대동군에서 벌써 수천필의 무명을 짚어. 좋은 세상이야.》

할아버님께서서는 고개를 젓히고 가슴속에서 솟구쳐나오는 흡족한 웃음을 내뿜으시였다. 김모라니는 척박한 땅에만 매달린 자신을 뉘우쳤다. 신문에서 수십만원의 돈을 바친 애국적상공인을 소개한 글을 보기도 했는데 어째서 값이 나갈만한 물건을 만들 생각을 못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대령은 옷의 산지로 유명하니 가구를 짜서 팔았더라면 더 많은 애국미를 신고 평양에 올수 있었을게 아닌가!

올해 농사형편을 알아보던 할아버님께서서 걸싸게 호미질을 하고있는 김모라니를 잠시 지켜보다가 문득 물으시였다.

《임자는 어떻게 돼서 모라니라는 별난 이름을 갖게 됐나?》

관골이 두둑한 모라니의 얼굴이 부끄럼으로 해서 불깃해졌다.

《저에게는 사실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니? 그럼 부모님을 모르고 자랐나?》

할아버님께서서는 자못 놀라며 물으시었다.

《그런게 아니라 저는 태를 낳기도전에 이 세상에서 몰려날번한 녀잡니다. 저의 이름은 이웃에서 불려온 아명이 그대로 이름이 된것입니다.》

모라니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자기의 과거를 띠엎띠엎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축에 들지 못하는, 집도 땅도 없는 종의 딸자식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갓난 송아지가 몸을 말리는 외양간에 잇달린 헛간에서 8이나 되는 식솔이 오골거리며 살았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여물이 부글부글 끓는 여물가마칸이 곧 부엌이었으며 닳아빠진 밥주걱과 함께 여물을 휘젓는 나무주걱이 부뚜막우에 같이 놓이곤 했다. 어머니는 지주집부엌에서 구정물에 손을 잠그고 동자질을 하다가는 들에 나가 해저물 때까지 힘겨운 농사일을 해야 했다. 거기에다 시부모와 남편, 4이나 되는 딸자식들의 오만가지 시중도 들어야 했다. 그는 그저 일에 다쫓기는, 느낌도 생각도 없는 목석과 같은 녀인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머리에 기막힌 생각이 응어리처럼 옹치기 시작했다. 제몸에서 태어나는 계집애는 자기와 같은 고역을 면할수 없으며 참기 어려운 고생살이를 할 자식을 낳는다는것은 에미로서 자식에게 죄를 짓는것으로 된다는 생각이 머리속에 굳어졌던것이다. 또다시 배가 부르기 시작했다. 배모양으로 보아 이번에도 딸이 분명했다. 어머니는 고역을 강요당할 자식을 낳는 이런 기막힌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독한 마음을 품었다. 며칠후에 아궁앞에 짚을 깔고 혼자 몸을 풀었다. 또 딸이었다. 그는 피덩어리와 다름없는 계집애를 누데기에 싸서 토방에 놓고는 얼흔이 나간 사람모양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밭을 두지며 스스로의 기막힌 《팔자》를 한탄했으며 태어나자 곧 저승으로 가게 된 가엾은 딸자식을 눈앞에 그리며 울음을 삼켰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 나처럼 고역살이를 할바에는 죽어버리는게 나아. 에미루서 네게 해줄수 있는건 이것밖에 없구나.…»

어머니는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남편과 시부모보다 먼저 밭에서 일어섰다. 이미 숨을 거두었을 딸자식을 땅에 묻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한것이다. 에미의 젖꼭지를 물어보지도 못한 자식을 다시한번 안아보고싶었으며 애기를 묻으며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하늘을 향해 빌고싶었다.

《고생을 모르고 이승에서 살지 못한 뉘까지 저승에서 오래 살게 해주옵소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모양 흐릿해진 눈으로 휘청거리며 외양간 가까이에 이른 어머니는 야무진 애기의 울음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그는 아이를 누데기에 싸서 내놓았던 토방을 향해 허둥지둥 달려가 이웃아낙네의 가슴에 안겨있는 어린애를 빼앗아안고 얼굴과 머리, 빨간 몸에 얼굴을 비비며 오열을 터뜨렸다.

《너만은 고생을 시키지 말자구 했는데, 너만은 고생을 시키지 말자구 했는데.…»

어머니는 흐느껴울며 부르짖었다.

계집애의 목숨을 구원해준것은 복슬강아지였다. 강아지는 토방에 놓여있는 피덩어리와 같은 갓난애의 몸뚱이를 부드럽고 따스한 혀바닥으로 핥아주어 피부의

감각기능을 살려주었으며 살아날수 있는 첫 징조인 오줌을 눌수 있게 했다. 동네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곧 죽음의 나락속에 몰려들어갈번한 이 불행한 어린애에게 《모라니》라는 아명을 달아주었다...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물주리를 물고 이랑에 걸터앉아 부위원장의 기막힌 말을 들으시였다.

《임자는 태여날 때에 벌써 왜놈의 세상에서 백성들이 어떤 설음을 안고 사는지 알았구만...》

할아버님께서는 긴숨을 내쉬며 무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한뼉 모진 슬픔도 체험하고 험한 일도 해온 할아버님이였지만 모라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에이는듯한 심정이시였다.

《임자가 왜 그렇게 열성을 내서 배우지 못한 아낙네들의 글눈을 띄워주었는지 이젠 알겠어. 이 좋은 세상을 아낙네들이 빨리 알게 하자구 해서 그렇게 했겠지.》

할아버님께서는 썩살이 두텁게 앓은 손바닥에 대고 설대를 두드려 재를 털고는 대통에 담배를 꺽꺽 눌러담으시였다.

《사람이란 굶은일, 마른일을 다 겪어봐야 세상리치를 알아. 우리 장군이 백성들을 잘살게 하려고 애쓰는것도 설음이란 설음,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어봤기때문이야. 나이로 말하면 내가 곱절이나 더 살았지만 고생으로 말하면 우리 장군이 더 많이 했지. 임자는 이것을 알구 우리 장군을 잘 만들어야 해.》

할아버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씀하시였다.

《하느라고는 하는데 일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아는것도 적고 소견도 좁아서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일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되기만 하겠나. 그렇다면 곤난이란 말이 생겨나지도 않았게. 장군은 사람이 알아야 할것중에 제일 큰것이 나라없는 설음이구 사람이 겪어보야 할것중에 제일 소중한것이 가난속에서 고생을 해보는것이라고 했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없는 설음을 알아야 조국을 사랑하게 되구 사람이 고생을 해보야 인정이 고마운줄도 알고 우리 백성들을 잘살게 하려구 뼈심을 들여서 일을 한다는 뜻이야. 그런즉 임자야말로 그런 사람이라구 할수 있지 않나. 장군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잘하라구.》

《알았습니다.》

김모라니는 할아버님의 말씀이 너무나 뜨겁고 살뜰해서 목메인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점심전에 떠나려고 발에서 일어섰다.

《별루 일을 도와드리지 못하면서 마음만 아프시게 해서 안됐습니다. 전 돌아가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서는 필적 뛰며 모라니의 손을 붙드셨다.

《때식을 앞두고 객손을 떠나보내는 인심이 어디에 있나? 집사람이 먼저 집에 들어가는것으로 봐서 임자의 때식도 끊어놨을거네.》

할머님께서 치마폭에 고구마를 담아들고 먼저 발을 떠나신것은 자기의 점심때문이였다는것을 김모라니는 그제야 알았다.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을것인데 할머님께서 손수 자기와 같은 촌녀자에게 때식대접을 할 생각을 하시다니...

부위원장의 가슴속에 뜨거워진 것이 고였다. 그는 할아버님한테 이끌리다 싶이 하여 만경대고향집 사립문안에 들어섰다. 할머니께서는 고구마를 삶아놓고 모라니를 기다리고계셨다. 조부모님께서는 부위원장을 귀객처럼 안방에 앉게 하시였다. 할머니께서는 그앞에 삶은 고구마그릇과 풋김치를 놓아주며 물기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난 임자의 말을 듣고 울었네. 나도 자식을 낳아보고 또 앞세우기도 했네만 임자 어머니가 그런 독한 생각을 품자니 오죽했겠나. 그건 자식을 앞세워본 어머니만이 알수 있어. 어머니는 지금도 앉아계신가?》

《광복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구 가셨구만. 눈을 감을 때도 임자생각으로 가슴이 아팠을거네.》

할머니께서는 눈굽을 저고리고름으로 훔치시였다. 김모라니는 인정깊은 이 초가집에서 며칠 묵으며 마음을 위안받고싶었지만 수많은 일거리와 자식들이 기다리고있으니 그렇게 할수는 없었다.

2

장군님께서는 경쾌하게 달리는 승용차에 몸을 맡기고 마가을 해빛이 가득찬 보통벌을 내다보고계시였다. 김푸른 남새밭들이 나누운 보통벌의 여기저기에 하늘높이 올려쌓은

벼날가리들이 보였다. 집무실을 나서기전에 읽은, 농림국에서 제출한 서면보고에 담겨있던 글줄들이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올해 작황을 전면적으로 료해하려고 각도에 농림국일군들을 파견하시였었다. 그들이 돌아와 서면보고를 제출한데 의하면 어느 지방, 어느 도 할것없이 례년에 없는 대풍이였다. 평북과 같이 수해를 입은 도에서도 풍년이였던 지난해보다 수만t의 알곡을 더 수확할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은 지난해보다 9%의 증수를 예견하여 30만t의 알곡을 더 생산하는것이 목표였는데 계획을 초과할수 있다는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30만t을 증수하면 낱알이 모자라던 북조선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된다. 먹는 문제가 풀리게 되는것이다. 일제놈들에게 낱알을 수탈당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장정들까지 징용, 징병으로 깡그리 끌려가 굶주린 배를 그러안고 광복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됐으니 이 얼마나 큰 력사적전변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흥분하여 집무실을 거니시다 준공단계에 이른 혁명학원을 현지지도하려고 인민위원회를 나서시였다.

혁명학원에 도착한 장군님께서서는 교실과 실습실, 침실과 도서실은 말할것 없고 식당과 주방까지 돌아보며 못내 만족하여 일군들에게 치하의 말씀도 주시고 미흡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시정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기도 하셨다. 현지지도는 예정했던 시간을 초과해서 어방없이 연장되였다. 그런데도 장군님께서서는 창고며 교정을 돌아보고 사격훈련장으로 향하시였다. 책임부관이 안타까와하다가 장군님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그이께서 오늘도 점심을 번지실것 같았던것이다.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건성건성 돌아볼수야 없지 않소. 나는 유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요.》

장군님께서서는 마가을의 짧은 해가 사위기 시작할무렵에야 학원을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수행한 간부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먼저 돌아가시오. 오래간만에 만경대에 나왔는데 난 조부모님을 잠깐 만나보고 들어가겠소. 함께 내려가서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는 조밥 아니면 감자밖에 없겠으니 권하지는 못하겠소. 늦어서 안됐소.》

장군님께서서는 마가을의 정취가 무르녹은 만경봉기슭의 애솔밭을 헤치며 고향집으로 내려가시였다. 동행한 간부들도 그이의 뒤를 따랐다. 만경대조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지만 험한 음식을 들지 않게 하려고 먼저 시내에 들어가라시는데 어떻게 발길을 돌릴수 있겠는가.

할아버님, 할머니님은 여럿의 발자욱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시였다. 장군님께서 일군들의 앞에 서서 밭에 들어서고계시였다. 할아버님께서서는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오금을 펴시는데 주름이 열기설기 꽤인 얼굴에 반가움을 다잡지 못한 밝은 웃음이 넘쳐난다.

《학원에 나왔던 길에 고구마맛을 보려구 들렀습니다. 난 우리 집 감자가 제일인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부모님께 인사를 하며 시원스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할아버님께서서는 두어대밖에 남지 않은 앞이를 드러내며 흡족한 웃음을 지으시었다. 고구마를 좋아하는 장군님의 식성을 생각해 감자농사를 각별히 정성을 기울여 짓군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준것 같아 무등 기쁘셨던것이다.

《고향땅에서 캔 감자니까 입에 붙겠지. 내가 지은거라서 그렇겠나. 돌아갈 때 증손들에게 줄걸 친구 가라구.》

《할아버님, 할머니도 오늘 아예 시내에 들어가십시오. 년세가 어떻게 되시게 아직 농사를 짓고계십니까?》

장군님과 동행한 인민위원회 서기장의 권고였다.

《그렇지 않아두 지난해에 우리 집 녀장군이 증손들이 보고싶어한다구 우릴 억지로 자동차에 태워가지구 시내에 들어갔지. 그런데 농사로 늙은 내가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몸이 근질거려서 견디겠더라구. 열흘도 채우지 못하구 도로 나왔어.》

교육국장이 발을 돌려보다 불쑥 한마디 했다.

《나이가 계신데 오늘 하루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축내시다니 참 대단합니다.》

《웬걸, 이젠 늙어서 우리 힘으로 하루 두어마지기도 뛰지기 어려워. 대령의 녀맹위원장이 일을 축냈어.》

《대령의 녀맹위원장이라니 김모라니라는 이름을 가진 녀동무가 왔습니까?》

장군님께서 물으시었다.

《웁아, 그런 이름을 가진 애어머니야. 내 오늘 정말 기막힌 말을 들었어.》

할아버님께서서는 이랑에 앉아 고불통에 담배를 꺾꺾 눌러담으며 모라니의 기구한 운명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수행한 일군들도 김모라니의 기막힌 지난 생활에 큰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었다.

할아버님께서 이야기를 끝내시자 장군님께서 깊은 생각에 잠긴 안색으로 말씀하시었다.

《그 녀성동무는 군녀맹위원장이 아니라 지금은 대령군인민위원회에서 부위원장사업을 합니다. 아이가 4이나 달린 어머니인데 얼마나 열성이 높은지 남자들도 당해내지 못할만큼 많은 일을 하는 동무입니다.》

《장군도 알고있었구만.》

김일성동지께서 모라니를 알고계신것이 너무도 기뻐 할아버님의 얼굴에 꽤인 깊은 주름이 빛나는 웃음속에 녹아들었다.

《그 부위원장이 어떻게 돼서 모라니란 이름을 갖게 됐는지 나도 할아버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말씀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뒤에 서있는 서기장을 돌아보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네가 올려보낸 문건에 말썽군이라고 한 그 녀성부위원장이 할아버님이 방금 말씀한 그 동무요.》

장군님께서서는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회의를 준비하고계셨다. 그런데 서기장이 올려보낸 기초자료에 각계각층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권기관 일군들이 단합되지 못하고 다투는 현상이 있다면서 그의 대표적실례로 평북도 대령군을 들었다. 대령군인민들이 단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김모라니부위원장의 공명주의탓이라고 했다. 기초자료의 작성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와 같은 결함을 반드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담배연기를 날리고계시는 할아버님께 물으셨다.

《그 부위원장동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김모라니를 꼭 만나고싶으셨다.

《여기에 있어. 점심을 축내기가 미안해서 떠나겠다는걸 내가 붙들어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 고구마를 이어드리겠다고 광주리를 가지러 들어갔는데 왜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구만. 아까두 장군에게 걱정을 끼칠 일을 했다고 얼굴빛이 흐려지던데 모라니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

《그건 이제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할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부위원장이 밭에 나오지 못하는 리유를 알만 합니다.》

자신께서 만경대고향집에 나왔다는것을 알면 허둥지둥 달려올 부위원장이 얼굴을 내보이지 못하는 까닭을 그이께서는 짐작할수 있으시였다. 사실 광주리를 찾아들고 트랙을 나서던 김모라니는 수원들의 앞에 서서 고구마밭으로 향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져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평양에 올 때 혹시 장군님을 뵈게 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것인가? 이런 근심으로 발걸음이 무거워지군 했는데 뜻밖에도 만경대에 와서 그이를 뵈게 된것이다.

그가 부엌에 들어박혀 혼란된 머리를 수습하려고 애쓰고있는데 리보익할머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집에 들어오셨다. 장군님께서 찾으시니 어서 나가보라고 등을 떠미신다.

그가 할머니에게 끌리다싶이하며 고구마밭에 나갔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동면에 들어 검푸른 잎사귀를 드리우고 서있는 야산기슭의 소나무밑에 서계셨다.

그이께서는 서기장에게 묻고계시였다.

《대령군일군들이 단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김모라니부위원장의 공명주의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 자료요?》

웃매무시를 바로잡기도 하고 머리를 비다듬기도 하며 장군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가는 김모라니의 귀에는 물론 그이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다만 흐려진 안색으로 서기장에게 인민의 신망을 얻고있는 간부들에 대한 문제는 특히 심중해야 한다는, 그것도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을 들을수 있었을뿐이었는데 부위원장은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모라니의 정중한 인사를 받고나서 밝은 웃음을 띄우신 모습으로 다정하게 물으시였다. 아이들은 잘 자라는가?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를 어떻게 하고 평양에 왔는가? 동네아주머니에게 말기고 왔다? 하루저녁도 아니고 며칠동안이나 젖먹는 아이를 봐주겠다는 아주머니가 있는걸 보면 부위원장이 동네녀인들의 인심을 얻고있는 모양이라고 하시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시였다. 시부모와 남편의 건강에 대해서도 물으셨다.

《대령군에서는 애국미를 얼마나 헌납했습니까?》

그이께서는 대령군과 같이 땅이 척박한 고장에서 애국미를 헌납했다는것이 어쩐지 근심되시는듯한 안색이였다. 모라니는 눈길을 떨구고있어 그이의 얼굴에 건듯 비꼰다 사라진 근심의 빛은 감촉하지 못했다. 그는 부끄러운 기색으로 나직이 말씀드렸다.

《겨우 다섯채의 달구지에 60가마니의 벼를 신고왔습니다.》

《대령군에서 60가마니를 헌납했으면 대단합니다. 애국미헌납운동을 하느라고 농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장군님의 칭찬에 김모라니는 기운을 얻은듯 얼굴을 들었다.

《소출이 많지 못한 고장이여서 처음에는 헌납운동에 참가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국미헌납운동의 정치적인의를 알게 된 후에는 모두들 쌀을 더 많이 내지 못해 안타까와했습니다.》

모라니는 그이를 우러러보며 말씀드렸다.

《정치적인의를 알게 된 후에는 더 많은 쌀을 내지 못해 안타까와했다, 그래 정치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했습니까?》

모라니는 자기와 군녀맹에서 진행한 정치사업방법과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렸다.

《나라도 까막눈이면 남의 나라에 예속된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선전사업을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큰 부담도 주지 않고 온 군이 애국미를 헌납했다는 긍지를 갖게 됐다니 좋습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동무는 앞으로 먼길을 오고가지 마시오. 아이들이 많구 군사업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모라니는 장군님의 자심한 말씀에 눈곱이 뜨거워진듯 얼굴을 수긋한채 나직이 중얼거렸다.

《알겠습니다.》

《내 부위원장동무에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동무는 어떤 생각으로 관개공사를 하구 또 새로운 영농법을 도입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장군님을 뒤따라 애솔과 가독나무를 헤치며 산비탈을 걷던 모라니는 한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두리두리한 검은 눈에 의혹의 빛을 담고 장군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말씀드리려던 그는 장군님께서 질문하시는 뜻을 그제야 깨달은듯 머리를 떨구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굴을 싸쥐고 흐느껴우는듯한 목소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 뒤를 돌아보시였다.

《무엇을 잘못했다는겁니까?》

《제 잘못으로 관개수로가 못쓰게 되구 개답한 논도 얼마간 모래에 묻혔습니다. 우리 대령과 같이 물살이 사나운 산골에서는 관개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면서 손땀을 놓고 나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령에서 수해를 입은것은 부위원장동무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로에 물을 대고싶어 동뚝을 허물었지만 원상대로 다져놓지 않았습니까. 올해의 늦장마는 많은 강수량이 일시에 쏟아져서 평북도의 대부분의 군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실태를 알아봤는데 대령군이 피해를 본것은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졌구 일제놈들이 나무를 판벌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동무는 어째서 수해를 입은것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합니까?》

억센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셨던 부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약해졌는가? 건국기상을 지녔던 녀성,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려고 제몹을 돌보지 않으면서 뛰어다니던 부위원장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가?

모라니는 주밋거리다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이번에 일을 당한후 저는 녀자가 간부를 한다는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제 성미가 드세다고 시비를 해온 군간부들은 말할것 없고 야학에서 함께 공부하고 저녁밥을 지어주고 아이를 업어주면서 성인학교에서 공부를 시킨 아낙네들까지 녀자가 나서서 하는 일이 잘되는걸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별려놓은것을 녀자의 공명심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지금도 공명이란것이 어떤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모라니는 눈물이 그렇그렇하게 고인 눈으로 장군님을 쳐다봤다. 장군님의 안색도 저으기 흐려지셨다. 그이께서는 산비탈에 드러난 너럭바위에 앉으며 모라니에게도 옆에 앉기를 권하시였다. 부위원장은 앉을념을 못하고 오히려 한발자욱 물러섰다.

《부위원장동무의 말을 알겠습니다. 공명을 위해서 관개공사를 한것도 아니고 새 영농법을 도입한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시작했던 일이 난관에 부딪치니 말이 많고 심지어 야학에서 같이 공부한 녀성들까지 뒤소리를 하니 녀자가 앞에 나서서 일을 하기는 어렵다... 이것이겠습니까?》

모라니는 머리를 떨구고 고무신앞코숭이로 마가을빛을 어루쓸며 잠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서있었다. 막상 그이의 말씀을 들으니 자기와 같은 녀자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고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시켜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저버린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던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속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도 어려웠다.

《그럼 부위원장동무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권기관사업을 부위원장동무와 같은 여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라니는 무겁게 떨구었던 머리를 들기는 했지만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한 눈길이었다.

《현시기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혁명적과제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북조선의 인민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것 같습니까? 북조선정권은 노동자, 농민의 정권입니다.》

그제서야 김모라니는 장군님께서 물으시는 뜻을 안듯 해별에 그을은 검실검실한 얼굴이 희뻑해졌다.

《토지개혁과 같은 민주개혁의 고마움을 알게 해야 합니다.》

모라니는 자기의 말에 자신이 없는듯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리듯 답변을 드렸다.

《웁습니다. 우리 제도가 좋은 제도라는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부위원장동무와 같이 왜놈의 세상이 어떠한지, 지주의 학대라는것이 어떤것인지 잘 아는 여성이 정권기관사업을 해야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려고 아글타글 노력할것이 아닙니까.》

할아버님으로부터 부위원장이 어떤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태여났는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며 장군님께서서는 모라니의 모습을 다시한번 찬찬히 여겨보시였다.

《부위원장동무도 이젠 아이어머니가 됐으니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독한 생각을 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겁니다. 부위원장동무가 그 산골에서 이악한 노력을 하는것도 광복전과 같은 기막힌 생활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군녀맹에서 일할 때 기와집을 많이 짓고 문맹퇴치사업을 한것도 그렇구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사업을 하는 지금도 산간농민들을 더 잘살게 하려고 이악한 노력을 하는것은 제도의 고마움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을겁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일제시기와 똑같은 식민지정책을 실시하는 미제를 반대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있습니다. 부위원장동무와 같이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된 행복한 생활을 쟁취하려고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라니동무와 같은 일군이 난관이 좀 있고 일부 사람들이 뒤소리를 한다고 해서 부위원장자리를 내놓았다는것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럭바위에서 일어나 마른 풀을 밟으며 때로는 손세를 쓰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장군님의음성은 준절하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동행한 일군들과 모라니를 둘러보시였다.

《남조선에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불행을 겪으면서 고역살이를 해온 김모라니동무를 도와줘야겠습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김모라니곁으로 다가가 치마폭에 애써 감추려고 하는 손을 잡아드시였다. 그의 손은 거칠거칠한 썩살이 두텁게 앓고 뼈마디가 툭툭 불거졌으며 농사군의 손치고도 너무나 험한 녀가래같이 큰 손이였다.

《이 손을 녀자의 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 손은 고역중에서도 가장 험한 고역을 강요당한 손입니다. 어머니까지도 딸자식에게 이런 고역을 겪지 않게 하려고 독한 생각을 했습니다. 광복후에야 자기도 사람구실을 할수 있다는것을 알고 힘든줄을 모르고 뛰여다녔는데 또 구박을 받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그대로 묵과해야겠는가?》

장군님께서는 김모라니를 너럭바위에 눌러앉히고 자신께서도 그옆에 앉으시였다.

《그런데 부위원장동무자신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녀성들을 대담하게 등용하라고 한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 녀성들은 2중3중의 차별대우와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왔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녀자들도 남자들 못지 않게 정권기관 사업도 할수 있고 건국에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려는데 있습니다. 조선녀성의 참혹한 과거를 체험한 모라니동무와 같은 녀성들을 녀성해방의 선두에 세우는데 그 정책의 목적이 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동무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봐도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는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김모라니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몸둘바를 몰라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견이 좁아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비록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김모라니의 말에는 굳건한 결심이 어려있었다. 그의 검실한 얼굴에도 새로운 결의가 차넘치기 시작했다.

《나는 김모라니동무가 앞으로 반드시 큰일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는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늦은 점심이 다 된듯 할아버님께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시는게 보였다.

《늙은분에게 공연한 걸음을 시킬것 같습니다. 이젠 내려가봅시다.》

일행은 장군님의 뒤를 따라 산비탈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김모라니를 가까이 불러 《봉건》이란 말을 듣는 최로인네도 수해를 입었는가?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후 로인의 동향은 어떠한가? 수해로 해서 올해 알곡수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것 같은가? 대령군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그이께 답변을 드리고난 김모라니는 무슨 이야기를 꼭 하고싶은 모양이었으나 감히 그럴 용단을 내릴수 없는듯 그저 바재이기만 했다. 장군님께서 독촉을 하시였다.

《부위원장동무, 우리에게 할말이 있으면 이야기하시오. 일이 잘되자면 속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모라니는 그이의 재촉을 또 한번 받고서야 송구한 빛으로 말씀드렸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현물세를 감면해주실수 없겠는지... 저도 나라의 량곡사정을 대체로 알고있습시다만 사태에 묻힌 밭도 있구 물이 쓸고지난 농토들이 있어서 일부 농가는 현물세를 물고나면 래년에 농사를 짓는데 영향을 받을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서는 서기장을 돌아보며 혼연한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서기장동무생각엔 어떻소? 아직 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인민정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요. 회의를 했다고 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도를 찾을수 있겠소? 오늘 인민위원회에 들어가거든 곧 재해지역의 실태를 료해하는 사업에 착수하시오. 수해를 입은 농민들의 현물세를 감면해줍시다.》

그이께서는 방금전까지 주눅이 들고 기가 꺾인 모습이던 모라니가 이런 제기를 한것을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3

문건을 읽고난 김책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비끼고 설핏한 눈섭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의 앞에는 유엔에서 보내온 통고문이라는것이 놓여있었다. 장군님께서 서기를 통해 내려보내주신 문건이였다.

우리의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회의에서 채택된 그 어떤 결의도 북조선은 인정할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는 일언반구의 반응이 없던 유엔에서 이런 통고문을 보내다니?... 구겨던지고싶은 문건이였지만 놈들의 의도를 똑똑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김책은 통고문을 또다시 훑어내리기 시작했다.

외교문건이 흔히 그렇듯 문건은 난해하고 까다로운 문장으로 되어있었는데 그중에서 눈을 날카롭게 찌르는 글발은 조선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조선만이 아니라 북조선에서도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것, 유엔의 리념에 맞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진행될수 있게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선출했다는 문구들이였다. 이런 어이없고 파렴치한 말을 어떻게 감히 할수 있는가. 김책의 가슴속은 분격으로 끓어번졌다. 북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것은 미제가 저희네 꼬나불을 들여보내서 건국열의가 끓어번지는 민주기지를 허물어보겠다는것인데 조선의 통일을 위한것이라니?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것은 또 뭔가? 조선문제를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자주의사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것인데 그 무슨 위원단이란것을 조선에 파견해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다니...

김책은 통고문에 첨부된 《유엔림시조선위원단》 성원국의 이름을 따져봤다. 자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헌법도 갖고있지 못한 자치령인 주제에 유엔의 의석을 차지하고있는 《나라》,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명맥을 이어가고있는 국가 아닌 《국가》, 미국의 사촉을 받아 6억에 가까운 인구를 참혹한 내란속에 떠밀어놓었다가 이즈음 중국인민해방군의 드센 반격에 부딪쳐 그 존망을 가늠할수도 없게 된 장개석대표... 이따위것들이 어떻게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속에서 선거가 진행될수 있게 한단 말인가. 미제의 룡간질을 거들고들면서 조선을 감쪽같이 미국에 섬겨바치려고 별의별짓을 다할것이다.

과란 섬광이 타번지는 눈으로 문건을 쏘아보며 앉아있던 김책은 움푹 자리에서 일어섰다. 뒤짐을 진 그는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안을 오고가면서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이따위 오만하고 파렴치한 잔피놀음에는 철권을 안겨야 한다.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명의로, 아니 인민위원회의 이름을 내뱉것도 없다. 외무국의 명의로 북조선은 유엔결의를 인정할수도 받아들일수도 없다는 성명을 내도 놈들의 잔피놀음에 철추를 안기는것으로 될것이였다.

사무실안을 거닐던 김책은 창가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해는 벌써 저녁빛을 걸어안고 해방산너머로 사라져버린 뒤였다.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내리비치는 밝은

불빛이 진회색 거리에 길게 누워있었다. 통고문을 어째서 내려보내셨을까? 김책의 머리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성명을 하나 내면 그만일 이런 별치 않은 문제를 의논하려고 통고문을 내려보내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며칠간 외지에 나가있던 김책이여서 최근 미제의 동향을 알게 하려고 내려보내셨는가? 어째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더 깊은 의도가 계시어 통고문을 보내신것 같았다. 어떤 의도에서일가? 김책은 자리에 앉아 두손을 무릎위에 올려놓고 창밖에 생각깊은 시선을 던졌다.

장군님께서서는 짐무탁을 대하고 앉아 남조선정세자료를 료해하고계시였다. 이날 오전 김책을 거쳐 해당 부서에서 올려보낸 자료였다.

부서에서는 남조선의 각이한 정치세력이 단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남조선정세의 대세라고 했다.

...허헌은 도저히 화합될수 없을것 같던 남조선좌익을 단결시켜 수만의 서울시민들이 미군사령부앞에서 일대 룡성투쟁을 전개할수 있게 했다. 성시백은 홍명희, 리극로, 안재홍, 최동오와 같은 저명한 인사들이 주동적역할을 하는 민주독립당을 모체로 하여 민족자주련맹을 발족시키는데 성공했다. 련맹위원장직을 김규식이 맡았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민주의원》, 《과도립법의원》, 《좌우합작》의 산파역을 맡았던 그가 민족자주를 정강으로 내세운 련맹위원장자리에 앉았다는것은 민족대단합의 거세찬 흐름이 소용돌이치며 혼돈상태에 있던 남조선정계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는것을 의미한다....

장군님의 눈앞에는 좌익의 각당, 각파 지도자들에게 단결의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허헌의 관골이 두뚝한 얼굴이며 중간파와 우익정객들을 단합시키려고 서울시내를 동분서주하는 성시백의 지성이 내뻗은 얼굴이 떠올랐다. 성시백과 허헌은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단합이 대세로 되기 시작했을뿐 아직 하나의 역량으로 굳게 화합하지는 못하고있었다.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 조선이 민족자립사상에 기초해서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야겠는데 거기까지에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반드시, 그것도 지금과 같은 속도가 아니라 비약적인 속도로 적극적인 애국력량을 하나로 굳게 단합시켜야겠는데 그것이 과연 성취될수 있겠는가?... 민족적대과제가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장군님께서서는 숨을 쉬기도 어려울만큼 가슴이 답답하시였다. 정세자료를 번지던 손을 멈추고 눈길을 드시였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다가서서 무거운 눈길을 밖에 던지시였다. 겨울추위를 불러오는 저녁어둠이 잔광을 끌며 사라질무렵부터 일체 출입을 금지하고 민족적대과제를 성취할수 있는 방도를 두고 사색을 이어오셨는데 벌써 밤도 어지간히 깊었다. 북조선인민위원회청사의 조명등들은 이젠 거의 꺼지고 김책의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만이 거리를 밝게 비치고있었다.

대단합으로 이르는 비약의 길, 남북조선애국력량을 단합에 이르게 할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도,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것을 모색하고계셨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려고 김책에게 유엔에서 보내온 통고문이라는것을 내려보내시였다. 이를테면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알게 하기 위한 사전사업이였다.

정세자료의 나머지부분을 마저 료해하려고 자리에 돌아와 앉은 장군님께서서는 문건을 번져나가시였다. 그이의 눈앞에 또다시 성시백, 허헌 그중에서도 가름사한 얼굴에 턱이 든든해보이는 성시백의 모습이 떠올라 오래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남북조선 전체 애국력량을 빠른 시일내에 단합시킬수 있는 남북협상을 구상하고계시였다. 이 대담한 구상을 성공으로 이끌자면 성시백, 허헌 그중에서도 특히 성시백이 많은 일을 해주어야 했다. 중간과는 말할것도 없고 북조선이 마치 쏘련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있는것처럼 생각하는 우익계 인물들에게 우리 당의 민족자립사상을 납득시킬수 있겠는가?...

정세료해를 끝낸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김책을 찾으시였다. 김책은 곧 집무실에 들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앞탁끝에 서있는 그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히시였다.

《시간이 늦기는 했지만 심중하게 의논하고싶은 문제가 있어서 찾았습니다. 유엔에서 보내온 통고문을 읽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해주시오.》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 기색이던 김책의 얼굴에 짙은 혐오의 빛이 비졌다. 그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동에 격분을 참을수 없어하는 날카로운 음성으로 답변을 드렸다.

《미국놈들이 잔피놀음을 하고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립병옥이란 놈이 <과도립법의원>에서 감행한 행동과 비슷한짓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놈들이 유엔을 리용해 어떤 룡간을 피우려고 하는지 김책이 간파했다는것을 아셨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의 다음말을 기다리시였다. 김책은 자기가 지나치게 간단히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놈들이 그런 럽치없는 문건을 우리에게 보낸것은 남조선 《단독선거》를 합리화할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한 잔피놀이이다, 조선의 통일을 위해 전국적인 선거를 진행할데 대한 결의를 유엔에서 채택하기도 했다, 북조선에서도 《유엔감시하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도 했다, 그런데 평양측은 유엔의 결의도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아 막부득이 남조선의 제한된 지역에서 선거를 할수밖에 없었다.·· 권모술수치고는 너무나 빠드름한 이런 잔롱간을 부려서 명분이라는것을 얻어보자는것이다. 미제도 조선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어 유엔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런 구차스러운 권모술수를 쓰기도 하는것이다.

《나도 동감입니다. 미국놈들은 잔피를 부리고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놈들의 롱간질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김책동무는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을것 같습니까?》

《목살해버리거나 외무국에서 성명을 하나 내뜨리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북조선민전에서 성명을 내게 했습니다.》

북조선인민들의 총의를 담아 유엔결의를 반대하자면 외무국보다 민전에서 성명을 내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책동무도 우리가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것을 타산하고 미국놈들이 통고문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는것은 유엔을 통한 미제의 공세와 우리의 준비정도를 놓고 생각되는것이 없었는가 하는것입니다. 김책동무도 정세자료를 봤으니만큼 남조선의 애국력량의 단합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었을겁니다.》

김책의 얼굴은 대번에 킁킁해지면서 심중해졌다. 문건을 내려보내주시었을적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으리라는 생각은 했지만 장군님께서 방금 말씀한것과 같은 폭넓은 사색을 요구하고계시는줄은 알지 못했다. 그는 허심하게 자신을 뉘우쳤다.

《그런 각도에서 문제를 고찰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출장나가 있었으니 처리할 일이 많아 미처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것입니다.》

장군님의 말씀에 김책은 자책감이 더욱 깊어진듯 몸둘바를 몰라했다. 출장나가있는 사이에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드바쁜 하루를 보낸것은 사실이였지만 장군님께서 제일 마음을 쓰고계시는 문제에 선차적주의를 돌려야 했을것이 아닌가. 현시기 통일정부수립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또 어데 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이야기의 서두를 어떻게 떼야 하겠는가를 생각하시다 마음이 심중해져서 두손으로 무릎을 짚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근엄한 안색으로 잠시 집무실안을 오가던 그이께서는 가슴속깊이에서 울려나오는 무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쏘련군철수를 결심할 때가 생각납니까?》

김책은 가슴팍을 꿰질런듯 몸을 후두둑 떨더니 여윈 량어깨를 추켜세웠다. 통고문을 내려보내주신 장군님의 의도에 그렇게도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던가? 어째서 가슴이 타드는것 같던 몇달전의 그날을 회고하시는가?...

그이께서는 품고계시던 생각을 터놓으시였다.

《우리가 쏘련군철수를 결심할 때처럼 정세가 긴박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적들은 유엔을 동원하고있는것은 말할것 없고 우리한테 통고문이라는것을 보내는 망동까지 부렸습니다. 총공격을 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그이께서는 걸음을 옮기며 남조선에서는 이제야 겨우 단합이 추세로 되고있을뿐이라고 하시였다. 유엔을 앞에 내세우고 총공격을 하는 미제와 맞서 싸우자면 북과 남, 남조선에서는 좌익과 중간, 우익이 하나로 뭉쳐 북과 련합을 한 민족자체력량이 꾸려져있어야 하겠는데 우리의 단합은 아직 그런 높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마디마디에 힘을 준 준절한 음성으로 뒤를 이으시였다.

《현재 형편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어떤 사태에 직면하겠는가?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타개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결의에 의해 조작된 남조선괴뢰정부를 중앙<정부>라고 우겨댈수 있기때문입니다. 그것뿐이겠는가?》

그이께서는 틀어쥔 주먹을 들며 음성을 높이지였다.

《미국놈들은 남조선에 조작한 괴뢰정부를 유엔을 리용해 조선의 중앙<정부>행세를 하게 하면서 북조선인민정권을 지방정권인것처럼 취급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놈들이 이런짓을 할것은 명백합니다. 쏘미 량군이 철거하면 조선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겠는데 남조선괴뢰정부를 날조해내려고 유엔을 리용한것은 말할것 없고 우리에게

통고문이라는것까지 보낸 미국놈들이 아닙니까. 이런놈들이 무슨 짓인들 안하겠습니까.
 》

장군님께서서는 여기에 생각이 미쳤을 때 느꼈던 근심, 분격이 다시 살아올랐으나 애써 마음을 녹잡히며 김책을 마주보시였다. 김책도 장군님의 심중을 가슴저리게 느낀듯 얼굴이 철빛으로 굳어졌다. 금시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 뭐라고 웨칠것 같은 표정이다. 사실 그는 미제의 파렴치한 전횡을 절규하고싶었다. 그와 함께 조국앞에 닥쳐온 준엄한 정세를 간파하지 못한 스스로를 뉘우치면서 가슴을 쥐여뜯고싶은 심정이기도 했다. 그사이 장군님께서서는 헤아릴수 없이 무겁고 큰 근심과 격분을 안고 모색을 계속하셨을것인데 난국을 헤쳐나갈 대책안을 안고 올라오지 못한것은 말할것도 없고 들이닥친 엄중한 정세를 꿰뚫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이를 마주대하고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난관을 타개할 방도가 없는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책에게 지나친 근심, 자책을 하지 말라고 위안을 하시는듯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그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겁고도 근엄한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나는 민족자체력량을 편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동적인 립장에 서서 남조선만이 아니라 북과 남, 전민족을 굳게 단합시킬수 있는 전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것입니다. 그 방도는 남북협상을 하는것입니다. 남조선좌익, 중간세력, 김구, 김규식선생을 선두로 한 우익과 협상을 하자는것입니다.》

김책은 머리를 번쩍 들며 눈을 크게 떴다. 남북협상, 미제에 붙어서 민족을 반역하고있는 리승만일당을 제외한 남조선의 애국력량과 북조선의 민전에 결속된

민주력량을 한덩어리로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구상, 장군님께서만이 생각하실수 있는 대담하고 심원한 방략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충격이 어린 김책의 얼굴을 지켜보다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씀을 이어나가시였다.

《김책동무가 출장나가있는 사이에 몇사람에게 내 견해를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동무들은 내 생각을 한낱 선전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현시킬 가능성이 없는 구상으로 여기는것 같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사이에 당의 요직에서 사업하는 일꾼이며 북조선민전 의장단성원중의 일부 인사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내비쳐보시였다. 장군님의 구상을 감히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얼굴표정이나 말투로 보아 그들은 남북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이란 없는 한낱 선전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략으로 여기는 모양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실망도 후회도 하지 않으시였다. 뒤로 물러선다는것은 건국열의가 끊어번지는 민주기지, 북조선을 위협한 정세속에 빠져들게 한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후회를 하겠는가. 그이께서는 김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책앞에 와앉아 그의 손을 부여잡으시였다. 진심이 담긴 안타까운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김책동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북협상이 선전적목적이거나 달성하려는 실현시킬 가능성이 없는 일인것 같습니까? 조건을 좀더 성숙시킨 다음에 제기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빨리 통이 큰 대책을 세워야 현난국을 타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책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책은 장군님의 줌안에 들어있는 손을 빼서 그이의 손을 굳게 부여잡으며 견결한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나는 장군님의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현정세는 전민족이 단결해서 미제와 싸우지 않으면 미국놈들이 조작해낸 남조선괴뢰정권이 중앙<정부>행세를 할것은 뻔합니다. 한줌도 안되는 리승만일당을 내세워서 날조해낸 매국<정권>이 중앙<정부>행세를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또 북조선을 어떻게 지방취급을 당하게 할수 있습니까.》

김책은 장군님의 손을 힘을 주어 흔들며 분개해서 부르짖었다. 자기도 집무실에 올라와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정세의 엄혹성을 알게 되었다고 김책은 자책이 담긴 어조로 말씀드리며 남북협상을 의문을 품고 대하는것은 우리가 어떤 정세에 직면해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했다.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린다는것은 우리의 민주기지를 미국놈들이 룡락할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나는 빠른 시일내에 남북협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문제는 성숙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할것입니다.》

김책은 어깨와 손을 푸들푸들 떨며 열정에 넘쳐 말씀드렸다.

《웁습니다!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전민족이 단합할 기회를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족의 단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정치란 한번 기회를 놓치면 수년간의 노력을 순간에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

장군님께서서는 김책과 같이 의지가 굳셀뿐아니라 복잡한 정세의 본질을 재빨리 파악할줄 아는 일군의 동의를 얻은것이 기쁘시였다.

《그런데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호소는 절대로 빈말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적들에게 전민족적단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협상제의를 반드시 실현되여야 합니다.》

김책은 자세를 바로잡고 걱정이 비껴있는 얼굴빛을 가다듬으며 남북협상이 성사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전민족적단합에 이르자면 아직도 수많은 난관을 타개해야 할것이지만 어쨌든 남조선정세는 단합이 대세로 되고있다, 남조선에는 장군님의 사상을 받들고 맹활약을 전개하고있는 성시백과 그의 전우들이 있으며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허헌, 홍명희, 리극로... 이들의 역할이 자못 크다, 민족이 장기분렬되고 조국이 미제에게 예속될 위험에 처한 이때 장군님께서 호소하신 남북협상제안이 남조선에 전해지면 정치세력들의 단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것이다...

《나는 남북협상제안이 전민족적단합을 위한 사업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리라고 믿습니다.》

김책은 한마디한마디의 말에 힘을 주어 스스로의 확신을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김책의 어깨를 힘있게 그러안고싶으시였다. 장군님께서 심중에 두고계시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김책이 말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흥중에 가득찬 고마운 마음을 다잡기 어려운데 오른손으로 김책의 무릎을 지그시 내리누르고 앉아있다가 가볍게 몸을 일으키시였다. 집무탁으로 가서 책상빠람에서 두툼한 문건을 꺼내드시였다. 창밖에 어둠의 장막이 드리운 깊은 밤에 한자한자 초해나가신 연설문이었다. 국토량단과 민족의 장기분렬, 난관에 직면한 통일정부수립... 엄혹한 정세를 놓고 깊은 근심에 잠기셨다간 손에 힘을 주어 글을 써나가기도 하고 남북조선인민들에게 열화같은 애국애족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낱말을 찾느라고 숱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신 문건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건을 들고 다시금 자리에 돌아와 앉으시였다.

《이건 남북협상을 호소할 때 내보내려고 준비한 연설문입니다. 한번 보고 의견을 말해주시오. 북조선민전의회에서 남북협상을 제의하려고 합니다.》

김책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문건을 받아들었다. 겉표지에 《남북협상방안에 대하여》라는 너무나 소박해보이는 제목을 단 문건을 말할수 없는 큰 충격에 휩싸여 김책은 량손에 들고 서있었다. 그러니 그이께서는 연설문까지 써두고 남북협상을 제기할 가장 적중한 기회를 기다리셨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 사이 장군님께서서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량어깨에 걸머지고 사색의 나날을 보내셨겠는가. 김책은 그 사이 외지에 나가있을것을 후회하기까지 했으며 장군님의 뜻을 리해하지 못한 일군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김책은 자리에 앉아 장군님께서 활달한 필체로 쓰신 연설문을 주의깊이 읽어나갔다. 장군님께서 남의 나라를 파렴치하게 침략하려는 미국에 대한 참을길 없는 격분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나라에 조성된 엄혹한 난국을 타개할 역사적사명을 일깨워주면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떨쳐나설것을 남북의 3천만 겨레에게 호소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협상, 남북회담을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협상이 성사되면…전민족적구국통일전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예속을 모르는 자주적민족으로 되게 하려고 크나큰 로고를 바치고계시는 장군님을 생각하니 김책은 가슴에 눈물이 고이고 눈곱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히는듯한 심정이였다.

4

해방산기슭의 나무숲은 이미 락엽이 진 뒤여서 한결 성글어졌다. 장군님께서 락엽이 깔린 숲속을 거닐며 서기장의 말을 듣고계시였다. 수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현물세를 감면해주려고 평북도에 나갔던 서기장은 대령군에서 김모라니와 관련된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적잖게 듣게 되였다. 만경대에 나갔을 때 장군님께서 그 녀성일군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계시는지 알게 된 서기장은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이께 사실대로 보고드리는데 옳은 일이라고 간주했던 것이다. 서기장은 손에 든 수첩을 가끔 들여다보며 말씀드렸다.

…군간부들은 김모라니부위원장이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기가 일쑤여서 호흡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고있다. 특히 군인민위원장은 배운것도 없고 생각이 짧은 모라니부위원장이 일을 자꾸 벌려놓기만 한다고 하며 좋지 않게 보고있다. 거기에다 해서는 안될 부정행위를 한것이 드러나 김모라니는 난처한 처지에 이르렀다…

《어떤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오?》

장군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서기장을 돌아보며 물으시었다. 모라니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수 없으시었다. 말씀드리기 난처한듯 잠시 주뚱거리던 서기장은 역시 수첩을 들여다보며 띠엌띠엌 보고를 드리었다.

…분여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애국투사후원회와 도에서 내려오는 식량을 받았다…

군과 면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에게 아직도 정상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있어 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애국투사후원회와 우에서 내려보내주는 식량을 받지 않는것이 원칙으로 되고있었다.

…반봉건투쟁의 대상인 씨족마을의 최로인을 비호해주고있으며 수해를 입은 농민들한테서까지 애국미를 짜내고는 장군님께 현물세를 감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기를 했다…

최로인을 비호해주었다는것은 이해할수도 있었고 문제로 될것도 없다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었다. 그밖의 말들은 믿을수도 없으셨고 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반영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봤소?》

《제가 받아가지고 내려간 과업은 현물세감면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문제였기때문에 다른 일에 시간을 바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찍어가면서 말하는것으로 보아 수해를 입은 농민들한테서 애국미를 받은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서기장동무가 지금 한 말도 군위원장의 반영이요?》

《그렇습니다. 군위원장이 말할 때 두명의 군간부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위원장의 말에 의견이 없는것 같았습니다.》

서기장을 내려보낸 후에도 그이께서는 해방산의 숲속을 거닐며 믿고싶지도 않고 믿을수도 없는 김모라니의 부정행위를 두고 오래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 만경대에서 본 해별에 그을은 김모라니의 순박한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대령군과 같이 땅이 척박한 산간에서도 애국미헌납운동에 참가시켜 땅을 분여받은 농민의 도리를 다하게 하려고 마을을 찾아다니며 선전사업을 했다는 그,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뉘우치며 정권기관일군답게 일을 잘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던 김모라니, 이런 녀성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당을 속일 생각을 할수 있는가?...

대령군에 가서 실태도 료해하고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싶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북협상을 호소하기 위한 북조선민전의회장단회의를 앞두고 하셔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 도저히 자리를 뜰수 없으시였다. 평북도에 파견되어있는 김일에게 이 일을 부탁하기로 하시였다.

집무실에 내려온 장군님께서서는 전화로 김일을 찾으시였다. 마침 자기의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있던 김일이 곧 전화를 받았다. 김일도 한가지 일만 맡고있는것이 아니라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의 정치사업도 책임지고있는 다망한 몸이여서 될수록 시간을 절약하게 하려고 장군님께서는 근 30분이나 송수화기를 들고 김모라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니 대체로 짐작할수 있는 일 같습니다.》

입이 무거운편인 김일은 그이의 말씀을 듣고나서 한마디 했다.

《절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되오. 간부들문제인것만큼 심중해야 하오. 대령군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이 그 군에만 한정된 문제라고 할수도 없소. 우리 정권을 강화하는데서 반드시 참고로 삼아야 할 심중한 문제가 있을수 있소.》

《알겠습니다. 며칠간 대령군에 가있을 생각을 하고 오늘중으로 떠나겠습니다.》

김일의 무게있는 답변을 듣고 장군님께서는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말할것 없고 광복후 복잡한 문제들이 그중 번거롭게 터지군 하는 평북도사업을 능숙하게 처리해온 김일이니 이번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되리라는것을 장군님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시었다.

갑자기 하늬바람이 터지면서 이해들어 처음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해저물녘이었다. 예고도 없이 김일이 불쑥 나타났다. 장군님께서 그에게 전화를 건지 사흘째되는 날이었다. 짐무실에 들어선 그는 거수경례를 올려붙이고나서 장군님께서 가리키는 의자에 옷몸을 꼳꼳이 펴고 앉았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대령에서 오는 길입니다. 점심때까지 군당확대위원회를 하다 휴회를 하고 떠났습니다. 전화로 결론받을수도 있지만 직접 말씀드리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왔습니다.》

느긋한 성미여서 웬만해서는 성을 내는 일이 없는 김일이 인사를 겸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나자 대뜸 대령군인민위원장은 질이 나쁜자라느니, 군인민위원회에서 계급투쟁을 한차례 치른것 같다느니 하며 사뭇 격해서 말하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빙긋이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김일가까이에 가앉아 자개박이담배함을 그앞에 끄당겨놓으시였다.

《우선 한대 피우오.》

말수 적고 과묵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김일도 스스로의 속생각을 지금처럼 몇마디의 말로 폭발시킨 후에 본론을 시작한다는것을 장군님께서서는 알고계셨던것이다. 김일은 담배가치들이 그득히 차있는 자개박이함을 띄여보기는 했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장군님앞에서 버릇없이 담배질을 한다고 김책한테 되게 비판을 받은적이 있는 김일이였다. 그는 사흘동안의 일을 이번에는 지나칠만큼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김모라니부위원장의 집부터 찾아갔다. 어지간한 바람에도 나뉘어질듯싶은 초가마가리였다. 시부모에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남편, 4명의 아이, 쪼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였다. 김모라니는 이날도 비판을 받느라고 회의에 참가하고있어 집에 없었다. 헛간으로도 리용하는 옷방에 놓여있는 쌀독, 쌀항아리들을 들여다봤다. 다 합해도 중독 하나도 채우지 못할 조, 피, 수수가 있었고 벼는 한동이밖에 없었다. 그것이 햇곡식이 날

때까지의 농량의 전부였다. 장군님께서 애국미를 얼마나 냈는지 꼭 알아보라고 하셔서 시아버지의 입을 가까스로 열게 하여 8가마니의 벼를 헌납했다는것을 알아냈다...

《8가마니를 냈단 말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 물으시였다. 김일은 감동된듯도 싶고 어딘지 모르게 통분해하는것 같기도 한 얼굴빛으로 답변을 드렸다.

《그렇습니다. 8가마니를 냈습니다. 소출이 적은 산골인데다 개답한 논이 근절반이나 모래에 묻혔는데 8가마니를 냈으니 한해농사를 다 밀어놓은셈입니다. 거기에다 수해를 입은 농가에서 부당하게 애국미를 받아냈다고 위원장이 시비를 해서 15농가에 좁쌀과 수수를 보상한 낱알이 또 있습니다.》

《애국미를 내라고 강요한것은 사실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농민들이 애국적열의를 발휘해서 자진하여 헌납한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안도감과 함께 가슴속에서 치솟는 노여움을 다잡기 어려우시였다. 안도감은 김모라니를 믿고 아낀것이 역시 옳았다는 생각에서 오는것이였다. 노여움은 엄청난 고역, 압제, 상상하기도 어려운 무권리를 헤치고 광복된 민주조선에 새롭게 태어난 한 녀성을 모해하려든 군인민위원장에 대한 분노에서 온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로상에서 만났던적이 있는 군위원장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였다. 생김새를 자세히 상기할수는 없으셨지만 새 기와집이 군내에서 몇채나 일어서고 관개공사에 매일 몇명의 로력이 동원되는지 알지 못하고있으면서도 별로 당황해하지 않던, 총체적으로 랭담한 표정인 군위원장의 얼굴을 눈앞에 그려낼수 있으시였다.

《군위원장은 의식적으로 모라니부위원장을 모해했소? 자기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소?》

장군님께서서는 그늘진 안색으로 물으시였다.

《저로서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욱 문제였습니다.》

김일은 량볼이 두둑한 길쭉한 얼굴을 찌프리며 말씀을 드렸다. 그는 자기의 보고를 계속했다.

…김모라니부위원장은 군위원회 당회의에서 공명심에 사로잡혀 당정책도 안중에 두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다고 하며 집중비판을 받았지만 조금도 굽어들지 않았다.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입은 위원장은 도의 권한을 빌어 부위원장을 아예 내쫓아버릴 작정을 했다. 날조된 술한 자료를 묶어서 그의 철직을 제기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모라니를 집중비판한 회의록도 보고 도에 올려보낸 자료묶음도 보았다. 모라니부위원장이 진행한 모든 사업이 당정책을 위반한 공명심에 사로잡힌 행동으로 평가되고있었다…

김일은 무릎우에 놓여있는 전투가방덧개를 열고 한무데기의 서류를 장군님앞에 무저놓았다.

《이것이 회의록이구, 이것이 도에 올려보낸 자료와 결정서입니다.》

김일은 서류무지속에서 회의록과 송사질을 하려고 한 자료묶음을 갈라놓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엄청난 량의 종이무지에 시선을 던지기는 했지만 안색이 더욱 침중해졌을뿐 읽으려고는 하지 않으시였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성실한 한

녀성일군을 박해하느라고 이렇게 술한 로력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니 그이께서는 의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우시였다.

관개공사에 대해서는 손해액까지 따져가며 책임을 물었고 새 영농법도입은 고루한 봉건주의자인 최로인을 비호하기 위한것, 애국미헌납운동을 불러일으킨것은 공명심에 사로잡힌 무분별한 행동, 현물세를 감면시켜줄데 대한 제의는 당을 기만하는 비당적행위, 이렇게 전도되고 날조된 비판을 김모라니는 받았다고 했다. 김일은 애써 격한 마음을 녹잡히며 뒤말을 이어나갔다.

…관개공사에 동원된 농민들과 애국미를 비교적 많이 낸 농민들도 만나고 군녀맹위원장과 담화도 했으며 《봉건》이라고 하는 최로인을 찾아가기도 했다. 군위원장의 견해를 그대로 털어놓으니 모두들 펄쩍 뛰며 김모라니는 그런 녀성이 아니라고 했다. 최로인은 자기탓으로 부위원장이 말밥에 오르게 됐다면서 잘못을 빌기까지 했다. 군인민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의 과장과 지도원들은 위원장의 주관주의, 독단, 전횡에 불만을 품고있었으며 김모라니를 간부티를 내지 않으면서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좋은 일군이라고 했다. 유독 위원장만은 자기의 정당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주견을 고집했다.

위원장의 고집을 꺾자면 제눈으로 보고 제귀로 듣게 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해서 위원장과 그에게 아부하는 2~3명의 간부들을 데리고 부위원장네 집에 가서 쌀독들을 들여다보게 하고 몇사람의 농민들을 만나게도 했다.

김모라니와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모라니동무는 장군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내가 대령에 내려왔다는 말을 듣더니 막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일을 쓰게 못해서 장군님께 근심을 끼쳐드렸다고 하면서 책상머리에 이마를 비비면서 흐느껴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라니네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그 기막힌 정경이 불현듯 눈앞에 떠오른듯 불시에 김일의 음성은 갈리고 눈굽에는 물기가 맺혔다.

《모라니부위원장은 책벌을 받게 된 처지였지만 장군님께서 말씀해주신 정권기관일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까와할뿐이지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대학공부도 하고 광복전에 얼마간 사상운동도 했다는 위원장보다 광복후에 야학과 성인학교에서 배운 김모라니가 훨씬 원숙한 품성을 소유하고있더라고 김일은 못내 감동한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군위원장을 비호해온 도일군까지 불러서 군당확대위원회를 열었다. 회의를 열기전에 설복과 교양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말도 듣게 했는데 위원장은 전혀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의 과오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깨우쳐주는 동지들의 비판에도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말로 굽뻔뿐이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그가 얼마나 유해로운 행동을 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김일의 말에는 침묵으로 대했다. 김일은 장군님의 결론을 받은 다음에 회의를 결속할 생각으로 확대위원회를 일단 휴회하고 평양에 왔다. …

《계급적제한성이었습니다.》 김일은 긴숨을 내쉬며 안타까운듯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지난날 압박받고 착취당하던 로농대중이 민주조국건설을 위해 참으로

큰일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지 못하고있었으며 믿지도 않고있었습니다. 저는 정권기관에서 한자리를 하고있는 유산계급출신의 간부들을 모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느때 같으면 장군님께서는 김일의 극단적인 견해를 바로 잡아주셨을것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주관주의자들의 독단이 얼마나 집요한것이며 스스로를 원숙시키는 자기 반성이 없는 일군, 당이 맡겨준 직책에 비해 부족한것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일군이 종당에는 얼마나 무서운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지 대령군위원장의 전횡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었다.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아반성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일군들이 많지 못한 현실태를 생각하니 장군님께서는 여간만 마음이 무겁지 않으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집무실안을 거닐던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김일동무생각엔 그 위원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철직시켰으면 합니다.》

《그자리에 누굴 앉혔으면 하오?》

《김모라니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동무는 대령의 위원장이 계급적제한성으로 해서 주관과 독단에 사로잡힌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것만은 아니요. 사람의 행동은 사상과 의식성에 의해 좌우되는것이요. 출신이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지만 바탕이 좋은 사람도 주관과 독단의 포로가 되면 전횡을 부리게 되고 종당에는 대령군위원장처럼 되고마오. 자기가 특수한 존재가 돼서 간부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우쭐렁거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위원장처럼 된다는것이요. 대령군위원장을 해임하는데는 나도 찬성이요. 군당확대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버릴 생각을 하지 말구 학교에 보내오.»

장군님께서서는 짐무실을 거닐며 한마디한마디의 말에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김일은 자심하고 너그러운 그이의 보살핌에 머리를 숙였다.

《떠나오기전에 <봉건>이란 말을 듣는 최로인을 만나봤소?》

김일의 량볼이 두두룩한 얼굴에 송구해하는 빛이 비졌다. 최로인을 다시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이번에 가거든 로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짐무탁에 다가가 송수화기를 벗겨들고 보안간부훈련소 제4분소 소장 류경수한테 전화를 연결시키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며 말씀하시였다.

《넓은 구습에 물젖은 몇사람 안되는 령감들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오. 자손들이 있지 않소. 모라니녀성이 최로인한테 새 영농법을 알아낸것으로 봐서 농사엔 밝은 령감인것 같소.》

전화기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어중간에서 끊고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창고원으로 있는 최성근동무를 며칠 휴가를 주어서 고향에 보내오. 기관총중대 부사수가 됐다? 그럼 더욱 좋소. 그 동무를 입대시킨 녀성부위원장이 봉건가정을 비호한다는 말을 듣고있소. 봉건가정이 아니라 군대후방가족이란걸 보여주자는거요.

아주 똑똑한 모범군인이다? 류경수동무가 직접 데리고 가겠다는거겠소? 그 군에 지금 김일동무가 가있소. 모범군무자의 가정이 봉건이란 말을 듣는데 소장이 가만있을수 없다는거겠소. 하 하 하... 그건 마음대로 하오.》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는 그이의 만면엔 사뭇 만족해하시는 밝은 웃음이 가득차있었다.

《류경수동무가 최성근전사를 데리고 기어이 대령에 가겠다고 하오. 자동차로 갈테니 래일 아침엔 도착할거요. 김일동무에다 류경수동무까지 대령에 가면 전진을 방해하던 부정적인 현상을 말끔히 털어버릴수 있을거요.》

장군님께서서는 통쾌하게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김일의 길쭉한 얼굴에도 웃음이 피였다.

《왜 일어나오?》

《돌아가겠습니다.》

《이 밤중으로 대령에 가겠다는거요?》

《빨리 가서 김모라니녀성에게 장군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래일 아침부터 회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주관주의와 전황이 비판되었다고는 해도 부위원장이 정권기관에서 계속 사업할수 있다는 결론은 아직 받지 못했으니 김일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안타까이 기다릴것인가.

《한가지 문제를 더 해결해야 할것이 있소. 모라니녀성의 이름문제요. 앞으로 모라니동무가 위원장을 하게 되면 이름이 좀 별나지 않소. 나하고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녀성동무의 이름을 하나 지어보지요. 지금까지 아명을 그대로 쓴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어야 할것 같소.》

김일은 불시에 코허리가 시큰하고 눈곱이 뜨거워졌다. 외진 산간군의 부위원장의 이름에까지 마음을 쓰시는 장군님, 광복전에 그리도 고역에 시달렸다고 해서, 광복된 조국땅에 새로 태어난 새 인간이라고 해서 사실에 있어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사업성과를 그렇게도 높이 쳐주시며 그가 겪은 일시적시련을 괴로와하시는 그이, 새싹이 서리맞지 않도록 그렇게도 마음을 쓰시는 장군님, 이렇게 자심하고 뜨겁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이의 품속에서 위훈을 창조하는 새 인간이 어찌 태어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김일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의 품속에서 태어난 수많은 불굴의 투사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집무실을 나섰다. 오늘중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며 먼저 댁에 가있으라고 하여 집무실을 나서는 김일이였다. 그는 눈발이 차창을 후려치는 자동차에 앉아 장군님댁으로 향하며 김모라니가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떨치며 큰일을 하게 되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5

청신한 아침빛이 사무실에 쏟아져들어왔다. 정교한 꽃문양을 그렸던 창문의 얼음버께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의자에 썩은 천들도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생각에 잠긴 김책의 얼굴만이 얼마간 침침한 빛이다.

김책은 지금 앞타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정준택한테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는데서 난관으로 제기된 일련의 문제들을 보고받고있었다.

《용광로를 빨리 살리지 않으면 황철은 말할것없고 다른 공장들에도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48년도 계획작성도 늦어질것 같습니다.》

정준택은 주로 계획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김책은 철문제가 장군님께서 제기하신 남북협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있었다. 전날 장군님께서 북조선민전의회장단회의를 소집하고 온 나라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협상을 호소하시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김책은 력사적인 남북정치인대회합이 성사될 경사로운 그날을 눈앞에 그렸다. 장군님께서 설계하고계시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조국에 들이닥친 난국을 타개하자고 해도 그렇고 남북협상은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맺어야 했다. 그런데 정준택이 남북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황철의 용광로문제를 이야기하고있는것이다.

황철은 이미 해탄로와 평로를 살려서 콕스와 강철을 생산하고있었다. 그러나 해탄로에서 콕스를 구워내는것도 용광로에서 선철을 뽑기 위한것이며 평로도 용광로에서 녹여낸 쇠물을 받지 않고서는 생산을 계속할수 없었다. 지금은 구내에 널린 파철을 넣어 가까스로 생산을 이어가는 형편이다. 용광로가 살지 않은 기업소는 사실에 있어 제철소라고 할수 없었다.

평양에 들어온 남조선정치인들에게 **김일성**동지의 민족자립사상의 정당성을 인식시키자면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관철되고있는 현실인데 8천명이나 되는 종업원을 안고있으며 동양에서 손꼽히는 제철소로 알려져있는

황철에서 아직 용광로도 살리지 못해서 계획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북조선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관철되고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용광로를 살려야 하오. 용광로에서 쇠물이 쏟아져나오지 않는 기업소를 무슨 제철소라고 할수 있소. 국장동무가 용광로를 복구할 때까지 황철에 나가있을수 없겠소?》

김책이 성긴 눈섭을 미간에 모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몸이 허약해서 병원에서 살다싶이 하던 산업국장이 자리를 내놓은 후 최부국장이 임시 대리사업을 하고있었지만 일이 서툴러서 정준택이 산업국장까지 겸직하다싶이 하면서 기획국장사업을 해왔다.

《국사업을 인계하고 곧 황철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다시한번 만난후에 내려갈 준비를 하시오. 래일 다시 만납시다.》

이날 저녁 김책은 장군님의 결론을 받아야 할 몇가지 문제를 안고 그이의 집무실에 올라갔다. 손에 든 조그마한 수첩을 들여다보며 황철의 복구대책을 그이께 말씀드렸다.

《황철의 용광로가 빨리 복구되지 않는것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최부국장이 황철에 나가살다싶이 하는데 일이 잘 진척되지 않습니다. 정준택동무를 용광로를 살릴 때까지 황철에 나가있게 하려고 합니다.》

《황철의 용광로를 하루빨리 복구해야 합니다. 서종현기사를 황철에 내려보낸지도 몇달되는데 아직 용광로를 살리지 못한것을 보면 애로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 기사동무를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정준택동무를 내려보내는데 나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혼자 내려가서 짧은 기간내에 일을 바로잡을수 있을것 같습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용광로복구가 늦어진다면 혼자 내려가서는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저녁어둠이 내려덮인 창밖을 잠시 바라보고계시던 그이께서 문득 한가지 해결책이 너리에 떠오른듯 뒤를 이으시였다.

《고급지도간부학교 학생들이 졸업시험을 끝냈습니다. 그 학생들가운데서 두세명을 선발해서 방조성원을 붙여줍시다. 그 동무들을 정준택동무가 직접 선발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명칭은 지도소조라고 하고 증명서도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하게 합시다.》

김책도 정준택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일군을 골라내기 어려워 우선 그를 내려보낼 생각이였다. 믿음직한 방조성원들까지 얻을수 있게 되니 한시름 덜어진듯 얼굴에 느긋한 웃음이 피여났다. 일정한 직책에서 사업하던 동무들이니 정준택에게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평양에서 출발한 남행열차가 황주역에 멎기바쁘게 전호준이 승강구에서 뛰어내렸다. 그를 뒤따라 물날은 훌쩍한 배낭을 진 두명의 사나이들이 홈에 내려섰다. 황철에 파견되어가는 지도소조성원들이였다. 정준택은 학생들중에서 이미 사업을 통해 파악이 있는 사람들을 소조성원으로 선발하고는 전호준에게 조장의 일을 맡겼다.

새벽차를 타고 황주에 온 그들은 역전의 국밥집에서 조반을 굶때고는 송림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황철에 대해 흥에 겨워 이야기하며 울퉁불퉁한 30리길을 걸었다. 동양굴지의 대체철소복구를 지도방조하는 소조원으로 선발된것이 자못 흡족한 모양이였다. 전호준의 검실검실한 얼굴에도 빙긋이 웃음이 피여있었으며 동무들의 이야기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가끔 튼튼한 턱을 주먹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른 소조원들처럼 흥겹기만 한것은 아니었다. 황철이 가까와질수록 머리속에 자리잡은 의문과 근심은 짙어가기만 했다.

서종현이 황철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어 용광로복구가 지연되는가? 대상이 지나치게 방대해서 기술이 딸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난관에 부딪혔는가? 최부국장이 황철에 내려와 살다싶이 하면서 복구사업을 지도하고있다니 혹시 그의 방해를 받고있는것은 아닌가?

전호준은 서종현기사가 황철에 내려오기전에 몇번 상종을 했다. 서종현이 루명을 벗고 평양에 다시 올라올것은 뻔한 일이여서 전호준은 서말재밑의 그의 집을 매일이다싶이 찾아갔다. 고급지도간부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지 한달쯤 되는 어느날 저녁이었다. 화물자동차에서 방금 이사짐을 끌어내린 그의 집에 전호준은 들어섰다. 부엌세간이 들어있는 궤짝을 끌어들이느라고 끙끙거리는 서종현과 아주머니를 한옆으로 밀어내고 그는 궤짝을 넝큼 들어서 부엌안에 들여놓았다. 토방에 되돌아나온 그는 섬약한 서종현의 손을 녀가래같은 손으로 움켜쥐고 거센 웃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돼서 이제야 올라왔소? 난 좀더 빨리 올라올줄 알았소.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겠소.》

이렇게 말한 그는 어디에 간다는 말도 없이 대문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모판을 어깨우에 올려놓은 음식점의 심부름군을 뒤에 달고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한되들이 소주병이 들려있었다. 이사짐을 한옆에 밀어놓고 서종현의 귀환을 축하하는

긴급환영연이 시작됐다. 조그마한 술잔으로 훌쩍거리서는 성이 차지 않는다면서 아주머니에게 보시기를 달래가지고 전호준은 먼저 한보시기 들이켰다.

《기사동무가 어떻게 돼서 평양에 다시 올라오게 됐는지 아오?》

서종현이 보시기의 술을 훌쩍훌쩍 들며 마시며 대꾸를 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소. 화물자동차를 내려보내서 다시 올라와도 된다니 올라왔을뿐이요.》

《장군님께서 관심을 돌려주셔서 올라온거요. 시보안서에 들어가있는 기사동무를 석방하게 하신분도 장군님이시오. 일부 <얼마우제>들이 장군님 모르게 장난질을 하지만 어렵이 있소?》

서종현은 안주를 집으려던 저가락을 손에 든채 불깃해진 전호준의 얼굴을 어리둥절해서 마주봤다. 이 세상에 별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불우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와 같은 인간에게 장군님께서 관심을 돌리시다니?... 그는 전호준의 말을 끝이 들을수가 없었다.

《나도 출당철직을 당할번했소. 장군님께서 단호한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지금쯤 탄광에 내려가서 탄을 캐고있을게요.》

비록 심산속의 광산에 내려가있었지만 전호준이 하마트면 시련을 겪을번했다는 이야기를 서종현도 들었었다. 반쏘소요에 참가한 어떤 기술자를 탄광에 숨겨둔것이 문제로 되어 출당을 당할번했다는 소문이였다. 그 말을 들은 서종현은 더욱 몸을 사리고 지냈으며 말수도 적어졌었다.

《최부국장은 아직 산업국에 있소?》

딱 집어서 말할수는 없지만 전호준이 된탕을 맞을번한것도 자기가 박해를 받는것도 최부국장탓인듯이 서종현에겐 생각되었던것이다.

《산업국장대리를 한다는것 같소.》

오랜만에 마신 술로 해서 유쾌해지던 기분이 말끔히 훔날려버린듯 서종현의 얼굴에 킁킁한 빛이 비꼈다.

《그 량반의 구박을 받으면서 산업국에서 일을 할바에는 덕산광산에 있는게 나한테는 더 좋소.》

전호준의 흥겨운 기분도 순식간에 사위여버렸다. 최부국장과 같이 반쏘란 말만 들어도 길길이 뛰면서 함부로 사람잡이를 하는 그의 밑에서 서종현이 일을 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기사동무는 이번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올라왔소? 산업국의 지시요?》

전호준이 술상에서 물러나 앉으며 물었다.

《아니요. 김책부위원장동지의 부관이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광산에 내려와서 내게 이런 문건을 주었소.》

서종현은 부시력거리며 양복안주머니에서 개봉한 봉투를 꺼내서 전호준에게 내주었다. 전호준은 한장의 종이장을 펴들고 주의깊이 읽었다. 서종현을 강직시킨것은 부당한 결정이었다는것이 판명되어 소환한다는 두줄의 문장이 씌여있는 문건에는 김책의 서명이 있었다.

문건을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전호준이 권고를 했다.

《이런 문건을 받았으면 김책동지를 먼저 찾아가는건데 그랬소. 부관하고 같이 올라왔겠는데 자동차를 인민위원회앞에 대달라고 할수 있지 않소. 래일아침 첫시간에 부위원장동지를 찾아가오. 그 더부룩한 수염은 밀구. 내앞에서 속타는 소리를 하지 말고 부위원장동지앞에 가서 속을 터놓소.》

보시기를 들어 한모금의 술을 훌쩍거리고난 서종현이 중얼거리는듯한 소리로 대꾸했다.

《문건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나를 만나주겠다는것은 아니지 않소. 김책동지같은 큰 간부가 나같은 사람을 일일이 만나서야 일은 언제 하겠소. 일단 소환을 했으니 이제 연락이 있겠지...》

혜여진지 두해도 안되는 사이에 자기를 비하하는데 습관된듯싶은 주눅이 든 서종현을 전호준은 동정이 넘친 서글픈 눈길로 지켜봤다.

《기다릴 생각을 하지 말고 찾아가오. 부당한 처벌을 벗겨서 소환해주었는데 레의를 차려야 할게 아니요. 결의도 다지구.》

전호준은 목이 타는듯 한보시기의 술을 또 단숨에 들이키고나서 옆에 내려놓았던 문건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김책동지가 서명한 이런 문건이 있는데 기사동무는 왜 주점이 들어서 그러오? 무엇때문에 최부국장을 겁내는가 말이요. 그 사람이 벨뚜가지 사납게 굴면 이 문건을 내대면 되지 않소.》

그는 김책부위원장을 찾아가라고 거듭 설복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호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종현은 다음날 오전중 내내 방안에 들어앉아 바재이다가

늦은 오후에야 김책을 찾아갈 결심을 했다. 수업을 반반하게 밀고나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대동교를 건너갔다. 인민위원회 현관안에 들어서서 접수구에 김책의 서명이 있는 문건을 들여밀고는 면담을 하려고 왔다고 했다. 해사한 얼굴의 녀성은 두말없이 곧 송수화기를 들었다. 기껏 일이 잘되어야 면담할 날자와 시간을 약속받고 되돌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접수구의 녀성은 문건을 내주면서 상냥한 말씨로 잠깐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2~3분도 지나지 않아 서종현과 엇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나오더니 먼저 인사를 하면서 김책부위원장동지의 서기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자기따위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범접하기 어려운 세계라고 생각했던 이곳 사람들의 친절함 태도에 서종현은 어리병해졌다.

서기의 뒤를 따라 수수한 사무실안으로 들어서던 그는 문뜩 못박힌듯 그 자리에 굳어졌다. 량수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펜대를 쥐고있는 사람은 신문에서 자주 본 김책이었다. 김책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가운데까지 걸어나와 서종현의 손을 잡아주고 의자에 눌러앉히더니 자신도 옆에 앉았다. 왜 광산에 내려가게 됐을 때 찾아오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서종현문제를 해명하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였다, 시간이 좀 걸려서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대동교를 건너오면서 몇번이나 머리속에서 굴린, 김책앞에서 결의를 다지려던 말을 입밖에 낼 겨를도 없었다. 그저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뿐이었다. 나같은것때문에 장군님께서 근심을 하시다니... 아편장사군의 자식이라면서, 반쏘반혁명분자라면서 인간의 마지막존엄까지 마구 짓밟힌 자기, 자기와 같은 보잘나위 없는 한 기술자의 재생을 위해

그이께서 마음을 써주시다니?! 서종현은 가슴속에 그득히 고인 눈물을 쏟아내고싶은 충격을 느꼈다.

《장군님께서서는 서종현동무에게 중요한 사업을 맡기고싶어 하시오. 그것은 황철복구를 기술적으로지도하는 사업이요. 전기동력을 전공한 서종현동무에게는 지나치게 아름답 찬 대상이라는것을 장군님께서도 알고계시지만 지금의 우리의 처지에서는 전공을 따질 형편에 있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소. 난 서종현동무가 장군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중요한 사업을 접수했으면 하오.》

서종현은 자기가 언제 자리를 차고 일어났으며 어떻게 되어 결의를 다지듯 웨치게 됐는지 알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제철소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있는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김책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피어났다. 그는 마디굵은 억센 손으로 서종현의 손을 힘있게 움켜잡으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 그럴줄 알았소.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실거요. 황철에 가기전에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는것이 좋겠소. 나하고 같이 올라갑시다.》

마음을 다잡기 어려울만큼 흥분한 상태인데다 김책이 너무나 쉽게 말을 해서 서종현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사무실을 나서기전에 김책이 벽에 걸려있는 거울앞에 서서 옷차림새를 바로잡고 술적은 머리에 빗질까지 하기에 부위원장이 방금 말한 이야기는 장군님을 뵈러 가자는것이 아닐가? 이런 생각이 머리속을 스쳐지나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도무지 믿을수가 없었다. 그는

꿈속에서 해빛에 물든 구름을 휘감고 걷듯 행복에 취해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 알지 못하면서 김책의 뒤를 따라 층계를 올라갔다.

김책이 문을 열고 어느 한 방에 들어서니 부관한테서 모자를 받고계시는 젊은분이 서계시였다. 해빛을 눈부시게 반사하는듯한 만면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 번쩍이는 안광, 그이의 존안을 더욱 자애로와 보이게 하는 량볼의 오목한 볼우물... 서종현은 어망결에 상체를 깊이 숙여 큰절을 드렸다.

《서종현기사동무가 황철의 기술지도를 책임지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맞다든 행복, 흥분으로 해서 깊이 숙인 옷몸을 들지 못하고있는 서종현의 귀에 김책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렇습니까? 아주 좋은 결심을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에 들었던 모자를 부관에게 도로 넘겨주며 가까스로 상체를 일으켜세운 서종현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시였다. 서종현은 무아중에 그이의 손을 모두어잡았다.

《여기서 이럴것없이 내 방에 들어갑시다.》

분명히 예정된 사업이 계시여 밖에 나가시던 길인듯싶었는데 그이께서는 다시 집무실안으로 들어가시였다. 몇번이나 앉으라고 권하셔도 그대로 서있는 서종현을 김책이 손을 잡아끌다싶이 해서 의자에 앉혔다. 담배가치를 쥐여주며 손수 성냥까지 켜주셨지만 서종현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에 담배를 쥐고있을뿐 종시 불을 달지는 못했다.

몹쓸말을 듣고 광산에 내려갔으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는가... 자못 침중한 음성으로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어제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식구는 몇이나 되는가? 어린것이 둘이 있을뿐인 네식구라는 말을 서종현은 어망결에 말씀드렸다. 황철에 내려가면 두벌이사를 하는셈이여서 곤란이 많을것이다....

너무나도 다심하고 자애에 넘친 말씀이여서 눈굽에 맺힌 눈물을 훔치기만 하던 서종현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드리였다.

《황철이 추설 때까지 가족을 평양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비여놓고 떠난 집이 그대로 있었습시다.》

김책부위원장이 서말재밑의 그 사택을 그대로 비워두라고 해서 산업국에서 손을 대지 못했다고 장군님께서 말씀하고나서 뒤를 이으시였다.

《로동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일을 하겠다는건데 그것도 얼마동안이지 어떻게 그런 생활을 계속하겠소. 기사동무가 먼저 내려가서 자리를 잡겠다니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거요.》

책임부관이 들어와 회의시간이 다됐다고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아쉬운듯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시간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됐소. 하긴 황철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 만날 기회가 또 있을거요.》

장군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을 나서며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황철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부관이 내주는 모자를 손에 들고 복도에 나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황철과 같은 종합적인 대체철소를 운영해본 기술자가 없소. 우리 인민의 피땀을 짜내서 일떠세운 민족의 재부인데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할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중대한 과업을 서종현동무에게 맡기기로 한것이요. 나는 기사동무가 우리가 맡겨준 과업을 틀림없이 수행해내리라고 생각하오.》

장군님께서서는 뒤따라내려온 서종현의 섬약한 손을 다시한번 굳게 잡아주고나서 현관을 나서시였다.

김책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나선 서종현은 아직도 자신이 꿈을 꾸고있는것 같았으며 눈부시게 빛나는 행복의 너울을 휘감고 걷는듯싶었다. 자기가 방금전에 체험한 그 모든것이 실지 있었던 현실속의 생활이라고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다. 그렇게도 천대받고 박해를 받던 자기와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되어 이런 영광과 행복이 불시에 찾아들었는가? 옆을 지나는 행인들이 돌아볼만큼 병글거리며 대동교를 건넜다. 땡땡거리며 달려온 전차가 종착점에서 되돌아서느라고 뿔대를 돌려대고있었다. 서종현은 한가지 생각이 머리에 번개처럼 문뜩 걸음을 멈추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먼저 용광로를 복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황철구내에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대형용광로를 복구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가? 고공시절에 실습을 하느라고 내려가본 황철에는 대형용광로가 3기, 그외에 중형용광로들도 있었다. 그 많은 용광로를 한꺼번에 복구할수는 없는것이지만 화학석유공장과 유선탄광에서 왜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생산설비를 파괴하고 달아났는지 이미 보아온 그는 이 용광로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있겠는지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김책부위원장의 말이 있었을 때 어째서 용광로의 파괴상을 돌아보고 와서 답변하겠다고 하지 못했는가.

그랬더라면 가능성여부를 딱히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군님께 확답을 드리는것 같은 무엄한짓을 하지 않았을게 아닌가. 부위원장이 너무나 친절하게, 그렇게도 갈구해오던 인격을 존중해주는 말을 하며 권고를 하는 서슬에 그만 흥분해버리고말았다. 기술자의 타산과 리성도 그 순간에 마비되었다. 이 무모한 행동을 어떻게 수습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눈앞에 웅틀몽틀한 전호준의 정력에 넘친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의논할 상대라곤 그밖에 없었다. 서말재마루턱에 자리잡은 고급지도간부학교에 찾아가 전호준을 불러내서 운동장끝의 풀숲으로 끌고갔다.

서종현의 말을 들은 전호준은 환성을 내지르며 와락 손을 움켜잡았다.

《장군님께서 만나주셨단 말이요? 황철을 복구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구... 됐소!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했지만 믿지를 못했는데... 됐소! 얼마나 큰 영광이요!》

서종현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웨치는 전호준을 무릎을 내리눌러 겨우 진정시켜가지고 자기의 근심을 이야기했다.

《내가 타산도 없이 결의를 다졌단 말이요. 그만 흥분해서 황철을 복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요. 그런데 나는 용광로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오.》

《누구던 황철을 살려야 한다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소. 황철과 같은 큰 제철소를 운영해본 기술자는 우리 나라에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소. 그

과업을 서종현동무가 받아안았는데 뭘 그러오? 이걸 누구나 받아안을수 없는 영예로운 과업이요.》

전호준은 근심에 싸인 서종현의 그늘진 얼굴을 리해하기 어려운 눈길로 마주봤다.

《일을 성사시켜놔야 영예로운 과업이지 만일 내가 황철을 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난 무모한 결의를 다진것 같단 말이요.》

전호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장군님앞에서 다진 맹세를 다리를 하나 건너와서 의문을 품는단 말이요? 그런 말을 내앞에 와서 하면 내가 받아줄줄 알았소? 장군님앞에서 맹세를 다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이께서 바라시는 일이면 목숨을 내대고 뛰어들어야 할판인데 동요가 뭐요? 동요가! 서종현동무가 이런 사람인줄 아셨으면 장군님께서 만나주지도 않으셨을거요.》

부리부리한 불거진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손을 내저으며 웨친 전호준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기사동무는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장군님앞에서 다진 결의를 완수해야 하오. 다시는 나를 찾아와서 그런 시시결령한 소리를 할 생각을 하지 마오.》

전호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숙사를 향해 걸어갔다. 너무나 모진 말을 던지고 몸을 돌린것 같아 며칠후에 그는 서종현의 집을 찾아갔다. 기사는 이미 황철에 내려간 뒤였다...

전호준은 황철로 뻗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며 학교에 찾아왔던 서종현의 모습을 눈앞에 그렸다. 용광로복구가 늦어지는것이 서종현의 나약성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부국장의 방해때문인지 알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다른 소조원들처럼 흥겨운 기분에만 잠겨있을수가 없었다.

전호준일행은 우선 정준택의 사무실을 찾았다. 정준택은 결원인 당위원장실에 립시사무실을 두고있었다.

《나도 어제 저녁에 도착했소. 이제부터 일에 착수할 생각이요. 우선 용광로복구가 늦어지는 리유를 알아내야 하겠소. 나는 청사에서 간부들을 만날테니 동무들은 현장에 들어가는것이 좋겠소. 전호준동무만 해도 지배인으로부터 국장사업까지 해본 동무이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부터 시작해야겠는지 알지 않겠소.》

일행은 정준택의 립시사무실에 배낭을 벗어놓고 밖에 나왔다. 다른 소조원들은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실정을 알아보기로 했으며 전호준은 서종현기사를 만나기로 했다.

용광로복구가 늦어지고있다고 해서 손을 털고 나왔어있는가 했는데 그런것은 아니였다. 용광로주변에서는 남녀로동자들이 모여앉아 흰 입김을 내뿜며 열성스레 연마석으로 내화벽돌을 갈고있었다. 왜놈들이 불을 죽이고 달아나 굳어붙어버린 쇠를 모두 뜯어낸 뒤에 지금은 로벽축조가 한창이었던것이다. 남녀로동자들이 호호 흐하 웃으며 내화벽돌을 연마하는것은 로벽에서 뜯어낸 벽돌가운데서 쓸만한것을 재생시키느라고 그런 역사를 하고있는것이였다.

기세도 드높이 일을 하는 로동자들을 보니 전호준은 우선 몸이 근질거리 견딜수가 없었다. 서종현은 후에 만나기로 하고 연마작업을 하는 사람들속을 비집듯 하며 내화벽돌적재장으로 다가갔다. 무저놓은 판자지계를 하나 주어 멜바를 어깨에

걸치고나서 벽돌을 지게에 올려놓는 로동자에게 등을 돌려댔다. 앞사람의 뒤를 따라 작업대우에 올라가 짐을 부린 전호준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작업장을 휘둘러봤다. 반장쯤 되는 모양인 중년이 호각을 손에 들고 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전호준은 그옆에 다가가 급석 절을 하고는 물었다.

《서종현기사를 만나자구 현장에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군요. 어데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기사동무는 며칠전부터 현장에 나오지 못하우.》

황철에 걸어들어올 때 머리에 비졌던 근심이 되살아올랐다.

《않는가요?》 그는 물었다.

《차라리 그러면 좋거나 하게요. 사상투쟁에 걸려들어서 단련을 받고있수다.》

이런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단련을 받고있는가? 전호준은 다우쳐물었다.

《기사동무가 왜 사상투쟁의 대상이 됐습니까? 사고라도 쳤습니까?》

《아직 용광로도 살리지 못했는데 사고는 무슨 사고겠소. 도에서 내려와서 오라가라 하더니 며칠전부터 아주 일에서 떼서 회의에 참가시키고있지요.》

반장은 분명히 서종현을 일에서 떼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있었다. 전호준은 우선 서종현의 신상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부터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전호준은 부시력거리며 외투안의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자기들에게 발급해준 증명서를 꺼내 반장의 손에 쥐여주었다. 반장은 어지러운 장갑을 낀 손에 증명서를 들고 들여다보다 급히 장갑을 벗고 다시 증명서를 읽는다. 증명서에는 지도소조성원으로

과견한다는 한줄의 글이 찍여있을뿐이지만 그밑에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명판과 함께 시빨건 도장이 찍혀있었다. 비록 장군님의 존함은 모셔있지 않았지만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명판이 찍혀있으니 그이께서 과견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반장은 생각한것 같았다.

《내 원래 성미가 거칠다보니 몰라봐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무얼 알자고 하는지?》

반장의 말투는 대변에 달라졌다.

《용광로복구가 왜 늦어집니까? 서종현기사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반장은 눈에 생기를 띠우고 웅틀뚱틀한 전호준의 네모진 얼굴을 잠시 마주봤다.

《알겠습니다. 어디 좀 들어가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까지 터놓고싶어도 터놓을수 없었던 가슴속의 안타까운 생각을 쏟아놓을 기회가 급기야 찾아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부반장한테 뒤일을 맡기고 휴계실에 들어가 전호준과 마주앉은 반장은 곧 속을 터놓기 시작했다.

… 용광로복구가 늦어진 근본원인은 기술에 걸렸기때문이다. 일제놈들은 기능로동이나 정밀로동에 조선로동자들을 될수록 인입시키지 않았으며 기술자명색의 조선사람들도 중요한 기계설비를 조작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용광로를 살리기 위해 녹아붙은 쇠를 설사 까낸다고 해도 여러가지 규격에 성분이 각이한 수천t의 내화벽돌을 쌓아올리는 로벽축조는 누가 하며 어림짐작으로 로벽을 쌓는다고 해도 수천마력짜리 전동기와 대형변압기가 달려있는 송풍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을 누가 살려내겠는가? 황철의 로동자들이 용광로를 살려낼 결심을 선뜻 하지 못한것은 이때문이었다. 이런 때 장군님께서 서종현 기사를 황철에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 황철의 용광로가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신다는것을 안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뉘우치며 정대와 함마를 들고 로안에 뛰어들었다. 서종현은 기술문건을 찾기 시작했다. 문건과 도면만 있으면 제철소의 기술지도를 능히 할수 있을것 같았던것이다. 왜놈들이 문건과 도면을 죄다 태워버리고 달아났다는것을 알게 된 서종현은 너무나도 엄청난 난관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랐다.

황철의 수천명 종업원들은 말할것 없고 송림의 주민들까지 일제놈들의 악랄한 죄행에 격분하여 치를 떨었다. 하루는 나이 지숙한 노동자가 찾아와서 서종현이 복구를 다그쳐야 할 송풍기 변압기계통을 알만한 사람이 황주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왜놈의 기사장밑에서 소사를 하며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했다. 기사장네 집에 가서 아이를 업어주고 목욕물을 끓여주면서 책을 빌려본 사람이라고 한다. 직심스럽게 공부를 한탓으로 기사장이 자리에 없을 때는 그닥지 얇은 일들을 대신할수 있게 됐으며 일제말기에는 기술과의 계장을 했다고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광복직후 징용에 끌려갔다 돌아온 청년들한테 친일파라고 매를 맞았다고 한다.

서종현은 곧 황주에 나가 그 계장을 제철소에 데려왔다. 체계적인 공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보면서 경험을 쌓은 기술자여서 제철소의 실태를 행하니 꿰뚫고있었다. 서종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하구조물이며 왜놈들이 어느 중요 요소들을 파괴하고 달아났는가 하는것도 대체로 알고있었다. 서종현은 그를 앞세우고 다니며 필요한 도면을 그리고 문건도 만들었으며 변압기, 송풍기도 살려나갔다.

하루는 서종현이 변압기실에서 광복전의 계장과 마주앉아 지하구조물의 도면을 그리고있는데 최부국장이 지배인을 뒤에 달고 들어왔다. 그는 로씨야말을 뒤섞어가면서

로동자들이 내쫓은 친일파를 어찌서 제철소에 끌어들였는가고 고아댔다. 서종현의 허물을 잡아줘였다고 생각해서 고아대는게 분명했다. 그는 광복전의 계장을 그대로 황철에 둘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철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도중에서 그만둘수도 없었다. 그는 왕복 60리를 오고가며 하던 일을 계속할 생각으로 광복전의 계장을 황주에 도로 데려다놓았다. 사실 서종현은 그후 한주일에 두세번 황주에 오고가며 기술문건을 계속 완성해나갔다.

《장군님께서 기사동무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자신심을 가지고 용광로복구를 다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사동무를 떼버리면 우리는 헛고생을 한것으로 됩니다.》

전호준은 울기가 치밀어올라 뒤덜미가 뻗뻗해지고 관자노리의 피줄이 풀떡풀떡 뛰었다.

《반장동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산업국 부국장이 황철에 내려와서 일을 제대로 하는것 같습니까?》

《다른 직장은 모르겠는데 우리 용광로는 지도라는것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기사동무하구 우리가 이마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요란스러운 간부숙소에 나들면서 술을 마시는게 업인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간부숙소란 뭐니까?》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내려다보이는 야산턱에 일제시기 제철소의 소유자였던 자본가놈이 한해에 한두번 찾아오군 하던 요란한 집이 있다고 했다. 지배인은 그 집을 간부숙소라고 하면서 한해전부터 품을 들여 꾸리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들여다볼수 없게 내화벽돌로 높은 담장을 둘러치고 부엌바닥, 욕까지 내화벽돌로 매닥질을 했다는것이다.

《요새는 무슨 일을 또 벌려놨는지 매일 내화벽돌을 내라는겁니다.》

《그 간부숙소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어제 저녁 정준택국장이 황철에 내려왔는데 국장동무는 합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배인이 그 집에 자주 드나들고 최부국장이 황철에 내려오면 그 집에 든다는것은 알고있는데 지켜보지 않았으니 그외엔 어떤 사람이 드는지 우리야 모르지요. 김책부위원장동지가 내려와도 그 집에 가지 않는것으로 봐서 마음이 통하는 몇사람이 나드는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호준은 우선 그 간부숙소의 내숙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화벽돌을 연마하는 로동자들속에 들어앉아 웃고 떠들며 일을 하는 소조성원을 손짓을 해서 작업대우에 불러올렸다.

《나하고 같이 내려온 동무인데 이 동무에게 그 간부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전호준은 소조성원에게 간부숙소의 속내를 자세히 알아내라고 하고는 사상투쟁회의가 진행되고있다는 제철소회의실을 향해 급한 걸음을 옮겼다.

최부국장이 고아대는 왜가리청이 복도에까지 울려나왔다. 말뜻은 알수 없었지만 누구인가를 비판하고있는것 같았다. 전호준은 뒤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퍼그나 너렁청한 회의실에 어깨를 비비적거려야 할만큼 사람들이 가득

들어앉아있다. 전호준을 놀라게 한것은 서종현이 머리를 떨구고 연단에 서있고 최부국장이 집행부에서 팔을 내두르며 웨치고있는것이였다.

《저 사람은 함북도에서 각성되지 못한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반소를 한 사람이요. 반소란 뭐요? 반혁명이 아니요? 그러나 당에서는 관대히 용서하여 황철에 파견했소.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번에는 친일파하고 붙어들면서 이마를 맞대고 썩덕거렸단 말이요. 기술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친일파하고 붙어다녔다고 하는데 이마를 맞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알겠소. 저 사람이 송풍기를 살린것도 우리는 계급적립장에서 똑똑히 가려보아야 하오.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 기계 하나쯤 살려놓았는지 모르지 않소. 지금은 계급적원수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혁명의 시대요. 혁명의 시대! 동무들, 경각성을 높여야 하오!》

전호준은 자리를 차고일어나 부국장의 턱없는 망발을 반박하고싶었다.

그런데 안타까운것은 당자인 서종현이 도전이나 반박을 아예 단념해버린 사람모양 그저 방심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있는것이였다. 사업은 물론 인생까지 단념해버린듯싶은 서종현의 모습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전호준의 등골로 싸늘한 전류가 줄달음쳤다.

정준택의 립시사무실에 지도소조원들이 모임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전호준은 회의장밖에서 서종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허영계 언 겨울해가 용광로의 웅장한 위용을 더욱 부각시키며 저 멀리 서쪽으로 떨어져내린 뒤의 어슬넉이였다. 서종현은 회의참가자들이 모두 흩어져간 후에도 이윽해서야 어깨를 잔뜩 움크리고 그림자처럼 회의장에서 걸어나왔다. 전호준을 보고도 웃음비슷한 표정을 잠간 입가에 피웠을뿐

별로 반가와하지도 않는다. 정준택국장과 지도소조가 황철에 내려왔다고 해도 관심을 돌리는 기색이 없었다.

《내 오후 내내 회의에 참가해서 기사동무가 비판을 받는걸 봤소.》

전호준은 허울처럼 바람에 날리기라도 할듯이 비칠거리군 하는 서종현과 보조를 맞추며 말했다.

《다른건 앞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도 기사동무가 황철에 와서 진행한 모든 사업이 반혁명적인 행동인것처럼 췌치는 부국장의 말을 왜 반박하지 않소?》

잠시 말없이 걷던 서종현이 중얼거렸다.

《반박은 해서 뭘하오? 여긴 그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술한 사람들앞에서 암해분자취급을 하는데 말을 할건 해야 할게 아니요.》

서종현은 긴 한숨을 내쉬고나서 말머리를 돌렸다.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 난 주인구실을 할 형편에 있지 못하오. 량해를 해주오. 난 이 길로 가야 하오.》

어둠속에 묻힌 관리부청사의 옆길을 가리켰다.

《기사동무의 숙소는 어디요? 우린 합숙에 있소. 국장동무사무실은 당위원장실이요.》

《내가 있는데는 손님들이 찾아올만한데가 못되오.》

서종현은 앞으로 찾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전호준은 그를 뒤쫓아가 무엇때문에 부국장의 전횡에 순종을 하느냐고 어깨를 왱살스럽게 그러잡아

흔들며 웨치고싶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다. 또 서종현의 태도로 보아 몇마디의 말로 해결지을수 있는 일도 아닌것 같았다.

하루사업을 총화하는 자리에서 전호준은 서종현이 어떤 처지에 빠져있는지도 말하고 최부국장이 황철에 있는한 용광로를 빠른 시일내에 복구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도 했지만 정준택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들을뿐 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도 청사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이날 밤늦게 합숙에 돌아온 정준택이 심중한 얼굴빛으로 전호준을 찾아와 래일아침 첫시간에 지도소조성원전원이 자기의 사무실에 와야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소조성원들은 제정된 시간에 정준택의 립시사무실로 갔다. 해탄로에서 콧수를 쏟아내서 황철구내는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든 아침이었다.

정준택과 소조성원들이 나무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사무실에 부국장, 지배인과 함께 어제 회의장에서 본 비대한 중년사나이가 들어섰다. 부국장은 전호준이 방안에 앉아있는것을 보고 어지간히 놀란 빛이었으나 곧 표정을 수습하고는 폭신한 쏘파에 몸을 던졌다. 정준택이나 전호준따위는 안중에 없는듯 사무실에 들어오기전부터 떠들고있던 모양인 이야기를 왜가리청으로 고아냈다.

정준택은 부국장이 뭐라고 하던 일체 관심을 두지 않고 책상우에 펼쳐놓은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부지런히 계산척만 놀렸다. 부국장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정준택에게 건방진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오늘도 회의를 해야겠는데 시간이 없소. 할 말이 있으면 빨리 해주시오.》

정준택은 대꾸없이 깨알같은 수자를 황선지에 써넣었다. 서종현이 얼굴을 수긋하고 방에 들어섰다. 정준택이 눈길을 들고 가볍게 충고했다.

《앞으로는 회의에 늦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정준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선 우리가 황철에 내려온 목적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기일안에 용광로를 복구할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장군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업인것만큼 모든 문제를 여기에 복종시켜야 하겠습니다.》

정준택은 별로 표정의 변화도 없는 담담한 모습으로 말했다.

《우선 서종현기사동무를 본신사업을 할수 있는 본래의 직책에 돌려보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상투쟁을 위해서 도에서 내려온 동무와 이미 토의가 있는 문제이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서종현동무가 알아야 하겠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겁니다.》

머리우에 벼락이라도 떨어진듯 와뜰 놀란 부국장은 울적한 낮빛인 비대한 사나이를 돌아봤다. 정준택의 다음말을 들은 그는 더욱 놀라 국장이 앉아있는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다음은 최부국장동무문제인데 부국장동무는 오늘중으로 산업국에 올라가야겠습니다. 내가 황철을 당분간 책임지기로 했으니 부국장동무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큰 모욕이라도 당한듯 얼굴이 지지벌개서 앉아있던 부국장이 통명스러운 말을 내뱉었다.

《나는 용광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어서 황철에 내려온 사람이요. 산업국사업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문제는 김책부위원장동지에게 보고된것입니다. 결속짓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인계하고 올라가시오.》

정준택은 두말을 할수 없게 부국장의 말을 눌러버렸다. 여간해 성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는 정준택이 이렇게 맵싸게 부국장을 눌러버릴줄은 전호준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정준택은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르는 말상인 지배인을 마주봤다.

《동무는 오늘부터 건국사상총동원회의가 끝난후에 나한테 와서 하루사업을 총화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부터 회의는 근무시간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도당에서 지시가 있었지요?》

정준택의 마지막말은 비대한 중년사나이에게 던진것이였다. 도에서 내려온 사나이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대꾸를 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준택이 취한 조치가 불만이기는 하지만 도당의 지시니 할수없이 응한다는 태도였다. 원래부터 부국장패인지, 그렇지 않으면 간부숙소의 맛을 봐서인지 최부국장과 한속인것이 틀림없었다. 정준택은 이런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듯 뒤말을 이었다.

《나와 함께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파견한 지도소조가 내려왔습니다. 이 소조를 전호준동무가 책임졌습니다.》

전호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모두거리로 인사를 했다. 부국장이 심술이 잔뜩 뺨친 눈으로 쏘아봤지만 전호준은 웃음이 어린 눈으로 그를 스쳐봤을뿐이다.

《전호준동무만 남고 다른 동무들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서종현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부용을 꺼내서 무릎우에 놓고 두툼하게 말기 시작했다.

《나한테 할말이 있습니까?》

담배연기를 날리며 앉아있는 서종현에게 정준택이 물었다. 한참 담배를 피우며 앉았던 서종현이 심드렁한 어조로 말했다.

《국장동무가 나를 생각해주는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나를 지나치게 동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는 서종현동무를 동정해서 본신사업에 돌린것이 아닙니다. 용광로복구가 급하기때문에 대책을 취한겁니다.》

《나도 그만한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철은 리치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 서종현동무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자는겁니까?》

정준택은 음성이 얼마간 거칠어졌다.

《국장동무는 나같은것때문에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서종현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국장동무는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 현재의 직위에서 계속 사업해야 할 간부인데 공연히 험한 판에 끼여들어서 피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전호준이 노여운 음성으로 서종현의 말을 반박했다.

《기사동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거요. 국장동무가 그 <얼마우제>한테 밀려날수 있다는거요? 난 기사동무가 이럴줄은 몰랐소. 혁명을 같이할 동무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 취하는 태도를 봐도 그래,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을 들어도 그래, 그게 뭐요? 부국장이 그렇게도 무섭소?》

《난 아무도 무섭지 않소. 광복전에 나는 이미 목숨을 내댈 각오를 한 사람ियो. 장군님께서 날 구원해주셔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사실 나는 보안서에 갇혔을 때 끝장이 날 사람이었소. 황철에서 나에게 가해지는 모든 모욕도 사실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소. 나는 이 세상에 용납될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온지 오래단 말ियो. 나와 같은 운명의 소유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다가 피해를 볼 필요가 어디 있소? 그래 나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지 말라는것ियो.》

전호준은 끊어오르는 분격을 가까스로 가라앉혔다. 장군님께서 신임을 하셔서 황철에 파견한 서종현이 어째서 이 모양이 됐는가? 보안서와 덕산광산에서 겪은 시련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기사동무는 확실히 사람이 변했소. 유선에서 나하고 같이 일할 때하고는 사람이 달라졌단 말ियो. 사람이 왜 그 모양이 됐소? 일그러져도 보통 일그러지지 않았단 말ियो. 왜 그 모양이 됐소?》

굵직하게 만 부용을 다 태우고난 서종현은 별로 서두르지 않고 담배를 또 말기 시작했다.

《내가 달라진게 아니라 세상을 더 알게 됐을뿐이요. 내가 아무리 긴 말을 한다고 해도 전호준동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오. 나는 목사의 아들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아편장사군의 아들이라고 했소.》

서종현은 이런 말을 서글픔이나 고뇌의 빛도 없이 뿌연 안개에 휩싸인듯한 덩덤한 표정으로 나직이 읊어나가는것이였다.

《이런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건 없지 않소.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반항을 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걸머진 운명에서 벗어날수 있을것 같소?》

《서종현동무는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은 기술자가 아니요? 이것이면 됐지 무엇때문에 시시한 생각을 하오?》

전호준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서종현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않으면 스스로도 숨을 제대로 쉴수 없는 중하를 어깨에 걸머지고 살아야 할것 같았다.

《그 말은 옳소. 나의 생존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소. 그렇기때문에 나는 용광로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있소.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달라질게 뭣이 있소? 최부국장은 전황을 계속 부릴것이구 나는 박해를 계속 받아야 할것이 아니요. 황철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소.》

《용광로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사람이 며칠씩이나 회의장에 끌려가서 친일파소리를 듣고있었소? 어째서 기술자를 황주에 두고 60리를 걷소? 이것도 운명이요?》

착잡한 궤변과 같은 서종현의 말을 듣다 못해 전호준이 자리에서 뛰여일어나며 웨쳤다. 정준택이 손짓을 하며 전호준의 다음말을 밀막았다.

《전호준동무는 나가보오. 동무들이 기다리겠소.》

정준택의 얼굴에 괴롭고 서글픈 빛이 어찌나 짙게 어려있었던지 전호준은 혀끝에 매달린 말을 삼켜버렸다.

《다른건 몰라도 다시는 기사동무가 황주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호준은 한마디의 말을 내뱉고 정준택의 사무실을 나서고말았다. 관리부청사의 긴 복도를 걸어가는 전호준의 눈앞이 갑자기 뿌잇하게 흐려졌다. 자신이 최부국장한테 모욕을 받고 입심을 당한듯이 분하고 억울했다. 잔뜩 주접이 든 주제에 말롱간을 부리려들어 분통을 터뜨리기는 했지만 얼마나 어질고 성실한 서종현이었던가. 이런 사람이 무엇때문에 소요에 말려들어가지고 최부국장과 같은 사람한테 박해를 당하는 《운명》을 걸머졌는가? 하기는 성실하고 량심적인 기술자이니 의분이 북받쳐 전후를 가리지 못했을것이다.

전호준이 창가에 서서 눈굽에 맺힌 눈물을 말리고있을 때 정준택은 책상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들고 서종현옆에 가앉아 위안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말했다.

《전호준동무의 말을 노엽게 생각하지 마오. 전호준동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소. 전호준동무의 솔직성은 기본계급출신간부의 특징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정준택이 원하는 가치담배를 돌아보지도 않고 부용을 또 말면서 서종현이 대꾸를 했다.

《압니다. 알아도 잘 알지요. 나는 전호준이를 통해 조선의 로동계급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유선에 가서 처음으로 조선의 탄광로동자들이 광복전에 어떤 기막힌

생활을 했는지 알았는데 그중에 나를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전호준이었습니다. 전호준은 자기가 광복전에 어떤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했는지 말하면서 그런 생활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가 주인이 된 나라를 건설하고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유선의 탄광노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구실을 할수만 있다면 뼈가 부서져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철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일제놈들의 탄압을 받긴 했지만 노동자들과 같이 목숨을 이어나가려고 참기 어려운 천대와 모욕을 받으면서 살기 위한 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은 로농대중을 위해 기술을 바칠 결심이 되어있지만 기를 쓰고 추적을 하면서 못살게 구니 나의 비극은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서종현은 목이 꺾 막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얼굴을 들면 눈곱에 맺힌 눈물을 보일것 같았다.

《나는 서종현동무가 지나치게 자기 처지를 비판하는것 같소. 장군님께서는 인테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구 보호해주고계시오. 나는 서종현동무가 어째서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소.》

《국장동무는 그렇게 생각할수밖에 없을겁니다.》

서종현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대꾸를 했다.

《기획국장이고 장군님의 신임도 두텁고 재능이 출중하니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내가 검열국에 불려가서 처벌을 받을 때 국장동무도 머지 않아 제거될것이라고 그 <얼마우제>들은 췌쳤습니다. 그들이 떠벌이는 이런 말을 국장동무도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말하는겁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장군님의 신임이 두텁고 또

기술자들이 앞으로 많이 양성된다고 해도 국장동무와 같은 인재가 태어난다는건 쉽지 않으니까요.》

《나를 장군님의 인테리정책이 낳은 표본이라고 생각할수 있지 않소.》

《나를 동정해서 공연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현재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엔 고민도 했고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했다는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이나 고뇌에서 초탈한듯한 서종현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는듯싶더니 한숨을 내쉬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고대의 제신들처럼 력사도 제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국장동무와 같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최부국장과 같은 저능아한테 시달리지 않는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겐 그런 행운이 차례지지 않는걸 이제와서 투정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웃음을 피우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을 짓씹으며 흐느껴우는듯한 일그러진 표정이 비졌을뿐이었다.

《황주에 있는 그 계장을 제철소에 데려오는것이 어떻소? 기사동무가 계속 황주에 오고갈수야 없지 않소.》

자리에서 일어날셈인듯 부용봉지를 거두어 주머니에 밀어넣던 서종현은 이외의 말을 들은듯 얼굴을 들었다.

《내가 고생을 좀 하면 되겠는데 무엇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내리누르니까 부국장이 평양에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황철에 깔아놓은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 부국장같은 사람을 국장동무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종현은 그림자처럼 소리없이 문밖으로 사라졌다. 정준택은 자기와 서종현사이에 도저히 넘을수 없는 깊은 단애가 가로놓여있다는것을 알았다.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체험을 거친후에라도 서종현의 가슴속에 신심이, 사람이 참답게 살자면 반드시 품고있어야 할 신념이 깃들기를 바랄수밖에 없었다.

황철의 종업원들은 말할것 없고 송림의 주민들까지 온통 용광로복구를 위해 떨쳐나섰다. 작업장에는 야간작업을 하느라고 수백개의 전등이 마치 장식등처럼 매달려있어 밤중에도 명절날처럼 흥성거렸다. 거리의 음식점 아낙네들까지 지원사업에 떨쳐나 국밥과 떡, 지짐과 군감자를 머리에 이고 작업장에 찾아와 로동자들을 고무했다. 작업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뛰여올랐다. 결정적으로 걸린것이 내화벽돌이었다. 누구의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는지 간부숙소의 벽돌을 헐어오자는 말이 로동자들속에 퍼져나갔다. 작업반장은 전호준을 찾아와 내놓고 제기를 했다.

《용광로가 중요합니까? 숙소가 중요합니까? 내화벽돌을 쓰지 않았을 때에도 요란스러운 집이었는데. 우린 헐어다 쓰겠습니다.》

로동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눌러버렸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알수 없는 분위기였다. 전호준은 국장한테 달려갔다. 잠시 생각을 굴리던 정준택은 지배인을 전화로 찾았다. 일요일이여선지 지배인은 사무실에 없었다. 교환수를 시켜 그를 찾게 했지만 지배인의 행처를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로동자들이 간부숙소에 밀려가겠다고 한다는거겠소?》

《축로공들이 일감이 떨어져 손맥을 놓고 앉아있는데 가만있겠습니까?…》

《그 숙소의 벽돌을 헐어오면 며칠이나 쓸수 있다고 하오?》

《한주일쯤은 문제없다고 합니다.》

전호준의 대답을 들은 정준택은 결심을 내린것 같았다.

《어떻게 해서든 지배인을 찾아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려주세요. 노동자들이 흥분해서 조폭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야 하오.》

전호준은 화물자동차와 달구지를 동원하라는 말을 남기고 지배인사택을 찾아갔다. 혹시 술잔이라도 걸치고 집에 누워있을지도 몰랐다. 지배인은 토요일저녁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전호준은 지배인이 가있음직한 곳을 두세군데 돌아다니다 용광로복구장에 돌아왔다. 그런데 작업반장이 그를 기다리다 못해 화물차와 달구지는 말할것 없고 술한 노동자들까지 휘동해가지고 간부숙소에 밀려갔다는것이다. 전호준은 그 즉시 황철에 내려온 소조성원들과 함께 간부숙소로 달려갔다.

제 6 장

1

일제시기의 최신행급행렬차는 신음소리를 내듯 빠거덕거리며 서울역을 떠났다. 일제말기와 광복후 혼란속의 두해남짓한 사이 정비라는것을 별반 받아보지 못한 기차는 굴러다니는 과철덩어리와 별로 다름이 없었지만 이전의 화려한 최신행급행렬차라고 해서 지금도 미군장교들과 돈냥깨나 있는 호부자들의 전용차로 리용되다싶이 했다.

성시백은 이 렬차의 일등칸에 앉아 부산으로 가고있었다. 강점군의 군수품이 여기저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서울의 화물역인 룡산을 지나 숨죽은 굴뚝들이 찬기운을 뿜어올리는듯한 을스산한 영등포산업지구를 한옆에 끼고 렬차는 숨가쁘게 달렸다. 안양의 구릉지대에 들어섰을 때 성시백은 앞에 앉은 마동삼에게 은근하면서도 무게있는 말을 한마디 던졌다.

《읽을만한걸 넣어가지고 온게 없나?》

《몇가지 가져왔습니다.》

집밖에 나왔을 때 늘 그렇게 하는것처럼 마동삼은 이번에도 풍청대는 무역상의 비서역을 수행하고있었다. 마동삼은 무릎우의 악어가죽가방에서 몇장의 영자신문과 두어권의 영문잡지를 꺼내 성시백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모두 미국의 식자들이 주로 구독하는 권위있는 신문들과 주간지들이였다. 성시백은 신문과 잡지들을 대수롭지 않게 뒤적거리다 마동삼을 마주보며 시들한 어조로 물었다.

《이게 단가?》

《저, <스케치북크>를 넣어가지고 왔는데요.》

《그걸 주게.》

《스케치북크(소묘수첩)》는 미국문학의 개척자인 한 작가의 기행문집이다. 극명하고 아름다운 자연묘사로 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지만 다른 작가들보다 류달리 많은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고있어 흔히 교과서로도 리용되는 작품이었다.

서울을 떠날 때부터 병나발을 불며 법석 고아대던 미군장교들은 명주바지저고리차림의 조선의 중년사나이앞에 신문 《뉴욕 타임스》와 《트리뷴》, 주간지 《타임스》와 《뉴스위크》가 놓여있는것을 보고 어지간히 놀라는 모습이더니 학창시절에 자기들을 골탕먹이던 《스케치북크》가 놓이는것을 보고는 더욱 눈들이 휘둥그래졌다. 더구나 조선의 중년사나이는 그 골치거리던 기행문을 자못 심취되어 읽는게 아닌가. 조선사람이긴 하지만 콩알만한 청보석이 박힌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서 더구나 위세당당해보이는 성시백을 감히 넘보지 못할 상대를 보듯 흘끔흘끔 돌아보곤 했다.

성시백은 이 열차를 리용할 때마다 술취한 미국놈들이 시끄럽게 굴곤 하여 그들이 범접을 하지 못하게 방패막이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성시백은 자연과 풍속을 극명하게 묘사한 미문장에 정말로 심취되어 시간가는줄을 잊은듯싶고 술에 취한 미군장교들은 더욱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는 가운데 열차는 어느덧 충청도와 경상도간의 경계령인 추풍령을 넘어섰다. 점심무렵에 들어선 때여서 성시백과 마동삼은 식당칸에 갔다. 여기도 절반이상의 자리를 미군장교들이 차지하고 법석 고아대고있었다. 그들은 빈자리를 찾아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접대원이 오지 않았다. 기차도 움직이는것 같지 않아 차창밖을 내다보니 열차는 한적한 산간역에 굳어붙은듯 정착해있다. 아무리 특별급행이라고 해도 몇으면 그곳이 정착역으로 되어버리는것이 이즘의 기차이니 산간역에 멎었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것은 없었지만 접대원이 오지 않는것이며 산간역의 역장인듯한 체소한 사나이가 선로를 타고 넘으며 다급히 뛰어다니는것이며 무엇인지 심상치 않은것이 느껴졌다.

《뭔가 좀 이상한것 같은데 기차가 왜 멎었는지 알아보게.》

잠시 밖에 나갔다운 마동삼이 성시백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과업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그 과업이 시작된것 같습니다.》

서울을 떠나기전에 마동삼은 어디에서 알아가지고 왔는지 근일간에 철도종업원들의 총과업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성시백에게 려행을 당분간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시백은 그의 말을 받아들일수 없었다. 그가 부산을 거쳐 동래에 가려는것은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였다. 될수록 빨리 동래에 가서 아퀴지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또 철도종업원들의 총과업은 이른바 《유엔결의》를 리행한다면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란것이 서울에 날아든 후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반미구국투쟁의 일환이여서 근간에 어쨌든지 터지고야말 일이였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남조선을 합법적으로 예속시킬 목적으로 조직되는 단독괴뢰정부수립을 반대해 피의 투쟁을 이미 개시한터이다. 이런 때 과업이나 소요를 걱정하면서 서울에 불박혀있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것이였다.

《언제쯤 떠날수 있겠는지 알아보지 못했나?》

《기관사, 차장, 식당칸 요리사, 접대원까지 기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역장이 한사람 있는데 미국사람들한테 걸려들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면서 그 사람도 달아날 차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럼 내려야겠군.》

성시백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려인속도 변변한게 없겠는데 여기에서 내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기다려보는게 좋지 않습니까?》

《기다리긴 뭘 기다린다는건가?》

《1 000명이나 되는 승객을 추풍령중턱에 내버려둘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군용차라도 동원시킬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긴 눈에 덮인 산속에 갇힌 미군을 실어내기 위해서도 긴급대책이 있을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파업을 일으킨 로동자들을 총칼로 위협하며 기차를 움직이게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다. 군용자동차를 동원하면 좀 빠를것이지만 미군을 다 실어낸 다음에야 조선사람들에게 차가 차례질것이니 시간이 걸리기는 매일반일것이다.

《추풍령을 넘었으니 김천이 멀지 않을거네. 거기에 가면 어떻게 차편을 얻을수 있겠지. 요행수를 바랄것없이 걷자구.》

이렇게 되어 성시백과 마동삼은 눈에 덮인 산중 신작로를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걸음을 옮기던 성시백이 그닥지 않은 등성을 하나 넘었는데 걷는 속도가 한결 떠지고 힘들어하는게 알렸다.

승용차를 주로 리용하며 서울시내를 오가기에 맞춤형 불이 좁은 단화에 사치한 양말을 신은 발로 눈이 두텁게 쌓인 령길을 걷는다는것은 여간 고역이 아닐것이다. 거기에다 구두와 양말은 눈무지속에 빠지곤 하여 벌써 질벽하게 젖었다. 그 모양을 내려다보며 성시백의 뒤를 따르던 마동삼이 분을 삭이기 어려운듯 한마디 뱉었다.

《내 이번에 김규식선생을 만나면 말을 좀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다는건가?》

산중의 무인지경이여서 풍청거리는 무역상에 그의 비서역이라는 구차스러운 관계는 저절로 사라졌다.

《책임자동지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운형공회회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책임자동지가 어땠는지 압니까? 남북협상을 제기하는 호소문을 받아안았을 때는 말할것도 없구요. 내 보기엔 자기의 임무를 다 끝낸것처럼 시름을 던졌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규식선생이 온통 뒤죽박죽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아무리 코대가 높은 량반이라고 해도 그렇게 신의가 없어가지고서야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자네가 노여워하는것은 리해할만 하네만 이건 신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야. 사상과 리념문제이지. 사상이 같지 않으면 동질의것이라고 해도 같은 견해를 가질수 없거든. 고생을 몰라준다거나 신의를 지킬줄 모른다거나 하는 품성상문제라면 걱정도 하지 않겠네.》

최근의 이런저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성시백이 민족자체력량을 묶어세우기 위해 온갖 정력을 다 쏟아부은 지난 수개월간의 일들이 얼썩얼썩 그의 머리속을 스쳐지났다.

민족자립사상을 받아안고 서울에 돌아온 성시백은 남조선의 중간과 우익에 속한 정치세력을 그의 위대한 사상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기 위해 그야말로 침식을 잇고 사업했다. 결과 김구가 당수직을 차지하고있는 한독당을 중심으로 한 립정계의 정치인들이 민족자립을 주장하면서 한갈래의 정치세력을 형성했으며 홍명희, 리극로를 선두로 한 중간과정치인들이 군소정당들을 묶어세우면서 마침내 김규식을 위원장으로 한 범민족적인 조직인 《민족자주련맹》을 내온것이 또 하나의 정치세력이었고 온건한 좌익에 속한 당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또 하나의 갈래였다. 이 세갈래의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민족자립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할수 있을것인데 성시백은 이 마지막과제를 해결할 방도를 아무리 모색해도 찾아낼수가 없었다. 민족자립만이 장기분렬에 직면한 조국을 구원하고 나라의 완전독립을 달성할수 있다고 모두들 인정은 했지만 지금까지 당리당락에 사로잡혀 아귀다툼을 해오던 남조선의 그 많은 정당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세우자면 아직도 높은 령을 넘어야겠는데 그렇게 할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정세는 때가 성숙되기를 기다리고있을 형편이 못되였다. 이런 때 남북협상을 호소하시는 장군님의 연설이 그에게 전해졌다. 연설문을 받아안은 성시백의 감동은 얼마나 벅찼던가. 연설에는 우선 현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명철한 방략이 제시되어있었다. 남조선에서 그래도 앞날을 얼마간 내다본다는 사람들도 기껏해야 《단선단정》이 강행되어 남조선에 괴뢰정부가 수립되는 경우 우리 나라는 장구한 기간 분렬의 비운을 겪어야 할것이며 남조선은 전조선을 예측시키기 위한 미제침략자들의 발판으로 리용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 정도였다. 이런 판단에 기초해 그들은 단독괴뢰정부수립을 반대하는것을 최대의 과제로 내세우며 싸우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연설에서 명시하신것처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침략을 쳐물리쳐야 한다는 대담한 방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쏘련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외세를 배격하는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신것도, 우익보수정객들까지 민족자립의 기치밑에 단결시켜 통일전선을 형성할 과업을 제시하신것도 결국 오늘을 위한 준비였다.

얼마나 원대하게 구상하시며 깊이있게 사색하시는 장군님이신가. 세계초대국의 파렴치한 전횡을 앞질러가며 예견하고 그 횡포한 책동을 제압할 방략을 사전에 마련하고계신 그이이시였다.

성시백이 세갈래의 정치세력을 단합시킬 방도를 찾지 못한것도 당쟁에 습관된 정치인들에게 그 허물이 있는것이 아니라 장군님께서 호소하신바와 같은 대과제를 찾지 못한데 있었다. 이제는 남조선의 각이한 정치세력을 남북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면 그들을 애국애족의 거류속에 합류시킬수 있을것이였다. 성시백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여 환희의 함성을 웨치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감동의 시각에 지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호소문을 남조선정치인들에게 전달할 신임을 성시백에게 안겨주셨을뿐아니라 현시기 가장 중요한 역사적과제인 남북협상을 성사시키는 사업에서 큰몫을 맡아달라는 부탁의 말씀까지 보내주시였다. 자기가 이러한 일을 과연 담당할 능력이 있는가? 민족자립사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정치세력마저 하나로 묶어세우지 못한 자기가 아니었던가. 이성적사고를 하는데 습관된 성시백이였지만 눈굽에 뜨거운것이 맺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한달쯤 지나 한독당(당수 김구)본부가 자리잡은 운형궁에서 지금까지 적대시하거나 반목질시하던 13개 정당, 22개 단체 대표 수백명이 참가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장군님께서 호소하신대로 남북정치인들이 평양에 모여서 민족이 직면한 엄혹한 난관을 타개할 방략을 토의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것을 인정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리승만계를 제외한 온건한 좌익, 중간, 우익을 망라한 남조선정계의 총련합체라고 할수 있는 이 협의체가 결성되기는 8. 15후 처음 보는 력사적사변이었다. 성시백은 남북협상을 성사시킬수 있다는것을 확고하게 믿을수 있게 됐다. 협상이 실현되어 조선의 중앙정부가 창건될 경사로운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할수 없었던 뜻밖의 사태가 터졌다. 미군사령부가 앞에 나서서 김구, 김규식과 《유엔립시조선위원단》 사이에 회담이라는것을 진행하게 했다. 성시백은 이 소식을 듣고도 별로 위구를 느끼지 않았다. 김구도 김규식도 민족자립사상을 나라를 구원할 대경륜으로 받아들인데다 민주자주련맹의 제2인자인 홍명희, 한독당의 제2인자인 조소앙이 13개 정당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으니 별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런데 김구는 조선문제는 조선민족의 자주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종래의 립장을 지켰지만 김규식은 180° 방향전환을 한 견해를 표명했다. 조선문제의 공정한 해결은 《유엔》의 힘을 빌릴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심지어 평양에서 제기한 남북협상에 대한 자기의 의사를 《유엔립시조선위원단》이 앞에 나서서 북에 전달해달라는 말까지 했다. 유엔에서 결의한 《총선거》를 단호히 배격하고있는 평양에 자기의 견해를 《유엔립시조선위원단》을 거쳐 보내겠다는것은

본질에 있어 북조선이 《유엔결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남조선신문들이 소란스러운 찬부의 논쟁을 벌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김규식이 근래에 와서 입을 다물고 사색의 바다에 잠긴 리유를 성시백은 이제야 알았다.

몸이 불편해 침실에 들어박힌 김규식을 버치가 위문이란 명색으로 뺨질나게 찾아가 일체 외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는 한나절씩이나 쭉덕거리다 돌아가곤 한다고 윤명현이 근심을 하더니 그의 룡간질에 넘어간 모양이었다.

성시백은 서울에 그대로 붙박혀있을 수 없었다. 김규식과 마주앉아 어느 쪽이 진심인지 알아봐야 했다. 만일 《유엔의존론》이 그의 진심일 때는 격렬한 논쟁을 해서라도 그 견해의 부당성을 납득시켜야 했다.

성시백이 신음하듯 빼거덕거리는 남행열차에 몸을 실은 것도 산중의 눈길을 걸으면서 마동삼이 불부은 소리를 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

도중에서 옹근 하루를 지체한 성시백은 부산에 주재하는 무역지사 (지방조직을 겸한)에서 잠시 휴식하고는 동래를 향해 출발했다. 동래도 남조선전역이 그런 것처럼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항쟁이 터져 읍거리는 거의 폐허와 다름없이 초토화되어있었다. 경찰서는 항쟁자들의 습격을 받아 횡행그렁하니 비여있었으며 군청도 파괴된 책상이 나뒹굴고 다리부러진 의자며 문서장들이 사무실들에 널려있었다. 급사구실을 하는 허리가 구부정한 로인이 그림자를 끌며 오가고있었다. 그에게 혹시 서울에서 점잖은 손님 한분이 찾아온 일이 없느냐고 물어봤다. 머리로 들지 않고 한참 생각을 굴리던 늙은이가 알아듣기 어려운 짙은 경상도사투리로 사흘전에 《하이야》를 탄 량반어른이 왔댔다면서 동래에서 그중 깨끗한 려관이 어디 있느냐고 묻더라고 했다.

성시백은 늙은이가 가리켜주는대로 상객들만을 받아들인다는 려관을 찾아갔다. 마동삼을 뒤에 단 그는 뒤문으로 해서 그 려관에 들어섰다. 로인의 말대로 이전의 동헌을 개축한 려관이여서 덩실한 기와지붕을 띄이고있었다. 김규식이 어린시절 동심을 즐기며 뛰놀았을 집이다. 성시백의 눈에 제일먼저 떨어진 것이 박산이 난 장독들이었다. 시커먼 간장이 도랑에 고이고 여기저기에 깨진 질그릇조각과 함께 된장, 고추장이 널려 째찌레한 군내가 코를 찔렀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지막지한짓을 했는가? 본격한 항쟁자들이 려관에 란입해서 장독을 박산내는 이런짓을 할수는 없지 않는가? 동헌의 앞뜰에 나가봤다. 이전에는 원님이 거드름을 피웠을 대청의 마루판대기들이 여러장 뒤집혀있었다. 이것은 마루밑에 숨은 그 누구인가를 찾아내려고 대청마루를 온통 들추며 돌아갔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성시백은 이 집의 살불이가 그 어딘가에 반드시 숨어있을것 같아 여기저기를 둘러보다 늦은오후의 석양빛에 거뭇한것이 삼문에 매달려있는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죽창에 꽂힌 사람의 머리였다. 성시백은 등골을 치달아오르는 차거운 전률과 함께 겨드랑이밑에 축축하게 땀이 고이는것을 느꼈다. 그들은 잔혹하게 참살당한 세구의 주검을 마주볼수 있게 삼문앞에 나가섰다. 삼문을 개조한 넓은 대문의 문턱에 중년으로 보이는 사나이로부터 열대여섯살나이의 단발머리소녀에 이르기까지의 세개의 머리가 매달려있었다. 시들어빠진 보리감자빛으로 변한 얼굴들은 분명히 고된 로동에 시달린 순박한 농사군의 모습들이었다. 더우기 단발머리소녀의 얼굴은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모습이였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대청을 온통 들쭉서 찾아낸 후에 이런 참혹한 죽음을 가했는가? 40전후의 농사군은 고물공출을 반대했거나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미군철수를 몇번 웨쳤을것이며 나어린 소녀는 단독괴뢰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선 어른들의 그닥지 않은 심부름을 몇번 했을것이였다. 조선민족이면 응당 요구할것을 요구한것이 무슨 죄가 되여 이런 참변을 당해야 하는가! 성시백의 눈에서는 연덩어리처럼 무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가슴팍은 날카로운 칼끝으로 저며내는듯 아팠다. 이것이 이른바 《유엔감시하의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의 분위기라는것인가? 김규식도 이 려관을 찾아왔을것이니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을것인데 그는 유엔에 의거해서 조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어떻게 생각했을것인가?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했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견해가 잘못이었다는것을 마침내 깨닫고 가슴을 쥐여뜯고싶은 자책에 사로잡혔을것인가? 성시백은 김규식이 이 무고하고 참담한 주검앞에서 조선의 정치인의 책임을 느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으리라고 믿고싶었다.

성시백은 한시바빠 김규식을 찾아가 그의 그릇된 견해를 시정시키고 뉘우치게 하지 않고는 자기의 아픈 가슴을 도저히 진정시킬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바다바람에 휘날리는 회색장막을 헤치며 얼음버캐가 서걱서걱 부서지는 모래길을 걸어 해운대(신동래)로 갔다. 마동삼과 무역지사의 성원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왜놈들의 전용유흥장이였던 그 온천지에 김규식이 려장을 풀었다는것을 알아냈던것이다.

일제시기에는 조선팔경의 하나로 꼽히여 그렇게도 번창했다고 하는 해운대도 폐가만이 들어앉은 황폐한 마을모양 어둠속에 묻혀있었다. 몇점의 희미한 불빛이 사나운 바다바람에 꺼져버릴듯 어둠속에서 사물거릴뿐이였다. 마치 영원한 동면속에 잠긴것 같은, 모래불을 후려치는 파도소리만이 드높은 야음속의 해변가였다. 마동삼이

김규식일가가 들어있는 려관을 알아냈다. 로대에 나서면 뒤설레는 격랑을 눈아래에 굽어볼수 있는 해운대에서도 그중 호화로운 바다가의 최상급려관을 통채로 세냈다고 한다. 밤중으로 김규식을 찾아가고싶었지만 그래도 랭철한 리성이 아직은 그를 다잡을 능력을 갖고있어 마음을 누그러뜨릴 시간을 얻게 했다. 그는 맞다든 려관에 들어 김규식을 설복시킬 준비를 했다. 그는 뒤설레는 현해탄 저쪽에서 솟아오른 붉은 태양이 김규식이 들었을 호화로운 방에 눈부신 해빛을 가득히 채울무렵 그를 찾아갔다. 병약한 몸이여서 해빛을 쬐 시간이 적은 그는 언제나 남향반이 방에 들군 했다.

김규식은 로대밑에서 들려오는 뒤설레는 파도소리를 즐기며 찬란한 해빛에 물든 폭신한 쏘파에 앉아있었다. 그는 맏아들 김진동의 안내를 받으며 방안에 들어서서 정향명을 보고 사뭇 놀라는 기색이었다. 성시백은 김규식의 이런 표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람모양 그를 마주 대하고 이야기할수 있는 쏘파에 걸터앉았다. 김규식은 수북한 눈섭밑의 부리부리한 눈에 경계하는 빛을 띠우고 성시백을 지켜봤다. 웬간한 일에 맞다들지 않고는 외인에게 결코 침착성을 잃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 김규식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뜨아해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당황해하는 표정이었다. 동래의 옛 동헌의 삼문에 매달려있는 세구의 주검을 본 후의 자책감때문인가? 세론을 피해 조국의 남단 한끝에 왔는데 별로 만나고싶지 않은 이 정향명이 찾아왔기때문인가? 아무튼 김규식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수 있는 자리인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는 김규식에게 랭해를 구하고나서 담배에 불을 달아 입에 물었다.

《제 이 가까이에 불일이 있어서 내려왔던 길에 선생님이 여기에 계신다기에 잠깐 들렸습니다. 선생님에게 꼭 말씀드리고싶은 이야기도 있구...》

성시백은 한담을 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래에도 들렸는데 한해전에 왔을 때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더군요. 선생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 동헌삼문에 죽창이 꽂힌 머리가 매달려있었습니다. 남조선은 극한점에 이른것 같습니다.》

김규식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고불통에 담배를 다져넣었다. 두둑한 량볼도 경련이 인듯 떨렸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잠시 담배연기만 날리며 앉아있었다.

《나도 봤네.》

김규식의 말은 목에 걸려 뒤말이 제대로 흘러나오지 않았다.

《무고한 죽음이지. 그네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나.》

흐느끼는듯한 음성이었다.

《난 그 참상앞에서 눈물을 흘렸네. 혼란된 이 사회를 원망하기도 했네. 나는 자결을 반대하는 사람이네만 차라리 죽어버리고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것은 그네들 명복을 비는것이 전부였네. 이것이 약소민족의 슬픔이라는것이겠지.》

김규식은 질박하게 젖은 눈을 손수건으로 훑치며 마치 느껴울듯이 중얼거렸다.

《항명군은 나의 이런 애상적인 감정을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 나를 찾아온것도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일거구. 그렇지만 나는 그 주검앞에서 나를 위시해 우리 정치인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했네.》

김규식이 그 세구의 주검을 목격하고 여간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몇방울의 눈물과 량심의 가책으로 그의 변심이 보상될수는 없었다.

《사실 전 선생님의 말씀에 의견이 있습니다. 무고한 수천수만의 민중이 무참한 참변을 당하고있는 때에 눈물과 량심의 고통으로 정치인의 명분을 다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중은 선생님에게 그런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왔다가 여기까지 찾아온것은 선생님도 짐작을 하겠지만 조선이 처한 현정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해서입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올 때 신문을 보니까 조선문제의 공정한 해결은 유엔에 의거해야만 가능하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저의가 있어 이런 말씀을 했는지 중경에 있을 때부터 선생님을 사숙한 저로서는 꼭 알고싶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겠나?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장한 감이 없지 않지만 방금 향명군이 말한 그대로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의 말뜻을 리해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남쪽끝에 있는 동래에서도 볼수 있는것과 같이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은 참변이 벌어지게 한 장본인은 미국이 아닙니까. 또 유엔이란 미국의 손아귀속에 들어있는 국제기구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미국이자 유엔이구 유엔이자 미국이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유엔만이 조선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다고 하시니 이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눈을 지르감고 성시백의 말을 끝까지 듣고난 김규식이 한마디한마디의 말에 힘을 주며 이야기했다.

《유엔에 의거해야 한다는 생각은 내가 오래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네.》

성시백은 티끌만한 괴로움이나 부끄럼도 없이 김규식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할줄은 몰랐다.

《쏘미량군을 철거시켜 우리 민족의 자주의사에 의거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것이 가장 리상적인 방도일것은 분명한데 어째서 유엔에 의거해야 합니까? 더구나 평양에서 남북정치인들의 의사를 모을수 있는 협상을 제기한 이때에 말입니다.》

김규식은 깊은 생각에 잠긴 느릿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나는 그 제기를 손가까이에 두고 몇번이나 곱씹어 읽었네. 자자구구를 따져보고 사상을 도출해보기도 했네만 거기에는 뭣인가 리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네. 수백년간 핍박속에 살아온 조선의 민족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 너무나 탁 트인 원대한것이 있단 말일세.》

차잔을 다반에 받쳐들고 들어왔던 녀동생 제식이 오빠의 마지막말을 듣고 한마디 끼여들었다. 성시백이 처음 보는 세련된 옷차림을 한 초로의 녀인이었다.

《남북협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그거야 김일성장군님의 인품이 그러니까 그런 호소를 하실수 있다고 봐야겠쥬. 15년이나 경비가 그중 삼엄한 백두산일대에서 총을 들고 항일을 하신것도 원대한 뜻이 없고서야 할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차잔이나 놓고 어서 나가봐라.》

녀동생을 아끼는 모양 노여운 목소리는 아니었다.

《누굽니까?》

눈인사를 하고 방에서 나가는 제식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성시백이 물었다.

《녀동생인데 리화녀대에서 음악학부장을 한다든지. 다 늙어가지고 어린애처럼 세상리치란 통 모른다니까.》

김규식에게 저런 녀동생이 있는줄은 알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렇게만 볼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일대를 근거지로 삼고 항일을 하신것은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셨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런 신념을 품고 무장투쟁을 전개한분이 **김일성**장군님 이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난 선생이 민족자립사상의 위력을 아직 알지 못하고계신것 같습니다.》

다그어대는 성시백의 말에 김규식은 대응할 말을 찾을수 없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생각을 가다듬은듯 김규식은 느긋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조선은 백년래 세계열강들이 흥심을 품고 침략할 기회만 찾던 동방의 요충지네. 일본인들이 선손을 써서 우리를 예속시키기는 했네만 일본이 강점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무사했을것 같은가? 아라사와 미국, 중국, 멸기는 하지만 영국이나 도이췌란드, 프랑스에 반드시 예속됐을것이네. 그네들은 강성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거든. 지금도 사정은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완전독립을 하라고 그네들이 내버려둘것 같은가? 북조선에 아라사군대가 주둔하고있으니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지 않나?...》

《선생님도 평양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쏘련이 쏘미량군철수를 제안하게 됐다는것을 알지 않습니까? 평양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립을 위해 쏘련군을 철수시킬 결심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란 앞보다 뒤가 더 깊은 법이네. 만일 남북협상이 소련의 적화방략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경우 우리가 남북협상에 호응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나? 우리는 소련의 철권속에 들고말것이네. 우남(리승만)같은 사람은 협상에 응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거구. 남조선정계에 몇사람 남지 않은 량심인은 자취를 찾을수 없게 될것이라는것이네. 그래 생각끝에 나는 제3의 길을 택하기로 했네. 조선을 쏘미량군에 맡길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할수 있는 유엔에 의거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말이네. 유엔이 미국의 조종을 많이 받고있는것은 사실이네만 비유해서 말하면 세계의 국회라고 할수 있는 국제기구가 아닌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정의파가 노상 없는것은 아니지 않나?》

성시백은 장죽을 빨며 한마디한마디의 말에 뜻을 부여하듯 느릿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김규식의 말을 듣느라니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것 같은 그의 생각이 놀랍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했다.

《나는 선생님의 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북조선에 소련군이 주둔해있으니 소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것은 어폐겠지만 **김일성**장군님은 강유력한 항일혁명군을 령솔하고 개선하신분입니다. 그러니 자주적인 정치도 펴나갈수 있고 소련군철거도 요구할수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동족보다 외국사람들을 더 믿으려고 하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동래에 내려오는 절반길밖에 안됩니다. 만일 협상에 참가해서 소련의 <적화방략>같은것이 느껴지면 그대로 돌아오면 그만일겁니다. 그런데 협상에 참가해보지도 않고 유엔에 의거할 생각부터 하시니 저는 선생님의 저의를 리해할수 없습니다. 좀전에 이 방에 들어왔던

동생되는 녀성이 말한것처럼 절대다수 민중은 남북협상을 지지한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개 정당협의회가 빠른 기간내에 결성된것만 봐도 알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정향명의 사리정연한 대꾸에 김규식은 할말을 찾을수 없는듯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민족자주권맹발기인대회에서 한 선생님의 발언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주장해온 소신을 고려해도 그렇고 정견을 자주 바꾸는것은 정치인이 할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네는 혹시 나를 설복시키라는 평양의 지령을 받고 오지 않았나? 지나치게 태도가 강경하군.》

《저는 선생님의 그 사고방식에도 견해를 달리합니다. 선생님은 필경 <유엔감시하의 총선거>를 바라는것 같은데 만일 그 방안이 실현된다면 자유롭게 선거활동을 전개할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평양에서 나온 사람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을 한다면 단순히 평양에서 나왔다는 리유로 해서 정당한 주장을 배척하시겠습니까? 외세에 의해 우리 나라가 두동강이 난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민족은 38°선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만일 38°선이라는것이 들어앉았다면 단연코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진리는 국경이란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계에 과급되기마련인데 하물며 우리 민족문제를 북이니 남이니 하면서 옳은 해결방도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벌써 분렬에 동조한 당파심리가 작용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해외에서 고생하면서 지켜온 량심을 본의아니게 저버리고 민족의 지탄을 받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래서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

량불이 두둑한 김규식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해서 일그러졌으며 입귀의 깊은 주름은 자신을 다잡기 어려운듯 푸드득 떨렸다.

《못하는 말이 없군! 자넨 아직 어려! 아직 어리다니까! 나는 쏘미량국의 타민족지배정책에 일생동안 시달려온 사람이야! 남북협상을 하고 구국전선을 형성했다고 해서 미국이 조선에서 손을 뗄것 같은가? 유엔에서 결의한대로 선거는 진행될것이구 정부는 수립되고야말것이야. 그때 나와 같은 사람이 남에 있어야겠나? 없어야겠나?》

김규식은 수북한 수미를 굵틀거리며 불쾌한듯 이런 말을 뱉아냈다.

《저는 선생님의 그 말씀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남조선전역의 소박한 민중이 가혹한 탄압을 받으면서 싸워도 분렬정부수립을 막을수 없고 남북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정부를 수립해도 민족의 자주권을 보존할수 없다면 선생이 제기한 <유엔의존론>은 무엇을 위한 방안입니까? 미국에 괴뢰정부를 세울 시간을 주자는겁니까? 선생님은 미국의 강대성을 전제로 삼고 모든 사색을 하시는데 이것 역시 추종이고 굴종이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추종과 굴종은 매국노들의 인생관입니다. 선생님은 항쟁이 무의미하다고 하시는데 어째서 민족자립을 위해 싸우는 민중의 투쟁이 무의미하다는겁니까. 남북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자립을 요구하고 남쪽 민중과 북의 민중이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한다면 미국의 침략을 과연 저지할수 없을것 같습니까? 막대한 희생을 당하면서도 미국의 간섭을 반대하는 민족자체력량에 합세는 못할망정 그들의 력량을 분산시킨다면 이것은 민족사에 오명을 남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시백은 두손으로 쏘파의 팔걸이를 움켜쥐고 온몸이 그대로 불덩어리가 된듯 어깨를 떨면서 김규식의 가슴에 날카로운 말을 쏟아부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정향명의 모욕적인 말을 도저히 참을수 없는듯 김규식의 검은 눈은 숯불처럼 불탔으며 목덜미의 시퍼런 피줄은 금시 터져버릴듯 꿈틀거렸다. 그 역시 금시에 쏘파에서 뛰쳐일어날듯 팔걸이를 양손으로 꼭 움켜쥐고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는 성시백의 불같은 말이 계속되자 김규식의 온몸은 그대로 폭신한 쏘파에 잣아들고말듯이 갑자기 허리가 굽은 비대한 몸이 오그라드는듯싶었으며 주글주글한 눈시울이 이글거리던 눈을 내리덮었다. 문득 다시는 열릴것 같지 않던 두툼한 입술안에서 뜻밖에도 한숨을 내쉬듯 흐느끼는듯한 한수의 시가 흘러나왔다.

고통은 고통으로 풀고

이 불행한 땅에서 받아안은 룡락은 꺼꾸로 풀고

애끊는 슬픔은 슬픔으로 씻으리

...

내 정의의 저울대 한쪽에 올라앉아

그대가 다른쪽을 차지하기를 기다리겠노라

그러면 내 가슴속의 량심, 정의

그 무게를 그대 알리니...

성시백은 분화구에서 분출하는 불덩어리같은 격분이 가슴팍을 뚫고 폭발할것 같은감을 느꼈다. 도대체 이 자리에서 쉼스피어의 시를 읊는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를 해도 가슴속에 불덩이처럼 뭉친 원한, 안타까움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풀수 없을것인데 수백년전의 시구를 생각해내다니... 성시백은 치밀어오르는 환멸과 울화로 해서 가슴속의것을 토해버릴것만 같았다.

자기가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인다는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제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민족을 속인 죄인으로 립종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는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것 같아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가혹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곧 은인이라는것을 선생님은 머지 않은 앞날에 알게 될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다 놓쳐버린 옮겨앉을 저울판이 없는 때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김규식은 고함을 칠듯 입을 벌리며 자리에서 뛰여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증오에 넘친 번뜩이는 눈으로 성시백을 쏘아볼뿐이었다.

성시백은 김규식이 민족자립을 위한 조선민족의 거세찬 대오속에서 영원히 떨어져나간 혐오스럽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굴러떨어졌다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2

서울에서 타고온 승용차를 눈덮인 별판 한가운데서 돌려보낸 성시백은 10여리 남짓한 길을 걸어 새벽어둠속에 잠겨있는 개성시내에 들어섰다. 만월재를 한옆에 끼고 골목길을 걸어올라간 그는 한채의 기와집앞에 이르러 대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곧 안에서 발자욱소리가 들리는가싶더니 대문이 열렸다. 성시백은 마치 제집에 오기라도 한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뜨락에 들어섰다.

형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어리둥절해진 막내동생을 뒤에 달고 안방에 들어가 앉은 성시백은 이날 밤에 38°선을 넘어야겠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는 자리에 누웠다.

조반을 먹으려고 잠시 일어나 앉았던 성시백은 이날 밤을 또 새워야 할것을 생각해서 다시 이불밑으로 들어갔지만 잠을 이룰수는 없었다. 남조선에서 고생을 한다며 다정히 손을 잡아주실 장군님의 웃음어린 존안이며 자기의 말을 주의깊이 들으실 사색깊은 그이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규식과 언쟁을 하다싶이 하고 해운대에서 돌아온 그는 며칠을 두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평양방문을 결심하고 개성에 온것이다.

앞으로 김규식을 어떤 립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해야 할것인가? 김규식의 《유엔의존론》이 남북협상지지세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것인데 지금까지의 자기의 생각이 옳은가? 옳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것인가? 이것은 성시백이 가볍게 결정할수 없는 중대한 사항들이었다.

성시백은 서울을 출발하기전에 그간의 김규식과의 사업정형을 어떤 방식으로 장군님께 말씀드릴것이며 우사가 미국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원인, 예견되는 앞으로의 동향...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머리속에 그려넣었지만 개성에 와서 생각하니 무엇인가 미진한 점이 있는것 같았다.

성시백은 이불밑에서 빠져나와 이미 사위여가는 몇점의 불티가 눈에 떨어인 화로를 안고 부저갈로 재를 헤집으며 미진한것이 있는듯싶은 이 불만이 어디에서 오는것인지 생각해봤다. 장군님 뜻대로 일하지 못하고 평양으로 가고있는 자신에 대한 불만탓이라고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꼭 그런것 같지도 않았다. 사실에 있어 자기로서는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장군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것은 사실이였지만 이것을 두고 아퀴짓지 못한 미진한 문제가 있는듯 깨름하게 여길것은 없다고 여겨졌다.

어떻게 돼서 끝내 김규식을 개심시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것은 성시백이 서울을 떠나면서 수없이 반문한것이다. 혁명가인 그는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우선 찾았다. 그는 남북협상에서 말은바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탓하기까지 했다. 민족대화합이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는 남조선정계에서 김규식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우선 장군님께서 이름을 찍으며 민족의 편에 돌려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상이었다. 그 김규식을 개심시키지 못한 자기따위가 어떻게 남조선에서 민족자체력량을 꾸리는것과 같은 대업을 성취할수 있겠는가?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장군님께서서는 믿음을 안겨주시었는데 그 뜻을 받들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성시백은 어쩔수없이 스스로를 비판하게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정세는 자책을 하면서 모지름을 쓰고있을수 없게 날이 갈수록 긴박해지기만 했다. 발생한 사태를 시급히 수습하고 남조선협상과가 더욱 적극적으로 장군님의 제창에 호응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자기의 이런 생각에 명확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어보였는데 개성에 와서 갑자기 그 무엇인가 빈구석이 있는듯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장군님의 의도를 깨끗하게 성사시키지 못하고 평양을 향해 가고있기때문인가? 지성인의 예리한 사색을 하는데 습관되어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석연치 못한 흐리터분한 문제를 끌고다녀서는 안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성시백이였지만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그는 불안의 원인을 종시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날의 심야에 막내동생을 앞세우고 나섰다. 또골또골하게 여문 짜락눈이 하늬바람에 날려 성시백의 얼굴을 아프게 후려치고있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발자욱소리를 조심하며 창가에 다가가 창가림을 당기려고 했다. 뿡뿡한 밤추위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것이다. 문득 뒤에서 장군님의 나직한 음성이 울렸다.

《그대로 두오. 이제 달이 뜰게요.》

사실 창밖을 내다보니 미림별 저끝의 군청색하늘이 은가루가 자욱히 날아예는것처럼 희벗하게 밝아오고있었다. 부관은 인민위원회의 거의 모든 일군들이 휴식하는 일요일에도 저녁 늦게까지 사엽하시는 장군님을 안타까운 눈길로 잠시 바라보다 집무실을 나섰다.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정세참고자료를 묶은 문건을 앞에 놓고 사색을 이어가고계시였다. 서류장을 번지는 그의 얼굴에 때로는 우려의 기색이, 때로는 혐오와 분노를 참기 어려워하시는 빛이 어리군 했다. 특히 《유엔립시조선위원단》이란것을 서울에 끌어들인 후의 미제의 책동은 비렬하기 그지없었다. 저희들의 손탁에서 노는 예속국의 외교관들을 끌어다놓고서도 미군사령부에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기 위해 온갖 비렬한것을 다하고있었다. 성시백계통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은 말할것 없고 일부 외신들이 지적하고있는것처럼 위원단성원들을 미군사령부의 장교숙소인 조선히텔에 밀어넣은것은 자기네 장교들과 섞일리게 하면서 그들의 일거일동과 동향을 감시속에 두자는 음흉한 속심에서였다. 위원단의 사무소는 또 어디에 두었는가? 세종로란 대통로 하나를 사이에 둔 덕수궁안의 석조전에 개설하게 했다. 승용차를 리용하면 불과 3분내에, 타국에 온 외교관답지 않게 걷는다고 해도 10분이내에, 그것도 절반쯤은 호텔의 구내와 덕수궁안의 화려한 정원길에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길이였다. 이것은 《유엔립시조선위원단》입국을 반대하여 매일처럼 피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서울시민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또 하나의 교활한 술책이였다.

거기에다 미제놈들은 리승만계의 친일친미매국족속들을 동원해서 협상단이니, 절의단이니, 위로단이니, 사례단이니... 아무튼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낼수 있는 온갖 명색의 무슨 단, 무슨 회라는것들을 수태 무어가지고 덕수궁사무소는 말할것 없고 위원단의 숙소인 조선히텔에까지 뺨질나게 찾아가 《유엔결의리행을 촉구》하기도 하고 《민족의 념원》을 전달하기도 하며 동방일각의 가난한 나라에 와서 어려운 일을

하게 된것을 위로하고 사례도 하게 한다는것이다. 낮에는 오찬회, 밤에는 호화로운 만찬회, 지어는 미모의 젊은 녀성들을 통역, 안내양 명색으로 위원들에게 붙여서 미인계까지 쓰게 하고있다는것이다. 설사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해도 미제에 의해 목살될판인데 위원단을 이 모양으로 통락하고있으니 조선에서 《유엔의 결의리행가능성》 여부를 알아볼 겨를도 없을것이다.

세론을 기만하려고 이따위 위원단을 무어 서울에 파견하는 유엔에 기대를 걸고 김규식이 정견을 바꾸었다니 장군님께서서는 여간만 섭섭하지 않으시였다. 성시백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유엔을 세계의 《국회》로 본다고 한다. 한 나라의 국회도 특권층의 줌안에 든것인데 세계제패를 위해 딸라와 무력을 휘둘러대는 미국한테 유엔이 통락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그가 정말로 생각했을것인가? 지성도 있고 일정한 판단력도 있으며 정계에서 차지하고있는 제 위치를 모를수 없는 김규식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남북협상을 쏘련의 적화방략으로 간주하고있다는 바로 그 의심으로 해서 그런 당치 않은 생각을 하기에 이른지도 모른다. 이것이 김규식 한사람과 관련될 문제라면 그의 의심이 풀릴 때를 기다릴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협상파를 어떻게 해서든 와해시켜보려고 어용신문들을 동원해서 그의 《유엔의존론》을 요란스럽게 선전하고있었다. 김규식의 동요가 남조선정계에 어느만큼 영향을 미칠것인가?...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다가가 한귀가 얼마간 이지러진 열이레달이 굳게 얼어붙은 군청색밤하늘을 순결한 은백색빛으로 녹이며 하늘중천을 향해 장쾌하게 솟아오르는 광경을 내다보며 생각을 이어가시였다. 정말로 김규식이 그렇게도 종잡기

어렵고 민족을 위한 길에 돌려세우기가 그렇게도 힘든 사람인가? 성시백을 만나고 온 김책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김규식을 돌려세운다는것은 사실에 있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과연 그가 민족대화합의 뜻깊은 자리에서 빠져야 할 사람이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김규식이 참가하지 않은 남북협상을 생각하고싶지도 않으시였다. 그가 남조선정계에서 차지하고있는 위치가 대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것은 아니였다.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치며 때로는 마음속으로 눈물짓기도 한 정치인이 김규식인듯 싶으시였다. 그가 남북협상에 의혹을 품고있는것은 30여년간 너무나 많이 속히온 나머지 우리의 의도를 리해하지 못한탓이지 민족을 배반하려는데 있지 않다고 그이께서는 믿고싶으시였다. 이런 사람을 민족대화합에서 제거해야 하겠는가? 만일 그렇게 하면 30여년간 민족적량심을 지키며 망명생활을 해온 김규식은 어떤 말년을 맞이하게 될것인가? 그를 조선민족의 편에서 떼내여 자기네 편으로 되게 한것을 통쾌해하는 미제침략자들의 몰골이 그이의 눈앞에 문뜩 떠올랐다. 김규식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말년을 보내게 해야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뜻을 믿게 할수 있을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심을 김규식에게 전할것인가? 그이께서는 반일력량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일제의 대군과 싸워 승리한 항일대전시기를 돌이켜보시였다.

진심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다는 신심, 넓은 도량, 옳은 정책과 로선... 바로 이것으로 민족적량심의 소유자들과 연합하지 않았던가! 반일부대와의 연합, 민족주의자들, 종교인들과의 연합도 그것으로 이룩했다. 하긴 38°선이라는것이 가로막아 항일무장투쟁시기처럼 김규식과 마주앉아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하혁명투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능력있는 성시백이 있지 않는가. 사람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도 여러가지가 아닌가.

그이께서는 집무탁옆에 돌아와 탁상전화기에서 송수화기를 들고 김책을 찾으시였다.

《성시백동무가 지금쯤은 잠자리에 들었을것 같습니까?》

《그 동무는 요즘 장군님께서 부르실 때를 기다리느라고 좋아하는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언제나 대기하고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성시백동무를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밤참에 습관된 동무이니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성시백동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시오. 나는 30분쯤 후에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장군님께서서는 정세자료를 마저 읽고는 김책이 제출한 문건을 앞에 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문건을 벌써 세번째 읽으신다. 오늘 밤에는 연필로 밑줄을 그은 대목, 의문부호를 단 부분만을 다시 읽으며 자신께서 심중에 품고계신 생각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지였다.

김책에게 말한 시간보다 얼마간 늦게 그이께서는 댁에 이르셨다. 언제나 그런것처럼 김정숙동지께서는 현관앞에 서시여 그이를 맞이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지은 안색으로 모자와 외투를 김정숙동지에게 벗어주며 현관안에 들어가시였다. 응접실 문밖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그이를 기다리는 성시백의 모습이 제일먼저 눈에 띄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앞에 다가가서 손을 굳게 잡으시며 걸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적구에서 수고하는 동무를 기다리게 해서 안됐습니다. 평양에 와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마음을 폭 놓고 그저 휴식을 하고있습니다. 김책동지가 매일이다싶이 찾아와서 북조선에서 달성되고있는 성과도 말해주고 제가 고충으로 생각하고있는 문제들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장군님께서 국기, 국장제정사업을 벌써 지도하고계신다는것도 알았습니다.》

성시백은 장군님을 뒤따라 응접실에 들어서며 감동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김책동무가 그렇게 자주 찾아갔습니까? 나한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사업을 하는 성시백동무에게 성의를 바쳤다니 됐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을 응접실벽에 기대놓은 의자에 눌러앉히시였다. 그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자리를 잡은 그이께서는 성시백의 얼굴과 외모를 잠시 살펴보시였다. 차림새는 남조선의 혼란을 리용해 일확천금한 무역상처럼 보였지만 진지하고 지성이 내뻐 소박한 표정이 어린 얼굴은 전혀 다른 인상을 안겨주었다. 사심이란 없는 순결무구한 그런 소박한 표정은 진정한 혁명가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며 때문지 않은 지성도 또한 그러한것이다. 그이의 얼굴에는 흡족해하시는 밝은 웃음이 피어났다. 담화를 나눌 때 늘 그렇게 하시는것처럼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가족의 안부를 물으셨다.

《처cken까지 온 집안을 혁명투쟁에 인입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까?》

성시백은 전번 평양에 들어온 기회에 누이 성소조를 서울에 데리고나가 안해와 함께 시내의 연락임무를 담당하게 하고있었으며 막내동생에게는 그가 이번에 리용한 연락통로를 개설하게 했다. 처cken의 친척들은 주로 적중에 들여보내 조직을 암호할 과업을 맡겼다. 개중에는 서울에서도 가장 변화한 중심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자리를 타고왔은 사람까지 있었다. 종로경찰서장 민병홍이 바로 그런 사람이였다. 온 일가친척이 남조선혁명에 떨쳐나선셈이였다.

성시백은 그들모두가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일신을 돌보지 않고 투쟁을 전개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지금쯤은 아주머니가 해산을 했을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성시백은 열적은 얼굴로 생남을 했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집안의 경사처럼 기뻐하며 김정숙녀사를 부르시였다.

녀사께서는 팔소매를 걷어붙인 그대로 손의 물기를 미처 씻지도 못하고 급히 응접실에 오시였다.

《성시백동무가 옥동자를 보았다오. 종발에 조각한 그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됐소.》

녀사께서도 못내 기뻐하며 민순임동무에게 생남을 축하하는 자신의 인사를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다. 그이의 축하속에 얼마나 뜨거운 정이 담겨있었는가 하는것은 성시백이 서울에 나갈 때 들고 나갈수 있게 산후의 건강회복에 특효가 있는 산삼을 비롯한 여러가지 보약을 준비하신것만 보아도 능히 알수 있는 일이다.

홍성거리던 응접실의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세를 바꾸며 이날의 상봉을 마련한 본문제로 말씀을 돌리시었다.

《성시백동무의 견해를 김책동무를 통해 들었습니다. 북조선민전의회장단회의에서도 말했지만 그사이에 성시백동무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러운 웃음이 비낀 안색으로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의장단회의에서 남북협상이 성사될수 있는 가능성의 하나는 남조선의 중간과 우익민족주의세력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일정한 성과가 달성된데 있다고 하시었다. 이름을 들어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장군님의 이 말씀은 성시백의 사업에 대한 평가였다.

《특히 13개 정당 협의회를 조직한것은 큰 성과입니다. 성시백동무는 단결과 연합의 시대를 열어놓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한 안색이였다.

《그런데 성시백동무의 견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한두군데 있습니다. 김구, 김규식선생에 대한 견해가 그렇습니다. 특히 김규식선생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명백하지 못하고 혼란된 감이 납니다. 다른 문제들은 분석이 정연하고 평가도 정확한데 김구, 김규식선생 특히 김규식선생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성시백동무답지 않게 어딘지 모르게 혼란된 감이 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러운 눈길로 성시백을 마주보시었다. 김규식문제는 아직 수습되지 않은 혼돈된 상태에 있으니 그럴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성시백은 장군님의

말씀을 자기의 부족점을 정확히 지적한 비판으로 받아들였다. 그이께서는 성시백의 이러한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찌른 질문을 하시였다.

《김규식선생은 <유엔의존론>을 내놓는것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았다고 성시백동무는 말한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김구, 김규식선생들이 남보기엔 형제간처럼 지내지만 남북협상에 대한 견해는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김규식선생이 김구선생한테서도 배척받을 날이 가까와왔다는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규식선생이 더는 쓸모가 없는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것이겠습니까?》

《선생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노력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는 민족을 등지는 길에 들어서고말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심중한 정치적사색이 흐르는 방안의 팽팽한 분위기를 순간에 훔날려버리는 호방한 웃음을 터뜨리시였다.

《내 성시백동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김규식선생이 민족을 등졌다... 하하하... 다른 일에서는 빈틈이 없고 정세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김규식선생에 대해서는 락제입니다.》

성시백은 장군님의 의도에 맞지 않게 김규식을 평가하고 대할 생각을 했다는것을 순간에 깨달았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웃으실만큼 잘못 생각한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어째서 잘못된것인지 아직은 똑똑하게 알수가 없었다. 다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것만은 틀림이 없어 머리를 깊이 떨구었다.

《성시백동무는 김규식선생이 우리와 손을 잡을수 있는 우점을 먼저 보지 않고 결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림병옥이란 사람이 우리 민주기지에서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수립될 정부는 군정선상의 정권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했을 때 마치를 두드리면서 의장석에서 떠나버린 선생의 견결한 태도를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동래의 동헌문에 매달린 세사람의 머리를 보고 선생이 눈물을 흘린것은 가혹한 탄압을 막지 못한것이 너무 괴로워서 참을수 없었기때문입니다. 선생은 혹사사변 때 참살당한 독립운동자들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는데 그 세사람의 주검도 선생이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것입니다.》

장군님의 얼굴에서는 어느덧 웃음이 사라지고 김규식이 체험한 그 고통을 감수하고계시는듯 괴로운 빛이 비긴 무거운 안색이었다.

《혁명도 건국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연합을 하자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시백동무는 김규식선생과 사업하면서 너무 애를 먹다나니 그만 선생이 갖고있는 우점을 보지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렬된 조국을 구원하고 전민족의 단합을 위해 싸우는 조선의 혁명가들입니다. 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 결심을 하고 투쟁에 나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바친다는것은 목숨을 바친다는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리익, 사생활, 감정까지 조국을 위해 바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시백동무는 그만 감정에 사로잡혀 예리한 판단력과 분석력까지 무디어진것 같습니다.》

김규식의 종잡기 어려운 행동에 격분을 느낄 대신에 서울에 있는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의 우점을 먼저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너그러운 도량과 대해같은 자애로운 동족애에 성시백은 머리가 숙어졌다. 김규식의 우점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서 그가 견해를 바꾸었겠는지 이것은 아직도 의심스러운 일이었지만 자기따위는 감히 가늠할수도 없는 거대하고 아아한 산악과 같은 위인의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조선민족을 자주독립으로 이끌고 나가신다는것만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그는 얼굴을 곧추 들고 부드러운 웃음이 비낀 장군님의 존안을 우러러봤다. 자책감이나 회오감을 느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왜 판단이 무디어졌다고 하는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장군님께서서는 응접실안을 오고가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북협상을 전민족의 대단합회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실공히 전민족의 의사를 반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합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는것을 성시백동무도 잘 알고있을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좌익만이 아니라 중간, 우익민족주의자들까지 민족단일정권수립을 찬성해야 한다는것도 성시백동무는 모르지 않을겁니다.》

성시백도 장군님의 이 웅심깊은 의도를 리해하고있었으며 그이의 의도를 어떻게 해서든 받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 김규식선생이 동요를 좀 한다고 해서 먼저 봐야 할 우점을 보지 않고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선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규식의 《유엔의존론》을 미국놈들이 지지하는것만큼 어차피 론박을 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명사들이 앞에 나서서 성명이나 담화를 발표해야 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선생을 시비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족화합을 목적인 남북협상이 개최되기전에 김규식선생의 《유엔의존론》을 가지고 시비를 가르는 싸움을 먼저 하게 될것이라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면 남조선인민들의 관심이 남북협상에 집중되지 못하게 미국놈들은 언론을 《유엔의존론》에 집중시켜 소란스럽게 떠들어댈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구선생이 어떤 태도를 취할것 같습니까? 김규식선생을 배척할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존론>을 반대한다고 해서 김규식선생의 사상과 정견을 근본적으로 부정할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할것은 두 선생은 립정 주석, 부주석으로 수년간 고락을 같이해온 형제간처럼 지내는 사이라는것입니다. 또 김구선생과 같이 정치적신조를 여간해서는 바꾸는 일이 없는 사람은 의리나 인정관계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민족적화합을 목적인 남북협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시백은 김규식의 《유엔의존론》이 일으킬련쇄반응을 예견하지 않은것도 아니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대충 머리속에 른곽을 그려보기도 했었다. 이러한 소란스러운 사태가 남북협상의 근본목적과 상반되는 현상을 빚어낼수 있다는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어째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미흡한 점이 있는듯 싶었던것은 바로 이것이었던가?

《성시백동무는 지난 7월에 우리를 찾아왔을 때 전위당을 내오겠다는것을 왜 우리가 반대했는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전위당을 내오는 방법으로는 미국의 대조선전략을 짓부실수 없다고 하면서 기본은 전민족의 단결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적단결이란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이 각이한 사람들이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단결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김규식선생이 민족자립사상을 접수하기 어려워하는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의 리익을 앞에 놓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있는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정견이 각이하다는것을 인정한 기초우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는것인데 김규식선생이 남북협상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니 성시백은 스스로도 어떻게 되어 남북협상의 근본목적은 망각하고 김규식문제를 생각했는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중경시절부터 그를 가깝게 지내고 의사를 소통하기도 했던 김규식이었는데 어째서 이국의 안개질은 도시에서처럼 량심인으로 대할 생각을 못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김규식을 적대진영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경원하고 경계하며 일방적인 요구만 한게 틀림없었다.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길에서 뜻을 같이할 벗으로, 동료로 생각하며 중경에서처럼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냈더라면 그가 구렁텅이에 빠지는것을 방관할 생각을 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김규식선생이 아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것을 부인하는것은 아닙니다.》

엄하게 꾸중도 하고 착오를 뉘우치게 할 힐책의 말씀도 계실줄 알았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을 위로하듯 너그러이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또 성시백동무가 김규식선생을 옳은 길에 들여세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것도 아닙니다. 동요가 있긴 했지만 선생을 민족자립사상의 공감자로 되게 한것은 성시백동무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도 웅심깊은 구상을 하고 이 방략을 실현시키려고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크나큰 로고를 기울여오신 장군님의 민족적위업을 하마트면 위험에 빠뜨릴번한 성시백을 그이께서는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는것이였다. 사람을 대하시는 장군님의 이 아량과 폭넓은 사색을 몸에 익혔더라면 김규식을 그렇게도 일면적으로 거칠게 대했겠는가?

《문제는 매듭을 잘 짓지 못한것인데 이것은 이제부터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하기 까다롭고 주견이 강한 선생에게 우리의 마음을 리해시킬수 있겠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여 응접실안을 잠시 오가시였다.

《어떻게 해야 김규식선생을 고민과 동요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선혁명가의 의무를 다할수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성시백을 마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의미깊은 말씀을 할 때마다 가슴노리까지 올리군 하던 오른손을 굳게 틀어쥐고 가슴앞에까지 올리시였다. 그이의 웅심깊은 사색이 틀어쥐 주먹에 응어리처럼 응결되는것 같았다. 나직하나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항일대전의 첫시기 별동대를 조직하여 반일부대와의 연합을 실현한 일이며 각계각층 인민들을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단결시킨 사실들을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성시백이 민족대단합을 위해 이런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하는 성시백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시였다.

《그럼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는가? 내 이름으로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는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편지를 쓰되 김구, 김규식 두 선생앞으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는것입니다. 편지 앞머리에 김구, 김규식선생 공감 이렇게 쓴다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선생의 래왕도 빈번해질것이구 남북협상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될것입니다. 성시백동무는 우리의 서신을 두 선생에게 전달하는 수고를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항일대전시기 이룩한 장군님의 풍부한 경험을 생각하며 그이의 말씀을 듣고 앉았던 성시백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조선혁명의 민주기지에서 건국사업을 령도하고계시는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편지를 보내다니?

그이의 존함을 동요가 심한 우익정객을 위해 쓰실 생각을 하시다니?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 그뿐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 멀어져가는 김구, 김규식사이를 밀접한 관계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두 선생이 어차피 의견을 나눌수밖에 없는 서신을 보낼 생각까지 하신다. 우익민족주의자들의 단합을 위해 이토록 마음을 쓰시는 장군님,

혁명리론이 생겨난 이래 이렇게도 도량이 넓고 사색이 비범한 수령이 그 언제 있어보았던가!

성시백은 장군님의 민족자립사상의 깊이와 넓이, 아니 그속에 담긴 새로운 철리를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것 같았다. 그럴수록 그이의 존함을 가볍게 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굳어지는것이였다. 그의 리지적인 얼굴에 비장하다고 해야 할 심각한 빛이 어렸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장군님이 존함을 모신 편지를 보낼 결심을 하시게 된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하구 제가 일을 잘못했기때문입니다. 서신을 보내는것을 당분간 미루었으면 합니다. 제가 서울에 나가서 다시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책도 자세를 바로잡고 말씀을 드렸다.

《남북에 협상의 분위기가 조성된것은 장군님께서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진행해온 투쟁본위의 방법을 버리고 화합을 통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 방식으로 혁명투쟁을 전환시켰기때문입니다. 지금도 민족해방을 우선시하는 장군님의 로선을 두고 뒤에서 쓸라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김구, 김규식이 이런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고 장군님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내부의 음모군들이 머리를 쳐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시백동무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김규식선생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지를 불손하게 대할만큼 그렇게 식견이 얇은 선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우리 조국의 현재 형편은 이런저런 고려를 하면서 늦잡고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까지

각오하면서 오늘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까. 이런 때 **김일성**이란 이름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주저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풍찬로숙하면서 혁명을 해온것은 무슨 명예나 직위를 바라고 해온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는 조선민족, 조선혁명을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시백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건하고 숙연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도 20여년간 수많은 시련도 겪었고 눈곱이 뜨거워지는 감정도 체험했다. 그러나 심장과 뇌리, 아니 전신에 충격을 가하는듯싶은 이런 감동은 처음 체험했다. 혁명을 위해, 민족을 위해 일신을 바치는것을 의무로 간주하시는 장군님의 헌신성, 스스로를 인민을 위해, 민족을 위해 바치는것을 본분으로 간주하시는 그이의 고결한 품모에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모든것이 응결되어있지 않는가. 불과 1시간도 안되는 짧은 사이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감동되기도 하고 깨달은바도 많지만 성시백의 흥분이 남다른것은 개성에서부터 막연하게 느껴온 불안이 어디에서 비롯된것인지 똑똑히 알게 된탓이었다. 사상, 사색, 감정... 통털어 자신의 모든것을 민족을 위해 바치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부족한것이 많은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것이였다.

새 세계를 발견한듯, 스스로의 품모와 사색도 비약을 한듯한 흥분에 휩싸여있는 성시백의 귀에 걸걸한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문제는 편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겠는가 하는것인데 내 생각엔 이 문제도 성시백동무가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것입니다. 어째서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는가?

직접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눌수 없어서 편지를 보내는것이니 편지를 전달하면서 성시백동무가 보충해야 할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의 뜻을 상대에게 해설해줄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성시백은 한동안 그이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것처럼 그저 놀란 기색으로 앉아있을뿐이었다. 장군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대사를 맡겨주다니? 이제 비로소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것이 뭇인지 깨달은 사람에게 이런 신임을 베푸시다니…

《이번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협상을 진행하고 공화국을 창건하는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사업을 능동적으로 처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시백동무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는것 같지 않습니까?》

성시백은 마음을 다잡기 어려웠다. 지나친 요구를 하는것 같아 걱정을 하시다니…

장군님의 자애에 넘친 말씀을 들은 성시백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고였다. 그는 뿌듯하게 흐려진 눈길로 부드럽게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목멘 소리로 말씀드렸다.

《지나친 요구를 하시다니… 저와 같은 사람이 장군님의 뜻을 받아안을 재목이 되는지 저는 다만 그것이 걱정될뿐입니다.》

《우리의 제기가 간단치 않다는것을 알면서 받아들일 결심이라니 됐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편지라는것은 아무래도 제한성이 있는것만큼 우리의 서신을 두 선생에게 전달하면서 상대를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후에 협상을 성사시키고 통일정부를

창건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성시백동무가 능히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갈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돌려주시는 장군님의 신임이 어떤것인지 저는 오늘에 와서야 안것 같습니다. 주로 중국관내에서 생활한 저는 장군님의 사상과 풍격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이란 사상의 공통성으로 해서 어디서 싸우건 큰 차이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저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난번 평양에 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저는 참으로 많은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미흡한 제가 장군님의 뜻을 원만하게 받들수 있겠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성시백은 깊은 생각에 잠긴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있는 혁명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수행해본 일이 없는 새로운 투쟁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왜 새로운 투쟁이라고 하는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을 하셨다. 국토의 분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정권도 정당도 존재하지 못했던 지난 반세기, 유엔의 개입, 이런 상태에서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할 대과제...

《새로운 과제는 새로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합니다. 기성관념에 포로되거나 경험에 매달린다는것은 진보가 아니라 답보와 침체를 가져올뿐입니다. 적과 정면으로 대결하고있는 적구에서의 침체란 실패를 면할수 없습니다. 성시백동무처럼 박식하고 판단이 빠른 동무가 자기를 반성할줄까지 알면 됐습니다. 성시백동무의 사업을 믿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성시백의 손을 굳게 잡고 흔들며 밝게 웃으시었다. 성시백은 수정처럼 맑은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는 얼굴을 숙였다.

때늦은 저녁식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수령과 제자간에 격식없이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참으로 흥그러운 좌석이였다.

성시백은 요즘 남조선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제2의 광복을 앞둔것 같은 흥분을 안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정치인들이 흥분하고있다면 그것은 벌써 성공을 믿어도 좋다고 하시였다. 흥분과 열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신심의 산물이다. 흥분과 열정은 사사로운것을 버리고 대의에 자신을 복종케 하는 단결의 촉진제역할을 한다. 혁명투쟁은 흥분과 열정이 없이는 수행될수 없다고 하시였다.

《김규식선생이 고민하고 동요하는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있는 흥분과 희망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생의 사색이 그만큼 신중하고 시련을 많이 겪은탓입니다. 나는 김규식선생이 불행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동요하고 고민할 때 그뒤에는 뼈를 깎는것 같은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권하시는 음식을 들러던 성시백은 저가락을 든 손까지 후두둑 떨리는듯한 감동을 느꼈다. 그이의 말씀은 중경에 있을 때 성시백이 김규식을 두고 생각한 바로 그것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중경에 모여든 수십명의 조선망명객들중에 김규식은 남달리 예민한 감정과 출중한 지성을 소유한것으로 해서 고민도 많고 눈물도 많은 정치인이였다. 그래서 성시백은 남달리 그와 가깝게 지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계에서 밀어낼 생각을 할만큼 제일 거리가 멀어진 적수와 같은 사이로 되어버렸다. 성시백은 자신의 심중을 장군님께 솔직히 말씀드렸다.

흥그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저녁식사를 거의 끝낼무렵에 성시백은 허헌선생의 신상에 려운형이 당한것과 같은 위험이 들이닥칠것 같다며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대번에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무엇을 보고 성시백동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성시백은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아뢰였다. 허헌선생은 얼마동안 영등포방직공장 지하조직책임자인 조순옥이란 녀공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있었다는것, 적들이 어떻게 이것을 눈치챘는지 조순옥을 집요하게 미행하고있다는것…

《적들의 미행이 선생가까이에 거의 접근했습니다.》

《허헌선생을 하루라도 빨리 북에 들어오게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북협상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은 좌익진영사람들인데 만일 허헌선생이 잘못되면 주도적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을 잃게 됩니다. 김책동무, 빠른 시일안에 허헌선생을 모셔오게 해야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제가 나가면 선생을 안전하게 평양에 들여보낼수 있습니다.》

《성시백동무는 우리가 김구, 김규식선생들에게 보낼 편지를 만들 때까지 여기에서 며칠간 쉬는것이 좋겠습니다. 립정 주석, 부주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흰종이봉투에 넣어보낼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인견에 붓글씨를 쓰든지

타자를 치든지 아무튼 우리의 성의가 알려지게 준비를 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준비를 끝낼 때까지 휴식도 하고 아들들도 만나보고 북조선의 변모되는 현실도 돌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양복저고리밑의 조끼에 달린 회중시계를 떼내셨다.

《새로운 사업을 앞둔 기념으로 이걸 받으시오. 특별히 좋은것은 못됩니다.》

성시백은 자기의 손에 쥐여주시는 금시계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장군님의 밝은 웃음이 핀 얼굴을 우러렸다.

《분에 넘친 믿음을 안겨주신것만도 고마운데...》

그는 목이 메여 말을 하지 못했다.

《시계소리를 듣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것으로 생각하라는것입니다. 적들과 싸우자면 외로울 때도 있겠는데 그런 때 시계소리를 들으면 한결 마음이 든든해질겁니다.》

성시백은 그이의 믿음이 너무나 크고 고마와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졌다. 부드러운 안개가 낀듯한 시야속에 태양처럼 그이의 존안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언제나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심정으로 시계소리를 들으며 투쟁하겠습니다.》

성시백은 물기에 젖은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나라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셨다. 헌법초안이 완성되자 곧 전인민적인 토의에 붙이셨다. 헌법이란 낱말조차 모르던 인민, 나라의 기본법이라는 그 엄엄한 법이 자기들을 위해 제정되었을뿐만아니라 그 법이 옳게 만들어졌는지 의견까지 묻는다는것을 안 북조선인민들은 흥분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각급 정권기관, 기업소, 학교와 가두, 농촌... 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양양된 열의에 휩싸여 헌법토의사업에 적극 참가했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을 나라의 령도계급으로 규정한 헌법을 절대지지찬동하면서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과제를 초과완수하겠다고 굳게 결의다졌다. 지난날 고역에 시달리며 무지몽매하게 살아온 자기들에게 땅을 분여해준것만으로도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는데 나라의 법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헌법토의에까지 참가시켜주신 장군님의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농민들은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겠다며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문화인들의 열의는 남달리 뜨거웠다. 지성인들인 그들은 전인민적토의에 붙인 헌법이 어떤 력사적의의를 갖는가를 알고도 남았던것이다.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헌법토의에 참가한 작가, 예술인들은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걱정을 참을길이 없어 장군님께 편지를 올렸다.

...헌법토의사업에 참가한 작가, 예술인들은 일제에게 우리 조국이 강점당한 근 반세기동안의 절통한 과거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니 근로하는 대중을 보호해주는 법은커녕 나라의 기강을 명기한 법도 없이 장구한 기간 법밖에서 목숨을 부지해온 우리 인민의 불행한 과거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민도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정의를 생명으로 삼고 량심이 불탈 때

비로소 빛나는 창작적결실을 얻을수 있는 특이한 직종에 참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헌법을 인민적토의에 붙이시여 이 헌법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나라의 기본법이라는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토의하는 과정에 정의와 함께 가슴터질듯한 환희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바로 눈앞에 박두한 가까운 앞날의 일이라는것을 깨달았기때문입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나 뜻있는 사람이 조국의 앞날을 근심하고있을 때 이러한 일대 경사를 눈앞에 두게 될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조국의 앞날이 창창한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작가, 예술인들의 뜨거운 숨결이 넘쳐나는 편지를 앞에 놓고 오래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민족통일정부가 창건되리라는것은 의심할나위도 없는 명백한 일이였지만 아직도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성취할수 있는 앞날의 일이였다. 장군님과 김구, 김규식사이에 오고가는 서신도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있었다. 김구, 김규식 두 선생중의 한사람, 아니 두사람이 모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협상이 진행되지 못할것도 없었다. 그러나 한생을 민족을 위해 바친 두 선생을 제외한 협상을 놓고 어떻게 전민족적화합을 위한 회합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생각끝에 김규식만이 아니라 김구와도 직접 대면을 하고 민족의 앞날을 두고 론의를 한적도 있는 허헌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시였다. 봄빛이 명랑하게 웃는 창밖을 내다보던 장군님께서서는 집무탁에 다가서서 송수화기를 들고 책임부관을 찾으시였다.

《내 차로 허헌선생을 모시고 오시오. 선생을 여기에까지 올라오게 하지 말고 현관앞에서 기다리요.》

얼마후 허헌을 태워온 승용차를 인민위원회 현관앞에 세워놓았다는 책임부관의 보고를 받은 장군님께서는 어제밤에 받은 김구, 김규식의 세번째 회신을 안주머니에 넣고 집무실을 나서시었다.

그이께서는 자동차에 오르면서 허헌에게 허물없이 인사를 보내시었다.

《외지에 나가 다니자니 불편한 점이 많았겠는데 건강은 어떠합니까? 헌법토의사업에 참가한 인민들의 의견도 들을겸 날씨가 좋아 선생님하고 교외를 한번 돌아보자고 해서 이렇게 오시게 했습니다. 오늘같은 쾌청한 날에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는데 교외에 한번 나가봅시다.》

《정말 희한한 날썩니다. 봄이 왔다는것이 알립니다.》

허헌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를 부르신 장군님의 진의도를 알고싶은듯 그이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장군님께서는 허헌의 눈길을 감촉했지만 다른 말씀이 없이 운전수에게 교외에 나가자고 이르시었다.

허헌이 평양에 들어온것은 석달전 지난해 그믐달이였다. 그는 일어나 앉기도 어려울만큼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38°선을 넘었다. 성시백이 평양에 와있는 사이 그를 미행하는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의 추적은 하루가 다르게 악랄해졌다. 매일과 같이 아지트가 습격을 받군 하여 조석으로 은신처를 바꾸어야 했다. 때로는 랭혹하게 추운밤 담장밖에 뛰어나가 실골목을 쫓겨나가야 할 때도 있었다. 만일 영등포방직공장으로동자들이 목숨을 내대고 그를 호위해주지 않았더라면 허헌은 적의 추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것이다. 이런 다급한 형편에서 이미 로년기에 들어선 선생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수 있겠는가. 목은병은 도지고 지나친 긴장으로 해서 잠을 청할수 없었으며 음식도 제대로 들지 못해 몸은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졌다. 장군님께서서는 유능한 의료진을 붙여 운신하기도 어려운 허헌의 건강을 회복케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매일처럼 테로분자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받던 선생의 일가족을 서울에서 평양에 데려오게 하여 오랜만에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였다. 선생의 일가는 만딸 허정숙선전부장네 집에 들어있었다.

10여일전의 일이었다. 이제는 뜨락에 나올만큼 건강이 회복된 허헌이 장군님을 긴하게 만나볼 일이 있다면서 허정숙을 거쳐 접견을 요청해왔다. 장군님께서서는 바쁜 시간을 내서 그를 찾아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허헌이 류숙하던 바로 그 방에서 선생과 마주앉으셨다. 허헌은 그동안 자신과 일가족에게 베풀어주신 장군님의 자심한 은정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나서 곧 기본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신문에서 보기도 하고 정숙이한테서 듣기도 하면서 장군님께서 전인민적토의에 붙이기로 하신 헌법을 두고 나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

민족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사업이 얼마나 심도있게 진행되고있는지 깊이 알지 못하고있는 허헌이여서 헌법토의를 진행하는것은 지나치게 빠른감이 난다는 의견을 제기하려는줄 아셨는데 손까지 내저으며 자기는 절대찬성이라고, 단 한마디도 보탬말이 없다며 흥분해서 말하는것이였다.

《헌법에 관통되어있는 국가리념에 나는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조선말고 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정숙이한테서 헌법작성과정을 알아보니 그게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에 기초해서 작성된 헌법이라고 해서 내 생각하는바 참으로 컸습니다. 조국광복회에 대해서는 나도 익히 아는바 있었고 강령도 모르는바 아니었지만 그것이 새로 태어나는 우리 나라의 헌법의 기초로 될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흥분을 잠시 자제하는 빛이던 허헌이 정색을 짓고 장군님께 청원을 드렸다.

《이 헌법은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나는 알고있습니다. 통일정부라면 남조선도 포함한 온 나라 정부일것이 아닙니까? 그런즉 남조선인민들도 응당 헌법토의에 참가해야 할줄 압니다. 이제는 건강도 회복됐으니 내가 남조선에 나가 헌법토의를 추진시키겠습니다. 수일내로 평양을 떠났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에서 헌법토의를 진행할 방도를 놓고 생각해오던 장군님이시였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남조선에서 헌법토의를 시작하는데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평양에 그대로 계셨으면 합니다. 선전사업을 책임진 리현상동무가 있지 않습니까?…》

《남조선인민들은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있는데 평양에 그대로 눌러앉아있는게 미안해서 그렇니다.》

허헌은 역시 량심인이었다. 평양에 들어와 장기간 몸을 붙이고있는 이른바 남로당의 《간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38°선을 넘나든다는 말을 별로 듣지 못하시였다.

《적들이 제일 노리는 대상이 선생님인데 만일 불상사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일정부수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하자고 해도 그렇고 선생님은 없어서는 안될분입니다. 또 우리가 선생님에게 맡기고싶은 사업도 있습니다.》

허헌은 장군님을 마주보며 뒤말을 기다렸다.

《평양에도 법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을 당할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다싶이 헌법제정이란 보통 중요한 사업이 아닌것만큼 우선 헌법을 완성하는 일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또 앞으로 있게 될 남북협상에서도 선생님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허헌은 커다란 충격을 받은 기색으로 장군님을 우러러봤다. 자기는 량심의 충동을 받아 고작 생각했다는것이 싸우는 남조선민중속에 뛰어들어 헌법토의를 추진시켜야겠다는것이였지만 장군님께서서는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사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직분까지 생각하고계시였다. 허헌은 머리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허헌은 헌법토의사업을 책임진 지도소조를 이끌고 10여일간 공장, 기업소, 농촌, 정권기관을 돌아다녔다. 그 사이에 아직 생소한 북조선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변화된 생활도 료해할수 있었다. 그는 어제 자못 흥분된 마음을 안고 평양에 돌아왔다. 그 사이에 병도 말끔히 털어버렸다.

《헌법토의를 지도하는 과정에 인민들한테서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까?》

평양교외의 맛있는 구릉지대를 뒤덮은 흰눈을 어루쓸며 눈부신 해빛이 가물거리는 모양을 차창을 거쳐 내다보던 장군님께서 고개를 돌리며 물으시었다. 해빛과 노닐며 아지랑이가 명랑하게 웃고있는 전야의 풍경은 그이로 하여금 벌써 봄이 찾아왔다는것을 완연히 느끼게 하였다.

《모두 절대찬성입니다.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헌법인데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해서 해설도 하고 토론을 듣기도 했는데 의견이 전혀 없을수 없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의견이라도 좋으니 말해주십시오.》

장군님의 말씀이 너무나 진지하여 한참 생각을 굴리던 허헌이 마지 못해 입을 열었다.

《평북도의 대령군에 가서 군인민회의를 열고 해설을 했는데 거기 군인민위원장이 회의끝에 나를 찾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김성란동무가 의견을 제기했습니까?》

김성란이란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김모라니의 새 이름이었다.

《예,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일은 잘한다는데 학식은 받은것 같았습니다. 헌법에 한문자가 많고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서 자기처럼 공부를 하지 못한 농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위원장도 사본을 받기는 했지만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의 안색은 금시에 심중해졌다. 허헌은 자기가 공연한 말을 해서 이른봄의 해빛을 즐기려고 교외에 나오신 그이의 심중을 무겁게 한것 같아 송구하기 그지없어 했다. 서둘러 뒤말을 하였다.

《헌법은 법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의 기본법인것만큼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어야 정중한 맛이 납니다. 개명한 나라들에서 과학용어를 흔히 라전어로 표기하는것도 일반용어와 구별해서 정중한 맛을 주기 위해섭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헌법용어라고 해서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써서 법을 만듭니다.》

《나는 김성란동무가 아주 중요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첫머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의 나라라고 명기해놓고 인민들이 읽을수 없는 헌법을 제정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돌아가면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에게 말해서 우리 나라 글로 알기 쉽게 헌법을 고치게 해야겠습니니다. 인민들의 좋은 의견을 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산간군의 촌아낙네에 지나지 않는 일개 군의 인민위원장의 의견을 이렇게 심중하게 받아들이시는데 허헌은 어지간히 놀랐다. 그는 헌법제정과 같은 나라의 대사는 고명한 학자, 정치인들만이 관여하는 중대사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북조선전역에서 헌법토의사업이 진행되고있으며 며칠후에 소집될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는 헌법제정문제를 중요안건으로 상정시키기로 되어있는데 학식이 받은 평백성들도 읽을수 있게 수정을 하게 하시겠다니?...

김성란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대한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한 허헌이었지만 인민의 요구를 장군님처럼 민감하게 받아들였던것 같지는 않았다. 조국과 사회, 계급과 인민에 대한 견해에서 민중과 식자간에는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때는 없었던가?...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을것 같았다.

봄빛이 찬연한 빛을 뿌리는 차창밖의 순결한 설경을 내다보시던 장군님께서 안주머니에서 봉합편지를 꺼내들며 말씀하셨다.

《선생님을 모시고 교외에 나온것은 봄빛을 즐기면서 중요하게 의논할 문제가 있기때문이였습니다. 우선 이 편지를 보십시오.》

자책감과 함께 조선의 백성들이 이제야 참다운 인민의 수령을 모시었다고 크나큰 감격에 취해있던 허헌이 장군님께서 주시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속에서 편지를 꺼내서 주의깊이 읽어나가는 허헌의 얼굴은 점차 긴장해졌으며 나중에는 놀라고 격분한 빛이 안경속의 눈에도 볼에도 력력히 비졌다.

《이 사람들이 로망이 들어도 분수가 있지...》

편지를 든 허헌의 손은 물론 두툼한 입술까지 경련이 인것처럼 푸들푸들 떨렸다.

《선생님, 밖에 나가 걸으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봄빛이 내리비치는 흰눈을 밟으면서 걷는것도 별맛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먼저 자동차에서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허헌은 그이의 뒤를 따르면서 답신을 권 손을 내두르며 계속 부르짖었다.

《남북협상을 자기네가 발기한것으로 해달라니 이런 발칙한 요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글체를 보니 서신은 우사가 초한것 같은데...》

《김구, 김규식 두 선생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편지는 김규식선생이 쓴다고 합니다.》

《내 그런줄 알았습니다. 우사 저같은게 미국놈들한테 붙어사는 처지에서 어떻게 남북협상같은 대사를 생각한다는겁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체면도 량심도 가릴수 없는 지경에 이른것 같습니다.》

《김규식선생은 우리의 제기를 받아들인것으로 하면 탄압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민족대단합을 이룩할수만 있다면 협상을 누가 먼저 발기했는가 하는것은 큰 의의가 없는 문제라고 여기여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별치 않은 문제에 개념할 생각이 없으시였다. 그이께서 알고싶으신것은 김규식이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르췌아정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권모술수에 습관된 정객인지 하는것이였다. 지금에 와서 그이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된것은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에 김규식에게서 경계해야 할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셨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결심하신대로 정중한 친서를 성시백을 통해 김구, 김규식에게 전했다. 정향명이 무역을 주업으로 한 장사군이 된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김구, 김규식은 얼흔이 날아날만큼 놀랐지만 어쨌든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서한을 자못 정중히 받아들였다. 특히 일제의 오랜 학정밑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워온 그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통일구국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손잡고 싸워나가자는 장군님의 호소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넓은 사회의 이른바 정계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답신을 장군님께 올렸다. 그들은 답신에서 70이 넘는 백범(김구)이나 고질로 해서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자기(김규식)는 먼길을 오고가기 어려우니 협상을 서울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전제조건을 내놓았다. 물론 남북정계의 지도적 인사들이 수백명이나 참가해야 할 대회합을 폭압이 살판치는 서울에서 개최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런 당치 않은 전제조건이 부르쥬아정계의 관례로 되고있는 흥정이라는것을 이내 간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두번째 친서에서 그들이 제기한 전제조건이 부당하다는것을 모를 박아 까밝히시였다. 민족을 위한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자면 종래의 정치활동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이께서는 짚어서 강조하시였다.

…지난날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주의주장을 어떻게 해서든 고집하여 득세하는것을 업으로 삼아왔지만 우리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민족적대업은 종래의 정치활동에서 벗어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기를 바칠 각오가 되어있어야 이룩할수 있는 대업이다, 선생들은 이 점에 특히 류의하여 협상을 성사시키는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알려주기 바란다, 우리는 선생들의 제기를 뜨거운 동포애적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것이며 그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다…

김구, 김규식은 부드러우면서도 사리정연한 장군님의 서한을 받고 적잖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두번째 답신에서도 전도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조항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남북정치인이 수백명이나 참가하는 번거로운 회담을 통해서는 실리를 얻기 어려우니 남에서는 김구, 김규식, 북에서는 **김일성**장군 이외의 또 한명의 대표가 참가한 4자회담을 갖자고 했으며 상해립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해달라는 말도 첨부되어있었다. 또한 그들은 남북협상을 지나치게 서두를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총선거가 일정에 오른 때에 개최해도 되는 일인줄로 안다는 말도 했다.

이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였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초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회답을 보내셨다. 4자회담은 남북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하나의 일정으로 이런 회합을 갖는데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남북협상의 개최날자는 그 성격으로 보아 북과 남의 정당단체지도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며 그들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시였다.

세번째 답신이 허헌이 방금 내리훑고 격분한 조항이 담긴 편지였다. 김구, 김규식은 조국의 완전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민족적대업을 이룩해나가는 이런 때에조차 그 무슨 흥정을 개입시키려는것 같았다. 지금은 서면우에서의 논의이지만 협상도중에 우익령수급인물들인 김구, 김규식이 이런 루추한 행동을 한다면 민족대화합에 적잖은 영향을 줄수 있었다. 김구, 김규식 그중에서도 특히 김규식의 동향에 그이께서 새삼스럽게 우려를 품으신것은 이때문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을 부축해주기도 하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흰눈이 수북이 쌓인 발뚧길을 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깊은 골안으로 들어가면서 김구, 김규식과 3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서한의 내용을 허헌에게 자세히 알려주시였다. 그동안 자신께서 전개한 우익민족주의자들과의 사업을 통보해주면서 허헌이 깊이있는 사색을 할수 있게 하시려는것이였다.

《우리는 김구, 김규식선생들의 태도가 섭섭하긴 하지만 남북협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깊은 주목을 돌리고있습니다. 시간만 허락하면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합의에 도달할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시간이 없습니다. 적들이 단선날자를 5월 10일로 공포한 조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선생님은 김구, 김규식 특히

김규식선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의를 지킬줄 아는 정치인인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급급해하는 사람같습니까?》

허헌은 안경속의 눈은 말할것 없고 관골이 두뚝한 얼굴근육까지 한껏 긴장시켰다. 자기의 몇마디 말에 김규식의 운명이 결정될수 있다는것을 감촉한것이다.

《우사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사가 신의가 없는 시정배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일단 결심한 정견을 좀해서는 버리지 못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군님께 드리는 답신에 당찬은 전제조건을 붙이는것은 남북협상에 다른 의도가 달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풀지 못하고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나에게는 생각됩니다. 우사의 일생으로 말하면 대국들에게 속히온 불우한 력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복후 환국해서 미국놈들편에 붙은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한테 리용당하고 속기도 하는줄 알면서 미국의 영향을 배제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우사의 비극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단 믿으면 자기의 리론을 여간해서 버리지 않는것이 우사입니다. 우사는 신의를 지킬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결심을 이야기해주어야겠는데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확정을 해야 하겠기때문에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좌우합작>을 할 때 김규식선생한테 속았다고 생각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걸 보면 신의가 있는분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도랑을 따라 순결한 눈우에 깊은 발자욱을 찍으며 골안으로 들어가던 장군님께서서는 눈석이물이 졸졸 흐르는 도랑가에 문득 오금을 꺾고 앉으시었다. 엄동의 횡포한 전황에 움츠러든 마른풀과 잡목들이 뿌리를 박은 어수선한 도랑가였다. 수집은 웃음을 웃고있는 연두빛버들개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쓸던 장군님께서 밝은 웃음이 비낀 얼굴을 드시었다.

《이것 보십시오. 벌써 버들개지가 폈습니다.》

허헌도 그이곁에 오금을 꺾고앉아 순결무구한 갓난애의 웃음을 웃는듯한 야들야들한 버들개지를 들여다봤다.

《사람도 이래야 합니다. 시련과 난관이 있어도 과거에 집착할것이 아니라 힘차게 전진해서 꽃을 피울줄 알아야 한다는겁니다. 김규식선생은 이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난관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한 나머지 의혹에 사로잡혀서 꽃피울 생각을 못하는것 같습니다.》

허헌은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나니 참다운 봄의 훈풍을 비로소 느끼는듯한 심정이였다. 그는 약동하는 봄기운을 가슴가득히 느끼며 지금도 서울에서 울적한 나날을 보내고있을 김규식을 생각했다. 한포기의 들버들을 앞에 놓고 김규식을 생각하시는 이 자애로운 기대를 어찌서 알지 못하는가.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봄을 감수하는 장군님의 억센 기상에 어찌서 의지하려 하지 않는가. 한달음에 달려가 그이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하며 장군님의 억센 기상에 의거함으로써만 일신은 말할것 없고 조국도 약동하는 봄을 맞이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싶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도랑길우에 올라서서 봄빛이 가득찬 골안을 잠시 둘러보시었다. 옆에 올라와선 허헌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우리도 믿고 허헌선생도 믿는데 어째서 김규식선생이 결심을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심만 하면 민중이 존경하고 또 민족사에 남을 인사가 될수 있겠는데 어째서 한발자욱을 내짚을 생각을 못하는지 안타깝단 말입니다. 일생동안 시련속에서 살아온 선생이여서 지나치게 조심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할 절박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조심할 생각만 하고 의심만 하다나니 정작 생각해야 할 민족의 전도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깊은 숨을 헤치며 골안을 나서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허헌의 말을 심중히 받아들이시는 안색이였다.

《편지를 봐도 확실히 그런것 같습니다. 절박감을 느낄수 있게 대책도 취하고 선생이 봄기운을 느낄수 있게 봄바람도 일구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이께서는 활달하게 손을 내저으며 드높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의 뇌리에 그 어떤 대책이 번개친게 틀림없었다. 허헌은 앞날을 확신하시는 장군님의 밝은 웃음이 비낀 존안을 우러러보며 생각했다. 김규식이 제아무리 주저를 하면서 잔룡간을 피운다고 해도 해와 같은 장군님의 품속에서 재룡을 떠는 어린애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것이였다. 김규식도 조만간에 그이의 역센 품에 안겨 꽃을 피울것이다...

이날 허헌과 함께 교외를 산책하며 성숙시킨 문제를 장군님께서서는 곧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력적인 사업을 전개하시였다.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에게 헌법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고쳐쓸 과업을 주신 그이께서는 서기와 허정숙을 집무실에 부르셨다.

《오늘부터 이틀쯤 밤을 새워야겠소. 남조선의 정당단체지도자급정치인들 7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내자고 하오. 초청장은 김구, 김규식선생들에게 보낸것 같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인건사에 타자를 쳐야겠소. 내가 일흔이 넘는 초청장을 쓰기 어려울것 같아 타자를 치자는것이요. 서둘러야겠소. 초청장을 보내야 할 대상은...》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드시고 초청장을 보낼 대상의 이름을 하나하나 꼽아나가셨다. 우익에서는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동오... 거의 20명이나 되는 이름을 꼽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홍명희, 리극로, 리용, 김창준... 중간과정계에서 활동하는 명사들의 이름도 거의 20명을 꼽으시였다. 좌익에서는 허헌, 백남운, 류영준, 장권... 2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드셨다.

장군님께서서는 13개 정당협의회에 망라된 정당단체지도자들을 비롯해 리승만계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정치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남북협상을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막을수 없는 시대적대세로 전환시킬 결심을 하신것이다. 이것이 허헌에게 말씀하신 봄바람을 남조선정계에 휘몰아넣는 방도였다.

이날부터 타자수들은 밤을 밝혀가며 인건사에 장군님께서 초하신 편지를 쫓아박았다.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오직 우리 인민자신의 거족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것입니다. 우리는 단합된 민족의 힘으로 국토를 량단하고 민족을 분렬시키려는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들에게 조국을 팔아먹으려는 민족반역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

련석회의순서는

1. 조선의 현정치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2.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위한 반동선거실시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반대하여 투쟁할 대책수립
3. 조선통일과 민주주의조선정부수립에 관한 대책강구 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

장군님께서서는 타자수며 관계일군들과 밤을 밝히며 비교적 긴 편지형식의 초청장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였다. 초청장은 곧 정당단체지도자들과 개별적인사들에게 전해졌다. 장군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셨다는 소식은 삼시에 정계는 말할것 없고 언론계, 로동계, 학계 지어 향간의 주민들속에서까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정치인들은 자기가 민족지상의 위업에서 소외된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초청장을 손에 넣어보려고 뛰어다녔다.

남조선정계의 이러한 동향을 보고받은 장군님께서서는 즉시에 방송을 통해 공개초청을 하도록 하시였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남북협상에 참가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단일정권수립을 위한 대책토의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 초청장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조선문제를 우리 민족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는 뜨거운 열풍이 온 남조선땅에 차넘치게 됐으며 정치인, 노동운동관계자, 학자, 문화인, 종교인들이 앞을 다투어 만남을 무릅쓰고 평양을 향해 38°선을 넘기 시작했다.

4

평양방문이 남조선정계의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전환되자 김구, 김규식도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었다. 그들은 기자들앞에 나타나 북조선의 김일성장군과 여러차례 서찰을 주고받았다는것을 공개하면서 평양측의 초청에 응할 생각이라는것을 공포했다. 미제침략자들의 사촉을 받은 불량배들이 수백명씩이나 경교장과 삼청장에 란입하여 때로는 땅을 치며 우는 흉내도 내고, 때로는 그 누구인가의 지휘를 받으며 《못간다! 북에 가지 못한다! 반공, 반공...》 거센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먹을 내두르기도 했다.

삼청장에 찾아왔던 버치는 불량배들의 이런 란동에 어지간히 놀라 김규식에게 란입자들을 곧 쫓아버리겠다고 하고는 사령부로 되돌아갔다. 그는 회전문이 휘말아넣는대로 사령부현관에 들어서서 사령관실이 자리잡은 7층에 올라갔다. 화려한 사령관실에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의 실권자들인 베닝호프, 언더우드2세, 새로 군정장관으로 취임한 쉰, 웬만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 얼굴을 내미는 일이 없는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 정치과장 노블이 싸움을 한탕 벌리고난 후인듯 얼굴들을 찌프리고 하지사령관앞에 둘러앉아있었다.

4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격렬해지는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남조선민중의 항거며 평양방문이 추세로 된 남조선정국의 동향을 놓고 타개책을 의논하고있는 모양이었다.

버치는 이들의 울적한 기분에 개념할 겨를이 없었다.

《불량배들이 삼청장에 란입했습니다. 김규식선생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사령관이 버치를 마주보며 비웃는 어투로 질책을 했다.

《버치박사, 나는 당신에게 김규식을 미국에 필요한 조선인으로 만들라고 했지 변덕을 부리는 코리언(조선사람)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소. 미국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땐 비루먹은 강아지만도 못한 말년이 차례진다는것을 알게 해야 하오.》

《김규식선생을 매장하는것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선생은 영향력있고 권위있는 정치지도자의 직위를 보존하자면 평양에 가는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있을뿐이지 회담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하는 의사표시를 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김규식선생이 로숙한 정치가라는것을 말해줍니다. 정치는 명령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는 군사행동과는 성격이 다른 복잡한 영역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령관각하는 지나치게 극단적인것 같습니다.》

비록 지시를 하달하고 집행하는 상하의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돌덩어리같은 머리를 어깨우에 올려놓은 하지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버치는 생각한것 같았다.

《이 남조선은 군인정치가 실시되는 군정지대요!》

하지는 버치의 반발에 독살이 뻔쳐 웨쳤다.

《우리가 만일 그 정치란것에 매달리지 않고 엄격한 군사통치를 실시했다라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수 있었겠소? 립정의 법통이 어땡소, 민족의 자주권이 어땡소 하면서 애를 먹일 때 그 김구, 김규식이란것들한테 철권을 안겼더라면 그자들이 지금 평양에 가겠다고 할수 있는가 말이요? 감옥이 아니면 지금 공산군한테 쫓기고있는 장개석을 찾아갔을것이요.》

독살이 뻔쳐 리성을 잃어버린 하지는 민심이 평양에 쏠린것이 마치 정치를 우선시한 베닝호프나 버치의 잘못인것처럼 주걱턱을 잔뜩 추켜들고 웨쳤다. 하지사령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남조선을 지배하고있는 실권자들모두가 워싱턴의 대조선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기뻐하고있을 때 사태가 난듯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양을 목격하고 그저 아연하고 당황해 어쩔바를 모르고있었다.

평양의 **김일성**장군과 김구, 김규식사이에 편지가 오고간다는 정보를 처음 입수했을 때 이들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발생하고있는듯한 불안을 느끼지 않은것도 아니였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의 주변에 박아넣은 첩자들의 자세한 자료를 안받침한 보고는 이들의 불안을 적지 않게 가시게 했다. 김구, 김규식 그중에서도 특히 김규식은 마치 못해 평양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체 하고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있다는것이였다. 김구는 평양의 호소에 얼마간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있는듯 하지만 북조선에 《정치공작대》라는것을 들여보내서 여러건의 테로를 감행하게 한 그가 평양에 간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더구나 김구는 미군사령부에 들여뒀다가 퇴맞은 립정의 법통인정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있어

이 협상이 이루어질수 없는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하지는 말할것 없고 외교에 썩들어먹은 베닝호프도 김구와 김규식이 남조선의 민심을 고려해 자기들처럼 정치를 하고있는것으로 생각했다. 공산주의혁명리론에 비추어보아도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손을 잡는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는 평양측이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있는 협상을 역리용해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있는 김구, 김규식의 능란한 정치적공간에 감탄해마지 않았으며 그를 존경하게까지 됐다.

그런데 갑자기 수십통의 초청장이 남조선의 정당단체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뒤이어 평양에서 방송으로 공개초청을 하더니 김규식도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평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나섰다. 하지는 말할것 없고 이 자리에 모인 남조선의 실권자들은 무쇠주먹에 정수리를 드세게 얻어맞은듯한 느낌이였다.

우둔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것처럼 하지는 지난날의 자기의 행동과 사고, 감정을 대번에 잊어버렸다. 한편으로는 총칼을 휘둘러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규식과 같은 《리해력있는》 정치인들을 리용해 무마전술을 써오면서 자기의 정치적수완이 이제는 세련의 극치에 이르렀다고 자못 만족해하던것이 불과 달여전의 일인데 그것을 그는 감감히 잊어버렸던것이다. 자기가 그중 경계하고 미답지 못하게 여기던 인물이 김규식인것 같았다. 아메리카군인정신의 투철한 소유자이며 《오끼나와의 영웅》인 자기가 김규식과 같은 이단자를 존경할수 없지 않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하지는 분별을 잃을만큼 발작적인 격분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는 군정장관을 쏘아보며 추궁하기 시작했다.

《평양에서 나온 그 <정치위원회>란것을 색출해내라고 몇번이나 명령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하고있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수사기관을 손에 쥐고있소?》

하지는 이렇게 웨치며 싸늘한 눈길로 노불을 돌아봤다. 미군사령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을 협상의 회오리바람에 휘말아넣은 이런 일을 한개의 지하조직이나 한두개의 그루빠를 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해낼수 없는 일이라면서 평양에서 《정치위원회》가 서울에 나와 활동을 개시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긴 사령부산하의 정보기관, 미중앙정보국과 특군성에서 꾸려놓은 아리송한 이름을 붙인 정보체계, 거기에 일체의 경찰기관에서 썩들어먹은 형사, 사찰계경관들, 우익깡패, 미군에게 붙어먹는자들의 수를 모두 세자면 수십만에 이를것이였다. 그 많은 밀정, 경관, 깡패들이 남조선정계에 침투해있고 민중의 생활속에 스며들어갔는데 평양과 서울사이에 오고가는 **김일성**장군의 친서가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 의해 남조선정계의 중진들에게 전달되는지 알아내지도 못하고있으니 하지가 고아델만도 한 일이였다.

《당신들이 쥐고있는 그 첩보기관이니, 경찰이니, 폭력단이니 하는것들도 정치를 한답시고 모두 평양바람에 휩쓸려들어간게 아니요?》

하지는 정말로 자기가 궁지에 몰린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민간인들, 100여명에 달하는 고문들이 어리석은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워싱턴의 지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본국에 송환된 후에 쓴 회상기에서도 자기가 조선에서 실패한것은 종교인들과 고문들을 잘못 둔데 있다고 했다.

독살이 뻗쳐 고아대던 하지가 이젠 얼마쯤 발작이 가라앉은듯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곰방대를 빨기 시작했다. 괴팍한 하지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베닝호프는 로회한 외교관답게 이 기회를 리용해 은근한 목소리로 조리있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령관각하가 말하는것처럼 첩보가 일을 잘못된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제구실을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제구실을 못했다고 자인해야 하는가? 우선 나는 요즘 자기가 조선민족을 잘못 리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군 합니다. 우리도 원본을 입수한 평양의 김일성장군의 호소를 주의깊이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있던 공산주의혁명원리와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이 국제화되는 조건에서 공산주의운동도 국제적련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해왔습니다. 그런데 호소문에는 그런 구호보다 민족의 전도문제가 각별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점을 념두에 두지 못하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해오지 않았는가? 나는 근래에 이런 생각이 자주 머리에 떠오르군 합니다.》

《베닝호프씨는 이제야 그것을 알았습니까?》

언더우드는 레배당에서의 설법이 이제는 허바닥에 배여버려 일정한 억양을 붙인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분명히 비웃음이 비껴있었다.

《조선민족은 오래동안 강대국에 예속되어 살아왔기때문에 남달리 외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합니다. 또한 민족문제에 예민해서 일단 민족적단결을 달성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쉽게 단합해서 목숨을 아까와하지 않고 항거합니다. 조폭한 일본도 조선민족의 반항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압니까? 지금 평양에 있는 김일성장군이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백두산을 근거지로 삼고 압록강, 두만강류역에서 싸운것은 민족적단합을 목적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리승만과 같이 미국에 충실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을 내세워서 남조선민중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해온것입니다.》

조선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언더우드여서 조선민족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봤다고 할수 있는 말이였다.

《나는 언더우드씨의 견해에 반대입니다. 만일 목사님이 조선민족을 그렇게 평가했다면 민족적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해야 옳지 리승만과 같이 자기 민족을 버린자를 계속 옹호하면 반미기운만 높아질게 아닙니까. 리승만은 이미 조선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더구나 지난해에 미국에 가서 한짓들과 자기 처를 죽여버린것때문에 리승만은 인간으로서 이미 매장되어버린 산 송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리승만은 지난해 자기를 대통령으로 내세워달라고 미국에 구걸행각을 떠날 때 친일매국족속들로부터 아편장사군에 이르기까지 돈냥깨나 있는 200여명의 남조선자산가들한테서 2억원이란 돈을 갈퀴질해서 가져갔다. 당시 전조선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88억원이라는것을 념두에 둘 때 2억원이란 상상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거액의 돈이였다. 그런데 후에 알려진데 의하면 조선은행에 보관되어있던 여러개의 금덩어리까지 훗취해서 미국으로 실어갔다고 한다. 만일 이만한 돈으로 쌀을 구입하거나 공장기업소들을 돌렸다면 남조선인민들이 오늘과 같이 기아선상에서 헤매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다 최근에는 양년을 끼고 돌아온 이 민족반역자에게 그의 귀국을 수십년동안이나 기다린 박씨성을 가진 본처가 동대문밖에서 살고있다는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리승만은 자기에게 불리한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된 근본을 아예 없애버릴양으로 본처를 불귀객으로 만들어버렸다. 인륜을 저버린 이 죄행까지 세상에 알려져 이젠 향간의 아낙네들까지 리승만이라면 침을 뱉고 돌아서는 판이었다.

버치는 이런 리승만을 미국이 조작해낼 정부의 수반자리에 올려앉히는것은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조선사람들을 자극해서 수습할수 없는 사태를 빚어낼수 있다면서 언더우드의 견해를 반대해나선것이다.

《당신이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 생각을 반대합니까? 조선민족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가장 강렬한 열망은 통일독립입니다. 만일 이 열망이 분출할수 있는 자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는 경우에는 미국의 강대한 무력으로써도 어쩔수 없는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평양의 김일성장군은 바로 이것을 알고있어 민족적단합을 호소한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때 우리에게 어떤 조선인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리승만과 같이 조선사람의 얼굴생김에 아메리카정신이 골수에 가득찬 인간이 필요한것입니다.》

《나는 언더우드씨의 고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울한 생각에 잠겨있던 베닝호프가 담배연기를 날리며 한마디 했다. 좌중의 사람들은 베닝호프의 말에 저으기 놀랐다. 비록 언더우드가 수석고문의 자리를 차지하고있었지만 그의 견해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하찮은것으로 곧잘 일축해버리곤 하던 베닝호프였다.

《평양에서 조선민족의 열망을 고려해서 정책전환을 했다는 그 점은 아주 예리한 판단입니다. 나는 언더우드씨가 고견을 피력해준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동감을 표합니다.》

베닝호프는 일단 언더우드의 견해를 지지했다.

《그러나 리승만을 우리가 앞으로 세우게 될 서울정부의 수반으로 올려앉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언더우드씨가 말한 바로 그 민족단결을 할수 있는 틈을 조선인민들에게 만들수 있게 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남북협상을 어떻게 하면 파탄시키겠는가 하는 머리아픈 과제가 우리앞에 제기되고있는 때 그런 말을 다른 장소에서 피력하는 경우에는 남북협상을 성사케 하는 일종의 성원으로 될것입니다.》

베닝호프는 언더우드를 마주보며 웃음지은 얼굴을 주억거리기까지 하면서 보기 좋게 강타를 안겼다.

《평양은 언더우드씨가 말한 미국의 강대한 무력도 어쩔수 없는 바로 그 민족적단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만일 남북협상이 성사되면 거기에서는 서울정권을 미국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이라고 비난할것이고 통일정부를 세울데 대한 결정이 반드시 채택될것입니다. 또한 협상자들은 자기들이 세우는 정부를 남북조선을 대표한 전조선민족의 합법적정권이라고 주장할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유엔>을 리용해 조선을 점유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남북협상을 통해 조선의 통일정부를 세워서 민족통일을 달성할 생각을 하고있다는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의사대로 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통일정부가 수립되는 경우 세계의 여론은 어느쪽을 지지할것 같습니까?》

베닝호프는 위엄있는 모습으로 좌중을 에둘러 보았다. 자기의 논리를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도고한 모습이였다. 사실 하지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놀라웁고 또 몹서리칠 그의 예언에 그만 기가 질려버렸다.

《이런 때는 대담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즉시에 두가지 문제를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사람들의 민심을 얻을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서 서울정부의 정상자리에 올려앉힐 결심을 하는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만일 우리가 김규식박사를 서울정권의 정상자리에 올려앉히는데 견해의 일치를 본다면 그 사람을 평양에 보내야 한다는것입니다.》

하지도 언더우드도 군정장관 편도 버치도 뭐라고 고함을 칠듯한 놀란 얼굴로 베닝호프를 마주봤다. 만일 음울한 노불이 손을 들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때에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사령관실은 저마끔 자기의 주장을 세우느라고 고함을 치는 소란스러운 론쟁터로 되었을것이다.

《나는 베닝호프씨가 자기의 견해를 좀 더 조리있게 구체적으로 피력해주었으면 합니다.》

베닝호프는 실눈을 짓고 버쩍 마른 노불의 얼굴을 잠시 마주봤다. 언제나 그 무슨 근심에 잠긴듯한 노불의 얼굴표정을 봐서는 그가 자기의 견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왜 서울정권의 정상자리에 김규식을 올려앉혀야 하며 그 사람을 왜 평양에 보내야 하는가? 그것은 김규식만이 서울정권을 전조선민족의 의사에 의해 수립된 조선의

정부라는 인상을 줄수 있기때문입니다. 김규식이 남조선정계의 중견이라는것은 조선은 물론 주변나라들에서도 대체로 다 알고있습니다. 또 평양에서는 김규식의 협상참가를 대단히 중시하고있는게 확실합니다. 그가 38°선을 넘어서면 북에서는 반드시 귀빈으로 환영도 하고 접대도 잘할것입니다. 이러한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참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서울에 돌아와서 북의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그가 주장한바 있고 지금도 그 견해를 버리지 않은 <유엔의거론>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습니까? 남북협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것으로 될것이며 서울에 서게 될 정부는 조선의 량심인들의 의견을 모은 조선사람들의 정부라는 인상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규식에게 대통령자리를 주는것을 미타하게 생각하거나 과남하게 생각할것은 없습니다. 한때 연해주에서 만들어낸 조선인들의 망명정부인 <조선공화국>의 정상직에 취임한적도 있고 립정부주석이였으며 광복후에는 <민주의원>, <립법의원>을 만들어냈고 <좌우합작>도 주도해온 명성이 높은 정치인이 아닙니까?》

베닝호프는 김규식이든 리승만이든 어차피 미국이 배후조종할건 뻔한데 지금과 같은 때 미국에 유리한 인물을 선택하는것이 좋다고 했다.

《나는 김구도 부대통령쯤 시키겠다고 미끼를 던져서 북에 들여보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베닝호프씨는 김규식이란 사람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제일먼저 언더우드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만일 그 변덕스러운자가 북에 갔다와서 우리에게 유리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소?》

하지는 아무래도 미답지 못한듯 반신반의하는 태도였다.

《그럼 사령관각하는 현 상태에서 김구, 김규식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감옥에 처넣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반미사상은 확고한것으로 될것이구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남북협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세상에 공포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양은 그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이것은 북조선에 전조선을 얻을수 있는 마술열쇠를 섬겨바치는것과 같은것입니다.》

이쯤 말했으면 하지가 서빨리 입을 열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음엔 언더우드에게 얼굴을 돌렸다. 사령관에게 이야기할 때와는 달리 따지듯 모가 난 말투였다.

《천상에 있는 하느님을 섬길 때는 모호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정치란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 한자의 글자를 후환이 없게 따져야 하는것이 정침니다. 김규식을 반대하는 리유는 뭘니까? 지금은 성격이나 감정을 앞세우면서 말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방안이 미국에 유리한가, 이것을 우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언더우드의 얼굴에 가면처럼 덮여있던 성직자의 온후하고 부드러운 표정은 어느새 씻은듯 사라졌다. 모욕당한 불쾌감과 자격지심으로 얼굴은 날카로워졌다.

《나는 어떻게든 반대요!》

《이 자리에서는 어떻든지 말이지 통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논리와 빈틈없는 대책만이 논의의 대상으로 될수 있습니다.》

베닝호프는 담배를 갈아대며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언더우드를 다물아댔다.

《만일 남북협상이 성사돼서 남북에서 그들방식의 선거가 진행되고 평양에 통일정부가 수립되는 경우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생각해봤습니까?》

《미군이 주둔한 남조선에서 어떻게 선거를 한단 말이요?》

하지는 역시 우둔한 사령관이였다.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 궁지에 몰려 이 자리에 모였는가 하는것도 생각해본것 같지 않았다.

《남조선정계에 이름이 알려진 정객들에게는 대체로 우리의 첩자들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십통의 초청장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선거란 형식상 일반 백성들의 의사를 묻는것인데 남조선의 모든 사람에게 첩자를 붙일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는 초청장이 발급되는것과 같은 음폐된 방법으로 진행될것입니다.》

이런 말을 던진 베닝호프는 다시 언더우드에게 얼굴을 돌렸다.

《언더우드씨는 남조선에 축적한 막대한 재산과 기득권을 념두에 두고 자기의 앞날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것 같은데 평양에 조선의 통일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비법이라고 주장해나설 때 언더우드씨의 그 재산과 기득권이 그대로 존재할것 같습니까? 물론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서울정권은 수립될것이구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디고있는 이 땅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입니다. 조선민족이 단합돼서 미국을 반대할 때 어떤 사태가 빚어질것 같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강대한 초대국이라고 해도 만능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명심할것은 조선에서 실패하는 경우 워싱턴은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를 놓고 계산하리라는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래 베닝호프씨는 어떻게 하자는거요?》

번거로운 론쟁은 사변가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있는 하지는 신경이 곤두선 모양이었다.

《우리가 명령을 하달할 때는 작전적목적을 제시할뿐아니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방도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어야 하오. 김규식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납득시키겠는가?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어떤 보조수단을 강구하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작전적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명령하달을 일단 보류해야 하오. 그래 베닝호프씨는 이런 전술적방도까지 생각해봤소?》

《물론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중요하지 않은만큼 사령관각하가 직접 김규식을 만나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베닝호프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지의 얼굴은 희영게 바랬으며 손에 들었던 곰방대를 내동댕이치며 자리에서 뛰여일어났다.

《나는 조선에 파견된 미군사령관이요. 그래 미국의 대표자가 그 변덕쟁이를 이 사령관실에 불러서 구걸을 한단말이요. 나는 못하겠소.》

《사령관실에 부를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합니다. 사령관각하이외에 이 남조선에서 미국을 대표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버치는 사령관각하와 동행해서 김규식박사가 우리의 결심을 믿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하오.》

어수룩해보이던 베닝호프가 두말을 할수 없게 짝어 말했다.

《물론 내가 가야지요. 내 생각이 옳았다는것이 증명된 오늘과 같은 날에 나 이외에 누가 가겠습니까?》

버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의자에서 일어나 발뒤꿈치춤이라도 한바탕 출것 같았다.

《그런데 리승만에게 의거하라는 마샬의 지시는 어떻게 하겠소?》

노블은 역시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물었다.

《장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이지 문제를 실지 집행하고 처리하는 실무가는 아닙니다. 국무부에서는 사리에 밝고 리해력있는 현명한 실무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곧 미국에 가겠습니다. 조선을 담당한 제콕스키는 내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아주 실무에 밝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샬은 조선문제처리에서 리승만의 의견을 중시하라고 했지 서울정부의 대통령자리에 올려았히라고 말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에서 보조를 맞추겠소. 그런데 김구한테는 누가 간다? 사령관은 그 완고한 민족주의자하구 여러차례 싸웠으니 적임자 같지는 않구...》

언더우드는 앵돌아져 오고가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것 같지도 않았다.

《노블씨가 한번 솜씨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김구가 북조선에 <정치공작대>를 침투시킬 때 상종한 일이 있는것 같은데...》

《그럼 내 김구한테 잠깐 들렀다가 삼청장에도 가보겠소. 사실 조선에 김규식만한 정치인이 없는건 사실이요. 내 그 사람의 동향을 2년이상이나 주의깊이 지켜봤는데 정치인으로서 그만큼 처신이 능한 사람은 조선은 물론 주변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것이요.》

노불은 이미 모든것이 결정된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는 자기가 김규식을 찾아갈수밖에 없게 됐다는것을 알았다.

5

마침내 봄이 찾아들었다. 삼청장에도 봄빛이 가득찼다. 봄을 서둘러 맞이한 민들레꽃, 제비꽃, 노랑나리는 해밝고 산뜻한 빛으로 양지에서 웃고 살구나무, 벚나무가지에 다닥다닥 붙은 진분홍봉오리들은 봄빛과 어울려 놀며 꽃으로 피어날 시각을 앞당기려 애쓰고있다.

김규식은 봄을 맞이하는 초목의 열정과 아름다움에 취해 정원에 나가있을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엄혹하고 다난했던 지난 겨울을 생각했다.

그런데 망나니들이 란입하여 꽃이며 나무는 말할것도 없고 마침내 겨울을 이겨낸 기쁨을 안고 애어린 햇순을 움푹우던 풀밭까지 마구 짓밟개고 꺾어던졌다. 김구, 김규식이 평양방문을 결심한 자기들의 소신을 기자들앞에서 발표한 다음날부터 시작된 란동이였다. 무뢰한들의 행동이 평양으로 가는것을 막아보려는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능히 짐작할수 있어 김규식은 생사를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봄을 맞이해

그렇게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약동하던 초목들을 마구 짓밟개는 그들의 무지막지한 짓에 격분하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반공》이니, 《멸공》이니, 《북행은 죽음》이라느니 하고 고아대는 망나니들의 거친 웨침소리를 청각이 예민한 그는 참을수가 없었다. 그래 오늘 아침부터는 귀구멍을 아예 솜으로 틀어막고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이한 정견을 가진 여라문명의 비서들이 그를 에워싸고 목청을 돋구어가며 협상참가문제를 놓고 소란스러운 론쟁이란것을 벌리는것이였다. 정원을 짓밟개는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서든 쫓아버리려고 경찰에 부탁도 하고 미군사령부에 통고도 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사회에서 그들의 애국적소행을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다는것이다. 다만 오늘 아침에 찾아온 버치만이 깡패들의 무지막지한 행동이 김규식과 같은 지성인에게는 지나친것이라고 생각했던지 미군을 동원해서 망나니들을 곧 쫓아버리겠다고 장담을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가 삼청장을 떠난지도 이제는 좋이 서너시간이 되는데 미군이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리성이란것이 용납되지 않는 남조선이란 이 혼란된 사회에서 삼청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례외로 될수 있겠는가. 그는 체념해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를 에워싸고 론쟁이라는것을 벌리는 비서들은 김규식도 어쩔수가 없었다. 스스로 채용한 사람들인데다 김규식을 도와준답시고 왈가왈부하는데 이들을 쫓아버릴수는 없지 않는가. 사람의 몸이란 제한이 있는것이니 이제 고아대다 제풀에 지쳐서 물러나겠거니 했는데 웬걸 그대로 버티고앉아 고아대는데 그 태도가 여간만 완강하지 않았다. 리승만계로 알려진자들은 변소에 가는것도 서로 눈짓을 해가며 교대로 나드는판이다.

《아무래도 난 몸이 견딜수 없을것 같으니 자네들이 론의를 계속해서 상책을 얻거든 알려주게. 난 좀 누워야겠네.》

김규식은 이런 말로 비서라는것들을 객실속에 놓아두고 침실에 올라갔다.

침실에 들어선 그는 원탁에 놓인 전화기에서 송수화기를 들고 김구를 찾았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이, 이제야 하지나 우남(리승만)이 이 백범의 값을 안것 같소. 우리 애들이 대충 머리수를 세보니 천쯤은 된다나... 허, 허... 우사는 언제쯤 떠나겠소?》

《이대로 떠나다간 도중에서 무슨 일을 당할것만 같습니다.》

《난 죽더라도 38°선을 베고 죽겠소. 협상회의는 14일부터라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4자고위회담은 그후에 있겠지. 길이 좀 열리는 기미만 보이면 나는 곧 출발하겠소.》

《출발할 때 내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김규식은 배포가 유하게 웃어넘기는 그의 반석같은 의지가 부러웠다. 프랑스의 심리분석학자와 도이쉴란드의 철학자는 유모아를 놓고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았는데 김구의 말을 들으니 난관과 곤난을 디디고 넘은 사람의 용감한 심리의 표현이 곧 유모아라고 한 심리학자의 말이 옳은것 같다. 도이쉴란드의 철학자는 절망에 빠진자의 허세라고 했다.

정작 침실에 올라온 김규식은 쏘파에 곧은 자세로 앉아 장죽을 물고 현재의 자기 처지를 생각해봤다. 인생말년에 이르러 모험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극한점에 도달한

사람의 모험을 하고있는것 같았다. 하긴 자신의 일생은 시련과 싸우는 모험의 연속이었다고 할수 있었다.

《그때는 젊었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새로운 모험을 할수 있는 정력이 있었구. 그렇지만 이제는 늙었어. 이번에 실패하면 그것이 끝이겠지.》

김규식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불안이 서린 이런 나직한 말을 중얼거렸다.

문득 복도에서 빠른 발자욱소리가 들리는가싶더니 누구인지 침실문을 다급히 두드렸다.

《누군가?》

《명현입니다.》

《왜 그러나?》

《안에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식은 힘겹게 쏘파에서 일어나 나들문의 자물쇠를 돌렸다. 침실에 들어선 윤명현은 김규식의 귀구멍에 솜방울이 들어박혀있다는것을 알고 목청을 돋구어 웨쳤다.

《하지가 오겠습니다.》

《뭐?》

《거 이제는 솜을 빼십시오.》

윤명현이 귀지개로 솜방울을 빼주었다.

《곧 하지가 여기에 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그러던가?》

《전화는 버치가 했는데 옆에서 사령관이 자기의 말을 듣고있다면서 선생님이 지금 삼청장에 계신지 그걸 묻더군요.》

《그러니까 하지가 온단 말이지? 난 소란스럽게 구는 저 무지막지한것들을 쫓아달라구 했는데 행차가 너무 요란스러운것 같지 않나?》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후 삼청장은 말할것 없고 경교장이나 리승만한테 하지가 찾아갔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었다.

《그럼 사령관의 직권으로 나를 억류하겠다는걸가?》

《억류를 하겠으면 장택상이나 림병옥(군정청 경찰부장)을 시키지 자기가 직접 찾아오겠습니까?》

《하긴 그래, 사령관의 직권으로 나를 납득시키자는거겠지.》

《곧 오겠는데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객실에서 떠드는 저 비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게 있나? 그대로 떠들라고 하지. 아무튼 사령관이란 사람을 침실에서 맞이할수는 없으니 내 이제 객실에 내려가겠네. 자네는 진동이 어머니한테 간소한 다과나 준비하라고 이르게. 혹시 말이 길어지면 점심을 같이해야 할지도 모르니 그 준비도 좀 해놓구...》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점심을 먹을게 뭐니까? 젓갈냄새때문에 코를 들수 없구 마늘냄새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조선음식에 일체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인데...》

《됐네. 바로 그런 음식을 조출하게 준비하라고 이르게. 그것도 외교지. 내가 장죽을 그 사람들의 턱밑에 들여대고 연기를 내부는것과 같은 외교란 말일세.》

윤명현은 김순애를 찾아서 하지를 맞이할 이러저런 준비를 시키고 되돌아섰다. 하지는 벌써 객실에 들어와있었다. 그는 옷몸을 잔뜩 제친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자기앞에 옹기중기 서있는 비서들을 에둘러보고있다.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지 모르겠다는 낯색이다. 버치가 사령관의 의혹을 풀어줄양으로 몇마디의 말을 했다.

《김규식박사는 본래 무당파 범민족적단합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있어서 각당각파의 대변자들을 비서명색으로 주위에 두고있습니다.》

《민족적단합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삼았던 말이요?》

하지는 대뜸 낯빛이 날카로와졌다. 사령관실에서 화제에 오른,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 바로 그 조선민족의 단합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삼았다는 말로 들은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의미에서의 단합이 아니라 좌우중간 가리지 않고 편견없이 대해야 한다는 김규식선생의 정견이랄지 립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버치는 이 기회에 김규식이 당리당락을 초월해서 광범한 정계의 지지를 받고있다는것을 알려주고싶은듯 앞에 옹기중기 서있는 비서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저 사람은 리승만, 김성수계의 아무개, 저 사람은 북조선에서 쫓겨온 아무개, 저 사람은 온건한 우익민족주의자계통의 아무개, 이런 식으로 동물의 혈통을 이야기하듯 설명을 해나갔다.

《조선사람은 당신의 그런 말을 듣는것을 좋아하오?》

《각하앞에 서있는 저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학력은 대학졸업이요 뭐요 하고 요란스러운 경력을 갖고있지만 사상가행세를 하느라고 공부도 하지 않고 공부를 했다고 해도 낱아빠진 옥스포드식영어를 배워서 우리 아메리카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각하에게 자기를 유리하게 소개해주는것 같아 내가 손으로 가리킬 때 굵신거리는것을 보십시오.》

《내가 있지 않소.》

의자등받이에 웃몸을 거느시 기대고 장죽을 빨던 김규식이 불쾌한 어조로 한마디 내뱉었다.

《내 비서들이 번번치 못한것은 사실시오만 조선사람을 멸시하는 그런투의 말을 나는 좋아하지 않소.》

버치는 김규식의 나무라는 말을 웃음으로 대할뿐이었다.

《박사선생도 저 사람들을 손쉽게 리용할수 있는 치레거리로 여기면서 뭘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도 경멸을 받는자들과 그들을 멸시할 권한을 소유한 선발된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명백한 구분이 지어져있습니다.》

하지도 수다스럽게 떠들어대는 버치의 말롱간질을 듣고있기가 따분한듯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김규식박사, 나는 박사선생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통고하기 위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으로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제한된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합니다. 나와 김규식박사 그리고 나의 고문인 버치박사

이렇게 세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 비서라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김규식은 하지가 불량배들을 쫓아버리는것 같은 하찮은 문제때문에 삼청장에 오지 않았다는것을 알았다.

《자네들은 잠간 장소를 옮겨야 할것 같네. 너무 조급하게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구 목을 추기면서 쉬엄쉬엄 생각을 가다듬어가지고 논의를 하게.》

비서들은 줄레줄레 객실에서 나갔지만 윤명현은 김규식의 옆에서 움직일념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하지와 버치가 알아들을수 없는 조선말로 윤명현이 김규식에게 이야기했다.

《저 사람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를 안고 온것 같은데 내가 선생님옆에 붙어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도 둘이니 우리쪽에도 두사람이 참가해야 대등한 립장에서 대화를 하는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에 가지 말라는거겠지. 무슨 대단한 이야기거리를 들고 왔겠나... 혹시 말을 듣지 않으면 추방이라도 하겠다고 하겠는지...》

《버치가 잔뜩 들뜬것으로 봐서 그런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자네는 지나치게 과격해질 때가 있으니 자중을 하라구. 자네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리유는 내가 말할테니 자네는 듣기만 하게.》

하지는 방에서 나갈 잡도리가 아닌 윤명현을 비위가 상한 랭혹한 눈길로 쏘아봤다.

《저 사람은 어째서 내 지시에 복종하지 않소?》

《이 사람은 비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한시도 내곁에서 떠나서는 안되는, 조선말로는 수제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할지 적당한 말을 찾을수 없구려.》

여느때는 자기의 손으로 담배를 고블통에 다져넣는 일이 없는 김규식이 이때는 제손으로 담배가루를 다져넣으며 말했다. 그가 영어로 이야기한 수제자란 단어는 대변자, 후계자, 특별보좌관이란 뜻으로 해석할수 있는 낱말로서 김규식은 할말을 이미 다한셈이었다. 김규식은 장죽끝을 하지의 면전에 들이대고 담배연기를 날리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는 불쾌한 얼굴로 담배연기를 피해 자리를 옮겨앉았다. 버치가 운명현으로 해서 랭랭해진 방안의 분위기를 개선해보려고 김규식과 운명현은 오래동안 망명생활을 같이해온 사이라느니, 조선사람들은 생사를 같이한 이런 사람을 자기의 한 부분처럼 여긴다느니, 사령관각하가 비준한 《립법의원》 관선의원중의 한사람이라느니 하며 한참 수다를 떨었다.

《의리관계를 특별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조선사람들의 관례를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규식박사 한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버치의 어느 말이 하지의 마음을 돌려세웠는지 알수 없지만 그는 전투명령이라도 하달하려는것처럼 자세를 바로잡았다.

《남조선 전지역을 통제하는 주권의 모체인 미군사령부는 오늘 김규식박사를 <유엔감시하에 진행된 선거>를 통해 앞으로 수립될 정부의 대통령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내가 남조선주둔군의 최고통치자로 권한을 행사하는한 변동이 없을겁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놀라운 말이어서 김규식도 윤명현도 잠시 어리벙벙해지고말았다. 김규식은 장죽을 빠는것마저 잊고 갠뿔한 모색에 주걱턱인 하지를 한동안 마주보기만 했다. 리성이 그 무슨 판단을 하기전에 참을길 없는 흥분이 가슴속에서 뒤설레며 흥벽을 세팔게 치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간사이였다. 어깨우에 바위처럼 무거운 짐이 실린것처럼 몸을 제대로 놀릴수도 없었다.

(중오에 사무처서 분별을 잃어버린 남조선민중을 내가 다루어낼수 있을까?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를 내가 해결할수 있을까?)

사례의 말 한마디 없이 얼굴을 수긋하고 앉아있는 김규식이 껄뻘한듯 하지는 불쾌한 낫색으로 딱딱하고 랭랭한 뒤말을 이었다.

《박사선생이 이 영예론 자리를 차지하자면.》

《오늘 사령부에서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시간 심중히 논의를 한끝에 최종결정을 지었습니다.》

버치가 갑자기 가운데 끼여들었다. 돌대가리인 사령관이 모처럼 결정을 본 훌륭한 방안을 깨뜨려버릴것 같아 제가 말어나서기로 한것이다.

《군정장관, 국무성과건원, 수석고문, 내부사업책임자... 대통령을 선발한다는것은 보통 중대한 일이 아닌것만큼 여러측면을 고려한 심중한 논의끝에 사령관각하가 방금 전달한 그런 결정을 채택한것입니다.》

버치는 자기 말의 효과를 알아보느라고 김규식을 마주봤다. 하지의 말에 충격을 받은것만은 사실인것 같은데 김규식은 깊은 생각에 잠긴 평시의 표정을 유지하고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것처럼 박사선생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이 명백한 일인데 앞으로 형식적이긴 해도 선거라는 절차가 있는것만큼 이제 와서야 박사선생에게 우리의 결심을 알리기로 한것입니다. 나는 선생이 우리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다 못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규식은 두둑한 량볼에 힘을 주어 장죽을 빨뽀뽀 통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지목해온것은 틀림이 없는 일인데 갑자기 결정을 바꾼것을 보면 그뒤에 아직 알수 없는 음모가 깔려있는것만 같았던것이다.

《아시아의 례범으로는 두번 거절하고 세번만에 수락을 한다는데 박사선생이야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현대인이니 낡은 례범을 따를 생각이야 없겠지요? 반대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것으로 우리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로 삼을것도 없는 일이긴 한데 대통령으로 내정된 이상 앞으로 정부수반에 오를 정치인으로서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논의해봤습니다. 우리는 박사선생을 대통령으로 내정하고 준비를 해왔지만 박사선생에겐 갑작스러운 일이여서 대통령의 사명을 다할 방략을 빠른 시일내에 책정할수 있겠는지 우리는 이것이 근심스럽습니다. 례를 들어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4월 14일부터 평양에서 진행될 남북협상을 어떤 태도로 름하겠는가? 쏘련의 적화정책과 제1선에서 대결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떤 방략, 어떤 결심을 갖고 지금부터 행동하겠는가?》

김규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북의 방문을 막을 생각으로 대통령이란 큼직한 미끼를 던진것이 아닐가? 김규식은 김일성장군님에게 반드시 남북협상에 참가하겠다고 언약한 자기와 김구 공동명의로 보낸 마지막서한을 생각했다.

《우리는 선생이 반드시 평양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해서는 상대의 주장이나 권고에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빛을 보이는 일이 없는 김규식이었지만 이때만은 놀란 기색을 짓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공간을 피우려고 이런 말을 하는가?)

미국인들은 빠져나올 구멍을 찾을수 없는 미궁속에 자기를 던져넣으려는것 같았다. 김규식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려는듯 윤명현이 한마디 했다.

《내가 담배를 담아드릴가요?》

《그만두게. 담배도락이란것은 담배를 피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네. 담배를 고르고 대통에 다져넣는것도 도락이라네. 체면을 생각해서 난 이 도락을 즐기지 않았을뿐이네. 어떤 이들은 담배대, 고불통, 물주리를 고르는것을 도락으로 삼는분들도 있지.》

《그러니까 남들의 힘을 빌리는것보다 제손으로 고르는데 도락의 본도가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도 그것과 비슷한것 같습니다.》

《고마우이. 제정신을 잃지 말라는것인데 이 나이에 공간에 넘어가기야 하겠나?》

이제는 버치와 하지의 말을 이성적판단을 하며 대할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평양에 가야 한다는 박사선생의 말이 옳다는것을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민족단결을 하자는 회의에 가지 않으면 민족단결을 반대하는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통해 서울에 서게 될

정부수반이 그 회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것이 옳겠는가? 평양에서는 틀림없이 남북에서 선거를 진행해서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하겠는데 이런 주장을 박사선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하겠는가? 우선 남조선에서 선거를 진행한다는것은 선전을 위한 공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북조선에서 진행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세우겠는데 그 정부의 수반자리를 누가 차지할것 같습니까? 더구나 그 정부는 소련의 대조선적화방략의 산물이 아닙니까?》

버치는 저혼자만 지나치게 지껄이는것 같았던지 잠깐 입을 다물고 하지를 돌아봤다. 괴팍한 성미여서 여간해서는 남을 칭찬하는 일이 없는 하지가 자못 만족한 모습으로 파이프를 빨고있다. 그는 오늘에 와서야 버치의 외교적수완이며 능란한 말솜씨에 감탄한것 같았다.

《버치박사는 지금까지 나한테 와서 오늘처럼 예도는 일이 없지 않았소? 이전에 찾아왔을 때처럼 터놓고 이야기하구려.》

김규식이 통명스러운 말을 던졌다. 이제는 미군사령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체로 짐작할만 했지만 버치의 마지막말을 들어보자는것이다.

《<유엔>이 지지하는 조선의 중앙정권의 대통령으로 협상에 참가했으니 선생님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구 서울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를 박사선생이 모를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이런 방향에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평양에 가서는 <유엔의 결의>를 따르는것이 조선의 장래를 위해 유리하다는것을 회의참가자들에게 납득시키는것이 제일 좋을건 명백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일체 발언을 하지 않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박사선생을 대해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선생은 평양에 가서 능숙하게 일들을 처리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돌아와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앞으로 본격적인 대결을 해야 할터이니 견결한 태도를 보여야 할것이 아닙니까? 정계란 원래 생사를 겨루는 랭혹한 전투장이라는것을 선생님도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최대의 국제기구인 <유엔>에 의거해야 조선의 장래를 담보받을수 있다는 말도 할수 있고 특히 북의 정치체제를 부인하는데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북에 가보면 선생으로서는 그렇게 말할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있습니다. 저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가 쏘련의 실태를 목격하고 프랑스에 돌아와서 쓴 <쏘련기행>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천거하겠다는것을 무엇으로 담보할수 있습니까? 사령관각하는 미국대통령한테서 이런 담보를 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았습니까?》

윤명현은 김규식이 뭐라고 하기전에 무뚝뚝한 어투로 물었다. 김규식은 자기가 희망하던 대통령자리가 차례질 가능성이 생겼으니 버치와 하지의 요구를 승낙할수도 있을것 같았던것이다.

버치의 능숙한 설복을 만족해하던 하지의 얼굴에 한순간 당황한 빛이 스쳐지났다.

《수일내로 사령관각하의 담보에 찬성하는 회신이 올겁니다.》

버치가 얼른 가운데 끼여들었다.

《나는 버치박사 당신에게 물은것이 아니라 사령관각하에게 물었습니다.》

하지가 불쾌한 낯색으로 무뚝뚝한 대꾸를 뱉아냈다.

《당신은 이 사령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가? 내가 조선의 한 정객을 기만하기 위해 이렇게 당신들을 찾아다닐 사람 같은가?》

하지는 파이프를 쥔 손을 내두르기까지 했지만 윤명현은 조금도 굽어들지 않았다.

《본국에서 사령관각하의 의견을 부정하면 나의 스승을 기만한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내 관할하에 과거의 총독부에 들어앉은 군정청이 속해있소.》

하지는 어성을 높였다.

《나의 관할하에 미국무성 파견원이 속해있구 100여명의 고문이 있소. 정치는 반드시 정보를 중시해야 하는것만큼 그 분야의 권위자도 나와 협조하고있소.》

《우리도 대체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귀국에서 사령관각하의 의견을 부인할 때는 결국 나의 박사선생을 기만한것으로 된다는것은 간단한 논리가 아닙니까. 사령관각하가 본국의 회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삼청장을 찾아온 리유는 알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존경해오고 고락을 같이해온 김규식박사는 그런 투전놀음에 기대를 걸고 수십년간 지켜온 신념과 량심을 함부로 내대는분이 아닙니다.》

윤명현은 김규식에게 조선말로 물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자네로선 그렇게 말하는것이 옳겠지.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격한것 같구만...》

김규식은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대통령의 직책을 허수하게 대하고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런 때는 과격해야 저 사람들에게 양보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정말로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천거할 결심을 했다면 저 사람들의 기분을 좀 상하게 했다고 해서 결정을 취소할것 같습니까?》

《우둔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것은 감정이네. 잘못했다는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리성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지.》

김규식은 대통령의 직책을 수락할 생각인것 같았다.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김규식도 얼마나 생각이 짧은가? 우리 민족이 이때를 놓치면 자주권을 쟁취할 중요한 계기를 잃는다는것을 어찌서 생각하지 못하는가? 윤명현은 김규식이 말하는 바로 그 과격한 행동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미 주둔군사령부에서는 박사선생을 대통령으로 천거하기로 결정했다니 우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줬으면 합니다.》

《윤명현씨가 요구하는 그 대우란 어떤것입니까?》

버치는 분위기를 흐리게 하지 않을양으로 웃음지은 얼굴로 물었다.

《저 삼청장에 란입한 무뢰한들때문에 선생은 어제밤에도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저 망나니들을 내쫓아주시오.》

《사령부는 저따위 불량배들을 쫓아버리는 일에 개입하지 않소.》

하지는 성이 나서 뇌까렸다.

《저 무지막지한 망나니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박사선생의 복의 방문이 더욱 극적인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삼청장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수십명의 기자들이 자리싸움을 하느라고 야단이였습니다.

파출소지붕에 올라가 붙어있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대통령은 일본의 진주만공격을 극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주만의 군함을 희생시키는것도 서슴지 않았습시다.》

버치도 하지도 망나니들을 삼청장에 뒤들 심산인것 같았다. 평양으로 훌쩍 떠나버릴가봐 겁이 나는 모양이다. 윤명현은 더욱 중요한 다음 문제를 위해 더 싸우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박사선생을 38°선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갈수 있게 해주는것입니다. 사령부에서 대통령으로 천거한 박사선생이 테로라도 당하면 큰일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한 경찰력이 박사선생을 경호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사선생이 20일이 지나서 서울을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명쯤은 모이는 회의를 준비하고있는것 같은데 이런 회의장에서 박사선생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발언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박사선생이 평양에 들어가면 별도로 좌담회라든가 작은 범위의 회담이라든가 아무튼 그 어떤 형식의 회합을 마련할겁니다. 박사선생에겐 이런 자리가 더 편리할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윤명현은 미군사령부에서 얼마나 치밀한 음모를 꾸몄는지 알수 있었다. 분격이 혈관을 지지며 온몸을 줄달음쳤다. 그러나 수제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끼여든 그로서는 분격을 폭발시킬수가 없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무서운 함정을 파놓고 선생을 그속에 밀어넣을 음모인것 같습니다.》

윤명현은 대통령이란 미끼에 김규식이 걸려들것 같아 겁이 났다.

《걱정말게. 내가 정치란것을 모르는 사람 같은가?》

윤명현에게 얼마간 짜증이 섞인 말을 던진 김규식은 하지가 취한 그 비슷한 자세를 취하느라고 웃음을 일으켜세우며 장죽을 옆탁에 놓았다.

《나를 대통령으로 천거해주겠다니 나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과남한 일인줄 압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앞날의 일인즉 두고봐야 할 일인줄 압니다. 내가 평양에 가겠다는것은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는것도 아니고 또 그 누구의 말에 동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눈으로 북의 현실을 보고 지금까지 평양측과 서찰을 통해 주고받은바 내용이 정말로 북의 정책인지 소련의 적화정책인지 내 스스로가 확인하자는것입니다. 사령관각하와 버치박사의 말을 충분히 고려할터이니 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줄 압니다.》

김규식의 이 말은 사실이였다. 만일 서신에 언급되어있는 북의 정책이 사실이라면 야심가형의 독재광인 민족반역자 리승만을 밀어제치고 자기가 남조선정권의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평양과 연계할수 있는 길을 찾고싶었다.

김구는 경교장을 에워싼 폭력단의 눈을 속이느라 집안에서 신던 끌신을 신은 그대로 뒤문으로 빠져나가 대기시켜놓았던 승용차를 타고 평양방문을 단행했다. 노불의 권고따위는 처음부터 귀담아듣지도 않았다. 그는 떠나기전에 김규식한테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을 전화를 통해 듣고 《나는 떠나겠소. 뒤따라오리라고 믿소.》 한마디를 내뱉고 송수화기를 내려뒀다. 그가 은밀하게 조직해놓은 20명의 대표들과

수원들이 도중에서 그와 합세했다. 그는 자기의 전용차 서울2253번 비크38년형을 타고 미군헌병들이 어리벙벙해있는 사이에 38°선을 넘어 기다리고있던 우리측의 안내를 받아 곧장 평양으로 향했다. 그가 서울을 출발했다는 대변인의 성명이 전해지자 그의 영향하에 있던 정당단체대표, 수원 80명이 13대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나누어타고 곧 그의 뒤를 따랐다.

김구가 서울을 출발했다는 소식은 김규식을 한자리에 앉아있을수 없을만큼 초조하게 만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김구, 김규식 런명으로 된 편지를 보내주시군 하여 협상과 관련해서 언제나 공동보조를 취해온터인데 이제 자기가 서울에 남아있으면 세상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볼것인가? 사실 김구의 출발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남조선전역의 민심을 뒤흔든 신문들은 김규식의 동향에 날카로운 주목을 돌리면서 그의 출발을 촉구해나섰다. 이즈음 삼청장에서 매일 진행되는 민족자주련맹 정치위원들의 모임에서도 리극로는 로골적으로 김규식에게 본심을 밝히라고 들이댔다.

하루는 깡패들이 둘러싸고있는 삼청장에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가깝게 지내는 서상문목사가 찾아왔다. 김규식이 조선을 떠날 때 새안문교회의 목사직을 물려준 사람이었으며 광복후 서울에 돌아와서는 상종이 많은 량심적인 그리스도교인이었다.

그는 근심에 잠긴 선량해보이는 큰눈으로 김규식을 마주보며 물었다.

《선생님은 떠나지 않으십니까?》

《보다싶이 앞길을 막아서 이러구 있습니다. 곧 떠날 예정입니다.》

김규식은 길쭉한 목사의 얼굴을 마주보며 앉았느라니 부지중 량심이 가책되였다. 때문지 않은 서상문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 어지러워진것 같았다.

《내 서목사님 아드님 행방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보겠습니다.》

서상문이 일제시기 감옥살이를 하고있을 때 종교계에 들어서는데를 반대해오던 아들이 북조선의 산중으로 들어갔다는데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행방을 알수 없었다. 들려오는 소문에는 쏘련군에게 억류되어 씨비리에 끌려갔다고도 하고 처형을 당했다고도 하는데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목사의 아들을 그대로 두었을것 같지는 않았다. 서상문을 만날 때면 그 아들의 운명을 놓고 쏘련의 종교정책이 이야기되곤 했다.

서상문이 불량배들속을 뚫고 찾아온것은 바로 아들의 행방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것으로 김규식은 생각했다.

《그 일로 찾아온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북으로 가시는데 미미한 성의나마 보이고싶어 모금을 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서상문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뭉치를 꺼내놓았다.

《선생님은 구차한 걸음을 하지 않겠지만 대표와 수원들이 따라야 할것이니 아무래도 로자가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약소하지만 교인들의 성의이니 받아주십시오.》

김규식은 민심의 흐름에 가슴이 옥죄이는것 같은 압력을 느꼈다. 회계를 불러 서상문이 가져온 돈을 이번길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게 하라고 했다.

그에게 출발을 촉구하는 사람은 서상문만이 아니었다. 자동차를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대표와 수원들이 평양에 갈 때 씨달라며 와이샤쯔, 내의, 넥타이, 양말들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과일상점에서는 사과, 배, 꽃감을 수십구럭이나 보내오기도

했다. 민심을 얻자면 한시바삐 서울을 출발해야만 했다. 김규식은 하지에게 더는 서울출발을 지체할수 없다는 전화를 벌써 몇번이나 걸었다.

제 7 장

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남북련석회의가 개최될 4월 19일을 앞두고 회의장을 돌아보려고 모란봉극장으로 향하시였다. 아득히 높은 화강암 돌계단을 휘우듬히 에돌아 올라가는 승용차에 앉아 차창을 거쳐 극장을 바라보는 그의 심중은 저으기 흥분되시였다. 흰도리기둥에 떠받들려 명상에 잠긴듯한 4월의 봄하늘에 날아오를것 같은 아름답고 수려한 극장, 그것은 민주조선의 양양된 기상을 그대로 체현한 모습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광복된지 불과 3년도 안되는 짧은 사이에 우리의 기술, 우리의 로력으로 저렇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극장을 모란봉중턱에 덩실하게 일떠세웠다.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어디에서 진행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분분할 때 그이께서는 모란봉극장을 선택하시였다. 유서깊은 청류벽밀을 맑고 푸른 대동강이 감돌아흐르고 단군이래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고도의 절승 모란봉중턱에 극장이

자리잡고있는것도 회의장으로 선택된 중요한 리유의 하나였지만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란봉극장이 새 조선의 건국기상을 체현하고있다는 점을 중시하시였다.

극장정문에서 남북련석회의조직준비위원회 서기장 허정숙이 장군님일행을 맞이했다. 그이께서는 허정숙의 안내를 받으며 극장안으로 들어서시였다. 눈이 번쩍 뜨이게 회의장은 밝고 정갈하고 현란했다. 천정에서는 무리등이 4월의 봄빛과 같은 눈부신 빛발을 내리쏟고 의자에 씌운 백설처럼 흰 카바들은 력사적인 련석회의를 벌써부터 경축하는듯 현란하게 불빛을 반사하고있었다. 밝고 정갈한것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구미에 맞게 회의장이 꾸려진것이 우선 그이의 마음에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장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남조선대표들의 좌석을 주의깊이 돌아보시였다.

《의자에 어느 당대표 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서 붙이는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안내하는 동무들이 있겠지만 이름을 써서 붙여놓으면 대표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 높여주게 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회의장앞으로 나가 주석단배경을 이윽히 바라보시였다. 푸른빛을 바탕으로 한 배경한가운데 눈부시게 수려한 3천리강산이 부각되여있었다. 금시에 물바래를 날리며 파도가 출렁일것같은 해맑은 푸른바탕, 그 가운데 떠있는 조선의 녀을 지닌듯한 정갈한 흰빛의 조국의 모습, 분렬되지 않은 조국, 백두성산으로부터 한지맥으로 련련히 뻗어내린 3천리강산... 이번의 민족대화합회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분렬되지 않은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거기에까지 이르자면 아직도 복잡한 수많은 문제가 놓여있었으며 멀고도 다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

《주석단배경이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김책을 돌아보며 물으시었다.

《우리 나라가 량단될수 없는 하나의 강토라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배경입니다. 회의참가자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북돋아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남북협상을 도저히 성사시킬수 없는 공론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협상개최가 눈앞에 박두해오자 갑자기 련석회의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장은 평양에서 그중 력사가 오랜 극장이여야 한다느니, 회의는 시내 중심에 자리잡은 큰 극장에서 진행해야 한다느니 하는 분분한 의견이 오갔다. 주석단배경을 두고도 어떻게나 소란스럽게 많은 말을 하는지 조직준비위원회에서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치회의의 성격에 맞게 붉은기를 걸어야 한다, 조선의 절경인 금강산을 그려놓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을 내려먹이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무것도 장치하지 않는것이 좋다... 조직준비위원회에서 주석단배경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것을 료해한 장군님께서서는 허정숙을 불러 제기된 견해들을 알아보시었다.

《주의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이요? 이번 회의만큼 우리의 주장이 명백하고 또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해야 할 회의는 없소.》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지도를 선명하게 그려붙이면 회의정신에 부합되는 배경이 될수 있다고 하시었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있는 김책은 주석단배경과 같은 그닥지 않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련석회의를 오늘에 이르게 하신 장군님의 로고를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주석단에 올라가 좌석을 돌아보다 앞탁에 놓여있는 명패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었다. 좌익에서는 허헌, 백남운을 비롯한 몇명, 중간파에서는 홍명희, 리극로,

리용... 우익에서는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동오... 항간에서 조선의 7대명인이니 10대명인이니 하는 명성높은 명사들이 거의 모두 이 단상에 앉게 되어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하신 안색으로 극장을 나서시는데 언제왔는지 문밖에서 당에서 부부장사업을 하는 일군이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고 근심이 낀 심상치 않은 기색으로 서성거리고있었다. 극장에까지 뒤따라 온것을 보면 여간만 다급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요?》

장군님께서서는 부부장이 가까이 다가가며 물으시였다.

《부위원장동지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긴급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예견되어있는대로 북조선대표들의 숙소를 찾아보려고 승용차가 가까이 가시던 그이께서는 부부장의 초조하고 심상치 않은 기색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걸음을 멈추시였다. 서울에서 들어온 긴급소식이라면 련석회의와 관련된 문제일것이다. 긴장한 낫빛으로 부부장의 말을 듣고있던 김책이 장군님을 기다리게 하는것이 죄송스러운듯 그이앞으로 왔다.

《련석회의를 파괴하기 위한 미국놈들의 책동이 악랄해지는것 같습니다. 간단히 끝날 보고가 아닌것 같은데 후에 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의 바쁘신 시간을 지체시키는것 같아서 하는 말이였다.

《부부장이 여기까지 찾아온걸 보면 보통 급한 일이 아닌것 같은데 서울에서 누가 들어왔다고 하오?》

《마동삼동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장군님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한답니다.》

《난 오후에 대표들의 숙소를 돌아볼 생각이었소. 급한 일인것 같은데 저녁까지 기다릴것 없이 여기에서 들읍시다.》

그이께서는 발길을 돌려 극장안으로 다시 들어가시였다. 허정숙의 안내를 받으며 귀빈실에 들어간 그이께서는 방가운데 서서 부부장에게 물으시였다.

《무슨 문제요?》

부부장은 침착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서울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말씀드렸다. 김구의 저택인 경교장과 김규식의 숙소인 삼청장을 각각 천여명의 반동깡패들이 철통같이 봉쇄하고있다, 한국독립당계와 민족자주련맹계의 정당 단체 대표와 수원, 기자들 근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김구, 김규식의 출발을 기다리고있다, 뜻밖에도 하지가 김규식을 찾아갔다, 하지는 련석회의가 끝난후에 김규식이 서울을 출발하면 그의 안전을 담보해줄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성시백동무는 하지와 김규식사이에 그 어떤 중대한 문제가 논의됐을수 있다고 보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는중이라고 합니다.》

하긴 그럴것이다. 사령관이 김규식의 안전을 담보해주겠다는 말을 하려고 일부러 삼청장을 찾지는 않았을것이다. 장군님의 마음속에서 회의장을 돌아볼 때의 흥분, 만족감은 어느새 사위여버렸다. 김규식과 하지사이에 어떤 문제가 논의됐을것인가? 그이께서는 잠시 귀빈실을 오가시다 발에 밟히는 한줄기 해빛이 너무나 밝고 눈부시여 문득 눈길을 드시였다. 창문에서 4월의 찬연한 해빛이 비쳐들고있었다. 방금 회의장을 돌아볼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마음속에도 봄빛이 가득한듯싶으시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봄빛에 관심을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도 크나큰 정력을 바쳐 마침내 개최를

눈앞에 둔 런석회의가 또 미국놈들한테 룡락을 당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니 장군님께서서는 분격을 삭이기 어려우시였다.

《성시백동무는 김구, 김규식선생들의 입북결심을 어떻게 보고있다고 하오?》

《하루이틀 시간이 늦어질수 있지만 김구선생의 입북결심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김규식선생도 일단 의사표시가 있었으니 입북할것으로 생각되지만 하지와의 밀담후에 태도를 달리하지 않겠는지 그것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리극로선생이 삼청장을 나들면서 김규식선생의 출발을 촉구하고있다고 합니다.》

김규식을 민족자주련맹위원장으로 내세우는데 한몫을 한 책임감으로 해서 리극로는 끈질긴 설복을 들이대고있을것이다. 원래 베를린종합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학자이면서 조국에 귀국하여 민족어를 고수하기 위해 조선말규범을 만들고 대사전을 편찬하는 간고한 언어학자의 길을 택한 애국자, 완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알려진 그의 노력도 별로 효험을 보지 못하고있다면 김규식이 미국놈들의 룡간질에 단단히 걸려든 모양이였다.

리극로와 쌍벽을 이루고 남조선중간계에서 활동하는 홍명희는 김구일행과 평양에 들어올 차비를 하고있다고 한다.

봄빛이 비쳐들어오는 창문가에 서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몸을 돌리며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김규식선생의 입북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가 선생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신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동삼동무가 빨리 서울에 나갈수 있게 모든 편의를 다 보장해주시오.》

부부장이 귀빈실에서 나가자 김책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이미 대부분의 대표들이 평양에 와있는 조건에서 회의개최날자를 더이상 연기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회의는 더 연기하지 못합니다. 대표들에게 이미 닷새동안 회의를 연기한다고 공포했는데 이제 또 연기하면 남북협상이 미국놈들한테 풍락당하는것으로 됩니다. 회의는 회의대로 해야 합니다.》

원래 회의개최날자는 4월 14일로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그날까지 남조선의 우익진영과 그들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중관계 대표들이 미제침략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해서 38°선을 넘지 못해 회의를 5일간 미루기로 했다. 그사이 남조선대표들이 만남을 무릅쓰고 적지 않게 평양에 도착하여 김구, 김규식계와 홍명희, 리극로일행이 평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회의사이에 진행하기로 한 참관과 관람날자를 연기합시다.》

회의사이란 본회의, 지도자협의회, 고위급회담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회의기간을 10여일, 한 보름쯤 잡자는것입니다. 이만한 기간이면 미국놈들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해도 김구, 김규식선생들은 말할것 없고 협상에 참가하고싶은 남조선사람들이 모두 평양에 들어올수 있을겁니다.》

김책은 빙그레 웃었다.

련석회의준비위원회에서는 회의들을 진행하는 기간에 남조선대표들이 장군님의 시책을 알수 있게 공장, 기업소, 농촌, 문화시설 등을 참관하게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참관대상이 너무 많아 어느것을 빼고 어느것을 넣어야겠는지 가리기 어려워 논의를 거듭하고있었다. 회의기간이 길어지면 참관대상을 줄일 필요도 없고 회의어간에 참관과 견학, 공연관람을 적당하게 끼워넣으면 대표들이 련일 회의를 하느라고 피곤해하지도 않을것이며 건국기상이 끊어번지는 북조선의 현실과도 더욱 친숙해질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민족대화합을 위한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유익할것 같습니다.》

김책이 만족한 기색으로 말씀드렸다.

《허정숙동무에게 좌석정리를 좀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석단좌석이 비어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것 같구 일반대표석도 적잖게 빈자리가 생기겠는데 자리를 치워놓았다가 대표들이 도착한 다음에 의자를 들여놓게 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귀빈실을 나서시려고 할 때 김책이 말씀드렸다. 빈자리들이 있으면 회의장이 영성해보일것 같았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김책의 견해를 단호히 부인하시였다.

《빈자리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련석회의에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 제날자에 평양에 오지 못하는것은 미국놈들때문인데 무엇때문에 빈자리를 없애겠습니까? 미국놈들은 민족대화합을 이렇게 방해하고있다,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 사업은 미국놈들과의 첨예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할수 있는 대업이다, 련석회의도 미국놈과의 첨예한 싸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오늘의 복잡한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빈자리를 무엇때문에 없애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주먹을 틀어쥐며 준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빈자리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김책은 미제와의 격전속에서 남북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하고 엄숙한 심정에 휩싸였다.

《문제는 평양에 온지 벌써 한주일이나 되는 대표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내 생각엔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그대로 알려주는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북조선대표들을 찾아볼테니 김책동무는 남조선대표들을 방문하시오.》

귀빈실을 나선 장군님께서서는 허정숙의 안내를 받으며 농민대표들이 들어있는 려관으로 향하시였다. 농번기에 들어선 때에 농민들이 20여일이나 평양에 올라와있으면 농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지 걱정되시였던것이다. 농민대표들이 들어있는 려관은 담장너머로 거무칙칙한 기와지붕이 보이는 조출한 단층집이였다.

고려호텔, 해방호텔, 동양려관과 같이 설비가 비교적 좋은 려관들은 남조선대표들과 기자들에게 배정되여있어 북조선대표들은 학교기숙사가 아니면 그닥지 않은 려관들에 들어있었다.

한발 먼저 려관에 들어갔던 허정숙이 널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밖으로 나와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김정숙녀사께서 나오셔서 농민대표들과 담화를 하고계십니다. 녀사께서도 농사가 걱정되여 나오신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의 세심한 활동에 장군님께서도 자못 감탄하실 때가 한두번이 아니시였다. 남북협상을 앞둔 요즘도 그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남조선대표들이 들어있는 숙소를 찾아다니며 민주주의 새 사회가 눈부신 속도로 건설되고있는 북조선의 현실이며 광복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북조선여성들의 처지를 해설해주면서 대표들이 애로를 느끼고있는 미세한 점까지 찾아내여 해결해주곤 하시였다. 그의 한 실례가 38°선을 넘느라고 옷주제가 말이 아닌 남조선대표들에게 20여벌이나 새옷을 지어주신것이였다.

장군님께서 대문안에 들어가시자 김정숙동지의 두리에 모여 이야기를 듣고있던 농민들이 희열에 넘쳐 만세를 웨치며 그이앞으로 달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잔잔한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토방밑에 서계시였다. 그이옆에 김성란이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어서 장군님앞으로 나서라고 성란의 등을 떠밀고계시였다. 그러나 성란은 김정숙동지와 함께 장군님을 뵈고싶은듯 그이의 손을 붙잡고 뭐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이다. 장군님께서는 만세를 웨치고 깊은 절을 드리는 농민대표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토방밑을 뜨시려고 하지 않자 김성란은 급한 걸음으로 장군님 가까이에 달려와 사람들을 헤집고 대표들의 앞에 나서서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김성란동무도 왔구만.》

장군님께서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끝내고 얼굴을 드는 성란에게 손을 내미시였다. 성란이는 장군님의 손을 모두어 잡았다.

《부모님들은 다 건강합니까? 아이들도 잘 있구?》

《네. 잘 있습니다.》

《그 학봉리의 최로인은 어떻게 지냅니까?》

《로인님은 군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됐습니다. 최성근동무가 평양에 올라와서 열병식훈련을 한다는 말을 듣고 로인님도 아들이 장군님앞을 지나는것을 보겠다고 날자를 저에게 알려달라구 부탁을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번 협상기간에 자주독립국가의 초석인 정규화된 우리의 무장력의 위력을 보여줄셈으로 열병식을 준비하고계시였다.

《우리가 온것도 그 날자때문입니다. 우리가 오기전에 회의개최가 연기되어 농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지 논의를 한것 같은데 대표동무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회의는 래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회의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질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놈들의 방해가 심해서 일부 남조선대표들이 제 날자에 평양에 도착할수 없을것 같기때문입니다.》

김구, 김규식을 평양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경고장과 삼청장을 1 000여명이나 되는 반동깡패들이 에워싸고있으며 미국놈들은 그들의 만행을 배후에서 조종하고있다고 장군님께서서는 마당에 가득찬 농민대표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시였다. 대표들은 분격을 참을길이 없어 일시에 웅성거렸다. 몸은 체소하지만 손은 너가래만큼 큼직한 한 농민이 번뜩이는 눈길로 장군님을 우러러보며 담찬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김정숙녀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협상인지 알고있습니다. 한달이라도 우리는 평양에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올 때 농사걱정은 말구 회의를 잘하고 오라고 동네사람들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대표들은 모두 모범농민들이구 핵심들인데 농사에 지장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영향이 있을것 같으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성란이 손을 광목치마에 문대기며 쭈뼛거리다 한발자욱 앞에 나서서 장군님께 아뢰었다.

《올해농사에 지장을 받지 않을수 있는 대책을 김정숙녀사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놈들과 싸우는 심정으로 남조선대표들을 기다리고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소홀히 할수도 없다, 자주독립국가를 세우자면 무엇보다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이런 전화를 대표를 파견한 군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도 깊이있게 농사걱정을 하고있을줄은 장군님께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일이였다. 그이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만면에 띄우시였다.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군에서는 미국놈들과 싸우는 심정으로 알곡증산을 위해 떨쳐나설겁니다. 전화를 누가 하기로 했습니다까? 김성란동무가 하기로 했습니다까?》

김성란은 불깃해진 얼굴을 숙였다.

《제가 그런 전화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제원아주머니가 전화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김정숙녀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제원이라면 들에서 호미질을 하는 농촌아낙네로부터 시작해서 인민학교 아이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그의 이름으로 전화를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농민대표들의 숙소에 나와 요긴한 대책을 다 세워놓은 뒤이니 이 려관에서 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장군님께서서는 생각하시였다.

려관을 떠나기전에 그이께서는 김성란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 나직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군위원장이 어떻게 돼서 농민대표로 올라왔소?》

《저는 본래 농사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군인민위원장이 아니요? 남북협상과 같은 중요한 회의에서 오해를 받을수 있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협상회의에 참가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동무이긴 하지만 길을 헛갈린것 같습니다. 이 려관에 있지 말구 녀맹대표들이 든 려관으로 옮기시오. 숙소를 옮긴 다음 남조선녀맹위원장을 만나시오.》

《김정숙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숙소를 녀맹대표들이 든 려관에 옮기고 오늘중으로 남조선녀맹위원장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김정숙동지께서 이 려관에 오신것은 농번기에 들어선 때에 오래동안 평양에 올라와있게 된 농민대표들을 두고 근심을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때문이기도 했지만 남조선에서 들어온 류영준이 녀성해방의 혜택을 입은 북조선의 전형적녀성을 만나볼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은때문이기도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성란이야말로 류영준이 만나고싶어하는 그런 녀성이라고 생각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미 류영준을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신 뒤였다.

류영준은 저혼자 38°선의 험한 길을 넘었다. 이렇게 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성시백의 처남인 민병홍이 서장자리를 타고 앉아있는 종로경찰서에 남조선민전관계자들이 체포되어 류치장살이를 하고있었다. 미국놈들이 민전을

해산시키면서 간부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철창속으로 끌어갔던 것이다. 허헌은 북에 들어오기전에 성시백을 만나 그 민전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석방될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제일 먼저 꼽은 이름이 리병남, 류영준이었다. 리병남도 민전상무위원이며 량심적인 과학자, 의학자들의 사회조직의 위원장,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종로경찰서에 수감되어 말할수 없는 고초를 겪고있었다. 민병홍은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면서 류치장이 차넘치자 학술단체에서 말이나 몇마디 하고 어머니배속에서 나오는 아이를 받아준 녀의사같은것을 류치장에 처넣었다면서 그러루한 사람들을 몇명 경찰서밖으로 내쫓게 했다.

리병남, 류영준은 경찰서문을 나서자 그 길로 북으로 향했다. 리병남은 서울시내를 벗어나자 농사군의 옷차림에 짚신을 신고 북을 향해 떠났으며 류영준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만나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택시에 무작정 올라앉아 몸에 붙어있는 가락지, 시계같은것을 내주며 자기는 류영준이란 산파인데 경찰의 추격을 피할수 있게 38°선가까이까지 실어다달라고 부탁했다. 운전수도 그가 쌀과 미역을 들고다니며 가난한 집 아이들을 받아준다는것을 알고있어 가락지, 시계 같은것을 받지도 않고 38°선부근까지 실어다 주었다. 이때부터 그는 허름한 촌아낙네의 옷차림을 하고 걷기 시작했다. 불과 두어키로메터의 38°선지대를 이틀이나 걸려서 넘었다. 리병남은 산악지대를 리용하느라 짚신을 2켈레나 판내고는 내의를 찢어서 발에 감고 북조선땅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허기를 이겨내지 못해 산중 오솔길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를 농민들이 달구지에 실어다 군인민병원에 입원시켰다. 의식을 차린 리병남은 북조선보건련맹위원장 리호림에게 전화연계를 맺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까지 만난적은 없지만 의학계의 권위자들이어서 서로 이름은 알고있었던것이다. 리호림위원장은 리병남이 산중에 쓰러진 경위를 듣고 곧 그를 평양으로 후송해오게 했다. 그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류영준은 다행이 병을 얻지 않아서 해방호텔에서 휴식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려관대문을 나서시는데 왈랑절랑거리는 소방울소리와 함께 소를 몰아대는 숨찬 목소리가 들렸다.

《힘을 써라! 이놈의 소새끼, 힘을 쓰라는데두!》

달구지바퀴소리가 갑자기 빨라지는것으로 보아 소영텅이에 회초리를 안긴 모양이었다.

자동차에 오르려던 장군님께서는 너무나 괴이한 광경에 잠시 걸음을 멈추시였다. 양복차림에 와이샤쯔를 입고 넥타이까지 맨 김제원이 소잔등에 연신 회초리를 안기며 다급한 걸음으로 달려오고있었다.

김제원은 장군님앞에 오더니 얼굴에 맺힌 땀발을 손등으로 훔치며 꾸벅 절을 했다. 장군님께서 김제원이 차려입은 양복을 웃음어린 시선으로 내리훑고나서 물으시였다.

《저 달구지엔 뭘 실었소?》

《전 평양에 와서야 이번 회의가 보통회의가 아니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회의를 하는데 빈손으로 올라왔으니 이게 어디 주인구실을 하는겁니까? 그래 나무리벌쌀맛을 보이려고 재령에 내려갔다오는 길입니다.》

김제원은 말을 끝내고는 이번에는 양복소매로 얼굴의 땀을 뺌 문대졌다.

《그 양복도 이번에 내려가서 새로 지어입은거요?》

양복에 넥타이를 댄뿐아니라 양말에 가죽구두까지 신은 김제원의 모습을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지은 안색으로 다시 한번 여겨보며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서둘러 지어서 그런지 제가 양복을 입을줄 몰라서 그런지...》

김제원은 혼술이 벌써 터져서 실밥이 보이는 어깨노리며 넙적다리끼를 가리우기라도 할 것처럼 커다란 손을 가져가며 어쭙은 기색으로 말씀드렸다. 여러군데 혼술이 터진 양복을 입고있는것을 보기가 민망해 장군님께서 물으시는것으로 생각했던것이다.

《무엇때문에 갑자기 양복을 입을 생각을 했소?》

《서울에서 큰 정치가선생들이 들어온다는데 바지저고리를 입고 회의에 참가해서는 북조선대표의 체면이 설것 같지 않아서...》

장군님께서서는 김제원의 말을 통해 남북연석회의에 대한 북조선인민들의 커다란 기대를 감수할수 있으시였다. 이것이 어찌 북조선에 한한 일이겠는가?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남북연석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있을것이며 통일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수립되기를 열망하고있을것이다. 일시 사위였던 가슴뿌듯한 흥분과 감동이 그의 심중에 되살아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제원에게 말씀하시였다.

《김제원동무가 쌀을 신고 올라온것은 잘한 일이요. 그러나 양복을 입을 생각을 한것은 이번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몰라서 잘못 생각을 한것 같소.》

김제원동무는 농민대표라고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였다.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구두까지 신고 회의에 참가하면 김제원동무를 어떻게 성실한 농사군으로 보겠소?》

김제원은 자기의 실책을 깨닫고 머리를 숙였다.

《그래 김제원동무는 어떻게 하겠소? 래일부터 회의가 시작되겠는데 집에 내려갔다가 올 시간은 없을거구...》

《장군님을 모시고 인민회의를 할 때 입었던 옷을 가져왔습니다. 남조선대표들이 참가하지 않는 회의에는 그 옷을 입고 참가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면 되오.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호방하게 웃으며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김제원이 가져온 지원물자를 남조선대표들에게 맛보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허정숙에게 말씀하시였다.

《애국미헌납운동의 발기자인 김제원농민이 남조선대표들을 위해 달구지에 신고 온것이라고 하시오! 북조선의 농민대표들은 바쁜 농사철인데도 미제와 싸우는 심정으로 남조선대표들이 모두 평양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는것도 말해주는것이 좋겠소.》

장군님께서서는 밝은 웃음이 어린 안색으로 려관을 떠나시였다.

2

학교에서 돌아오던 학생들, 길가던 행인들, 지어 전차를 타고가던 승객들까지 승용차와 버스 혹은 걸어서 회의장으로 가는 련석회의대표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모란봉극장앞은 남북련석회의를 경축하는 희열의 바다, 열광의 바다가 펼쳐졌다.

어깨를 들썩거리며 북, 팽과리, 징을 두드려대는 사나이들, 장고를 두드리는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아 춤을 추는 녀인들, 새납과 나팔을 불이 터지게 불어대는 청년들...

련석회의에 참가할 대표들이 높은 돌계단을 올라오면 어린 학생아이들이 달려나가 꽃다발을 안겨주고 청년들은 꽃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다. 감동된 남조선대표가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청년들이 달려들어 목마를 태워가지고 극장앞마당을 맴돌았다. 대표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두손을 높이 들고 웨쳤다.

《남북협상 만세!》

《통일정부수립 만세!》

한민족이 가슴을 맞대면 이렇게도 눈물겹고 뜨거운 정이 오고가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가. 38°선때문이다! 미국놈들때문이다! 모란봉극장현관앞에 선 수많은 남조선대표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내두르면서 웨쳤다.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미국놈을 내쫓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에 호응하는 만세소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맹세의 웨침...

4월 19일 오후 6시 남북조선 정당, 단체 지도자들이 등단한 주석단 한가운데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는 드디어 막을 올렸다.

김책은 북조선로동당대표로 회의장 맨 앞에 앉아있었다. 대표들가운데 제일 년세가 많은 김월송로인의 개회사에 이어 의제가 채택되었다. 장군님께서 남조선정당, 단체 지도자들에게 보낸 초청장에 쓰여있던 바로 그 의안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밝은 안색을 짓고계셨지만 남조선대표석에 시선을 던질 때면 그이의 눈에 한순간 그늘이 비끼는것을 김책은 곧 감촉했다. 김월송로인이 개회사를 하면서

장내에 빈자리가 있는것은 남북협상을 파괴하기 위한 미제와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못한 대표들의 좌석이라는것을 알려줬지만 그런 몇마디의 말로 그이의 아픈 마음을 가라앉힐수는 없을것이였다. 빈자리를 그대로 둔채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는것은 그이의 의사였지만 그 무슨 메꿀수 없는 허공처럼 보이는 그 빈자리를 내려다보는 장군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는가. 협상을 위해 바쳐온 그 엄청난 노력이 회억되기도 할것이며 앞으로 바쳐야 할 로고를 생각하시기도 할것이다. 어쨌든 그이께서는 어깨우에 엄청난 중하를 느끼고계실것이다. 김책은 장군님께서 느끼시는 그 중하가 자신의 어깨에도 얹히는듯싶었으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숨쉬기가 어려웠다.

북조선방방곡곡에서 보내온 축문축전이 우리와 같은 박수속에 전달될 때였다. 밖에서 서기부 서기장 허정숙한테 한통의 문건이 들어오더니 곧 장군님께 전달되였다. 첫장을 들치고 건뚝 문건을 내려훔은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인가 묻고싶은 눈길로 측막이 드리워있는 무대옆을 돌아보시였다.

중요한 문건이 장군님께 전달되였다는것을 김책은 직감했다. 김책은 발자욱소리를 죽이고 복도에 나가 문건을 들여보낸 사람을 찾았다. 휴계실에 들어가는 부부장의 뒤모습이 보여 김책은 뒤따라 휴계실에 들어섰다.

《동무가 장군님께 문건을 드렸소?》

《예, 제가 들여보냈습니다. 김구선생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짐이 얼마간 덜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김책의 가슴도 좀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을 알고싶어 측막쪽을 돌아보셨을가?

《김규식선생도 김구선생과 함께 38°선을 넘었소?》

《김규식선생은 들어오지 않았습시다. 성시백동무가 보낸 사람이 김구선생일행속에 끼여서 들어왔는데 김규식선생의 출발날자는 아직 미정이랍니다.》

장군님께서 김규식의 움직임을 알고싶어하셨으리라는것을 김책은 의심하지 않았다.

《김규식선생은 38°선을 넘지 않았다는것을 장군님께 알려드려야겠소. 김구선생과 함께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북에 들어왔는지 자세히 쓰시오. 회의가 끝나게 됐는데 문건을 빨리 만들어야겠소.》

《알았습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부장이 들여보낸 두번째 보고를 이날 회의를 마감짓는 도중에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문건을 들어보이며 온 장내를 향해 말씀하시였다.

《대표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김구선생이 원썩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38° 선을 넘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국독립당계 정당, 단체대표들과 기자들 100여명이 북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삼시에 술렁거리는 소리, 박수소리로 가득찼다. 장군님께서도 김구의 입북이 만족한듯 밝은 모습이다.

장내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던 그이께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뒤를 이으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의 간섭과 훼방때문에 아직 김규식선생일행은 38°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도 반드시 38°선을 넘어 평양에 올것입니다. 대표 여러분이 알아야 할것은 우리는 원썩들의 집요한 방해책동을 쳐물리치면서 이 회의를 하고있다는것입니다. 적들의 책동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것은 이 회의장에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을겁니다. 적들은 왜 련석회의를 방해하는가? 조선민족이 단결되는것을 바라지 않기때문이며 민족통일정부가 조선에 수립되는것을 원치 않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번 협상을 통해 민족대단합을 기어이 달성해야 하며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미제의 예속화정책을 반드시 짓부셔야 합니다.》

장내에 울려퍼지는 박수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던 장군님께서 뒤말을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가결해야 할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먼길을 오신 김구선생이 설수 있게 남북협상본회의를 하루동안 휴회하자는것입니다. 선생은 그동안 테로단들에게 봉쇄되어있다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실내화를 끌면서 뒤문으로 해서 38°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년세가 높은분이 이런 고생을 하며 38°선을 넘은것은 우리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선생님의 노력이 지극하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애국지성에 응당한례절을 차릴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결에 붙일것도 없었다. 장내에서는 찬성하는 웨침소리,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일시에 터졌다.

대동강의 유유했던 흐름이 미림벌끝에서 솟아오르는 아침해빛에 찬연하게 물들무렵 김구는 대동교를 건넜다. 그는 차창밖을 내다보며 룡악산의 령천암에서 주지를 할 때 동냥을 하려고 몇번 들어와본적이 있는 평양성내의 옛 정취를 찾았다. 은근한 무지개빛을 머금은듯한 아침안개속에 잠긴 모란봉이며 굴복을 모르는 관서의 기상을

자랑하는듯 하늘중천에 용마루를 높이 추켜든 대동문, 절벽우에 올라앉아 대동강의 푸른 물을 굽어보는 련광정... 비록 도시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했지만 반세기전에 눈에 익혀두었던 바로 그 천하절승 평양이 틀림없었다.

그는 회색 외장을 한 상수리의 2층양옥집에 안내되었다. 태평양전쟁이 터지기전에 미국의 련사관으로 리용되던 건물이었다. 양옥집 철문앞에서 먼저 평양에 들여보낸 《선견대》라고 해야 할 한독당원들이 그를 맞이했다.

김구는 차창을 거쳐 한독당원들의 인원수를 세여봤다. 다섯이 길수라고 해서 다섯명을 들여보냈는데 그 다섯명이 고스란히 철문밖에 서서 허리를 깊이 꺾으며 인사를 차렸다.

그는 련장을 풀기 바쁘게 정원에 나갔다. 누구도 엿들을수 없는 정원에서 《선견대원》들의 말을 들으려는것이다. 상해에서 떠나 류량의 로정을 거쳐 중경, 그후에는 환국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복처럼 김구를 섬겨온 백발동갑이의 말을 제일먼저 듣기로 했다. 김구는 저만쯤에서 황송해하는 모습으로 서있는 《선견대원》들가운데서 동갑이를 손짓해서 가까이 오라고 했다.

네댓걸음밖에서부터 무릎걸음을 하듯 자세를 낮추고 김구앞에 다가온 동갑이가 허리를 깊이 꺾으며 인사를 했다.

《그간 귀체만강하옵십니까?》

《그래 고생이 막심하지는 않았나?》

김구는 물었다.

《북조선은 인심이 후하구 겨레를 사랑하는 곳인줄 아됩니다.》

동그란 검은테안경속 김구의 눈이 머리를 깊이 떨군 동갑이의 뒤통수를 내려다봤다.

《어떻게 되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말을 해보게.》

립정계의 명색없는 단체대표의 명분으로 왔는데 평양에서는 후한 대접을 해주고
런석회의에도 참가시켜주었다고 했다. 어제 첫날회의에서 38°선을 넘은 두령님을
김일성장군님께서 참으로 뜻깊은 말씀으로 높이 평가하셨다는 말도 했다. 동갑이는
남조선대표석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김구를 높이 평가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었던것이다.

《임자의 그 말이 적실한가?》

《언감 제가 두령님앞에서 망언을 하겠사옵니까.》

《나를 애국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지... 자주독립을 위해 지극한 마음을
바치고있다고 하셨단 말이지...》

김구는 구름다리 저쪽의 둔덕집들을 바라보며 충격을 다잡기 어려운듯 혼자말을
중얼거렸다. 김일성장군님과 여러차례 서찰을 주고받는 사이에 통일구국을 위한 그의
투철한 뜻과 뜨거운 애국애족의 뜻에 감동되어 평양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반공》을
정견으로 삼아왔고 북조선에 테로단까지 잠입시킨적이 있는 자기를 북에서 어떻게
맞이해주겠는지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가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남북협상에 참가하겠다고 기자들앞에서 공언한것은 미제침략자의 총알에 가슴에
구멍이 날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있기도 했지만 38°선을 넘는 순간 북측으로부터
가해오는 《보복》도 각오한 말이였다. 그런데 38°선을 넘어선 자기를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높이 평가해주셨다니 김구는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웠다. 집안에서 신던

뒤축이 빠진 끌신을 끌고 뒤문으로 경교장에서 빠져나왔다는것까지 알고 대표들에게 통고를 해주셨다는 동갑의 말은 도저히 풀길 없는 난해한 음양설과 같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김구가 뒤문으로 빠져나오는것을 본 사람이란 지금 상수리숙소에 든 측근들가운데서도 두어명밖에 안되었다. 하긴 안중근렬사의 후에라고 해서 돌봐주고있는 조무래기 두엇이 소꿉장난을 하다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기는 했다. 그 10살에도 차지 않은것들이 평양에 와서 장군님께 저희들이 본 자기의 기괴한 행차를 알려드릴수는 없지 않는가!

김구가 의문에 사로잡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동갑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축지법을 쓰시구 승천입지하시는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솔방울을 수백수천의 군사로 현신케 하는 장군님이신데 38°선을 베고 죽을 각오를 한 두령님을 어찌 굽어살피지 않을수 있겠소이까?》

물론 김구는 민중들속에 나도는 전설적인 설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군님의 지략이 출중하고 천태만상이여서 민중이 지어낸 설화일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끌신을 신고 뒤문을 거쳐 봉쇄속을 빠져나왔다는것까지 알고계신다는 말을 들으니 부지중 동갑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김구에겐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자기를 휴식케 하기 위해 남북협상을 옹근 하루동안 휴회케 하시였다는 이 놀라운 조치에 어떤 레절을 차려야 하겠는지 우선 이것을 생각해야 했다. 그는 뒤짐을 지고 정원길을 오가기 시작했다. 지극한 애국심에는 마땅한 대접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장군님의 말씀, 38°선을 베고 죽을 각오를 하고 북으로 향한 자기를

그렇게도 높이 평가해주신 그이, 그닥지 않은 자기의 애국심을 그렇게도 높이 사주시는 그이야말로 애국의 뜻이 하늘에 닿은 출중한 애국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김구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애국심에는 응당한례절을 차려야 한다고 하셨으니 자기도 례절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것이다. 서둘러 숙소에 들어가는 그의 머리에 흥중에 묻어두고 38°선을 넘은 욕구가 머리에 번득이였다. 이 기회에 립정의 범통을 인정받을수 있지 않겠는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립정의 권위를 과시할 기회를 마련할수 있지 않겠는가?

서둘러 숙소에 들어간 김구는 같이 류숙하고있는 지난날의 립정요인들을 자기 방에 불러들였다.

《북조선에 들어왔은즉 김일성장군님께 례절을 차리는것이 도리인줄 아오. 우리는 한독당을 대표하는것과 동시에 립시정부대표인즉 그에 상응한 외교적절차를 밟아 례절을 차리는것이 마땅한 일일것이요. 될수록 빠른 시간내에 나의 의사를 북측에 전해주기를 바라오. 각자는 말은바 소임에 따라 행동해야겠소.》

《립정요인》들가운데서 나이도 젊은축에 속하고 리론가라는 말도 듣는 한독당부당수이며 립정의 외교부장이였던 조소앙이 난처한 빛을 지었다. 환국이 늦어져서 막심한 손해를 봤는데 그때의 꼴이 또 반복될것 같았던것이다. 미국인들도 아니고 북조선을 향해 그런 얼빠진 소리를 하다가는 협상에도 참가해보지 못하고 쫓겨날수도 있다고 생각한것이다. 만일 그런 난처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 립정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독립당도 존재를 끝마쳐야 할 비운의 나락속에 굴러떨어질것이다.

미국인들한테도 버림을 받았고 리승만한테는 천대를 받고있는 림정이 북조선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면 무엇에 의지해 명맥을 유지할것인가?...

한번 입밖에 낸 말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는 고집불통인 김구인줄 알면서 조소앙은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도착한 즉시에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북에 올 결심을 한 선생님의 용단에 흠이 가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범선생이 레의절차를 밟고싶어한다는 정도의 모가 나지 않은 말을 통고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김구는 조소앙의 말을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일축했다.

《내 말대로 하오. 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요.》

통명스러운 말을 뱉어낸 김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에 들어가버리었다. 조소앙은 김구의 훈령을 리행할수밖에 없었다. 그는 응접을 책임지고 상수리숙소에 나와있는 듚직해보이는 젊은이에게 김일성장군님께 도착인사를 드리고싶은데 이 소원을 성취하자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화를 하면 됩니다. 내가 전화를 연결해드리지요.》

젊은이는 가까이에 있는 전화기옆에 가서 송수화기를 들고 몇번 들었던것 같은 이름을 찾아가지고 조소앙의 말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상대자가 전화를 바꾸라고 한듯 젊은이는 조소앙에게 송수화기를 넘겨주었다. 조소앙은 김구의 말을 얼마간 부드럽게 만들어 이야기했다.

《김구주석님을 위시해 립시정부요인들인 동시에 한국독립당 고위인사들이 평양에 들어왔으니 김일성장군님을 의례방문하는것이 레절을 차리는것으로 될것이고 또 마땅한 도리인줄 압니다. 시간과 장소를 상론하고싶어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생각에 잠긴 모양 수화기에서는 전류의 흐름만이 들렸다. 한국독립당의 고위인사들이라고 해도 될 일인데 그앞에 립시정부요인이란 말을 붙였으니 상대는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더구나 김구가 지금까지 협상조건으로 립정의 법통을 인정해줄것을 고집해왔다는것을 아는 사람이면 더욱 그럴것이다.

잠시후 상대방은 자신을 김책이라고 소개하고나서 그 말이 김구선생의 의사인가고 물었다. 조소앙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조소앙은 송수화기를 놓고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갓히며 담배를 한대 피웠다. 이어 전화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응접책임자가 전화를 받다가 송수화기를 조소앙에게 넘겨주었다. 수화기에서 김책의 말이 흘러나왔다.

《김구선생에게 휴식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 회의를 휴회하기까지 했는데 의례방문을 생각하셨다고 장군님께서는 크게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김구선생의 요청이니 거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리를 같이하기로 하셨습니다. 방문은 아무때라도 좋은데 장군님께서 자주 자리를 뜨시니 시간을 오늘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내가 사전에 말씀드릴것은 남북간의 래왕을 다른 나라와의 래왕처럼 외교적절차나 행사처럼 갖는것을 장군님께서는 일체 금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세에 의해 강토가 량단됐는데 동족끼리 외국인행세를 하겠는가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남과 북을 한강토, 한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말이 길어져서 안됐습니다.》

김책은 전화를 끊었다. 조소앙은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돌미륵처럼 굳어져 움직이지를 못했다.

북조선정권의 요인인 김책이 애써 부드러운 음성으로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에는 남이요 북이요 하면서 민족적단합에 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어째서 그가 이런 말을 했겠는가? 자기의 말에서 민족적화합에 유해로운 요소가 있다는것을 감촉한탓일것이다. 그것은 립시정부요인이니 뭐니 하는 말에서 받은 인상일것이다. 조소앙은 자기가 공연한 말을 했다고 뉘우쳤다.

그런데 백범은 어째서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립정의 법통문제를 꺼내는가? 남과 북을 량단된 조국이 아니라 한강토, 한민족으로 생각하신다는 **김일성**장군님의 신조는 민족주의자들이 찬성해야 할 대강이 아니겠는가. 백범은 당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의례방문에 립정의 법통을 인정받자는 욕구를 개입시켰다. 이것은 결국 민족적화합에 해를 주는 태도이며 동족간의 단결에 저애를 주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는 김책의 말을 김구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소앙은 빠른 걸음으로 백범의 침실에 들어갔다. 우선 이날 오전 10시에 **김일성**장군님께서 김구를 만나주겠다고 하신다는 말부터 전했다.

《영? 10시에?》

그 무슨 생각에 골몰해 방에 들어온 조소앙을 돌아보지도 않던 김구가 화닥닥 놀래 고개를 돌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렇게 빨리 접견해주실줄은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그건 어디서 온 답변인가?》

《김책이란분한테서 온 회답인데 그분은 북조선요인들중의 한사람입니다. 머지 않은 곳에 장군님이 계시는지 잠간사이에 상론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행차를 하기전에 할말이 있습니다.》

조소양은 김책한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조소양의 말을 들은 김구는 생각이 궁했을 때 늘 그렇게 하는것처럼 책상우에 꺼내놓은 붓을 들고 만지작거렸다. 지나치게 서둘러서 면박을 받는 꼴이 되었지만 일단 쏟아놓은 말을 이제와서 거두어들이수는 없었다. 어쨌든 립정이란 간판을 내들지 않고서는 자기를 내세울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였다.

곧 의례방문에 참가할 립정요인들(한독당의 고위층)이 모여들어 이번 행사에서 류의해야 할 사항들을 의논했다. 립정의 법통건을 어느 정도 내놓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자 김구가 앞에 나섰다. 그 문제는 자기에게 맡기라는것이였다.

행차를 될수록 요란스럽게 꾸리느라고 온 상수리숙소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잠시후 김구는 서울에서 타고들어온 승용차에 올라앉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북측에서 보내온 두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앉아 북조선로동당청사를 향해 떠났다. 종로네거리에서 우측으로 꺾어든 승용차들은 해방산둔덕을 한옆에 낀 밋밋한 차도를 얼마쯤 달렸다. 광복전에 학교였던 모양인 회색건물앞의 넓은 운동장안으로 자동차들은 미끄러져 들어갔다.

김구는 차에서 내려서며 무심중 청사쪽을 바라보았다. 활짝 핀 밝은 웃음이 온 얼굴에 넘쳐나는 젊은분이 두어명의 수원들과 함께 현관앞에 서계시였다. 그이의 얼굴에 비낀

밝은 웃음이 순간에 김구의 가슴에 흘러드는듯싶었다. 만고의 영걸로 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김일성**장군이 과연 저분이신가! 포악한 왜놈들을 그리도 통쾌하게 답세기며 령활무쌍한 항일전을 전개한 **김일성**장군님이 저분이란말인가! 저렇게도 젊은분이 남북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상을 할데 대한 대담한 발기를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성사시킨 **김일성**장군님이란말인가! 장군님께서 약관의 년세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저리도 젊은분이 남북3천리를 손에 쥐고 흔드시다니...

김구는 손에 든 단장을 미처 내짚지도 못하고 장군님앞으로 급히 다가갔다. 장군님께서도 마주 걸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김구앞에 오시여 조상전례의 례법을 따른 인사를 하시였다.

《**김일성**입니다. 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쉬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사실 젊은 우리가 먼저 찾아보여야 하겠는데 휴식하실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있었습시다. 그런데 고령인 선생님이 먼저 어려운 걸음을 해주어서 젊은 사람이 제집에서 나이든분을 맞게 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조금도 격식이 없이 겸허하고 스스럼없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구의 뒤에 선 요란스럽게 차려입은 늙은이들과도 한사람한사람 각근히 인사를 나누시였다.

《저희들은 이번 협상을 집안일을 의논하는 동족간의 회합으로 생각하고 번잡한 의례행사를 될수록 간략하기로 했습니다.》

김구에겐 장군님의 말씀이 힐책으로 들렸다. 그러나 이쯤한 의견상이는 있으리라는것을 각오하고 평양에 온 김구였다. 그는 속다짐을 더욱 굳게 하며 장군님의 다음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례의를 갖추고 찾아와주시니 우리의 성의가 부족한것같이 생각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니 널리 량해해주십시오.》

분명 당리를 먼저 생각한 자기의 허물을 나무라는 말씀인데 어찌면 이렇게도 스스로없이 겸허하게 이야기하시는가. 자기의 수행원이 여덟이나 된다는것은 자동차를 보내주시여서 모를수 없으시겠는데 장군님의 뒤에는 옷차림에 얼마간 마음을 쓴 외에 류다른 준비가 없었던것 같은 두명의 간부들이 서있을뿐이었다.

의례방문에서부터 립정의 위세를 시위해야 한다고 생각한 김구는 자기가 지나치게 조급해한것 같은감이 들기는 했지만 일단 내짚은 걸음을 후회할 그가 아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곧 김구일행을 집무실로 안내하시였다.

《제가 일을 보는 사무실입니다. 방이 좁아서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아직 건국도상의 어려운 때니 량해를 해주십시오.》

장군님의 집무탁에 붙여놓은 앞탁을 두고 **김일성**동지와 방문자들이 마주앉았다. 김구의 일행모두가 한줄로 앉을수 없어 따로 자리를 마련해야 했다. 방안이 정돈되자 일행의 이름과 직책을 김구가 장군님께 소개해드렸다. 립정에서는 어떤 요직, 한국독립당에서는 무슨 직책 이런 식으로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등 차례로 말씀을 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독립운동과 민족주의운동에서 그들이 논 역할을 평가하면서 립정요인들을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시킨 미제침략자들의 무지막지한 행동을 비난하시였다.

《여러분은 조선독립을 위해 일제의 악독한 폭압밑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운 애국자들입니다. 조선독립을 위한 선생님들의 투쟁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미국놈들은 선생들의 투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조선인민들은 선생들을 애국자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남북협상에서 김구,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김구가 통솔하는 립정계의 정당, 단체들이 주석단에 앉게 될 좌석수를 말씀하시였다. 특히 한국독립당은 남북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정당과 똑같이 4개의 좌석을 차지하게 됐으며 일반대표석에는 수십개의 자리를 내놓았다고 하시였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좌석수가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단체 예비회의에서 결정한것입니다. 미제놈들은 선생님들의 애국적활동을 인민들이 알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탄압을 했지만 우리 민족은 애국자들을 몰라보는 우매한 민족이 아닙니다. 특히 북조선인민들은 그렇습니다.》

이때야말로 립정의 간고한 20여년간의 역사를 화제에 올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가? 립정의 법통문제를 론의케 할수 있는 적절한 자리가 아닐가? 이런 생각이 김구의 머리속을 스쳐지났다. 결상의 팔걸이를 굳게 움켜잡은 자기의 손을 내려다보던 김구는 등받이에 기댔던 옷몸을 일으켜세우고 입을 열었다.

《우리 한국독립당을 그렇게 높이 쳐주시니 고맙기 이룰데 없소이다. 한국독립당은 립시정부의 여당이였으니 서찰을 통해서도 언급한바 있는 립정의 법통을 인정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는지, 이것을 알고싶소이다.》

김구는 등근테안경속의 두눈을 한껏 긴장시켜 장군님의 모습을 마주보며 고집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의연히 밝은 웃음을 띠운 안색으로 김구의 말을 듣고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선생님이 편지에서 표시한 그런 의사에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않은것은 민족대단합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현시기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미군사령부나 군정청을 상대할 때는 미제의 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라는것이니 김구선생이 내뱉만한 주장이였다고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였다.

《지금 선생님일행과 우리가 이렇게 마주앉은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가 조작하려는 남조선단독괴뢰정부와 조국의 장기분렬이라는 엄혹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단결하기 위해 마주앉았다는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남북협상장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옳다거나 그름다거나 하고 논의를 해야겠습니까?》

어째서 협상장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설득력있게 말씀하시였다. 상해립정의 법통을 인정한다는것은 앞으로 수립될 민주주의통일정부가 상해립정의 전통성을 인정한다는것과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릴 권한을 우리 민족은 아직

그 누구에게도 준적이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게 될 인민들만이 갖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광복후 립시인민위원회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발전해온, 인민정권건설의 력사적뿌리인 항일대전시기 창조된 진정한 혁명전통에 대해 말씀하실수도 있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정식화된 그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직후에 수립된 립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단행할수 있었으며 그후 인민위원회로 발전하여 북조선을 건국의 믿음직한 민주기지로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우리 나라에 이런 거창한 위업을 이룩한 정권이 그 언제 있어본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단합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싶지 않으시였다. 김구도 진실로 립정의 법통이 계승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말을 한것은 아닐것이다. 자기네 권위를 높여보자고 해서 하는 말일것이다.

웃음떠운 부드러운 안색에 낮고도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군님을 김구는 어쭙은 눈길로 마주보았다.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나니 법통문제를 꺼낼 자리도 아닌 장소에서 그것을 내든 자신이 후회되였다.

《선생님은 민족이 맡겨준 무거운 의무를 충분히 알고계시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제의 교활한 음모를 짓부시고 평양에 오실수 있었겠습니까.》

김구는 몸둘바를 알수 없었다.

《김규식선생도 곧 평양에 도착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즘도 삼청장에 미국놈들이 뺨질나게 드나든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경교장, 삼청장은

말할것도 없고 리승만도 찾아간적이 없는 하지가 삼청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김규식선생의 량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열차를 38°선가까이의 마지막역에 대기시켜놓았습니다. 협상을 끝내고 남조선대표들이 남으로 나갈 그 시각까지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병을 안고계신 김규식선생에겐 열차가 더 편할것 같아 기차를 대기시켜놓았습니다.》

김구는 가슴을 옥질린것 같은 충격을 받고 눈길을 들었다. 여전히 웃음이 어려있는 장군님의 안색은 신심에 넘쳐있었다. 하지가 삼청장을 찾아갔다는것까지 알고계시면서 우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확고히 믿고계시다니...

김구는 개성으로 오는 도중 한 기자한테서 하지가 삼청장을 찾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경교장에도 하지보다 급이 낮은 양놈이 찾아와 한 말이 있어 하지가 무엇때문에 삼청장에 찾아갔는지 대체로 짐작할수 있었다. 아직도 미국에 기대를 걸고있는 우사가 놈들이 던진 미끼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김구는 오랜 정치적동반자를 잃어버리는것으로 될것이며 이번 협상에서도 민족주의진영의 발언권은 대폭 감소될것이다.

이것이 우려되어 평양으로 오는 도중 김구는 질금질금 자동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래 개성에서 평양까지 하루밤이나 걸렸다.

《선생님은 서울을 출발하기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걸음은 반드시 성공할것이며 그것은 전민족의 성공일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협상의 성공은 반드시 전민족적문제를 해결하게 될것입니다. 이런 회합에 김규식선생이 빠지려고 하겠습니까. 또 하췌은 당리에 구애되어 협상의 앞날을 우려하게 해서도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을 출발하기전에 발표한 성명을 보고 선생님이 참으로 큰뜻을 품고 평양에 오신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빛나는 웃음이 어린 눈길로 김구를 바라보시였다. 김구의 얼굴에도 빙긋이 웃음이 피여났다. 협상에 립하는 자기의 태도를 섭섭해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김구는 용색한 생각에 사로잡힐수가 없었다. 마음이 흥그러워지고 가슴이 탁 트이는것 같았다. 이번 걸음에 반드시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품고 서울을 떠날 때의 큰뜻이 가슴을 뿌듯하게 채웠다.

김구가 갑자기 립정의 범통문제를 꺼내 얼마간 긴장되었던 분위기는 씻은듯 사라지고 화기에 넘친 분위기만이 장내에 가득찼다.

회의에 참석하려고 두루마기를 입던 김구는 정원안으로 미끄러져들어오는 승용차들을 보았다. 현관앞에 붙인 차에서 눈에 익은 중절모자가 먼저 보이더니 나직한 키에 허리통이 굽은 김규식이 내리였다. 왔구나! 비록 이틀 늦기는 했지만 우사가 평양에 왔을적엔 양놈의 룡간을 뿌리치고 서울을 출발했을것이다. 김구는 우사한테 달려가 그간 소식을 듣고싶었다. 그러나 나이를 봐서도 그렇고 립정주석이며 한독당위원장의 직책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김규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할것이다. 담배를 한대 태웠다. 그러나 김규식일행이 찾아오는 수선스러운 발자욱소리는 좀해 들리지 않았다. 하긴 려장을 풀고 한숨 쉬려면 시간이 좀 걸릴것이지만 오늘 회의에 참석하려면 서둘러야 할것이 아닌가. 조소앙, 엄항섭이 들려 회의장에 가지 않겠느냐고 재촉을 겸한 말을 했을 때도 김구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대로 눌러앉아있었다.

혹시 오늘 회의가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내주신 특별렬차를 타고왔으면 회의와 관련해서 누구에게서건 말을 들었을것이다. 가슴에 재가 앉는 심정으로 김규식을 기다린 지난 이틀간의 일들이 머리에 얼씬거리면서 노여운 생각이 일기 시작했다.

누구든 불러 자기는 먼저 회의에 간다는 말을 우사에게 전하고 방을 나서려는데 복도에서 발자욱소리가 들리더니 사무실문을 두드렸다. 김구도 여러번 상종한적이 있는 윤명현이 방에 들어섰다. 김규식이 보내서 온 모양이었다. 우사가 찾아오지 않은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내색할수는 없었다.

《언제 왔나?》

그들의 도착을 모르는체 할수밖에 없었다.

《이젠 반시간쯤 됐습니다. 밖에서 조소앙, 엄항섭선생들이 기다리던데 선생님은 회의에 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회의에 관심이 없는듯한 말투였다.

《우사는 회의에 갈 차비를 하지 않던가?》

《선생님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도중에 병을 얻었나?》

《그런게 아니라 본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을 생각인것 같습니다.》

김구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 재기가 넘쳐나는 통트무례한 윤명현의 얼굴을 마주봤다. 혹시 하지한테 그 무슨 다짐을 받고 들어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쳤지만 회의불침을 너무나 거침없이 터놓으니 도무지 가늠을 할수가 없었다.

한숙소에 들었으니 숨길 필요가 없다고 여겼을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것은 한참후의 일이었다.

《그럼 임자네들은 모두 회의에 불침할 작정을 하고 들어왔단 말인가?》

김구는 눈을 홑뜨며 되물었다. 만일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협상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참가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회의에 참가할 생각입니다.》

김규식의 행동에서 무엇인가 미심쩍은것이 느껴졌다. 만일 우사가 평양에 다녀왔다는 면목이나 세우려고 38°선을 넘었다면 이것은 벌써 미국놈의 통간질에 걸려들었다는것을 뜻하지 않겠는가. 미국놈의 손탁안에서 논다는것은 민족을 반역하는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김구는 생각했다. 김구는 끝내 노여움을 폭발시키고야말았다.

《임자는 삼청장사람이니 우사를 도와줘야 할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지. 나는 평양에 들어오면서 온밤 로상에서 우사를 기다렸네. 그래 나한테 와서 늦은 사연을 말해주면 못쓴다던가?》

《그건 제 잘못입니다. 백범선생에게 찾아뵙지 못해서 안됐다는 인사를 전하라는걸 제가 그만 탄말을 하다보니 말씀드릴지 못했습니다.》

《고현! 한울안의 이 집이 천리밖인가, 만리밖인가? 임자가 경교장사람이라면 불기를 쳤겠네. 우사를 그렇게 모시면 못써!》

애꿎은 윤명현에게 가슴속에서 부글거리는 분을 폭발시킨 김구는 팔을 후들후들 떨며 옷걸개에 걸어놓았던 두루마기를 입었다. 방을 나서다 말고 뒤말을 보냈다.

《우사에게 이르게! 남북협상은 참가해도 되고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합이 아니라구 하게. 반드시 오늘부터 회의에 참가해야 한다고 이 백범이 말하더라고 전하게!》

김구는 격한 목소리로 웨치고는 복도에 나섰다.

개회시간이 림박해 회의장에 도착한 김구는 곧 장군님을 모시고 주석단에 나섰다.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김규식계의 대표들이 자리에 들어앉다 말고 갑자기 터지는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 열광적인 환호소리에 어리둥절해 주석단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들도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으며 밝은 웃음이 얼굴에 비낀 장군님을 더 자세히 보려고 키돋음을 했다. 몇몇 대표들은 주석단배경에 눈길을 던지기도 한다.

김구도 주석단에 나서다 무대배경을 보고 말할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민족대단결을 목적인 남북련석회의라고 해도 공산주의자들의 관례를 따라 회의장을 꾸렸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흰빛으로 눈부시게 부각된 3천리강산이 무대배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지 않는가! 붉은 기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김구는 너무나 충격이 커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얼혼이 나간 사람모양 부각상을 바라보다 자기의 자리에 가앉았다. 옆의 의자에 와 앉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경사로운 큰 회의에 누가 개회시간을 맞추지 못하는가 해서 옆좌석앞의 명패를 보았다. 김구는 숨이 막히는듯 했다.

민족자주련맹위원장 김규식

정성스럽게 쓰여진 명패가 앞탁에 놓여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사가 반드시 회의에 참가하리라는것을 확신하고 그의 좌석을 마련해놓은채 회의를 진행하시였구나! 그것도 장군님 가까이의 맨 앞줄의 좌석을, 그런데 우사는 지금 병에 빙자하여 숙소에 누워있다. 회의장에 가득찬 남북조선대표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것이며 서울에서 들어온 술한 기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전할것인가. 무엇인가 깨져분한것이 느껴지는 김규식의 행동은 필경 자기자신뿐아니라 서울에서 들어온 민족주의자들의 처지를 난처하게 만들것이다. 김구의 가슴밑바닥에서 노여운 생각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불손하고 방자하다고 해야 할 우사를 언짢게 여길 대신에 그의 평양도착을 높이 평가해주시는것이였다. 이날의 회의일정이 시작되기전에 그이께서는 대표들에게 말씀하시였다.

《김규식선생과 80여명의 대표들, 수원들, 기자들이 오늘아침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규식선생의 도착이 늦어진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기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먼길을 오기 어려운 목은 병을 갖고계시고 그사이 무리를 해서 오늘의 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함께 평양에 온 대표들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잠시 술렁거리던 장내에서 박수소리와 환호가 터졌다. 김규식의 허물을 감추어주시는 장군님의 한량없이 너그러운 아량에 김구는 가슴속이 뭉클했다. 이렇게도 너그럽고 후더운 덕망을 지닌 장군님께서 정치를 펴시는 북조선에 한때 《정치공작대》를

파견하고 《림정》의 법통을 전제조건으로 내들려고 한 자신을 생각하니 김구는 민망하기도 하고 웅졸한 견해로 해서 하마트면 대사를 그르칠번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어제 북조선로동당에 의례방문했을 때의 감동을 되새기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를 흐뭇한 심정으로 음미해봤다.

사회자는 이날 회의에 남북의 56개 정당, 단체대표들 695명이 참가했다는것을 대표들에게 통보하면서 민족대화합과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역사적남북련석회의 둘째날 회의의 개최를 선포했다.

낮휴식시간이었다. 김구가 회의장을 나서는데 함께 평양에 들어온 홍명희가 옆에 와서 장군님께서 김규식을 찾아가시는것 같다고 넌지시 귀띔해주었다. 김구는 대번에 긴장했다. 비록 회의장에서는 그리도 너그럽게 우사의 허물을 감싸주셨지만 그이의 심정이 지금 어떠하시겠는가? 한개의 특별열차를 38°선의 마지막역에 대기시켰다가 호사스러운 려행을 하게 했는데 병에 빙자하며 회의장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으니 신의를 짓밟은 그를 장군님께서 어찌 좋게 보실수 있겠는가? 더구나 장군님께서는 하지가 삼청장을 찾아갔다는것까지 알고계시지 않는가. 김구는 마음이 황급해졌으며 장군님께서 우사를 만나시는 자리에 자기가 붙어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규식의 변덕스러운 행동거지를 두고 말하면 노여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집안일이였다. 민족주의진영의 령수로 행세하는 김구는 우사의 허물을 감추어줄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급히 차에 올라앉은 그는 이미 출발한 장군님의 승용차를 운전수에게 가리켜보이며 뒤를 바짝 따르라고 일렀다. 상수리숙소의 철문앞에 이르렀을 때는 장군님의 승용차뒤에 잇달리다싶이 했다. 김구는 장군님의 승용차옆에 댄 차에서 허둥거리며 뛰어내려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장군님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며 말씀드렸다.

《우사가 장군님의 노여움을 살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허나 우사로 말하면 특별렬차에 누워왔다고 해도 병약한 그에게는 과한 려행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후에도 회의가 있고 본회의 이후에 다른 회담들을 갖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몸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회합에 참가하게 할터이니 장군님께서서는 제 시간에 점심을 드셨으면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란 기색으로 머리를 떨구고 서있는 김구를 지켜보시였다.

《선생님은 뭔가 오해를 하고계신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김규식선생이 먼길을 오셨는데 주인인 내가 문병을 하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난 일이 아닙니까? 나는 잠깐 병문안을 하려고 왔습니다.》

머리를 든 김구는 혼연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을 눈을 크게 뜨고 마주보았다. 남북협상을 방해하고있는것과 다름이 없는 김규식을 문병하시다니. 마음속에 38°선이 들어앉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장군님께서 우사를 병문안하시겠다니... 이번 회의를 격식을 차리지 않는 회합으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개인관계에서나 정당간의 관계에서는 높낮이를 따지는 격식과 관례가 있는것인데 온 민족이 우러러받드는 장군님께서 미국놈의 룡간에 넘어가 애를 먹이는 김규식의 병문안을 하시다니?...

《김구선생도 김규식선생을 만나보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셨겠는데 같이 들어가서 문병을 합시다.》

장군님께서서는 김구의 허리를 팔로 감아안고 현관계단을 오르시였다.

장군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선통을 받은 김규식은 거느시 기뻐던 쏘파에서 뛰여일어나 어쩔바를 몰라하며 덤벼쳤다. 예고도 없이 장군님께서 오시다니? 외교란 회의장소, 대표단의 급수와 인원, 안건, 지어 말의 색깔과 표정, 몸자세… 미묘한 이 모든것이 주고받는 대화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것인데 북조선정권의 령도자이며 민족의 령수이신 그이께서 외교의 관례, 절차 같은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의 숙소를 찾아오시다니? 김규식은 장군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는지 알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옷차림을 갖추며 한편으로는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 말을 생각하느라고 경황이 없는데 활짝 열리는 문으로 장군님께서 김구를 한옆에 끼고 방에 들어오시였다.

김규식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령도자에게 표시해야 할 응당한 례절을 차리느라고 장군님앞으로 다가가며 머리를 숙였다.

《몸이 부실해서 회의에 늦게 왔을뿐아니라 평양에 당도해서도 려독을 푸느라고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것을 널리 량해해주십시오.》

《나이가 높으신분이 젊은 사람에게 뭘 이러십니까? 몸이 편치 않으시다면서 왜 일어났습니까? 어서 편히 앉으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김규식의 손을 이끌다싶이 하여 쏘파에 눌러앉히시였다. 김구도 장군님옆에 자리를 잡았다. 김규식은 너무나도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장군님의 소탈한

태도에 어리둥절해서 한편 놀라면서도 긴장했던 얼굴기색이 저으기 풀려 웃음비슷한 기색이 얼마간 어렸다.

《이번 남북협상은 비유해 말하면 한마을에 위험이 닥쳐와서 김구, 김규식선생님들과 같은 나이가 많은 좌상들을 모시고 닥쳐온 위험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동네의 안전을 도모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명석을 깔고 마주앉아 의논을 하는것과 같은 회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공식적인 직책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간격을 두고 대하면 의사를 소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호방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군님을 김구는 감동된 눈으로 바라봤다. 그이께서는 김규식앞에 놓인 앞상을 보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선생님은 장죽으로 담배를 태우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째서 장죽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구는 그제야 김규식의 앞상에 협상참가자들에게 공급된 《봉화》담배만이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그는 김규식을 두둔해 몇마디의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차례진것 같아 급히 이야기가운데 끼여들었다.

《중국에 있을 때 우사는 장죽으로 담배를 태우지 않았습시다. 서울에 와서 양놈들한테 시달리다못해 생각해낸것이 장죽입니다. 미국놈들을 힘으로는 당해낼수 없으니까 긴 장죽을 상대의 턱밑에 들이대서 이를테면 담배연기로 미국놈들과 싸우기로 한셈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장군님께서 김규식을 돌아보며 물으시였다.

《담배연기를 갖고 미국놈들과 싸운다는것은 사실에 있어 약소민족의 쓸데없는 놀음이지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 마음을 위안하느라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습관이 됐을뿐입니다.》

《내 말은 그런 뜻에서 물은 말이 아니라 평양에 들어올 때는 장죽을 갖고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것입니다.》

《안해가 려장을 꾸릴 때 짐속에 넣기는 했는데 좀전에 려장을 풀 때 어째서인지 그 장죽을 내놓고싶지 않았습시다. 앞상에 담배갑이 놓여있어서 들어보니 <봉화>라는 담배인데 거기에 <민족대단결로 통일정부 수립하자>라는 글이 인쇄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한대 피워보니 담배맛이 어떻게나 좋은지 나를 위해 담배를 만든것 같은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됐습시다. 우리에게 담배연기를 끼었을 생각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 확실하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말을 들으니 김규식선생이 <봉화>담배를 피우는걸 한번 보고싶습시다. 우리가 보는데서 담배를 피워보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담배 한대를 꺼내 김규식에게 쥐여주시였다. 그리고는 성냥을 그어 담배불을 붙여주려고 하시였다. 이 순간 김구는 하마트면 탄성을 입밖으로 토해낼번 했다. 민족의 화합을 위해 이렇게도 마음을 쓰시다니! 김규식도 화닥 놀라 밝은 웃음이 어린 장군님의 모습을 마주본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장군님께서 내게 담배불을 붙여주시겠단 말씀입니까?》

《나이가 젊은 내가 년세가 높은 선생님에게 담배불을 붙여주는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어서 담배불을 붙이십시오.》

김규식은 끝내 담배불을 붙이지 못하고 담배가치를 앞상에 놓았다.

《아무리 한민족이 한자리에 모였다구 해도 상하가 있고 관례가 있는 법인데 북조선정권의 령수인장군님에게서 일개 당련합체의 위원장에 지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담배불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그것을 깨자는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을 갖추지 않을수 없으니 관례를 따르다구 해도 지금과 같은 사사로운 자리에서는 조선민족의 한성원으로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는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어야 혁명도 하고 독립도 할수 있을게 아닙니까? 조국땅이 둘로 갈라지고 종당에는 미국놈들한테 3천리강산을 빼앗길 위험이 닥쳐온 때 담배불을 주고받는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이 **김일성**이 켜댄 불에 담배불을 붙이십시오.》

그이께서는 《봉화》담배갑에서 담배 두대를 다시 꺼내 김구와 김규식에게 나누어주시였다. 성냥을 다시 그어 형벌인 김구에게 먼저 불을 달아주고 다음에 김규식이 문 담배에 불을 붙여주시였다. 김규식의 술많은 시커먼 눈섭이며 두둑한 불, 담배가치를 쥔 손이 떨리는게 알렸다. 김구도 눈을 슴벅거리며 담배불을 받았다.

《두분이 우리 담배를 피우는것을 보니 나는 큰 시름을 놓은것 같습니다. 나도 담배를 피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는 담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 속이 탈 때 담배를 입에 대기는 하는데 그저 담배를 피우는 흥내를 낼뿐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우지 않으니 량해를 해주십시오.》

소탈하게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였다. 비록 말씀은 간단했지만 장군님의 진심이 느껴져 김구는 말할것 없고 김규식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김규식선생에게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자고 했으니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줄 알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김구도 김규식도 담배를 손에 쥔채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야 상수리숙소에 찾아온 본문제를 이야기하시려는줄 알았다.

《나는 김규식선생이 우리 민족을 약소민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앞으로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째서 약소민족이라는겁니까. 우리 민족은 강성대국인 고구려를 건설한 민족입니다. 남북을 합치면 3천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또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용감한 민족입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한 역사를 가지고있고 근면하고 슬기로운 3천만의 인구를 가진 우리 민족을 약소민족이라고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김규식의 민족관을 반대하는 말씀을 하고계셨지만 그이의 만면에 어떻게나 밝고 부드러운 웃음이 차넘치고있었던지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중대한 문제가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여 자못 만족해 말씀하시는데는듯한 모습이였다.

《우리 나라가 약화되기 시작한것은 사대주의가 봉건통치배들속에 만연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리조는 사대를 국시로 삼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리왕조가 결국 무능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항일을 할 때나 광복후 건국사업을 하면서 체험한데 의하면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할 생각을 하는 일군은 어김없이 무능한 사람들이였습니다. 한민족, 한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대를 하면 우수한 민족성도 알지 못하게 되고 통치자들자신도 머저리가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리조가 망국의 길을 걸은것은 결국 사대를 한데 있습니다.》

김구도 김규식도 장군님의 독특한 민족관과 력사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담배를 빠는것마저 잊고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명장밑에 약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해오는 한낱 격언을 국가건설이나 민족문제해결의 대강으로 삼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격언에는 확실히 우리가 참작해야 할 진실이 담겨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을 때, 자기 사업의 정당성을 확신할 때 사람의 힘은 배가된다는것, 심지어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우리는 항일을 할 때 한두번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에 있어 전민족의 의사를 대변하는 56개의 정당, 단체대표들 근 700명이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약소민족이란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니라 자립성이 강한 강유력한 나라를 능히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초대강국이 들췌우려고 하는 분렬의 비극을 감수하지 않을 결심을 한 민족이 자립적인 국가를 건설하지 못한다면 어떤 민족이 자립적인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규식선생!》

장군님께서서는 미소가 담백 어린 안광으로 김규식을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김규식은 답변은 고사하고 얼굴에 미소조차 지을수가 없었다. 그는 우선 장군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다. 조선의 망국이 사대를 한데 있다고 말씀하시는것을 보면 조국의 완전독립은 민족적자립을 이룩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계시는게 분명했다. 북조선정권의 령도자이신 장군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김규식으로서서는 응당 찬성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범위에서 문제를 고찰할 때는 민족자립이 가능하다는 말을 할수는 없었다. 미쏘와 대결을 해야

성취할수 있는 그 자립을 연약한 날개를 가진 조선민족이란 작은 새는 그런 위업을 도저히 이룩할수 없다고 김규식은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솔직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장군님의 깊은 뜻을 쌍수를 들고 찬성하고싶습니다. 내가 월슨의 <민족자결론>을 믿고 빠리에 갈 때의 천진한 청년이라면 장군님의 말씀을 두말없이 찬성했을겁니다. 그러나 나는 70이 불원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늙은이입니다. 2차대전기간 명맥을 부지한 나라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적인 독립국가행세를 하기가 어려운데 근 반세기동안이나 망국의 비운을 체험해야 했으며 현재는 세계의 두 초대국의 대결장으로 되고있는 조선이 자립을 할수 있겠는지 나로서는 믿기 어렵소이다.》

김구는 우사의 답변이 참기 어려울만큼 불만스러웠다. 련석회의를 불손하게 대하는 그를 탓하지 않고 숙소를 찾아주신 장군님의 은정을 생각해도 그렇고 민족자립을 믿지 않는 그의 사상도 어쩐지 미심쩍게 여겨졌다. 남북협상이란 사실에 있어 민족자체의 힘으로 엄혹한 현 난국을 타개해나가자는 회합인데 민족자립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때문에 평양에 왔는가? 그러나 장군님의 안면에는 김규식의 말을 섭섭해하거나 나무람게 여기시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의연히 눈부신 웃음이 빛을 뿌리고있을뿐이었다.

《민족자립을 반대하지 않으신다니 그거면 됩니다. 그 다음문제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해결할수 있을겁니다. 사람도 집단도 그리고 민족도 어떤 신념을 갖고있는가에

따라 기상도 체모도 많이 달라진다고 우리는 확신하고있습니다. 또 사람이란 결심해서 못하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호방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김구와 김규식에게 또다시 《봉화》 담배가치를 나누어주시었으며 성냥을 그어 불을 붙여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셨다. 성시백에게 애용하는 회중시계를 준 후에 새로 마련하신 시계였다.

《잠간 문병을 하고 돌아간다는것이 너무 오래 앉아있은것 같습니다. 김구선생은 오후회의에 참석하자면 점심도 들고 좀 쉬기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김규식선생은 오후에도 려독을 푸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문건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문건들을 선생님에게 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김규식은 깊은 사색에서 비로소 깨어나 간단한 말을 한마디 했다.

《폭넓고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정녕 감사하기 이룰데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상수리숙소를 책임진 관리일군을 불러 김규식선생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게 오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하게 하라고 지시를 주고 숙소를 떠나시었다.

3

김구는 황철을 참관하러 떠나기전에 김규식의 응접실에 들렀다. 우사를 마주하고앉아 황철에 같이 가자고 하다가 언짢은 기색으로 말했다.

《회의에도 참가하지 않아 바깥출입도 하지 않아 이럴바엔 뭇때문에 평양에 왔나? 우사는 혹시 나한테도 말할수 없는 께름한 일을 안고 평양에 오지 않았나?》

김구는 살갓이 벗겨질만큼 코밑을 세계 문질렀다. 흥분했을 때의 버릇이다. 김규식은 기이느것도 없었고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것도 아니였다. 모두들 회의에 참가한 뒤나 참관을 떠난 후 그는 개화장을 내짚으며 봄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기도 했으며 한번은 시내를 돌아보기도 했다. 그때도 장군님께서 상수리숙소에 오셔서 한 말씀을 되씹느라고 시민들의 밝고 명랑한 표정이며 씩씩한 걸음에 별로 주의를 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거리를 나다니는 소련군장병들의 수자만은 주의를 집중해 세여봤다.

시간을 보낼 방도가 바이 없는 사람처럼 개화장을 내짚으며 정원을 산책하면서는 련석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와 결정서, 격문, 호소문의 매 문장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며 그에 담긴 저의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고심을 했다.

그러나 아직 확고한 견해를 가질만한 결론을 얻은것이란 없었다. 장군님께서 상수리숙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뜻은 명백한것 같았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에 조선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맞설 결심을 하고계신게 분명했다. 이 대의를 이룩하자면 민족적자존심을 높여주어야 할것이며 사대의존사상을 배격해야 할것이다. 김규식도 장군님의 이 심원한 뜻에는 깊이 감동되었으며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싶었다. 그러나 조선은 세계의 두 초대국사이에 끼여있는 《약소민족》이다. 만일 민족자립의 리념을 동방조선에 허용한다면 제2차대전을 통해 소련이 점유한 동유럽권의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추켜들것이다.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자심하신 배려에는 김규식도 눈곱이 뜨거워지곤 했다. 그러나 조선의 운명과 전도는 세심한 보살핌이나 일시적인 물질적대우로 해결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장군님께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갈구하는 남조선대표들에게 그보다 더한것이라도 주고싶으실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에는 쏘련군이 주둔해있다. 그들이 남북협상의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는지, 협상에 음밀히 영향을 주고있지 않는지, 그것은 아직도 알수 없는 일이다.

김규식이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 격문, 호소문의 자자구구를 따지는것은 이때문이였으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을 뒤채기다 침대에서 뛰쳐일어나 어스레한 그림자를 끌며 침실안을 끝없이 오가는것도 이탓이였다.

그는 제탄에 주권이 서기전에는 회의참가는 물론 공장, 농촌, 문화기관을 참관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김구의 푸념을 추연한 기색으로 말없이 듣고있었던 김규식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나직이 대답했다.

《백범형은 제철소에 다녀오십시오. 내가 숙소에 있는것은 그럴만한 리유가 있기때문입니다. 내가 계름한 일거리를 안고 들어왔다고 하는 백범형의 말이 무엇을 념두에 둔것인지 나도 압니다. 그것이 계름한것인지 민족을 위한것인지 하는것은 시간이 대답해줄겁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는 기색이란 전혀 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오히려 설득시키려는 우사를 김구는 리해하기 어려운 눈길로 마주봤다.

장군님께서 능력있는 의사들을 붙여주고 값진 보약을 보내주시여 서울에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호사를 하는데 김규식의 외모는 초췌해보일만큼 수척해가기만 한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심뇌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참으로 알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만하면 김규식의 사람됨을 충분히 알고있다고 믿었는데 요즘의 그는 안개자욱한 드넓은 강 대안에 도무지 가려볼수 없는 모습으로 서있는것 같다.

《우사의 탈은 생각이 너무 번다한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세상리치란 사실 따지고보면 별다른것이 아니지 않나? 필시 우사가 부심하는것도 민족이냐? 양놈이냐? 이것이겠는데 뭘 길게 생각할게 있다. <한국>사람인 우리는 한민족의 편에 서는게 당연하지 않나. 이 말은 내가 우사에게 한번 꼭 하고싶었던 말이네.》

김구는 훌쩍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다음날 저녁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해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쓰는 김규식의 귀에 만경대를 견학하고 돌아온 대표들의 흥분한 말이 날아들었다.

저녁식사를 앞두고 객실로 리용하던 모양인 홀에 대표들이 모여들어 떠드는 말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은 천대와 구박을 받는 조선의 평범한 백성속에서 나온 영걸이라느니, 70이 넘은 조부모님에게 험한 농사일을 하게 하는 수령은 없을것이라느니, 만경대의 아름다운 산천경개는 위인을 낳을 지세라느니,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하는 말을 들은 김규식은 해답을 찾는데 만경대가 도움을 줄것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생가가 있다는 만경대에는 꼭 가보고싶었다.

김규식은 다음날로 소문을 내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만경대에 가보기로 했다. 그러나 방향도 위치도 모르는터에 혼자 자동차를 타고 훌쩍 떠날수는 없었다. 생각을 굴리던 그는 허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이날밤 상수리숙소에 나와있는 영접책임자에게 허현과 련계를 취할수 있는 방도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다.

《래일 10시경에 나 있는곳에 와주지 않겠소이까?》

《무슨 일이 있소이까?》

《내 극인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소이다.》

김규식이 상세한 말을 전화로 이야기하지 않으려한다는것을 눈치챈 허현은 알았다는 말을 한마디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오전 김규식과 허현은 한자동차에 올라앉아 만경대를 향해 떠났다.

남포방향으로 뺨은 포장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는 봄물이 오른 싱싱한 애솔나무에 뒤덮인 야산사이를 꿰어나간 곁길에 들어섰다.

달구지길이라고 해야 할 불통불통한 농촌의 좁은 길이다. 자동차가 들추는대로 몸을 맡기고 앉았느라니 갑자기 왼쪽에 웅장한 건물이 보였다. 김규식이 유심히 바라보는것을 눈치챈 허현이 차를 멈추었다.

《혁명가유자녀학원이웨다. 한번 들어가보지 않겠소이까?》

허현이 김규식의 의향을 묻고나서 차문을 열고 밖에 나섰다. 김규식은 학원의 교문안에 들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긴 그의 몸으로 학원을 돌아보기는 어려울것이다. 허현은 교문앞에 선채로 짧은 설명을 할수밖에 없었다.

《나라를 찾는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혁명렬사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학원이웨다.》

봄하늘을 등지고 정갈한 연회색빛으로 단장한 웅장한 교사, 지난날 불모의 땅이였을 골바닥에 펼쳐진 드넓은 운동장에서는 한창 자랄 나이의 원아들이 공을 날리며 승부를 겨루고있었다.

체육시간인 모양이다. 김규식의 눈앞에 엿저녁에 찾아왔던 김구의 얼굴이 불현듯 떠올랐다.

《림정주석이란 나는 련사들의 자녀는커녕 가까이에 있는 동지들의 끼니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있는데 김장군께서는 만주광야에 널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공부를 시키고있지 않겠나. 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네만 마음속으로는 면구한 생각이 없지 않았네. 우리가 궁색한 처지에 있는것만은 사실이네만 결심만 했으면 련사들의 유자녀들이 공부하는 학원 하나쯤 세우지 못했겠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했네.》

김구는 금시 눈물을 떨굴것 같은 추연한 얼굴이었다. 끝날처럼 가슴속에 들어와박히는 말이여서 김규식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종합대학과 함께 혁명가유자녀학원 건설,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을 설계하고계시는 장군님의 신심에 넘친 기상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바로 그 유자녀학원을 앞에 두고 서있는것이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오히려 낫다는 속담 그대로 김규식의 감동은 자못 컸다. 혁명렬사들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다 공부를 시키고있다는

장군님의 의리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광복된지 불과 3년밖에 안되는데 종합대학과 함께 유자녀학원을 이렇게도 웅장하게 일떠세울수 있는 재력에 놀랄수밖에 없었다.

《학교를 세우자면 돈이 있어야겠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충당했소이까? 국고가 그렇게 충실했소이까?》

김규식은 북조선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싶었다.

《나도 서울에서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으니 자세한것은 알수 없소이다. 다만 종합대학과 혁명학원을 건설할수 있는 재력에 대해서는 얼마간 알고있소이다. 요즘 나는 아침 한끼는 재령나무리벌의 옥백미를 먹고있는데 우사는 나무리벌의 옥백미를 맛보지 못하셨소?》

김규식은 장군님께서 상수리숙소에 다녀가신 후에는 서울에 있을 때와 똑같이 잣죽을 먹고있었다. 그렇지만 재령나무리벌의 농민들이 남조선대표들을 환대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싣고 왔다고 해서 그 고장의 옥백미밥을 몇숟갈 떠먹어봤다. 밥맛이 어떻게나 좋았던지 그날 저녁에는 잣죽을 밀어놓고 한사발이나 되는 밥을 거의 축냈다.

그런데 나무리벌의 입쌀과 유자녀학원건설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것인가?

허헌이 그의 의문을 쉽게 풀어주었다. 애국미헌납운동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그것을 대중적인 건국운동으로 전환시키신 장군님의 령도를 설득력있게 이야기해주었던것이다. 농민들이 자진해서 여유량곡을 나라에 바치고 그것으로 학교를 세웠다는 말을 듣고 김규식은 저으기 놀랐다. 농민들이 한푼의 돈도 생각하지 않고 청간에서 낱알섬을 메내다니? 그것도 자그만치 20가마니, 30가마니의 낱알을... 땅을 분여받은 은혜에 보답해서라고 허헌은 말하지만 그것은 리치에 구애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북조선농민들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재부를 리치와 은혜를 생각해서 아쉬움없이 내놓는 마음을 가졌다면 리상향의 무욕의 인간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할수 있는가? 어쨌든 북조선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상이 태동하고있는것만은 틀림없는것 같았다.

허헌과 김규식이 올라왔은 승용차는 조화로운 곡선을 부드럽게 그려낸 야산봉우리를 에돌아 천천히 미끄러져내려갔다. 처마낮은 초가들이 널려있는 평안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농촌마을이 눈앞에 나타났다. 야산모퉁이를 에돌던 승용차가 광목치마를 허리춤에 걸어붙인 검실검실한 얼굴의 30대의 농촌녀성옆에 멎었다.

녀성은 삼태기를 옆구리에 끼고 길가에 서있었다. 허헌은 옷차림이 얼마간 깨끗할뿐 농민과 류다른데가 별로 없는 녀인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자동차에서 내려서기까지 했으며 하대하는 투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대등한 위치에 있는 녀인을 만나 이야기하는듯한 모습이였다.

언제 평양에 올라왔는가? 회의에 참가하면서도 눈이 나빠 보지를 못했다. 상대를 위원장이라고 하는 허헌의 말을 듣고 김규식은 이야기가운데 끼우고싶어 차에서 내렸다.

허헌이 그 녀인에게 김규식을 소개했다.

《이분은 김규식선생이시오. 위원장아주머니도 대표로 련석회의에 참가했으니 알고있겠지요?》

녀인은 허리에 걸어붙였던 치마를 내리고 머리를 비다듬으며 허리를 얼마간 굽혀 인사를 차렸다.

《장군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선생님이 평양에 오셨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몰라봤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차도가 있으십니까?》

개화장을 짓고 서있는 김규식의 몸을 일별하며 존녀자답지 않게 레절이 밝은 말을 했다.

어딘지 모르게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것을 섭섭하게 여기는 기색이었지만 김규식은 녀인의 그런 태도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아주머니는 어느 계통의 대표로 회의에 참가하셨소?》

《녀맹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어느 농촌의 녀맹위원장이시오?》

녀인은 부끄럼을 머금은 표정으로 머리를 숙였다. 허헌이 옆에서 김성란을 소개하는 말을 했다.

《이 아주머니는 평북도 대령군의 군인민위원장인데 장군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는 녀성이웨다. 우리 유식인들은 흔히 학식이나 문벌,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위원장은 이 편견을 깨뜨린 대표적인물이라고 할수 있쉐다.》

《극인은 북에서 오래 살지 않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이 아주머니에 대해 그렇게도 자상히 아시오?》

김규식은 앞에 선 녀성을 깊이 알고있는것이 이상해서 허헌에게 물었다.

《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북에 들어온것은 지난해 말이웨다.

신병으로 해서 병식에 누웠다가 자리를 털고일어난것이 금년 3월인데 그때 북의 현실도 알겸 우리들이 앞으로 토의하게 될 헌법도 익힐겸 해서 지금 우리앞에 서있는 김성란위원장이 있는 군에 갔었습니다.》

남북협상참가자들은 앞으로 민족단일정권의 기본법으로 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을 토의할 예정이었다. 허헌은 그 헌법이 우리 말로 된 누구나 다 이해할수 있는 인민적헌법이 되게 하는데서 김성란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김규식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김규식은 저으기 놀라며 김성란의 모습을 다시한번 유심히 살펴보았다.

해별에 그을은 광대뼈가 두드러진 녀인, 강냉이알같은 든든한 이가 드러나군 하는 두툼한 입술... 아무리 보아야 지난날의 《군수》라고 할수 있는 군위원장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더구나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해 그 무슨 식견을 가졌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김성란에게 몇마디 말을 던져보기로 했다.

《아주머니는 헌법이 어떤 법인지 알고있소이까?》

《헌법토의사업이 있기전에는 그런 법이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체모를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제기를 어떻게 할수 있었소이까?》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늘 말씀하고계십니다. 주인이 집안의 기본법에 의견이 있으면 제기를 하는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은 인민이 아니라 군의 어른이 아녘넬까? 광복전의 말을 빌리면 군수라고 할수 있지 않습넬까?》

《저는 가난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지금도 집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조선에선 군위원장이 인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광복전에 로동자, 농민을 막 부르던 일꾼이란 말을 씁니다.》

일꾼, 인민의 심부름꾼, 김규식은 또 하나의 두터운 문을 열고 새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것 같은 심정이였다.

《그런데 평북도에서 군위원장을 하는 아주머니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길에 떨어진 거름을 줍고있습니다.》

김규식은 너무나 뜻밖의 말이여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녀인의 발치에 놓여있는 삼태기를 굽어봤다. 삼태기에는 개똥, 소똥이 반쯤 담겨져있었다.

《이걸 주어서 뭘합니까?》

《칠순이 녀는 장군님의 조부모님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우리 북조선대표들에게 며칠간 틈이 생겨서 할아버님, 할머니님이 감자썩을 내실 때 농을 두엄을 모아드리자고 나왔습니다.》

이 또한 전혀 예견치 못했던 대답이였다. 고령의 장군님 조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계시여 타관의 군위원장이 만경대에 와서 길에 떨어진 두엄을 줍고있다? 혹시 만경대일가와 친척벌이 되는것이 아닐가?

허현이 옆에서 김규식의 리해를 도와주려고 했다.

《조부모님은 이미 칠순이 넘었는데 만경대에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농사를 지어서 농량을 대야 한다고 하면서 일손을 놓지 않고계십니다. 나이가 높은 늙은이들을 그대로

둘수 없어 아래사람들이 무얼 좀 갖다주면 장군님께서도 엄한 말씀이 계시군 한답네다.
》

허헌의 말이 끝나자 김성란이 뒤를 이었다.

《저희 집에도 늙은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직 환갑나이이지만 사실은 일을
농고계신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양에 올 때마다 대체로 만경대에 와보군
하는데 할아버님, 할머니들이 장손이 정사를 보는데 농사로 도와야 한다면서 어떻게나
힘들여 농사를 짓는지 저희들 보기에다 민망해서 조금씩 도와드리군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아주머니는 장군님택과 아무 인연도 없단 말입네까? 이를테면
친척별이 아닌가 말이웨다.》

이번에는 김성란이 두리두리한 검은 눈을 크게 떴다.

《제가 장군님택과 친척별이 된단 말입니까?》

김성란은 너무나 뜻밖의 질문이여서 말을 할수 없는 모양이었다.

김규식은 허망한 말을 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칠순이 넘어서도 농사를 짓는다는 조부모님,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평양에
올 때마다 만경대에 나오군 한다는 군위원장... 아무리 인민의 심부름군이라고 해도
광복전의 군수라고 할수 있는 녀인이 길에 널린 거름을 좃고있다. 만일 이것이
보편적현상이라면 북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아래사람들간의 뉴대가 보통 밀접하지
않다는것을 말해줄것이다. 장군님의 조부모님들을 한시마빠 뵙고싶었다.

《극인, 나를 장군님의 조부모님과 상면할수 있게 해주겠소?》

김규식이 조급한 심정을 안은 사람마냥 물었다.

《그거야 어려운 일이겠소. 조부모님은 이 마을의 보통농민이시오. 나도 병석에 있을 때 잠깐 나와 본 일이 있을뿐이니 인사를 드려야겠소. 이제 산굽이를 돌아서면 조부모님이 계시는 집이자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생가가 있쎄다.》

허헌과 김규식은 자동차에 올라탔다. 김성란은 허헌이 강권하다싶이하는데도 두엄이 담긴 삼태기때문인지 자동차에 올라탔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치마자락을 날리며 지름길을 달려갔다. 손님이 찾아온다는것을 선통할셈인것 같았다.

잠시후 승용차는 처마가 처져내린 한채의 초가집옆에 멎었다. 허헌의 뒤를 따라 차에서 내린 김규식은 사립문밖에서 소박하다 못해 허수해보이기까지 하는 초가집앞에서 그만 온몸이 굳어졌다.

장군님의 조부모님이니 의례히 넓은 대청이 끼우고 용마루가 덩실한 기와지붕에 사랑채가 달린 집에서 사실것이며 솟을대문밖에는 경비병이 서있을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경비병이 보이지 않는것은 말할것 없고 솟을대문은커녕 수수울바자에 사립문이 달려있을뿐인데 그것도 활짝 열려져있었다. 집도 말그대로 초가삼간 오막살이이다.

늙은 조부모님이 논밭을 두지며 살자면 집을 개축할 여유가 없을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장군님께서도 인간이신데 늙은 조부모님이 이런 곤궁한 생활을 하는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것인가. 그러나 나라의 정사는 하나의 법에 기초해서 실현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여 그이께서는 고령의 조부모님을 고생시키면서도 엄정한 정치를 펴고계실것이며 조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일을 극력 삼가하고계실것이다. 김규식은

송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기를 비롯해 김구, 리승만 그외에 이른바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사람들이 조국에 귀국한 후의 행동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모두는 귀국하자 생활상특전을 받으려고 얼마나 급급해했던가.

자기만 해도 친일족속인 민규식이 제공해준 요란한 양옥집에서 살고있으며 재벌들이 정치자금명색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궁색하지 않게 지내고있다. 김구도 친일족속인 광산 《왕》 최창학이 제공해준 저택에서 살고있으며 리승만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것도 없었다.

자기에게 만일 조부모님이 계신다면 농촌에서 이렇듯 처마가 처져내린 초가마가리에서 곤궁한 생활을 하게 하겠는가. 김규식은 자기네와 **김일성장군** 사이의 차이를 다시한번 통절하게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자, 들어가서 조부모님께 인사나 드립시다.》

김규식은 허헌의 독촉을 받고 발걸음을 땀다.

할아버님은 집뒤에서 수수바자를 겨루고계셨다.

김규식은 중절모를 벗어두고 머리를 숙였다.

《제 김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오. 김규식선생이 평양에 왔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 선통도 없이 이렇게 루추한 집을 갑자기 찾으셨소?》

《장군님께서 어떤 집에서 탄생하시구 할아버님, 할머니님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왔습니다.》

허헌이 말씀드렸다.

《선생은 뉘시오? 몇달전에 한번 왔다간분이로군. 우리 집 장군이 일을 보는데서 선전부장을 하는 그 허가성을 가진 여자부장의 부친이 아니요?》

《기억력도 좋으십니다. 제 허정숙의 아버지 허헌입니다.》

《웁아, 외자이름이래서 잊지 않고있쎄다. 그때는 서울에서 미국놈하구 싸우다가 병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쾌차하셨소?》

《네, 장군님께서 보살펴주셔서 병을 털었습니다.》

허헌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김보현선생의 손이며 헌 무명천버선에 짚신을 신은 발이며 옷차림을 김규식은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한결 살이 빠졌지만 일생 농사로 늙은 험한 손이었으며 짚신이며 버선을 보아 조반전에 밭일을 하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해별에 그을은 얼굴에는 농사일에 시달린 거치른 주름이 가득하다.

김성란위원장이 모지름을 쓰며 명석을 끌어다 폈다.

《루추하지만 여기에 앉아서 말씀하시지요.》

허헌과 김규식은 신발을 벗고 명석에 앉아 김보현선생님과 잠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손이 장군님이신데 왜 평양에 들어가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지 않고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을 하십니까?》

《내 아직 오금을 놀릴수 있는데 농사군이 농사를 지어야지 장손이 정사를 본다구 얹혀살아서야 되겠소.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은즉 우리가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거두어들여야 장군을 돕는것으로 되지 않겠소. 하긴 우리 집 녀장군이 강권해서 며칠간 장손네 집에 가있었습니다. 한생 일로 늙은 사람이 비자루질이나 하면서 우두커니

앉아있자니 답답하기도 했지만 장군은 점심, 저녁때식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정사를 보는데 할아버지란 사람이 우두커니 앉아있을수 있겠습데까. 어떤 날은 밤을 밝히면서 정사를 봄데다. 내 보다 못해 하루는 깊은 밤에 장군이 일을 보는 방에 찾아들어갔체다. 내 장군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물었체다. 급한 일이 그렇게도 많은가? 사람의 몸이 무쇠로 되지 않은 이상 쉬기도 해야 할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소견에 이런 말을 했체다. 그런데 장군은 우리 집안이 왜놈들한테 어떤 구박을 받았구 어떤 참혹한 일을 겪었는가? 할머니는 20년만에 집에 들어서는 내 손을 붙들고 왜 혼자 오느냐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셨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웃는 얼굴을 지었지만 가슴속에는 피눈물이 고이는것 같았습니다. 부모들은 어째서 단명으로 세상을 떠나구 동생은 갓 20에 유해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까? 삼촌은 어째서 옥사를 해야 했습니까? 나라가 망한탓이 아닙니까.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또 집어삼키자고 합니다. 이런 때 끼니를 번지고 밤잠을 좀 자지 못하는것이 무엇이 큰일이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당한 구박과 천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민족모두가 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것이 아니겠소. 내 정신이 번쩍 들었습네다. 만아들 김형직이 독립운동을 하다 남의 나라 땅에서 숨을 거두고 셋째 김형권이 파발리사건이란것을 일으켜가지구 서울감옥에 끌려가구 장손이 백두산에서 싸우기 시작한 후 우리 집앞에는 왜놈순사들이 틀고앉아서 하루 24시간 떠나지 않았체다. 집앞의 나무그늘에 떡 들어앉아가지구 술을 처마시면서 농사를 짓는 나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갖구 트집을 걸고 야료를 부리지 않겠체까? 오죽하면 우리 형록이가 그놈들에게 그늘을 던져주는 나무를 찍어버리고말았겠습니까. 장손이 나라를 찾은 다음 반드시 집에 돌아온다는 생각이

없었으면 왜놈 한두놈을 도끼질해서 죽여버리고 우리도 죽고싶은 생각이 불끈 치밀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쎄다.》

할아버님은 억이 막힌 지난날을 이야기하느라니 격한 마음을 달랠길 없는듯 장수연담배를 짤은 담배대끝에 달린 대통에 흠살이 오른 터실터실한 엄지손가락으로 꺾꺾 다져넣으셨다.

《여기에 괜찮은 담배가 있습니다.》

김규식은 《봉화》담배를 김보현할아버님앞에 내놓았다. 할아버님은 김규식이 내놓은 담배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 대통에 불을 달았다.

《장군의 말을 들은 다음날 로친네를 끌고 만경대로 나왔쎄다.》

이렇게 말하고는 수수바자를 다시 겨루기 시작하는데 할아버님의 눈썹은 분명히 질벽하게 젖어있었다. 김규식은 시뻘겋게 단 쇠몽둥이가 가슴속을 지지는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일제의 야수적만행을 몇번 목격하고 조부모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통하고 참을길 없는 비분을 느낀적이 있었으며 그때 받은 상처는 지금도 가슴속에 깊은 자욱을 남기고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오다가다 몇번 목격한데 지나지 않은 참변들이었다.

그러나 할아버님께서는 아들형제가 일제에게 항거하여 싸운 독립운동자들인데다 장손은 왜놈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으며 항일전을 즐기치게 전개한 영걸이셨으니 일제놈들의 박해는 얼마나 가혹했을것인가. 형틀에 올라설 각오를 하고 왜놈들의 대가리를 박산내고싶으셨다는 말씀은 더없이 진실한 표현일것이다.

《제 집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승업한 감정에 휩싸여 묵묵히 앉아있던 김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촌집에 무엇이 볼게 있겠다고 그러시오. 집을 보기 위해 일부러 오신것 같으니 보지 말라구는 못하겠지만 루추한 촌집이웨다.》

김규식은 품을 들여 장군님께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내신 삼간초가를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회떡을 두텁게 이겨붙인 장독대의 독, 곤궁한 농촌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농쟁기들... 그는 헛간에 들어가 쌀독뚜껑을 열어봤다. 중독에 좁쌀이 절반쯤 있었고 작은 향아리에 흰쌀이 절반쯤 담겨있었다. 이것이 햇곡식이 날 때까지의 농량의 전부일것이다. 움에 들어가보니 무우동침 반독이 있을뿐이었다. 방안은 장관도 아닌 노전이 깔려있었으며 방 한가운데 장군님께서 어렸을 때 공부를 하셨을 너무나도 작은 책상 한개, 옷방에는 평안도 산골의 군위원장이 짝을 낼 때 놓아줄 두엄을 줍는다던 바로 그 고구마씨가 과랴게 자라고있었다. 청빈이라는 말을 쓰기도 어려운 극빈한 농민의 집이었다. 김규식은 장군님께서 인민들과 그렇게도 친근하게 지내고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시게 된 까닭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수 있을것 같았다. 뒤울안에 다시 돌아온 김규식은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끓이고있는 김성란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군위원장이 되기까지의 경위를 알고싶었던것이다.

멍석우에 올방자를 틀고앉은 김규식앞에 김성란은 다소곳이 모뎀어앉았다.

《내게 어떻게 군위원장이 됐는지 자세히 말해줄수 없겠소이까?》

김성란은 곧 입을 열지 못하고 생각을 가다듬는 표정인데 할아버님께서 대통의 담배재를 털며 느닷없이 말씀을 하셨다.

《저 위원장은 이제 더 큰일을 하게 될겁니다. 내 그것을 장담할수 있체다. 우선 나라잃은 백성의 슬픔을 어머니 배속에서 태어날 때 벌써 알았으니 그렇고,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품을 보니 몸을 아낄줄 모르니 그렇다는거웨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라잃은 슬픔을 알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김규식은 물었다.

할아버님은 성란이가 군위원장을 할 때까지 김모라니라는 별스러운 이름을 갖고있는 그 기막힌 사연을 떠엽떠엽 이야기하시였다.

김규식은 할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얼흔이 나간 사람의 기색으로 군위원장을 다시 한번 뜯어봤다.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세상빛을 보이지 않을 생각을 하다니? 우리 겨레가 이렇게도 참혹하게 살아왔던가? 자신도 너무 배가 고파 벽지를 뜯어먹기까지 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는것도 서슴지 않는것이 어머니의 본성인데 갓 태어난 딸을 이 세상에서 몰아낼 생각을 하다니? 하기는 어머니이기때문에 그런 독한 마음을 품을수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의 불쌍한 과거를 상징하는 이름을 장군님께서 성란이라고 고쳐주셨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담배를 빠는것마저 잊었다. 산간벽지의 군위원장의 이름을 고쳐주실 때 장군님께서 체험하셨을 기쁨을 짐작할수 있을것 같았다.

장군님께서는 억이 막힌 불행속에서 민중을 구원해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시며
간고한 항일전을 전개한것이 아닐가. 광복후 시책도 그런 기쁨속에 태어난것이
아닐가?...

《위원장아주머니는 애국미를 얼마나 헌납했소이까?》

문득 김규식이 물었다.

《겨우 8가마니를 했습니다.》

대령군이 얼마나 궁벽한 산골이며 땅이 얼마나 척박한 고장인지 알지 못하는
김규식은 20가마니, 30가마니의 낱알을 냈다는 농민들보다 수자가 지나치게 적은것
같이 느껴졌다.

김보현할아버님께서 바자를 겨루며 던지시 말씀하시였다.

《군위원장은 애국미헌납운동때에도 참으로 큰 성의를 바쳤쇄다.》

제사때와 시부모의 생일에 쓸 쌀을 내놓고 한해농량을 거의 전부 바치다싶이 하고
집에서는 죽물을 우렸다는 이런 사정을 안 장군님께서 쌀을 보내주시며
애국미헌납운동은 죽을 쓸 결심을 하고 진행하는 대중운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는것...

《어째서 그런 고생을 결심하면서 애국미를 낼 생각을 했소이까?》

김성란은 김규식의 의문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있을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아주머니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거겠소이다?》

《그럼요, 우린 달리 생각할래야 생각할수 없습니다.》

조금도 의심할나위가 없는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김성란의 얼굴을 김규식은 덤덤히 마주보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명백한 대답을 할수 있을까? 생각이 단순한탓일까? 궁핍을 겪으며 살아온 너인은 앞날을 타산하지 않을수 없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자신도 이국에서 생활에 쪼들릴 때는 생계를 타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 무엇이 한해농사를 내놓다싶이 하는 그런 엄청난 결심을 하게 했을것인가? 언뜻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가지 해답을 찾기는 했으나 그것은 사람이 수많은 실패와 탐구를 거쳐 마침내 도달할수 있는 믿음의 세계, 신념을 자기의것으로 만든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였다. 곤궁속에 살아온 너인이여서 그런 엄청난 결심을 했을것인가?

《위원장아주머니는 쉽게 말하는데 그런 결심을 한것이 무엇인것 같습니까? 생활상타산입니까? 믿음입니까?》

김성란은 별로 깊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장군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다.

《어떻게 돼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말해줄수 없겠소이까?》

김성란은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나서 조리있는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땅을 부여받았을 때의 고마움, 글눈이 텅을 때의 기쁨, 이런 희한한 일을 혼자 누릴수 없다고 생각해서 문맹자들의 글눈을 띄여주려고 뛰어다닐 때의 행복, 제일먼저 문맹퇴치군을 만들어냈다고 표창을 받을 때 비로소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가슴벅차게 느끼던 일, 자기와 같은 여성들이 정권기관사업을 해야 한다시며 장군님께서 군인민위원회 일군으로 사업하게 해주실 때의 감격...

북조선에서는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나고있구나! 새형의 인간으로 탄생한 사람들이 광대뼈가 두둑하고 입술이 두터운 이 여성만이겠는가? 우선 재령나무리벌의 김제원이란 농민이 그럴것이다. 아니, 종합대학과 학원, 농기계임경소를 일떠세울수 있는 막대한 낱알을 헌납한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런 재생의 희열을 체험했을것이다.

김규식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벅찬 현실에 맞다든 심정이였다. 심장은 감격하고 흥분하지 않을수 없는 새 세계의 발견을 예감한듯 들먹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앞에 앉아 울바자를 겨루시는 할아버님의 주름깊은 얼굴이며 수수한 옷, 흠살이 두텁게 얹은 손, 처마낮은 소박한 초가삼간을 새로운 눈으로 에둘러보았다.

이 소박한 초가집에서 태어나 민중의 괴로움을 느끼시며 성장할 때 이미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을 민중해방의 큰 뜻이 오늘날 새로운 인간상을 수많은 만들어내고있지 않겠는가.

《그래 군위원장은 장군님을 자주 만나보시오?》

김규식은 리성을 갈아세우려고 애쓰며 물었다.

《군에서 일을 하는 제가 어떻게 장군님을 자주 뵈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세번 뵈웠습니다. 이번 남북협상회의때와 같이 회의장에서 뵈것 말구 개별적으로는 세번입니다.》

장군님처럼 다망하신 정치적수령이 산골군의 한 여성을 세번 만나셨으면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신다고 해야 할것이다.

《장군님을 대하면서 제일 인상깊었던 때가 언제인지 말해줄수 없겠소이까?》

김성란은 잠시 생각을 더듬는 기색이더니 장군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 이름을 받아안았을 때라고 했다. 그 당시 자기는 정권기관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라고 하면서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봉건이란 말을 듣는 최로인을 옹호했다고 하는데 그 로인은 어떤분이시요? 군위원장은 왜 그 로인을 옹호하셨소?》

김규식은 자못 흥미를 느낀듯 물었다. 비록 머리에 상투를 틀고 한개 마을을 씨족마을로 꾸리고 유교교리를 설교하고있었지만 최로인은 일제시기 마을앞의 울창한 숲밭을 지켜냈으며 대령과 같은 궁벽한 산간농민들의 생활향상에 관심을 보이고있었다. 만일 시대의 변천을 최로인이 깨닫지 못한다면 문중의 술한 청소년들이 봉건교리의 희생자로 될수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 최씨문중도 민주조선의 한 성원이 되어 건국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시였다. 그 문중의 최성근이란 청년을 군대에 입대시켰다. 그 최성근이 며칠후에 진행될 열병식에 참가한다. 최로인은 열병식에 참가한 아들을 보려고 평양에 올라오겠다고 하고있다. ...

한사람의 농촌녀성을 구원해주려고 큰 간부를 파견하여 잘못을 가리게 하셨을뿐아니라 기구하고 불행한 운명을 상징하는 이름을 버리게 하고싶어 새 이름까지 지어주시다니... 그러니 위원장이 운명을 의탁한 령도자로 장군님을 받드는것은 의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를 서슴없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던 김성란의 말이 새로운 뜻을 띠고 김규식의 머리속을 오갔다.

수천년간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며 질곡과 천대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키우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구나... 그런데 험애한 일군들한테 《봉건》이란 말을 들으며 술밭속에 불박혀살던 최로인과 같은 사람도 북조선의 인민들과 똑같이 나라의 주인대접을 받고있다고 한다.

북조선에서는 타도대상이 되고있는줄로만 알았던 봉건교리의 신봉자 최로인까지 장군님의 정치에 공감하고있다는것은 열병식에 참가한 아들을 보려고 평양에 올라오겠다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그러니 북조선의 전체 인민이 그이를 흠모하고 따르고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명상에 잠겨 담배를 태우고난 김규식은 명석에서 일어섰다.

《제 다시한번 집을 돌아보겠소이다.》

허헌도 자리에서 일어나 김규식의 뒤를 따랐다.

김규식은 가난이 내뻔 가장집물이며 농쟁기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뜻을 찾아내여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군 했다. 조선의 가난이 그대로 내뻔듯한 앓은책상, 농짚, 노전, 장독과 보습... 이런 가난을 털어버리고 새 기상이 약동하는 조국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청년장군! 3천만 조선인민이 그이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시려고 그리도 큰 로고를 바치는 그이!

《나는 만경대에 와서 참으로 큰것을 깨달았소이다! 태동하는 새 조선을 안것 같소이다.》

《나도 오늘 많은것을 알았소이다. 헌법에 나라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명기되어있어 그것을 그저 장군님의 리념으로 받아들였었는데 내 생각이 짧았습네다.》

허헌은 벅찬 감동에 휩싸인 음성으로 말했다.

《그 리념은 이 초가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것이웬다. 리념을 생각해내기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것을 장군님께서 실현해나가고계십니다그러.》

《지당한 말씀이웬다.》

장군님의 사상을 납득시키려고 그렇게도 애썼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났었는데 이젠 김규식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봐야 할듯싶었다. 허헌은 어깨가 가벼워지는듯싶었다.

《장군님께서는 김규식선생은 믿을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같췌다.》

《극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였소?》

김규식의 머리에 백범이 안타깝게 곱씹던 말이 떠올랐다. 38°선근처의 마지막역에 특별열차를 두고 협상이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자기를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말씀, 그러나 자기가 장군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될수 있는가? 김규식은 갑자기 고독감을 느꼈다. 그이의 아량과 신임이 지극하다는것도 알고 그이께서 걸출한 령도자라는것을 안 지금에도 거리감을 느끼는 자기야말로 불우한 인간이라고 해야 할것 같았다. 그 거리감이 어디에서 오는것인지 알수는 없다. 앞으로 남과 북의 정상으로 38°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 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인가? 아직도 지난날의 주건을 고집하고있는탓인가? 수십년간 뇌수를 물들인 불우한 《약소민족》정치인의 피해의식을 버리지 못해서인가? 어쨌든 그는 새것을 감수한 깊은 감회를 안고있는 지금도 스스로를 외로운 존재로 느끼고있었다.

《우사가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참가를 미루고있을 때 장군님의 심뇌가 어떠했는지 아시오?...》

사려깊은 사색에 습관된 김규식의 검은 눈에 한순간 그늘이 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긴 그때는 장군님을 너무나 몰랐어...》

김규식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이젠 떠나지 않겠소이까? 가던 길에 유자녀학원에 들러보고싶소이다.》

《학원에 들리자면 서둘러야 할것 같쉐다.》

떠나겠다고 하직인사를 하는 허헌, 김규식을 김성란은 손을 붙들다싶이하면서 지금 고구마를 삶는중이라고 했다. 조부모님께서도 모처럼 찾아왔다가 때식전에 떠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나무라다싶이 하시였다. 김규식에게 고질이 있어 일체 바깥음식을 들지 못한다는 말로 강권을 사양하고 허헌, 김규식은 사립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무거운 걸음으로 응접실에 들어선 김규식은 몸을 지탱하기 어려운듯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 등받이에 옷몸을 지그시 기댔다. 잠시 눈을 지르감고 그 어떤 생각을 추적하는듯싶던 그는 옷몸을 일으켜 담배갑을 손더듬으로 찾아서 한가치를 입에 물었다. 연기를 날리며 모지름을 썼지만 생각은 여간해 종잡히지 않았다.

만경대에서 돌아오는 차중에서 머리에 거칫거리던 검은 빛갈의 그 의혹이 그의 사색을 한사코 방해했다. 체념과 의혹에 습관된 늙어버린 자기같은 사람의 심장도 청춘의 활력을 되찾은듯, 희망을 예감한듯 들먹거리게 하던 만경대에서 받은 충격을

사색의 그물에 려과시키려는데 문득 뇌리를 스쳐지나는 한가지 생각이 있었다. 장군님께서 인민 매개인을 자각된 새 인간으로 성장시키려고 크나큰 로고를 바치고계신다고 해서 현재의 우리 나라가 과연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할수 있겠는가? 이런 의혹이 그의 머리에 검은 그늘을 던졌던것이다. 들먹거리던 심장은 금시에 활력을 잃고 잦아들었다. 숙소에 돌아와 늦점심을 들 때는 어쨌든 만경대에서 받은 그 충격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지만 심장은 다시는 높뛰지 않았다. 김규식의 머리에 또다시 체념과 의혹의 회색장막이 뒤덮인것이다. 그는 종착점이 없는 착잡한 사색에 시달리며 응접실안을 오가기도 하고 쏘파에 앉아 담배연기를 날리기도 했다. 아무도 만나고싶지 않아 손기척소리에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윤명현이 방안에 들어섰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수제자여서 내버려두었다.

《만경대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스승의 얼굴에 비긴 고뇌의 빛을 감축한 모양이었다. 김규식은 얼굴도 들지 않고 무거운 음성으로 중얼거리듯 대꾸했다.

《만경대하구는 상관이 없는 일이네.》

수난자의 괴로움을 안고있는듯한 쏘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김규식을 내려다보기가 안타까운듯 윤명현은 긴숨을 내쉬고나서 말을 했다.

《평양에 들어온 후에 모두들 얼굴색이 환해졌는데 선생님은 어째서 그렇게 무거운 표정을 짓고계십니까? 하지가 던진 미끼를 생각하는게 아닙니까? 그건 룡간질입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그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네.》

《그럼 무엇을 두고 그렇게 심뇌를 하십니까?》

김규식은 힘겹게 쏘파에서 일어섰다. 자기를 제일 깊이 알고있는 수제자가 번뇌의 일단도 이해하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다. 응접실안을 오가며 불만이 어린 목소리로 몇마디의 말을 던졌다.

《자넨 나의 고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옆에 있었나? 민족자주, 그것이 가능하면 그 가까이에라도 우리 겨레를 끌어가고싶은것이 내 소원이네. 내가 북에 들어와서 본것이 무엇인줄 아나? 민족자립을 희망하는 남북 정치인들의 갈구이구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성취하려는 노력일세. 내가 만경대에 나가서 감복한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 갈구와 노력에 속한다고 해야 할것이네. 그래 자네는 희망과 갈구, 노력으로 세계 량초대국의 간섭을 물리칠수 있다고 생각하나?》

윤명현은 김규식이 얼마나 심각한 고뇌에 빠져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는 스승의 번뇌에 동감도 추종도 하고싶지 않았다. 그 길에 들어서는 날에는 파멸이 있을뿐이라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황해제철소에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힘이 솟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윤명현이 권고했다.

《어떻게 돼서 힘이 솟는다는건가?》

《황철은 북에서 시행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큰 몫을 담당한 제철소입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 제철소 하나를 보구 우리 민족이 자립할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던 말인가?》

어쩐지 자기를 비웃는것 같아 윤명현의 심중에서 반발심이 꿈틀거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도 가보시면 느끼는바가 클겁니다.》

한개 제철소를 돌아보고 민족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니 청년의 혈기가 좋다는것은 무모성때문이 아닌가싶다. 제자의 무모한 확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경도 할겸 울적한 고뇌에서 일시 탈피도 할겸 한번 가볼수도 있지 않는가?

《자네들은 그 제철소에 아침에 떠나서 저녁에 돌아왔지?》

《대접을 받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식을 늘이려고 책도 보는것이니 제철소를 돌아보는것도 나쁠것 같지 않았다.

《래일 아침에 그 제철소에 가보기로 하세. 나하고 자네 둘이서 가세. 소문을 내지 말구.》

《우리는 손님들인데 일단 북조선측에 사전통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네가 알아서 조치하계. 후한 대접을 받느라고 시간을 바쳤다니 하는 말이네. 우리는 그런 폐를 끼치지 말자는것이네.》

《래일 아침 떠날 때 간단하게 통지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다음날 김규식과 윤명현은 한 자동차에 올라앉아 상수리숙소를 떠났다.

4

승용차는 황철구내에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김규식은 차에서 내려 제철소전경을 에둘러봤다.

황철참관을 그닥지 않게 생각하며 지난밤 눈앞에 그려본 제철소와는 대비도 할수 없게 우선 규모가 여간 방대하지 않았다. 대도시의 고층건물인양 소소리높이 솟아있는

해탄로, 파랗고 노랗고 흰연기를 내뿜으며 줄지어 늘어선 굴뚝들, 그 밑에서 기관차가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화차를 달고 기세좋게 달리고있었다. 거기에다 거대한 철탑모양의 한 용광로에서 출선이 시작된듯 작렬하는 백열광을 토해내며 몸부림을 치고있었다.

김규식은 창조적열의가 끊어번지는 제철소의 분위기에 어지간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북조선의 공업을 왜놈들이 깡그리 파괴하고 달아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도 거대한 제철소를 재생시켰는가!

김규식이 로체에서 너울거리며 쏟아져나오는 쇠물을 바라보며 황철에서 생산되는 저 선철이 북조선에서 정략으로 내놓았다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있는데 등뒤에서 윤명현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들을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김규식이 말없이 머리를 끄덕거렸다. 안내자가 있어야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을것이다.

황철에서 무엇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이 제철소가 북조선의 경제건설에 어떤 기여를 하고있는지 알수 없을것이였다. 김규식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또다시 등뒤에서 《선생님, 마침 됐습니다.》 이런 윤명현의 목소리가 들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진회색양복깃안에서 와이샤쯔의 흰빛이 얼씬거리고 턱밑에는 넥타이를 드리운 젊은이와 함께 윤명현이 급히 다가오고있었다.

《련락을 늦게 받아서 마중을 하지 못해 안됐습니다. 정준택입니다.》

단정한 양복차림인 젊은이가 앞에 와서 넥타이를 옷깃안에 밀어넣으며 각듯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상수리숙소를 떠나기직전에 황철에 간다는 통고를 해서 이제야 소식이 온 모양이다.

《북조선인민위원회 기획국장선생입니다. 현재는 산업국사업에도 관여하고있답니다. 안내하는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규식은 동그스름한 얼굴에 눈섭질은 정준택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며 나이를 대충 잡아봤다. 기껏잡아 30대 중엽일것이다. 이렇게도 젊은 사람이 기획만이 아니라 산업도 관여하고있다니?... 지난해 2월 북조선에서 인민위원회를 내올 때 비서들이 북조선의 최고집행기관의 조직기구라면서 한통의 서류를 그앞에 놓아주었다. 자기의 기억력을 믿을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여라문개나 되는 국의 이름이 내리적혀있는 백지에 기획국, 산업국이 맨우에 놓여있어 김규식은 의혹을 품고 이 순서가 북조선에서 발표한 그대로인가고 물었다. 첫자리는 그렇다치더라도 두번째자리는 내무국이 아니면 외무국이 차지해야 할것인데 산업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 아무래도 눈에 설었다. 비서들은 북조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결정 그대로라고 했다. 앞에 서있는 30대 중반의 젊은이가 북조선에서 가장 중시하는 두개의 부서를 틀어쥐고있는 간부인셈이었다. 김규식은 자기도 딱 짝어 그 리유를 알수 없는 의혹에 사로잡혀 우선 나이를 물었다.

《년세는 어떻게 되시오?》

《올해 35입니다.》

《35?》

35에 북조선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서들을 손에 거머쥔 《대신》 자리에 올라앉다니? 좀더 나이가 듬직하고 경험있는 사람이 없었던가? 정준택의 학력을 묻고싶었지만 자신의 의혹을 너무 로골적으로 내보이는것 같아 예돌아 묻기로 했다.

《35에 두개의 국을 책임진 국장이라니 참으로 비상하웨다. 장군님과 함께 싸우셨소?》

정준택은 어쭙은 기색을 지으며 빙긋 웃었지만 주저없이 말을 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그런 자랑스러운 일에 전혀 관여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산업국은 책임진것이 아니라 가끔 관계할뿐입니다.》

나이에 이어 경력을 묻는것으로 봐서 김규식이 뭇을 미심쩍어하는지 짐작할수 있는 일이여서 정준택은 툭 터놓고 말하기로 했다.

《저의 부친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부평에서 대청을 지키셨습니다.》

《뭘, 뭐라고 하셨소?》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여서 김규식은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대청을 지켰다면 군수를 하셨단 말입넌까?》

《네, 군수로 살았습니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빼앗은 후에는 개성에 옮겨앉아 인삼포를 봤습니다. 저는 어린시절을 주로 개성에서 보냈습니다.》

옛날같으면 명문량가의 태생이라고 할수 있지만 노동자, 농민을 내세우는 북조선에서는 분명 거치장스러운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할것이다.

《학력은 어떻게 되시오?》

《경성고공을 마쳤습니다. 선생님에 비하면 학력이 형편없습니다.》

정녕 보잘것 없는 학력이었다. 부친이 대청을 지키고 항일투쟁에도 참가하지 않았다면 대단한 학력이라도 가지고있어야 할것인데 고작 3년학제인 고공출신이였다. 쏘련고문들이 그의 뒤에 있다고 해도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도이쉴란드나 미국의 공과대학, 하다 못해 일본의 일류급대학의 리공학부졸업생을 그 자리에 앉힐법한데 학력도 보잘것 없었다.

김규식은 남조선의 군정청처럼 북조선정권에서도 고문명색의 코큰 량반들이 판을 치고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준택에게는 그 직책에 어울리는 점이 너무나 적은듯이 느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용광로가까이로 걸어가는 김규식의 머리에 한가지 생각이 번개쳤다. 북조선은 분명히 기술자의 부족으로 해서 큰 난관에 직면해있다. 그래 할수 없이 모든 점에서 미흡한 30대 중반의 경험이 어린 젊은이를 정권기관의 중책에 앉힐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자기를 그렇게도 감동시킨 황철의 장엄한 광경도 필시 쏘련기술자들의 힘을 빌어 재생시켰을것이다.

지금 자기옆에서 걷는 윤명현은 황철을 가리켜 자립적민족경제의 본보기라고 했다. 쏘련이 전후복구건설에 필요한 철을 실어가기 위해 복구를 다그친 제철소... 그것을 보고 흥분한 윤명현, 만일 자기의 추측이 정확하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북조선에서는 규모가 큰 공장, 광산들이 적잖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미 광복전수준에 도달한 공장, 기업소도 있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해야 복구를 끝내는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제시기에는 없던 새로운 부문을 창설하기도 합니다.》

《제일 큰 난관은 무엇입니까?》

《기술자의 부족입니다.》

별로 주저하는 빛도 없이 솔직한 대답을 하는 정준택을 김규식은 의아한 눈길로 돌아봤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이야기를 미루어봐도 그렇고 얼굴생김을 봐도 그렇고 성실하고 솔직한 기술자임에는 틀림없는것 같았다.

《이 황해제철소에는 기술자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정규교육을 받은 전문가는 한명밖에 없습니다.》

《이 큰 제철소를 한명의 기술자가 운영한다 말입니까?》

용광로작업대에 올라가려고 철계단을 올려질던 김규식은 어지간히 놀래 정준택에게 물었다.

《그 한명의 기술자도 제철제강을 전문한것이 아니라 전기동력을 전문한 동무입니다. 지금 제철소에서 기사장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 기사장이 해결할수 없는 기술문제를 누가 해결해주는가고 자기가 목적인 곳으로 질문을 유도해가려는데 투닥투닥 철계단을 뛰어올라오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니 웅틀몽틀한 거뒸한 얼굴에 우람찬 체구의 청년이 옆에 와서 대바람에 김규식의 팔을 붙들어 작업대우에 끌어올리면서 자기 소개를 했다.

《지배인 전호준입니다.》

전호준은 작업반사무실에서 의자 2개를 들어내오게 해서 손님들을 앉히더니 백학처럼 흰 작업복자락을 날리며 출선후 뒤처리를 하는 용해공들을 주위에 모이게 했다. 삼을 한손에 들고 김규식앞에 온 용해공이 제철소, 특히 용광로를 어떻게

복구했는가를 이야기했다. 제철소에서 제일 처음 복구한것은 해탄로였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로임과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무쇠가마를 만들어 자체로 식량을 해결하면서 로를 복구했으며 용광로의 로안에 얼어붙은 무쇠덩어리를 정질을 해서 뜯어내느라고 막심한 고생을 했다는것... 로동자들의 말을 듣고있었던 김규식이 정준택을 돌아보며 나직한 음성으로 부탁을 했다.

《기사장을 만났으면 하는데 편의를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택은 김규식이 손님의 례의를 지키고있을뿐 용해공들의 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있다는것을 눈치채고있었다. 그의 관심은 다른데 있는것 같았다.

《기사장동무는 지금 어디에 있소?》

옆에 서있는 전호준에게 물었다.

《1호용광로에 있습니다.》

《손님들을 모시고 제강과(평로직장)로 갈테니 기사장동무를 거기에 데려오오.》

용해공들이 자랑하고싶어하는 말이 아직도 허구많은데 정준택은 이 상봉을 어중간에서 끝내버릴 심산인것 같았다. 전호준은 지난번에 참관을 왔던 남조선대표들과는 달리 로동자들의 로력적위훈에 별로 감동된 빛을 보이지 않는 손님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철계단을 내려갔다. 먼저번에 왔던 남조선대표들은 장군님께서 용해공들의 생활에 자심한 배려를 베풀어주시실뿐아니라 손등에 있는 동전있만한 화상자욱을 근심하여 용해작업을 결정적으로 기계화해야겠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앞을 다투어 용해공의 손등을 들여다봤으며 화상자리를 어루쓰는 사람도 있었다. 부모도 안해도 걱정해주지 않았던 덴자리를 장군님께서 걱정해주셨다며 목이

메여 말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대표도 있었다. 참관자들이 에둘러선 가운데 출선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굉장했다. 작열하는 백열광을 눈부시게 발산하며 쇠물이 터져나오는것을 보고 조선의 쇠물이라고 웨치는 젊은이, 만세를 부르짖는 대표들, 작업을 방해하는줄도 모르고 두루마기자락을 날리며 용해공앞에 달려가 손을 붙들고 남조선에서는 모든 공장이 숨을 죽였는데 여기서는 쇠물을 뽑고있다면서 흥분해서 말을 하는 늙은이, 너무나 감격하여 손수건을 꺼내 눈굽을 훔치는 지식인인듯한 점잖은 양복차림의 중년사나이... 그들은 분명히 북조선에서 달성한 성과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같은 피줄을 이어받은 겨레였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난 오늘의 년로한 손님은 그런 흥분, 감동을 느끼는것 같지 않았다. 전호준은 서종현과 함께 머지 않아 복구를 끝낼 1호용광로에서 사업조직을 하다 전화를 받았는데 남조선대표들중에서도 특별히 중시하는 귀중한 손님이니 그런줄 알고 매사에 빈틈이 없어야겠다고 평양에서 연락이 있었다고 했다. 정준택국장도 회의를 하다말고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뛰어나갔다고 한다. 특별히 중시하는 고위대표여서 체면을 차리느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나치게 랭담해보였다.

새로 장입을 끝낸 뒤여서 쇠들을 녹이느라고 으르렁거리는 용광로를 돌아본 김규식은 작업대를 내려섰다. 강쇠를 두드려대는 요란스러운 함마소리가 울려오는 제강직장쪽으로 걸어가던 김규식이 느닷없이 정준택에게 물었다.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북조선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있다는데 이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이 민족경제건설에 얼마나 리용되고있습니까? 기획국을 맡아보는 국장만이 알수 있는 일일것 같아 묻는거웨다.》

딱 집어 말할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숨은 내막을 이야기해달라는것과 같은 어조였다. 황철에서 생산되는 철이 모두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해 쓰일것은 뻔한 일인데 얼마나 리용되는가고 묻다니? 기획국장만이 알수 있는 일이란 또 무슨 말인가? 무엇인지 내놓고 이야기할수 없는 석연치 않은 말이였다.

《김규식선생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가 뭇이 있겠습니까?》

정준택은 김규식의 물음속에 담긴 미묘한 어조를 전혀 감촉하지 못한듯이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의 태도를 취하며 말했다.

《북조선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근 두배의 선철을 생산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생산량은 9만t입니다.》

경제에 깊지 못한 김규식이였지만 9만이란 수자가 보통수량이 아니라는것쯤은 짐작할수 있었다. 지금은 불이 꺼져버렸지만 인천의 소규모제철소의 생산을 가지고는 대비도 할수 없는 엄청난 생산량이다.

《황철에서는 올해에 선생님이 보고 오신 용광로보다 훨씬 생산이 높은 용광로를 또 하나 복구할 생각입니다. 바로 저것이 그 용광로인데 벌써 복구를 거의 끝내고있습니다. 두달내에 쇠물을 뽑게 될것입니다.》

정준택은 저만쯤에 서있는, 방금 보고온 용광로보다 체통이 훨씬 커보이는 로체를 가리켰다. 그는 9만t의 철이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선반기를 만들려고 한다, 선반기가 정밀한 기계라는것을 선생님도 알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반기를 기어이 만들어낼 결심이다, 선반이 없이는 다른 기계를 만들수 없기때문이다, 왜놈들은 선반은 물론 다른 기계도 대부분 저희 나라에서 만들어 조선에

실어왔다, 그것은 조선에서는 기계를 만들수 없다는 노예적의식을 조선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왜놈의 이 조선민족멸시정책을 깨버릴 결심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올해에 5백t급의 철선을 건조할 결심을 하셨습니다.》 정준택은 저르기 흥분한 목소리로 열정을 담아 이야기를 계속했다. 《수산자원이 무진장한 우리나라에서 뚝배나 사돌배를 가지고는 어획고를 높일수 없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장군님께서 부강한 민주조국건설을 위해 지하자원만이 아니라 수산자원까지 리용할 결심을 하셨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웬만해서는 남의 말을 듣고 흥분하는 일이 없는 김규식이었지만 정준택의 말을 듣고있느라니 심장이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호미와 낫가락, 달구지를 만드는것이 고작이던 우리 나라에서 선반기를 생산하다니? 헐어빠진 뚝배에 운명을 의탁하고 망망대해로 나가던 어민들이 5백t짜리 철선을 갖게 되다니? 비록 그것이 아직 종이장우에 썩여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나 포부가 큰, 희망에 넘친 계획인가! 거기에다 기획국장은 철의 부족이 큰 문제라고 한다. 그의 말은 제철소들에서 지금 생산되는 철을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는 말일것이다.

정준택의 말을 김규식은 쏘련에서 요구하는 철을 떼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급한 모퉁이를 메꾸느라고 여간만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었다. 조선의 북단 두만강류역의 석유화학공장의 설비를 뜯어간 쏘련이, 우리 나라 동력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수풍발전소에서 그중 성능이 좋은 발전기를 두대나 반출해간 그들이 자기네 군대가 주둔해있는 북조선에서 생산되는 철을 요구하지 않을수 없지 않는가. 하긴

기획국장의 말을 들으니 전량을 수탈해가는것 같지는 않았다. 기술적방조를 하는 대가로 혹은 그 어떤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 북조선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적잖게 실어갈것이다. 술한 군대를 주둔시키고있으면서 채부를 수탈하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가. 혈벗은 거지꼴인 남조선이지만 미국은 원조명색으로 캔디(사탕의 일종)담배, 썩은 밀가루, 술, 약품... 쓸모없는 전쟁잉여물자를 들이밀어 민중을 기만하면서 남조선의 공장기업소, 농토, 봉사시설 지어 개인주택까지 《적산》이란 명목으로 깡그리 거머쥐었다. 오죽 지배욕에 환장했으면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기도 전에 38°선이남의 남조선은 미군의 지배하에 놓이며 공용어로는 영어를 사용하며 이 포고를 위반하는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뼈라를 비행기로 살포했겠는가.

지붕을 덩실하게 떠인 구내에 들어섰다. 줄느런히 늘어선 평로의 세찬 불길의 화구밖으로 널름거리고있었다. 한쪽에서는 대형함마가 가락맞게 벌건 불덩어리인 강괴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두드려댄다. 몇번 찾아간적이 있던 남조선 공장들의 을씨년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김규식이 찾아왔다고 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환영은커녕 적의까지 보였으며 생산설비들은 파철덩어리모양 숨을 죽이고있어 마치 기계의 사체실에 들어선것 같았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서있는 제철소구내에서는 사람도 기계와 설비도 지어 제작중인 생산품까지 희열에 넘쳐 양양된 기상으로 약동하고 웨치고 춤을 추는것 같았다. 비록 쏘련에 얼마쯤 빼앗긴다고 해도 이렇게 생산을 해서 다문 몇대의 선반기, 한두척의 철배라도 만들어내는것이 옳은 일이 아닐가? 이런 방법으로 경제를 살찌우는것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김규식은 곧 자기의 생각을 강력히 부인했다. 어떤 명색으로 개입하든

경제적수탈은 정치적간섭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정치경제분야에 대한 간섭은 반드시 군사와 문화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또한 그것은 남북협상에도 개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줄것이다...

우람한 체구에 얼굴이 검실검실한 지배인이 작업복차림의 기사장을 옆에 달고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들을 지켜보던 김규식의 검은 눈이 처음은 의혹으로 해서, 다음은 놀람으로 하여 휘둥그래졌다. 세상에는 외모와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없는것이 아니지만 걸음걸이까지 저렇게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수 있는가? 김규식은 서종현을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훌쭉한 키에 남에게 언짢은 말 한마디 할것 같지 않은 어질어빠진 길쭉한 얼굴, 상대를 마주볼 담력도 갖고있지 못한것 같은 선량해보이는 큰 눈, 말씨며 생각과는 달리 무릎을 별로 굽히지 않으면서 급한 일이라도 있는것처럼 서둘러 걷는 걸음걸이... 김규식이 남창대학에서 출세욕에 들뜬 중국청년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칠 때 불쑥 찾아왔던 서상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근래에도 삼청장에 더러 찾아오곤 하는 서상문의 얼굴에서 세월의 흐름이며 서종현의 행방불명, 생활고가 덧씌운 시름과 주름을 벗겨낸다면 여불없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청년의 모습일것이다.

서종현은 김규식앞에 와서 상체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서종현입니다. 이 제철소에서 기사장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뜻밖의 일에 맞다들었다고 해도 가볍게 행동하는 김규식이 아니었다.

《자네가 어떻게 돼서 여기 와서 일을 하나? 이제 서종현이라고 했지? 기사장을 한다는것은 적실한가?》

정준택과 이야기를 나눌 때와 다름이 없는 무게있는 어조였다.

《네, 서종현입니다. 오시느라고 원로에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미흡한 점이 많은 접니다만 기사장의 중임을 맡고있습니다.》

《자네의 춘부장께서는 임자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알고있네. 이번에 북에 들어올 때 내 춘부장어른께 임자의 행방을 알아봐주겠다는 언약을 하고 들어왔네.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난 반쏘소요에 관여해서 원동에 끌려갔다는 자네가 어떻게 되어 이런 큰 제철소에서 기사장을 하나?》

《반쏘소요에 관여한것은 사실입니다만 씨비리에 끌려갔다는것은 잘못 전해진 소식입니다.》

《그러니 반쏘소요에 관여는 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현재 기사장으로 일하고있다는것인가?》

김규식은 서종현을 먼지투성이에 기름이 게발린 지하족으로부터 형클어진 머리까지 올리 훑어보며 물었다.

《제재라고는 할수 없지만 얼마간 시련을 겪기는 했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었나?》

전호준이 정준택의 안색을 힐끗 스쳐봤다. 이 세상에 없는줄 알았던 친지의 아들을 뜻밖에 만났으니 그간의 소식을 물을수도 있겠지만 제철소를 참관하러 온 손님으로서는 지나친 물음인것 같았던것이다. 서종현도 이것을 느꼈던지 잠시 눈길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긴 표정이였다.

《여긴 소란해서 말을 듣기 어려우시겠는데 우선 참관을 끝내지 않겠습니까?》

김규식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양으로 조심을 하며 서종현이 말했다. 사실 그들이 둘러선 곳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자리가 못되었다. 강쇠를 탕탕 두드려대는 함마소리, 쇠를 녹이느라고 으르렁거리며 몸부림을 치는 평로들, 와당탕 철썩 강괴를 밀어내는 소리... 김규식이 정준택에게 부탁했다.

《여기 어디 가까운 곳에 이야기를 나눌만한 곳이 없습니까? 종현군으로 말하면 나와 절친한 서상문목사의 아들이웨다. 우리는 종현군의 행방을 알수 없어 만나면 근심이였습니다.》

물론 서종현의 실종을 놓고 쏘련의 대조선정책을 이야기했다는것을 그는 말하지 않았다. 성시백이 찾아와 민족자립만이 조선을 구원할수 있는 경륜이라고 할 때마다 서종현의 실종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 제철소의 위용에 대단히 감동됐소이다. 그렇지만 종현군을 만나니 마음이 조금해지는구려. 참관을 간단히 끝내고 종현군과 이야기할수 있는 시간을 얻었으면 좋겠소이다.》

정준택은 다른 기색을 내색하지 않고 레의를 갖춘 대답을 했다.

《련석회의조직준비위원회에서는 선생님의 몸으로 황철의 넓은 구내를 다 돌아보시기 어려울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 구내를 벗어나면 좀 조용한 야외에 나서게 되고 말씀을 나누실수 있는 일요일휴양소가 머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타고오신 승용차를 거기에 대게 하겠습니다.》

간부숙소를 로동자들의 일요일휴양소로 전환시킨지 여러달이 되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니 말을 나누기엔 십상인 조용한 장소일것이다. 전호준은 김규식을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하는것이 불만인 듯한 기색이었지만 정준택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듯 김규식을 곧 구내밖으로 안내했다.

《기사장동무가 선생님에게 해설을 해드리시오. 선생님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될수록 간단히 말씀드리는것이 좋겠소.》

일요일휴양소를 향해가는 도중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 야산앞에 한개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고층건물들이 있었다. 서종현은 한참동안이나 걸음을 멈추고 저것은 해탄로라고 하는데 쇠돌을 녹이는 콧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데, 제철소로동자들은 해탄로를 제일먼저 복구했다는것, 복구할 때 이런저런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는것... 얼마쯤 걷다가 이번에는 비좁게 늘어선 고층건물들을 가리키며 저기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약을 생산하는 제약공장인데 어떤 약을 얼마만한 량을 생산하고있다는것... 정준택의 말을 숫제 무시해버린듯 긴 이야기를 했다. 서종현은 김규식을 제철소병원에까지 데려가려고 했다.

《선생님이 피곤해하시는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겠소?》

서종현을 만류한 정준택은 김규식을 마주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이제 산굽이를 돌아서면 로동자들의 일요일휴양소입니다. 하실 이야기도 많겠는데 시간에 구애되지 마시고 마음껏 회포를 나누십시오. 저희들은 돌아가겠습니다.》

《국장선생이나 지배인이 돌아가면 종현군이 난처하지 않겠소이까?》

은근하면서도 강경한 김규식의 말이였다.

《종현군은 나의 혈육이라고 할수도 있소만 내가 북조선에 들어온것은 인정에 구애되어 모든 시간을 거기에 바치자는것은 아니웨다. 종현군의 그간의 소식도

듣고싶소만 국장선생한테 알아보고싶은 문제도 있소이다. 나를 도와주는것으로 알고 모두 같이 갔으면 좋겠소이다.》

정준택은 발길을 돌릴수 없었다. 김규식을 앞세운 일행은 화창한 봄날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 모양 느린 걸음을 옮겨 휴양소에 이르렀다. 량옆에 돌기둥을 세워 철문을 여닫게 만든 정문안에 들어선 일행은 양식으로 걸모양을 꾸린 2층집 현관앞에까지 휘우듬히 뻗어올라간 차도를 얼마쯤 걸어올라가다 몇그루의 정원수가 그늘을 던진 런못가에 이르렀다. 석탁을 가운데 두고 돌의자들을 둘러앉혀서 무르익은 봄빛을 즐기며 이야기하기엔 안성맞춤한 자리였다. 한해에 한두번 왜놈의 사장이 류숙하느라고 이렇게 요란스러운 저택을 지었다는 말을 들은 김규식은 일제의 학정이 되생각나는듯 조화롭게 안배된 갖가지 정원수들이며 그 사이사이에서 봄빛과 어울려놀며 웃음짓는 꽃포기들을 둘러봤다.

돌의자에 앉아 담배연기를 빨아들이며 잠시 휴식한 김규식은 말을 시작했다.

《내 북조선에 들어와 대접이 너무 룡승해 처신에 난처한 때가 있군 합네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아직 조선이 가야 할 길을 찾는중에 있는 미련한 정치인에 지나지 않습넨다. 그래 오망을 쓰는 늙은이처럼 분별없이 이것저것 묻는 때도 있으니 널리 량해를 해주소이다.》

담배연기를 내뿜며 생각을 가다듬은 김규식은 말을 계속했다.

《내 황철을 돌아보느라니 몇가지 리해되지 않는 점이 있소이다.》

옆에 뻗치고 선 서종현을 돌아보며 말했다.

《자넨 왜 앉지 않고 서있나? 말을 하자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야기하기 편리하게 앉게나.》

서종현은 김규식옆의 돌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자넨 황철복구과정을 말해줄수 없겠나?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니 이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네. 내가 황철에서 받은 인상가운데서 제일 큰것이 북조선에서 막심한 기술인재난을 겪고있다는것이네. 종현군은 기사장으로 일하고있으니 기술인재의 부족을 누구보다 크게 느꼈을것이니 그 곤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황철과 같은 큰 제철소를 돌아가게 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주게. 레를 들어 쏘련기술자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으며 그 대가로 이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그렇지 않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고있는지 그것도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네.》

그 순간 어질어보이는 서종현의 큰눈이 휘둥그래졌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는듯 입술을 떨기만 했다. 성급한 전호준이 뭐라고 말하려는것을 정준택이 무릎을 짓눌러 제지시켰다.

《선생님은 뭇인가 오해를 하고계신것 같습니다. 내가 황철에 온 후에는 말할것도 없고 내가 여기에 오기전에도 쏘련기술자가 황철의 복구를 도운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철가운데서 쏘련에 납입되는것은 1t도 없습니다.》

홀쭉한 량볼만이 아니라 길쭉하고 섬약한 손까지 푸들푸들 떨고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똑똑하고 단호했다. 그 무슨 항변을 하는듯한 서종현의 말을 듣고 어지간히 놀란

김규식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돌상우에 놓았던 담배갑에서 담배 한가치를 빼서 입에 물고 연기와 함께 긴숨을 내쉬고는 은근한 음성으로 달래듯 말했다.

《종현이 이보게, 나는 다른 뜻이 있어서 쏘련의 방조를 물은것이 아니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북조선의 정략이라는 말을 나도 들었네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의 기술적협조까지 받지 않는다는것은 아니겠지? 만일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자는 두가지 문제에서 나에게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주어야 하네. 이 큰 제철소에서 기술자란 자네 한사람이라고 하네. 자네 한사람이 왜놈들이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달아난 이 큰 제철소를 어떻게 복구할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선 내게 설명해주어야 한다는것이네.》

산전수전 다 겪은 년로한 정치인답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것이 알렸지만 서종현의 대답을 못마땅해하는 눈빛까지 감출수는 없었다.

《다음엔 우리 나라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대국과의 관계를 말해주어야 하네. 자네도 기사장이란 조련치 않은 직책에 있는즉 임자가 관여한 반쏘소요가 미쏘간의 비밀협정에 근원을 두었다는것을 모를수 없을것이네. 내 말은 46년 봄에 미쏘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적산이양협정을 두고 하는 말이네. 그 협정이 체결된 후 남조선에서는 몇개의 조선인자산가들의 공장, 광산을 제외하고 일본인소유였던 모든 공장기업소, 철도, 항만, 농경지, 산야 지어는 개인주택까지 <적산>의 명목으로 군정청관할하에 넘어갔네. 그런즉 체약상대국인 쏘련이 북조선의 일본인재산을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지 않나? 더구나 쏘련은 쏘독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경제를 복구하느라고 전력을

다하고있는 나라이네. 이런 나라가 년산 수만t이나 철을 생산하는 이 제철소를 관심밖에 둘수 없지 않나?》

머리를 수긋하고 김규식의 말을 듣고있던 정준택이 비로소 얼굴을 들고 담담한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이제야 의문이 풀립니다. 서종현동무는 말할것 없고 황철의 노동자들이 말할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면서 수만t의 철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른 제철소를 선생님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까닭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말수 적고 고정해보이는 정준택의 얼굴에 한시름을 던듯한 안도의 빛이 어렸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두해전의 그 비밀협정에 대해서는 서종현기사장도 지배인도 알지 못할겁니다. 저도 직책상관계로 해서 그런 협정이 있었다는것을 알고있을뿐 깊은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그 협정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있습니다.》

정준택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정경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수 없어 모대기는 모습이였다.

《제가 명백하게 말할수 있는것은 쏘련측에서 북조선의 몇개 공장기업소에서 설비를 해체한것은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전혀 사전토의가 없이 진행된 일이라는것입니다. 그무렵 저는 장군님의 부름이 계셔서 그이의 집무실에 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여간해서 노하시는 일도 없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아래사람들에게 그런 기색을 보이시지 않는분입니다. 아래사람들이 신심을 갖고 일을 할수 있게 늘 웃으시는 모습으로 깨우쳐주시고 고무를 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준택이 방안에 들어온것도 느끼지 못하신듯싶었다. 침통한 표정이여서 정준택은 온몸이 굳어붙는것만 같았다. 그이께서는 준절한 안색으로 창밖에 시선을 던지고계시다 노기를 품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내 책상우에 있는 명세표를 보오.》

정준택은 발자욱소리를 조심하며 집무탁에 다가가 알박한 서류를 들고 본래의 자리에 돌아와 명세표를 읽었다. 그 순간 그는 심장에 드센 타격을 받은듯한 충격을 느꼈다. 쓰련이 자기 나라에 실어가려고 해체한 설비명세표였다.

《읽었소?》

《읽었습니다.》

《그 기계설비들을 해체하는것으로 해서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왜놈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그 기계설비들을 복구하느라고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로력을 얼마나 투하했는지 기획국이 중심이 돼서 문건을 만드시오. 왜놈들이 어떤 악착한 방법으로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서 그 공장기업소들을 세웠는지 력사적자료를 안받침해서 구체적으로 쓰시오.》

괴로와하시는 장군님을 위안해드릴 말을 하고싶었지만 그이의 심정을 얼마간이라도 가라앉힐 낱말이 이 세상에 있을것 같지 않았다. 정준택은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 알지도 못하며 명세표를 들고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준절한 안색으로 틀어쥔 주먹을 량허리에 얹고 방안을 거닐며 격분을 삭이기 위해 애쓰고계시였다. 웬간해서는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는 정준택이였지만 울음이 북받쳐오르는 격렬한 충격을 느꼈다....

《며칠후에 장군님께서서는 모스크바를 향해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잠시 입을 다물고앉아있던 정준택은 나직하고 고르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며칠 걸리지 않아 귀국하셨는데 귀국하신 후에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문제들을 처리하신 후 저를 포함한 경제실무일군들과 법조계인사들을 몇명 부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공포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국유화의 대상으로는 일본국가, 일본인개인의 소유였던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상업, 문화기관 기타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무상몰수되어 인민의 소유로 된다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또한 얼마되지는 않지만 민족을 반역하고 친일을 한 매국적인 자본가들의 소유도 이번 기회에 국유화하게 되는데 민족자본가의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현상이 없어야겠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앞에 놓고 만년필을 손에 쥐고있었지만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정준택은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오르는데 잠시 말을 멈추고 차잔을 들어 목을 추졌다. 그는 전에 없이 흥분한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장군님께서 가셨으니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 저는 그사이에 도무지 마음을 안착시킬수 없었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소유는 북조선재산의 90%에 달합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의 소유로 되지 못하는 경우 일제놈들한테 낫그릇, 낫손가락까지 수탈을 당하고 농토는 황폐해질대로 황폐화된, 극도로 빈궁해진 인민들의 생활을 무엇을 가지고 안착시키며 민족경제는 무엇을 가지고 건설하겠습니까. 더구나 적산이양인지 뭘지 하는 그 협정은 쏘련의 단독결심도 아니고

미국과 합의를 본것이니 과거를 하고싶어도 체약상대국의 량해를 얻어야 할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을 약소민족이라고 하는것을 제일 싫어하시지만 저는 그때 정말 약소민족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불과 며칠동안에 민족의 재산을 다시 찾아가지고 오신것입니다. 사실 큰 산업은 북조선에 집중되어있지 않습니까. 남조선에 큰 공장기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북조선의 산업을 찾았으면 우리 민족의 산업을 찾았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일장의 웅변이라고 할수 있는 정준택의 말을 흥분해서 들으며 그 우람한 몸을 궁싯거리던 전호준이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며 한마디 했다.

《그 좋은 이야기를 어째서 오늘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꼭 말을 해야 할 계기도 없었지만 우리의 우방인 쏘련의 일부 사람들이 실수를 한것인데 떠들고 다닐 필요가 어디에 있소. 내가 한 이야기도 여기에 있는분들이나 알고 말을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소.》

윤명현이 담배를 피워물며 사뭇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민족의 재부를 찾았다는 국장선생의 말씀은 적실한 표현입니다. 발전능력을 봐도 그렇고 제철소, 비료공장, 굴지의 광산, 탄광은 모두 북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국유화법령은 언제 공포됐습니까?》

《1946년 8월 10일에 공포됐습니다.》

윤명현이 흥분한 빛을 지으며 말했다.

《조선사람의 피땀을 악착하게 짜내서 건설한 산업시설들이 우리 민족의 재부로 됐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분되거나 충격을 받은 기색이란 전혀 없이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빛이던 김규식이 될수록 목소리를 부드러운 어조로 서종현에게 말했다.

《자네도 담배를 태우게. 내가 있다고 해서 삼가할게 있나? 자네 손을 보니 담배엔 고질인것 같은데 어려워하지 말고 피우게. 지배인은 아직 30전의 청년인것 같은데 지배인도 담배를 태우시오. 국장선생이 좌석을 화기에 넘치게 만들었은즉 구습에 구애될것 없이 담배들을 피우면서 속을 터놓고 말을 합시다.》

그러니 김규식은 들어야 할 이야기, 해야 할 말이 아직 많다는 뜻이었다. 그가 구습에 구애되지 말고 담배를 태우라고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이야기한것은 자기의 말이 유포해보이지 않게 하려는데 있는것 같았다.

《우선 국장선생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선생은 김일성장군님과 쓰딸린사이에 단독회담형식의 회담이 있는것처럼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장군님께서서는 어떤 말씀으로 쓰딸린을 납득시킬수 있었는지 알고있는 한도에서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산이양협정은 미쏘간의 비밀협정이니 일방이 파기하려는 경우 최소한 사전통고라도 하여야 외교적례의를 갖추는것으로 될것이웨다.》

량볼이 두둑한 온후한 학자풍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우고 점잖게 묻는 말이였지만 김규식에게 아직도 무엇인가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것을 정준택은

감촉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계심이 살아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접이 들 필요는 없었다.

《저는 단독회담이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두세명의 정치위원들이 참가했다는 장군님의 말씀을 들은적은 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정치위원회 범위내에서는 말씀하셨는지 알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이야기하신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업과정에 장군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신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북조선에 있는 일제의 재산은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수탈해서 축적한것이여서 응당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쓰딸린에게 설득시켰다는 말씀이였습니다.》

김규식의 얼굴에 의연히 납득이 되지 않는듯한 의혹의 빛이 스쳐지났지만 내놓고 하는 몇마디의 말은 별다른 기미를 느낄수 없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민족을 위해 참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국장선생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감동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조선의 장래를 생각할 때와 같은 청춘의 흥분을 느꼈습니다. 조선민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협정을 체결하고 산업설비를 해체했다는것을 아셨을 때 장군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을것이웨다. 결연히 모스크바를 향해 출발하실 때의 장군님의 심정과 결심도 짐작할수 있습니다.》

사실 정준택의 말을 들었을 때 김규식의 충격은 컸다. 너무나도 갑자기 너무나도 드세계 가슴팍을 꿰지르는것과 같은 충격이여서 그는 생각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북조선정권을 소련의 대조선적화방략의 시행거점으로 생각해왔다. 미국인들도 그것이 엄연한 사실인것처럼 김규식의 귀에 부단히 불어넣었다. 그런데

북조선정권, 이 정권을 령도하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조선민족의 리익을 지켜내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장군님께서 제창하신게 틀림없는 민족자립사상이 쏘련의 대조선적화방략이라는것도 미국놈들이 날조해낸 거짓말이며 남북협상이 남조선을 적화하기 위한 쏘련의 방략이란것은 터무니없는 망언일것이였다. 남북협상은 민족자립사상에 기초해서 민족대화합을 이룩하여 통일정부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정준택의 말을 들은 후에도 김규식의 머리에는 거뭇한 땀구름과 같은 의문이 아직 남아있었다.

자기네의 국가적리익을 위해 사선을 뚫고 국경을 넘은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가차없이 처형하고 감옥에 처넣고 사지에 추방하던 쏘련이 그렇게도 갑자기 관용을 베푸는 너그러운 나라로 될수 있겠는가. 김규식이 수십년간 세계를 편답하면서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것이란 국가간의 관계도 정치계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며 리익의 교환도 수확공식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고도 각박하다는것이였다. 아무리 체통이 큰 대국이라고 해도 힘이 약한 나라를 침해하는데서 조금도 가차가 없다는것을 김규식은 혀를 짓씹는듯한 심정으로 한두번만 체험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서 건설한것이라고 해서 북조선산업의 90%나 되는 막대한 재부를 쓰딸린이 그렇게 쉽게 내놓겠는가? 경제적리권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보다 큰 다른 리익을 추구하지 않았겠는가? 중국혁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제정로씨야시기의 그닥지 않은 리권을 취한 쏘련이 아닌가. 그렇다면 쓰딸린은 무엇을 요구했겠는가? 김규식은 몸서리칠 자기의 생각을 20대, 30대의 청년들에게

내놓고 이야기할수는 없었다. 국가관계란 정치계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뒤에 숨어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인생길에 갓 들어선 이들이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기처럼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고 모든것을 의심하고 따져보는것이 고질로 되었을 때이며 회복될 가망이 없는 이 정신적질병으로 해서 늘그막의 쇠잔한 정력을 소모해야 한다는것을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해할수 있겠는가?... 말을 하면 로망이 든 늙은이가 헛소리를 한다고 할것이다.

《제 말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거나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준택의 말이였다. 김규식의 얼굴에 풀길없는 의문을 품고 정신적고통을 느끼고있는듯싶은 표정이 어려있는것을 똑똑히 찾아볼수 있었던것이다.

《선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 제가 아는것 설명을 해드릴게 아닙니까.》

김규식은 말하기로 결심했다. 할 이야기도 못하며 구경을 하러 다닐바에야 무엇때문에 북조선에 들어왔겠는가. 더구나 옆에는 혈육과 다름이 없는 서종현이 앉아있다. 지금은 황철의 기사장을 하고있지만 알아야 할것은 알고있어야 앞으로 똑똑한 립장을 취할수 있을게 아닌가.

《미쏘량국간에 체결한 비밀협정이야기부터 하고싶소이다.》

김규식은 담배연기를 날리며 나직하나 위엄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협정을 어느쪽에서 먼저 받기했는지 나도 아는바 없소이다. 그러나 세계 량대국이 그런 협정을 체결했을적에는 사전에 론의도 있었을것이요 면밀한 타산도

있었을것이웨다. 고대로 조선은 전략적요충지에 위치해서 여러차례의 전란을 겪지 않을수 없었고 망국이 빨리 닥쳐온것도 바로 이 위치상특성에도 기인한다고 나는 생각하고있소이다. 북조선만을 한정해서 말하면 민족적재부의 9할, 전국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8할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막대한 재부를 쏘련이 그렇게 쉽게 내놓을 생각을 했으리라고는 나는 믿기 어렵소이다. 그것도 이미 체결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말이웨다.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이 지구상에 그런 선심을 쓰는 나라는 없었소이다.》

자기의 견해는 의심할나위가 전혀 없는 정확한것이라는것을 확신하는듯 김규식은 70이 불원한 늙은이답지 않게 빛을 뿌리는 검은 눈을 홉뜨며 두터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윤명현까지 포함하여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무쇠처럼 굳어져있는 김규식의 얼굴을 지켜봤다. 에둘러 이야기할줄 모르는 직통배기인 전호준이 상혈된 얼굴로 팔을 내두르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뭘니까? 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됐을 때 나는 유선탄광에서 지배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은 노동자에게!>라고 쓴 구호를 내붙이고 탄광을 공장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된것을 경축해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쳤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는것입니까?》

김규식은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을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정준택이 또 뭐라고 웨치려는 전호준의 팔을 붙들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경제적리권을 돌려받는 대가로 다른 리권, 조선이 전략적요충지에 위치하고있다고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아 군사적지배를 넘두에

두고계신것 같은데 소련군이 주동적인 철거성명을 냈다는것을 알지 못합니까?
조선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켜야 조선문제를 자주적원칙에서 해결할수 있고
쏘미간의 대결을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에 모스크바에
가시여 쓰딸린에게 소련군철거를 요구하셨습니다.》

김규식은 무엇인가 묻고싶은 안색이었지만 이번에도 입을 옥다물고
앉아있을뿐이었다. 당황한 표정을 짓고 김규식옆에 앉아있던 윤명현이 자기가
북조선사람들을 진정시킬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듯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미국사람들한테도 잊을수 없는 배신을 당한적이 계시고
소련사람들한테도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모욕과 배신을 당한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소련군이 주동적으로 쏘미량군동시철거를 제기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선생님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흔히 흥정이 오고간다는
말을 하셨을뿐이지 북조선에서 꼭 흥정을 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규식이 담배를 피우라는데도 굳이 레의를 지키느라고 담배가치를 꺼내들지도 않고
돌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앉아 오가는 말을 주의깊이 듣고있던 서종현이 그 어떤
비상한 결심을 한듯 창백해진 얼굴을 곧추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생님이 저를 자식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으니 저는 선생님을 아버님으로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저는 자식의 도리를 지키자면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얼마간 떨리던 목소리더니 점차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서종현은 눈길을
떨구고 돌탁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김규식한테 돌렸다.

《저는 선생님을 량심을 지키며 민중을 위해 싸우시는 남조선의 년로한 애국지사로 생각해왔습니다. 지금도 저의 이 생각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선생님에게는 확실히 무엇인가를 오해하고계시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김규식은 서종현의 돌연스러운 말에 저으기 놀란듯싶었다. 노여운듯 술많은 눈섭과 두터운 입술이 한순간 푸드득 떨렸다. 그러나 그는 곧 스스로의 마음을 녹잡힌듯 느긋한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나로 말하면 환심을 얻기 위해 속에 없는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일세. 비위를 상하게 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할말은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것이네. 이것을 리해해야 하네.》

어질어보이는 서종현의 커다란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한순간 번뜩이었다.

《저는 우리들의 비위가 상하지 않게 마음이 없는 빈말을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또 명성높은 정치가인 선생님은 그래서 안될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 장군님을 너무나 모르고계시고 북조선을 너무나 알지 못하고계십니다. 선생님은 북조선의 중요산업을 소련과 그 어떤 흥정을 해서 바꾼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소련군의 철거는 이미 선포됐으니 군사적종속관계를 생각하시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분야는 정치적종속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사대는 곧 굴종이고 굴종은 민족을 배반하는 길에 굴러떨어지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서종현이 김규식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다.

《자네 이제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말해보게.》

《사대는 굴종이고 굴종은 민족을 배반하는 길에 굴러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말인가?》

《장군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문헌에 그런 구절이 있나? 연설중에 하신 말씀이라면 어떤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나?》

김규식도 그 말씀에 얼마나 깊이있는 민족자립사상이 담겨있는지 알수 있었던것이다.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철소에 찾아오시여 대국의 위세를 어쩔수 없는것으로 생각하면서 비굴하게 굴종하고있는 저를 힐책하며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 타고난 천성인듯 노동자, 사무원, 제철소구내에 들어온 장마당의 아낙네들에게까지 미소를 지으며 먼저 머리숙이는 서종현이 김규식을 똑바로 마주보며 이런 무게있는 말을 할줄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자네를 만나주셨단 말인가?》

《만나주신것이 아니라 장군님께서서는 제가 고민을 안고 힘들게 일한다는것을 아시고 제철소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서종현은 그날의 감동이 불시에 북받쳐오른듯 음성은 갈리고 눈에는 이슬이 번져갔다. 그동안에 복구해놓은 그닥지 않은 성과를 돌아보시던 그이, 잠자리, 일자리까지 걱정해주신 장군님... 서종현은 모든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반쏘》 소요에 관여했다고 해서 보안서에 구류되고 출신까지 꺼들면서 산업국에서 광산에 내려보낸 자기에게 황철을 복구할 중임을 맡겨주신 장군님!

《나를 모욕하고 구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쏘련군이 진주할 때 통역명색으로 꺼묻어 나온 일부 <얼마우제>들입니다. 자기네 조상이 조선민족인것을 수치로 여기고 조선말보다 로씨야말을 더 능란하게 씨부렁거리는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나를 구박하고 천대했습니다.》

최부국장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가도 이야기했다. 희생을 당하는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한, 정신적인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자기의 정신상태도 말했다.

《쏘련군이 철수를 한다고 해도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의 영향에서 조선이 벗어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쏘련이 장구한 기간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우제>들에게 머리를 숙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규식은 자기가 30여년간에 걸쳐 체험한 그 고통과 수치를 서종현은 불과 2~3년사이에 체험했다는것을 알았다.

《저는 선생님이 어째서 경제적리권을 찾는 대가로 일종의 흥정이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을 리해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것과 똑같이 작은 나라인 조선이, 그것도 38°선으로 해서 분렬되어있는 북쪽 절반을 차지한 북조선이 어떻게 쏘련의 간섭과 영향에서 벗어날수 있겠는가? 선생님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계시지 않습니까?》

담배에 불을 달려고 성냥을 그으려던 김규식이 손을 흠칫 떨며 노여움과 공포가 한데 뒤섞인 눈길로 서종현을 훑어보았다. 너무나도 야박하고 거칠게 자기의 속심을 까밝혔기때문이였다. 사실 김규식은 서종현이 말한것처럼 정치적으로 제압할 땅에서

조선인민의 노여움을 사면서 산업설비를 뜯어올 필요가 없어 소련이 양보를 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조선은 자주권이 없는 그런 국가로 건설될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선생님은 아셔야 합니다. 장군님께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제일 섭섭해하시고 노엽게 생각하신것이 대국에 대한 숭상과 굴종이였고 대국을 등에 업은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황을 일삼는자에게 굴복한 저의 정신상태였습니다.》

서종현은 자기를 그렇게도 못살게 군 최부국장은 당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은 후 소련에 쫓겨 들어가 어느 변강에서 지금 일하고있다고 했다.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엄하게 물으셨습니다. 외세가 득세를 한다면 그편에 서겠는가? 민족을 버리고 외세에 굴복하겠는가? 사대는 굴종이다, 대국을 숭상하는 노예적근성이 낳은 비겁한 정신이다, 대국에 굴종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길에 굴러떨어지게 된다, 일제시기에도 산에 숨어서 어지럽히지 않은 민족적량심을 어찌서 이제와서 더럽히려고 하는가? 경제건설도 신념이 없이는 못한다. 장군님께서는 격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규식은 가슴팍을 꿰질린것 같은 충격에 어쩔바를 몰랐다. 그는 어망결에 얼굴을 들고 서종현을 쳐다봤다. 자기의 진심을 리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선량하고 어진 눈이 자기를 마주보고있었다. 김규식은 그 무엇인가를 암벽처럼 굳고 아아한 산봉우리처럼 큰것이 사태가 난듯이 가슴속에서 무너져내리는것 같은감을 느꼈다.

《외세가 득세를 한다고 해서 그편에 서겠는가고 하셨단 말이지. 경제건설도 신념이 없이는 못한다고 하셨단 말이지...》

김규식은 저도모르게 장군님의 말씀을 되뇌었다. 이제와서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홍안의 30대 중반의 젊은 국장의 말, 어질어빠진 아버지를 빼닮은 서종현의 너무나도 진실한 체험담, 거기에 의심을 품을 빈구석이 어디에 있는가?... 장군님께서는 상수리숙소에 오셨을 때도 사대를 한다는것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시며 민족자체의 힘을 믿을 때에만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런데 자기는 무엇을 의심했는가? 그 의혹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것인가?

김규식은 쇠집게같은것이 자기의 머리를 우악스럽게 죄는것 같은 감을 느꼈으며 숨구멍이 콧 막힌듯 가슴이 답답했다. 이마와 살쩍, 코등, 미간에서 소나기를 만난듯이 땀발이 내뿜기 시작했다. 민족을 반역하고 민중을 배반한다는것은 돈에 매수되고 대국의 룡간에 현혹되어 침략자들에게 아부하는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속을 꿰지르고 지났다. 눈에 흘러드는 땀을 훔치려고 손을 들었는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것 같아 두손으로 돌탁모서리를 움켜잡았다.

《왜 이러십니까?》

김규식은 윤명현의 다급해하는 말소리를 먼 메아리처럼 어렴풋이 들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모지름을 썼다. 자기의 몸을 부축하는 손길을 느꼈다. 서종현과 윤명현의 손길이였다.

《오늘 지나치게 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좀 안정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괜찮네. 숙소로 돌아가세. 자동차는 와있겠지?》

서종현이 정문밖에 와있는 승용차를 불러왔다. 윤명현에게 의지해 승용차를 향해 걸어가던 김규식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배웅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싶은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재의 그로서는 적당한 말을 생각해내기 어려웠다. 승용차에 들어앉기전에 몸을 돌린 그는 상체를 숙여 절을 하면서 쇠잔한 목소리로 사죄를 하는 말을 했다.

《량해를 해주시오. 실례가 많았소이다.》

5

상수리숙소에 돌아온 김규식은 침대우에 쓰러졌다. 윤명현이외에는 그 누구도 방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땀으로 미역을 감으며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알아듣기 어려운 입안의 말로 누구를 타매하는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뉘우치는것 같기도 한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일을 칠지 알수 없어 의사선생에게 왕진을 청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윤명현이 내비치면 김규식은 이를 딱딱 마주치면서 화를 내곤 했다.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 내 병은 내가 알아. 물이나 한고뿌 주게.》

머리맡의 약병에서 알약을 두어알 꺼내 입안에 넣고 윤명현이 들고온 물을 들이키고는 다시 자리에 누워 두터운 입술을 짹 사려물었다. 약의 힘으로 얼마간 진정이 되면 뼈를 깎는듯한 심정으로 그 무엇을 회억하는듯 눈을 지르감고 중얼거리곤 했다.

《이젠 늦었어. 쓰러졌지… 먼길이었는데 뭇때문에 그 험한 길을 … 그렇지만 … 나는 소원을 성취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지. 허지만, 허지만… 우리 백의민족은, 불쌍한 내 민족은… 쓰러졌지, 쓰러졌어…》

창문에서 비쳐들던 현란한 봄빛이 마지막잔광을 끌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저녁식탁에 얼굴을 보여야 할 시각이 다가왔다. 아무래도 석찬을 침실에 날라와야 할것 같아 윤명현이 그런 뜻을 비치자 김규식은 지금까지 침상우에서 모지름을 쓰던 사람같지 않게 몸을 일으켰다. 벽을 짚으며 세면장에 들어가 얼굴을 씻고는 체경앞에 서서 간간하게 외모를 갖추는데 신경을 썼다. 걸음이 얼마간 위태롭기는 했지만 방금전까지 침대에서 중병과 싸우던 사람같지 않게 식탁 한가운데의 자기자리에 앉아 여느때없이 포도주를 한잔 청했다.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였다. 잣죽을 절반도 축내지 못했지만 다른 음식에 저가락을 몇번 대서 여느때와 다름없는 식사를 한듯한 인상을 남기고는 수저를 놓았다.

식당을 나설 때 김구가 김규식옆에 와서 할말이 있다면서 자기의 방에 가자고 했다. 김규식은 군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오늘 어디에 갔었나? 아침에 사람을 보냈더니 방에 없다고 하더군.》

《황해제철소에 갔었습니다.》

황철을 참관한 소감을 물을줄 알았는데 김구는 머리를 수긋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오늘도 하루종일 생각했네. 우사도 알고있는것처럼 내가 이번 협상을 통해 첫째로 바란것은 내부의 대립을 해소해서 쏘미량국에게 국토분단의 구실을 주지 말자는거요, 다음으로는 립정의 법통을 인정받아 이국땅에 속절없이 묻힌 선렬들의

뉘이라도 위안하자는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북에 들어와서 각지를 참관도 하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몇차례의 회합을 진행하고나니 무엇인가 큰 결심을 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말일세.》

김구는 코밑을 세게 문질렀다. 흥분했을 때 하는 버릇이지만 지금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참을길 없어 코밑을 문지르는것 같았다.

그는 의례방문에 이어 련석회의, 4월 24일에 진행된 남북 정당, 단체 지도자협의회, 26일에 장군님께서 남조선 정당지도자들을 접견해주시면서 진행한 회담, 김구는 4차례, 김규식은 2차례 회합에 참가했다. 26일 회담에서 조소앙은 김구의 의사를 대변하여 7개 조항의 제안을 내놓았고 김규식은 5개 조항의 제안을 내놓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난해하고 착잡한 한문투의 한독당의 제안도, 북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조항이 담긴 김규식이 내놓은 5개 조항의 제안도 웃음지은 안색으로 끝까지 듣고나서 혼연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선생님들이 조선민족의 장래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셨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제안을 충분히 참작한 기초우에서 우리의 회답을 고위급회담에서 내놓겠습니다.》

고위급회담은 래일 열리기로 되어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연기가 피여오르는 곰방대를 거머쥐고 황혼빛이 어린 창문을 바라보던 김구가 긴 한숨끝에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나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네. 회담장에서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끼는바 컸지만 각지를 참관하면서 종래의 내 생각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네. 북조선에서 시행되는 정치가 공산주의적인 정치가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말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공산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이었나? 민족도 조국도 레의도덕도 안중에 없이 그저 싸움질만 하는 망종이 아니었나? 그런데 내가 북조선에 들어와서 본 사람들은 모두 레의에 밝을뿐아니라 조국부장을 위해 매진하는 사람들이라는것이네. 우리가 조선이 부강해지기를 얼마나 갈구했나. 나는 련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네. 내 나이에 이제 와서 정견을 바꾼다는것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이것이 민족을 위한 일일진대 무엇을 주저하겠나. 나는 결심했네. 우사의 생각은 어떤가?》

김규식은 결연한 음성으로 끝을 맺는 김구의 말을 듣고 우선 놀랐다. 김구의 성격에서 첫째가는 특징은 완강성이다.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한 신조를 좀해서 바꾸지 않았다. 정견은 말할것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했다. 그는 강성하는 자주적인 조선민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신조를 정견으로 견지해왔다. 반공민족주의자라고 하면 그의 령수로 우선 김구를 첫째로 꼽았다. 그런데 북조선에 들어와 불과 며칠을 지냈을뿐인데 종래의 정견을 버리고 련공주의자로 되겠다는것이다. 이것은 지난 20여년간의 정치신조를 아쉬움도 없이 버리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말이었다. 70이 넘은 고령의 김구가!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김규식자신의 생각이였다. 김구의 말이 놀랍기는 했지만 그리 깊이 생각한것도 아닌데 그가 응당 이르러야 할 결론을 찾아권것처럼 여겨지는것이였다. 자기가 받은 그런 충격을 백범도 체험했다면 새 출발을

결심하는것은 의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과단성있는 백범이니 자기보다 한발 앞섰을뿐일것이다.

《백범형 좋을대로 하시지요. 나도 정리해야 할 생각이 있어서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김구의 응접실에서 나온 김규식은 개화장의 도움을 받아 푸근한 주단처럼 정원길에 깔린 진곤색 황혼빛을 밟으며 자기가 우선 생각해야 할것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아내려고 애썼다. 자기도 역시 30여년간 망명생활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느라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 말년에 이르러 인생전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 이르렀는가? 북조선산업의 90%나 되는 재부를 되찾아주신 장군님의 로고를 두고 말하면 전민족이 노래에 담아 구가하고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야 할 일인데 자기는 감히 경제체제에 걸어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그가 26일회담에서 제안한 5개조항중의 한 항목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데 대한 경제체제와 관련되어있는 조목이었는데 중요산업국유화는 지나치게 급진적인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던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장군님의 로고를 알지 못한 무식에 기인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 《적산》이 군정청의 수중에 장악된 후 산업이 전멸되었다는것을 알고있는 자기가 어째서 이런 제안을 했던가. 민족의 대단합이란 사실에 있어 실현될수 없는 한낱 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민족통일정부수립도 한갓 념원일뿐 탄생을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데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북조선에 들어와 불과 수일을 보냈을뿐인데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만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루어질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의혹은 뒤전으로 밀려나고 협상이 목적하는 민족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데로 생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개화장을 내짚으며 정원등이 희미한 빛을 내리비치는 소나무밑의 의자에 다가가 지친 몸을 앉혔다. 남조선정부의 대통령이 될 결심을 지금의 자기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것인가? 그는 리승만과 목숨을 건 대결을 결심하고 38°선을 넘었다. 하지의 말은 그도 한낱 낚시군의 얼림수줍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는 미국의 줌안에서 노는 꼭두각시 대통령이 될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그는 리승만이 립후보한 바로 그 선거구에 출마해서 승부를 겨룰 생각이였다. 물론 테로단들이 그의 생명을 노릴것이며 친일친미매국족속들은 검질기게 출마를 철회하라고 위협을 할것이다. 그러나 민중은 자기를 지지할것이였다. 38°선을 넘을 때까지는 민족을 위해 자기가 취할수 있는 마지막방도는 이 한길이 있을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만경대전학에 이어 황철에 간 그는 서종현한테서 일생을 두고도 잊을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말을 들었다.

《외세가 득세를 한다고 해서 그편에 서겠는가? 민족의 편에 서겠는가?》

서종현이 전해준 장군님의 말씀은 련공을 할 생각이라는 백범의 말과 함께 지금도 그의 뇌리속을 누비며 맴돌고있었다. 서종현이 장군님의 믿음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해 일신을 바치고있는것도, 자기의 앞날을 의탁할수 있는분은 오직 장군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백범이 련공을 할 생각을 한것도 결국 사상과 정견을 초탈케 하는 위대한 견인력을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기때문이다

아니겠는가. 그 견인력은 어디에서 비롯된것이겠는가? 김규식은 그간에 자기가 느낀 충격과 감동, 새롭게 발견한 세계를 돌이켜봤다. 장군님께서는 조선이 또다시 수난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려고 세심하고도 깊이있게,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강철의 의지로 완강한 노력을 기울이고계시였다. 한마디로 말해 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고 민족을 선도하고계시였다. 이런 령도자에게 일신을 의탁할 생각을 하는것은 응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만 해도 조선민족을 약소민족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이제는 리해될뿐아니라 응당한 신조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사이에 자기도 확실히 달라졌다. 량단된 불행한 조국을 보는 견해, 민족의 현재와 앞날을 보는 안목이 새로와졌다.

(이런 경우를 두고 정신적갱생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지... 아직 갱생이라고 할수는 없어도 그 전야에 있다고 할수는 있지 않겠는지? ...)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던 김규식은 한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몸을 후두두 떨었다. 리승만을 제끼고 남조선정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한 자기의 생각이 머리에 번개쳤던것이다. 의자에서 일어나 정원등이 어스레한 빛을 깔아놓은 산책길을 오가며 생각을 이어갔다.

남조선정권의 대통령이란 어떤것이겠는가?

《민주의원》이나 《과도립법의원》을 만들어낸 후의 환멸을 또다시 느끼게 할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몇명의 비서와 보좌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발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문명색의 술한 떨거지들, 대신급의 중신들은 미국의 수중에 장악되어있는

간신들일 것이며 미국의 첩보계에서 박아넣은 밀정들의 감시속에 자기는 들어있을것이다. 대통령이 결심할수 있는 정책이란 또 어떤것이겠는가? 서울주재 미국대사, 강점군사령부, 바다건너 미국의 국무성, 국방성, 상하국회, 대통령의 특사, 밀사...

《민주의원》이나 《과도립법의원》을 만들어낸 후의 환멸이 지분한 물안개처럼 머리속에 가득찼다. 그는 단장끝을 정원길에 박고 그자리에 굳어졌다. 달뜨기전의 시커먼 하늘이 무한대한 장막처럼 머리우에 드리워있었다. 끝도 깊이도 알수 없는 그 장막이 자기를 파묻어버릴양으로 떨어져내리는것 같다. 야심가형의 독재광인 리승만을 물리치고 자기가 대통령의 권좌에 올라앉으면 거래를 위해서도 남조선민중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리익이 되는 일을 할수 있을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미국의 손탁우에서 노는 꼭두각시노릇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는 소나무밑의 의자에 되돌아가 개화장의 손잡이에 이마를 얹고 오래동안 굳어진듯 앉아있었다. 꼭두각시놀음을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북조선정권과 관계를 가질수 있겠는가. 장군님께서 미국의 손탁에서 노는 남조선정권의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시겠는가? 더구나 그이께서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할 결심이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더욱 어렵게 될것이다. 자기는 무엇을 향해 새 출발을 해야 할것인가? 김규식은 절망의 진회색장막에 휩싸였다.

점심후에 잠시 등을 붙였던 침상에서 김구는 벌떡 일어났다. 환국후 3년간 경교장에서 제왕행세를하면서 몸에 붙인 느릿하면서도 튼진 걸음으로 침실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이제 두어시간 지나면 장군님을 모시고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장군님께서 조선민족의 장래를 두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 필경 자기의 정견도 포함된 대경륜이 민족화합과 통일정부수립의 지침으로 될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속이 뒤설레는 일이었다.

하긴 자기의 의사를 대변해 조소앙이 제안한 그 7개 조항은 그가 새 출발을 결심하기전에 서울에서 만들어진것이였다. 평양에 들어오기전에 명성높은 한독당의 중진들이 경교장에 모여앉아 며칠간 분분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그 7개 조항을 책정한것이다. 자기의 결심을 김규식에게 터놓은 후에 김구는 머리속에 쏘아박은 그 제안의 매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봤다. 련공을 결심한 지금의 눈으로 봐도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는것 같았다. 첫째 조항은 내부의 대립을 해소해서 외부의 모순을 극복하여 령토분할을 저지하자는 내용으로 되어있었으며 둘째 조항은 남북의 애국자들이 새로운 구상을 설계하여 우방정부에 이의가 없는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었다. 이런 식의 조항이 7개였다.

그 7개 조항전부가 고위급회담에서 수용될수는 없겠지만 절반, 아니 두어조항이라도 받아들여져 민족통일정부수립을 위한 경륜으로 된다면 이 김구도 한몫을 했다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김구는 흥분을 다잡을길이 없어 탁상 한귀에 놓여있던 립정의 인장을 책상 한가운데 옮겨놓았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직전개하신 무장투쟁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서

첫째가는 투쟁으로 끝나다면 림정은 그다음 자리쯤 능히 차지할수 있다고 김구는 생각하고있었다. 그가 림정주석이란 직함을 버리기 어려워하는것도 이때문이었다.

김구는 오늘회담 뒤끝에 자기가 련공을 결심했다는것을 장군님께 말씀드릴 생각이였다. 그때 림정의 인장을 앞에 놓고 말씀드리면 좌석이 더욱 의의깊은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림정주석이며 한독당위원장인 김구가 련공을 결심했다는것으로 될것이니 자기의 말은 더욱 무게가 있을것이다.

시중을 드는 한독당원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회담장으로 안내할 북조선측 젊은이가 도착했다고 했다. 김구는 회색두루마기를 입고 복도에 나섰다. 그는 서울에서 타고 들어온 승용차에 올라앉았다. 김규식은 뒤차에 탔다. 자동차에 오른 김구는 그 누가 손을 댈가봐 겁을 내기라도 하는것처럼 인장이 들어있는 함을 무릎우에 놓고 두손으로 거머쥐고 앉아있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에서 달리던 승용차는 김구, 김규식을 외장벽이 연노란 오탄여울목옆의 아담한 2층집으로 데려갔다. 넓지 않은 그 집의 앞마당에서 산책하던 장군님께서 환한 웃음이 어린 안색으로 김구, 김규식을 맞이하시였다. 명칭이 고위급회담이니 고위인사 여러명이 동석하여 북조선정권의 위엄을 보일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군님과 비슷한 년세의 젊은이 한사람이 그이의 뒤에 정중한 자세로 서있을뿐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얼굴이 동그스름한 그 젊은이를 자신의 서기라고 소개를 하시였다. 그렇다면 장군님께서는 이번 회담도 격식없는 간소한 회합으로 되게 하시려는것인가.

회담장 한가운데에는 푸른 색깔의 상보를 씌운 원탁이 있고 그 둘레에 세계의 의자가 놓여져있었다. 장군님께서도 김구, 김규식에게 자리를 권하고나서 자신께서도 의자에 앉으시었다. 정말로 북조선을 대표하여 그이 혼자 회담에 참가하시려는 모양이었다. 한독당을 대표해서 김구, 민족자주련맹을 대표해서 김규식, 북조선민전산하에 굳게 단결된 북조선정치력량을 대표해서 **김일성장군님**... 원탁옆에 놓여있는 책상에 서기가 앉아있기는 했지만 그를 회담참가자라고 할수는 없었다. 북조선정권의 령수인 장군님께서 자기네와 대등한 자격으로 회담에 참가하시다니... 서울에 들어와서는 말할것 없고 해외에서 림정주석으로 있을 때도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적은 없었다. 장군님께서도 담배를 권하고나서 김구, 김규식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시었다.

《김규식선생의 얼굴색이 좋지 않아보이는데 음식이 맞지 않는게 아닙니까? 제 집에 계시는것으로 생각하고 요구할것은 요구하십시오.》

그이께서는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안색이었다.

《나를 위한 숙소의 성의는 참으로 지극합니다.》

《황철에 나갔다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리를 하신것 같습니다. 참관은 무리를 하면서 돌아보라는것이 아닙니다. 남조선대표들이 북조선의 현실을 아는것이 민족단합에 좋을것 같아 본인의 요구에 따라 보고싶은것을 보라는것입니다. 지나친 무리를 하면서 황철에 다녀오신것 같습니다.》

김규식은 몸둘바를 몰라하며 조리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황철은 내가 가봐야 할, 꼭 봐야 할 곳이였습니다. 내 신색이 좋지 못하다면 그건, 그건...》

김규식은 몸을 궁싯거리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우사가 지금처럼 당황해하며 말을 열버무리는것을 김구는 별로 본적이 없었다. 우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긴 평양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의 태도에서는 무엇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심상찮은것이 느껴졌다.

《두 선생이 다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셔야 할분들인데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년세가 있지 않습니까.》

김구, 김규식이 담배 한대를 태우고났을 때 장군님께서는 온화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들을 시작하시였다.

《26일에 한국독립당과 민족자주련맹에서 제기한 제안을 우리는 심중히 토의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참작한 기초우에서 우리는 구국대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구국대책안의 기초로 삼은 근본립장과 사상을 말씀하시였다. 김구는 자기가 숭상하고 목적이한듯싶으면서도 머리속에서 정리해본적이 없는 말씀을 장군님께서 하시는데 저으기 놀랐다. 사상은 민족자립, 근본립장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리익에 맞게 조선문제를 해결하는것이라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남북협상의 성격으로 보아 민족자립에 손상을 주거나 조선민족에게 리익을 주지 못하는 문건이 채택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 사상과 근본립장을 오늘 회담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응당 그래야 합니다.》

김구는 심중에 웅크렸던 응어리가 탁 풀리는 말씀을 들은듯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찬성했다. 김규식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 눈길을 돌리니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깊은 상념에 잠겨있었다.

《김규식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얼마간 심중해진 안색으로 물으시었다.

《나도 물론 찬성입니다.》

도무지 탈피하기 어려운 무거운 상념의 세계에서 가까스로 깨어난듯 김규식은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그럼 오늘 회담의 근본원칙은 합의를 봤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합의를 본 기본원칙에 기초해서 26일에 선생님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앞에 놓인 문건의 첫장을 번지기는 했지만 한독당의 제안중에서 첫번째 조항을 뜬금으로 말씀하시었다.

《물론 우리도 조선민족이 굳게 단결해서 외세가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8°선이라는것이 생겨서 우리 나라가 두동강이 난것이 우리 민족내부에 갈등이 있었기때문입니까? 38°선이 생긴것은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기 위해 룡간을 피웠기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미제는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으면서 북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미제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내부의

대립을 약화시켜 외부의 모순을 극복하며 령토분할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러한 조항을 이번 협상에서 채택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과 애국적열의를 과소평가하는 어구를 쓰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러운 웃음을 얼굴에 띠우고 말씀하셨지만 음성은 준절했다. 김구는 가슴팍을 세차게 꿰질린듯한 심정이였다. 자기의 명의로 제안한 그 첫째 조항은 확실히 조선민족을 모욕한 문구로 되어있었다. 어떻게 되어 그런 문구를 쓰게 되었으며 그런 조항을 첫머리에 놓게 되었는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 가득차고 가슴을 뒤설레게 하는것은 면구한 생각이나 쑥스러운감이 아니였다. 조선민족이 모욕당하는것을 참을수 없어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촌보의 양보도 하지 않을 결심을 지니신 장군님의 결연한 모습에 김구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민족의 존엄을 지킴에 있어 장군님께서서는 얼마나 견결하신가! 민족을 위한 마음에서도, 애국자로서도 얼마나 출중하고 영명한 장군님이신가!

김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군님께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잘못을 사죄하고싶었다.

그이께서는 격해졌던 마음을 녹잡힌듯 화기에 넘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나가시였다.

한국독립당에서 내놓은 제안중에서 남북의 애국자들이 새로운 구상을 설계하여 우방정부에 이의가 없는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조항이며 유엔상임리사회나 유엔의 새로운 결의로써 조선의 새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받자는 조목에 대해서도 장군님께서서는 김구에게 될수록 자극을 적게 주시려고 온화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 조항들도 조선민족이 처한 현정세를 넘두에 두지 않은 제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방정부라면 필경 쏘미랑국정부를 의미할것이다. 남조선에 단독괴뢰정부를 세우려고 별의별 음모를 다 꾸미고 남녘땅을 피바다속에 잠근 미국이 민족통일정부를 승인하겠는가. 우리가 앞으로 수립하게 될 민족단일정권은 전민족이 떨쳐나 유엔의 결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세우게 될 정권인데 유엔에서 어떻게 그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겠는가... 납득이 가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차근차근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안면에서 밝은 웃음이 언뜻 사라졌다.

《우방정부에서 승인을 하건말건, 유엔에서 뭐라고 하건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정권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정권이 필요합니다.》

장군님의 안면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있었다.

《우리 민족은 자주적인 정권을 창건할 권한이 있고 자격도 있으며 또 준비도 되어있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진행하고있는 전조선의 56개 정당, 단체가 참가한 민족대화합회의가 그것을 말해주며 지난해 북조선에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며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남조선인민들이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과감한 피의 투쟁을 전개하고있는것이 그것을 입증해주고있다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족은 단결력이 강하며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민족입니다. 또한 세계의 그 어느 민족에 못지 않게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입니다. 문제는 령도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조선민족이 민족통일정부를 세울것을 요구하는데 무엇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고 유엔의 결의를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김구는 온 방안에 울려 퍼지는 장군님의 주장에 넋을 내맡겼다. 민족주의자들의 령수로 자처하면서 립정의 주석자리에 앉아있었지만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장군님처럼 이렇듯 확신에 넘쳐 긍지높이 토로한적이 있었던가. 일제에게 예속되어 노예살이를 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확신해서 한 말은 아니였다. 민족적량심을 버릴수 없어, 일제놈들에게 굴복할수 없어 립정주석에게 어울리는 말을 했을뿐이였다.

《일제놈들은 조선민족이 자주적으로 나라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미국도 우리 민족이 국가관리능력이 없다는 구실을 붙여 수십년간의 위임통치를 령장들의 회담때마다 주장해오다가 음모적인 방법으로 38°선을 조작하고 조선을 분렬시켰습니다. 조선민족이 정말로 자주성이 없고 국가관리능력이 없는가? 왜놈들과 싸울 때나 조국에 돌아와 건국을 하면서 우리는 조선민족이야말로 자주성이 강한 민족이며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는 민족이라는것을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만일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각성되지 못해서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조선의 정치인은 그들을 민족자립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장군님께서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서있어야 할 땅은 조선의 땅입니다. 우리가 의거해야 할 력량은 조선민족이외에 다른 력량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엔에 의존한다는것은 결국 미국에 예속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유엔도 지금 미국의 손탁에서 놀고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혁명을 시작한 첫날부터 민중을 믿지 못하고 민족을 믿지 못하고서는 조국광복을 달성할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말씀을 끝낸 장군님께서서는 커다란 충격을 받은 기색들인 김구, 김규식에게 또다시 담배를 태우라고 권하시였다. 김구는 그이께서 권하시여 고불통에 담배를 다져넣기는 했으나 불을 달 생각을 잊고 물주리를 입에 물었다. 그는 70이 넘은 고령에 이른 오늘에 와서야 장군님께서 조선민족을 강성케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으며 애국의 일념으로 용감무쌍해진 투사들을 이끌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다는것을 알았다. 장군님께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일제의 경비가 그중 삼엄한 압록강, 두만강을 넘나들며 무장투쟁을 전개하신 까닭도 오늘에 와서야 똑똑히 알게 되였다. 방대한 회원을 가진 조국광복회가 국경지대는 말할것 없고 서울을 비롯한 국내깊이까지 수많은 조직되였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이것은 장군님께서 그때에 벌써 민족자립의 신념을 조선민족에게 심어주셨기때문일것이다.

38°선으로 해서 분렬된 전조선의 정치인들에게 협상을 호소하여 평양에서 민족대단합회의가 열리게 된것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뭉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지난날에는 상상할수도 없었던, 우익민족주의자들의 대표자인 김구, 김규식이 장군님과 마주앉아 회담을 진행하고있는것도 민족의 힘을 키우시려는 장군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립정주석이였으며 귀국후에는 경교장에 들어앉아 제왕행세를 해온 자기는 어떠했는가? 우선 민족주의자들의 령수로 자처해왔지만 민족을 선도할 심원한 민족관이 없었으며 장군님께서 지니신 거대한 영향력의 100분의 1, 1 000분의 1도 갖고있지 못했다. 그러니 무슨 이렇다할만한 큰일을 할수 있었겠는가.

경무국장으로 들어앉아 립정과 운명을 같이하기 시작한 후 20여년간 한두번의 테로를 조직하여 몇놈의 왜놈을 살상한것이 전부였다. 구태여 공적을 찾자면 립정의 명맥을 부지한것인데 거래들중에서 상해립정이란것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던가. 독립운동자들속에서도 과별이 많아 립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불과 수십명, 엄격히 따지면 그만한 수도 안될것이다.

그런데 립정의 법통을 인정해야 협상에 참가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을뿐아니라 평양에 들어와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그 법통문제를 꺼내서 좌석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번 했다.

(나를 민족주의진영의 령수라고 할수 있는가?)

장군님께서 다시 권하시여 고불통에 불을 달고 담배연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이며 김구는 생각했다. 민족을 위한 경륜도 철학도 없고 민족을 선도할 능력도 없는 자기를 어떻게 민족주의진영의 령수라고 할수 있겠는가.

조선민족을 령도할분은 오직 한분 **김일성**장군이다! 통일천하할 위인도 장군님이시다!

장군님께서서는 말머리를 민족자주련맹의 제안에 돌리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김구와 나누시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앉았던 우사는 황급히 자리를 고쳐잡았다.

《장군님, 가볍고 불민한 행동인줄 아옵시다만 나의 제안은 없었던것으로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나의 제안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김구는 스스로를 누우치는듯한 김규식의 말을 듣고 어지간히 놀랐다. 한독당의 제안을 사리정연하게 분석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신심을 잃었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정색을 짓고 김규식을 마주보며 물으시였다.

《선생님이 내놓은 5개 조항을 전부 철회하겠다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중 1~2개 조항을 철회하겠다는것입니까?》

《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경제의 국가적독점을 금할데 대한 첫째 조항은 북조선에서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이 어떻게 돼서 시행되게 됐는지 알지 못해서 내놓은 제안이옵니다. 그외에도 내가 내놓은 제안에는 오늘회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우리도 그 조항은 오늘의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규식선생이 철회하시겠다면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 말한것으로 되니 우리의 대책안을 내놓을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책안을 놓고 토의를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김구도 김규식도 그렇게 해주시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팔굽을 원탁우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꼬으며 4대구국대책을 말씀하시였다.

첫째 조항은 소련이 제의한대로 미군을 소련군과 동시에 남조선에서 철거시켜 조선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한 실제적조건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장군님께서서는 말씀하시였다.

둘째 조항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철거한 다음에 내란이나 그밖의 무질서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담보하는것이라고 하고나서 그이께서는 왜 그러한 조항을 구국대책안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하시였다.

《선생님들도 아시는것처럼 오늘 저녁에 남북조선 정당, 단체 지도자들이 모란봉극장 별관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공동성명은 남북협상참가자들의 최종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명은 이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문건을 기초로 삼을것입니다.》

내란이나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게 담보한다는것은 협상에 참가한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이 쏘미 량군이 철거한 후 조선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는것으로 된다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셋째 조항은 우리 강토에서 쏘미 량군이 철거한 다음 남북조선 정당, 단체들이 참가하는 전조선정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민족의 총의를 모은 통일정부를 세울 대책을 세우는것이며 넷째 조항은 남조선단독괴뢰정부는 민족의 의사를 반영한 정권이 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면서 반대배격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남북협상에 참가한 남북조선 정당, 단체에 망라되어있는 당원들과 맹원들은 천여만명에 달합니다. 천여만명이 반대하는 남조선단독괴뢰정부가 어떻게 민족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세워질 단독정부는 민족을 반역한자들을 굶어모아서 미제가 조작해낸 매국정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구는 민족이 나갈 길이 일목료연하게 눈앞에 보이는것 같았다. 장군님의 말씀은 한갓 대책안이 아니라 조선민족이 나갈 길을 명시한 대강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감동되고 흥분한 김구는 곰방대를 권 손을 흔들며 명안이라고, 매국노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쌍수를 들고 찬성할 구국대강이라고 웨치듯 말했다.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전혀 의견이 없겠는가고 하며 말을 하라고 거듭 권하시였다. 김구는 말할것 없고 김규식도 의견이 없다고 하며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호방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시였다.

《응당 의문을 품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말씀들을 안하시니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구국대책에는 쏘련이 제의한대로 쏘미 량군이 철군한 후에 공동성명에 서명한 정당, 단체들이 해야 할 과업이 명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남조선에서 철수할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반대로 괴뢰정권을 조작해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군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기는커녕 북조선까지 침략하려고 하고있다는것입니다. 공동성명에서 천명했다고 해서 철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미군이 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남조선괴뢰정부가 조작되면 미국은 선참으로 이 매국정권을 승인할것이고 유엔도 괴뢰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할것입니다. 이런 때에도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민족통일정부를 세우는것을 미루어야 하겠습니까?》

김구의 가슴속에서는 참을길 없는 분격이 소용돌이쳤다.

《조선민족의 총의를 담아 요구를 해도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군하지 않을것으로 장군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믿을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해서 무엇하며 성명은 내서 무엇하니까?》

《민족자체력량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저녁 우리가 서명하게 될 공동성명에는 조선문제를 공명정대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으며 전체 조선민족의 요구가 반영되어있습니다. 그 성명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것은 조선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나라의 리익을 위해 조선을 희생시킬 결심이라는것을 말해줍니다. 앞으로는 단결된 조선민족과 침략자인 미국과의 투쟁이 전개될것입니다.》

김구는 숙연한 감정에 휩싸여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도 이번에 진행되는 남북협상이 민족단합을 목적하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좌익으로부터 우익까지 정견이 다른 각당각파, 전민족을 단결시켜 민족자립을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성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얼마나 웅대하고 심원한 구상밑에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위인이신가!

김구는 얼흔을 잃은 사람모양 그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젊으신 장군님을 이윽히 마주보기만 했다.

그이께서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떤 투쟁을 전개해야 하겠는가, 이 문제를 구국대책안에 반영하지 않은것은 북조선에서 해야 할 과업과 남조선에서 해야 할 과업이 다르고 또 정당들과 단체들마다 투쟁방법이 달라야 하기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북협상에 참가한 모든 정당, 단체들이 접수할수 있는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위급회담에서는 근본적인 구국대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선생님들이 미군이 철거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떤 투쟁을 전개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또 마주앉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때는 한국독립당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자기와 같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늙은이를 그렇게도 감동시키는 장군님과 마주앉을 기회를 다시 한번 갖고싶었다.

《의사를 소통할 필요가 있다면 1번만이 아니라 2번, 3번이라도 시간을 내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구의 청원을 시원스럽게 받아들이시었다.

김규식은 백범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회담이 끝났는데도 백범이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아 김규식은 먼저 숙소에 돌아왔던것이다. 련공을 결심했다고 했으니 필경 장군님께 여쭙 말이 있어 의자에 눌러앉아있었을것이다.

아직도 아퀴짓지 못한 번거로운 상념을 안고 응접실안을 거닐던 그는 김구의 승용차가 철문안으로 들어서는것을 띠여보았다. 자동차는 곧바로 김규식이 들어있는 숙소를 향해 달려왔다. 김규식은 백범을 맞이하려고 응접실문을 열고 복도에 나섰다. 김구는 보자기에 싨인장함을 들고 활개치며 복도를 걸어오고있었다. 그는 응접실에 들어서더니 인장함을 원탁우에 놓고 쏘파에 몸을 던졌다. 우선 서둘러 곰방대를 꺼내어 고불통에 담배를 다져넣었다. 이윽고 담배연기를 내뿜며 애써 흥분을 녹갓힌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립시정부인장을 장군님께 바칠 결심을 하고 뒤에 남았었네.》

김규식은 여간만 놀라지 않았다. 립정의 인장을 바칠 생각을 하다니?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오던 인장을 바칠 결심을 하다니?... 3. 1봉기의 결실로 립정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립정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백범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던가. 인장을 바친다는것은 립정을 바친다는것을 의미하는데 30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대한민국립시정부의 인장을 바칠 결심을 할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남북협상에 응하면서도 립정의 법통을 인정해줄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은 백범이 아니었던가.

《나는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 38°선을 넘으면서도 한가지 문제에서만은 확신을 가질수 없었네. 수많은 정당들이 판립해있고 거기에다 남북으로 분렬되어있는 조선민족이 화합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오늘 전민족을 단합시킬뿐만아니라 외세와 싸워서 나라의 자주독립을 도모할 위인이 바로 **김일성**장군이라는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네.》

김구는 자못 흥분하여 장군님께서 고위급회담의 기본원칙으로 삼은 사상과 립장의 정당성을 곰방대를 쥔 손을 내두르며 부르짖듯 이야기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립정을 지켜왔나? 우리가 환국해서 무엇때문에 하지나 리승만과 싸워왔나?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서가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에게 자주독립을 위한 이론이 있었나? 없었다는것은 어폐겠지만 저급한 생각을 했다는것은 오늘 회담에서 여실히 증명되지 않았나.》

한독당에서 7개 조항을 마련하느라고 당의 중진들이 닷새동안이나 논의를 거듭했지만 조선민족을 모욕하는 어구가 담겨있는줄 알지도 못하고있었다고 김구는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내 경교장에 들어앉아 령수행세를 하기는 했네만 사실 나는 조선민족이 미소량국에 또다시 통락을 당할 비운에 처했다고 생각해왔네. 우사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네. 마지막기대를 이번 협상에 걸고 평양에 와서 7개 조항을 제안했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제안에 기초해서 대책안을 내놓았다고 하셨네만 우리의 제안에 참작할만한 점이 뭣이 있었나. 왜 이렇게 됐나? 나에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선민족을 선도할 방략도 지론도 없었기때문이네. 나는 38°선을 넘어오면서 북조선을 쏘련에 먹히운 땅이라고 생각했네. 북조선을 민주기지라고 하니 공산주의자들의 전국적화를 위한 기지일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조선처럼 외세가 좌지우지하는 조국의 절반땅이라고 생각했단 말일세.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나는 북조선을 조선의 완전자주독립을 위한 기지로 보았네. 우사는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네만 나는 그렇게 보았네.》

백범이 자기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것을 안 김규식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형님대접을 하면서도 그를 고루하고 완고한 고집으로 해서 정계에서 밀려날 날이 머지 않았다고 김규식은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북조선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것은 말할것도 없고 결단성있는 결심까지 했다. 자기는 아직 그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하고 모대기고있는데 백범은 그렇지 않았다.

김구는 담배연기를 힘있게 빨며 결연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결국 립정의 법통을 인정받자고 한것은 조선민족을 단합시키시려는 장군님의 성업을 훼방하는 행동이었다는것을 나는 깨달았네. 법통을 인정받을것이 아니라 립정에 의거했던 애국지사들을 장군님의 성업에 합류시키는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했네.》

《그런데 왜 인장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까?》

김구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감동에 휩싸인 음성으로 말했다.

《장군님께선 참으로 웅심깊고 도량이 넓은분이시네.》

김구는 담배연기를 날리며 때로는 상념에 잠겨 스스로의 말을 음미하기도 하면서 인장을 다시 들고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인장을 바칠 결심을 하게 된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리는 김구의 이야기를 그이께서는 주의깊이 들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구의 말이 끝났을 때 백범의 손을 힘있게 부여잡으시였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회담도 여러번 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있게 리해하고 믿어줄줄은 몰랐다고 하시는 그이의 음성은 도간도간 갈리군 했다. 보자기를 푼 그이께서는 함뚜경을 열고 인장을 꺼내들고 손기름이 뻐 손잡이며 새겨놓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주의깊이 뜯어보시였다. 인장을 다시 함안에 넣은 그이께서는 뚜경을 닫고 립정이 걸어온 다난하고 고난에 찬 역사를 말해주듯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장식쇠가 우그러들기도 한 함을 자세히 살펴보시며 상해로부터 중경에 이르는 험난하고도 아슬아슬한 길을 이 인장과 함께 운명을 같이한 백범선생의 고생을 자신께서도 알고계신다고 하면서 립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립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는 입장을 앞에 놓고 새로운 결심을 다졌을것이라고 생각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입장함을 다시 보자기에 짜시였다.

《우리는 이 입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입장을 김구앞으로 밀어놓으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30년간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지켜온 입장을 우리에게 맡기고 남조선에 나갈 결심을 한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입장을 받을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우리는 선생님의 그 마음이면 됩니다. 이 입장은 선생님에게 더 필요합니다. 협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해도 이것은 투쟁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백범선생의 위치가 중요한것은 립정주석이였기때문이 아닙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장군님을 우러러보며 앉아있던 김구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입장을 바칠 결심을 하기에 이른 또 다른 리유를 말씀드리였다. 미국놈들과 리승만은 남조선에 수립될 단독괴뢰정부가 립정-인장에 밝혀있는바와 같이 대한민국립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라도 한것처럼 그 무슨 이양의식을 할 잡도리를 하고있다. 리승만이 경교장에 찾아와 그런 뜻을 이미 내비쳤다....

《그럴수록 입장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맡기고 나가면 선생님은 우리와 손을 잡았다고 비방을 받게 될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한테 입장을 뺏기고 서울에 돌아왔다고 악선전을 할수 있습니다. 입장을 갖고계셔야 선생님은 립정주석의

직권을 행사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장을 갖고 서울에 나가셔야 합니다.》

김구는 고불통의 재를 털며 북받치는 감개를 누를길 없는듯 말했다.

《이 김구가 이름이 전혀 없지 않은 민족주의진영의 령수로 자처하는 사람인데 장군님께서서는 입장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더라 말이네. 그것도 대한민국립시정부의 입장을 말이네.》

김구의 말을 들은 김규식은 놀람과 감동,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걱정에 휩싸였다. 정계에 이런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도의라는것이 언제 있어보았던가. 백범이 립정의 입장을 장군님께 바쳤다는것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하면 일대 선풍을 불러일으킬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남북협상이 어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게 하는 충격적인 사변으로 될것인데 입장을 받지 않으시다니... 장군님께서 입장을 돌려주신것은 김구의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계시기때문일것이다. 북조선의 단결된 정치력량과 남조선의 좌익과 중간파가 연합을 하면 남조선 우익의 력량은 별로 대단한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역할을 그렇게도 중시해주시는가. 김규식은 순결한 애국심의 새 경지를 새롭게 발견한것 같았으며 자기의 사명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날은 전세계로동계급의 전통적인 명절인 5. 1절이었다. 이날 열병식이 있다는 말을 들은터이지만 로동계급의 명절이니 얼마되지 않는 수백명의 군인들이 로동자시민들속에 섞여 이날을 경축할것이라고 김규식은 생각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휴계실에서 잠시 쉬는 사이에 김규식의 건강을 넘려해주기도 하고 김구, 김규식을 위해 폭신한 의자를 주석단에 놓으라고 일군들에게 지시도 하시였다.

《김구선생은 나이가 많으시고 김규식선생은 무거운 병을 갖고계시니 편안하게 앉아계실수 있는 의자를 올려다놓으시오.》

김규식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벅찬 감동을 느끼며 그이의 존안을 마주보았다. 젊은 나이에 늙은이의 고충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은데 어찌면 이렇게도 세심하신가! 그는 장군님의 부축을 받으며 주석단에 올라갔다.

김규식은 깜짝 놀랐다. 드넓은 역전광장에 현대적무기로 무장한 조선의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짓고 부동의 자세로 서있는데 끝을 가려볼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시력을 긴장시켜 네모진 밑집대형을 형성한 대오들을 간간하게 훑어봤다. 특히 지휘관들에게 주의를 집중했다. 고문명색으로 군인들을 훈련시킨 쏘련군장교나 하사관이 중대장, 대대장옆에 서있지 않는지 알아보려는것이다. 한명의 쏘련군인도 눈에 띄지 않았다. 주석단을 둘러봤다.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각종 명색의 열병식에는 미군장령, 장교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조선사람이란 김규식급의 명인 2~3명에 또 그만한 수의 고위급 조선군인들이 주석단에 등단하는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오늘의 이 주석단에는 장군님옆에 단 1명의 쏘련군장령이 서있을뿐이였다. 이 자리에서도 김규식은 새로운 발견을 한것 같은 느낌이였다. 장군님옆에 서있는 쏘련군장령은 직급으로 보아 북조선주둔군사령관이 분명한데 자기들에게는 나이대접을 하며 의자에 앉게 하시였지만 쏘련군사령관은 서있게 되어있었다. 남조선이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번이나 한 일인가. 김구, 김규식이 폭신한 의자에 앉아있는 주석단에 하자에게

서있으라고 한다면 그는 레의고 뛰고 가릴 생각을 하지 않고 사령부로 가버렸을 것이다. 이날이 전세계 로동계급의 전통적인 국제적명절이어서 장군님께서서는 소련군사령관을 초청한것 같았다.

열병식이 시작된다는것을 알리는 랑랑한 나팔소리가 숙연한 정적에 휩싸여있던 역전광장에 울려 퍼졌다.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장군께 보고를 드리는 의식절차가 진행된후 보병대렬이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하게 주석단앞을 행진해갔다. 수백명을 한사람의 의지로 하나같이 움직이게 하는 대오의 선두에 선 지휘관들도 분명히 조선청년이였고 그들의 구령소리도 조선말이였으며 총을 비껴들고 마치 장쾌한 선률에 맞추어 춤을 추듯 씩씩하게 행진해나가며 만세의 합성을 웨치는 군인들도 조선청년들이였다. 정규적인 민족군대를 무어주신 장군님께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리며 자동총부대, 경기관총부대... 조선의 군력을 긍지높이 자랑하는 무장대오가 끝없이 흘러갔다. 정미년(1907)에 조선군대가 마지막으로 일제놈들한테 해산을 당할 때 너무나도 통분하여 가슴을 치던 조선민족이 이렇게도 위력한 민족군대의 탄생을 보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김구가 걱정을 참을길 없는 모습으로 궁싯거리며 앉아있다가 장군님께 물었다.

《정규군대를 건설하자면 필요한것이 많은중에서도 지휘관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줄 알고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 막강한 무력을 창립하셨소이까? 항일전을 하실 때 데리고 싸우던 지휘관들을 모체로 삼으셨소이까?》

《우리가 조국에 돌아올 때 데리고온 유격대지휘관들이 군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인민들의 열의가 높은것이였습니다. 북조선청년들은 군대가 되는것을 첫째가는 영예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말파리에 중기관총을 싣고 주석단앞을 지나가는 대오에 답례를 보내고나서 기관총의 손잡이를 틀어쥐고 행복한 웃음으로 해서 터지게 부푼 얼굴로 그이께 경모의 인사를 드리는 한 청년을 가리키시였다.

《지금 우리쪽을 바라보며 웃고있는 청년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동무의 이름을 최성근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머리태를 늘이고 서당공부를 하고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최성근이 이 열병식에 참가하기까지의 한해도 안되는 짧은 사이에 어떤 운명적인 전환이 있었는가를 간단히 말씀하시였다. 김규식은 만경대에서 김성란한테 들은 말이 있어 장군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더 깊이 리해할수 있었다.

《우리는 군대를 단순히 조국보위를 위한 역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건국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청년들과 가정을 낳은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양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 최성근동무의 아버지가 아들이 열병행진을 하는것을 보겠다고 평양에 올라왔다니까 지금 관람대에 있을겁니다.》

김성란이 애쓴 보람이 있어 최로인이 련석회의대표들과 함께 관람석에 서있을수 있는 행운을 지니게 됐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였다. 김규식은 최로인을 찾느라고 애쓸것도 없었다. 주석단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마련된 대표들을 위한 관람대의 좌측 계단에 마치 춤을 추듯이 두손을 높이 들고 내두르며 뭐라고 웨치는 늙은이가 내려다보였다.

한손에는 거치장스러워 벗어든 갓을 들고 다른 손에는 장죽을 든 령감이 나이도 있고 아들의 이름을 웨치고있었다. 자기를 좌상으로 한 최씨일가의 운명적인 전환이 너무도 기빠 만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있는것 같았다. 그옆에 최성근에게 손을 흔드는, 웃음이 한껏 피어난 김성란의 해별에 그을은 얼굴이 보였다.

제철소, 궁벽한 산간벽지의 씨족마을, 지어 군대까지 민족자립을 위한 장군님의 리념실현을 위한 변혁의 터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김규식은 알수 있었다.

김구가 또 물었다. 무기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쏘련군한테 이양받았는가고 장군님께 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호방하게 웃으며 아무리 친선적인 나라라고 해도 무상으로 무기를 넘겨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시였다. 무기를 무상으로 넘겨받은 군대는 그 나라에 예속된 군대가 되기 십상이라고 하면서 일부 경무기는 자체로 생산한것이며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만들수 없는 기동수단이나 중무기, 포화력 같은것은 무역을 통해 사들여온것이라고 하시였다.

김규식이 놀랍게 생각된것은 옆에 쏘련군사령관이 있으며 그뒤에는 통역원들이 서있는데 장군님께서 거침없이 민족자립에 대해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이것은 방대한 무력을 북조선에 두고있는 쏘련도그이의 리념을 목인 혹은 지지할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 아니겠는가. 김규식은 아직도 명치끝에 매달려있던 채 풀리지 않은 체증이 순간에 풀려 온몸이 날아오를듯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그의 결심을 방해하던 체념과 의혹, 주저 그 모든것이 마지막 찌끼까지 걷어안고 훔날아버린듯싶었다.

갑자기 갈마바람에 날려온 매지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콩알만한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규식은 얼굴을 때리는 비방울을 감촉하기는 했지만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자기의 운명을 결심해야 할 이 마당에서 비발에 옷을 적시는것쯤 무엇이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문득 비방울을 느낄수 없게 되고 머리우에서 긴장한 사색을 방해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젓히고 눈길을 들었다. 수수한 양복차림의 젊은이가 우산을 펼쳐들고 서있었다. 옆에 앉아있는 김구를 돌아봐도 그의 뒤에 우산을 펼쳐든 청년이 서있었다. 김구가 놀란 눈으로 장군님께서 서계시는쪽을 바라보자 김규식도 고개를 돌렸다. 장군님께서는 대줄기처럼 퍼부어대는 비를 그대로 맞으시며 서계시였다. 로천대회장인 주석단에 푸근한 의자를 깔고 앉아있는것만도 송구한데 비를 맞고계시는 그이를 옆에 두고 우산밑에 들어앉아있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김규식은 황황히 뒤를 돌아보며 젊은이에게 말했다.

《장군님께 왜 우산을 받쳐드리지 않으시오? 장군님께서 우산을 쓰시지 않으면 나도 우산을 쓰지 않겠소.》

우산을 들고 서있는 젊은이가 김규식을 납득시키려들었다.

《장군님께서는 군중들이 비를 맞고있을 때 우산을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우산을 받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사나와서 옷이 젖을수 있는데 숙소에 돌아가면 곧 마른 내의를 입을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규식은 뜨거운 걱정이 가슴속에서 치밀어올라 더 말을 못했다. 비를 그을수 있게 우산을 펼쳐들고 서있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속옷걱정까지 하시는 장군님! 군중들이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쓰는 일이 없으신 령도자...

사나운 비발이 쏟아져내렸지만 장엄한 군중시위는 시작되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비를 맞으며 주석단 한가운데에 서서 발을 구르고 두손을 내두르며 앞을 지나는 37만 평양시민들의 환호에 밝은 웃음을 지은 안색으로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었다. 주체37(194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기어이 초과완수할 결의를 보여주는 가장물과 구호판을 들고 목소리를 합쳐 웨치기도 하고 환호도 하며 주석단앞을 지나는 로동자, 농민들, 황철에서 정준택이 말을 할 때는 그저 귀결에 흘러들었을뿐이던 수자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목적인 공작기계를 비롯한 생산항목들이 이제는 단순한 수자와 항목이 아니라 민족의 래일을 말해주는 생동한 화폭으로 눈앞에 안겨왔다. 남북협상의 성과를 축하하는 구호판과 가장물을 들고 평양시민들이 남조선대표들에게 두팔을 높이 쳐들고 내두르며 목청을 돋구어 환호를 보내면서 주석단앞을 지날 때 김규식은 갑자기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졌다.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청년학생들... 김규식은 장군님을 돌아봤다. 머리와 얼굴은 말할것 없고 옷도 흠뻑 젖어있었다. 시위군중들도 그 모양으로 전신이 물투성이였지만 모두들 환희에 넘쳐 목청을 다해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단합된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 아름답고 감격적이며 장쾌한 대화폭이라고 해야 할것이 아닌가!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장군님, 인민이 비를 맞을 때에는 자신께서도 비를 맞으시고 인민들이 조밥과 죽으로 끼니를 에울 때는 자신께서도 그런 음식을 드시며... 장군님께서 어째서 이런 로고를 바치시겠는가? 령도자와 인민이 한뜻으로 뭉치지 않으면 건국위업을 성취할수 없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삼고계시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자신께서는 인민들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남조선의 고위대표들을 각별히 우대해주시는것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자면 전조선민족의 단결, 바로 이 단합된 민족의 힘에 의거하는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굳게 믿으시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김규식은 비를 맞으며 군중에게 답례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도저히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여겼던 남북협상이 장군님께서 바라는 민족대화합을 이룩하고 폐막을 앞두게 된것도, 8. 15후 불과 3년사이에 그렇듯 막강하고 정예화된 현대적정규무력을 창건할수 있는것도, 북조선의 전체 인민이 민족의 자주위업을 완수하기 위해 일신을 바칠 결심을 하고 그이께 삼가 충성의 결의를 다지는것도 장군님께서 그렇듯 투철한 리념을 지니고 로고를 다해오신 결과가 아니겠는가.

갈마바람에 밀려들었던 무거운 매지구름은 북동방향으로 날려가면서 컴컴한 색깔이 한결 밝아졌다. 비발이 가늘어지면서 실비로 변해갈즈음에 시위는 끝났다. 흠뻑 옷을 적신 장군님가까이에 다가서기가 면구했지만 김규식은 출입문쪽으로 향하시는 그이옆으로 급히 걸어갔다.

《소청이 있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군님께서 김규식의 머리로부터 신발까지 일별하시였다. 무릎도리가 얼마간 젖었을뿐 전체로는 마른옷인것을 본 그이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비꼈다.

《계단이 급해서 도와드리고싶은데 제 옷이 이렇게 젖어서... 무슨 일입니까?》

《장군님께서 오늘 얼마나 큰 수고를 하시는지 나는 봤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소청을 후날로 미루고싶소이다만 내 마음이 조금해 청을 드리는것이옵니다. 내게 시간을 좀 내주실수 없겠소이까? 많은 시간을 침범하지는 않겠소이다. 반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김규식이 한발자욱 앞으로 나서서 장군님의 젖은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참으로 큰것을 성취하였소이다.》

그이께서는 김규식이 무엇인가 비상한 결심을 했다는것을 감촉하시였다.

《나는 젊은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시간을 낼수 있지만 오늘은 날씨가 사나와서 고생이 많으셨겠는데 선생님이 지나친 무리를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산아래서 푸근한 의자에 앉아 조선의 앞날을 확신할수 있는 참으로 감동적인 화폭을 보게 해주시고도 고생을 했다고 하시는것이다. 눈굽이 뜨거워져 눈을 슴벅거리고 서있는 김규식을 지켜보던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점심때는 꼭 쉬십시오. 선생님이 급하게 할말이 있다고 하시니 좀 늦은 오후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4시쯤에 사람이 갈것입니다.》

김규식은 일대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안도감속에 웃음이 어린 눈으로 장군님을 우러러보다 머리를 숙이였다.

정각 4시에 짐장은 젊은이가 승용차에 앉아 상수리숙소를 찾아왔다. 비를 머금은 먹장구름은 갈마바람에 갈가리 찢어져 북동쪽 멀리로 날려가버리고 그뒤에 매달린 꼬리모양의 가벼운 구름사이로 초여름의 찬연한 해빛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뒤설레는 마음을 녹잡히려고 애쓰며 정원을 거닐던 김규식은 곧 승용차에 올라앉았다.

승용차는 물로 씻어낸듯한 모란봉의 깨끗한 산책길을 천천히 에돌아 드넓은 보통벌을 부감할수 있는 연두빛 2층집앞에 이르렀다. 젊은이는 옷매를 바로잡으며 연두빛집에 들어갔다 나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이의 전용차가 현관밖에 서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집안에 계시지 않는 모양이었다. 문득 등뒤에서 장군님의 음성이 들렸다. 김규식은 급히 몸을 돌렸다. 그이께서는 소낙비에 씻긴 신록이 짙은 다복솔과 잡관목사이의 산책길을 걸어내려오고계셨다.

《산보를 좀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초여름 청취가 어떻게나 희한한지 시간가는줄을 몰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손에 들고내려온 꽃들을 젊은 일군에게 넘겨주며 말씀하시였다. 계단을 오를 때는 김규식을 부축해주며 발밑을 조심하라고 하신다.

장군님과 김규식이 들어선 넓지 않은 방에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눌수도 있고 손을 맞잡을수도 있을만큼 두개의 쏘파가 마주 놓여있었고 쏘파옆에 차탁이 붙어있을뿐 얼굴을 마주보는데 방해가 될 가구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다. 차주전자가 놓인 원탁도 방구석으로 밀려나있었다.

《격식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런 자리가 필요할것 같아 좁은 방에 준비를 시켰습니다. 속을 터놓고 말을 나누는것을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하시고 담배도 태우면서 하고싶은 말을 다 하십시오. 선생님과 내가 언제 이렇게 마주앉을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장군님자신부터 속을 푼 터놓을 결심인듯 밝게 웃으며 우선우선 말씀하시였다. 김규식은 장군님을 만나볼 결심을 할 때 자기의 루추하고 어리석은 주저, 편협한 의문같은것은 일체 입밖에 내지 않을 생각이였다. 후회막급한 지난날을 사죄하는외에 할말이 없다면 구태여 장군님께 소중한 시간을 내달라고 청원을 드릴 필요도 없을것이다. 말없이 38°선을 넘어가 스스로의 잘못을 민중앞에서 사죄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만일것이다. 그가 면담을 요청한것은 새 출발을 결심한탓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군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자기에게서 그 무엇인가 중대한 말을 들을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시며 정말로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할수 있는 이런 오בות한 자리를 일부러 마련해주시니 김규식은 그저 황송하기 그지없을뿐이었다.

《나는 분에 넘친 대접을 받을 사람이 못되웁니다.》

김규식은 자기의 결심을 뒤로 미루고 말의 서두를 이렇게 뻗다.

《어제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십니까? 선생님은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는분입니다.》

《그것은 장군님께서서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다 모르기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장군님의 민족자립의 대경륜을 불신했고 남북협상을 쏘련의 적화방략일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련석회의에 일부러 얼굴을 보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선생님의 생각을 대체로 짐작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생님이 량심인의 고민을 하고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크게 개의하지 않았습디다. 선생님처럼 해외에서 오래동안 망명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은분이 어떻게 우리의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생님의 고민을 민족을 위해 여생을 보람있게 바치기 위한 탐색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색과정이라고 간주하셨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상수리숙소에 오신것도 나의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무거운 병을 갖고계신 선생님이 평양에 오셨으니 문병을 하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찾아가긴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선생님이 말한 그런 목적이 없었던것은 아닙니다.》

김규식은 밝은 웃음을 띠우고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존안을 놀란 눈으로 마주봤다.

《나는 지금까지 조선민족을 긍지높은 자주적인 민족으로 되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위업을 방해해왔다고 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의 이런 어리석고 협착한 행위를 량심인의 고민으로 간주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여움이 없이 나를 용서하셨단 말씀이신데 정말 그러하셨다면 장군님께서서는 너무나 관대하셨소이다.》

부끄럼을 타며 눈길을 떨구어야 할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규식은 밝은 빛이 타는듯한 안청으로 장군님을 우러러보며 말했다.

《노엽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내가 노엽게 생각하지 않은것은 선생님이 민족을 위해 오랜기간 노력을 바쳐오셨구 광복후 탈선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미국놈들의 룡간에 걸려든것이지 선생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김규식의 무게있는 자세가 비로소 허물어졌다. 맑은 빛으로 불타던 수북한 눈섭밑의 검은 눈도 바르르 떨리는 눈시울에 반쯤 가리우고 유난히 큰 머리도 밑으로 처져내렸다. 입가의 깊은 주름이며 두툼한 입술도 고통스러운 속죄를 결심한 사람의 몸부림이 느껴졌다. 문득 얼굴을 든 그는 통통하고 자그마한 손을 부르쥐고 마음의 균형을 잃은 사람의 성급한 목소리로 다급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소이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것은 나에 대해 너무나 너그러우셨기때문이옵니다. 나는 남조선정권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고 평양에 온 사람입니다. 하지가 찾아와서 담보를 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어서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한것은 아니오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조선민중에게 다소라도 유익한 일을 할수 있을것 같아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웨다. 나는 리승만과 경쟁을 해서 그를 꺼꾸러뜨릴 결심이였소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뜻밖의 말에 저으기 놀라시였다. 성시백한테서 하지의 담보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기는 했지만 그이께서는 그것을 한옆에 밀어놓고계시였다. 《민주의원》, 《과도립법의원》을 통해 미국이 어떤 룡간을 부리는지 알고있는 김규식이 남조선을 미국놈들한테 내맡기는 하수인이 되려고 할것인가? 도저히 그럴것 같지 않으시였다. 그가 북조선정책에 아직도 의혹을 품고있는것은 리해의 부족에서 오는것이지 권력을

탐내거나 대결을 결심해서가 아니라고 그이께서는 믿고계시었다. 그런데 김규식은 리승만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서라도 남조선괴뢰정권의 대통령이 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김규식도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있는듯 격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다. 집안에서 가끔 신경발작을 일으키곤 한다는것을 알고계신 장군님께서는 우선 그의 흥분을 녹잡히려고 옆탁에 놓여있는 《봉화》 담배곽을 김규식옆으로 내밀었다.

《아직 말씀의 시작을 뺏을뿐인데, 담배를 태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김규식은 담배에 불을 붙여 짙은 연기를 내뿜고나서 절통한 후회를 하듯 말했다.

《나의 생각이 얼마나 용렬했는가 하는것을 나는 근간에 와서야 알았소이다.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에 가보고 나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소이다. 내가 장군님을 알게 된것은 그때부터라고 해야 할것이웨다. 그러나 나는 북조선의 자립성에 의연히 의심을 품었소이다. 황철에 갔을 때 내 자식과 다름없는 서종현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을 해주었소이다.》

김규식은 장군님께서 서종현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했다. 《대국이 득세를 한다고 굴복하겠는가? 민족적량심을 버리겠는가?》 그는 불민한 자신의 과거가 민망하고 부끄러워 앓아눕기까지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김규식은 짙은 담배연기와 함께 긴 한숨을 내쉬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나는 지금까지 강자들의 영향력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갖고있었소이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진리라고 해도, 석벽에 새겨진 철리라고 해도 있는자와 권력의

소유자들에 의해 그 뜻이 외곡되고 전도되기도 한다는것은 내가 한생을 방황한 끝에 얻은 교훈이었소이다. 나는 장군님의 리념에 공감하면서도 조선의 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소이다. 그런데 나는 오늘 바로 그 조선의 힘을 보았소이다.》

김규식은 채 타지 않은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끄고는 새로운 발견을 한 학자의 희열, 번뇌에 시달리던 정치인이 마침내 새 경륜을 찾은 기쁨, 한생을 모지름쓰며 찾던 확고한 진리를 체득한 사람의 걱정이 한데 어울린것 같은, 흥분을 다잡지 못한 얼굴을 들고 70이 불원한 늙은이의 눈같지 않은 맑은 빛이 불타는 안청으로 장군님을 마주보며 웨치듯 말했다.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령도자가 어떤 힘을 창조하는지 나는 오늘 보았소이다. 조선민족은 결코 약소민족이 아니라는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도 깨달았소이다. 나는 굴종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소이다. 내가 새 출발을 하자면 장군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내주실것을 소청드렸소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김규식을 와락 그러안고싶은 심정이시였다. 그렇게도 바라신 바로 그 종착점에 김규식이 도달한것이다. 7~8쯤 나이차이가 있다고 해도 생사를 같이하며 함께 싸운 운명의 동행자였더라면 그이께서는 김규식의 오동통한 손이라도 힘있게 부여잡으시였을것이다.

《선생님들은 높은 식견을 가진분들이고 오래동안 정치활동을 해온분들인데 무슨 조언을 드릴 말이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겸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뿐이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서울에 나가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통령출마를 그만두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반미구국투쟁에서 민족주의진영을 선도하겠소이다. 북의 실상을 민중들에게 알려주면서 반미민중투쟁의 앞장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족주의진영을 반미구국투쟁에 합세시켜야 한다는것은 옳지만 선생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안색으로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어조는 단호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반미구국전선을 편성하는것이 현시기 조선의 정치인들의 초미의 과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규식선생, 김구선생들까지 테로의 대상이 될수 있는 모험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였다.

《선생님들은 민족주의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로세대지도자들입니다. 선생님들이 테로의 희생이 되면 민족자주련맹은 어떻게 되고 한독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그 명성과 함께 자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

김규식은 가슴밑바닥에서 솟구쳐오르는 감동을 어떻게 주체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버려도 아까울것이 없는 구세먹은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말년을 장렬한 싸움에 바치려고 했는데 명성과 함께 목숨을 오래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하시다니! 그의 눈앞은 갑자기 뿌잇하게 흐려졌다.

《장군님, 저희들로 해서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나나 백범이나 이미 인생을 다 산 늙은이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장군님의 사상과 적대되는 정견에 의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정계의 법칙에 의거해본다면 생명이 없는 산송장과 다름이 없는 패자로 되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장군님께서 관용을 베풀어서 환생시켜주셨습니다. 인생말년에 찾은 진리를 위해 진정한 조선민족의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청춘의 혈기를 되찾은 지금 좀 땀뻑한 투쟁에 나섰다가 최후를 맞이한다고 해서 아까울것도 없고 후회될것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백범이나 내가 나서면 한독당이나 민족자주련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뒤를 따를것입니다. 정세가 급박한 이때 목숨의 보존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담배가치를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옆탁에 놓으며 말씀하시였다.

《선생님들이 자신을 보존하면서 민족을 위해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할 방도가 있을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남조선에는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자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다. 현재는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 이 단체의 명칭을 통일독립촉진회라고 바꾸어달고 이 단체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우익과 중간 정당, 단체, 그리고 남조선단독괴뢰정부수립을 반대하는 반미, 반리승만세력을 전부 망라하면 참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위력한 통일전선체로 될것이다....

《김규식선생과 김구선생이 반드시 이 통일전선체의 의장, 부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반미구국전선이라는 명칭은 달지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히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특수한 형태의 구국전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것입니다.》

김규식은 그저 감탄해서 장군님의 존안을 덤덤히 마주볼뿐이었다. 자기가 반미구국전선의 일원이 되어 우익진영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지 10여분도 안되는데 그 유명무실한 독립운동자협의회를 반미구국전선의 별동대로 만들 생각을 하시다니... 그이의 비상한 사고력에 김규식은 그저 놀랄수밖에 없었다.

《구국전선의 특수한 형태라고 해도 어차피 민족통일정부수립을 지지해야 하고 남조선괴뢰정부를 반대해야 할것이 아니겠소이까. 미군철수를 요구해야 할것은 더 말할것도 없을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를 즉시 탄압할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는 반대도 지지도 하지 않는 불반대불찬성의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축진회의 활동은 남조선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대통령출마를 그만두면 리승만이 대통령이 될것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남조선괴뢰독재정권을 반대한다, 미군의 철거를 요구한다, 이것은 반미구국전선의 투쟁목표와 비슷한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민족주의진영에서 응당 추켜들어야 할 정강이 아닙니까?》

김규식은 격렬한 감동으로 해서 뇌수의 기능이 마비된것 같았다. 놀라고 감동된 휘둥그레진 눈으로 밝게 웃고계시는 장군님의 얼굴을 한동안 마주보기만 했다. 수십년간 감동이란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얼어붙고 늪어빠진 심장을 어찌면 이렇게도 뒤흔들게 하시는가! 며칠후 서울에 나가서 장군님의 자주적인 시책과

경이적인 성과, 남조선과는 정반대인 활력에 넘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정형,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만든 북조선농민들의 애국적열의, 그 무엇보다도 경이적인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의 성장과 의식변화... 몇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없는 북조선의 현실과 영명한 **김일성**장군의 걸출한 령도를 기자들앞에서 피력하면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킬것이며 민족통일정부는 더 많은 남조선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수립될것이 아닌가.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자기와 백범이 려운형과 같은 참혹한 최후를 맞이할가봐 쉬운 길을 택하게 하려고 하신다. 김규식이란 이 사람과 김구가 그렇게도 값있는 존재였던가.

김규식은 떨리는 손을 장군님의 무릎우에 놓고 눈물에 흠뻑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나라는 인간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리도 아껴주십니까. 백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장군님의 경륜실현에 몸을 바친다한들 후회될것이 없는 몸들이운데 어찌면 이리도 귀히 쳐주시옵니까. 내 오늘 사나운 비속에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시위군중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의 울음은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고 굳게 단결된 민족의 모습에 감동되어 울었지만 지금은 장군님의 덕망과 경륜으로 빛날 래일의 3천리강산이 눈앞에 보여서 눈물을 흘리웁니다.》

말을 끝낸 김규식은 그 어떤 령감이 머리에 번개친듯 수북한 눈섭밑의 검은 눈이 열정에 넘쳐 황황히 불탔다. 장군님을 이윽히 마주보는 그의 눈이 불이 달린 심지인양 불꽃을 날렸다. 그는 독백하듯 혼자말을 중얼거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외세의 간섭과 악랄한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민족대단합을 이룩한 위대한 령도자이시옵니다. 약소민족으로 알려진 조선민족에게 위대한 미래를 안겨준 령수이십니다. 내 시 한수를 읊겠소이다.》

김규식은 장군님의 응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은근하면서도 온 방에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시를 읊기 시작했다.

작은 꿈도 미처 채우지 못해
 꿈에 시달리며 살던 불우한 겨레여
 큰 꿈을 품은자는 발디딜 땅이 없었더라
 내 안고 모대긴 겨레속에
 위대한 꿈을 안은이 그 몇이던가
 민족에게 위대한 꿈을 심어준 위인을
 내 일찌기 알지 못했어라
 힘이 모자라 불우한 운명을
 구슬픈 노래에 담아보낸 나의 겨레에게
 불우한 운명을 털고 일떠세운 기적의 위인을
 내 뵈었나니 유구한 옛 도움 서경에서
 그이는 우리의 장군
김일성장군!

수많은 군중을 앞에 둔듯 틀어진 주먹을 머리위에 높이 추켜들고 결구를 웨친 김규식은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오늘 저녁에 있기로 된 연회에서 내 이 시를 읊겠소이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어린 모습으로 장군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우선 그 시는 나에 대한 지나친 찬사이고 다음엔 선생님이 나하고 약속한것을 여기는 일이기때문에 그래선 안됩니다. 통일독립촉진회 부의장이 취해야 할 범위를 평양에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김규식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장군님의 손을 덥석 모두어잡았다. 그는 혼신의 힘을 바쳐 부르짖었다.

《그러하다면 우리 민족을 위대한 꿈, 위대한 사상의 소유자로 만들었다는것만이라도 인정해주시오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다른 한손으로 김규식의 손을 굳게 잡으며 겸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것도 선생님의 지나친 평가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성실하고 근면하며 용맹할뿐아니라 단결력이 강한 우수한 민족입니다. 지금까지 위정자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계발하지 못해서 망국의 설움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정책을 내놓고 계발했을뿐입니다. 아직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북조선에서 얼마간의 성과를 달성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인민의 공적입니다. 우리 인민의 공적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김규식은 모두어잡았던 장군님의 손을 놓고 그이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난히도 큰 머리를 깊이 떨구고 꿇어앉아 량어깨를 후두둑후두둑 떨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감개를 바이 표현할 방도를 찾을수 없어 뒤늦은 례의를 이제야 차리오니 저의 절을 받아주시오이다.》

종 장

김구, 김규식은 승용차에 앉아 귀로에 올랐다. 38°선을 향해 달리는 차중에 앉아있는 김규식은 지금도 머리에 가득차서 심장을 들먹거리게 하는 지난 보름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근 70년간 다난하고 곡절많은 길을 걸어온 그에게 있어서 보름이란 순간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과거에 체험한 모든것을 무색케 하는 사변으로 가득찬 나날들이었다.

그는 배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농촌마을이며 거름을 내고 논밭갈이를 하느라고 전야에
 널려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차창을 거쳐 내다보며 이틀전에 쑥섬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정치협상회의를 더듬어보고있었다.

한사정여울을 한옆에 끼고 햇순이 돌아나는 쑥이 한벌 널린 대동강 한가운데의
 모래섬, 한채의 원두막앞의 버드나무밑에서 돛자리를 깔고 진행한 정치협상회의, 비록
 자리는 소박하고 수수했지만 얼마나 뜻깊은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력사적회합이었던가.

장군님의 접견을 받은 다음날인 5월 2일이였다. 그는 또다시 그이의 부르심을
 받았다. 상수리숙소에서만도 김구를 위시해 조소앙, 엄항섭 등 한독당의 상무위원
 여럿이 초청을 받았고 민족자주련맹에서도 상무위원 최동오가 동행하게 된것으로 보아
 장군님께서서는 고위급회담때 제기한 백범의 소청을 참작하신것 같았다. 쑥섬으로
 건너가기 위해 평천나루터에 당도해보니 련맹의 2인자이며 민주독립당 위원장 홍명희,
 원쑈놈들에게 억울하게 참살당한 려운형의 권능을 대행하는 온건한 좌익의 대표자인
 근로인민당 부위원장 백남운도 이미 와있었다. 북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김책이
 도하장에 도착했다. 김규식은 이날의 모임이 여간만 중요한 회합이 아니라는것을
 직감했다.

좌익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간세력, 우익민족주의진영 대표들의 모임이 분명한데
 어째서 초청자의 대부분이 남조선민족주의진영의 지도적인물로 이루어져있는가?
 하지전의 차거운 강물에 들어서서 수영도 하시고 친히 반두를 들고 대동강의 송어를

건져내기도 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식사가 준비되자 김구, 김규식을 량옆에 앉히시고 버드나무밑의 좌석에 자리를 잡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협상회의에 대한 소감이며 회의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의견을 듣고싶다고 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유엔이 생겨난이래 처음으로 그들의 결의를 배격하고 자주권을 행사한 용감한 민족이라고 흥분해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으며 협상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의사를 담아 소련군과 동시에 미군도 남조선에서 철거할것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는것으로 보아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장군님의 고견을 듣고싶어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었다. 자기 생각에 골몰해있던 한독당의 한 상무위원이 자못 심중한 기색으로 말씀드렸다.

《5. 1절날 군중시위를 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판을 들고 행진해나가는 청년들도 보았고 남조선대표들에게 공급되는 담배갑에도 그런 구호가 인쇄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장군님께서 그런 국호를 가진 민족단일정권을 수립할 결심이라는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시는지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싶소이다.》

밝은 웃음을 띠운 표정으로 오가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제기된 질문을 심중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시던 장군님께서 자리를 고쳐잡고나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으시였다. 그이께서 말씀을 하시려다는것을 안 좌중은 숙연한 빛을 띠우고 장군님께 눈길을 모았다.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모임은 여러분의 그러한 근심에 해답을 주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제와 사대매국노들이 남조선단독괴뢰정부를 조작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조선의 분렬을 장기화하려는 조건에서 미군철거와 남조선단독괴뢰정부를 배격하는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조선민족은 반드시 자주적인 통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한줌도 안되는 사대매국노들을 내세워 남조선단독괴뢰정부를 조작해내여 그것이 마치 조선의 합법적정권인듯이 행세하게 하려는 조건에서 진정한 자주적인 민주주의통일정권을 갖는것은 조선민족이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민족적권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미국놈들이 남조선에서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북조선인민들은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립법기관을 능히 선거할수 있다고 그이께서는 그 방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북조선에서는 직접선거를 하고 남조선에서는 지하에서 비밀리에 대표들을 선거하여 북조선의 어느 한 지역에서 대의원을 선거하는 간접선거를 하면 될것입니다. 미국놈들이 아무리 총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자주적인 통일정부수립을 념원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망을 짓밟아버릴수는 없습니다.》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경이에 찬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며 말씀을 들었다. 민족단일정권수립방도까지 장군님께서 설계하고계실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였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통일정부수립전야에 남북의 당, 단체지도자들이 다시한번 모여앉아 정치위원회를 갖기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가서 성명에 있는대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통일정부의 합법성을 내외에 천명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회의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이 자리에 계신 백범선생이나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참가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에 관여하면 미국놈들에게 탄압을 받아 신변에 위협을 받을수 있고 남조선에서의 정치활동이 봉쇄당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민족주의진영의 정치인들을 오늘의 모임에 많이 참석시킨 까닭을 김규식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별고없이 보람있게 보내게 해주시려는 장군님의 은정이 하도 고마와 어제 저녁의 연회에서 김규식은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을 터뜨리고싶은것을 겨우 참았다.

그이께서는 남북협상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전민족적인 구국통일전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시였으며 통일전선에 망라된 정당, 단체들은 자기의 성격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구,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한독당과 민족자주련맹에 망라된 민족주의진영의 인사들은 원썩놈들의 테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능숙하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오늘의 이 모임을 한차례의 정치협상회의라고 생각하고 회합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민족단일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것입니다.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민족을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할 것이며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되는 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입니다. 백범선생,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이 자리에 모인 민족주의진영의 여러 선생님들은 특수한 형태의 구국통일전선의 지도성원이 되어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김규식선생하고는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백범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과 관련해서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 불간섭의 원칙을 지키면서 남조선단독괴뢰정부를 반대배격하는 투쟁에서 시종 확고부동한 태도를 취해주시겠습니까?》

김구는 장군님께 깊은 절을 드리기라도 할것처럼 그이를 향해 자세를 바로잡고 엄숙한 모습으로 말씀드렸다.

《늙은 고목에 지나지 않는 과인에게 장군님께서 그렇듯 마음을 쓰시니 나로서는 할말을 찾을수 없소이다. 서울에 돌아가거든 장군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이다.》

구국통일전선의 특수한 형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 차창밖에서 일렁이며 흘러가는 전원풍경을 내다보며 김규식은 장군님의 민족자립사상을 대강으로 삼은 민족단일정권이 탄생하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보름전에 서울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도 용감하게 우리 민족이 자주권을 행사하여 통일정부를 세우게 되리라는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던가.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질적으로 비약한 스스로의 내심을 투시해보는 김규식의 얼굴에 느긋한 웃음이 퍼져나갔다.

남북협상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38°선을 넘는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을 수백대의 자동차에 분승한 남조선인민들과 정치인들이 분계선가까이에까지 마중나와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김규식을 맞이해준 사람들은 환영군중만이 아니었다. 하지와 서울에 틀고앉은 미국의 실권자들이 과격한 경찰계의 우두머리들도 그를 친절하게 맞이했다. 김규식이 북조선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남조선정권의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을 의사를 표명하면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항거를 얼마간 녹찰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했던것이다.

그러나 김규식은 김구와 함께 장군님께서 기대하신 그대로 미제의 회유와 위협을 박차고 줄기찬 반미투쟁을 전개해나갔다. 서울에 돌아간 김규식은 김구와 함께 통일독립촉진회를 발족시켰다. 촉진회에 《단선단정》을 반대하고 미군철거를 주장하는 무려 80여개의 정당, 단체들을 망라시켰다. 김구가 주석이 되고 김규식이 부주석이 됐다. 그는 수백명의 기자들앞에서도,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단선단정》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자주적인 정치가 실시되고있는 북조선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김규식이 이렇게 었서나가는것이 대통령의 권좌에 올려앉히겠다는 자기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있다고 생각한 미국의 실권자들은 리승만을 정계에서 몰아낸다는것을 실지 보여주려고 했다. 리승만이 립후보한 서울동대문갑구에 최능진(군정청경무부 전 수사국장)을 립후보로 내세워 리승만을 락선시킬 잡도리를 한것이다. 김규식에게 요구하는것은 남조선정권의 대통령이 되겠다는것과 남조선단독괴뢰정부가 민의를

대변한 정부라는것을 성명해달라는것이였다. 김규식은 이에 대한 거부성명을 내는것으로 대답했다.

민주주의통일정권창건을 앞두고 성시백이 평양에 들어왔다. 남북협상을 호소하시던 그때부터 제작을 추진시켜오던 국기, 국장이 최근에 완성되여 장군님께서서는 책임부관에게 국기를 한폭 가져오게 하여 곧 성시백의 숙소를 향해 떠나시였다. 성시백은 장군님께서 김규식과 마주앉으셨던 바로 그 연두빛집에 류숙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석양빛이 가득찬 보통벌이 내려다보이는 그 연두빛집앞의 로송아래에서 성시백과 마주앉으시였다. 성시백은 곧 김구, 김규식이 발족시킨 통일독립촉진회가 남조선에서 진행된 간접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다. 장군님께서 쑥섬회담에서 말씀하신 남북총선거는 8월 25일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원쑤놈들의 폭압이 살판치는 남조선에서는 15일부터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선거(련관장에 이름을 쓰고 지문을 누르는 형식)를 진행하여 대표들이 해주에 모여 8월 25일에 대의원을 선거하게 되어있었다. 그이께서는 웃음지은 안색으로 손을 저으며 성시백의 말을 밀막으시였다.

《그 이야기는 후에 들읍시다. 성시백동무에게 꼭 보여주고싶은것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냅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책임부관이 들고 올라온 보자기를 달래가지고 기발을 꺼내드시였다.

《보시오. 우리 국기입니다. 우리 정권이 창건될 때 게양할 국기입니다. 선전부장동무가 가져온 국기를 보니 성시백동무생각이 나서 잠깐 시간을 냅습니다. 김구, 김규식선생에게도 기발을 보낼 생각입니다.》

성시백은 국기를 받아들기는 했지만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듯 선뜻 기발을 펴지 못했다. 안경을 벗어 눈굽을 닦은 후에야 천천히 기발을 펼쳤다.

《이 기발이 우리 나라 국기입니까! 이 기발이 우리 정권, 통일정권의 기발입니까!》

성시백은 너무나 감동되어 기발을 들고 부르짖었다. 붉은색을 바탕으로 한 흰 동그라미안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는 오각별, 푸른색, 흰색띠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룬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결하고 독특한 기발!

《전 이렇게 아름답고 승엄한 기발을 처음 봅니다. 아, 이런 훌륭한 기발이 우리 나라, 새로 태어나는 민족단일정권의 기발이란 말입니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에 이렇게 아름답고 독특한 기발을 가진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겁니다!》

《성시백동무의 마음에도 든다니 됐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웃음띠운 음성으로 유쾌히 말씀하시었다.

성시백은 기발을 보자기에 싸는 책임부관의 손길을 지켜보며 잠시 주저하는 기색이더니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무엄한 소청인것 같습니다만 이 기발을 저에게 주실수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가지시오. 그런데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등포방직공장에 조순옥이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내가 왜 순옥이를 모르겠습니까? 허헌선생한테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마동삼동무의 애인이 아닙니까? 허헌선생은 그 순옥동무가 영등포로동자지구에서 대의원으로 선거될것 같다고 하던데...》

성시백은 눈길을 내리깔고 그늘진 얼굴빛으로 나직이 말씀드렸다.

《그렇게 될수 있었습니다.》

성시백은 조순옥의 신상에 들이닥친 불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영등포로동자들은 조순옥이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는것을 한결같이 지지했다. 해주에 파견될 대표로 제일 선참 선출된 사람도 조순옥이었다. 폐허로 된 어둡시근한 공장에서, 밤에는 미제놈들에게 억울하게 참살당한 선렬들이 묻힌 공동묘지에서, 조순옥은 통일중앙정권창건을 위한 이번 선거의 의의를 유권자들에게 열정에 넘쳐 해설했다. 로동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다른 유권자들 대부분도 조순옥을 지지해 련판장에 자기 이름을 쓰고 지장을 눌렀다.

조순옥은 련판장을 지고 다른 2명의 대표들과 함께 무사히 개성교외의 천마산줄기에 이르렀다. 천마산의 서남쪽경사면을 리용해 38°선을 넘을 생각이였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가파로운 비탈을 뚫아오르기 시작했다. 이 산을 넘으면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이 된 북조선땅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들먹거리며 걸음을 다그쳤다. 산등성이에 거의 올라섰을 때였다. 고함소리와 함께 야무진 총성이 울렸다. 남조선에서 선거된 수많은 대표들이 각이한 통로를 거쳐 북으로 들어간다는것을 눈치챈 미제침략자들이 경찰과 깡패들까지 총동원하여 38°선일대에 덫을 쳤던것이다. 3명의 대표는 있는 힘을 다내여 산등성이를 향해 달려올라갔지만 탄알의 속도를 당해낼수는

없었다. 원썩놈들은 탄막으로 앞길을 차단하고 추격해왔다. 3명의 대표들이 이 심산속에서 희생되어야 할 급박한 정황이었다. 조순옥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등에는 철창도 죽음도 가혹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대표로 선출해준 찬성자명부(련판장)가 있었다. 순옥이는 등에 젖던 련판장을 옆에서 달리는 남성로동자등에 지워주며 부르짖었다.

《련판장이 원썩놈들의 손에 들어가게 해서 안돼요! 뒤일을 부탁해요!》

남성대표는 조순옥이를 붙들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숲이 우거진 산비탈로 달려가며 일부러 돌을 굴리고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조순옥을 뒤쫓아가는 한무리의 검은 그림자가 얼씬거렸다. 몇방의 야무진 총성이 울리더니 조순옥의 발걸음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조순옥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그는 피칠갑을 한 다리를 끌며 개성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면서도 시민들을 향해 건결히 부르짖었다.

《나는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북으로 가던 남조선인민들이 선거한 대표입니다.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모두다 통일정부를 절대지지합시다!》

개성에 있는 막내동생이 긴급통보를 해주어 성시백은 이 사실을 당일에 알수 있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조순옥동무에게 공화국기발을 들여보내주겠다는것이겠습니까?》

《38°선을 무사히 넘었으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돼서 평양의 하늘에서 펄럭이는 공화국기발을 볼수 있었겠는데, 옥중에서라도 우리 나라 기발을 보게 하고싶습니다.》

보라빛어둠이 안식을 찾아 내려앉기 시작한 풀숲을 밟으며 무거운 걸음을 옮기던 장군님께서서는 준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옥중에서라도 공화국기발을 보게 해야 합니다. 나는 성시백동무의 생각에 찬성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기발을 성시백에게 돌려주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성시백동무는 조순옥동무가 체포됐으니 대의원이 될수 없는것처럼 말하는데 그럴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조순옥동무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할 의향이였다면 옥중에 있건, 그 어디에 있건 대의원으로 선거해야 합니다. 허헌선생을 성시백동무에게 보낼테니 조순옥동무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할 방도를 의논해보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운 걸음으로 산비탈을 걸어내려가시였다.

8월 25일 총선거의 날, 온 북조선의 마을과 거리, 집들마다에서는 어둠이 아직도 청신한 새벽대기를 물들이고있을 무렵부터 법석 끊어번졌다. 산뜻한 나들이옷으로 단장한 사람들이 행복과 희망에 넘친 얼굴을 빛내며 벌써부터 북과 장고를 두드리고 새납과 나팔을 불어대는 선거장으로 몰려갔다. 선거장의 앞마당에 들어서면 길목에는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칭송하는 구호를 모신 푸르청청한 술문이 서있었다.

북조선의 그 어디에서나 일대 경사를 맞이한 명절분위기에 휩싸였지만 승호지구의 23호선거구의 인민들은 남다른 감격과 흥분을 안고 이날을 맞이했다. 지난해 11월 3일 경애하는 장군님을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한 자랑을 안고있는 이 선거구의

인민들은 올해에도 그이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하는 영광을 또다시 지냈다. 북조선에서 제일 선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립후보자로 추천한 승호리세멘트공장 로동자들, 이곳 농민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인 그이께서는 이틀전에 현지에 나오시여 수만군중들앞에서 연설을 해주시였다. 이런 영광을 받아안은 이곳 인민들이 어떻게 날이 새기를 기다릴수 있겠는가. 연회색어둠이 아직도 이 땅을 떠나기 아쉬운듯 청신한 대기를 물들이고있을 때부터 유권자들과 아이들이 새납과 나팔소리가 새벽대기를 뒤흔들며 울려퍼지고 장고와 징을 두드리며 춤을 추는 선거장 앞마당에 모여들었다.

이러한 흥분, 이러한 희열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멀리 두만강가의 유선탄광선거구에서도, 평북도의 대령강가의 외진 산골군의 선거장에서도 끊어번졌다. 유선에서는 전호준이 대의원립후보자로 추천되어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산간에서도 궁벽한 대령군에서는 김성란이 립후보자로 등록되어 유권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북조선의 도시, 벌방, 산간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은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우게 된 감격과 기쁨을 안고 선거에 참가했으며 온종일 환희에 넘친 명절기분에 휩싸여있었다. 북조선에서는 유권자의 99. 97%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98. 49%가 립후보자에게 찬성투표했다.

바로 이날 해주극장에서도 21일부터 시작된 나흘동안의 토의를 끝내고 남조선에서 추천된 1 002명의 대표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360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거했다. 원래 1 080명이 대표로 추천됐지만 조순옥처럼 38°선을 넘지 못한 대표들이

78명이나 되었다. 대표들은 남조선유권자 77.52%의 지지를 받아 사선을 헤치고 해주에 왔다. 선거된 의원들가운데는 남조선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홍명희, 백남운, 리병남, 리극로, 류영준과 같은 명사들이 들어있었으며 조순옥도 의원으로 선거되었다.

전민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련석회의가 개최되었던 그 수려하고 아름답고 유서깊은 모란봉극장에서 민족단일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주체37(1948)년 9월 2일이였다. 남북련석회의때처럼 주석단 한가운데 앉아 회의장을 가득히 채운 의원들을 내려다보는 장군님의 심중은 류다르시였다.

광복후 자주적인 국가건설을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제시하신 장군님의 뜻이 마침내 성취되었으니 어찌 감회가 깊지 않을것이며 마음이 뜨겁지 않겠는가! 지난 3년간 얼마나 복잡다난한 수많은 문제들이 총로선관철을 방해하고 얼마나 엄청난 난관들이 앞을 가로막았던가. 그러나 그이께서는 길림감옥에서 무르익히고 카툰에서 선포한 주체사상, 그 심오한 철리를 민족문제해결의 리념으로 삼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오시였다. 장군님께서도 인간일진대 어찌 고뇌가 없을수 있으며 좌절감이 마음을 파고드는 때가 어찌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이께서는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고 민족자주만이 조선이 갱생변영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품고 전민족을 오늘에로 이끌어오시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집요한 침략책동, 민족리간행위, 조국의 량단, 남과 북을 차지한 쏘미량군의 존재로 하여 창궐하는 외세의존사상… 자주적인 정권을 건설하려면 안으로는 우선 사대주의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뿌리뽑아야 하였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장구한 기간 부식시킨 사대주의로 하여 정계에서 내노라는 사람들도 민족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때문지 않은 근로하는 인민들을 믿었으며 단결력이 강하고 용감한 조선민족을 믿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자립사상을 민족의 재생과 번영의 대장으로 높이 추켜들고 전민족을 자주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통일중앙정권의 탄생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기 위해 570여명의 남북의 전조선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남조선에서 진행된 총선거는 장군님께서 추켜드신 민족자립사상을 전민족이 지지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첫날회의에서 받아안은 흥분과 감회를 안고 이미 인민적토의를 걸친 헌법을 지지찬동하는 대의원들의 토론도 듣고 의정에 포함된 여러가지 안건들을 통과시키는 회의도 지도하시였다.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격동적인 감동에 휩싸여 두손을 높이 들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며 목이 쉬게 만세의 환호를 웨치며 **김일성장군**님을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추대했다. 장구한 기간 항일대전을 전개하여 조국을 광복하신 전설적영웅, 국토가 분렬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단일정권을 탄생케 하신 영명한 령도자, 그이를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갈 민족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추대하기를 열망해온 념원이 실현된것으로 하여 대의원들은 두불을 적시며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9월 9일 장군님께서서는 정부를 구성한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온 세계를 향해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김책, 홍명희들이 부수상으로 임명되었으며 정준택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녔다. 최용건은 민족보위상, 허정숙은 문화선전상, 백남운은 교육상, 리용은 도시경영상, 리병남은 보건상, 리극로는 무임소상... 허현은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선거되였다. 전호준은 산업성 부상으로 등용되였다.

공화국정권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국가의식이 모란봉극장 앞마당에서 진행되였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모란봉기슭은 말할것도 없고 평양시내에까지 울려 퍼졌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

의식에 참가한 대의원들, 방청자들은 송엄한 감정에 휩싸여 옷깃을 여미고 엄숙한 자세를 취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완성되여 기쁨 때나 괴로우실 때나 장군님께서 수없이 자주 불러온 노래, 조국에 대한 한없이 깊은 사랑이 담긴 노래, 애국의 념이

응결된 승업하고 장중한 조선의 노래... 애국가가 완성된후 맑고 아름다우면서 장중한 이 노래를 인민들에게 보급하고싶어하는 일군들의 제기를 그이께서는 계속 막아오시였다. 남북협상참가자들에게만이라도 조선선물로 된 우리 나라 국가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제기도 밀막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선포하는 이날을 기다리며 그이께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불러오신 노래가 바로 이 애국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기게양대에 이르러 아름답고 선명하며 순결한 공화국기발을 애국가의 주악에 맞추어 서서히 하늘높이 게양하시였다. 감격과 걱정을 참기 어려워 대의원들속에서는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장군님의 눈앞도 뿌잇해지시였다. 몽롱한 안개속에서 붉은 오각별만이 찬연한 빛을 뿌리며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듯싶었다. 문득 안개가 걷히면서 남북조선 삼천리에 나뭇기는 수십만의 공화국기발의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듯 싶으시였다. 공화국기발을 받은 김구, 김규식도 이날 민족단일정권의 창건을 선포한다고 알려줬으니 지금쯤 평양의 하늘을 바라보고있을것이다. 기발을 받은 조순옥은 어떻게 하고있을까? 철창밖으로 기발을 내두르며 공화국창건 만세를 부르짖고있을것이다.

장군님께서 국기게양을 끝내고 몸을 돌려 대의원들의 앞에 서있는 내각성원들을 바라보시였다. 좀해서는 눈물이라는것을 모르는 김책의 눈에도 맑은 이슬이 그득히 고여있었다.

조선민족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일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찬연한 빛을 뿌리며 세상에 태여났다. 북과 남 3천리강산 그 어디에서나 조선인민은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발밑에 굳게 뭉쳐 외세의 간섭이 없는 부강한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1234

편집후기

작가 김수경은 오늘의 평양시 순안구역 재경리의 한 빈곤한 간이학교 교원가정에서 맏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평양에서 보내고 8. 15전에 남강원도로 이주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하여 7년간의 군대복무를 끝내고 제대된후 작가동맹기관지 《문학신문》에서 10년, 문예출판사에서 10년간 기자편집원생활을 했다. 그 기간에 수많은 실화문학과 함께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작품 《무호섬》을 썼다. 소설이 많지 못한것은 결코 창작적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렇게도 구하기 어려운 쫓박종이를 앞에 놓고 소설습작을 해온 그가 어떻게 창작을 외면할수 있겠는가. 작가가 제대와 함께 《문학신문》기자가 될수 있는것은 군대생활을 할 때 작가동맹에 단편소설을 투고하군 한것이 인연으로 되었기때문이었다. 20년간 소설을 많이 쓰지 못한것은 당에서 맡겨준 본신임무 이외에 다른것을 생각할줄 모르는 외골박이성미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50고개를 넘었을 때에야 청년시절부터 품어온 소설창작을 전업으로 하는 작가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한후 영예롭게도 수령형상작품을 전문으로 창작하는 4.15문학창작단의 작가로 되어 환갑을 넘긴지도 세해째되는 주체83(1994)년에 혁명소설 《승리》를 세상에 내놓았다.

작가의 올해 나이는 예순아홉이다. 그러나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이 보여주는것처럼 붓은 조금도 무디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작가로서 더욱 원숙해졌다는것을 느끼게 한다.

소설가 김수경은 뒤늦게 창작계에 발을 들여놓은 아쉬움을 남은 여생으로 보충할 결심인것 같다.

우리는 작가가 이 소원을 로당익장의 열정으로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고있다.

독자들은 이번에 출판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여났는지 더욱 깊이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편집부는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김일성조선, 사회주의 내 조국을 강성대국으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있다.

편집부

- 끝 -

-> 이 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습니다.

